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협력국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국가를 중심으로

2026. 07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협력국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국가를 중심으로

2026. 7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연구원

고 요 한

• (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과장

김 인 영

• (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전문관

송 연 재

• (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대리

안 미 선

• (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전문관

윤 유 리

• (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과장

정 상 희

• (현)계명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양 용 현

• (전)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인턴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고요한, 김인영, 송연재, 윤유리, 안미선, 정상희. 2026. **협력국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국가를 중심으로**. 성남: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인류 최대의 발전 목표이다.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존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발전을 지향한다. SDGs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대원칙 하에 설계되었다. SDGs는 방대한 지표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Ps(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라는 5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SDGs 목표 수립 이후 10년이 흐른 현재, 전 세계적인 이행 현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글로벌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69개 세부목표 중 35%만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무려 48%의 목표는 진전이 미흡하고, 18%는 오히려 2015년 기준선 아래로 후퇴하였다. 팬데믹, 기후위기, 지정학적 분쟁 등 다차원적 복합 위기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이행 역량을 파괴하고 국가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 역시 온실가스 배출 및 재난 피해로 인해 SDG 13번에서 성과가 퇴보하고 있고, 중남미는 성장 잠재력 부족과 고도의 불평등이라는 개발 함정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는 부채 부담 급증과 ODA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SDGs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지표들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 간 긴밀한 시너지와 인과망을 형성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특히 SDG 4번은 타 분야의 역량 형성을 위한 촉진제이자 불평등 해소의 핵심 상류 동력(Upstream Driver)으로 확인되며, SDG 3번은 빈곤 탈출과 인적자본 형성의 필수적 조력 목표(Enabler)로 작동한다. SDG 16번 또한 다른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연계 메커니즘 하에서 개발협력 역시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개입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은 무상원조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

2030)'을 수립하고, 무상분야의 단일 전략목표 체계와 함께 대표 무상원조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는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 수립 대상국인 46개 협력국을 중심축으로 이들의 SDGs 이행 현황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남은 5년간의 이행 기간 동안 한정된 ODA 재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전략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동 연구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의 4대 원칙 중 결과중심, 주인의식, 포용적 파트너십 관점에 착안하여 입체적인 국가별 SDGs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정량 및 정성적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① SDGs 이행 수준 (결과 중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SDR)가 제공하는 국가별 SDG 이행 점수(SDG Index Score) 및 대시보드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협력국의 목표별 달성 수준과 진전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협력국 정부의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의 정책적 자기 평가 내용을 상호 검증(교차 검증)하였다.

② 협력국의 관심사 및 정책 방향 (주인의식): 각 협력국이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에 제출한 공식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바탕으로 정성적 정책 분석을 실행하는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SDG Mapper' 툴을 활용한 정량적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키워드 출현 빈도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국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투자를 희망하고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적 의지의 강도를 도출하였다.

③ 공여국 지원 현황 (포용적 파트너십):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여자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데이터 및 AidData의 공적개발재원(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국제사회가 협력국에 제공한 개발 재원이 특정 SDG 목표에 얼마나 편중되거나 공백을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종합하면 동 연구는 SDGs 이행 수준(높음/낮음), 협력국 정책적 관심(높음/낮음), 공여국 지원 규모(많음/적음)의 3대 기준을 조합하여, 향후 KOICA가 어떠한 방식으로 ODA 자원을 배분하

고 기술·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도출하기 위해 총 8가지의 전략적 개입 유형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KOICA가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을 세운 46개 국가를 분석한 후, 각 국가의 CP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는 SDG 목표를 8가지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가별로 유형에 맞는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46개국의 지난 10년간 ODA 사업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KOICA는 특정 SDG 목표에 지원을 고도로 집중해 왔으며 분야별 및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교육(SDG 4, 19%), 평화·제도(SDG 16, 16%), 기아종식·농업(SDG 2, 14%), 보건의료(SDG 3, 13%), 산업·인프라(SDG 9, 9%)의 5대 목표가 전체 지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기후행동(SDG 13, 6%)과 성평등(SDG 5, 4%)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다소 적었으며, 불평등 완화(SDG 10), 해양 생태계(SDG 14),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분야의 단독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ODA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원의 특성은 국가들의 소득 및 지리적 조건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아시아는 SDG 4번과 함께 SDG 2, 3, 9 등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이 종합적이고 다변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원조 규모가 가장 컸다.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아프리카의 경우, SDG 4번과 농업 및 보건 분야 등 생존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장 기초적인 역량 배양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중소득 수준 이상의 국가가 밀집한 유라시아 및 중동, 그리고 중남미는 전통적 기초 원조 형태를 탈피해 고도화된 개발 영역으로 전환 중이다. 유라시아·중동은 디지털 및 기술 혁신을 매개로 한 SDG 16번과 SDG 4, 13번에 주력해왔으며, 중남미는 사법 및 치안 제도 개혁을 포함한 SDG 16번과 SDG 3, 13, 5번 등 다각화된 형태의 사업 발굴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유형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고찰하면 국가별 당면 과제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SDG 3번과 SDG 16번은 협력국 정부의 이행 의지는 강하나, 구조적 재원 한계와 시스템 미비로 인해 성과 수준이 극히 정체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 지배적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단순 재정 보조 사업을 지양하고 법률, 제도, 공무원 역량 교육, 운영 구조 고도화 등 거버넌스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 반면, SDG 4번은 그간의 누적 투자로 달성도는 높으나, 협력국 정부의 최근 관심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이 가장 많이 도출되어, 단순 기본 교육 인프라 신설보다는 기술 교육 및 고급 산업 인재 양성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해야 한다. 아울러 SDG 2번과 SDG 9번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어,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보다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동(기후 변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견디는 적응 복원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한편, 향후 한국의 무상원조 4대 전략목표인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청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적응·감축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청년 소득증대 기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촌) 지역사회 조성의 효과적인 국가별 안착을 위해 동 연구의 유형화 결과와 매핑한 프로그램별 세부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 SDG 4번을 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 주로 도출되나, 교육과 디지털은 한국이 강점과 비교우위를 지닌 최고 핵심 자산이다. 이에 협력국의 경제적 수준과 발전 단계에 따라 이원화된 접근 방식을 제언한다. 기초 문해력 및 디지털 기기 인프라 조성이 열악한 아시아/아프리카 저소득국가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 확보 교육, 직업 훈련 센터(TVET) 보강 등 인적 자본 기초 형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 체계를 보유한 중소득 수준의 국가(유라시아 및 중남미 등)에서는 ICT 기술 기반의 고급 산업 인재 고도화 교육, 혁신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다변화와 연계된 디지털 혁신으로 정책 중심을 과감히 시프트해야 한다.

②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 SDG 3번을 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협력국 정부의 강한 정책적 오너십 대비 성과가 부진하여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단순 물적 보급 및 일시적 인프라 지원을 제한하고, 현지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의 회복력 강화에 지원을 결집해야 한다. 1차 기초 보건 접근성이 완전히 차단된 격오지가 많은 빈곤층 중심국은 필수 영양 및 백신 등 핵심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공급과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되, 기초적 보건 의료 체계를 작동 중인 국가는 모바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관리, 보건 인력 역량 전문화, 만성질환 국가 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 법제적·운영적 고도화 및 국가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둔 설계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③ 청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적응·감축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 SDG 13번을 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별적 관찰 유형이 많이 관찰된다. 이는 양자간 ODA에서 기후 관련 단독 대형 개발 사업의 기회가 현지의 정책 여건상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결책으로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 다자원조 금융 기구와의 파트너십 및 공동 투자를 조율하여 KOICA의 보완적 기술협력을 결합하는 우회형 접근이 타당하다. 기후 취약성이 매우 큰 기후 고위험

국가들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긴급 보급, 적응 역량과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 지원에 힘써야 하고, 녹색 전환 능력을 탑재 중인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 규제 및 제도 마련, 녹색 산업 기술 이전 등 고차원적이고 법적인 전환 체계에 전략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④ 청년 소득증대 기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촌) 지역사회 조성 : SDG 2번을 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별적 관찰 및 수요 재확인 유형이 주로 도출된다. 농촌 및 농업 ODA 분야는 식량 안보 확보 및 기상 복합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축이므로 일률적으로 ODA 자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협력국과의 밀착형 정책 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유한 농촌개발 경험을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패러다임 차별화가 필요하다. 생산 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1차 생산력 및 영농 생산성 제고, 가뭄·수해 방지 저수 시설 마련에 우선 투자하되, 농업 유통망이 형성된 국가는 스마트 농업(ICT 연계 스마트팜) 도입, 고부가가치 가치사슬(생산-저장-가공-유통) 고도화, 비농업 소득 다변화 등 고부가 모델을 전파하는 전략적 전환을 감행해야 한다.

동 연구보고서의 종합 분석 결과, 총 46개 국가의 64개 SDGs 유형 중 약 63%에 달하는 40개가 '낮은 이행 수준' 유형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OICA가 그동안 협력국들이 스스로 달성하기 어렵고 난관에 직면한 개발의 병목 지점을 타겟으로 실질적 원조를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이다. ODA 배분에서 어떤 특정 유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단일 공식은 없으며, 수원국 내실과 요구에 우선 부응하려는 '주인의식 기반', 한국의 특화된 기술을 투입하려는 '효과성 기반', 다른 공여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협력 기반' 등이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한다. 결국 SDG 이행 성과는 협력국 고유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철저히 진단하고 이에 KOICA의 비교우위 역량을 가장 기민하게 맞추어 융합하는 정합적 지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교육, 보건, 평화 제도에 대한 지원이 단일 지표 개선에만 멈추지 않고 타 목표들의 구조적 실현을 가속하는 '촉진적 기반 조건(Enabler)'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SDGs가 보유한 고도의 다차원적 상호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ODA 기획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4대 프로그램의 이행에 역량을 선택적이고 입체적으로 결집함으로써 한정된 ODA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파급효과와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연구는 46개 핵심 개발도상국들의 SDGs 이행 상황을 정량적 지수 평가, 정부 관심 키워드 분석, ODF 현황, 그리고 현지 해외사무소의 인터뷰를 결합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구명했다는 분석상의 큰 의의가 있다. SDGs 달성의 데드라인인 2030년이 불과 5년여 남은 시점에서, 동 연구가 KOICA의 협력국별 지원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하나의 실증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ecutive Summary

Adopted at the UN Summit in September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present the largest joint development goals for humanity to achieve collectively by 2030.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focused primarily on th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e SDGs aim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the global, where the three pillars of soci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 balanced. The SDGs consist of 17 goals, 169 targets, and 235 indicators, designed under the grand principle of 'Leave No One Behind'. To manage this massive indicator system efficiently, it is structured around five core pillars known as the 5Ps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 emphasizing a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approach.

However, a dec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DGs, the current global implementation status remains deeply concerning.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5, only 35% of the 169 targets are showing adequate progress, while a staggering 48% show insufficient progress, and 18% have retrogressed below the 2015 baseline. Global polycrisis such as pandemics, climate crises, and geopolitical conflicts have severely damaged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Sub-Saharan Africa, structurally entrenching disparities between countries. The Asian region is also seeing retrogressed performance in SDG 13 due to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natural disaster damage. Latin America is trapped in a development trap of low growth potential and extreme inequality. Africa faces a shortage of finance due to skyrocketing debt burdens and a decline in ODA.

According to major previous studies, the SDGs do not function as a mere list of independent indicators, but as an integrated system that forms close synergies and

causal networks among goals. In particular, SDG 4 is identified as a catalyst for capacity building in other fields and a key upstream driver for resolving inequality, while SDG 3 acts as an essential enabler for escaping poverty and building human capital. SDG 16 also serves as a critical foundation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other goals. Under this linkage mechanism, development cooperation must shift away from fragmented, project-oriented support and transition into a strategic, integrated intervention framework that considers mutual connectivity.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integ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 Korea established the 'The 4th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6-2030)' and set up the four strategic goals for the grant ODA along with a unified grant ODA framework. Accordingly, KOICA pursued this study to scientifically diagnose the SDG implementation status of 46 partner countries—for which KOICA has established the 5-year Country Plans (CPs)—and to establish evidence-based strategic support plans that can maximize the ripple effects of limited ODA resources over the remaining five-year implementation period of SDGs.

This study constructed a multidimensional country-specific SDG analysis model drawing upon the perspectives of 'Focus on results', 'Country ownership', and 'Inclusive partnership' among the four principles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The analysis model consists of three c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xes:

① SDG Implementation Level (Focus on results): Based on the time-series data of country-specific SDG Index Scores and dashboards provid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SDR)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the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achievement levels and progress trajectories of each partner country by goal, and cross-verified these findings with the policy self-assessment content in the partner governments'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② Partner Country Concerns and Policy Directions (Country ownership): Qualitative policy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VNRs submitted by each partner country to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currently, a quantitative text-mining technique utilizing the European Commission's 'SDG Mapper' tool was applied to extract the frequency of key keyword appearances, thereby deriving the intensity of partner countries' policy priorities and strategic investment wills.

③ Donor Support (Inclusive partnership): By analyzing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data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the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database of AidData, the study identified the extent to which development finance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artner countries was concentrated on or showed gaps in specific SDG goals.

In summary, this study combined the three criteria of SDG implementation level (high/low), partner country policy interest (high/low), and donor support scale (large/small) to structure a total of eight strategic intervention typologies to guide how KOICA should allocate ODA resources and intervene technically and politically. Based on this model, the study analyzed the 46 countries for which KOICA has established CPs, categorized the SDG goals supported by each country's CP programs into the corresponding typologies, and proposed future support plans tailored to each typology by country.

The analysis of KOICA's performance over the past ten years for the 46 main partner countries revealed that KOICA has highly concentrated its support on specific SDG goals, with distinct sectoral and regional variations. The five target areas where Korea historically held a comparative advantage—Education (SDG 4, 19%), Peace & Institutions (SDG 16, 16%), Zero Hunger & Agriculture (SDG 2, 14%), Health & Well-being (SDG 3, 13%), and Industry & Infrastructure (SDG 9, 9%)—accounted for over 70% of total support. On the other hand, direct support for Climate Action (SDG 13, 6%) and Gender Equality (SDG 5, 4%) was relatively low, and there was limited record of support in the areas of Reduced Inequalities (SDG

10), Life Below Water (SDG 14), and Global Partnerships (SDG 17), suggesting the need to diversify the ODA portfolio in the future.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were highly differentiated by the incom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partner countries. Asia received the largest volume of aid, where support was implemented in an integrated and diversified form, addressing basic infrastructure for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SDG 2, 3, and 9 alongside SDG 4. For Africa, which has significantly low income, resources have been intensively invested in establishing social safety nets directly linked to survival and reinforcing basic human capacities. In contrast, Eurasia and the Middle East, as well as Latin America, where middle-income and higher-income countries are clustered, are transitioning away from traditional basic support toward highly advanced development areas. Specifically, Eurasia and the Middle East have focused on SDG 16, SDG 4, and SDG 13, leveraging digit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atin America, the outstanding trend was the formulation of diversified projects, including SDG 16 covering judicial and public security institutional reforms, alongside SDG 3, 13, and 5.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se typological analysis results yie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mediate challenges faced by individual countries. For SDG 3 and SDG 16, despite the strong implementation will of partner governmen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apacity Building Type' predominated, where performance levels stagnated due to structural financial constraints and lack of systems. Therefore, simple financial subsidy projects should be avoided, and a governance-centered systemic approach encompassing laws, institutions, public official capacity training, and operational structure advancement is required. Conversely, SDG 4 showed a high achievement rate due to past cumulative investments, but frequently fell into the 'Alignment Re-examination and Selective Supplementation Type' as it slipped from the partner governments' recent priority rankings. This suggests accelerating a paradigm shift from building simple basic education infrastructure to technical education and cultivating advanced industrial talent. Furthermore, SDG 2 and SDG 9 were categorized as the 'Long-term

Environmental Response Type'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ndicating that focus should be placed on improving adaptive resilience to withstand abrupt external environmental fluctuations (climate change, global supply chain shifts, etc.) rather than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projects.

In the meanwhile, to effectively anchor South Korea's four strategic goals for the grant ODA - strengthening technical, digital, and innovation capacities to development a skilled youth workforce, strengthening health resilience to foster thriving communities, advancing climate adaptation, mitigation, and improving access to energy to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and building sustainable and safe rural communities through income growth - the following detailed program implementation plans mapped to the typolog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proposed:

①Strengthening technical, digital, and innovation capacities to development a skilled youth workforce: for this program, which mainly supports SDG 4, the 'Long-term Environmental Response Type' is predominantly derived. However, education and digital fields are the most core assets in which Korea possesses strengths and comparative advantages. Thus, a two-track approach is proposed based on the partner countries' economic level and stage of development. In the case of low-income countries in Asia/Africa, where basic literacy and digital device infrastructure are poor, resources should be invested in building basic human capital, such as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reinforcemen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centers. Conversely, in middle-income countries that already possess basic infrastructure systems (such as Eurasia and Latin America), the policy focus must be boldly shifted toward ICT-based advanced industrial talent cultivation, fostering innovative startup ecosystems, and digital innovation linked to industrial diversification.

②Strengthening health resilience to foster thriving communities: for this program, which mainly supports SDG 3, is dominated by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apacity Building Type' due to lagging performance despite the partner governments' strong policy ownership. Therefore, rather than simple material

supply and temporary infrastructure support, ODA should be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local health and medical system itself. In countries with many remote areas completely cut off from primary healthcare access, the focus should be on the universal provision of key medical services such as essential nutrition and vaccines,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At the same time, for countries already operating a basic healthcare system, design should incorporate legal and operational advancement and national system improvement, such as mobile digital healthcare-based management, specialization of healthcare workforce capacity, and national preventive management programs for chronic diseases.

③ Advancing climate adaptation, mitigation, and improving access to energy to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for this program, which mainly supports SDG 13, the 'Selective Observation Type' is frequently observed. This implies that opportunities for large-scale standalone climate-related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bilateral ODA may be limited due to the local policy conditions. As a solution, an indirect approach is appropriate; coordinating partnerships and co-investments with multilateral aid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World Bank to combine KOICA's complementary technical cooperation. Highly climate-vulnerable countries facing severe climate risks must focus on emergency distribution of small-scale renewable energy,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and survival support for climate-vulnerable populations. In countries equipped with green transition capabilities, KOICA should strategically enter high-level and legal transition frameworks, such as establishing carbon-neutral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nd transferring green industrial technologies.

④Building sustainable and safe rural communities through income growth: for this program, which mainly supports SDG 2, the 'Selective Observation' and 'Demand Reconfirmation' typologies are mainly derived. Since rural and agricultural ODA is a crucial pillar for securing food security and preventing complex meteorological disasters, ODA resources should not be uniformly reduced. Instead, a paradigm differentiation is needed to design Korea's unique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in alignment with partner countries through close policy dialogues. In countries with poor production environment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servoirs to prevent drought and flood. In countries where agricultural distribution networks are already formed, a strategic transition must be made to disseminate high-value models, such as introducing smart agriculture (ICT-linked smart farms), advancing high-value-added value chains (production-storage-processing-distribution), and diversifying non-agricultural incom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is research report, approximately 63% (40 out of 64 SDG typologies analyzed across 46 countries) fell into the 'Low Implementation Level' typologies. This is an empirical indicator demonstrating that KOICA's support has practically targeted the development bottlenecks that partner countries struggle to overcome on their own. In ODA allocation, there is no single formula stating that a specific typology is absolutely correct. Instead, an 'ownership-based' approach responding to recipient needs, an 'effectiveness-based' approach utilizing Korea's specialized technologies, and a 'cooperation-based' approach aligning with donor communities must be harmoniously fused. Ultimately, SDG implementation performance depends on a highly aligned support system that thoroughly diagnoses the uniqu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partner country and agilely aligns KOICA's comparative advantages with i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support for education, health, and peace/institutions acts as a 'facilitating basic condition (Enabler)' that accelerates the structural realization of other goals rather than stopping at improving single indicators, ODA planning capabilities that strategically leverage the highly multidimensional linkages of the SDGs are essential. By selectively and dimensionally clustering capabilities in implementing the four major programs with this in mind, the efficiency of the limited ODA budget can be maximized, inducing positive external spillover effects and synergies.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great analytical significance as it comprehensively and multi-dimensionally illuminated the SDG implementation status of 46 key

developing countries by combining quantitative index evaluation, keyword analysis of government interest, ODF status, and interviews with local KOICA offices. With only about five years remaining until the 2030 deadline for achieving the SDG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n empirical reference for KOICA in reviewing its support direction for each partner country.

목 차

국문 요약 ····· i

Executive Summary ····· vi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9
3. 연구의 한계 ····· 13

Ⅱ. 개발협력 관점에서 주요 협력국의 SDGs 이행 수준 및 KOICA 지원 방향 ····· 15

1. 아시아 14개 협력국 ····· 15
   1) 네팔 ····· 15
   2) 동티모르 ····· 29
   3) 라오스 ····· 43
   4) 몽골 ····· 56
   5) 미얀마 ····· 67
   6) 방글라데시 ····· 78
   7) 베트남 ····· 92
   8) 스리랑카 ····· 104
   9) 인도 ····· 114
   10) 인도네시아 ····· 129
   11) 캄보디아 ····· 141
   12) 파키스탄 ····· 153
   13) 피지 ····· 165
   14) 필리핀 ····· 177

2. 아프리카 16개 협력국 ····· 191
1) 가나 ····· 191
2) 나이지리아 ····· 207
3) 르완다 ····· 219
4) 모로코 ····· 234
5) 모잠비크 ····· 247
6) 세네갈 ····· 259
7) 알제리 ····· 276
8) 에티오피아 ····· 288
9) 우간다 ····· 303
10) 이집트 ····· 318
11) 카메룬 ····· 332
12) 케냐 ····· 347
13) 코트디부아르 ····· 360
14) 콩고민주공화국 ····· 374
15) 탄자니아 ····· 389
16) 튀니지 ····· 402
3. 유라시아·중동 8개 협력국 ····· 416
1) 아제르바이잔 ····· 416
2) 요르단 ····· 430
3) 우즈베키스탄 ····· 443
4) 우크라이나 ····· 457
5) 이라크 ····· 472
6) 키르기스스탄 ····· 484
7) 타지키스탄 ····· 496
8) 팔레스타인 ····· 510
4. 중남미 8개 협력국 ····· 525
1) 과테말라 ····· 525
2) 도미니카공화국 ····· 536
3) 볼리비아 ····· 549

4) 에콰도르 ····· 563
5) 엘살바도르 ····· 577
6) 콜롬비아 ····· 590
7) 파라과이 ····· 602
8) 페루 ····· 614

Ⅲ. 결론 및 시사점 ····· 626

1. CP를 통한 SDGs 지원 결과 및 유형별 지원 방향 ····· 626
2. 4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 634

참고문헌 ····· 638

부록. SDGs 목표별 세부 지표 ····· 716

표 목차

〈표 Ⅰ-1〉 5Ps, SDGs, 세부목표, 지표 ····· 2
〈표 Ⅰ-2〉 협력국들의 VNR 제출연도 ····· 3
〈표 Ⅰ-3〉 연도별 HLPF의 SDGs 주제 ····· 4
〈표 Ⅰ-4〉 성과-관심사-지원을 바탕으로 한 SDGs 유형 구분 ····· 12
〈표 Ⅰ-5〉 단계별 연구내용 및 방법 ····· 12

〈표 Ⅱ-1〉 네팔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3
〈표 Ⅱ-2〉 분석 결과 ····· 27
〈표 Ⅱ-3〉 동티모르 SDG 2, 3, 4, 5, 7,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8
〈표 Ⅱ-4〉 분석 결과 ····· 41
〈표 Ⅱ-5〉 라오스 SDG 2, 3, 4, 9, 11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0
〈표 Ⅱ-6〉 JICA의 라오스 주요 지원 분야 ····· 51
〈표 Ⅱ-7〉 호주의 라오스 지원 방향 ····· 53
〈표 Ⅱ-8〉 분석 결과 ····· 54
〈표 Ⅱ-9〉 몽골 SDG 2,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62
〈표 Ⅱ-10〉 일본의 몽골 지원 분야 및 개발 과제 ····· 63
〈표 Ⅱ-11〉 미국의 몽골 주요 지원 분야 ····· 64
〈표 Ⅱ-12〉 분석 결과 ····· 65
〈표 Ⅱ-13〉 미얀마 SDG 2, 3,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74
〈표 Ⅱ-14〉 분석 결과 ····· 76
〈표 Ⅱ-15〉 방글라데시 SDG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87
〈표 Ⅱ-16〉 분석 결과 ····· 90
〈표 Ⅱ-17〉 베트남 SDG 2, 4,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99
〈표 Ⅱ-18〉 일본 JICA의 베트남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 100
〈표 Ⅱ-19〉 분석 결과 ····· 102
〈표 Ⅱ-20〉 스리랑카 SDG 1, 2,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10
〈표 Ⅱ-21〉 일본의 스리랑카 우선 지원 분야 ····· 111
〈표 Ⅱ-22〉 분석 결과 ····· 112

〈표 Ⅱ-23〉 인도 SDG 2, 4, 5, 6, 7, 8, 9, 12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23
〈표 Ⅱ-24〉 분석 결과 ····· 127
〈표 Ⅱ-25〉 인도네시아 SDG 4,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37
〈표 Ⅱ-26〉 분석 결과 ····· 139
〈표 Ⅱ-27〉 캄보디아 SDG 2, 3, 4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48
〈표 Ⅱ-28〉 분석 결과 ····· 151
〈표 Ⅱ-29〉 파키스탄 SDG 6, 7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59
〈표 Ⅱ-30〉 분석 결과 ····· 162
〈표 Ⅱ-31〉 피지 SDG 3,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72
〈표 Ⅱ-32〉 분석 결과 ····· 175
〈표 Ⅱ-33〉 SDGs 2, 3, 6,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185
〈표 Ⅱ-34〉 분석 결과 ····· 189
〈표 Ⅱ-35〉 가나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194
〈표 Ⅱ-36〉 가나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01
〈표 Ⅱ-37〉 분석 결과 ····· 204
〈표 Ⅱ-38〉 나이지리아 SDG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14
〈표 Ⅱ-39〉 분석 결과 ····· 217
〈표 Ⅱ-40〉 르완다 SDG 2,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27
〈표 Ⅱ-41〉 분석 결과 ····· 230
〈표 Ⅱ-42〉 모로코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237
〈표 Ⅱ-43〉 모로코 SDG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42
〈표 Ⅱ-44〉 분석 결과 ····· 245
〈표 Ⅱ-45〉 모잠비크 SDG 3, 4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53
〈표 Ⅱ-46〉 분석 결과 ····· 255
〈표 Ⅱ-47〉 세네갈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261
〈표 Ⅱ-48〉 세네갈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69
〈표 Ⅱ-49〉 분석 결과 ····· 272
〈표 Ⅱ-50〉 알제리 SDG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83
〈표 Ⅱ-51〉 분석 결과 ····· 286
〈표 Ⅱ-52〉 에티오피아 1, 2, 3, 4, 5, 9,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296
〈표 Ⅱ-53〉 분석 결과 ····· 300
〈표 Ⅱ-54〉 주요 SDGs 이행 현황 ····· 306

〈표 Ⅱ-55〉 우간다 SDG 2,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12
〈표 Ⅱ-56〉 영국의 對 우간다 주요 지원 ····· 314
〈표 Ⅱ-57〉 분석 결과 ····· 315
〈표 Ⅱ-58〉 이집트 SDG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26
〈표 Ⅱ-59〉 분석 결과 ····· 329
〈표 Ⅱ-60〉 카메룬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335
〈표 Ⅱ-61〉 카메룬 SDG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42
〈표 Ⅱ-62〉 분석 결과 ····· 345
〈표 Ⅱ-63〉 케냐 SDG 2,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54
〈표 Ⅱ-64〉 미국의 케냐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 355
〈표 Ⅱ-65〉 분석 결과 ····· 357
〈표 Ⅱ-66〉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계획과 SDGs 목표 연계 현황 ····· 360
〈표 Ⅱ-67〉 코트디부아르 VNR(2019년 및 2022년) 주요 SDG별 성과 및 한계 요약 ····· 363
〈표 Ⅱ-68〉 코트디부아르 SDG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68
〈표 Ⅱ-69〉 분석 결과 ····· 372
〈표 Ⅱ-70〉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376
〈표 Ⅱ-71〉 콩고민주공화국 SDG 2, 3, 4, 5, 15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83
〈표 Ⅱ-72〉 분석 결과 ····· 387
〈표 Ⅱ-73〉 탄자니아 SDG 2, 3, 4, 9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397
〈표 Ⅱ-74〉 분석 결과 ····· 400
〈표 Ⅱ-75〉 튀니지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 405
〈표 Ⅱ-76〉 튀니지 SDG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11
〈표 Ⅱ-77〉 분석 결과 ····· 414
〈표 Ⅱ-78〉 아제르바이잔 SDG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24
〈표 Ⅱ-79〉 분석 결과 ····· 427
〈표 Ⅱ-80〉 요르단 EMV에 나타난 8대 경제성장 동력 ····· 434
〈표 Ⅱ-81〉 2022년 VNR에서 나타난 요르단 정책 우선순위 ····· 435
〈표 Ⅱ-82〉 요르단 SDG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38
〈표 Ⅱ-83〉 분석 결과 ····· 440
〈표 Ⅱ-84〉 우즈베키스탄 SDG 3, 4, 8,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51
〈표 Ⅱ-85〉 분석 결과 ····· 454
〈표 Ⅱ-86〉 우크라이나 플랜에 나타난 분야별 개혁 내용 ····· 461

〈표 Ⅱ-87〉 UNCF UN-우크라이나 협력 전략 우선순위 ····· 462
〈표 Ⅱ-88〉 우크라이나 SDG 2, 3, 7, 9, 11,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66
〈표 Ⅱ-89〉 분석 결과 ····· 469
〈표 Ⅱ-90〉 이라크 SDG 1,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79
〈표 Ⅱ-91〉 분석 결과 ····· 482
〈표 Ⅱ-92〉 키르기스스탄 SDG 2, 4, 9, 13, 16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490
〈표 Ⅱ-93〉 일본 JICA의 키르기스스탄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 492
〈표 Ⅱ-94〉 분석 결과 ····· 493
〈표 Ⅱ-95〉 타지키스탄 SDG 2, 4, 7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03
〈표 Ⅱ-96〉 분석 결과 ····· 507
〈표 Ⅱ-97〉 팔레스타인 SDG 4번, 16번 이행수준 평가 ····· 514
〈표 Ⅱ-98〉 팔레스타인 NDP 2021-2023 3대 축과 10대 국가 우선순위 ····· 515
〈표 Ⅱ-99〉 팔레스타인 SDG 4, 16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19
〈표 Ⅱ-100〉 분석 결과 ····· 522
〈표 Ⅱ-101〉 과테말라 SDG 2, 15,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31
〈표 Ⅱ-102〉 분석 결과 ····· 534
〈표 Ⅱ-103〉 도미니카공화국 SDG 3, 5, 8,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43
〈표 Ⅱ-104〉 분석 결과 ····· 546
〈표 Ⅱ-105〉 볼리비아 SDG 2, 3, 5, 8, 15번에 대한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58
〈표 Ⅱ-106〉 분석 결과 ····· 560
〈표 Ⅱ-107〉 2024~2025 국가개발계획에서 SDGs가 차지하는 영역 ····· 568
〈표 Ⅱ-108〉 에콰도르 SDG 1, 9, 11,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71
〈표 Ⅱ-109〉 분석 결과 ····· 574
〈표 Ⅱ-110〉 엘살바도르의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581
〈표 Ⅱ-111〉 엘살바도르 SDG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85
〈표 Ⅱ-112〉 분석 결과 ····· 588
〈표 Ⅱ-113〉 콜롬비아 SDG 2,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597
〈표 Ⅱ-114〉 분석 결과 ····· 599
〈표 Ⅱ-115〉 파라과이 SDG 2, 3, 4,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609
〈표 Ⅱ-116〉 분석 결과 ····· 611
〈표 Ⅱ-117〉 페루 SDG 1, 3, 5, 9,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 621
〈표 Ⅱ-118〉 분석 결과 ····· 623

〈표 Ⅲ-1〉 지역별로 CP가 지원하는 SDG의 비율 ····· 627
〈표 Ⅲ-2〉 각 유형별 KOICA의 전략적 지원방향 ····· 629
〈표 Ⅲ-3〉 CP 지원 SDGs별 유형 분포 ····· 630
〈표 Ⅲ-4〉 CCP 국가별 유망 프로그램 및 유형 ····· 631
〈표 Ⅲ-5〉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체계 ····· 634

그림 목차

[그림 Ⅰ-1] 2025년 기준, SDGs 목표별 진척도 ····· 5

[그림 Ⅱ-1] 네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6
[그림 Ⅱ-2] 2025년 네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7
[그림 Ⅱ-3] 네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8
[그림 Ⅱ-4] 네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1
[그림 Ⅱ-5] 네팔 연도별 ODF 금액 ····· 22
[그림 Ⅱ-6] 네팔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3
[그림 Ⅱ-7] 동티모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0
[그림 Ⅱ-8] 2025년 동티모르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1
[그림 Ⅱ-9] 동티모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3
[그림 Ⅱ-10] 동티모르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5
[그림 Ⅱ-11] 동티모르 연도별 ODF 금액 ····· 36
[그림 Ⅱ-12] 동티모르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7
[그림 Ⅱ-13] 라오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3
[그림 Ⅱ-14] 2025년 라오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4
[그림 Ⅱ-15] 라오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6
[그림 Ⅱ-16] 라오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8
[그림 Ⅱ-17] 라오스 연도별 ODF 금액 ····· 49
[그림 Ⅱ-18] 라오스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50
[그림 Ⅱ-19] 몽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6
[그림 Ⅱ-20] 2025년 몽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57
[그림 Ⅱ-21] 몽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8
[그림 Ⅱ-22] 몽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60
[그림 Ⅱ-23] 몽골 연도별 ODF 금액 ····· 61
[그림 Ⅱ-24] 몽골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62
[그림 Ⅱ-25] 미얀마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67
[그림 Ⅱ-26] 2025년 미얀마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69

[그림 Ⅱ-27] 미얀마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70
[그림 Ⅱ-28] 미얀마 개발계획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71
[그림 Ⅱ-29] 미얀마 연도별 ODF 금액 ····· 72
[그림 Ⅱ-30] 미얀마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73
[그림 Ⅱ-31] 방글라데시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79
[그림 Ⅱ-32] 2025년 방글라데시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80
[그림 Ⅱ-33] 방글라데시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82
[그림 Ⅱ-34] 방글라데시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84
[그림 Ⅱ-35] 방글라데시 연도별 ODF 금액 ····· 85
[그림 Ⅱ-36] 방글라데시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86
[그림 Ⅱ-37] 베트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92
[그림 Ⅱ-38] 2025년 베트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94
[그림 Ⅱ-39] 베트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95
[그림 Ⅱ-40] 베트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96
[그림 Ⅱ-41] 베트남 연도별 ODF 금액 ····· 97
[그림 Ⅱ-42] 베트남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98
[그림 Ⅱ-43] 스리랑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04
[그림 Ⅱ-44] 2025년 스리랑카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05
[그림 Ⅱ-45] 스리랑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06
[그림 Ⅱ-46] 스리랑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08
[그림 Ⅱ-47] 스리랑카 연도별 ODF 금액 ····· 109
[그림 Ⅱ-48] 스리랑카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10
[그림 Ⅱ-49] 인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14
[그림 Ⅱ-50] 2025년 인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15
[그림 Ⅱ-51] 인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18
[그림 Ⅱ-52] 인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21
[그림 Ⅱ-53] 인도 연도별 ODF 금액 ····· 122
[그림 Ⅱ-54] 인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23
[그림 Ⅱ-55] 인도네시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29
[그림 Ⅱ-56] 2025년 인도네시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30
[그림 Ⅱ-57] 인도네시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32
[그림 Ⅱ-58] 인도네시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34

[그림 Ⅱ-59] 인도네시아 연도별 ODF 금액 ····· 135
[그림 Ⅱ-60] 인도네시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36
[그림 Ⅱ-61] 캄보디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41
[그림 Ⅱ-62] 2025년 캄보디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43
[그림 Ⅱ-63] 캄보디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44
[그림 Ⅱ-64] 캄보디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45
[그림 Ⅱ-65] 캄보디아 연도별 ODF 금액 ····· 146
[그림 Ⅱ-66] 캄보디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47
[그림 Ⅱ-67] 파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53
[그림 Ⅱ-68] 2025년 파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54
[그림 Ⅱ-69] 파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55
[그림 Ⅱ-70] 파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57
[그림 Ⅱ-71] 파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 158
[그림 Ⅱ-72] 파키스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59
[그림 Ⅱ-73] 피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65
[그림 Ⅱ-74] 2025년 피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66
[그림 Ⅱ-75] 피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67
[그림 Ⅱ-76] 피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69
[그림 Ⅱ-77] 피지 연도별 ODF 금액 ····· 170
[그림 Ⅱ-78] 피지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71
[그림 Ⅱ-79] 필리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77
[그림 Ⅱ-80] 2025년 필리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78
[그림 Ⅱ-81] 필리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80
[그림 Ⅱ-82] 필리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82
[그림 Ⅱ-83] 필리핀 연도별 ODF 금액 ····· 183
[그림 Ⅱ-84] 필리핀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184
[그림 Ⅱ-85] 가나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191
[그림 Ⅱ-86] 2024년 가나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193
[그림 Ⅱ-87] 가나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195
[그림 Ⅱ-88] 가나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198
[그림 Ⅱ-89] 가나 연도별 ODF 금액 ····· 200
[그림 Ⅱ-90] 가나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00

[그림 Ⅱ-91] 나이지리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08
[그림 Ⅱ-92] 2024년 나이지리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09
[그림 Ⅱ-93] 나이지리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10
[그림 Ⅱ-94] 나이지리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12
[그림 Ⅱ-95] 나이지리아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 212
[그림 Ⅱ-96] 나이지리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13
[그림 Ⅱ-97] 르완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20
[그림 Ⅱ-98] 2024년 르완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21
[그림 Ⅱ-99] 르완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22
[그림 Ⅱ-100] 르완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25
[그림 Ⅱ-101] 르완다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 226
[그림 Ⅱ-102] 르완다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26
[그림 Ⅱ-103] 모로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35
[그림 Ⅱ-104] 2024년 모로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35
[그림 Ⅱ-105] 모로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38
[그림 Ⅱ-106] 모로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39
[그림 Ⅱ-107] 모로코 연도별 ODF 금액 ····· 240
[그림 Ⅱ-108] 모로코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41
[그림 Ⅱ-109] 모잠비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48
[그림 Ⅱ-110] 2023년 모잠비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49
[그림 Ⅱ-111] 모잠비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50
[그림 Ⅱ-112] 모잠비크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51
[그림 Ⅱ-113] 모잠비크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 252
[그림 Ⅱ-114] 모잠비크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53
[그림 Ⅱ-115] 세네갈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59
[그림 Ⅱ-116] 2024년 세네갈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60
[그림 Ⅱ-117] 세네갈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62
[그림 Ⅱ-118] 세네갈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65
[그림 Ⅱ-119] 세네갈 연도별 ODF 금액 ····· 267
[그림 Ⅱ-120] 세네갈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68
[그림 Ⅱ-121] 알제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77
[그림 Ⅱ-122] 2023년 알제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78

[그림 Ⅱ-123] 알제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79
[그림 Ⅱ-124] 알제리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81
[그림 Ⅱ-125] 알제리 연도별 ODF 금액 ····· 282
[그림 Ⅱ-126] 알제리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82
[그림 Ⅱ-127] 에티오피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289
[그림 Ⅱ-128] 2024년 에티오피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291
[그림 Ⅱ-129] 에티오피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292
[그림 Ⅱ-130] 에티오피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294
[그림 Ⅱ-131] 에티오피아 연도별 ODF 금액 ····· 295
[그림 Ⅱ-132] 에티오피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296
[그림 Ⅱ-133] 우간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04
[그림 Ⅱ-134] 2024년 우간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05
[그림 Ⅱ-135] 우간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07
[그림 Ⅱ-136] 우간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09
[그림 Ⅱ-137] 우간다 연도별 ODF 금액 ····· 311
[그림 Ⅱ-138] 우간다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11
[그림 Ⅱ-139] 이집트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20
[그림 Ⅱ-140] 2024년 이집트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21
[그림 Ⅱ-141] 이집트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22
[그림 Ⅱ-142] 이집트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24
[그림 Ⅱ-143] 이집트 연도별 ODF 금액 ····· 325
[그림 Ⅱ-144] 이집트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25
[그림 Ⅱ-145] 카메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33
[그림 Ⅱ-146] 2025년 카메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34
[그림 Ⅱ-147] 카메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36
[그림 Ⅱ-148] 카메룬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39
[그림 Ⅱ-149] 카메룬 연도별 ODF 금액 ····· 341
[그림 Ⅱ-150] 카메룬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41
[그림 Ⅱ-151] 케냐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48
[그림 Ⅱ-152] 2023년 케냐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49
[그림 Ⅱ-153] 케냐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50
[그림 Ⅱ-154] 케냐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52

[그림 Ⅱ-155] 케냐 연도별 ODF 금액 ····· 353
[그림 Ⅱ-156] 케냐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54
[그림 Ⅱ-157] 코트디부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61
[그림 Ⅱ-158] 2024년 코트디부아르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62
[그림 Ⅱ-159] 코트디부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64
[그림 Ⅱ-160] 코트디부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66
[그림 Ⅱ-161] 코트디부아르 연도별 ODF 금액 ····· 367
[그림 Ⅱ-162] 코트디부아르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68
[그림 Ⅱ-163] 콩고민주공화국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74
[그림 Ⅱ-164] 2024년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75
[그림 Ⅱ-165] 콩고민주공화국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77
[그림 Ⅱ-166] 콩고민주공화국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80
[그림 Ⅱ-167] 콩고민주공화국 연도별 ODF 금액 ····· 381
[그림 Ⅱ-168] 콩고민주공화국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82
[그림 Ⅱ-169] 탄자니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391
[그림 Ⅱ-170] 2024년 탄자니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392
[그림 Ⅱ-171] 탄자니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393
[그림 Ⅱ-172] 탄자니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395
[그림 Ⅱ-173] 탄자니아 연도별 ODF 금액 ····· 396
[그림 Ⅱ-174] 탄자니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396
[그림 Ⅱ-175] 튀니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03
[그림 Ⅱ-176] 2024년 튀니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04
[그림 Ⅱ-177] 튀니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06
[그림 Ⅱ-178] 튀니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08
[그림 Ⅱ-179] 튀니지 연도별 ODF 금액 ····· 409
[그림 Ⅱ-180] 튀니지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10
[그림 Ⅱ-181] 아제르바이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17
[그림 Ⅱ-182] 2025년 아제르바이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18
[그림 Ⅱ-183] 아제르바이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19
[그림 Ⅱ-184] 아제르바이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21
[그림 Ⅱ-185] 아제르바이잔 연도별 ODF 금액 ····· 422
[그림 Ⅱ-186] 아제르바이잔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23

[그림 Ⅱ-187] 요르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31
[그림 Ⅱ-188] 2025년 요르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32
[그림 Ⅱ-189] 요르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33
[그림 Ⅱ-190] 요르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36
[그림 Ⅱ-191] 요르단 연도별 ODF 금액 ····· 437
[그림 Ⅱ-192] 요르단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37
[그림 Ⅱ-193] 우즈베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44
[그림 Ⅱ-194] 2025년 우즈베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45
[그림 Ⅱ-195] 우즈베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47
[그림 Ⅱ-196] 우즈베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49
[그림 Ⅱ-197]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 450
[그림 Ⅱ-198] 우즈베키스탄 SDG 목표별 ODF 지원현황 ····· 450
[그림 Ⅱ-199] 우크라이나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58
[그림 Ⅱ-200] 우크라이나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59
[그림 Ⅱ-201] 우크라이나 VNR 및 재건계획 문서 SDG Mapper 분석 결과 ····· 463
[그림 Ⅱ-202] 우크라이나 연도별 ODF 금액 ····· 464
[그림 Ⅱ-203] 우크라이나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65
[그림 Ⅱ-204] 이라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73
[그림 Ⅱ-205] 2025년 이라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74
[그림 Ⅱ-206] 이라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75
[그림 Ⅱ-207] 이라크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77
[그림 Ⅱ-208] 이라크 연도별 ODF 금액 ····· 478
[그림 Ⅱ-209] 이라크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78
[그림 Ⅱ-210] 키르기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85
[그림 Ⅱ-211] 2025년 키르기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86
[그림 Ⅱ-212] 키르기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487
[그림 Ⅱ-213] 키르기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488
[그림 Ⅱ-214] 키르기스스탄 연도별 ODF 금액 ····· 489
[그림 Ⅱ-215] 키르기스스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490
[그림 Ⅱ-216] 타지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497
[그림 Ⅱ-217] 2025년 타지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498
[그림 Ⅱ-218] 타지키스탄 SDG 데이터 가용성 ····· 499

[그림 Ⅱ-219] 타지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00
[그림 Ⅱ-220] 타지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01
[그림 Ⅱ-221] 타지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 502
[그림 Ⅱ-222] 타지키스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503
[그림 Ⅱ-223] 팔레스타인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22~2025) ····· 512
[그림 Ⅱ-224] 2025년 팔레스타인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 513
[그림 Ⅱ-225] 팔레스타인 VNR 및 국가개발계획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17
[그림 Ⅱ-226] 팔레스타인 연도별 ODF 금액 ····· 518
[그림 Ⅱ-227] 팔레스타인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519
[그림 Ⅱ-228] 과테말라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26
[그림 Ⅱ-229] 과테말라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27
[그림 Ⅱ-230] 과테말라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29
[그림 Ⅱ-231] 과테말라 연도별 ODF 금액 ····· 530
[그림 Ⅱ-232] 과테말라 SDG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 531
[그림 Ⅱ-233] 도미니카공화국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37
[그림 Ⅱ-234] 도미니카공화국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39
[그림 Ⅱ-235] 도미니카공화국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40
[그림 Ⅱ-236] 도미니카공화국 연도별 ODF 금액 ····· 542
[그림 Ⅱ-237] 도미니카공화국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 542
[그림 Ⅱ-238] 볼리비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50
[그림 Ⅱ-239] 볼리비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53
[그림 Ⅱ-240] 볼리비아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55
[그림 Ⅱ-241] 볼리비아 연도별 ODF 금액 ····· 556
[그림 Ⅱ-242] 볼리비아 SDG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 557
[그림 Ⅱ-243] 에콰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65
[그림 Ⅱ-244] 에콰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67
[그림 Ⅱ-245] 에콰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69
[그림 Ⅱ-246] 에콰도르 연도별 ODF 금액 ····· 570
[그림 Ⅱ-247] 에콰도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571
[그림 Ⅱ-248] 엘살바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78
[그림 Ⅱ-249] 엘살바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80
[그림 Ⅱ-250] 엘살바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82

[그림 Ⅱ-251] 엘살바도르 연도별 ODF 금액 ····· 583
[그림 Ⅱ-252] 엘살바도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584
[그림 Ⅱ-253] 2030 의제와 관련한 콜롬비아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 591
[그림 Ⅱ-254] 콜롬비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592
[그림 Ⅱ-255] 콜롬비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593
[그림 Ⅱ-256] 콜롬비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595
[그림 Ⅱ-257] 콜롬비아 연도별 ODF 금액 ····· 596
[그림 Ⅱ-258] 콜롬비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 596
[그림 Ⅱ-259] 파라과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602
[그림 Ⅱ-260] 파라과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604
[그림 Ⅱ-261] SDGs 목표에 따른 국가 일반예산 지원 현황 (2020) ····· 605
[그림 Ⅱ-262] 파라과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606
[그림 Ⅱ-263] 파라과이 연도별 ODF 금액 ····· 607
[그림 Ⅱ-264] 파라과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 608
[그림 Ⅱ-265] 페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 615
[그림 Ⅱ-266] 페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 616
[그림 Ⅱ-267] 페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 618
[그림 Ⅱ-268] 페루 연도별 ODF 금액 ····· 619
[그림 Ⅱ-269] 페루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 620

[그림 Ⅲ-1]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의 달성 정도 ····· 627
[그림 Ⅲ-2]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 ····· 628
[그림 Ⅲ-3]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공여국 지원 ····· 628

약어표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AA	Auswärtiges Amt	독일 외무부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ECID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프랑스개발청
AGRI-Ukraine	Agriculture Resilience Initiative-Ukraine	(USAID) 우크라이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
AHLC	Ad Hoc Liaison Committee	임시연락위원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ART	Antiretroviral Therapy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ASSP	Accès aux Soins de Santé Primaires	(DR콩고) 일차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사업
ASSR	Appui au Système de Santé en RDC	(DR콩고) 보건시스템 강화 사업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거래)
BARMM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
BDF	Business Development Fund	(독일 지원) 우크라이나 기업개발기금
BII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영국) 국제투자공사
BMWK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RAER	Building Resilience and an Effective Emergency Refugee Response	(우간다) 회복력 강화 및 효과적인 긴급 난민 대응
BSF	Bourses de Sécurité Familiale	(세네갈) 가족안전망 지원제도
BSG	Budgétisation Sensible au Genre	성인지 예산제도
C-TVET	Cooperativ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케냐) 협력형 직업기술교육훈련
C2D	Contrat de Développement et de Désendettement	(AFD) 채무탕감개발협약
C2EYP	Caring for Children and Empowering Young People	(탄자니아) 아동돌봄 및 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CAO	Cadre d'Accélération des ODD	(DR콩고) SDGs 가속화 프레임워크
CBFA	Congo Basin Forest Action Programme	(DR콩고) 콩고 분지 산림 행동 프로그램
CCBT	Climate Change Budget Tagging	(우간다) 기후금융 예산 편성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USAID) 국가개발협력전략
CDN	Contribution Déterminée au niveau National	국가 결정 기여
CEMAC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CEPAL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의 스페인어 약어)
CHPS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가나) 지역사회 기반 보건 계획 및 서비스
CICID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코트디부아르) 개발협력 각료회의
CIDES	Contrat d'Insertion des Diplômés du Supérieur	(튀니지) 고등교육 졸업생 취업 지원 계약
CIPP	Community Initiatives to Promote Peace	(나이지리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CLDP	Commercial Law Development Program	(미 상무부) 상법개발프로그램
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세네갈) 보편적 의료보장
CNCB	Comité National sur les Changements Climatiques et la Diversité Biologique	(모로코)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국가 위원회
CNDDR	Comité National de Désarmement, de Démobilisation et de Réintégration	(카메룬) 국가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위원회
CNDPF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Framework	(우간다) 중장기 국가 개발 프레임워크
CNFI	Cadre National de Financement Intégré	(세네갈) 통합국가재원조달체계
CNIF	Cadre National Intégré de Financement	(코트디부아르) 국가 통합 재정 프레임워크
CNPBM	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motion du Bilinguisme et du Multiculturalisme	(카메룬) 국가 이중언어·다문화증진국가위원회
CONAC	Commission Nationale Anti-Corruption	(카메룬) 국가반부패위원회
CONAMYPE	Comisión Nacional de la Micro y Pequeña Empresa	(엘살바도르) 국가소상공위원회
CONSUPE	Contrôle Supérieur de l'État	(카메룬) 최고국가감사원
COP29	Conference of the Parties (29th)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COPIL	Comité de Pilotage National	(튀니지) 국가 운영위원회
CP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KOICA)
CPD	Consommation et Production Durables	(세네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CPESDP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가나) 경제·사회 발전 정책 통합 프로그램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
CPP	Climate Prosperity Plan	(가나) 기후 번영 계획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OECD 공여자보고시스템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CSSF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DR콩고) 분쟁·안정·안보기금
CSU	Couverture Santé Universelle	보편적 건강보장
CTPSE-ODD	Commission Technique Permanente de Suivi des ODD	(코트디부아르) 상설 기술위원회
CYP	Couple Years of Protection	피임보호연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P	Digital Ambassador Program	(르완다) 디지털 앰배서더 프로그램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무장해제·동원해제·사회복귀
DDSs	District Development Strategies	(르완다) 행정구역 단위 개발전략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DFC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
DOAG	Development Objective Grant Agreement	(르완다) 개발목표 보조금 협정(미국)
DOH	Department of Health	(필리핀) 보건부
DRM	Disaster Risk Management	재난위험관리
EaP	Eastern Partnership	동방파트너십(EU)
ECLAC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
EEDA	Employ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Activity	(USAID) 고용 및 기업개발활동
EGI-ODD	Enquête Groupe d'Indicateurs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DR콩고) SDGs 지표 클러스터 조사
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교육관리정보시스템
EMV	Economic Modernisation Vision	(요르단) 경제현대화 비전
ENE	Estratégia Nacional de Desenvolvimento	(모잠비크) 국가개발전략
ENHRA	Essential National Health Research Agenda	(우간다) 국가필수보건연구의제
ENP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유럽근린정책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EPICS	Effective Palestinian Institutions and Civic Space	(영국) 팔레스타인 기관·시민공간 지원 프로그램
EPJP	Enhanced Palestinian Justice Program	(미국) 개선된 팔레스타인 사법 프로그램
ERGP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나이지리아) 경제회복성장계획
ERI	Indice de l'Engagement pour la Réduction des Inégalités	불평등 감소 노력 지수
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WA / UN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ESP II	Expanding Social Protection in Uganda - Phase Two	(우간다) 우간다 사회보호 확대 II단계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RA	Fixed Amount Reimbursement Agreement	고정금액 상환협정
FARDC	Forces Armées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DR콩고) DR콩고 국군
FCDO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FDAL	Fin de la Défécation à l'Air Libre	(코트디부아르) 야외배변 완전 종료 선언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FELICITY(II)	Financing Energy for Low-Carbon Investment-Cities Advisory Facility	GIZ 저탄소 도시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FSD	Financial Sector Deepening	(우간다) 금융부문심화
FSP	Filets Sociaux Productifs	(코트디부아르) 생산적 사회 안전망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 간(원조 방식)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국 회계감사원
GBA	Ghana Beyond Aid	(가나) 원조를 넘어선 가나
GBV	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FSS	Global Food Security Strategy	글로벌 식량 안보 전략
GGGI	Global Gender Gap Index	글로벌 젠더격차지수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HSC-PSM	Global Health Supply Chain Program - Procurement and Supply Management	글로벌 보건 공급망 프로그램-조달 및 공급관리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GIEP	Government Indicative Executive Programme	(요르단) 정부 지표집행계획
GII	Global Innovation Index	글로벌 혁신 지수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RA	Gaza Reconstruction Authority	가자재건청
GSS	Ghana Statistical Service	(가나) 가나 통계청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HDP(Nexus)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인도-개발-평화 연계 접근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DH	Indice de Développement Humain	인간 개발 지수
ID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전략
IFMEREE	Instituts de Formation aux Métiers des Energies Renouvelables et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	(모로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훈련기관
IFSLU2	Investment in Forests and Sustainable Land Use Phase II	(DR콩고) 산림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투자 프로그램
IGPA	Iraq Governance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이라크 거버넌스 및 성과 책임 프로젝트
IHP	Integrated Health Program	통합보건프로그램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FF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통합국가지원체계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PC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
IPS	Indice de Parité entre les Sexes	성별 패리티 지수
IR23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영국 통합안보외교 국방정책 개정판 2023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통합 수자원 관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ATA	Kyrgyz Republic Agro Trade Activity	(USAID) 키르기스 농업무역 활동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재건은행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CDI	Local Comparative Development Index	지방비교개발성과지수
LCDPI	Local Comparative Development Perseverance Index	지방비교개발지속지수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LMIS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	노동시장정보시스템
LNOB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공사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DLF	Municipal Development and Lending Fund	지자체개발대출기금
MESC	Management Engineering Services Contract	(요르단) 관리엔지니어링서비스계약
MMDA	Metropolitan, Municipal and District Assembly	(가나) 지방정부
MoPIC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요르단) 계획국제협력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TEDD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et du Développement	(모로코) 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MTEF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가나) 중기 지출 기본계획
MTNDPF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가나) 중기 국가개발정책 기본방침
NACAP	National Anti-Corruption Action Plan	(가나) 국가반부패행동계획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 적응 계획
NCD	Non-Communicable Disease	비감염성질환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결정 기여
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국가개발계획
NDS-2030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30	(타지키스탄) 국가개발전략 2030
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고용, 훈련에 미참여하는 청년
NES	National Economic Strategy	(우크라이나) 국가경제전략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국민건강보험제도
NLA	National Learning Assessment	국가학습평가
NMD	Nouveau Modèle de Développement	(모로코) 새로운 개발 모델
NPA	National Policy Agenda	(팔레스타인) 국가정책의제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라오스)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T1 / NST2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I / II)	(르완다) 국가전환전략
NU-TEC	Northern Uganda: Transforming the Economy through Climate Smart Agribusiness	(우간다)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한 북부 우간다 경제 전환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OCDD	Observatoire Congolais du Développement Durable	(DR콩고) 콩고지속가능발전관측소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D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공적개발재원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AID) 감사관실
ONDH	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모로코) 국가 인적개발관측소
OPT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팔레스타인 점령지
P4F	Partnerships for Forests	(DR콩고) 파트너십 포 포레스트
PARCES	Programme d'Appui au Renforcement de la Compétitivité de l'Économie Sénégalaise	(세네갈) 세네갈 경제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PBA	Partnership Beyond Aid	원조를 넘어선 파트너십
PCBS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
PCD	Plan Communal de Développement	(카메룬) 지방개발계획
PCED	Palestinian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팔레스타인) 포괄적 경제발전 프로그램
PDC	Plans de Développement communal	(세네갈) 코뮌(Commune) 단위 개발계획
PDD	Plans de Développement départemental	(세네갈)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단위 개발계획
PDL-145T	Programme de Développement Local des 145 Territoires	(DR콩고) 145개 지역 개발 프로그램
PDM	Parish Development Model	(우간다) 패리시 개발 모델
PDP	Plan de Développement Provincial	(DR콩고) 주별 개발계획
PDP	Philippine Development Plan	(필리핀) 국가개발계획
PEPFAR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미국) 대통령 에이즈 구호 비상계획
PFN	Politique Forestière Nationale	(DR콩고) 국가 산림 정책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MC	Project(Program) Management Consultant	사업관리컨설턴트
PMI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미국)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PMTCT	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임산부로부터 아동으로의 감염예방
PNA	Plan National d'Adaptation	국가 적응 계획
PNACC	Plan National d'Adaptation aux Changements Climatiques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PND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코트디부아르) 국가개발계획
PNDP	Programme National de Développement Participatif	(카메룬) 국가 참여적 개발 프로그램
PNDS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카메룬) 국가보건발전계획
PNPS	Politique Nationale de Protection Sociale	(카메룬) 국가사회보호정책
PNSD	Plan National Stratégique de Développement	(DR콩고) 국가전략개발계획
PP4PP+P	Privileged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DR콩고) 평화·번영·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파트너십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파트너십
PPRD	Plan Présidentiel de Reconstruction et de Développement des Régions du Nord-Ouest et du Sud-Ouest	(카메룬) 북서부·남서부 지역 재건 및 개발계획
PQD	Plan Quinquennal de Développement	(튀니지) 5개년 개발 계획
PRD-EN	Plan de Recouvrement et de Développement de la Région de l'Extrême-Nord	(카메룬) 극북지역 재건 및 개발계획
PRECOL	Programme d'Appui à la Décentralisation et au Développement Local	(세네갈) 광역권 지방분권 지원 프로그램
PSA	Private Sector Activity	(USAID) 민간부문활동
PSE	Plan Sénégal Émergent	(세네갈) 세네갈 신흥계획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BF	Result-Based Financing	성과기반재정
RDNA4	(Fourth)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제4차 신속 피해·수요평가
RHN	Les Rencontres à Haut Niveau	(모로코) 정부 간 고위급 회담
RISE	Reducing High Fertility Rates and Improv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utcomes in Uganda	(우간다) 고출산율 감소 및 성·생식 건강 성과 개선
RMNCH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모성·신생아·아동보건
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중기개발계획
SAGE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Ghana's Education System	(가나) 가나 교육 책무성 강화
SBCT-LT2050	Stratégie Bas Carbone à Long Terme Maroc 2050	(모로코) 모로코 장기 저탄소 전략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개발협력청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DSIL	Strengthening Education Systems for Improved Learning	학습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EMI	Services Essentiels de Santé Maternelle et Infantile	(DR콩고) 필수 모자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VP	Stage d'Initiation à la Vie professionnelle	(튀니지) 직업 생활 입문 연수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SNAIC	Stratégie nationale pour l'agriculture intelligente face au climat	(코트디부아르) 기후 스마트 농업 국가 전략
SN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세네갈) 국가발전전략
SND30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2020-2030	(카메룬) 국가개발전략 2020-2030
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	(모로코)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SNDP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 secteur privé	(세네갈)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SNDS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Statistique	(세네갈) 국가 통계 발전 전략
SNE	Stratégie Nationale de l'Eau	(모로코) 국가 물 전략
SNI-GES	Système National d'Inventaire des Gaz à Effet de Serre	(모로코) 국가 온실가스 목록 시스템
SNRRC	Stratégie National de Réduction des Risques des Catastrophes	(튀니지)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
SNSAR	Stratégie Nationale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Résilience	(세네갈) 국가 식량 안보 회복력 전략
SPA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SPARC	Securing Power, Advancing Resilience and Connectivity	(미국) 전력 안보·회복력·연결성 확보 프로그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TA	Taux d'Achèvement	(코트디부아르) 초등학교 완료율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기술교육훈련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
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 중소득국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 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국제여성기구
UNCF	(UN-Ukraine) Cooperation Framework	UN-우크라이나 지속가능발전 협력프레임워크

약어	원어(풀네임)	한국어 뜻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SDCF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유엔지속가능발전협력프레임워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VLR	Voluntary Local Review	자발적지역검토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국가보고서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물·위생·개인위생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SH	Women's Integrated Sexual Health	여성 통합 성생식 건강 프로그램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SDGs 체계와 개요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공표된 새로운 개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달성 기한이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로 채택되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발전목표로 자리잡았다. 기존 MDGs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했던 것과 달리 SDGs는 모든 국가가 사회발전-경제발전-환경보존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만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표인 것이다.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중복 지표를 제외하고 23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UN 2025b). 이 지표들은 2016년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그 결과 2016년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되었을 때 지표의 3분의 1만이 적절한 데이터 커버리지를 갖추고, 39%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약 70%의 지표가 적절한 데이터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고 모든 지표가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다(UN 2025c). 처음 SDGs가 발표되었을 때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모든 것을 포함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구호로 남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그러나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이라는 대원칙 아래 인류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든 의제가 SDGs로 포함되었고,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로 채택되었다. SDGs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만큼 5P(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라는 5개의 축을 중심으로 목표를 구분할 수 있다. 〈표 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ople에는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인 SDG 1, 2, 3, 4, 5번이 포함되고, Prosperity에는 경제발전의 주요 목표인 SDG 7, 8, 9, 10, 11번이 포함되며, Planet에는 환경보존의 주요 목표인 SDG 6, 12, 13, 14, 15번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의 전제 조건인 Peace와 Partnership에는 각각 SDG 16과 17번이 포함된다(OECD 2019).

〈표 Ⅰ-1〉 5Ps, SDGs, 세부목표, 지표

5Ps	SDGs	세부목표(개)	지표(개)
People	1. No poverty (빈곤퇴치)	7	13
	2. Zero hunger (기아종식)	8	15
	3. 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과 웰빙증진)	13	28
	4. Quality education (양질의 교육 보장)	10	12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	9	14
소계		**47**	**82**
Planet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8	11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1	13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5	8
	14. 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존)	10	10
	15. 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존)	12	14
소계		**46**	**56**
Prosperity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5	6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2	17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사회기반 시설 산업화 및 혁신)	8	12
	10. Reduced inequalities (불평등 감소)	10	14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10	16
소계		**45**	**65**
Peace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12	24
Partnership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글로벌 파트너십)	19	24
합계		**169**	**251**

자료: OECD 2019; UN 2025b

유엔은 SDGs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로 자발적인 평가 보고서인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받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SDGs의 후속조치 및 검토를 위해 유엔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에서 발표되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총 402개의 VNR이 제출되었으며 두 번 이상 제출한 국가가 총 148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UN 2025a). 〈표 Ⅰ-2〉는 동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협력국들이 VNR을 제출한 연도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미얀마, 한번 제출한 팔레스타인, 볼리비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모두 두 번 이상의 VNR을 제출하였거나 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제출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제르바이잔이다.

〈표 Ⅰ-2〉 협력국들의 VNR 제출연도

아시아	제출연도	아프리카	제출연도
방글라데시	2017, 2020, 2025	에티오피아	2017, 2022, 2025
캄보디아	2019, 2023	가나	2019, 2022, 2025
인도네시아	2017, 2019, 2021, 2025	이집트	2016, 2018, 2021
라오스	2018, 2021, 2024	르완다	2019, 2023
몽골	2019, 2023	세네갈	2018, 2022
네팔	2017, 2020, 2024	우간다	2016, 2020, 2024
파키스탄	2019, 2022	DR콩고	2020, 2023
필리핀	2016, 2019, 2022, 2025	나이지리아	2017, 2020, 2025
스리랑카	2018, 2022	모로코	2016, 2020
베트남	2018, 2023	모잠비크	2020, (2026)
인도	2017, 2020, 2025	알제리	2019, (2026)
동티모르	2019, 2023	카메룬	2019, 2022
피지	2019, 2023	케냐	2017, 2020, 2024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2019, 2022
		튀니지	2019, 2021, (2026)
		탄자니아	2019, 2023, (2026)
중남미	제출연도	중동 CIS	제출연도
볼리비아	2021	키르기스스탄	2020, 2025
콜롬비아	2016, 2018, 2021, 2024	우즈베키스탄	2020, 2023
파라과이	2018, 2021	우크라이나	2020
페루	2017, 2020, 2024	타지키스탄	2017, 2023
과테말라	2017, 2019, 2021, 2025	아제르바이잔	2017, 2019, 2021, 2024
도미니카(공)	2018, 2021, 2025	요르단	2017, 2022
에콰도르	2018, 2020, 2024	이라크	2019, 2021, 2025
엘살바도르	2017, 2022, 2025	팔레스타인	2018

한편, HLPF에서는 매년 SDGs 목표를 선별하여 진척 현황을 자세히 다루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다루어진 목표는 〈표 Ⅰ-3〉에서 보는 바와 같다. HLPF 초반에는 매년 6개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는 매년 5개의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행 수단을 정의한 목표인 SDG 17번이 매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SDGs 달성에 있어 이행 수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유엔경제사회국에서는 매년 SDGs 진척현황이 담긴 '지속가능발전목표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SDGR)'를 발행하고 있으며, 유엔 지역별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매년 해당 지역의 SDGs 진척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표 Ⅰ-3〉 연도별 HLPF의 SDGs 주제

연도	회의에서 다룬 SDGs
2017	SDG 1, 2, 3, 5, 9, 14, 17
2018	SDG 6, 7, 11, 12, 15, 17
2019	SDG 4, 8, 10, 13, 16, 17
2020	
2021	SDG 1, 2, 3, 8, 10, 12, 13, 16, 17
2022	SDG 4, 5, 14, 15, 17
2023	SDG 6, 7, 9, 11, 17
2024	SDG 1, 2, 13, 16, 17
2025	SDG 3, 5, 8, 14, 17
2026(예정)	SDG 6, 7, 9,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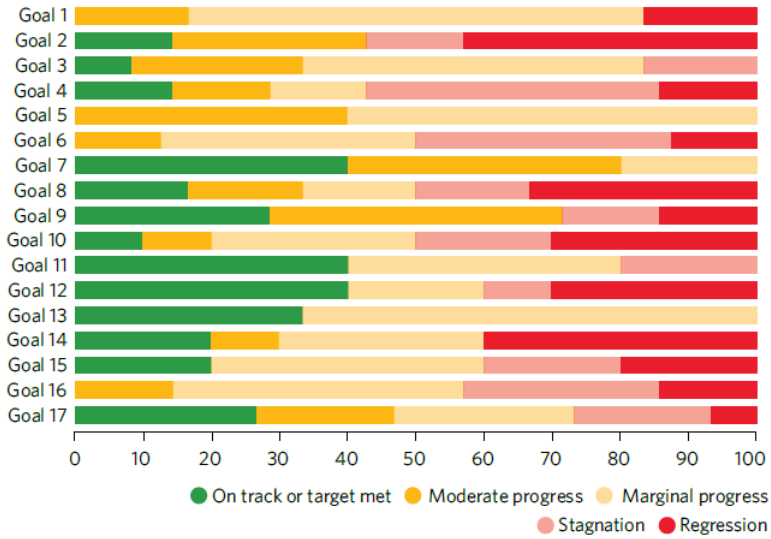
유엔 기구가 발행하는 보고서는 아니지만 MDGs 채택으로 잘 알려진 Jeffrey Sachs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에서 2016년부터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SDR)' 또한 각 국가별 SDGs 이행 현황을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별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SDG 이행 점수(SDG Index Score)'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SDGs 목표 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유엔의 공식적인 모니터링 도구는 아니다. 또한 SDSN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지표 중 일부는 UN에서 정한 SDGs 지표와 다르므로 목표별 진척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s 지표 체계가 포괄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SDSN이 사용가능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SDGs 실행에 초기 동력을 부여하고 조기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수를 개발하였다. 데이터 기반으로 17개 목표 달성의 진전을 측정하고 통합적으로 수치화함과 동시에 주요 이행 과제와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2016년 SDGs 지표 체계가 확정된 이후, 국제사회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5년 3월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0개국이 VNR을 발표하였고 SDG 이행 우선순위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강력한 글로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Sachs et al. 2025). 이러한 참여는 SDGs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SDGs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한계와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그림 Ⅰ-1] 2025년 기준, SDGs 목표별 진척도



자료: UN 2025, 4

2025년 글로벌 SDGs 보고서에 따르면 169개 SDG 세부목표 중 35%만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48%의 목표는 진전이 부족하고, 18%의 목표가 2015년 기준선 수준 아래로 후퇴하였다(UN 2025c). 이에 식량 체계, 에너지 접근성, 디지털 전환, 교육, 고용 및 사회보호,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대응이라는 6개의 SDGs 전환은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분야라고 언급하며 이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적시성, 포용성, 실행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상호 책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위해 새로운 다자주의가 긴급히 요구됨을 언급하고 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 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아시아 SDGs 보고서는 SDG 9, 3, 1번 목표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으며 SDG 2번 목표도 성과가 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ESCAP 2025).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 되는 지역으로 SDG 13번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고, 이외에도 SDG 12, 4, 8, 14번 목표에서 진전이 미미한 상황이다. 지역 내 데이터 부족은 SDG 5번과 16번 목표의 진척 사항을 이해하는데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공식 통계가 부족한 분야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아프리카 SDGs 보고서는 3, 5, 8, 14, 17번 목표에 대한 진척 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African Union Commission et al. 2025). SDG 3번 관련, 아프리카는 해당 지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2030년까지 SDG 3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DG 5번 관련, 차별적인 법규와 사회적 규범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원, 재산 소유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고 아프리카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SDG 8번 관련, 최근 경제 충격,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다양한 도전과제들은 대륙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DG 14번 관련, 쓰레기로 인한 오염, 과도한 어업, 해양도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SDG 17번 관련, 감소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증가하는 부채 부담, 취약한 국내 자원 동원 노력 등 아프리카가 극복해야 하는 재정적 도전과제가 상당한 것을 확인되었다.

2025년 중남미 SDGs 보고서는 해당 지역의 SDGs 중 36%가 진척도 측면에서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41%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중이나 진전이 느린 상황이고, 23%만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CLAC 2025). 중남미는 현재 성장 잠재력 부족, 고도의 불평등과 낮은 사회적 이동성 및 결속력, 기관 역량 부족과 비효율적 거버넌스라는 개발 함정에 빠져 있다. 불평등을 줄이고 기관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만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SDG 3번 목표 관련,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모성 사망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SDG 5번 목표 관련,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승인에 있어 진전이 있었으나 여성 살해율이 여전히 높으며 경제적 기술적 자원 접근에서의 성별격차라는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SDG 8번 목표 관련, 정체된 GDP, 투자 감소, 생산성 낮은 산업에 집중된 고용, 비공식 부문과 소득 불평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SDG 14번 목표 관련, 해양 오염, 어업자원의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의 해양영향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3) SDGs 목표간의 연결성

SDGs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MDGs가 끝난 2015년 이후, 국제사회는 개발 지형의 변화, 개발재원 문제,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정학적 갈등, 극단주의 대두와 같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축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달성 기한이 5년 남은 SDGs의 이행성과는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50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행 성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와 이후 지속되는 복합 위기로 인해 오히려 성과가 역행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UN에서는 SDGs 전반에 걸쳐 촉매 및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환점에 주목하며 이 전환점을 △식량 시스템 △에너지 접근성 및 경제성 △디지털 연결성 △교육 △일자리 및 사회보장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오염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23). 이 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는 SDGs의 각 목표와 세부목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목표의 이행 진전이 다른 목표의 달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Pradhan et al. 2017; Bennich et al. 2023; Cling and Delecourt 2022;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2017; Fahim et al. 2026; Asadikia et al. 2022; Fronza et al. 2023). 이들 연구에서 언급되는 대표적 시너지 창출 목표는 SDG 4번이다. SDG 4번은 다른 모든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역량 형성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그 중에서도 불평등 감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SDG 3번 역시 기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시너지 목표로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조력자인 동시에 지속가능한발전의 주요 결과로 이해된다. 실제로 SDG 3번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물·위생 등 다양한 목표와 강한 시너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SDG 16번의 경우 다른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목표라기 보다,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축적을 매개로 여타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는 조력 목표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나아가 이러한 시너지 관계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하위중소득국 및 저소득국에서는 보건시스템 강화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SDG 3번의 조력적 역할(enabler)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SDG 16번과 SDG 4번이 다른 목표들의 진전을 용이하게 하는 상류 동력(Upstream Drivers)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기초교육이 확대될 때 인적자본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중소득국에서는 SDG 7번과 SDG 8번이 생산적 전환을 위해 우선 집중해야 할 목표들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에너지 접근성 확대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사업 활동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형성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생산적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각 국가들은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 걸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하며 SDGs의 통합적 성격을 인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력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공여국 또한 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을 개발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어떤 SDGs도 단독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전체 SDGs는 단순한 합산 구조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개발협력과 SDGs 달성과의 관계

개발협력은 협력국의 SDGs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SDG 3, 4, 6번 지표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Guerrero et al. 2023). 또한 대부분의 DAC 공여국은 SDGs를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채택하고 ODA 예산을 특정 목표와 직접 연계하고 있다(Ingram and Hlavaty 2021). 그러나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 정도를 개발전략에 반영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SDGs 달성도가 낮은 국가의 필요에 집중하여 원조를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SDG 지표에서 성과를 낸 국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Brouwer 2024).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 정도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익, 또는 과거 식민지 관계 등 역사적 유대를 개발전략을 세우는데 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Brouwer 2024).

한편, 한국은 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 △포용적 가치실현, △호혜적 상생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SDGs 이행기간인 2030년까지 12개의 중점과제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중 '포용적 가치실현'의 중점과제인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와 연관된 SDGs 달성에 KOICA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4차 기본계획 내 무상분야 만의 단일 전략목표 체계가 수립되어 KOICA는 대표 무상원조 기관으로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KOICA가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을 보유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지난 10년 간의 SDGs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KOICA의 중점 지원 분야와 관련된 SDGs 이행 현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본 후, 이들 국가의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KOICA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개발협력관점에서 주요 협력국의 SDGs 이행 수준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로 SDGs 이행 전략 및 지난 10년간의 SDGs 목표 진척도를 살펴보고, CP가 지원하는 SDGs 별 성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협력국의 이행노력과 타 공여기관의 지원현황도 함께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KOICA의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 결론에서는 앞 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CP 보유 국가들의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동 연구는 CP를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SDGs 이행 수준과 정책적 우선순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KOICA의 CP 개정 및 사업 접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정량적 지표 분석과 정성적 문헌분석, 인터뷰를 결합하여 적용하였다. 유엔의 SDGs 이행 보고서, 지역별 유엔경제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SDGs 이행 보고서, SDSN의 SDGs 보고서, 각 협력국의 VNR 및 SDGs 목표별 이행 계획 관련 문헌, 타 공여국의 지원 전략 문서, 한국 정부의 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KOICA의 CP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KOICA 지역사무소 직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문헌을 통해 파악한 협력국의 전략 등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제시할 KOICA의 지원 방향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분석 틀은 크게 ① SDGs 이행 수준, ② 협력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및 전략 방향, ③ 공여국의 지원 현황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해당 틀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4대 원칙 중 3가지인 결과중심, 주인의식, 포용적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착안하였다.

① SDGs 이행 수준 분석 : SDSN의 SDR 및 UN의 SDGs 보고서들을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SDGs 전반적 이행 수준, 목표별 달성 현황, 진전 속도 및 상대적 취약 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SDSN의 SDR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별 SDG 대시보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현재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행 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관찰하였다. 또한 SDGs 17개 목표 전체의 이행 현황을 점수화한 SDG 이행 점수와 SDG 목표별 이행 현황을 점수화한 SDG 목표별 이행 점수도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 SDG 이행 수준을 전체

와 부분으로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에 대한 공식적 서술과 정책적 자기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각 협력국이 UN에 제출한 VNR을 보완 자료로 활용하여 협력국 스스로 인식하는 SDGs 이행 성과를 검토하였다.

② 협력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및 전략 방향 분석: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와 전략 방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VNR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텍스트 분석을 병행하였다. 우선 VNR 및 관련 국가 전략 문서를 통해 각 협력국이 제시하는 중장기 개발 전략, 핵심 정책 영역,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수단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국제파트너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 DG INTPA)과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가 공동 개발한 SDG Mapper[1]를 활용하여 VNR 본문에 대한 SDGs 목표 관련 키워드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서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SDGs 목표와 정책 영역을 도출하고, 협력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를 추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VNR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각 목표 관련 전략뿐만 아니라, 서술의 반복성과 강조도를 통해 드러나는 정책적 메시지를 보조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국가별 개발전략문서가 아닌 VNR을 분석 대상 문서로 선택한 이유는 SDGs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관된 형태의 정책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VNR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 또는 제출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VNR이 최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 국가는 보조 자료로 해당 국가의 개발전략문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③ 공여국의 지원 현황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OECD의 공여자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데이터와 AidData[2]의 공적개발재원(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3]금액 기준의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OECD DAC의 CRS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

1) 특정 문서가 SDGs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웹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도구이다. SDGs 목표별로 맵핑된 키워드 리스트가 개발되어 있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하면, 키워드 리스트와 문서가 상호확인되며,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SDGs 목표를 순서대로 막대그래프로 보여준다.
2) AidData는 윌리엄앤메리 대학의 글로벌연구기관(Global Research Institute)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연구랩으로 더욱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었다.
3) AidData에서는 OECD CRS 데이터의 ODA, OOF, Equity Investment, Private Development Finance 금액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SDGs 목표와 맵핑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공적개발재원(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RS 데이터는 SDGs와 직접적인 매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국의 지원액을 SDGs 목표와 연계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SDGs 목표와 직접적으로 매핑되어 있는 AidData의 ODF 통계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1년까지[4] 협력국별로 주요 공여국이 어느 SDGs 목표 및 부문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SDGs 목표에 대한 지원 집중 또는 상대적 공백 영역을 식별하고, 국제적 분업 구조 속에서 KOICA의 전략적 위치와 차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각 협력국 분석의 최종 단계로는, KOICA가 현재 또는 향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CP 관련 SDGs 목표를 대상으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표를 제시하였다. SDGs 이행 수준은 SDSN의 SDR의 국가별 SDG 이행 점수를 기준으로 특정 목표의 점수를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각 국가의 SDGs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목표별 성과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하고자 함이다.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SDG Mapper를 사용하여 VNR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SDGs 목표별 단어 빈도수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각 목표에 대한 단어 빈도수는 VNR 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며, 이를 통해 협력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전체 SDGs 목표의 단어 빈도수 분포 중 상위 50%에 해당하면 '높음', 그렇지 않으면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공여국의 지원 현황은 OECD DAC의 ODF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각 목표별 지원 금액을 OECD DAC 공여국 전체가 지원한 금액과 비교하여, 특정 목표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체 지원 금액 상위 50%에 해당하면 '많음', 그렇지 않으면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해당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 집중도를 반영하며, 타 공여국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KOICA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데이터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심 경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위 50% 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제시된 3가지 기준들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은 KOICA의 전략적 개입 방식에 따라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향후 CP 개편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AidData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만 SDG 목표와 맵핑하여 제공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이다.

〈표 Ⅰ-4〉 성과-관심사-지원을 바탕으로 한 SDGs 유형 구분

유형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	내용
1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2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3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5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7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8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즉, 연구에서는 개별 지표나 단일 문헌분석에 그치지 않고, 성과 수준, 정책적 의지, 국제 지원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SDGs 분석을 시도함으로 협력국의 구조적 수요와 정책 환경을 모두 반영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Ⅰ-5〉 단계별 연구내용 및 방법

SDGs 이행 수준	• SDR의 SDGs 대시보드 • SDGs 이행 점수 • VNR 종합 검토
협력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 VNR 정책 서술 분석 • SDG Mapper 기반 SDGs 단어 빈도 분석
공여국의 지원 현황	• ODF 금액 기준 분석 • 주요 공여국 사례 검토
종합 분석	• 성과-관심사-지원 간 정합성 및 격차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 KOICA CP 방향성 및 향후 사업 접근 방식 제언

3. 연구의 한계

동 연구는 다각적인 자료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SDGs 이행 수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SDGs는 광범위한 목표와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표는 국가별 통계 역량의 차이로 인해 UN 공식 데이터로 집계되지 않거나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SDGs 대시보드를 주요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으나, 이는 UN 공식 통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 결과에서는 두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VNR은 협력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정부의 정책적 관점과 성과 중심 서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VNR이 SDGs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긍정적 성과를 중심으로 나열한 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VNR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국제 비교 지표 및 타 공여국 지원 현황 분석과 병행함으로써 단일 자료 의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SDG Mapper를 활용한 단어 빈도 분석은 협력국 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 영역을 추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정책 우선순위나 실제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SDGs 관련 용어의 반복 사용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치적 우선순위에 의한 보고서 작성 방식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책적 중요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협력국 현지 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병행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된 정책적 관심사가 실제 사업 수요 및 현지 맥락과 부합하는지를 교차 검증하여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분석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협력국의 정책적 의지, 국제 지원 환경, KOICA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은 정량 지표만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동 연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석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근거와 논리를 명시함으로써 해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정보의 양과 깊이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최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협력국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내부적 분쟁 또는 정치적 불안

정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보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보의 양과 깊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는 다양한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협력국의 SDGs 이행 환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KOICA의 CP 개편에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Ⅱ. 개발협력 관점에서 주요 협력국의 SDGs 이행 수준 및 KOICA 지원 방향

1. 아시아 14개 협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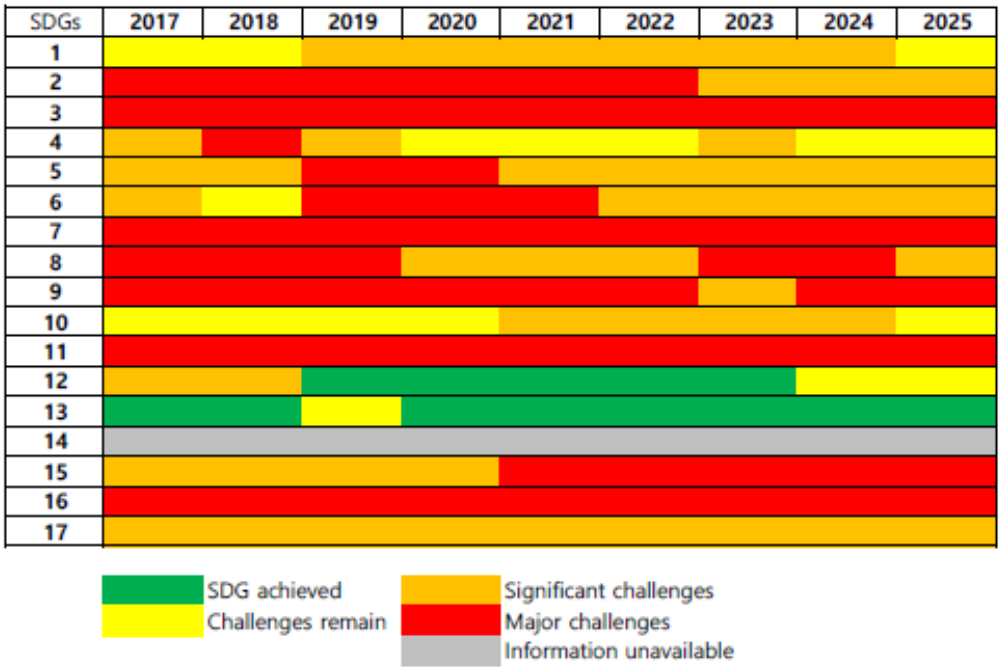
1) 네팔

(1) SDGs 이행 현황

2024년 제출한 VNR에 따르면 네팔은 2022년 중간 목표 대비 국가 평균 58.6%의 진척률을 기록했으며, 2030년 장기 목표 대비로는 41.7%를 달성했다. 지표별 성과를 살펴보면 평가된 지표 중 41%는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35%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20%는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3%는 정체상태이다(Government of Nepal 2024a). 한편, 현재의 진행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 전체 목표의 약 60.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성과를 내고 있는 SDG 목표는 1, 4, 7, 11번으로 확인되었다. SDG 1번은 다차원 빈곤지수가 2014년 30.1%에서 2022년 17.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보호시스템의 인구커버리지도 47%로 증가해 목표치인 41.7%를 초과하였다. SDG 4번 관련해서는 초등교육 순 등록률이 97.1%에 도달하였으며 학업유지율도 개선되는 등 교육 접근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관련 목표인 SDG 7번에서는 전력 접근성을 가진 인구 비율이 95%에 달해 2022년 목표였던 85.7%를 초과달성하였고, SDG 11번 관련해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재난 영향 감소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overnment of Nepal 2024a).

그러나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지표와 가임기 여성 및 아동의 빈혈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비공식 고용 비중이 여전히 높고 실업률 및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부문 성장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 학대 감소 속도가 더디고 공공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 제어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Ⅱ-1] 네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네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 색깔이 변화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목표는 SDG 2, 4, 8, 12번 정도로 확인된다. 3, 7, 11, 16번의 경우는 10년간 변함없이 주요 도전과제로 표시되어 크게 성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팔의 SDG 이행 점수는 2017년 65.1점에서 2024년 68.6으로 3.5점 상승하였다(SDSN 2025).

KOICA 네팔에서 총 4개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DG 4번 달성을 지원하는 '내수산업 연계 교육체계 구축', SDG 3번 달성을 지원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SDG 2번 달성을 지원하는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는 'ICT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2] 2025년 네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2번은 3개 지표는 진전, 3개는 정체, 2개는 후퇴, 6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된 지표는 SDG 2.2.3, 2.a.1, 2.a.2번 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2.1.2와 2.2.2번이다. SDG 3번은 16개 지표는 진전, 2개는 정체, 4개는 후퇴, 6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체된 지표는 SDG 3.7.1과 3.8.2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3.5.2, 3.9.3, 3.b.2, 3.d.2번이다. SDG 4번은 4개 지표는 진전, 2개 지표는 정체, 나머지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된 지표는 SDG 4.2.2와 4.a.1번이다. SDG 16번은

3개는 진전,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체되고 있는 지표는 SDG 16.7.1번이고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16.1.1번이다(UN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네팔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은 2017년 이후 조금씩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2022년 점수가 상승하여 SDG 이행 점수 점수와의 간격을 많이 좁힌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SDG 이행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SDG 3번 점수 또한 SDG 이행 점수보다 낮으며, 일정한 간격의 점수 차가 유지되고 있어 성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SDG 4번은 점수가 크게 상승하는 변화는 없으나 유일하게 SDG 이행 점수보다 점수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목표이다. SDG 16번은 지속적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 SDG 이행 점수 점수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두 점수 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림 Ⅱ-3] 네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네팔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17년 첫 VNR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제14차 국가개발계획에 SDGs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인프라, 사회, 경제, 거버넌스 등 5대 핵심 축을 SDGs 목표들과 연계하였다. 특히 학교 교육 부문 개발 계획, 보건 전략, 기아 종식 로드맵, 농업 개발 전략 등 주요 부문별 마스터 플랜을 SDGs 목표에 맞춰 조정하였다(Government of Nepal 2017). 더불어 SDGs 이행을 총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 체계를 SDGs 운영위원회, SDGs 조정 및 이행 위원회, 9개 주제별 이행 및 모니터링 위원회 3단계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2016년부터 연간 예산과 모든 국가프로그램에 SDGs 예산 코드를 도입하여 예산이 SDGs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SDGs 이행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2015년 기준 데이터와 단계별 목표치를 포함한 기초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SDGs와 연계하였으며, 지방정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SDGs 관련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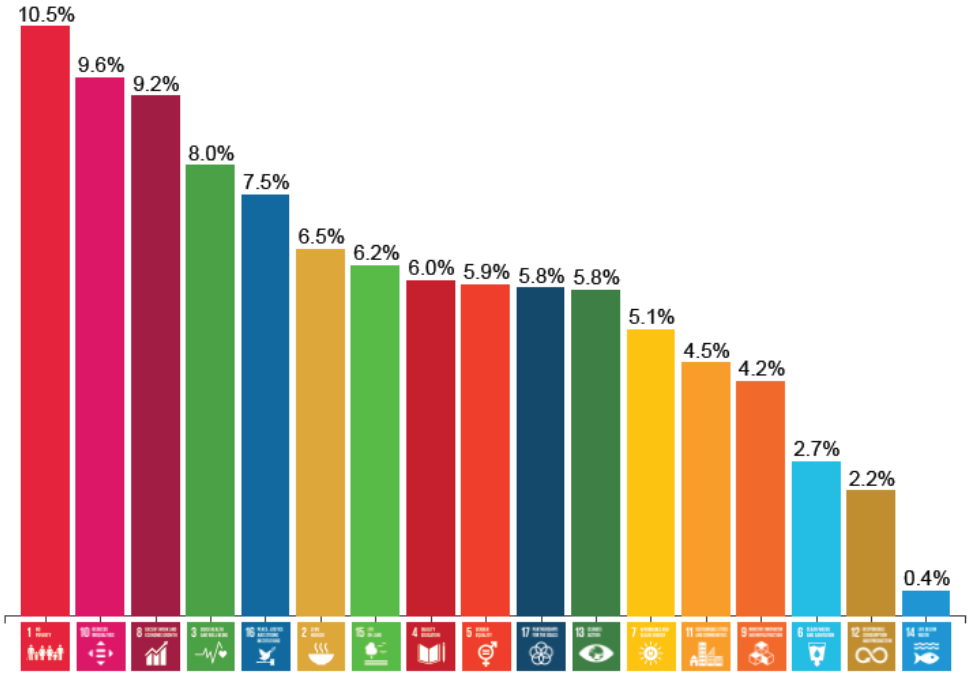
2020년 VNR에서는 연방 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Committee)'가 예산 심의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은 SDGs 이행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모니터링 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Government of Nepal 2020a). 또한 2030년까지 매년 평균 약 2조 250억 루피(약 19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함을 산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원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DG 필요성 평가, 비용 산출 및 자금 조달 전략(SDGs Needs Assessment, Costing and Financing Strategy)'을 마련하였다. 2017년 이후 '장애인 권리법 2017(Act Relating to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사회보장법 2018(The Social Security Act 2018)'등 여러 법제도를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인다.

4년 후인 2024년 VNR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SDG 지방화 로드맵과 기초보고서를 수립하였고 예산편성시 SDG 코딩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16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SDG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자발적 지역검토(Voluntary Local Review)'를 실시하는 등 지역 단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Government of Nepal 2024a). 세 번째 VNR에서 확인된 네팔 정부의 가장 큰 이행 노력은 '통계법 2022(National Statistics Act 2022)' 제정과 국가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통계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통계국의 역할을 강화하며 여러 부처와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SDGs 진척도 측정을 위한 세분화 데이터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네팔 2017년, 2020년, 2024년 3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1, 10, 8, 3, 16, 2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네팔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 이 관심 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2, 3, 16번이었다.

'제15차 국가개발계획 2019/20~2023/24(The Fifteenth Plan Fiscal Year 2019/20~2023/24)'에 따르면 네팔은 2022년까지 최저개발국 지위 탈피, 2030년까지 SDGs 달성 및 상위중소득국 진입, 2043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Government of Nepal 2020b). 이를 위해 번영과 행복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였다. 번영을 위한 4개 목표는 현대적 인프라, 인적 자본 활용, 생산성 향상, 국가 소득 증대이며 행복을 위한 5개 목표는 웰빙,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환경, 굿 거버넌스, 국가통합·안보·존엄이다. 제15차 계획은 네팔의 지형적·자원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인적 자본을 개발함으로써 빈곤을 타파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된 사회주의 지향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제16차 국가개발계획2024/25~2028/29(The Sixteenth Plan Fiscal Year 2024/25~2028/29)'는 2026년까지 최저개발국 지위 탈피,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상위중소득국 진입을 이정표로 삼고 있다(Government of Nepal 2024b). 이를 위해 네팔 정부는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13개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거시경제 펀더멘탈 강화,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건강하고 숙련된 인적 자본 형성, △고품질 인프라 및 연결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도시화, △성평등 및 포용적 사회 구축, △지방경제통합과 균형발전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재정 관리 효율화와 자본지출 역량 강화, △거버넌스 개혁 및 굿거버넌스 촉진,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녹색 경제 전환, △LDC 졸업과 SDGs 이행이 여기에 포함된다(Government of Nepal 2024b). 이러한 계획의 내용과 SDG 1, 10, 8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Ⅱ-4] 네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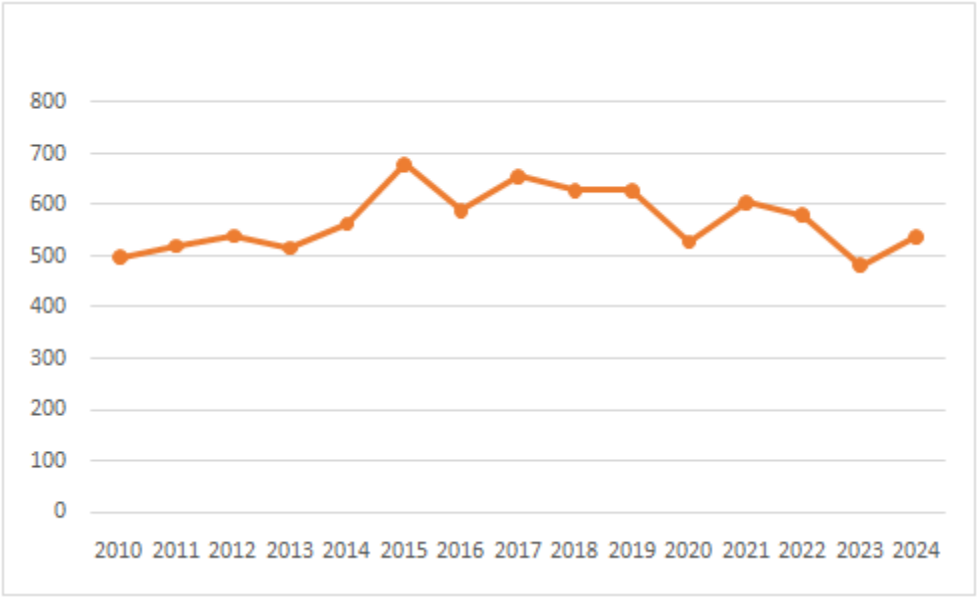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네팔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최고 금액을 찍은 후 등락을 거듭하며 조금씩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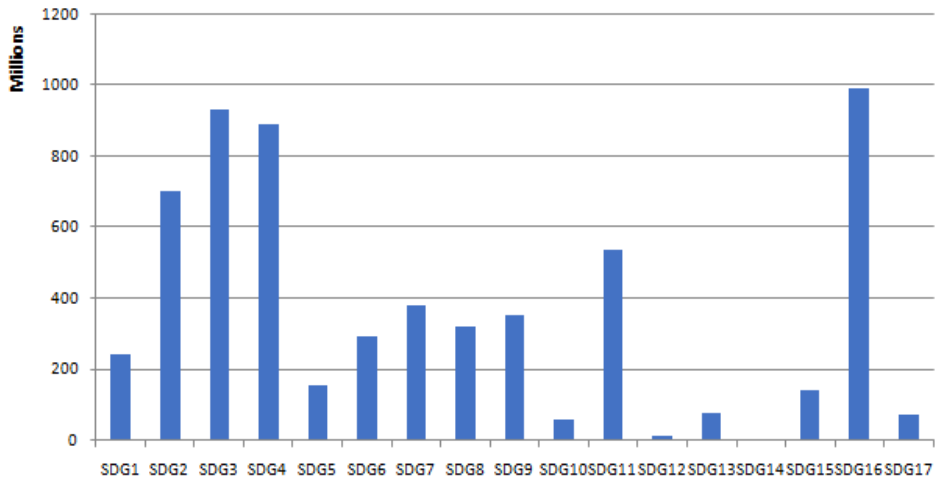
[그림 Ⅱ-5] 네팔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네팔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16, 3, 4, 2번 관련하여 각각 16%, 15%, 14%, 11%를 지원받아 총 50% 이상의 금액이 해당 4개의 목표에 집중되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공여국이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와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6] 네팔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에 다른 공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살펴보았다. 〈표 Ⅱ-1〉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기준으로 SDG 2번과 3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 SDG 4번은 일본, SDG 16번은 영국이었다. 4개 SDG 목표 지원액 합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 이들 나라들의 네팔 지원 전략 및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Ⅱ-1〉 네팔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21	33	62	31	148
덴마크	17	3	48	75	144
노르웨이	15	18	118	105	256
독일	20	97	158	49	324
일본	71	42	**193**	48	354
한국	23	43	47	14	126
스위스	74	19	20	91	204
영국	32	290	46	**315**	**683**
미국	**378**	**345**	98	199	**1,020**
기타	51	42	103	64	260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영국

영국은 네팔과 50년 넘는 개발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며 빈곤감소, 경제발전, 인간개발증진, 인도주의적 대응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였다. 영국은 향후 몇 년은 네팔이 중상위 소득 국가 지위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네팔이 인적 개발 성과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환경 강화, 그리고 녹색 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제적 비교우위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FCDO 2023). 영국은 2022년 말 네팔에 대한 ODA 우선순위 설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인프라, 안보 및 사법, 인적 개발 및 사회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포용성, 회복력을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영국이 네팔의 SDG 2번 달성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식량 자급률 향상과 취약계층 영양개선에 집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 시작한 '소농 및 농업기업을 위한 상업농업(Commercial Agriculture for Smallholders and Agribusiness)'은 소농을 시장과 연결하여 이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가치사슬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The Kathmandu Post 2025). 이 사업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가치 사슬에서 활동하는 37개 농업 관련 기업이 투자 유치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농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 다른 주요 사업은 네팔 정부 자체 영양 프로그램인 '다부문 영양계획(Multi-Sector Nutrition Plan)'을 1차(2013~2017), 2차(2018~2022), 3차(2023~2030)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아동 및 임산부의 발육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다분야 통합 영양 사업 지원으로 네팔 정부가 계획하고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등이 EU, 미국, 영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UNICEF n.d.).

SDG 3번 관련, 영국은 2016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네팔 보건인구부의 네팔 보건 부문 프로그램 3 시행을 지원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를 달성하려는 보건인구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 아동, 빈곤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관리 및 질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지진 피해 지역의 의료 서비스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진 피해 지역 및 위험 지역의 병원 내진 보강 및 재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향후 지진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UKaid-NHSP3 2021).

SDG 4번 관련해서는 영국은 지원금액이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아들의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영국은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동과 소녀들의 교육 접근성 및 학습 결과 개선에 주력해 왔다. '여아 교육 챌린지(Girls' Education Challenge)'라는 학교 밖 소녀들을 정규 교육으로 복귀시키고 기초 문해력 및 수리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네팔의 소외된 소녀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GEC n.d.).

영국은 SDG 16번 관련 네팔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지원은 네팔 정부가 수립한 '지방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Programme, PLGSP)'에 재정지원을 한 것이다. PLGSP는 지방 및 지역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육성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에서 연방제 및 지방분권형 통치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프로그램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과정을 거쳐 29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네팔 정부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개발 협력 파트너의 공동 재정 협정을 통해 프로그램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PLGSP n.d.). 또한 영국은 '안보 및 사법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me for Strengthening Security and Justice, IPSSJ)'을 통해 네팔의 안보 및 사법 분야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 IPSSJ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현대화 및 역량 강화, 여성과 아동의 사법 접근성 개선,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Sastry and Stein 2022). IPSSJ의 1단계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단계는 '안보와 정의 프로그램(Security and Justice Program)'이라고 축약하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② 미국

미국이 네팔의 SDG 2번 달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식기반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농업(Knowledge-based Integrated Sustainable Agriculture in Nepal, Kisan II)'이다. 이 사업은 미국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글로벌 기아 방지 이니셔티브인 '미래를 위한 식량공급(Feed the Future)'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네팔 농민들이 고부가가치 작물(채소, 쌀,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이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후 스마트 농업 방식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농민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US Embassy in Nepal 2024).

SDG 3번 관련해서 미국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네팔 지방정부의 보건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더 나은 보건을 위한 시스템 강화(Strengthening Systems for Better Health, SSBH)'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각 지방 정부가 스스로 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물류를 개선하며, 의약품 부족 현상을 줄이고,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Abt 2023).

2015년에 시작한 '저학년 읽기 프로그램(Early Grade Reading Program, EGRP)'은 네팔의 SDG 4번 관련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US Embassy in Nepal 2022). 이 사업은 1~3학년 학생들의 기초 읽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사 연수, 현지 언어 교재 개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USAID 2017).

마지막으로 미국은 SDG 16번 관련 '사제다리(Sajhedari)'[5]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시민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책임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제다리 비카스(Sajhedari Bikaas)'[6] 사업과 네팔의 연방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제다리 : 네팔 연방제 지원(Sajhedari : Support to Federalism in Nepal)'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갈등 완화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조직과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EAI n.d.). 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강화, 지방 정부 권한 부여, 시민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대응력 있는 포용적 지방 정부를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네팔 정부의 지방분권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olicy Common n.d.).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성과, 네팔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II-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내수산업 연계 교육체계 구축'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 성과는 높고,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은 낮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이다. 나머지 '양질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ICT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모두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 2, 16번의 성과는 낮지만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이다.

---

5)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네팔어
6)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의마하는 네팔어

〈표 Ⅱ-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내수산업 연계 교육체계 구축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양질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ICT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이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팔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에서는 네팔이 교육 시스템 특히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TVET)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표 성과가 상당히 양호하고 네팔 정부의 보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과 거버넌스 관련 SDG 목표에 대한 네팔 정부의 관심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프로그램의 지원 방향성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네팔의 내수 산업기반 부족과 높은 인력송출 상황을 감안하여 네팔 청년들이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보다는 기업역량 강화, 스타트업 지원, 기후변화와 연계한 농업사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네팔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기 지원한 재난복구센터의 데이터 백업이 사회갈등 발생 상황에서 정부자료 보존이라는 큰 역할을 하면서 KOICA가 주요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기에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헌분석, 사무소 인터뷰와 현재 네팔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수산업 연계 교육체계 구축'은 SDG 4번의 성과가 양호하고 해당 SDG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 기반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개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도 좋지만 해외로의 인력 송출이 네팔 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단순 교육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프로그램 목표로 삼아 네팔 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공여국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SDG 3번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양질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은 공여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보건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네팔 정부가 직접 설계한 보건 프로그램을 측면 지원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러한 지원 형태와 차별화 할 수 없다면 보건 프로그램이 사무소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SDG 2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영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농업 가치 사슬 강화와 고부가가치 농업 확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팔 농업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와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다. KOICA의 프로그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여국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정하여 기업역량 강화 또는 농업 스타트업 지원 쪽으로 차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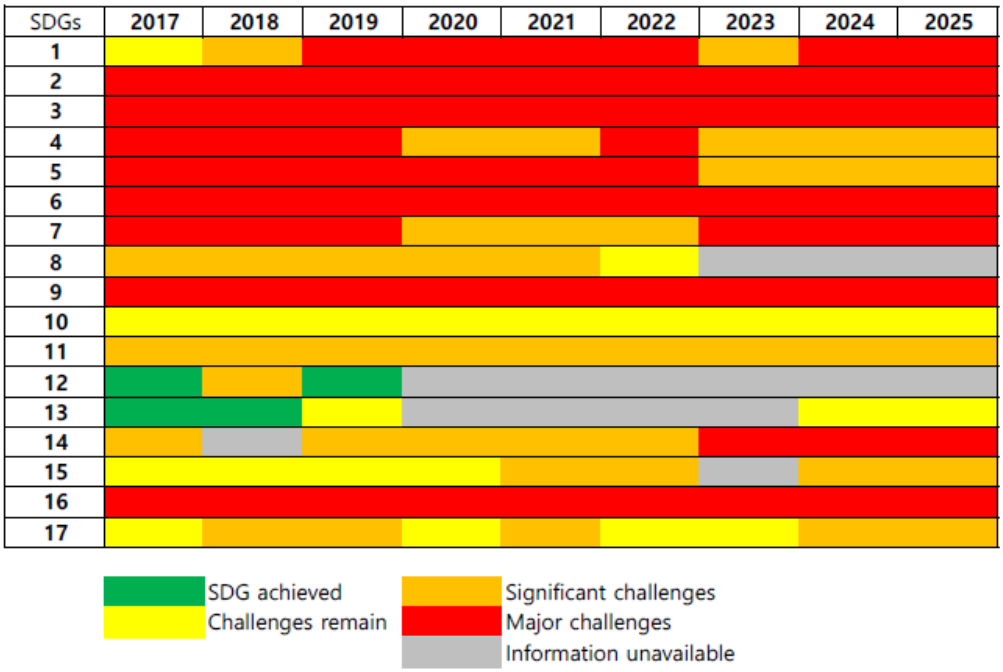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네팔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는 'ICT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는 ICT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네팔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는 영국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미국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점인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와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주로 민주주의 가치, 인권 보호, 시민사회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티모르

(1) SDGs 이행 현황

동티모르는 정치적 교착 상태, 코로나19, 자연재해(사이클론 세로자) 등 '삼중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DG 1번과 16번은 2030년까지 달성가능한 핵심 목표로 보고 있다. SDG 1번은 아동 대상 현금 급여 수혜율이 2016년 30.7%에서 2020년 38.2%로 증가했으며, 노인 연금은 2020~2022년 사이 100% 지급되었다. SDG 16번은 성공적인 대통령 선거실시와 시민 자유 존중을 통해 모든 목표 중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SDG 3번 관련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출산율이 증가하고 아동 사망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말라리아는 2015~2022년 사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Government of Timor-Leste 2023). SDG 4번은 초·중·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이수율이 개선되었으며, 성인 여성 문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교육 분야의 성평등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SDG 6번 관련 안전한 식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2020년 기준 인구의 85.5%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SDG 8번은 현재 성과가 퇴보하고 있어 2030년까지 달성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목표 중 하나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15-24세) 교육 및 미취업 비율이 30.5%에 달해 경제적 기회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SDG 2번 관련해서도 5세 미만 아동의 절반 이상이 발육 부진 및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인구의 22%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Ⅱ-7] 동티모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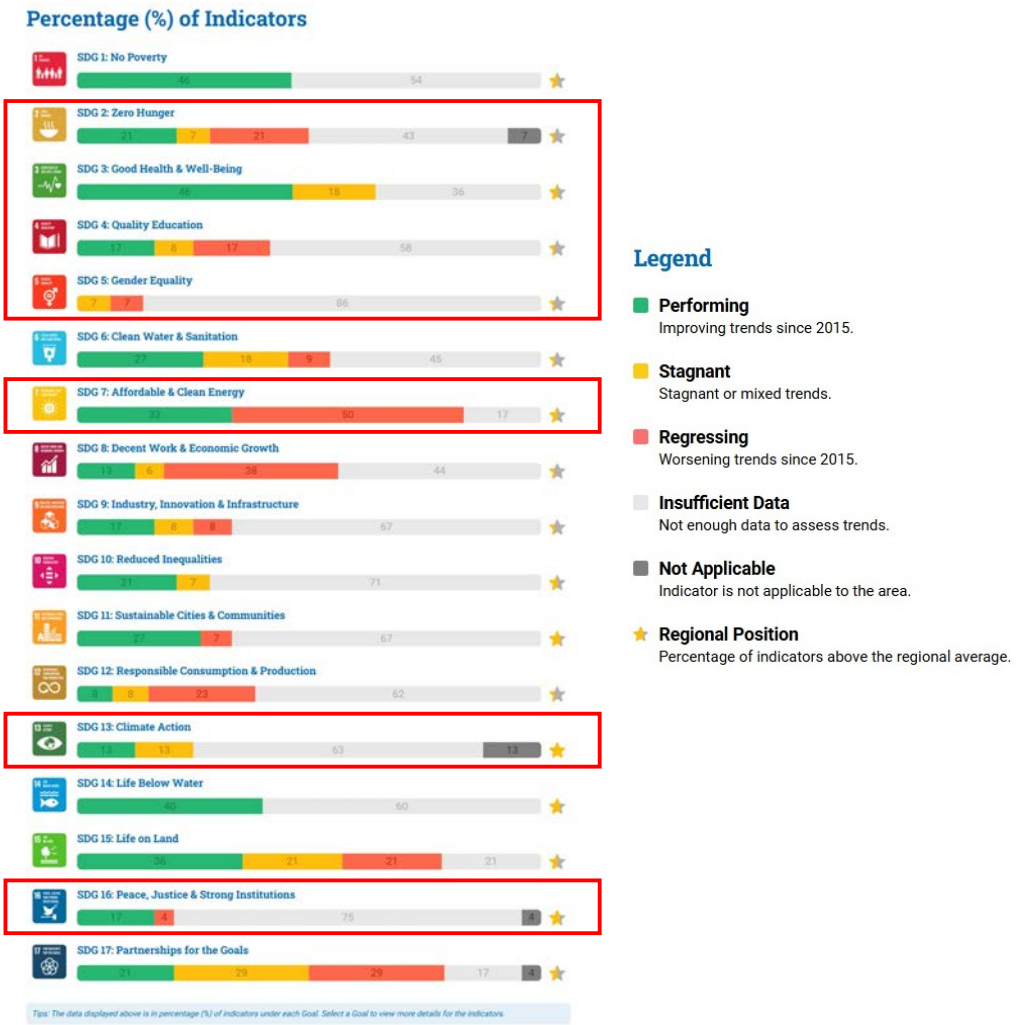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동티모르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4, 5번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동티모르의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64.4점에서 2024년 66.8점으로 2.4점 상승하였다(SDSN 2025).

KOICA는 현재 동티모르에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취약성 회복력 강화지원(젠더/평화/인권/기후변화등)', '지속가능한 농수산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 총 4개의 C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목표는 각각 3, 4, 5, 7, 13, 16, 2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SDG 2번은 3개는 진전, 1개는 정체, 3개는 후퇴,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2.1.2번이며 후퇴하는 지표는 SDG 2.1.1, 2.2.3, 2.a.번이다. SDG 3번은 13개 진전, 5개 정체, 나머지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3.3.2, 3.4.1, 3.4.2, 3.9.3, 3.d.2번이다. SDG 4번은 2개 진전, 1개 정체, 2개 후퇴, 나머지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4.3.1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4.2.2와 4.b.1번이다. SDG 5번은 진전하는 지표는 없고 1개 정체, 1개 후퇴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5.5.1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5.5.2번이다. SDG 7번은 2개 진전, 3개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는 SDG 7.2.1, 7.3.1, 7.b.1번이다. SDG 13번은 1개 진전, 1개 정체 그리고 나머지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13.2.2번이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진전 4개, 후퇴 1개,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는 SDG 16.7.1번이다(UNESCAP 2025).

[그림 Ⅱ-8] 2025년 동티모르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동티모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그림 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DG 이행 점수 보다 낮은 점수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SDG 3번은 또한 SDG 2번 점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SDG 이행 점수와의 점수차는 SDG 2번 보다는 적은 상황이다. SDG 4번의 경우는 SDG 이행 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 가장 높았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SDG 5번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상승하면서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를 좁히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SDG 7번은 조금씩 점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그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며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SDG 13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점수가 높으면서 격차 또한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목표로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2017년부터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행 점수와의 점수차는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Ⅱ-9] 동티모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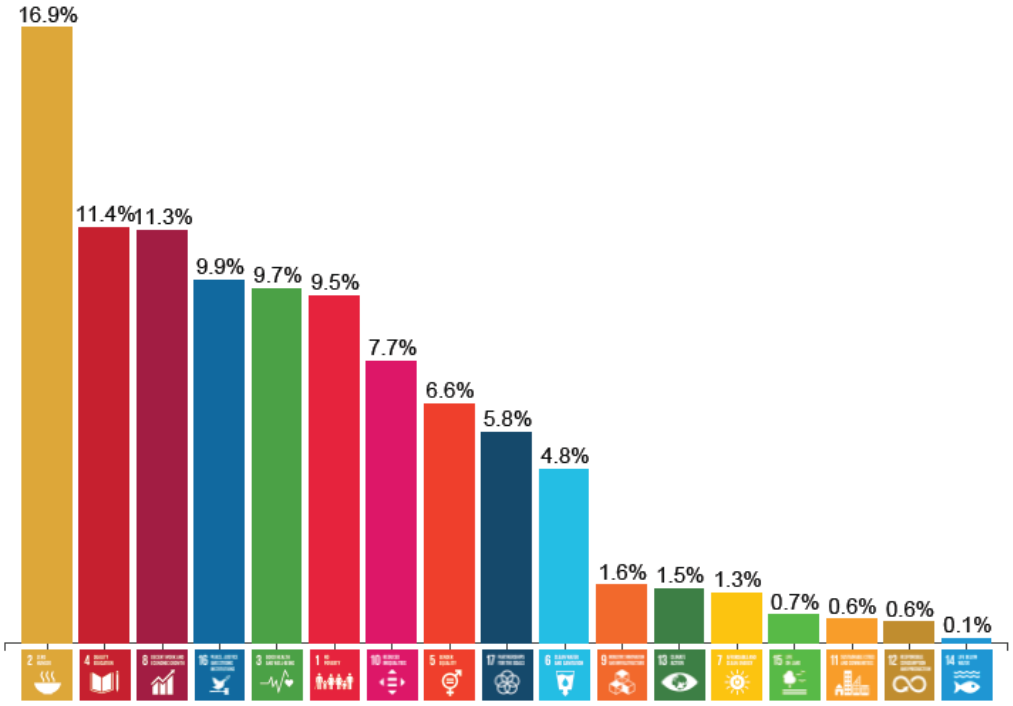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동티모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19년 첫 VNR에 따르면 동티모르 정부는 2017년에 '국가개발계획(Strategic Development Plan, SDP) 2011~2030'과 SDGs를 조화시키고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구조, 전략을 담은 SDGs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총리실 산하에 정부부처, 국회, 학계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SDGs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VNR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예산 및 재정 시스템 개혁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법령을 통해 모든 연간 계획과 예산에 SDG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OECD의 지원을 받아 개발계획의 목표와 예산 구조를 연결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도입 추진, 관세 시스템 현대화 등을 통해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overnment of Timor-Leste 2019). 석유 및 가스 자원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는 한편, 이 기금을 활용해 도로, 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다.

2023년 두 번째 VNR은 기존에 있던 SDGs 워킹그룹에서 발전하여 정책의 일관성, 조정 및 지식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의장을 맡고 학계,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SDG 위원회 설립을 고민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Government of Timor-Leste 2023). 정부 부처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SDP 및 SDGs와 일치시키기 위해 중기 계획을 도입했으며, 현재 보건, 교육, 농업, 공공사업 4개 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모두 주목할 만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 편성 및 모니터링 시 아동, 장애, 식량 안보 및 영양, 성별, 가치 사슬 등의 지표도 적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배분을 추적하고 있다. 2023년 통계국을 국립통계청으로 격상했으며 '국가 통계 발전 전략(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tatistics 2023~2033)'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공식 통계 생산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인구 주택 총조사(Census)를 디지털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동티모르 정부는 데이터 및 통계 역량 강화가 SDGs 달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분야별로도 영양과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아동,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현금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설탕 음료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공중 보건 행동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을 경제 다각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인 '국가 디아스포라 참여 정책(National Diaspora Engagement Policy 2023~2027)'을 수립하였다.

[그림 Ⅱ-10] 동티모르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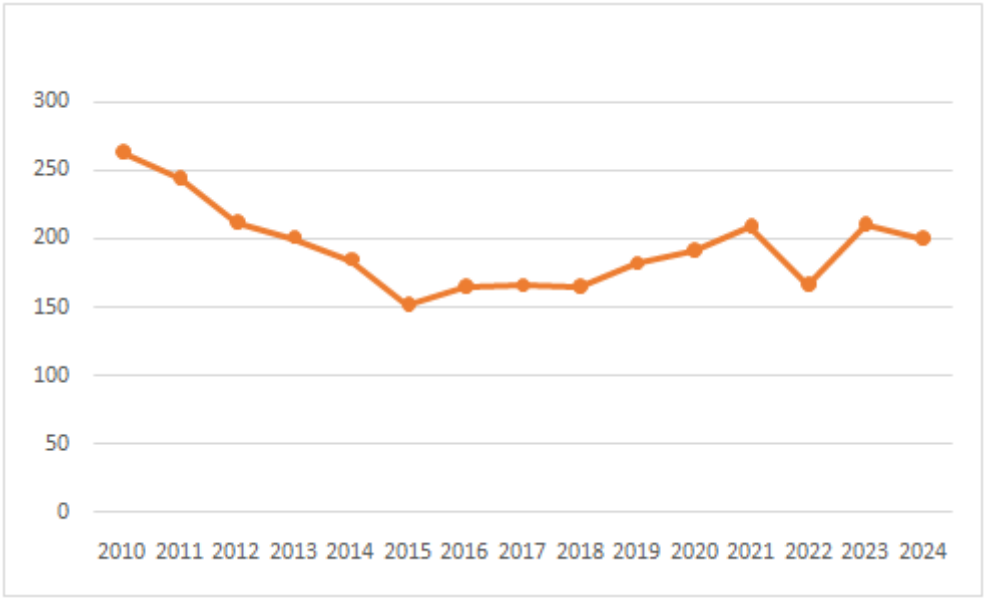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동티모르의 2019년과 2023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2, 4, 8, 16번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4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티모르 정부가 이 4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2, 4, 16번이었다. 앞서 동티모르가 SDG 이행을 위해 정부 부처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SDP 및 SDGs와 일치시키기 위해 중기 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현재 교육, 농업, 공공사업 4개 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목표들이 동티모르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은 현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동티모르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최저를 기록하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줄어들었던 지원액이 다음 해인 2023년에 늘었지만 2024년 다시 줄어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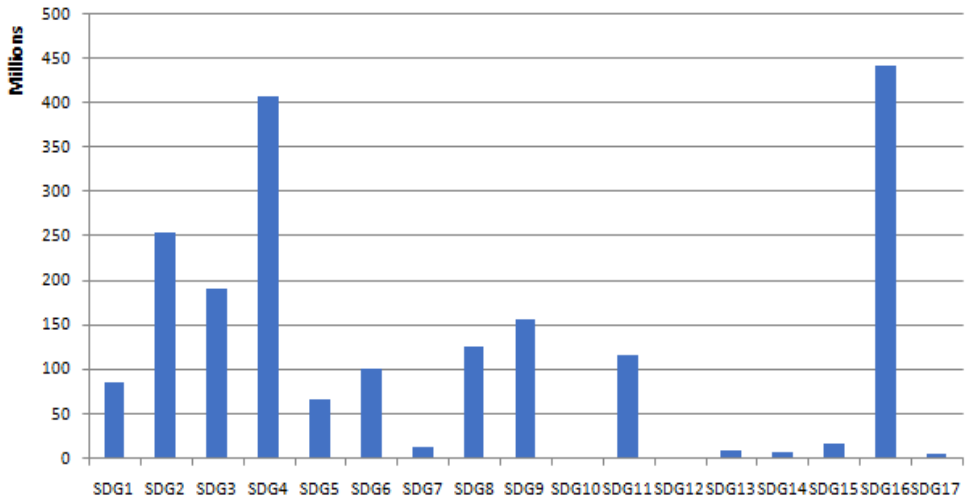
[그림 Ⅱ-11] 동티모르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티모르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16, 4, 2번 관련하여 각각 22%, 20%, 13%를 지원받아 이들을 합산했을 때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2, 4, 16번에 다른 공여국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2] 동티모르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SDG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포르투갈, 그리고 SDG 7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나머지 SDG 3, 5, 13,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호주는 모든 목표를 합쳤을 때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였으며, 다음은 미국이었다. 이들 공여국이 동티모르에 SDGs 목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 Ⅱ-3〉 동티모르 SDG 2, 3, 4, 5, 7,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5 지원	SDG 7 지원	SDG 13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71	**100**	93	**39**	0	**6**	**234**	**542**
독일	8	2	6	4	0	0	22	42
일본	46	21	43	3	5	0	22	141
한국	6	20	37	3	4	3	7	80
뉴질랜드	20	1	50	3	0	0	26	100
노르웨이	4	0	1	2	3	0	12	21
포르투갈	5	2	**156**	0	0	0	40	203
미국	**87**	44	11	8	0	0	63	**214**
기타	7	1	12	6	0	0	16	4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호주

호주의 '동티모르 원조투자계획 2015/16~2018/19(Aid Investment Plan Timor-Leste 2015/16~2018/19)'은 동티모르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과 빈곤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계수단개선, 인적개발강화, 거버넌스 및 제도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배치하였다. 생계수단 개선은 농업 생산성과 시장성 증대, 시골 도로의 품질 및 도달 범위 개선, 청년층 대상 수요 중심의 직업 훈련 및 고등 교육 지원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적개발강화는 식수 및 위생 서비스, 양질의 기초 교육, 산모·신생아·아동 보건 서비스, 여성 및 아동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주로 사회개발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및 제도 강화는 동티모르 정부가 정보에 기반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재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DFAT n.d.)

이후 개정된 전략 문서인 '호주-동티모르 개발 파트너십 계획(Australia-Timor-Leste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5-2030)'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4대 핵심 목표는 양질의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농업과 관광 부문의 민간부문발전을 도모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 공동체의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공동체 가입을 지원하여 주권적이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국가건설, 성평등과 장애인, 여성, 아동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모든 국민의 번영이다(DFAT 2024). 즉, 신규 전략의 특징은 민간 부문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프로그램 설계에 기후변화고려사항을 필수적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호주가 동티모르에 진행한 사업 중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SDG 2번 관련해서는 2016년에 시작한 TOMAK (To'os ba Moris Di'ak) 사업이 있다. '번영을 위한 농업'이라는 뜻의 이 프로그램은 소농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영양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SDG 3번과 4번 관련, 동티모르 내 보건소 운영 역량 강화,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사 교육,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적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uman Development, PHD)'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SDG 5번 성평등 관련,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긴급 쉼터 제공, 사법 접근성 향상, 그리고 지역 사회의 폭력 근절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나빌란(Nabilan)' 사업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었다. SDG 7번과 13번 관련해서는 호주는 '태평양 인프라 금융 시설(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AIFFP)'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오프그리드 지역의 전력 자립을 돕고,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교량·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거버넌스 개발(Governance for Development, GfD)'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동티모르 중앙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능력을 향상하고, 정책 입안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미국

미국의 동티모르 개발협력전략은 USAID의 국무부 통합으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2022년 수립된 국무부의 '동티모르 통합 국가 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 Timor-Leste)'을 살펴보면 동티모르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정의하고 있다(State Department 2022). 그리고 안보 및 파트너십 강화,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제도 강화, 경제다각화 및 번영 확대라는 세 가지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협력 관련된 목표를 살펴보면 두 번째 전략 목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정치와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에는 석유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농업과 관광 부문의 민간 부문 성장을 촉진하며, 토지 소유권 명확화, 상법 제정 등 법적·행정적 개혁을 지원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담겨 있다.

미국이 이행한 사업 가운데 SDG 2번 관련 대표적인 사업은 '농업발전(Avansa Agrikultura)' 사업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동티모르의 농업 부문 고용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 작물(채소, 과일 등)의 가치 사슬을 개선하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 스마트 농업' 기법을 보급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Resonance n.d.). 다음으로 SDG 3번 관련, 보건부와 협력하여 보건 공무원 및 현장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병원 관리, 행정,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고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이 전국 보건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 체계를 최적화하는 지원을 제공하였다. SDG 4, 7, 13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의 Timor-Leste Compact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동티모르 차세대 인재 교육 및 지도(Teaching and Leading the Next generation of Timorese, TALENT)' 사업을 통해 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하수도 및 위생(Water, Sanitation and Drainage, WSD)'를 통해 딜리 지역의 위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 노력하였다(MCC n.d.). SDG 5번 관련 2021년부터 '여성과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Women and Youth Creating Our Future)' 사업을 통해 여성과 청년이 경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마지막 SDG 16번 관련 최근 강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책무성 및 무결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and Integrity Mechanism)' 사업이다(NCBA CLUSA 2023; PDHJ Timor-Leste 2024). 동티모르의 독립적인 감시 기구의 정부 부패 조사 및 예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및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동티모르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II-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의 성과가 낮고,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또한 적은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아동 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가 높고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또한 많은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이다. '취약성 회복력 강화 지원(젠더/평화/인권/기후변화 등)'은 지원하는 SDG 목표가 여러 개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SDG 목표별로 성과,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가 각각 달라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선별적 관찰 유형,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 성과가 낮지만,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상황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표 Ⅱ-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SDG 3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아동 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SDG 4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취약성 회복력 강화 지원(젠더/평화/인권/기후변화 등)	SDG 5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7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16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지속가능한 농수산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이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티모르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동티모르는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여기관이 특정 분야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평화구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기반 형성 등에 집중해 왔으며 동티모르 정부는 대부분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사무소가 생각하는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성은 먼저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교보건, 기초보건, 모자보건 등과 같은 통합적인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인구 비중이 50%가 넘는 동티모르의 인구구조상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인구와 취약한 산업기반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은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취약성 회복보다는 거버넌스 분야를 보다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향성 설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네 번째 프로그램은 농산물 생산, 수확, 가공,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여건 자체가 열악하여 사업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였다.

문헌분석, 사무소 인터뷰와 현재 동티모르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은 공여국과 차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타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형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다. 동티모르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인 '메렌다 에스콜라(Merenda Escolar)'와 연계하여 SDG 2번과 4번을 동시에 타

깃하고 학교 중심의 기초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재 동티모르 교육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실제 노동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과의 '일자리-기술 불일치(Jobs-skills mismatch)' 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바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되 전자에 대해서는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아동 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방향을 수정해도 좋을 것이다. 산업 특화 교육 과정 개발, 해외 이주 노동자 귀환 및 정착을 위한 귀환 노동자 창업 패키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다. 또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협력하여 추진해 온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과 소액 대출 보증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취약성 회복력 강화 지원'은 여러 SDGs 목표가 걸쳐져 있어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설계가 어려울 수 있다. 회복력 강화라는 큰 주제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다. 동티모르는 여전히 최빈국 수준의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젠더, 평화, 인권 의제보다는 교육, 보건, 일자리 등 보다 기초적인 개발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하거나 전체 프로그램 개수를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농수산 생산증대 및 시장성 강화'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농민참여형 가치사슬 개선 사업이나 동티모르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프로그램이 호주의 사업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KOICA는 한국의 강점인 가공, 저장, 유통 단계의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여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동티모르의 저장 및 가공 시설 부족으로 현지 생산품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농산물 가공 센터와 저온 저장 시설 인프라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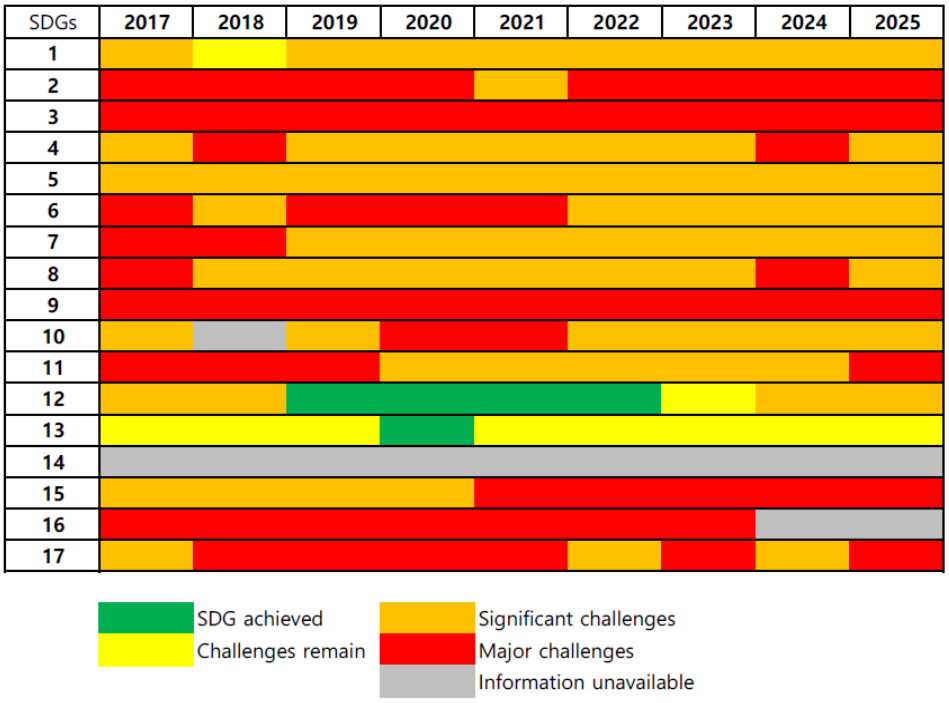
3) 라오스

(1) SDGs 이행 현황

2024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라오스는 17개 SDGs 중 10개는 각기 다른 속도로 진전 중이며, 느리긴 하지만 목표 달성을 향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4). 후퇴하거나 역행하는 목표는 SDG 16번과 17번이며, 데이터가 부족한 목표는 SDG 6, 11, 12, 13, 14번이다. 이들 목표에 속한 대부분의 지표가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존재하여 이용가능한 데이터로 추세 및 추적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목표 중 어느 것도 SDG 국가 목표의 중간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달성하지 못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SDSN에서 발표하는 라오스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척이 보이는 목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한 6, 7, 8번이 그나마 나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SDG 이행 점수는 2016년 60.8점에서 2024년 62.6점으로 1.8점 상승하였다(SDSN 2025).

[그림 Ⅱ-13] 라오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는 라오스에서 4개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 개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라오스의 SDG 2, 3, 4, 9, 11번 달성을 지원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4] 2025년 라오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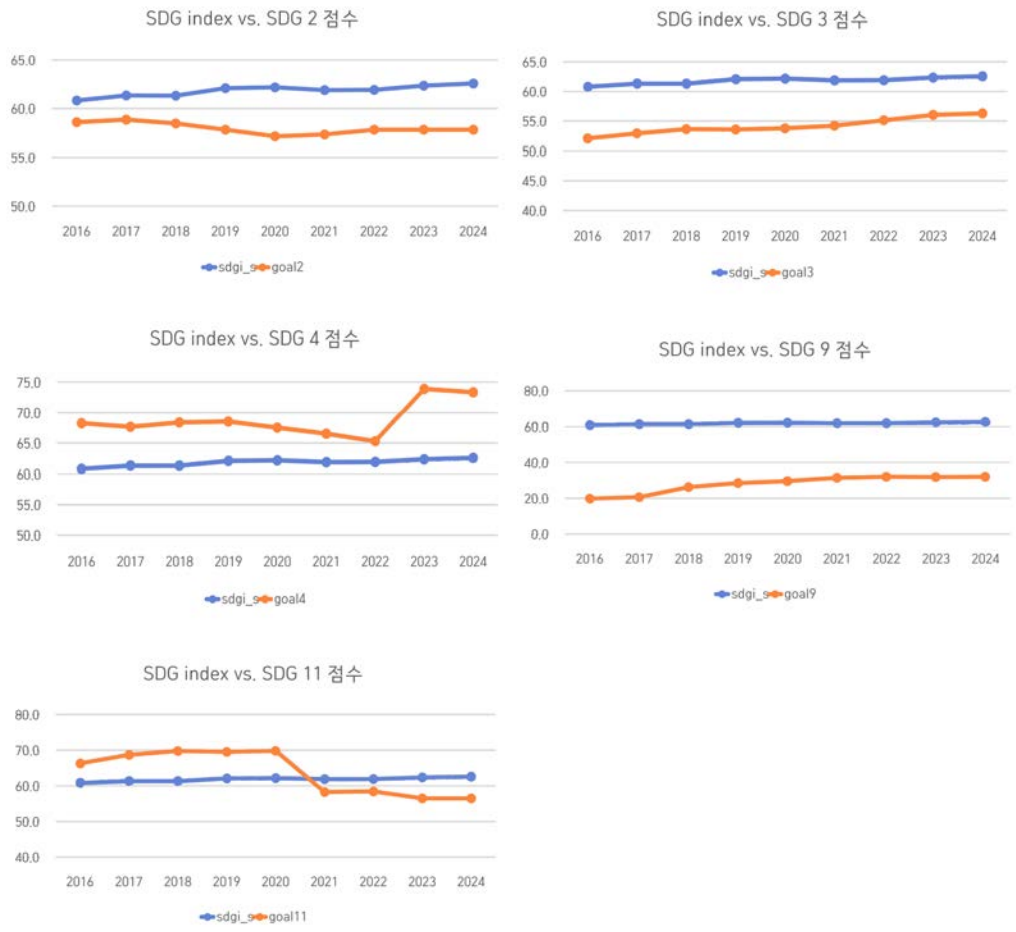


자료: ESCAP 2025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5개 목표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은 15개 지표 중 5개는 진전, 2개는 후퇴, 8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2.1.2와 2.2.2번이다. SDG 3번은 28개 지표 중 15개는 진전, 2개는 정체, 3개는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3.3.1, 3.c.1, 3.d.2번이다. SDG 4번은 12개 지표 중 3개는 진전, 2개는 정체, 나머지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SDG 4.2.2, 4.3.1, 4.a.1번에는 진전이 있으나, SDG 4.b.1과 4.c.1번은 후퇴하고 있다. SDG 9번은 12개 지표 중 5개는 진전,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정체된 지표는 SDG 9.1.2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9.2.2번이다. 마지막으로 SDG 11번은 16개 지표 중 2개가 후퇴하고 나머지는 모두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11.1.1과 11.6.2번이다(UN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라오스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은 2019년 SDG 이행 점수와 격차가 벌어진 이후 계속 유사한 차이를 보이며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 보다 낮지만 점점 그 격차를 줄이고 있다. SDG 4번이 유일하게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으나 그 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2023년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SDG 9번 점수는 SDG 이행 점수보다는 낮으나 조금씩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며, SDG11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다가 2021년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이행 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Ⅱ-15] 라오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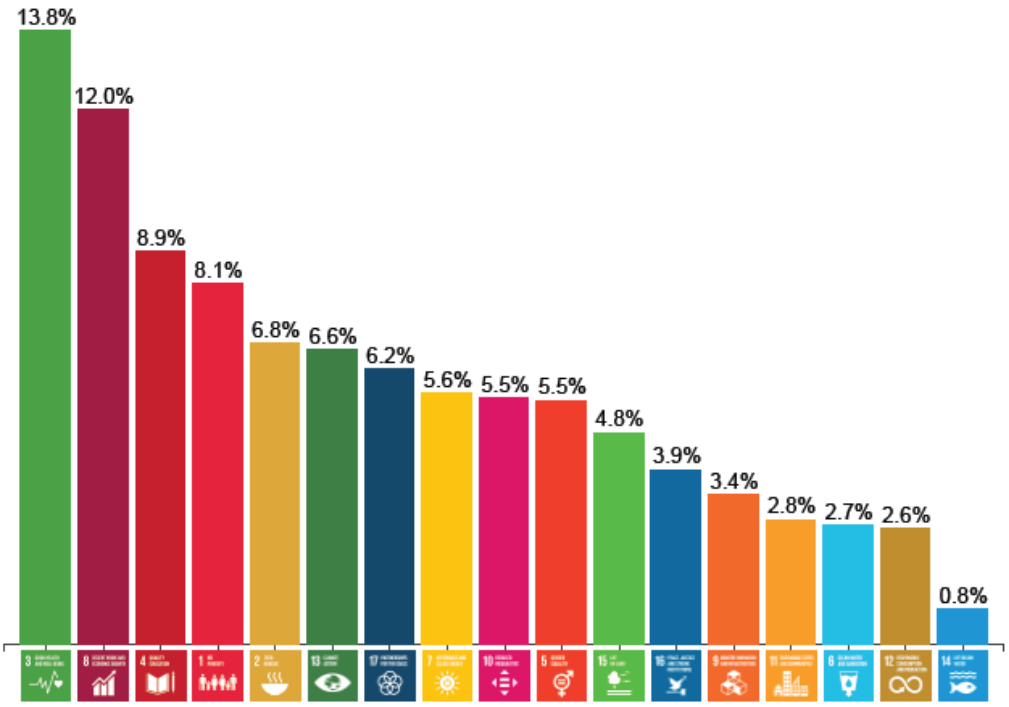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라오스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라오스 정부는 첫 VNR 보고서를 통해 SDGs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NSEDP 2016~2020)' 및 각 부처의 2030년까지의 부문별 개발계획에 통합함으로써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주류화하고 이행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8). 그 결과 NSEDP에 포함된 160개 지표 중 약 60%를 SDG 지표와 연계하였고, 나머지 SDGs 지표 또한 순차적으로 수립될 NSEDP에 통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해 국가추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총리를 임명하였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관련 모든 부처, 부처급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VNR 보고서는 제8차 NSEDP를 마무리하고 제9차 NSEDP(2021~2025)을 시작하는 전환기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238개의 SDG 지표를 내재화하여 각 부처별로 지표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의 원칙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1). 라오스는 2030년까지 하위중소득국에서 상위중소득국으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6~2025년 사회경제발전 전략 7개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하는데, 고품질의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녹색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전략, 2020년까지 최빈국 졸업 기준 충족 및 SDGs 이행 전략, 인적자원개발전략, 자연자원보호 및 활용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녹색 지향 전략, 법치주의 강화 전략, 지역 및 국제 통합 및 연결성 강화 전략, 산업화 및 현대화 전략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3번째 VNR에서는 UN에서 제시한 6대 핵심 SDG 전환 주제에 맞춰 SDG 1, 2, 3, 4, 5, 7, 8, 9, 13, 17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4). 더불어 라오스 자체적으로 수립한 18번 목표인 '불발탄으로부터 안전한 삶' 또한 우선순위에 두기로 하였다.

[그림 Ⅱ-16] 라오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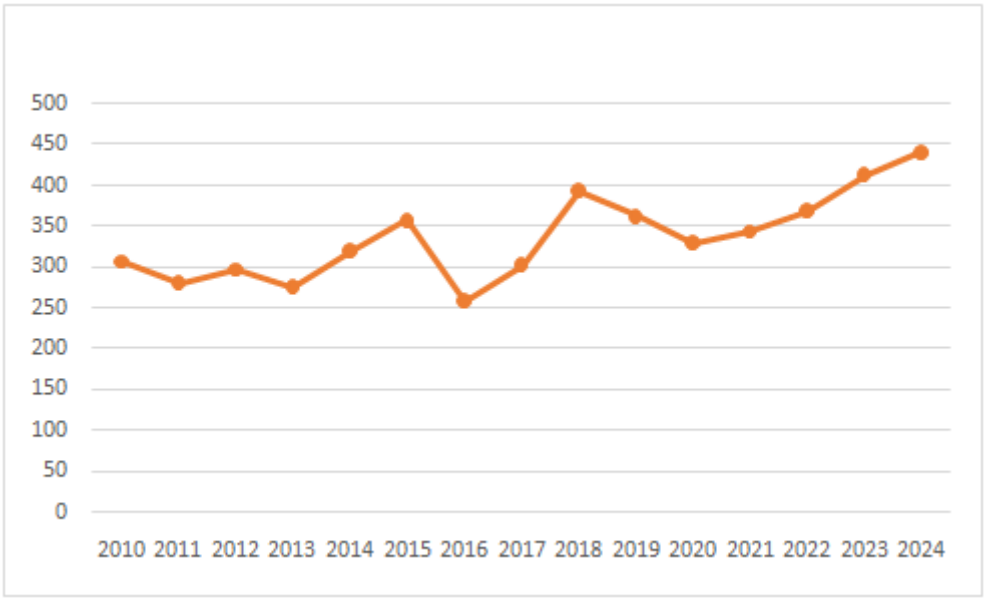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라오스의 2018년, 2021년, 2024년 3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3, 8, 4, 1, 2번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5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라오스 정부가 이 5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에는 SDG 3과 4번이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였다. 라오스는 제10차 NSEDP 2026~2030을 통해 2035년까지 상위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고 205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고 장기 비전의 마지막 단계로 자립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4). 그리고 이를 위해 6가지 영역에서 핵심 성과를 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평균 GDP 성장률 5.5% 이상의 경제목표를 세우고, 산업을 다각화하며 재무건전성을 높여 자립경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과목표이다. 두 번째는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범위를 94.5%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술 활용을 위한 고품질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농촌 인프라 개선, 사회 보장 네트워크 확대, 미제거 폭발물 제거 가속화를 통해 안전한 경작지와 거주 환경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복지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루어보면 라오스 정부가 SDG 3, 8, 4, 1, 2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라오스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대 초반에는 지원액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5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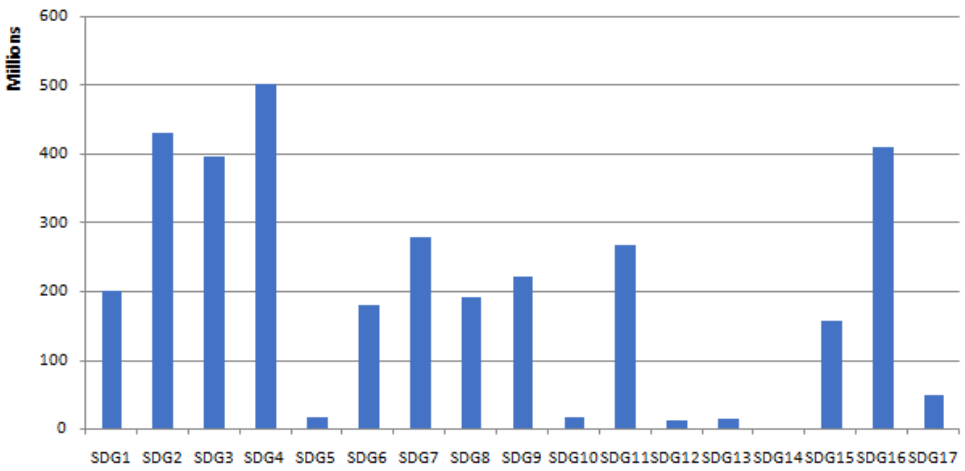
[그림 Ⅱ-17] 라오스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이 지원한 금액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스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SDG 4, 2, 16, 3번 관련 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15%, 13%, 13%, 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합산하게 되면 상위 50%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SDG 2, 3, 4번이 다른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8] 라오스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 SDG 3번은 일본, SDG 4번은 호주, SDG 9와 11번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의 SDG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호주로 이들 국가가 각 SDGs 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Ⅱ-5〉 라오스 SDG 2, 3, 4, 9, 11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합계
호주	48	23	**147**	6	4	**228**
캐나다	2	1	1	1	0	5
프랑스	52	9	20	6	14	100
독일	12	5	55	32	27	131
일본	54	**86**	144	**114**	**154**	**553**
한국	64	82	49	61	63	319
스위스	50	3	18	1	3	75
영국	0	1	2	0	0	3
미국	**103**	84	13	0	3	202
기타	46	105	54	3	3	210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라오스 지원에 있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질적 경제 성장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재정 기반 및 법치 강화, 주변국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질적 경제 성장,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강화이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 Ⅱ-6〉에서 보는 바와 같다. SDG 16, 9, 7, 11, 3, 4, 13과 관련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Ⅱ-6〉 JICA의 라오스 주요 지원 분야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재정기반 및 법치 강화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관리 역량 강화
	법치강화(거버넌스 강화)
주변국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질적 경제 성장	교통망 및 물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연결성 강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전력 공급시스템 구축(안정적인 에너지 및 전력 공급시스템 구축)
	산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도시관리 및 산업진흥)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강화	격차 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교육개선, 보건서비스 향상 및 도시환경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기후변화대응 및 미사용폭발물 대책)

자료: JICA 2024

CP가 지원하는 SDG 2번과 관련하여 JICA가 라오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식품 가치사슬 강화 사업과 아세안-JICA 식품 가치사슬 개발 사업이다. 후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협력 프로젝트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여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SDG 3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보건인력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설 및 장비 개발, 간호 및 조산사 면허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와 지방 2차 의료시설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수도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SDG 4번과 관련해서는 기초교육분야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분야에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라오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위급 공학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SDG 9번 관련해서는 라오스 국내 및 아세안 내 특히 메콩 지역에서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로, 교량,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의 생애주기동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프라 개발 및 인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1번 관련해서는 마스터 플랜 및

도시계획 실행 촉진 등 도시개발관리와 관련된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및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모빌리티 관리 촉진, 도시 교통 관리 기관 역량 강화, 교통인프라 개발 지원 추진하고 있다(JICA 2025).

이외에도 SDG 16, 7, 13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채관리, 세수 증대, 금융부문의 건전한 발전 등의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및 사법제도, 입법 개발에 대한 지원 등 법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의 안정적인 에너지 및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전력 연계 강화, 운영 역량 강화, 전력 품질 개선 및 국내 전력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REDD+ 관련 정책 및 현장 활동을 통한 중앙 및 지방 정부 역량 강화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② 호주

호주는 SDG 채택 이후, 라오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SDG 4, 8, 5, 10, 17번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DFAT 2015). 먼저 CP가 지원하는 SDG 4번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교육 환경이 열악한 6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새로운 교실을 건설하며 소외 지역 출신 교사 520명을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라오스 학생들에게 호주 및 라오스 내에서의 고등 교육 장학금을 제공하고, 라오스 교육부의 국가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이외에, SDG 8번 지원을 위해 라오스의 세계무역기구 의무 이행을 돕고, 국경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역 비용을 절감하며 아세안 경제 통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현지 기업에 보조금과 자문을 제공하여 매출 성장을 돕고, 특히 의류 제조와 같은 수출 산업에서 노동 표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SDG 5번 성평등은 호주 원조 프로그램의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요소로 장학금 수혜자의 최소 50%를 여성으로 배정하고, 여교사 양성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여성 기업가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이 대다수인 의류 산업 종사자들의 환경 개선에 주목하였다. SDG 10번 관련해서는 교육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수 민족 및 장애인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SDG 17번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원조 이행을 위해 정부, 민간, 다자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조해 오고 있다(DFAT n.d.).

한편, 최근에 발표된 호주-라오스 개발파트너십 문서를 살펴보면, 호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라오스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DFAT 2024). 첫 번째는 인적 자본 구축, 두 번째는 회복력있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 세 번째는 기후변화 회복력, 적응 및 완화이다. 주로 SDG 4, 8, 9, 16, 7, 13번 달성과 관련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Ⅱ-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외에도 모든 개발 투자의 80% 이상이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설계하며, 여성의 리더십 강화와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지원하여 SDG 5번을 여전히 지원할 계획으로 보이며, 장애 포용성을 강조하여 투자의 60%가 장애 평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소수 민족 및 취약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SDG 10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계획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Ⅱ-7〉 호주의 라오스 지원 방향

주요 목표	세부 내용
인적 자본 구축	중등 및 고등교육, 숙련된 고용,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반 구축 지원 리더십 역량,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 강화 라오스의 역내외 참여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신종 및 비전염성 질병 위협에 대한 대응 지원
회복력있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	경제 및 재정 개혁 지원, 고품질 투자 개선, 무역 증대, 민간 부문 개발 촉진 운송정책 및 계획 강화 주요 라오스 경제 부처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회복력, 적응 및 완화	에너지 부분의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및 재생 에너지 기술 채택 지원 기후 자금 유치 및 접근 능력 향상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분야의 기후 회복력 강화

자료: DFAT 2024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라오스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8〉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과 SDG 3번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지만,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는 높고 공여국의 지원도 많은 제도 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다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도 높고,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9번과 11번 모두 성과도 낮고,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이다.

〈표 Ⅱ-8〉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 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 개발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 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SDG 4	높음	높음	많음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SDG 11	낮음	낮음	적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라오스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SDG 2번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관심이 높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SDG 3번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건 분야 재원을 줄인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목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SDG 4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분석결과에 동의하였으나, 국내 일자리의 한계로 인하여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중도퇴학률이 높은 편임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륙국인 라오스에서 교통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SDG 9번에 대해서는 협력국의 관심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SDG 9번 관련 도로 개선 활동, SDG 11번 관련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사업, 토지이용계획 사업 등 공여국의 지원도 적지 않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CP 프로그램 관련하여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새마을 기반의 농촌개발 사업이 아닌 농업 안에서 특정 영역의 생산성 개선을 지원하는 쪽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존에 성과를 창출한 특정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첫 번째 프로그램에 라오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SDG 18번 목표인 불발탄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따로 분류하여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직훈/고등교육보다는 창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학의 중소기업학과 개설 지원 또는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재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네 번째 프로그램은 교통이라는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결성 강화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경우 공여국의 지원액이 많음에도

성과가 낮은 것은 라오스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라오스 정부의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개발국 졸업으로 현재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가시적 목표와 정합성을 갖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개발을 단순한 식량지원이나 지역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소농의 상업적 농업전환과 가치가슬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자원 재배치나 지원방식의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주요 지원분야에 속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공여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더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 개발'은 기존에 성과를 내었던 사업이 그 성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실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아 의료의 질을 높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은 라오스 아동병원 역량 강화 사업을 확장하여 라오스 스스로 아동 보건 전문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하거나 험한 지형으로 인해 물리적 병원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ICT를 활용해 아동병원의 전문성을 디지털로 확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미 많은 공여국들이 지원하고 있고 성과도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타 공여국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고위급 공학인력 양성, 호주의 경우는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ICT 인프라와 교육 솔루션을 결합하여 라오스 고등교육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거나 창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쪽으로 프로그램 개정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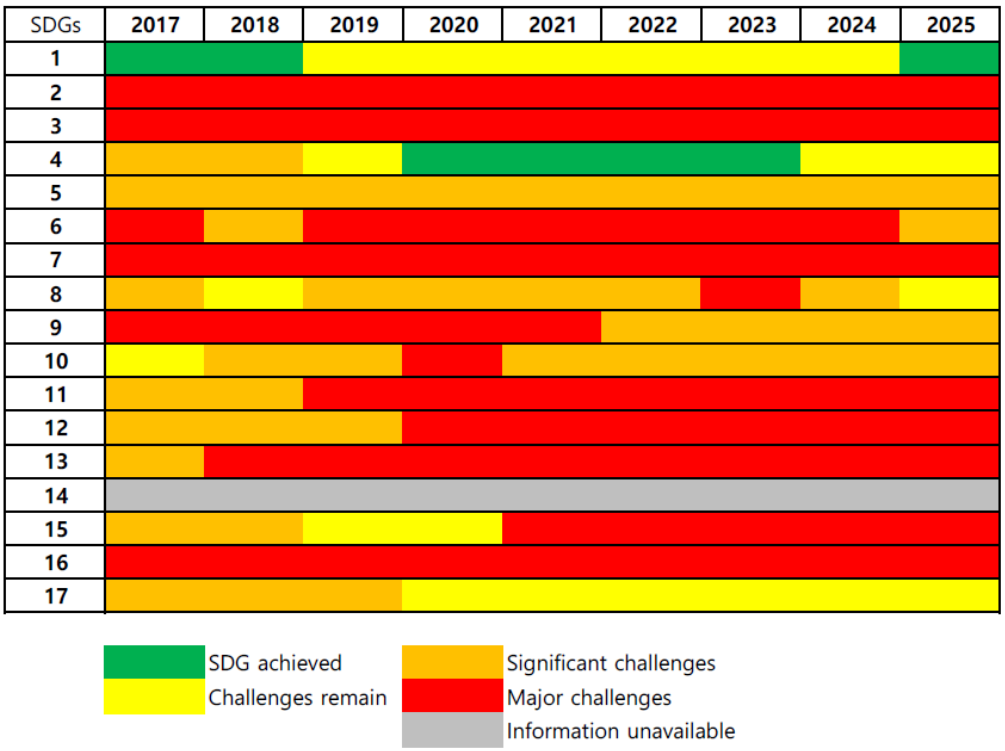
네 번째,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은 교통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무상원조로는 성과나 가시성을 확보하기에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이에 교통이라는 제한된 범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내륙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결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한 관광과 원활한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송시스템 개선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4) 몽골

(1) SDGs 이행 현황

몽골의 2023년 VNR에 따르면 몽골은 SDGs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미 있는 진전도 달성하였으나 2030년까지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overnment of Mongolia 2023). SDG 11, 13, 16, 17번의 경우는 이행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SDG 2, 4, 5, 6, 8, 10, 12번은 진전이 있으나 더욱 노력이 필요한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다. SDG 1, 3, 7, 9, 15번은 이행이 부진하거나 정체되어 있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SDGs 이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몽골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대시보드의 변화를 보면 [그림 Ⅱ-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목표가 SDG 4, 9, 17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몽골의 SDG 이행 점수는 2016년 65점에서 2024년 66.7점으로 1.7점 상승하였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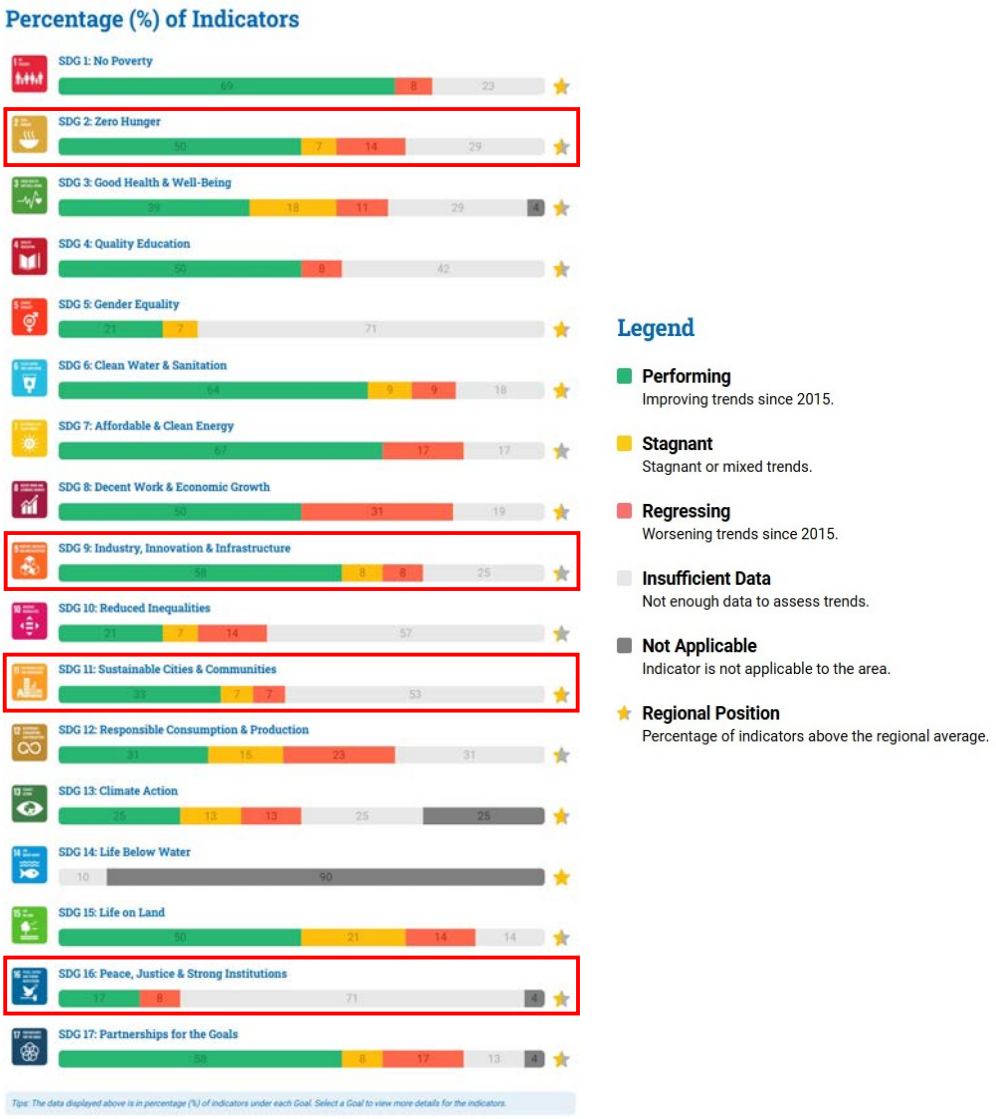
[그림 Ⅱ-19] 몽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는 몽골에서 4개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경제성장 인프라 확충 및 교통안전 개선',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몽골의 SDG 16, 11, 9, 2번 달성을 지원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20] 2025년 몽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4개 목표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15개 지표 중 7개는 진전, 1개는 정체, 2개는 후퇴, 나머지 5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SDG 2.2.3번이 정체되어 있고, SDG 2.2.2와 2.5.2번이 후퇴하고 있다. SDG 9번의 7개 지표는 진전,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3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SDG 9.4.1번이 정체되어 있고, SDG 9.5.1번이 후퇴하고 있는 지표이다. SDG 11번의 5개 지표는 진전,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9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SDG 11.5.3번이 정체되어 있고, SDG 11.5.1번이 후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의 4개 지표가 진전, 2개가 후퇴, 17개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SDG 16.3.2와 16.5.1번이 후퇴하고 있다(UN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몽골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2번의 경우 일정한 격차를 두고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SDG 9번은 점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SDG 이행 점수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SDG 11번 점수는 SDG 이행 점수보단 소폭으로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SDG 16번의 경우는 이행 점수 점수보다 높았다가 2020년 이후 점수가 낮아진 상황으로 점수가 하향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CP가 지원하는 모든 SDG 목표의 점수가 SDG 이행 점수 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림 Ⅱ-21] 몽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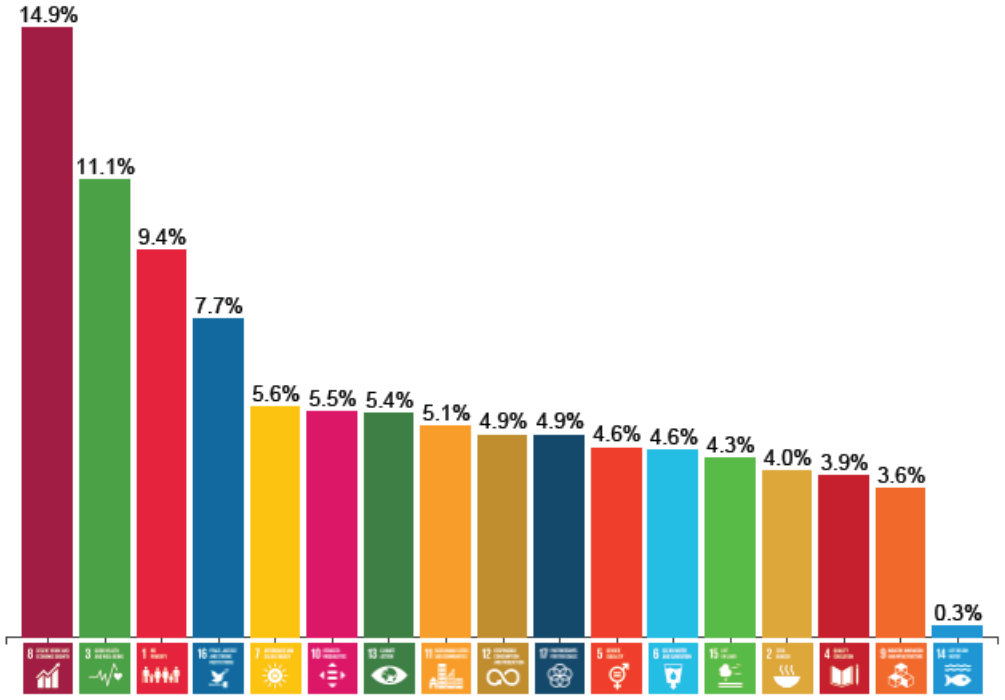
(2) 몽골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몽골은 SDGs를 국가 장기 개발 정책에 조기 반영한 국가 중 하나로, 2016년 '몽골 지속가능발전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MSDV-2030)'을 채택하며 이행을 시작하였다(Government of Mongolia 2019).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노력 및 정책적 환경을 첫 번째 VNR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개발정책기획법을 제정하여 국가-부처-지역 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총리 주재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개발청이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게 했으며, 글로벌 SDGs 지표 중 몽골 상황에 적합한 233개를 선별하고, 데이터 가용성 조사를 통해 118개 지표의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몽골은 두 번째 VNR을 통해 2020년 승인된 새로운 장기 정책인 '비전 2050(Vision 2050)'의 지표를 SDG와 80% 이상 연계하였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신회복정책(New Recovery Policy)'을 통해 이행을 가속화했음을 언급하였다(Government of Mongolia 2023). 또한 16개 목표, 154개 세부 목표, 253개 국가 지표를 정의하여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했으며, 녹색 분류 체계(Green Taxonomy)를 승인하고 '통합 국가 자금 조달 전략(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INFF)'을 수립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SDGs 국가 지표와 목표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SDGs에 대한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은 취약한 상태이다(Government of Mongolia 2023). 몽골은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의 틀 안에서 지역 및 지방 발전 격차를 줄이고, 광물 및 비광물 제품 생산, 관광, 수출 증대를 위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며, 전체 인구가 기본 사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목표로 한 국제적 파트너십 및 지역 지방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DGs 이행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Government of Mongolia 2023).

[그림 Ⅱ-22] 몽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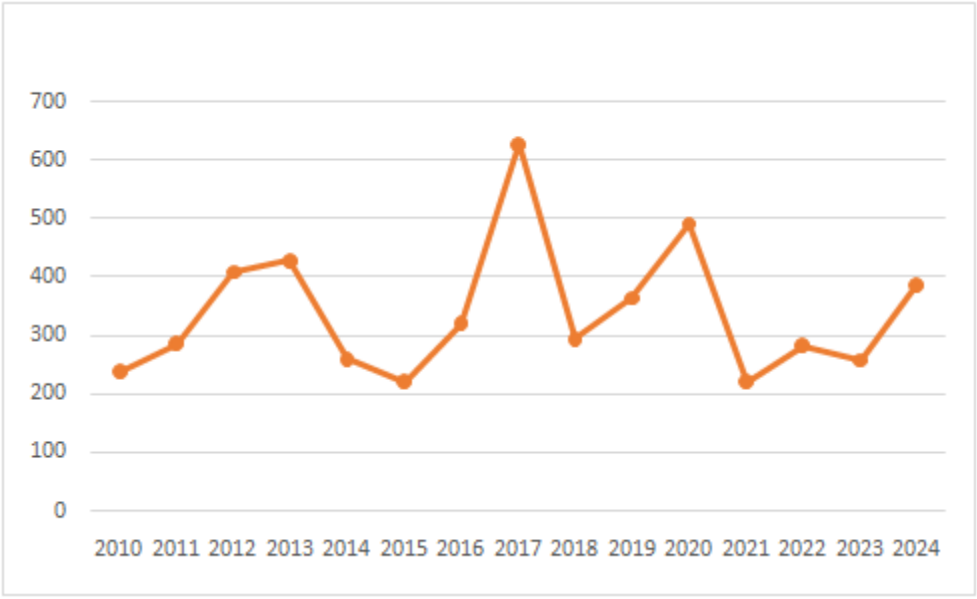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몽골의 2019년과 2023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3, 1, 16, 7, 10번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s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몽골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에는 SDG 16번이 유일하게 관심순위와 일치하였다. 몽골은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50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신회복정책을 수립하였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6대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New Recovery Policy Accelerator 2024). 해당 6대 분야는 물류인프라 회복, 에너지 회복, 산업 회복, 도시 및 농촌 회복, 녹색 개발회복, 공공부문 효율성 회복이다. 앞서 분석결과로 나온 SDG 8, 16, 7번에의 높은 관심도가 일정 부분 반영된 장기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몽골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마다 증감을 반복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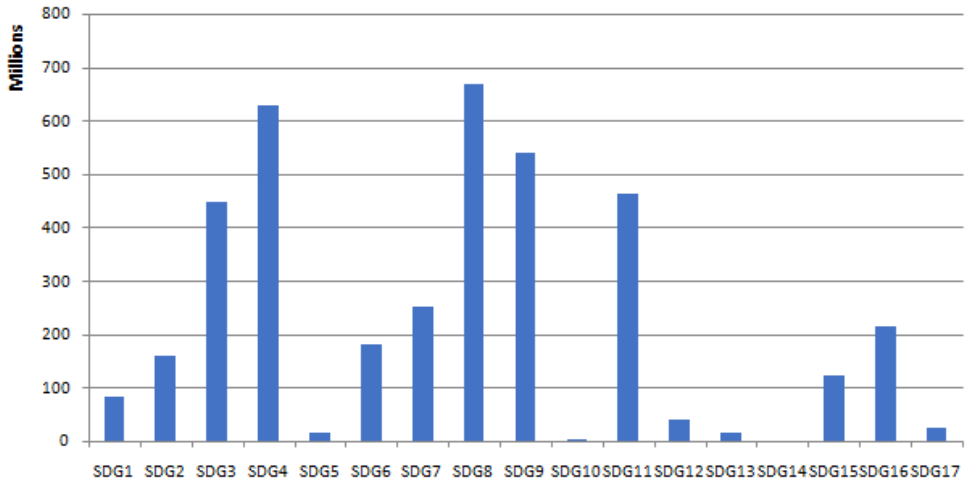
[그림 Ⅱ-23] 몽골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몽골은 SDG 8, 4, 9, 11번 관련 영역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17%, 16%, 14%, 12%로 합산했을 때 상위 50%를 차지한다. 이 중 CP가 지원하는 목표인 SDG 9와 11번이 다른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24] 몽골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9〉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스위스, SDG 9와 11번은 일본, SDG 16번은 미국이었다. 네 개의 SDG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각 SDGs 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9〉 몽골 SDG 2,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4	11	0	2	18
캐나다	11	1	0	7	19
프랑스	2	0	10	39	51
독일	7	33	13	9	62
일본	35	**398**	**368**	17	**818**
한국	47	33	22	43	145
스위스	**50**	10	5	41	106
영국	1	0	0	1	3
미국	1	45	45	**54**	**145**
기타	4	13	2	6	26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일본은 몽골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공여국으로 2016년 SDGs 채택 이후 건전한 거시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친환경적이고 균형잡힌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개발이라는 3대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SDG 8, 9, 16, 11, 3번 달성과 관련이 높은 지원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SDG 8번과 9번 관련해서 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농업 및 축산업 등 산업 다각화와 이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을 지원해 왔으며, 건전한 거시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SDG 16번과 관련해서 시장 경제 발전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고, 예산 수입 및 지출 모니터링 등 정부의 재정 집행과 관련된 거버넌스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CP도 지원하고 있는 SDG 11번 관련해서는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방지 역량 강화 사업, 울란바토르시 산업폐수 관리 역량 강화 사업과 같이 울란바토르의 인구 과밀 문제 해소에 집중해 왔다. SDG 3번 관련해서는 의사 및 간호사 대학원 교육 강화 사업, 몽골-일본 병원의 병원 관리 및 의료진 교육 강화 사업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인구가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한편, 일본은 2023년 몽골 지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나 중점 지원 분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SDG 16, 8, 9, 11, 3, 4, 10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JICA 2023).

〈표 Ⅱ-10〉 일본의 몽골 지원 분야 및 개발 과제

지원 분야	개발 과제	주요 내용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 및 강력한 거버넌스	재정 건전성 개선	공공재정 관리 역량 강화, 예산 및 세입 관리 시스템 개선
	활기찬 시장경제 촉진	금융시장 기능강화, 투자 환경 개선 및 민간 부문 발전 지원
환경친화적이고 균형잡힌 경제 개발	산업다각화 촉진 및 지역 개발전략 강화	광업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고품질 인프라 개발	물, 에너지, 교통 등 경제 활동을 뒷받침 하는 인프라 구축
	울란바토르 환경 문제 대응	대기오염 저감 대책 및 도시 인프라 개선 지원
포용적 사회 실현	사회적 요구에 맞는 보건 의료 수준 달성	의료시스템 개선,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기초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	교육, 복지 등 기본 서비스의 지역 및 소득 격차 해소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포용 촉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자료: JICA 2023

② **미국**

미국의 국무부와 USAID 통합 이후 몽골에 대한 지원 전략과 사업내역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CP가 지원하는 SDGs 별로 미국의 몽골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SDG 2 관련해서 몽골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전통적 유목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데 집중해 왔다. 몽골 육류 수출확대를 위해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역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해왔으며 겨울철 혹한 피해(Dzud,주드)를 입은 유목민에게 사료, 수의 서비스, 현금지원을 제공하여 가계의 붕괴를 막고 식량 자급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다(GAFSP n.d.). SDG 9번 관련해서는 BEST(Business Excellence for Sustaining Communities)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비광업 분야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FundsforNGOs n.d.). SDG 11번 관련해서는 울란바토르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한 거버넌스 분야인 SDG 16번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몽골 투명성 협정 이행을 돕고, 디지털 정부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Leaders Advancing Democracy(LEAD) Mongolia'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시민사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USAID n.d.). 한편, 2022년 승인된 미국의 몽골 통합 국가전략에 따르면 〈표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몽골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민주주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2019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몽골의 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경제 다각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보 및 사법협력확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SDG 16, 9, 6, 7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epartment of State 2022).

〈표 Ⅱ-11〉 미국의 몽골 주요 지원 분야

지원분야	개발과제	주요 내용
민주적 원칙과 제도 증진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 강화	정부기관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 개선
	시민사회지원	활발한 시민 사회 및 독립적인 미디어 지원
	반부패 노력	사법 시스템 개혁 및 반부패 노력을 지원
경제회복력 및 다각화 강화	경제 다각화 촉진	광물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농업 관광 기술분야 발전
	투자환경개선	투명성 개선, 부패 감소, 국제적 모범사례 준수
	주요인프라 개발	울란바토르의 물 공급 문제 해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재생 에너지 전환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정책 개발 지원
안보협력강화	평화유지 역량 강화	다국적 평화 유지 훈련 및 재난 대응 훈련 지원
	군 개혁 및 교육	군 전문화, 교육, 개혁을 위한 양자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국경 안보 및 법 집행	법 집행 기관 역량 강화 및 국경 안보 역량 지원

자료: Department of State 2022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몽골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1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지만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여국의 지원은 많지 않은 편으로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와 '경제성장 인프라 확충 및 교통안전 개선'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1번과 SDG 9번의 성과와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공여국의 지원은 많아 수요 재확인 유형이다.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의 성과가 낮고,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 공여국의 지원도 많지 않은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표 Ⅱ-1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SDG 11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경제성장 인프라 확충 및 교통안전 개선	SDG 9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 측은 전반적으로 SDG 목표에 관한 정부의 관심도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SDG 11번의 경우는 정부의 예산 편성, 행정 수도 이전, 신도시 개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SDG 2번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농축산업 특화 경제특구(Agro-City)를 만들 정도로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SDG 9번은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로 인하여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CP 프로그램 개정 관련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요소를 포함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큰 주제로 통합하여 기후 관련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 문제 해소를 다루며, 네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몽골정부의 지원요청이 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KOICA가 추진하는 다른 핵심 사업의 성과도 부패나 비효율로 인해 잠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도구로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현재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몽골 울란바토르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무소가 제시한 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합쳐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수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도시화로 인해 울란바토르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대기 오염과 교통난 해소를 주요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IT를 기반으로 하는 대기질 관리 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등 현재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도 울란바토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바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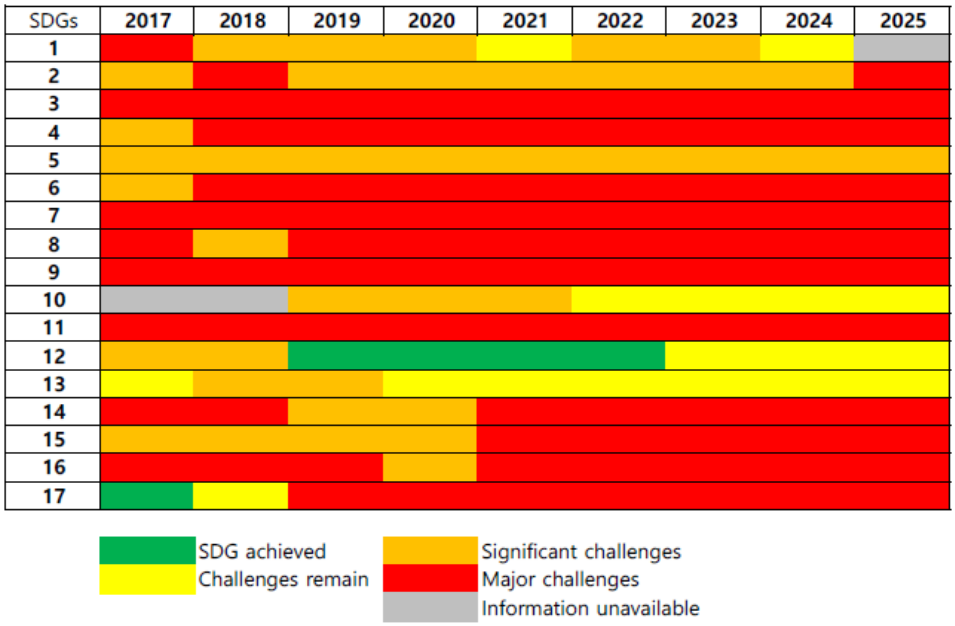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의 경우는 포용적 농목축업개발에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몽골의 SDG 2번 성과가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주드 같은 재난을 통해 몽골 식량 생산의 핵심인 가축과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이것이 유목민의 소득 감소와 결합되어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Government of Mongolia 2023). 향후 몽골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5) 미얀마

(1) SDGs 이행 현황

미얀마는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정, 코로나19, 고조되는 갈등, 경제적 붕괴,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가 결합된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UNDP 2025). 그로 인해 VNR 보고서가 한번도 제출된 적이 없으며 여러 UN 기구의 보고서들을 통해서만 미얀마의 SDGs 이행 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빈곤 관련 2017년 24.8%였던 빈곤율은 2022년 46.3%로 상승한 데 이어, 2023년 말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UNDP 2023). 식량위기가 심각하여 가구의 28%가 소득 부족으로 인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부정적인 대처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갈등과 홍수로 인해 2021년 이후 쌀 재배 면적의 16%가 손실되었으며, 비료 및 연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UNDP 2025). 의료진들이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면서 공공 보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졌고, 학교 등록률은 2017년 94%에서 2023/24학년도에는 79%로 하락하였다(UNDP 2023; 2025). 2024년 기준 미얀마 인구의 48%만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GDP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 수축했고, 2024년 인플레이션은 25.4%에 달해 2030년까지 SDGs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UNDP 2025).

[그림 Ⅱ-25] 미얀마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미얀마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10, 13번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미얀마의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60.9점에서 2024년 63.6점으로 2.7점 상승하였다(SDSN 2025).

KOICA는 현재 미얀마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평화구축 및 민주적 제도강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총 4개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목표는 각각 2, 9, 3, 16, 4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2번은 2개는 진전, 2개는 정체, 5개는 후퇴,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2.4.1 과 2.5.1번이며, 후퇴하는 지표는 SDG 2.1.1, 2.1.2, 2.2.3, 2.a.1, 2.a.2번이다. SDG 3번은 14개는 진전, 3개는 정체, 3개는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3.8.1, 3.b.1, 3.d.2번 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3.3.2, 3.3.3, 3.5.2번이다. SDG 4번은 3개는 진전, 3개는 후퇴, 나머지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는 SDG 4.2.2, 4.b.1, 4.c.1번이다. SDG 9번은 8개는 진전,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9.1.2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9.5.2번이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2개는 진전, 2개는 정체, 2개는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16.7.1과 16.a.1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16.1.1과 16.3.2번이다(UNESCAP 2025).

[그림 Ⅱ-26] 2025년 미얀마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미얀마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점수를 높여 갔으나 2020년 이후 다시 낮아져 SDG 이행 점수와의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다.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21년 점수가 급격히 낮아진 후 기존 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DG 4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점수가 상승하여 CP 지원 SDG 목표 중 유일하게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수가 정체 상태에 있다. SDG 9번은 해마다 조금씩 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 성과개선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군사쿠데타 이후 점수가 조금씩 하락하다가 2021년 크게 하락한 이후 기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Ⅱ-27] 미얀마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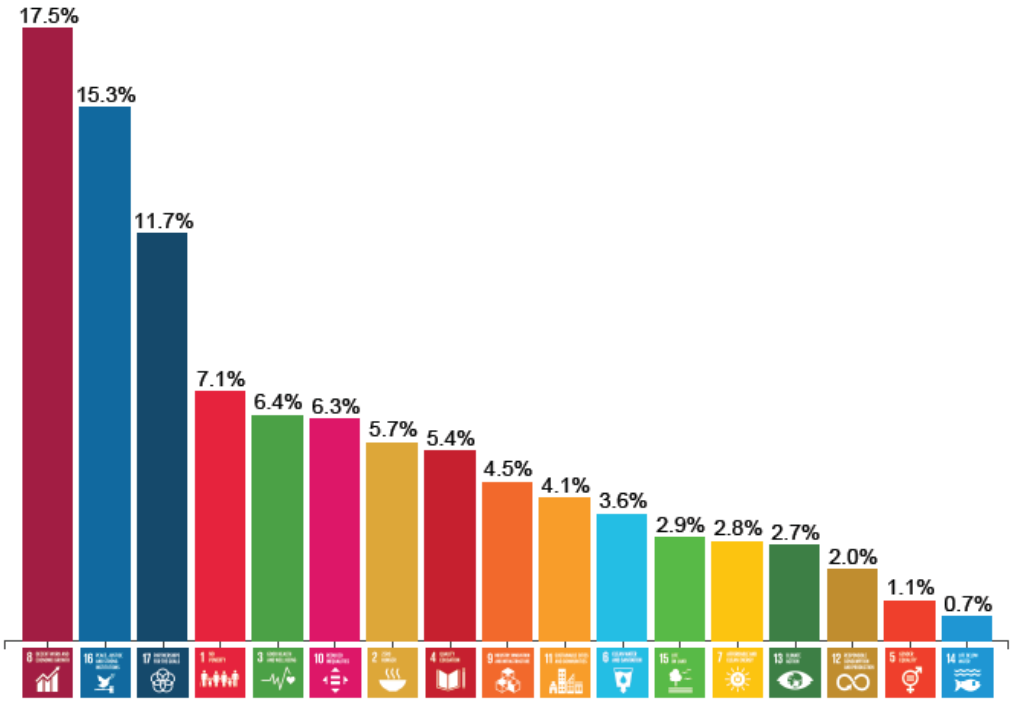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미얀마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미얀마는 KOICA가 CP를 수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UN에 VNR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 미얀마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이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와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2022년 미얀마 정부는 SDG Progress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가 유일하게 미얀마 정부의 SDG 이행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DG 이행 상황을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통계기구를 SDG 지표 모니터링 주관 부처로 지정하였다(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22).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농업, 보건, 재난 등 12개의 부문별 태스크팀을 구성하여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2021-2025 국가 말라리아 퇴치 전략 계획,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 결정 기여, 국가 적응 계획 및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살충제법, 식물 해충 검역법, 그리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보전법(2018) 등을 제정하여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림 Ⅱ-28] 미얀마 개발계획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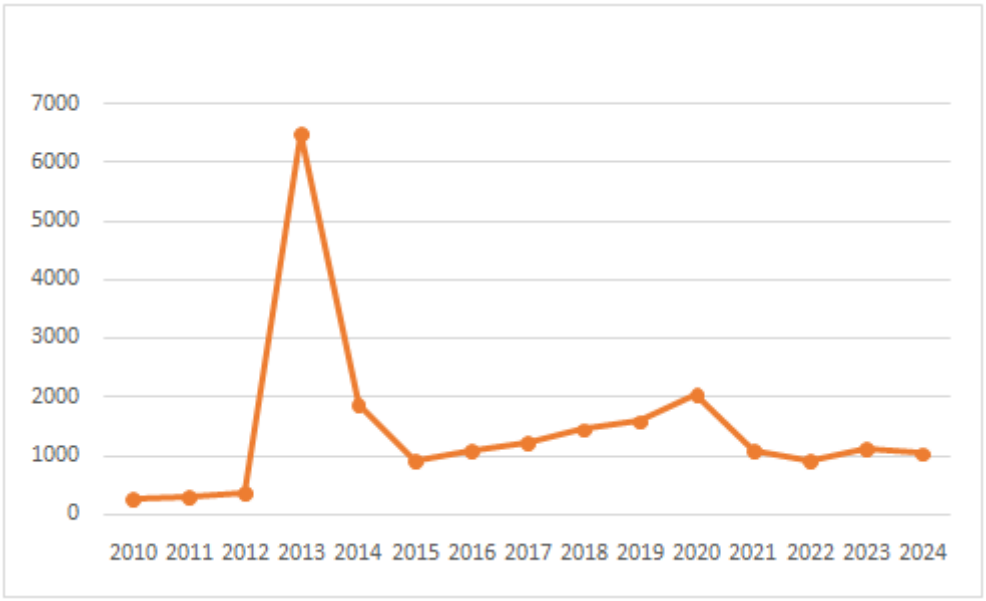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미얀마의 장기 국가 계획 문서인 '미얀마 지속가능발전 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7] 그 결과, [그림 Ⅱ-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16, 17, 1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 개발계획에서 이 4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얀마 정부가 이 4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 이 관심 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16번이 유일하였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미얀마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2월 발생한 군사 쿠데타의 영향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2013년 급격히 증가한 금액은 일본의 부채탕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림 Ⅱ-29] 미얀마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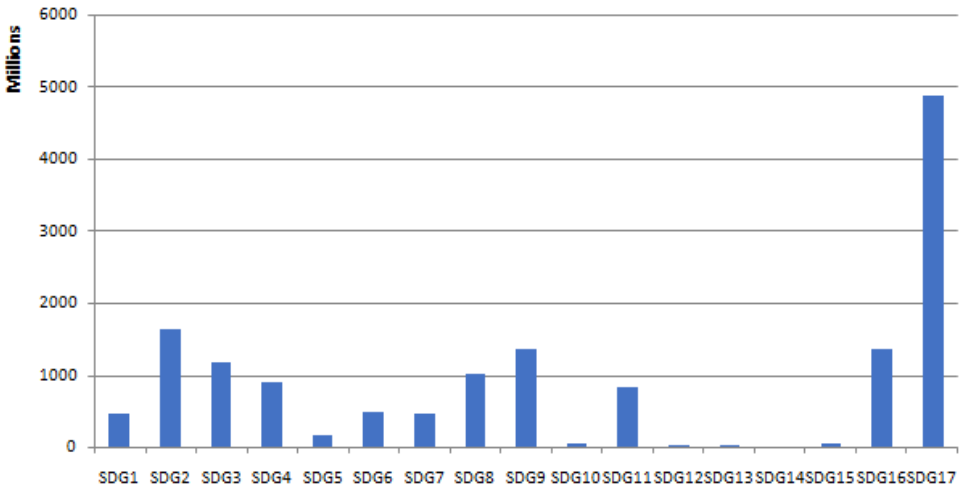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7) 미얀마는 VNR이 부재한 관계로 국가개발계획 문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얀마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17, 2, 9번 관련하여 각각 33%, 11%, 9% 를 지원받아 이들을 합산했을 때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2번과 9번에 다른 공여국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30] 미얀마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 4, 9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고 SDG 3번은 영국, SDG 16번은 미국이었다. 다섯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일본, 다음은 영국이었다. 이들 공여국이 미얀마에 SDG 목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 Ⅱ-13〉 미얀마 SDG 2, 3,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99	91	164	1	86	442
노르웨이	14	16	29	10	82	152
독일	64	31	70	60	31	256
일본	**604**	245	**284**	**1,096**	109	**2,338**
한국	56	22	82	124	9	293
스웨덴	8	118	3	0	125	254
스위스	80	44	56	3	58	241
영국	358	**330**	73	36	219	**1,016**
미국	224	229	42	23	**395**	913
기타	127	47	89	12	251	526

① 일본

SDGs 채택 이후 일본은 미얀마가 추진하는 민주화, 국가 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여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 민생개선, 인프라 구축에 중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민주화를 지원하면서 소수 민족 및 빈곤층 지원, 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 그러나,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JICA n.d.).

한편, SDG 2번 관련 대표적인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한 '농업 및 지역 개발 투스텝 차관사업(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wo Step Loan Project)'이다. 이사업은 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농업 기계화 및 투자를 촉진하고 미얀마 농업개발은행의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JICA 2017). SDG 3번 관련 '양곤 신규 전문병원 건설 사업(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New Specialist Hospital in Yangon)'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은 심장병과, 심장외과, 신경외과 등 중증 질환 전문 센터를 건립하고 미얀마 의료진의 전문 기술을 연마하는 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Mohinga 2018). 다음으로 SDG 4번 관련 '일본-미얀마 아웅산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Japan-Myanmar Aung S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이 있다. 이 사업은 양곤 지역에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모델 학교를 설립하여, 미얀마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Matsuda Consultants International n.d.). SDG 9번 관련, 일본이 미얀마에서 추진한 인프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으로 '양곤-만달레이 철도 개량 사업(Yangon-Mandalay Railway Improvement Project)'이 있다. 양곤-만달레이 철도는 총연장 약 620km로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열차 탈선 사고가 잦고 운행 속도가 매우 느려 이를 해결하고자 낡은 궤도, 교량, 신호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일본의 고품질 열차를 도입하여 여객 및 화물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이다(Myanmar Project Bank n.d.).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미얀마 법·사법 및 관련 부문 역량 강화 사업(The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Legal, Judicial and Relevant Sectors in Myanmar)'은 미얀마의 낡은 법체계를 현대화하고, 법을 집행하는 인력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투명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JICA 2018).

② 영국

코로나19,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붕괴 등 미얀마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폭발한 상황에서 공여국의 기존 개발협력전략이나 사업은 더 이상 이행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영국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단했다. 군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과 취약 계층에 도달하기 위해 현지 시민사회단체(CSO), UN 기구, 국제 NGO와 협력하여 지원을 전달하며 인도적 위기 해결, 인적 자원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FCDO 2023). 지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얀마 인도적 지원프로그램(Myanmar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me, MHAP)'을 통해 실향민 등 30만 명에게 보호, 식량, 식수·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은 '미얀마-영국 보건 파트너십 프로그램(Myanmar-UK Health Partnership programme, MUHP)'을 통해 모자 보건을 개선하고 HIV,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를 지원한다. 식량 안보분야는 '생계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programme, LIFT)' 다자간 기금을 통해 취약 계층의 식량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미얀마-영국 교육 파트너십 사업 (Myanmar-UK Partnership for Education, MUPE)'은 갈등 지역 내 소수 민족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평화 및 민주주의 (Myanmar Foundations for Peace and Democracy programme, MFPD)' 사업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정치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미얀마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1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의 성과가 낮고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수요 재확인 유형이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은 SDG 9와 3번 달성을 지원하는데 SDG 9와 3번의 성과와 협력국 정부의 관심은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서로 달라 수요 재확인 유형과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평화구축 및 민주적 제도강화'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 성과가 낮지만 협력국의 관심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규모는 적어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가 높지만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규모는 적어 선별적 관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은 현재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크게 유효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Ⅱ-1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SDG 9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SDG 3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평화구축 및 민주적 제도강화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이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에서는 신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신정부 100일 계획(100-Day Plan)' 문서에 평화 구축, 교통,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공유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 2와 9번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향후 CP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양자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도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인도

적 지원 중심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직업훈련,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UNICEF, WFP, UNDP가 연계된 HDP Nexus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임을 언급하였다.

문헌분석, 사무소 인터뷰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얀마의 복합 위기 상황과 공여국의 전략을 고려할 때, KOICA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기존의 정부 협력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공동체 중심의 회복력 강화 및 인도적 지원과 개발의 연계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무소 또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사업을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프로그램 방향성을 전환하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얀마는 통제권이 분열되어 있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개발을 관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SDG 2번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내용 또한 농업 생산 증대보다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종자 보급, 소규모 관개 시설 재건, 기후 적응형 농법 교육, 농작물 경작관리 등을 포함하여 식량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하면 좋을 것이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가 기간망 확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도적 수요와 연계된 생존을 위한 필수 이동권 보장 및 현지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인프라 개선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철도 개량과 같은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과 차별화하기 위해 KOICA는 이러한 간선망과 소외된 농촌 지역을 잇는 '라스트 마일(Last-mile)' 포용적 교통망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소규모 물류 네트워크 개선은 교통(SDG 9번)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SDG 2번)와 빈곤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구축 및 민주적 제도강화'는 미얀마의 현 상황에서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얀마에는 완전한 정당성을 갖춘 정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평화구축이나 민주주의 수립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또한 많은 학생과 교사가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공교육을 거부하고 있어 양자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정된 계획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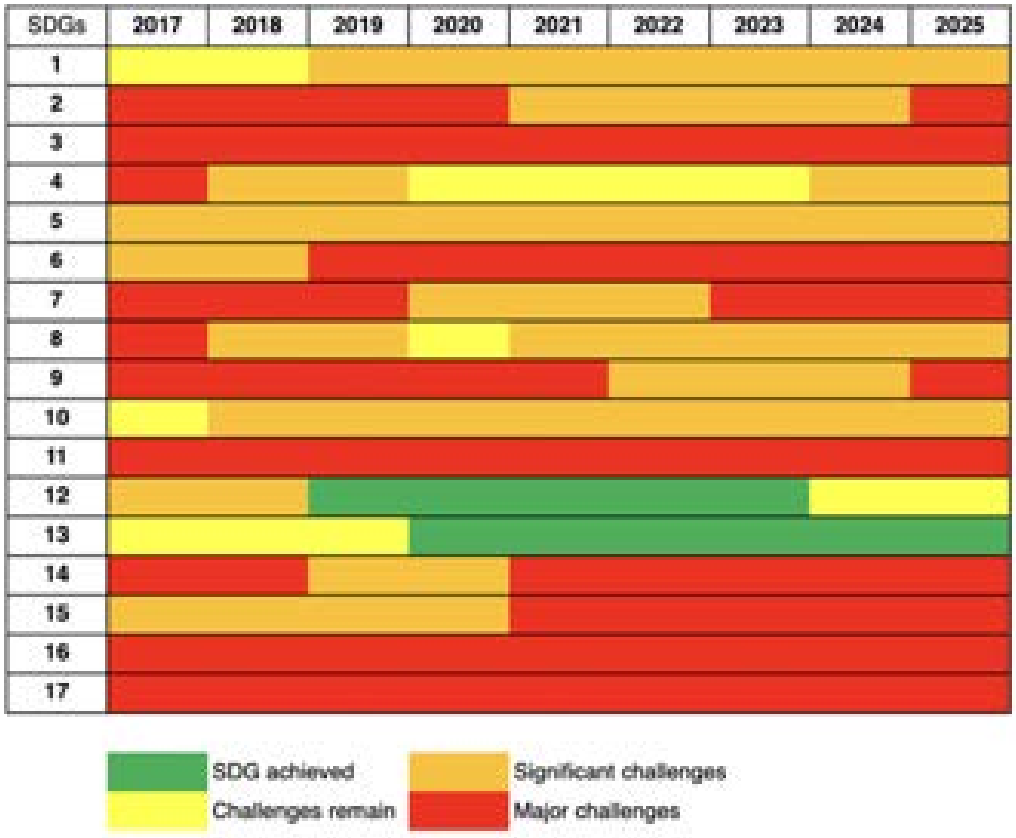
6) 방글라데시

(1) SDGs 이행 현황

방글라데시는 지난 10여 년간 SDGs 이행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구조적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2025년 VNR을 통해 이러한 진전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7; 2020a; 2025). 특히 빈곤 완화는 세 차례 VNR 전반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 영역으로 반복 확인된다. 2017년 VNR은 국가적 빈곤감축 프로그램과 농촌 개발정책을 SDG 1 이행의 주요 동력으로 제시했고(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7), 2020년 보고서는 다차원적 빈곤지수 개선과 사회보호제도 확장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a). 2025년 VNR은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 극빈층 비율이 2016년 13.47%에서 2022년 5%로 크게 감소했으며, 사회보호제도는 2016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포괄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이는 지난 10년간 빈곤 및 취약계층 대응정책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SDG 2, 3, 4, 13, 16번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5년 VNR은 일부 목표에서 성과 정체·후퇴가 존재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SDG 5, 10, 11, 16번 등에서 기대 대비 진전이 제한적이며, 필수보건서비스, 환경오염, 식수위생(Water Sanitation Hygiene, WASH), 재난·기후취약성 등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그림 Ⅱ-31] 방글라데시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지난 10년간 방글라데시의 SDGs 이행 추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방글라데시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31]의 대시보드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방글라데시는 이 기간 동안 SDG 4, 8, 12, 13번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경제·지속가능한 생산·기후 대응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구조적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는 2016년 60.4점에서 2025년 63.9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SDSN 2025).

[그림 Ⅱ-32] 2025년 방글라데시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KOICA가 방글라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16, 3, 4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자료를 바탕으로 CP에서 집중하는 3개 SDG 목표별 방글라데시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3번 건강과 웰빙 목표는 총 27개 지표 중 18개가 개선 추세, 1개가 정체, 2개가 후퇴, 6개는 추세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다. 개선되고 있는 지표에는 SDG 3.1.1, 3.2.1, 3.2.2, 3.3.1, 3.3.3, 3.4.2, 3.8.1 등 다수의 핵심 보건 지표가 포함된다. 반면 정체된

지표는 SDG 3.3.2번으로, 2015년과 2023년 수치가 동일해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SDG 3.3.5와 3.d.2번은 최근 악화 추세를 보이며 후퇴 지표로 분류된다. 한편 B형 간염 유병률, 알코올 사용 장애, 교통사고 사망, 대기오염 및 미흡한 WASH 서비스로 인한 조기 사망 등은 단일 연도 자료이거나 시계열이 미비해 장기 추세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데이터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UNESCAP 2025).

4번 양질의 교육 목표는 총 9개 지표 중 6개가 개선, 1개가 정체, 2개가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된다. 특히 SDG 4.1.2, 4.2.2, 4.3.1, 4.a.1번 등은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교육 접근성·환경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청년·성인의 ICT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SDG 4.4.1번 지표군은 일부 항목에서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해 혼합된 추세를 보인다. 또한 SDG 4.2.1과 4.7.1번은 최근 자료 부족으로 추세 분석이 어렵다. 이는 교육 분야 일부 지표에서 데이터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UNESCAP 2025).

마지막으로 16번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 목표는 11개 지표 중 1개가 개선, 3개가 정체, 1개가 후퇴, 6개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SDG 16.3.2, 16.7.1, 16.a.1번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어 정체 상태로 분류되며, SDG 16.2.2번은 증가 추세를 보여 후퇴 지표로 평가된다. 반면 SDG 16.9.1, 16.2.1, 16.2.3, 16.5.1, 16.5.2번 등은 조사 연도가 제한적이거나 단일 연도 자료에 그쳐 장기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방글라데시는 건강·교육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나, ICT 활용역량과 인신매매·부패 등 거버넌스 지표에서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평화·제도 영역에서는 데이터 부족이 이행 평가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해 향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UNESCAP 2025).

[그림 Ⅱ-33] 방글라데시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방글라데시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목표 모두에서 SDG 이행 점수와의 구조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SDSN 2025). SDG 3번은 거의 모든 연도에서 SDG 이행 점수와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변화에 머무르는 흐름이다. SDG 4번은 비교적 큰 변동 폭이 관찰되는 지표로, 2017~2019년 사이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1년 이후에는 빠르게 하락해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값으로 전환된다. 즉, 교육 분야는 단기간의 향상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반면 SDG 16번은 기간 전체를 통해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방글라데시의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SDG 4번은 상승 후 하락이라는 변동성을 보이며 최근에는 SDG 이행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 SDG 16번은 전 기간에 걸쳐 낮은 점수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세 목표 중 가장 도전적인 영역으로 확인된다.

(2) 방글라데시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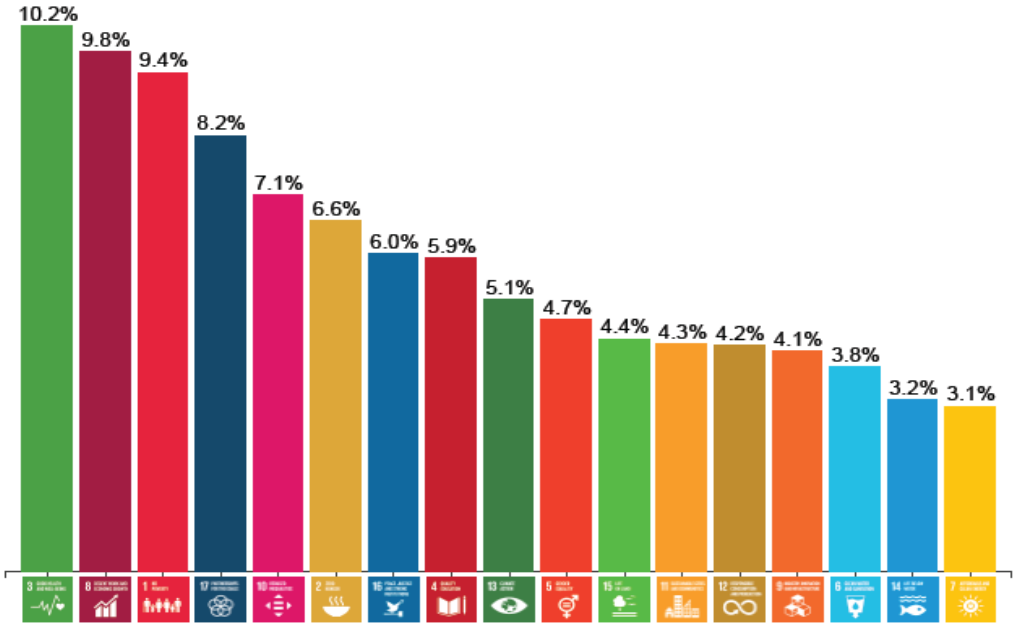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7년 첫 VNR을 통해, 2030 의제를 국가의 제7차 5개년 계획(2016~2020)에 통합하고 총리실 직속의 'SDG 이행 및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SDG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169개 세부 목표별로 관련 부처의 책임을 매핑하고, 데이터 격차 분석을 통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SDG 트래커(Tracker)'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행을 위한 기본틀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7). 2020년 VNR에서는 40개의 우선순위 지표를 기반으로 한 SDG 현지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 원칙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울러 SDGs 재원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데이터 조정 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는 등 SDGs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a).

세 번째 2025년 VNR을 통해 SDGs 이행의 전반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적 안정과 포용적 거버넌스의 회복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강조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보고서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충격 속에서도 SDGs 달성을 지속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 기반 주인의식 강화가 핵심적 요건임을 명확히 제시한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특히 정부는 빈곤, 보호, 일자리, 사회서비스, 기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사회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의 2017년, 2020년, 2025년 3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목표가 SDG 3, 8, 1, 17, 10, 2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s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방글라데시의 장기 전략인 '전망계획(Perspective Plan) 2021~2041'은 2041년까지 선진국 대열 합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장기 전략 로드맵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31년까지 상위 중소득국 진입, 2041년까지 고소득국 지위 확보 및 1인당 소득 12,500달러 이상 달성, 2041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을 9.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평균 약 9%의 성장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꿈꾸고 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b). 무엇

보다 2026년 예정된 최저개발국 졸업 이후에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립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SDG 1, 2, 8번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결과가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3번이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34] 방글라데시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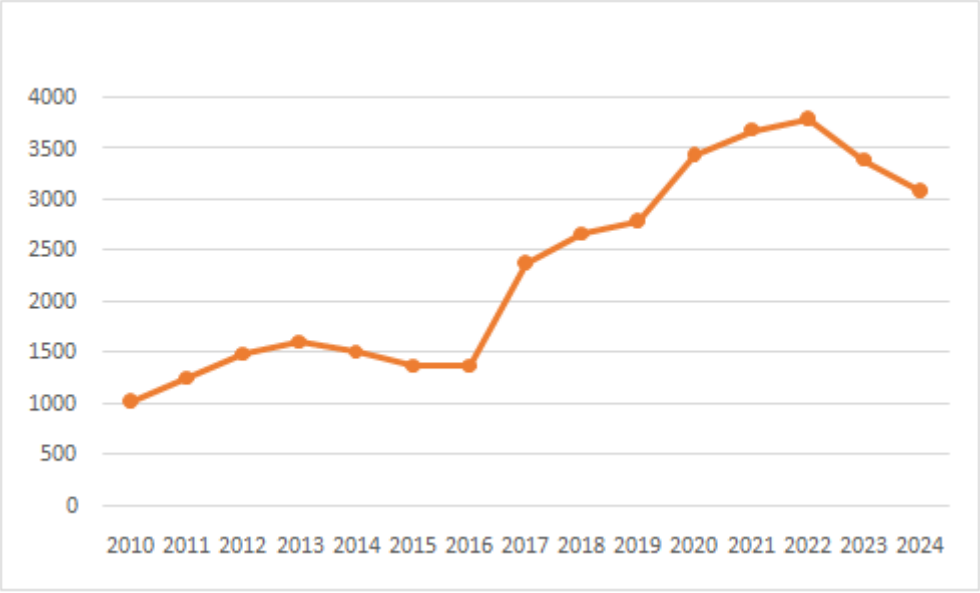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방글라데시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Ⅱ-35]에서 확인되듯이 방글라데시의 연도별 총 ODF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관측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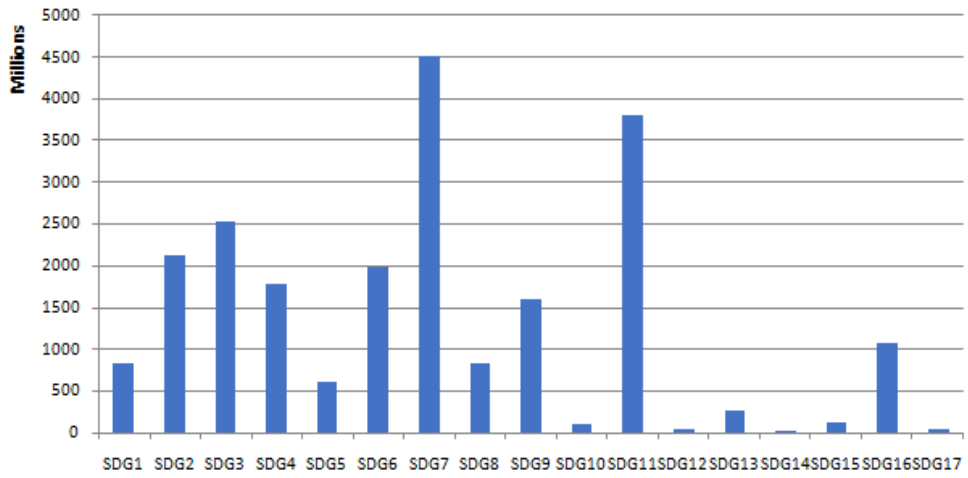
[그림 Ⅱ-35] 방글라데시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글라데시는 SDG 7, 11, 3, 2번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20%, 17%, 11%, 10%로 합산하였을 때 상위 50%를 차지한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목표인 SDG 3번이 다른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36] 방글라데시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러한 누적 지원 구조는 방글라데시가 장기간 직면해 온 인프라·도시·에너지·경제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여러 국제기구 분석과 일정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과 아시아개발은행(ADB 2022)은 방글라데시의 도시화 압력, 기후 및 재난 리스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제조업 기반 제약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UNDP 또한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 인프라 취약성과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호 결합하여 지속적 외부 재원 수요를 확대한다고 분석한다(UNDP 2021).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3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 SDG 4와 16번은 영국이었다. 세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영국이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이 각 SDGs 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15〉 방글라데시 SDG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77	353	6	436
캐나다	243	159	56	458
독일	83	299	67	448
일본	476	120	139	734
한국	171	107	15	293
스위스	15	22	72	108
영국	407	**435**	**299**	**1,141**
미국	**755**	56	223	**1,034**
기타	311	241	194	746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영국

영국은 SDGs 초기 도입기부터 2025년까지 방글라데시 협력에서 보건(SDG 3), 교육(SDG 4), 제도·거버넌스(SDG 16)을 핵심축으로 유지해 왔다.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방글라데시 이행계획 (Bangladesh Operational Plan) 2011-2016'은 보건 및 교육 섹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부 시스템·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으며(DFID 2016),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SDGs 체계 아래 강화되었다. '영국-방글라데시 개발 파트너십 요약 문서(UK-Bangladesh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는 영국의 양자 ODA가 보건·교육·성평등·기후·거버넌스 분야에서 '시스템 수준의 변화(system-level change)'를 지향한다고 명시한다(FCDO 2023).

보건 분야에서 영국은 모자보건·영양·재생산건강·보건 인력 및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SDG 3의 이행을 뒷받침해 왔다. 세계은행이 주관한 방글라데시 보건 분야 지원 사업과 4차 보건·인구·영양 프로그램 공동재원 참여는 필수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World Bank 2017). 또한 '보건시스템을 위한 영국 파트너십(UK Partnerships for Health Systems)'의 스코핑 분석은 방글라데시 보건체계의 취약성과 1차보건·인력·정보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는 영국 지원의 중기 방향과 일치한다. FCDO는 방글라데시의 더 나은 보건 (Better Health in Bangladesh), 조산사 교육, 재생산건강·가족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며 SDG 3번의 세부목표에 기여하고 있다(FCDO

2024a; 2024b; 2024c).

교육 분야에서도 영국은 기초학습 성과·평등·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DFID는 교육 품질 향상과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자 메커니즘에 재원을 제공했고(DFID 2016), 이후 FCDO는 방글라데시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성과 개선과 청년 기술훈련 강화를 추진했다(FCDO 2024d). 성과기반 접근을 활용한 취약계층 및 여학생의 교육 접근성 향상도 주요 흐름으로 나타난다(GPRBA 2021).

제도·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방글라데시가 SDGs를 국가개발계획과 조정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여국들과 함께 SDGs 기반 프로그램 정렬이 강화되었다. OECD 분석은 공여국들이 SDG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설계를 정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Schnatz et al. 2022). FCDO 역시 SDG 16의 핵심 가치인 책임성·투명성·제도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FCDO 2023).

영국은 이외에도 경제성장, 성평등, 식량안보·식수위생, 기후·환경, 빈곤감소 등으로 협력을 확장했다(FCDO 2023; FCDO 2024c). 특히 방글라데시 농촌 발전 위원회(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BRA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rrangement)' 2단계는 교육·보건·여성 역량강화 등 다수 영역에서 구조적 성과를 보여 주었다(DFAT and FCDO 2021). OECD(2025)는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보건·사회보호·인도주의 대응에서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② 미국

미국은 2016년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보건(SDG 3), 교육(SDG 4), 민주주의·거버넌스(SDG 16)을 전략축으로 설정하여 협력을 전개해 왔다. USAID의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2020-2025'은 방글라데시를 위한 개발목표로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교육받은 사회"와 "책임성·투명성을 갖춘 민주 제도"를 명시하며 SDGs와의 정렬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USAID 2023a).

보건 분야에서는 모자·신생아 건강, 감염병 대응, 결핵 퇴치, 보건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미국은 세계은행의 보건부문지원프로젝트 공동재원 참여(World Bank 2017)와 더불어 마모니(MaMoni)[8] 모성·신생아 건강 프로젝트(2018-2023)를 통해 산전·분만·산후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 보건 인프라 강화를 지원했다(USAID 2023b; Dascoh 2022). 연구 또한 MaMoni의 통합적 지역사회-의료기관 모델이 실제로 산모·신생아 건강에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보였음을 확인한다(Huda et al. 2023). 결핵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은 SDG 3번의 핵심 지표 개선과 연계된다(Stop TB Partnership 2025).

교육 분야에서도 미국은 조기 읽기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초등저학년 기초문해력 향상사업(Innovation for Improving Early Grade Reading Acitivity, IIEGRA)'는 교사 연수·자료개발·평가체계 개선을 포함하며(USAID 2019), 이후 에쇼시키(Esho Shikhi)[9]사업은 읽기·수학성취 제고, 교사 역량강화, 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Winrock International 2022; USAID 2025). 이러한 개입은 SDG 4번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형평성 강화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거버넌스·제도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DRG)' 포트폴리오를 통해 선거관리·지방정부 역량·인권·사법 접근성 개선·인신매매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CDCS의 민주 거버넌스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된다(USAID 2023a; Social Impact 2017; 2022). 이러한 흐름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SDGs 기반 조정체계와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기후·환경, 재해위험경감, 경제발전, 인도주의 대응, 생태계·산림 보전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UN 2021; OECD 2025).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이 보건 및 사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25). 다만 SDG 세부목표별 기여도에 대한 정량 분석 체계는 아직 미흡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Schnatz et al. 2022).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1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SDG 3번 달성을 지원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해당 SDG의 성과는 낮은 편, SDG 3번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SDG 4번 달성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숙련된 인적자원

8) 벵골어로 '어머니와 아이'라는 뜻
9) 벵골어로 '와서 배우라'라는 뜻

개발' 프로그램은 해당 SDG의 성과는 낮은 편, SDG 4번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또한 낮은 편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은 해당 SDG의 성과는 높지 않은 편, SDG 16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도 낮은 편에 속해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표 Ⅱ-1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 측은 SDGs 목표별 협력국의 관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SDG 3번의 경우 방글라데시의 정부의 보건 관련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SDG 4번 또한 인력송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교육 쪽에 관심도가 낮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CP 프로그램 개정 관련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재 간호대학교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1차 사업들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통계, 교통, 농촌개발사업 등 여러 영역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로힝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간호학과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간호 분야 자격 표준화 및 보건 인력 양성 관련 정책 자문 관련 지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질환별 전문 간호인력 양성,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건 전문 간호사 원격 교육 등 간호 교육 관련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을 고민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보다는 질적 성과 관리에 집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다른 공여국처럼 중복되지 않은 지역에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교육사업을 시행하며 중장기적 환경변화를 관찰하는 모니터링 중심의 접근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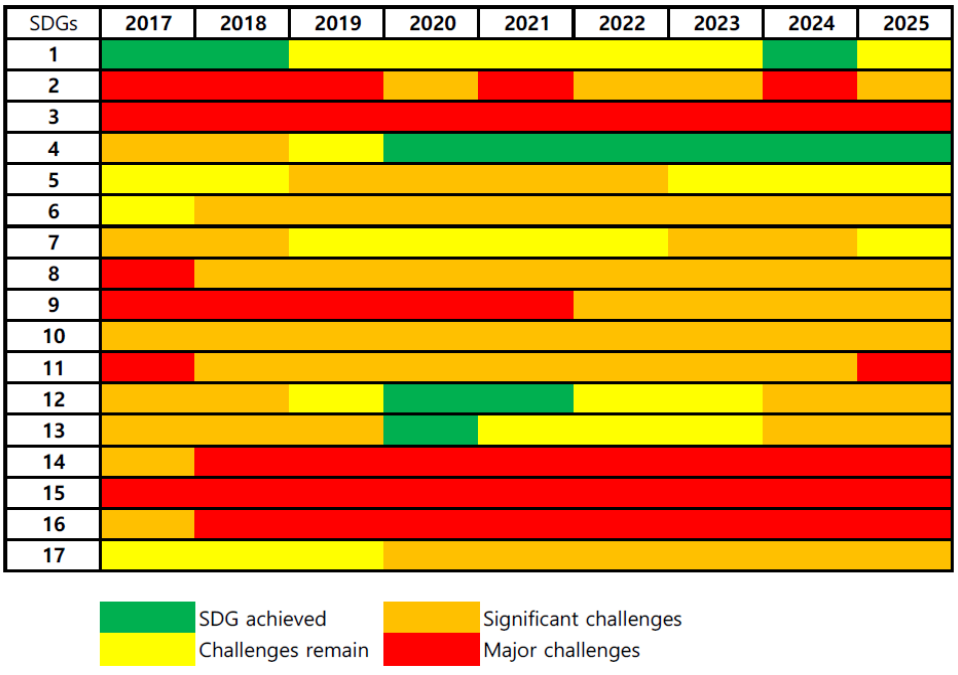
마지막 프로그램은 SDG 16번 달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정하거나 지원할 SDG 목표를 새롭게 선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 발굴이나 추가 예산 투입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을 기하면서 사무소에서 생각하는 로힝야 난민 지원과 방글라데시의 특정 SDGs 목표 달성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7) 베트남

(1) SDGs 이행 현황

베트남의 SDGs 이행 현황은 2023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SDG 1, 6, 9, 10, 16, 17번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3). SDG 1번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차원적 빈곤율이 9.2%에서 4.3%로 감소하였으며, SDG 6번 목표 관련해서 개선된 물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가구 비율이 2016년 93.4%에서 2022년 98.3%로 확대되었다. SDG 9번 목표 관련해서는 2019년 베트남의 인프라 시스템이 141개국 중 77위를 기록하였으며, 교통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승객 및 화물 운송량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SDG 16번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80.9%에서 2021년 87.2%로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SDG 17번 관련해서 베트남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성장률이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한편, Thu et al (2023)은 조금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이 2030년까지 SDG 1, 2, 4, 13, 17번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달성이 매우 어려운 목표는 2개, 나머지 10개는 달성과정에서 어려움과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Thu et al 2023).

[그림 Ⅱ-37] 베트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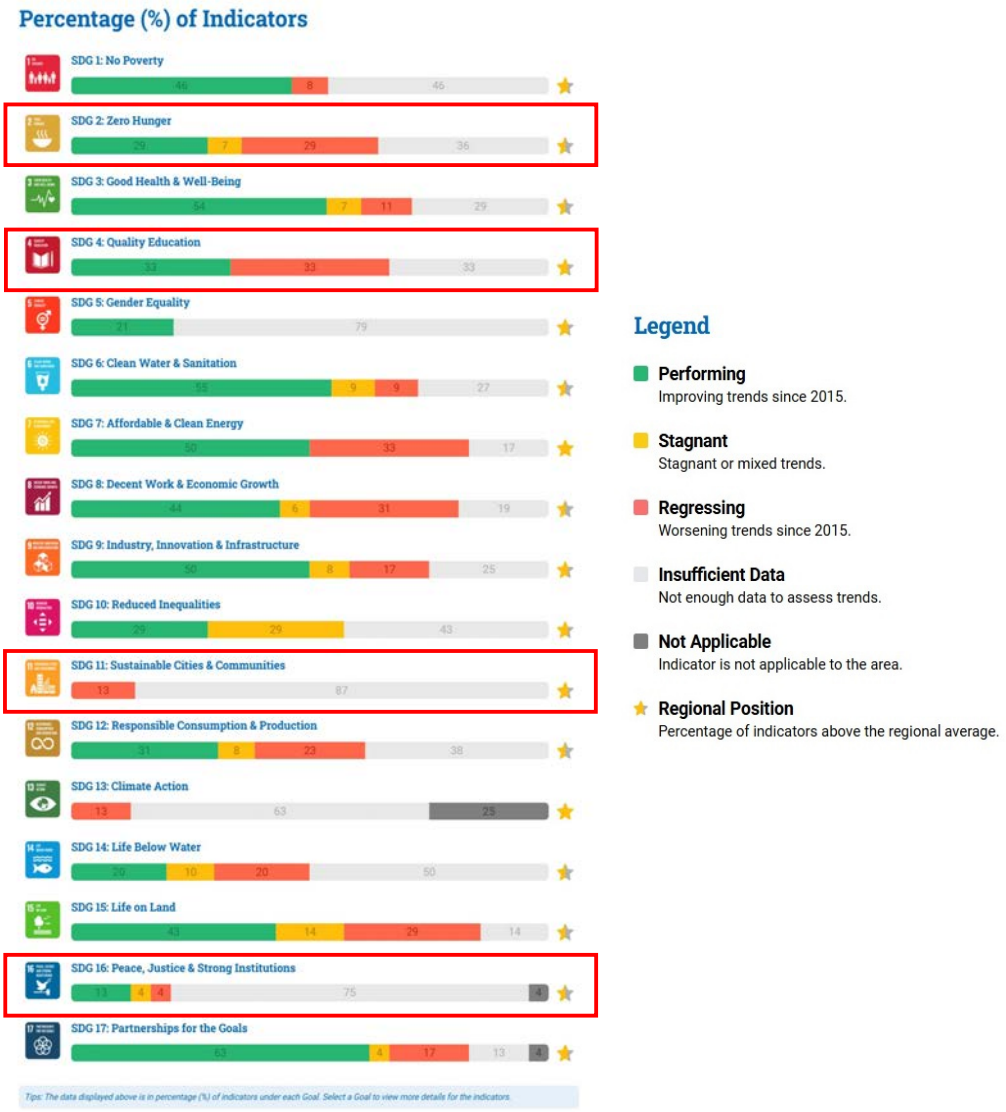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베트남의 지난 10년간의 SDGs 이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2, 4, 5, 7, 8, 9번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베트남의 2024년 SDG 이행 점수는 73.4점으로 2016년 70.6점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DSN 2025).

한편, KOICA가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국가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양성', '책임있고 투명한 포용적 거버넌스 제도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평화마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시티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4, 9, 16, 2, 11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2번은 15개 지표 중 4개는 후퇴하고 있고 1개는 정체되어 있다. 또한 지표 중 36%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2.1.2, 2.2.3, 2.a.1, 2.a.2번이다. 정체된 지표는 SDG 2.2.2번이다. 다음으로 SDG 4번은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33%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33%는 후퇴하고 있으며, 33%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들을 보면 SDG 4.c.1, 4.b.1, 4.2.2, 4.1.1번이다. SDG 9번 관련해서는 총 12개 지표 중 50%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1개는 정체, 2개는 후퇴 그리고 3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된 지표는 SDG 9.b.1번이며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9.a.1과 9.4.1번이다. SDG 11번에는 16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중 86%인 12개의 지표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가 있는 2개 지표인 SDG 11.6.2와 11.1.1번은 이행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총 24개 지표 중 75%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16.5.2번이며, 정체된 지표는 SDG 16.a.1번이다(UNESCAP 2025).

[그림 Ⅱ-38] 2025년 베트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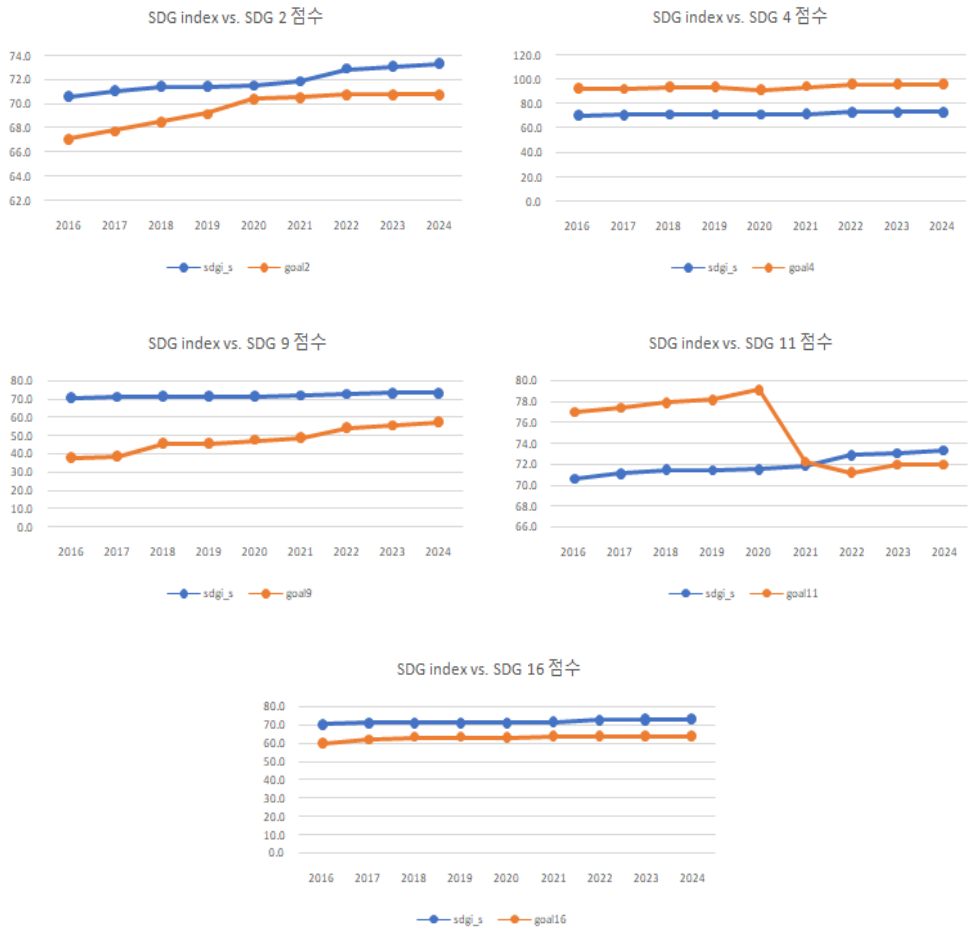


자료: 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베트남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베트남의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상황이다. 반면 SDG 4는 유일하게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SDG 9번은 격차를 많이 좁히긴 하였으나 여전히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상황이고, SDG 11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다가 2021년부터 낮아진 상황으로 점수가 하락한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면서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Ⅱ-39] 베트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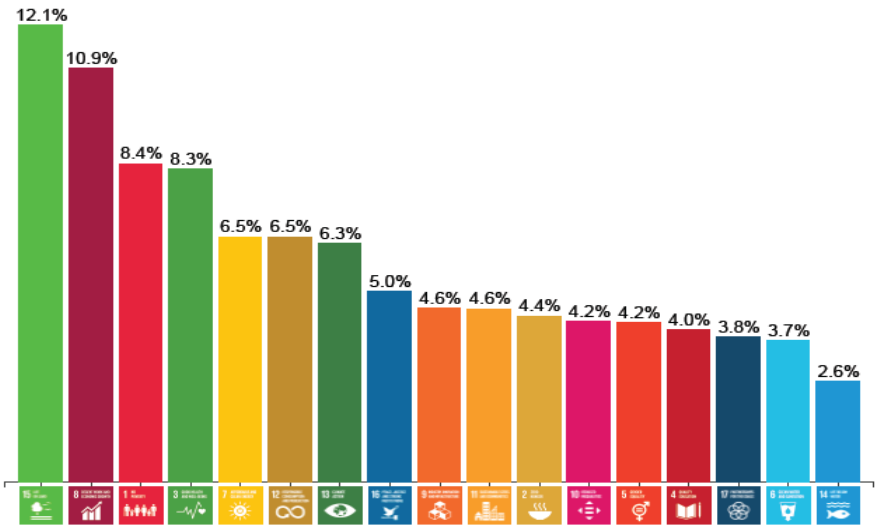
(2) 베트남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베트남은 첫 VNR을 통해 2017년 5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P2030)'을 발표하고 SDGs를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사회경제발전 전략에 통합하도록 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이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정책에 SDGs를 포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빈곤층, 소수민족,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류화하는 노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2030 개발의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장하려고 하였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8). 베트남 정부는 2020년 9월 '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하여 부처, 분야, 지방자체단체에서의 베트남 SDGs 이행 촉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두 번째 VNR은 이행을 가속화해야 할 11개 목표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언급하고 있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3). 예를 들어 SDG 2번에서는 소수민족 어린이의 영양결핍문제, SDG 3번에서는 노인 및 소수민족을 대상으로하는 필수의료서비스 확대, SDG 4번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접근성 촉진, SDG 5번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해한 사회적 규범 근절, SDG 7번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SDG 8번에서는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향상, SDG 11번에서는 도농지역 모두에서 환경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약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인적자본,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녹색 및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기관을 강화하고, 공공행정개혁을 촉진하며, 사회보호 체계를 추가로 개혁하여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거시경제적 기초를 안정화하고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동원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할 것임을 표명하였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3).

[그림 Ⅱ-40] 베트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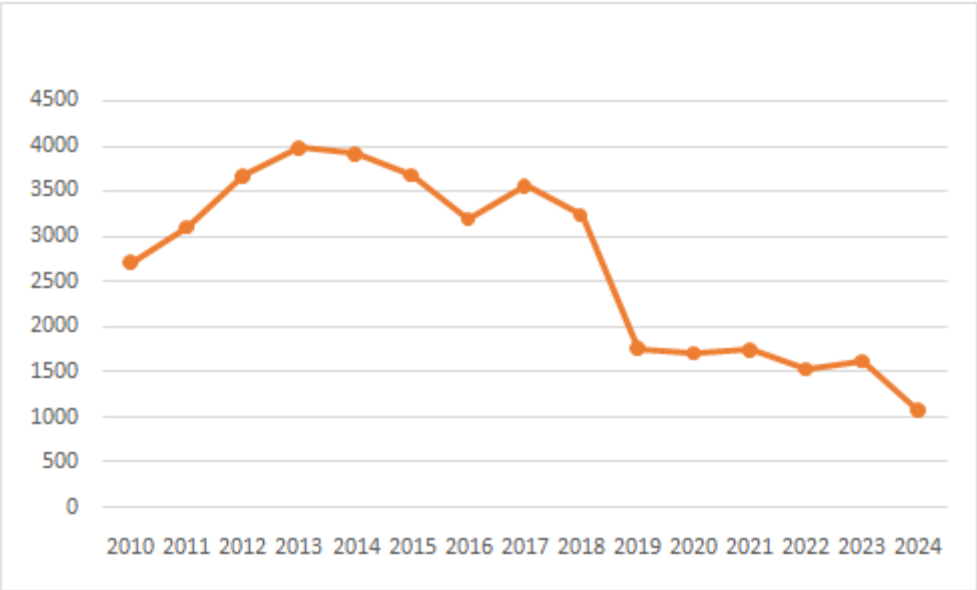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2018년과 2023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15, 8, 1, 3, 7, 12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는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6.3%의 경제성장률 보이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에너지, 빈곤퇴치 관련 SDG 목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지생태계,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관련 SDG 15번이 가장 비중 높게 나타난 점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가장 큰 규모의 지원액이 제공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 50% 가까이 급격히 감소한 후 소폭으로 지원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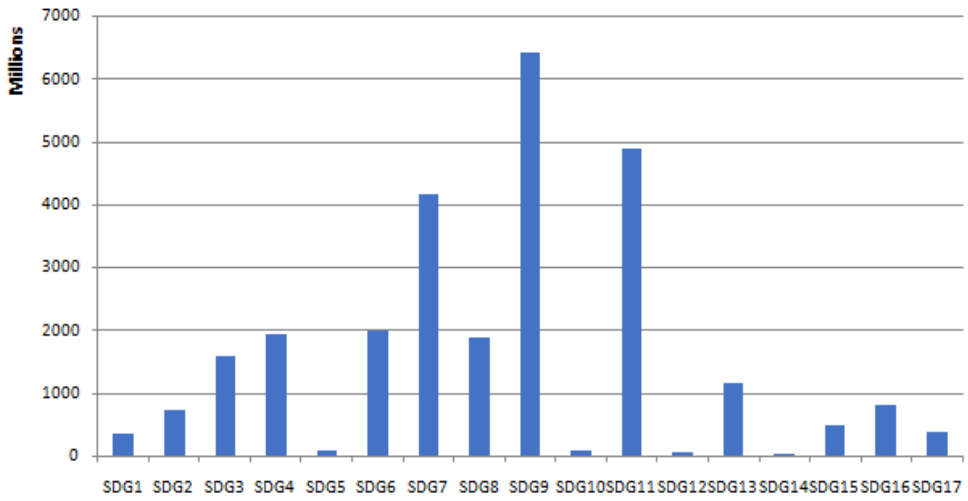
[그림 Ⅱ-41] 베트남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금액 기준으로, 베트남은 SDG 9, 11, 7번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와 관련된 지원 금액은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24%, 18%, 15%를 기록하여 합산했을 때 상위 50%를 차지하고 있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SDG 9번과 11번이 다른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42] 베트남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일본이 SDG 2, 9, 11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SDG 4번은 독일, SDG 16번은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섯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프랑스가 각 SDGs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17〉 베트남 SDG 2, 4,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45	258	86	65	18	472
캐나다	45	19	21	1	43	129
프랑스	66	400	222	569	121	**1,378**
독일	25	**523**	18	172	21	760
일본	**315**	284	**4,142**	**3,283**	78	**8,103**
한국	70	170	1,802	654	89	2,787
스위스	14	1	11	24	58	109
영국	4	51	5	23	45	129
미국	22	29	27	36	**186**	301
기타	103	197	14	50	153	578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JICA 프로젝트 맵에 따르면 SDG 2번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람동성에서 진행되는 농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베트남 농업성장을 지원하고 식량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DG 4번 관련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베트남 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Vietnam-Japan Human Resource Cooperation Center, VJCC)[10]역량 강화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장학프로그램(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11]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SDG 4번 관련 지원의 특징은 경제 성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고급 인적자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장학프로그램과 VJCC 2단계처럼 이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JICA 2025). SDG 9번 관련,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확장, 하노이-호치민 남북 고속도로 및 간선 도로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SDG 11번 관련 지원은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 지역에 대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재해 회복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지원은 많지는 않지만 주로 법치주의, 행정효율성, 사업제도개혁, 정부역량강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JICA 2025).

10) Vietnam-Japan Human Resource Cooperation Center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지원단계가 확장된 경영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11)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은 장기간 베트남 공무원 및 미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장학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일본이 베트남에 지원하고 있는 영역은 〈표 Ⅱ-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경제시스템/금융개혁, △농업/농촌개발, △보건, △기후변화/재난예방, △환경관리, 등이다. 베트남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답게 SDGs 목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18〉 일본 JICA의 베트남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지원 분야	구체 내용	SDGs
교통	아세안 내 연결성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및 도시 교통망 개발, 핵심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역량 구축 지원	7, 11
천연자원과 에너지	고효율 발전소의 개발 및 확장과 스마트 에너지 촉진을 통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시장경제시스템/금융개혁	금융기관역량 강화(세금, 통화정책, 주식시장 및 국제재무보고기준)	
교육	증가하는 노동시장 수요 충족 및 첨단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 구축	2, 4, 8, 9, 17
농업/농촌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베트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 가치 사슬 구축,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구조 전환 추진	
보건	재활, 노인 돌봄 및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발	3, 5, 6, 10, 12,13
기후변화/재난예방	중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재난 예방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관리	환경보호 규정 및 대책 개발, 증가하는 폐기물 및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사법개혁	행정 시스템 개선 및 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해 신속한 사회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양호한 행정 역량 강화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안전한 법 집행 및 정보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법 집행관 및 정보보안 관리자의 역량 강화	16

자료: JICA Vietnam Office 2025

② 프랑스

프랑스가 베트남에 주요하게 지원하고 있는 영역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촉진, 에너지 전환 지원, 기후변화대응, 청년과 사회적 연결 지원 등이다. 먼저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와 같은 SDG 11번과 4번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SDG 11번 관련해서는 도시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시설 구축, 대중교통, 공공상하수도 및 위생서비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네트워크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SDG 4번 관련해서는 유망 산업분야에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 및 취업 가능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요구에 맞춰 교육 과정을 조정하고, 교사를 양성하며, 안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직업훈련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AFD 2019).

이외에도 SDG 7번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개발, 신규 재생에너지 용량 흡수를 위한 전력망 현대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소개발 및 확장, 태양광 발전소 건설, 풍력발전 용량 증대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SDG 13번 관련해서는 베트남 도시의 취약성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을 존중하는 양질의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광범위한 기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 1,300만 유로를 투입하여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15개의 프로젝트와 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AFD n.d.).

뿐만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성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실행 단계에서 성별 분석과 목표를 통합하는 등 SDG 5번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통합 수자원 관리, 해수 침투 방지, 식수 품질 개선 등과 같이 SDG 6번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으며 공공 정책 역량 강화와 e-정부 개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SDG 16번을 지원하고 있다(AFD 2021).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베트남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19〉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평화마을 조성' 프로그램과 '책임있고 투명한 포용적 거버넌스 제도 구축'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과 SDG 16번의 성과,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모두 낮은 편이다. 즉,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이다. '국가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해당 SDG의 협력국 관심도와 공여국의 지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또 다른 목표인 SDG 9번은 성과와 협력국의 관심은 낮은 반면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다. 즉, 선별적 관찰 유형과 수요 재확인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시티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1번의 성과와 협력국 관심은 낮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다. 즉, 수요 재확인 유형이다.

〈표 Ⅱ-1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평화마을 조성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국가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양성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9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시티 지원	SDG 11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책임있고 투명한 포용적 거버넌스 제도 구축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는 베트남 산업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임을 언급하며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SDG 2번과 관련된 농업 분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낮지 않으며, 농업전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원규모나 형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베트남 정책 방향이 경제성장률 8%를 유지하면서 고소득국가로의 진입을 향해 있고 고숙련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DG 4번과 9번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DG 16번 또한 최근 베트남 권력 변화로 인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CP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농업 산업의 생산효율성 증대에 초점,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 향상 또는 ICT를 중심으로 한 고등/전문 교육으로 집중, 세 번째 프로그램은 스마트 시티라는 구체적인 영역보다는 환경 요소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재편, 네 번째 프로그램은 반대로 포괄성을 조절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다시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평화마을 조성'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사업보다는 전략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농업을 주요 산업군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명칭과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수확후 처리 기술 전수, 기후 변화 대응 농업 확대, 현대적 협동조합 모델 육성 등 생산, 유통, 환경, 역량 측면에서 농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유사한 전략으로

베트남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역 및 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국가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양성'이 산업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임을 감안하고 베트남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율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을 보편적인 교육보다 산업연계형 고등인재 양성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SDG 9번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만큼 점진적인 산업발전과 관련 노동수요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산업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고등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SDG 4번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또한 기업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 조정 및 교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사전에 살펴보아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시티 지원'은 스마트 시티라는 제한된 사업범위를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프로그램의 명칭과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위기로 영향 받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 거주 환경 개선, 연안도시들의 홍수 예방, 대도시의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만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 지역, 기간,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있고 투명한 포용적 거버넌스 제도 구축' 프로그램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성과와 협력국의 관심이 낮고, 공여국 지원 규모도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CP 프로그램을 SDG 16번의 세부목표 중 하나와 일치시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SDG 16.6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명한 공공기관 구축'으로 삼고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전환 및 전자정부 구현에 집중하여 서브 프로그램인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강화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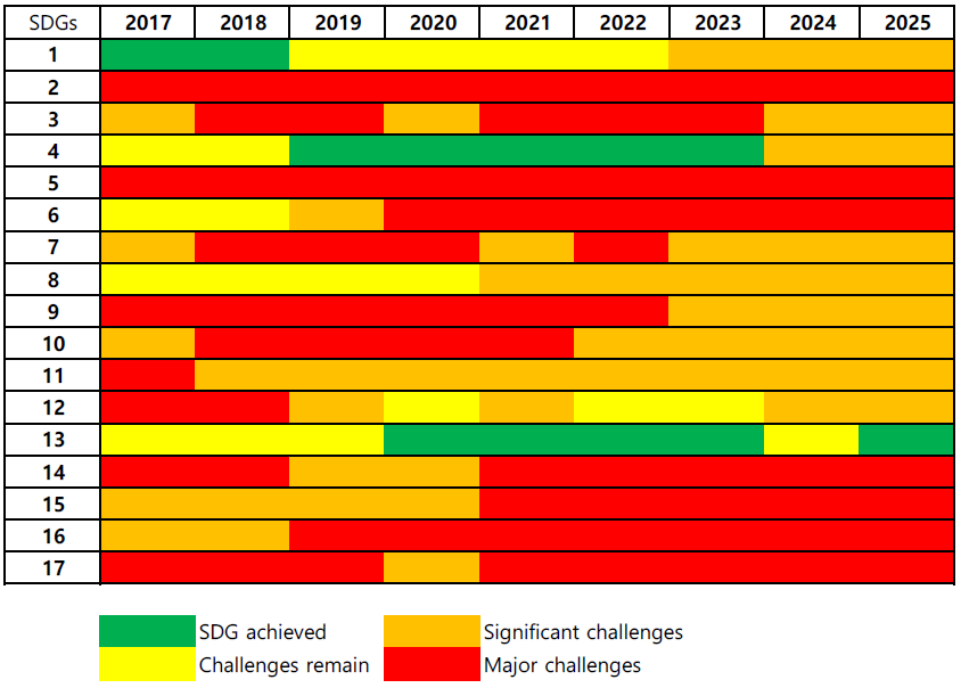
8) 스리랑카

(1) SDGs 이행 현황

스리랑카 2022년 VNR 보고서에 의하면 달성 가능하거나 진전중인 목표는 SDG 3, 4, 12, 16, 17번인것으로 확인되었다(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22).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하여 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보건 지표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의 질은 141개국 중 55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자 정부 발전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순위가 2018년 94위에서 2020년 85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거나 도전과제에 직면한 목표는 SDG 1, 10, 5번 등이며, 후퇴하고 있는 목표는 SDG 2, 7, 11, 13번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SDSN에서 발표하는 스리랑카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7, 9, 10, 11, 12, 13번 색깔이 변화하여 개선된 것처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SDG 이행 점수는 2016년 66.6점에서 2024년 67.9점으로 1.3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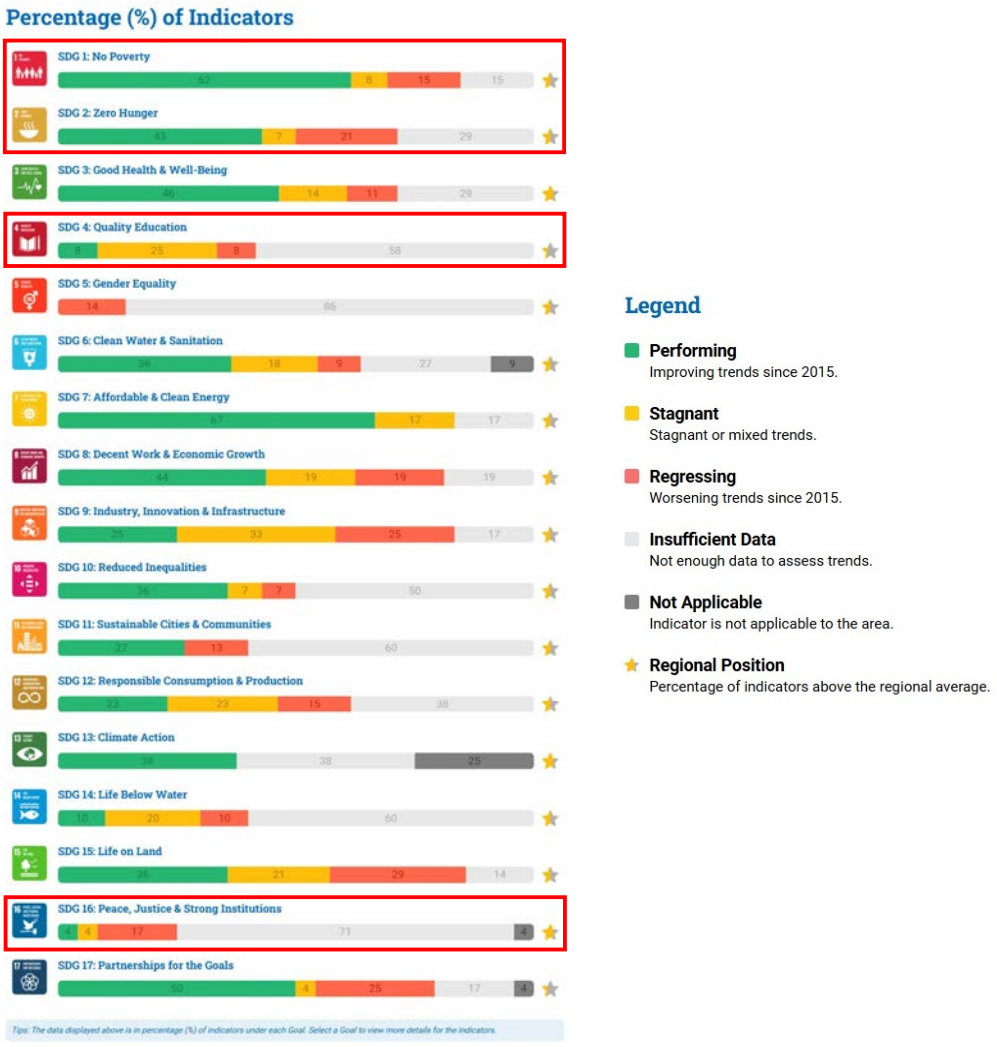
[그림 Ⅱ-43] 스리랑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는 스리랑카에서 4개의 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평화구축 및 사회통합', '포용적 개발을 위한 민주적 제도 강화',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스리랑카의 SDG 4, 2, 1, 16번 달성을 지원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44] 2025년 스리랑카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번 빈곤퇴치는 8개의 지표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1개는 정체, 2개는 후퇴, 2개는 충분

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하고 있는 지표는 SDG 1.a.2번이며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1.5.2과 1.2.2번이다. SDG 2번 기아종식은 진전이 6개, 1개는 정체, 3개는 후퇴, 4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체하고 있는 지표는 SDG 2.b.1번이며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2.a.1, 2.5.2, 2.1.2번이다. SDG 4번 양질의 교육보장은 진전이 1개, 정체가 3개, 후퇴가 1개, 7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체하는 지표는 SDG 4.c.1, 4.b.1, 4.3.1번이며, 후퇴하는 지표는 SDG 4.2.2번이다. 마지막으로 16번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는 진전이 1개, 정체가 1개, 후퇴가 4개, 17개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체하는 지표는 SDG 16.a.1번이며, 후퇴하는 지표는 SDG 16.7.1, 16.5.1, 16.3.2, 16.1.1번이다(UN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스리랑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해당 목표들의 이행 수준이 나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SDG 1번의 경우 SDG 이행 점수보다 점수가 높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지는 않는다. SDG 2번 점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현재는 SDG 이행 점수 보다 낮은 상황이다. SDG 4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SDG 16번은 SDG 이행 점수와 비슷했으나 점점 벌어지면서 우하향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Ⅱ-45] 스리랑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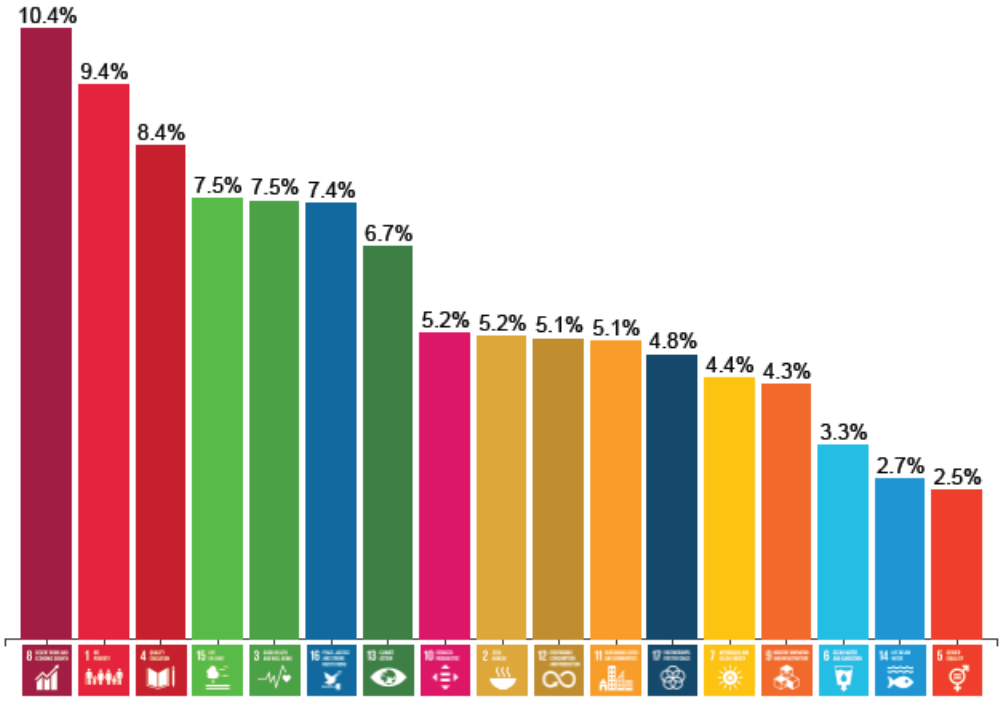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스리랑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스리랑카는 첫 VNR을 통해 SDG 달성을 위해 구축한 초기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보건, 교육 등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사회개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8). 스리랑카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들이 SDG를 주류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 장기 계획인 '비전 2025(Vision 2025)'와 '공공투자계획(Public Investment Plan) 2017~2020'을 SDGs 목표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 VNR에서는 스리랑카가 스리랑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SDGs 이행의 조정, 모니터링 및 보고 기능을 체계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22). 뿐만 아니라 '번영과 광채의 비전(Vistas of Prosperity and Splendour)'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을 통합한 10대 핵심 정책[12]을 수립하였으며, SDGs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2018년 46개였던 측정 가능 지표를 106개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 가용성 상위 10개국에 진입하였다.

12) 국가 안보 우선순위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우호적이고 비동맹적인 외교 정책 (Friendly, Non-aligned, Foreign Policy), 부패 없는 행정 (An Administration Free from Corruptions), 국민의 염원을 충족하는 새로운 헌법 (New Constitution that fulfills the People's Wishes), 생산적인 시민과 활기찬 인적 자원 (Productive Citizenry and a Vibrant Human Resource), 사람 중심의 경제 발전 (People Centric Economic Development), 기술 기반 사회 (Technology Based Society), 물적 자원 개발 (Development of Physical Resources),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규율 있고 법을 준수하며 가치 기반의 사회 (Disciplined, Law Abiding and Values Based Society)

[그림 Ⅱ-46] 스리랑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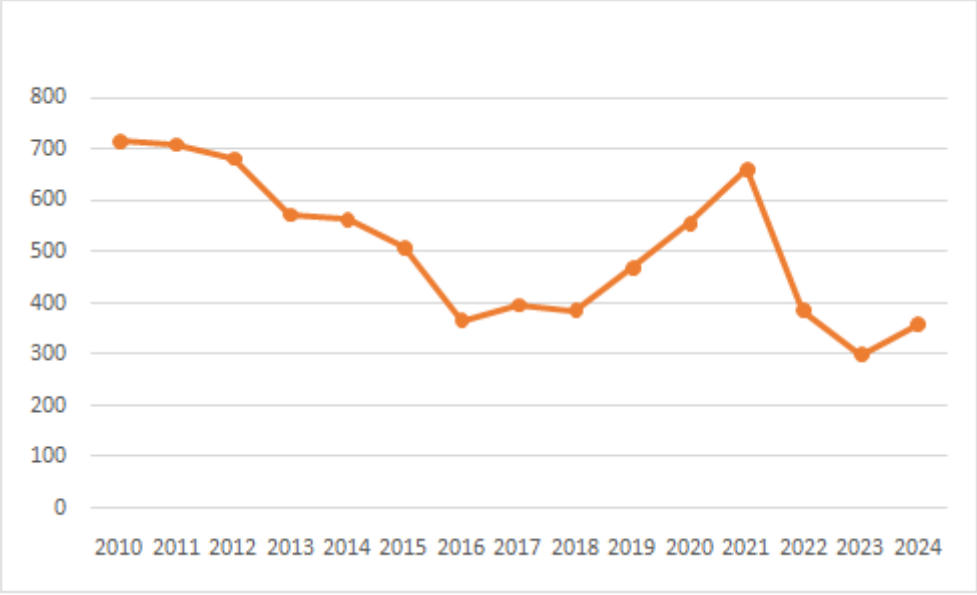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스리랑카의 2018년과 2022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1, 4, 15, 3, 16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022년 경제 위기를 맞았던 스리랑카는 공공투자계획2026~2030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개년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5). 이 문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향후 스리랑카는 거시경제 안정 및 부채 가능성, 디지털 경제로의 체질 개선, 녹색 경제 및 재생 에너지 전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인적 자원 보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SDG 16번과 4번 등 관심 순위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s 1, 4, 16번이 이 관심 순위와 일치하고 있었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스리랑카 받은 ODF 지원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DF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 최저점을 찍고 증가하면서 2021년에 10년 전 지원액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다시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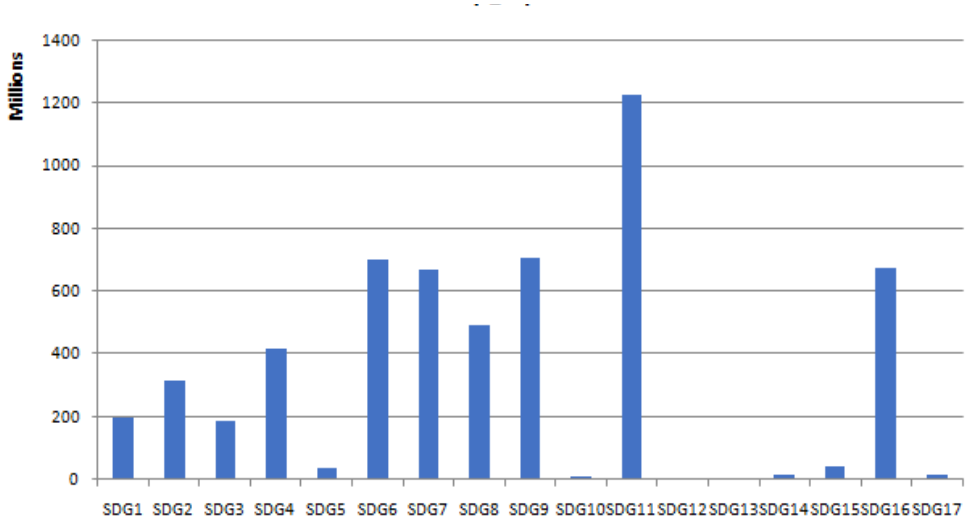
[그림 Ⅱ-47] 스리랑카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금액 기준으로, 스리랑카는 SDG 11, 9, 6, 16번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누적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21%, 12%, 12%, 12%로 합계로 보면 상위 50%를 차지하고 있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중 SDG 16번에 다른 공여국 또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48] 스리랑카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1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 SDG 2번은 미국, SDG 4번은 호주, SDG 16번은 미국이었다. 네 개의 목표에 지원한 금액을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각 SDGs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20〉 스리랑카 SDG 1, 2,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1 지원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1	12	**95**	84	192
캐나다	2	26	13	21	63
프랑스	41	14	22	0	77
독일	3	4	85	49	141
일본	**110**	91	67	159	**426**
한국	4	26	82	18	130
스위스	3	3	3	12	22
영국	3	1	28	47	79
미국	15	**102**	5	**225**	**347**
기타	16	35	21	65	138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일본 JICA는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역사와 현재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평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신흥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에 대한 취약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 이에 〈표 Ⅱ-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우선 지원 분야인 '양질의 성장 촉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취약성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SDG 9, 7, 6, 4, 16, 13, 3번 등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21〉 일본의 스리랑카 우선 지원 분야

주요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질적 성장 촉진	성장을 위한 경제 인프라 개발	교통 네트워크 개발
		전력 공급 개선
		상수도 공급, 하수도 관리 및 생활 환경 개선
		정책 개발, 제도 개혁 및 인적 자원 개발
		ICT 개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 개선	농업 및 어업 마을의 개발 지원
	분쟁 영향 지역의 개발 촉진	분쟁 영향 지역의 생계 개선
취약성 완화	취약성 완화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개발	기후변화 프로그램 및 재해 위험 감소 조치
		사회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보건, 고령화, 교육, 복지, 사회안정)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

② 미국

USAID와 국무부 통합 이후 미국의 스리랑카 지원 전략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CP가 지원하는 SDG 1, 2, 4, 16번을 중심으로 대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SDG 1번 달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시장 지향적 낙농업 개발사업(Market-Oriented Dairy)'이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총 2,700만달러의 사업으로 스리랑카 낙농가에 현대적인 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하여 우유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IESC n.d.). 다음으로 SDG 2번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긴급 비료 및 현금 지원 사업(Immediate Support to Paddy Farmers)'으로 사업비가 약 4,600만 달러이다. USAID가 FAO를 통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현금과 비료를 지원한 사업이다(United States Embassy Sri Lanka 2022a). SDG 4번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유리드(YouLead) 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하였으며 사업비는 1,800만 달러 정도이다. 스리랑카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훈련,

기술 교육,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USAID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다(United States Embassy Sri Lanka 2022b).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여성과 지방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 통합 및 화해 활동 사업(Social Cohesion and Reconciliation)'이다. 총 1,910만 달러의 사업으로 시민사회 단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Global Communities 2022).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스리랑카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2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여국의 지원은 많지 않은 편으로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이다. '평화구축 및 사회통합'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의 성과가 높지 않게 나타나면서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또한 낮은 수준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개발을 위한 민주적 제도 강화'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성과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SDG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높은 편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표 Ⅱ-2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SDG 4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평화구축 및 사회통합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포용적 개발을 위한 민주적 제도 강화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 측은 전반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동의하였으나, SDG 2번에 대해서는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P 프로그램 개정 관련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스리랑카의 높은 교육열을 대학교육이나 전문교육 쪽으로 소화

해내는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의 사업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접근법이 내재화 되어 있고 소득증대, 영양, 가치사슬, 순환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역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명에 대한 수정을 고려하고 있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으며, 마지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및 산업인재양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식 기반 및 기술 기반 전환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학교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교육 시설 부족과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스리랑카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ICT 인프라와 디지털 교육 솔루션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과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지원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프로그램명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개발사업에 더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 공여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통한 식량공급의 안정성 확보 같은 현재 SDG 2번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명으로의 수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스리랑카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현재의 거버넌스 지원 방식이 스리랑카 정부의 실제 우선순위와 맞닿아 있는지 점검 후 전자 행정이나 전자 법원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현대화에 집중하여 포용적인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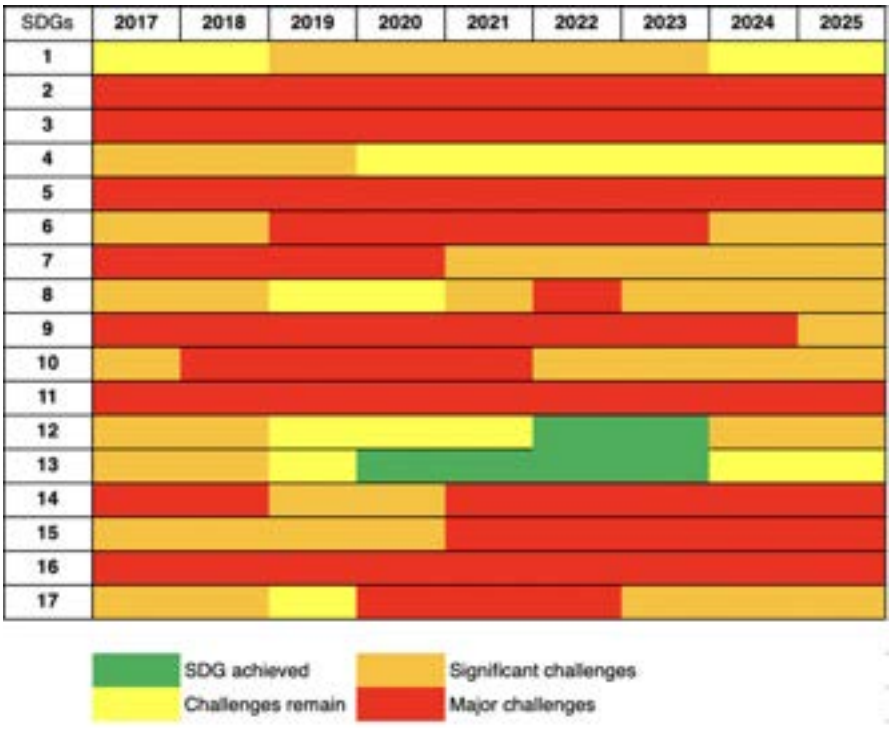
네 번째 프로그램은 교통 분야의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바, 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산업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부터 양성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SDG 9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9) 인도

(1) SDGs 이행 현황

인도의 SDGs 이행 현황을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5년 VNR은 SDG 1과 2번에서의 다차원·소득 빈곤 감소와 사회보호 강화, SDG 3번에서의 보건 시스템 및 백신·1차의료 역량 확대, SDG 4번에서의 교육 접근성과 디지털 학습 인프라 개선, SDG 6번에서의 농촌 안전 식수·위생 서비스 확대, SDG 9번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공공 인프라(India Stack) 확산, SDG 13번에서의 기후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SDG 16번에서의 사법·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포용적 거버넌스 강화, SDG 17번에서의 재원·데이터·파트너십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진전으로 평가한다(Government of India 2025). 한편 보고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은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DGs 지방화 모델, SDG 인도 지표(SDG India Index)를 통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주·지방정부의 이행 능력 제고, 다차원 빈곤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Government of India 2025).

[그림 Ⅱ-49] 인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지난 10년간 인도의 SDGs 이행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인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49]의 대시보드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인도는 이 기간 동안 SDG 4, 7, 9, 13번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성과 개선, 에너지 접근성 강화, 산업·혁신·인프라 기반 확충, 기후 대응 역량 제고 등 일부 핵심 분야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인도는 2016년 61.1점에서 2025년 67.0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SDSN 2025).

[그림 Ⅱ-50] 2025년 인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KOICA가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Make in Indi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혁신적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성평등 기반의 포용적 지역개발 지원'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각각 4번과 8번, 6번, 7번, 9번과 12번, 그리고 2번, 4번과 5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자료를 바탕으로 인도의 SDGs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별 진전 정도가 크게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SDG 2번은 전체 지표 중 개선된 항목이 14퍼센트에 불과하고, 정체와 후퇴 지표가 각각 43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비교 목표 중 가장 미흡한 성과를 보인다. 물질발자국 증가, 식품손실 확대, 취약계층 영양문제 지속 등은 분명한 후퇴 경향으로 분류되며, 이는 인도의 영양안보가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선 지표는 존재하지만 후퇴 지표가 이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UNESCAP 2025).

반면 SDG 4번 교육 분야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비교적 두드러지며, 전체 지표의 42퍼센트가 개선 흐름으로 분류된다. 학교의 전기·인터넷·위생시설 접근성 증가, 교원 자격 기준 충족, 장학금 확대 등은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보여준다. 다만 전체 지표 중 절반(50퍼센트)이 추세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교육 성과를 보다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정보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ICT 활용능력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통합도 등의 지표는 자료 부족 또는 혼합 흐름을 보이며, 이는 향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UNESCAP 2025).

유사하게 SDG 5번에서도 개선과 과제가 병존한다. 전체 지표 중 개선은 21퍼센트로 제한적인 반면, 자료 부족이 71퍼센트에 달해 성평등 관련 세부 변화를 추세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토지권 확대나 제도적 대표성 증가 등은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관리직 여성 비율은 감소 추세로 후퇴 지표에 해당한다. 즉 인도는 성평등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권과 노동시장 참여 등 실질적 성평등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UNESCAP 2025).

SDG 6번에서는 접근성과 보편성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이 확인된다. 전체 지표 중 45퍼센트가 개선 추세로 분류되며, 세정시설 보유율 확대, 개방배설 감소, 통합수자원관리 지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폐수처리 대비 수질지표 악화, 물 관련 ODA 유입 감소 등은 후퇴로 분류되어, 수질문제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SDG 6번은 긍정적 변화와 취약 요소가 공존하나, 접근성과 위생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UNESCAP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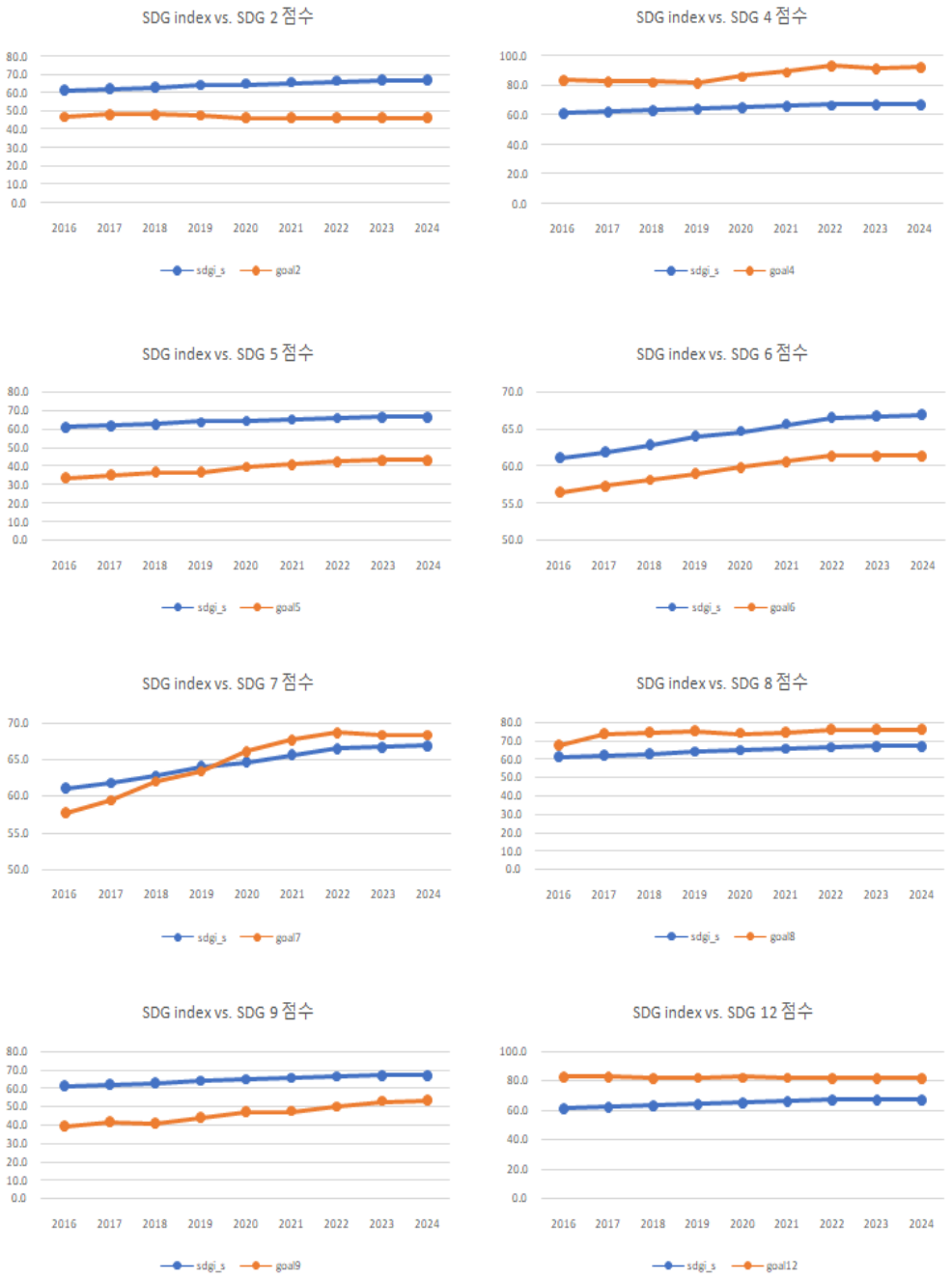
SDG 7번은 전체 지표 중 67퍼센트가 개선 추세로 분류되어 이행 현황이 가장 우수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율 지표는 정체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UNESCAP 2025).

SDG 8번은 개선 지표가 38퍼센트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정체·후퇴·자료 부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공식 고용, 생산성, 청년고용 등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SDG 8번은 부분적 개선 속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UNESCAP 2025).

SDG 9번은 개선과 정체가 각각 33퍼센트를 차지하며, 부분적 진전과 제한된 변화가 병렬적으로 나타난다. 후퇴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데이터 부족도 17퍼센트 수준으로 존재해 세부 진전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인도가 기술혁신·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꾸준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고르게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UNESCAP 2025).

마지막으로 SDG 12번은 전체 지표 중 38퍼센트가 후퇴, 31퍼센트가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되어 분석 대상 목표 중 가장 도전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물질발자국 증가, 식품손실 확대, 위험폐기물 국제규범준수 저하, 화석연료 보조금 증가 등은 모두 후퇴로 분류되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 성과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교육 통합도 등은 시계열이 제한되어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되며, 결국 SDG 12번은 정책 기반 자체가 미흡하다기보다는 시행 이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취약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UNESCAP 2025).

[그림 Ⅱ-51] 인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인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았다. [그림 Ⅱ-51]에서 제시된 인도의 SDG 이행 점수와 SDG 2, 4, 5, 6, 7, 8, 9, 12번 점수를 비교하면 대다수 목표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목표별로 상이한 변화 패턴이 나타난다. SDG 2번은 기간 전체를 통해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점수 변동도 크지 않아 정체된 흐름이 지속된다. SDG 4번은 다른 목표에 비해 값이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연도에서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일부 연도에서 미세한 하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안정세가 이어진다. SDG 5번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SDG 6번은 전체 흐름이 정체된 모습으로, SDG 이행 점수 대비 일관되게 낮은 값을 보이고 개선 폭 역시 제한적이다. SDG 7번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2020년 SDG 이행 점수 보다 점수가 높아졌으며 이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SDG 8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유지한다. SDG 9번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SDG 이행 점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변화 폭도 제한적이다. SDG 12번은 기간 전체를 통틀어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종합하면, 인도는 SDG 4, 7, 8, 12번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과가 확인되며 두 목표는 SDG 이행 점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SDG 2, 5, 6, 9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수 변화 폭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목표들의 추가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인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인도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과정에서 국가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과 SDGs의 지방화(Localisation)를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SDGs를 국가·주(州)·지방정부 정책 전반에 제도적으로 통합해 왔다. 2017년 최초 VNR에서 인도는 SDGs 이행의 기본 방향을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로 제시하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 정부(State)를 SDGs 추진의 공동 책임 주체로 재배치하였다(Government of India 2017).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NITI Aayog)[13]는 중앙-주-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이행 구조를 구축하고, 주 단위 SDGs 로드맵과 SDGs 비전, 주·지방정부별 지표체계 및 통계 인프라를 정비해 왔다(Government of India 2017). 이러한 방향은 2020년 VNR에서 SDG 인도 지표를 활용한 지방화 모델과 '글로벌에서 로컬로(taking SDGs from global to local)'라는 구호로 구체화되었고(Government of India 2020), 2025년 VNR에서는 협력·경쟁 연방주의와 데이터 기반 지방화 모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13) 인도정부의 최고 공공정책 싱크탱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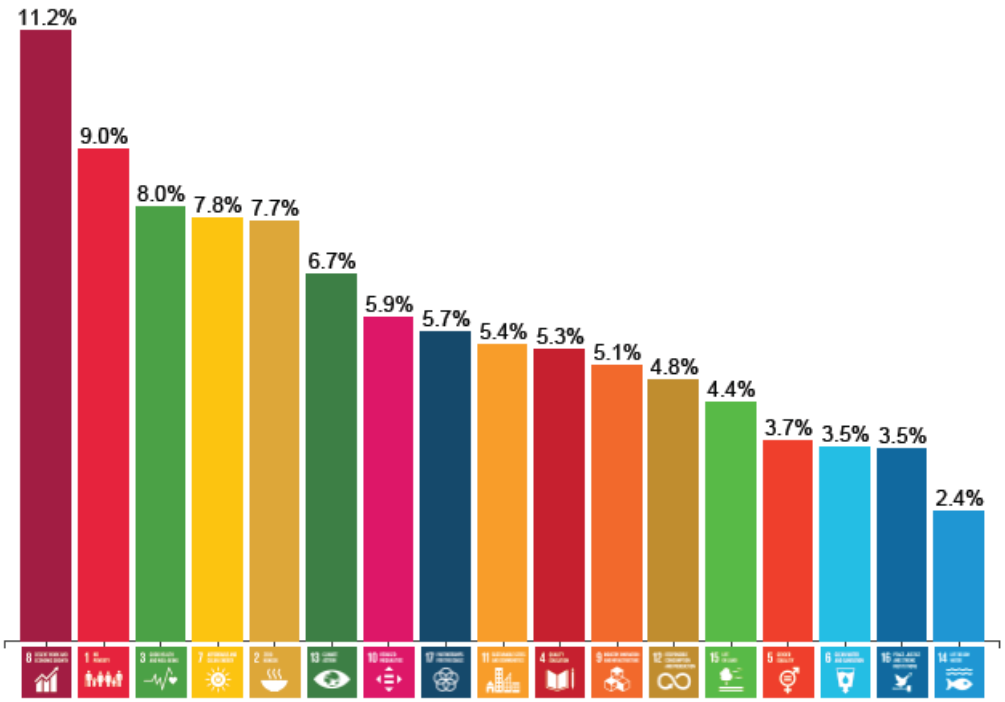
SDGs 이행의 실제 행위자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Government of India 2025). 인도 정부는 SDGs 목표를 중앙정부의 단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이행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별·지역별 SDGs 로드맵, 지표체계, 예산·성과관리 틀을 정비해 왔다(Government of India 2017; 2020; 2025). 그 결과 CP 관련 SDGs는 '중앙정부-주-지방정부-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층적 파트너십 구조 속에서 이행되는 정책 영역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인도는 세 차례의 VNR을 통해 일관되게 빈곤 감소, 보건·교육 지표 개선, 물·위생 접근성 확대,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 SDGs 지방화(Localisation) 등을 SDGs 이행 핵심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Government of India 2017; 2020; 2025). 2017년 최초 VNR은 '공동 노력과 포용적 개발(Sabka Saath, Sabka Vikas)'이라는 슬로건 아래 SDGs를 국가 개발전략과 연계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2020년 VNR은 '10년 행동 : SDG를 글로벌에서 로컬로(Decade of Action: Taking SDGs from Global to Local'라는 주제를 통해 주·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방화된 이행 구조를 부각했다(Government of India 2017; 2020). 2025년 세 번째 VNR은 지난 10년간 다차원적 빈곤 감소, 사회보호 및 디지털 공공 인프라 확충,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도의 SDGs 이행 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Government of India 2025).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인도의 2017년, 2020년, 2025년 3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1, 3, 7, 2, 13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인도가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을 전후하여 205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는 '빅싯 바라트(Viksit Bharat)'[14] 문서에 따르면 인도는 2031년경 상위중소득국 진입, 2050년까지 고소득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Virmani 2024). 또한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를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EU 등과 전략적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SDG 8, 1, 2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설명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에서는 SDG 2, 7, 8번이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였다.

14) 선진 인도 라는 뜻

[그림 Ⅱ-52] 인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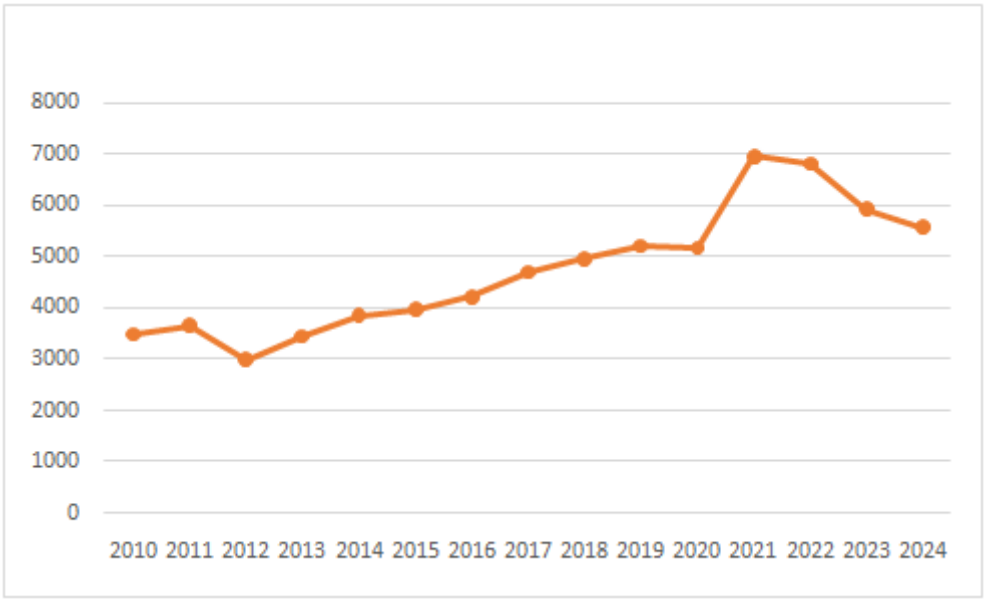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53]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0년 ODF 지원액 규모에서 2011년 감소한 이후 2014년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7년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2021년에 가장 높은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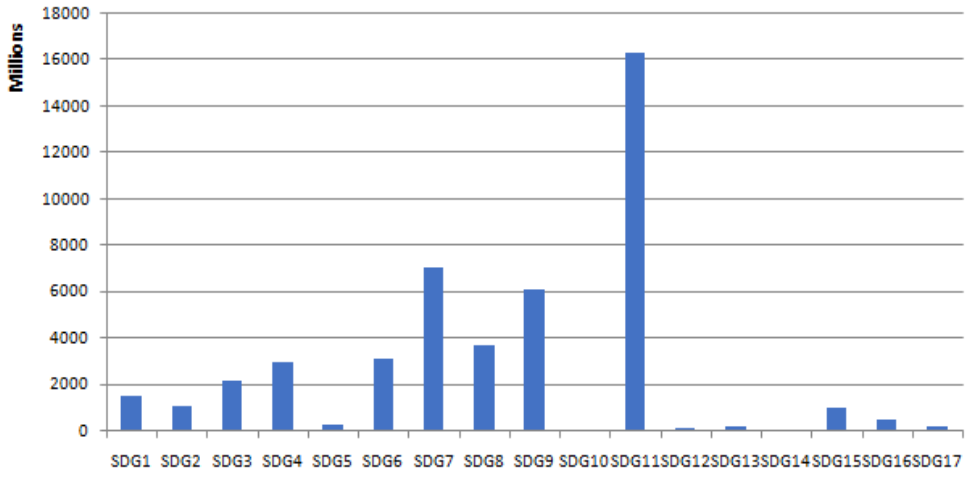
[그림 Ⅱ-53] 인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는 SDG 11번과 SDG 7번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35%와 15%로 상위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도시화, 제조업 기반 및 인프라 수요가 외부 재원 유입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해 왔으며 국제협력이 산업·도시 인프라·에너지 기반 확충 등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구조적 요인에 보다 집중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7번에 다른 공여국도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54] 인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 6, 9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 SDG 4, 7, 8, 12번은 독일, SDG 5번은 영국이었다. 여덟 개의 SDG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독일이 각 SDGs 목표별로 인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23〉 인도 SDG 2, 4, 5, 6, 7, 8, 9, 12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5 지원	SDG 6 지원	SDG 7 지원	SDG 8 지원	SDG 9 지원	SDG 12지원	합계
프랑스	9	127		71	443	60	168	4	881
독일	147	**1,740**	44	80	**3,862**	**1,386**	800	**174**	**8,234**
일본	**440**	171	2	**2,820**	1,861	514	**3,895**	1	**9,703**
한국	1	8	1	1	26	738	737		1,511
영국	328	670	**126**	64	264	745	446		2642
미국	78	1	5	7	481	75	4		868
기타	108	278	56	54	164	129	53	1	84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2016년 이후 일본의 대(對) 인도 개발협력은 인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에서, 농업, 교육, 성평등·물·위생·산업 인프라·지속가능한 생산체계 등 SDG 2, 4, 5, 6, 8, 9, 12번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특히 일본은 2019년 및 2023년에 각각 체결한 '인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일본-인도 협력 프로그램(Program for Japan-India Cooperative Action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India)'을 통해 인도의 SDGs 이행 체계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협력 기반을 구축했다(JICA 2019; JICA 2020; JICA 2025). 이는 인도 정부가 보건·교육·농업·수자원·스킬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를 수립하는 데 직접적인 정책·제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SDG 2번과 관련해 일본은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 기반 정비, 농업 가치사슬 개선 등을 통해 기후·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식량안보와 생계 안정을 지원해 왔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8; 2019). 또한 SDG 4번과 SDG 8번의 관점에서 인도 내 직업교육·기술훈련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기술 습득과 고용 가능성 확대를 도모하는 협력을 장기간 지속해 왔다(JICA 2025). 이와 함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대상 기술훈련,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도 보조적 정책으로 포함되었다.

SDG 6번 분야 협력은 상하수도 정비, 수자원 관리, 안전한 식수 접근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도 농촌·도시 지역 간 불평등 감소와 공중위생 수준 제고에 기여해 왔다(JICA 2025). SDG 9번 분야 역시 일본 ODA의 핵심 축이며, 철도·지하철·전력·도로 등 기초 인프라 구축과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협력은 SDG 12번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같은 주요 분야 외에도, 일본은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도시 교통, 대기질 개선, 재난위험 관리 등 '환경·도시·기후'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인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JICA 2025). 즉, 인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은 전통적 인프라 중심 협력에서 SDG 기반의 다부문 정책·제도 협력으로 진화한 구조로 볼 수 있다.

② 독일

2016년 이후 독일의 대(對) 인도 개발협력은 기후·에너지 전환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농업·식

량시스템, 직업교육, 성평등, 물·위생,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 인프라, 순환경제 등 SDG 2, 4, 5, 6, 8, 9, 12번 영역을 폭넓게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되어 왔다. 특히 2022년 출범한 '녹색·지속가능발전 동반자협력(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GSDP)'은 재생에너지, 녹색 도시와 교통, 농생태(agroecology), 순환경제, 녹색 일자리 확대를 인도-독일 협력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동시에 지향하는 상위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BMZ 2024b; GSDP n.d.; Germanwatch 2024).

먼저 SDG 2번 관련해서, 독일은 인도의 농업과 농촌 생계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해 기후적응형 농업, 토양·수자원 관리, 농생태 전환을 중점 지원 영역으로 설정해 왔다. GSDP와 관련 지원 사업은 소농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토양 건강과 물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BMZ 2024b; BMZ 2024c). 이 과정에서 인도 농촌 지역의 식량안보와 생계 안정성 제고가 함께 도모되고 있으며, 농업·기후·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이 강조된다.

SDG 4번과 SDG 8번 측면에서 독일은 기술·직업교육과 녹색 일자리를 결합한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2016~2020년 1단계와 2020~2024년 2단계로 추진된 '인도-독일 직업교육 프로그램(Indo-German Programm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GVET/IGVET II)'은 인도 기술·직업교육부와 협력해 선택된 산업 클러스터와 주(州)를 대상으로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설계하는 협동형(cooperative) 직업훈련 모델을 도입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 왔다(GIZ 2020a; GIZ 2024a). 동시에 '인도-독일 그린 스킬 프로그램(Indo-German Green Skills Programme, IGGSP)'은 전기차·태양광 등 녹색 직종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기술·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여성과 취약계층이 녹색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GIZ 2024b; GIZ 2024a).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육과 고용, 녹색 전환을 연계해 SDG 4, 8, 5번의 일부 목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구조를 지닌다.

SDG 5번은 기술·직업교육 및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IGGSP와 IGVET II는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술·에너지·모빌리티 분야에서 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젠더 편견 완화, 돌봄 부담을 고려한 교육 일정 설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GIZ 2024b; GIZ 2024a). 이와 같은 접근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녹색 전환 과정에서 성평등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SDG 6 및 12번 관련해서는, 도시와 산업 부문에서의 자원순환·폐기물 관리·물·폐수 관리를 결합한 순환경제 접근이 두드러진다. 독일 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가 수행하는 '인도의 유기성 폐기물 관리 (Management of Organic Waste in India)' 사업은 도시 유기성 폐기물의 감축·재활용, 물·폐수 관리, 자원 효율, 통합 도시개발을 연계해 순환경제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GIZ 2020b; GIZ 2022). 또한 '해양 생태계 쓰레기 방지를 위한 순환 경제 해법 (Circular Economy Solutions Preventing Marine Litter in Ecosystems)' 사업은 인도 일부 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하천 폐기물 저감을 위해 3R(감량·재사용·재활용) 모델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어, SDG 6과 12번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GIZ 2021).

SDG 9번 측면에서 독일의 인도 지원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린 모빌리티, 순환경제 시설, 도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와 독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GIZ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망 현대화, 대중교통과 도시 교통 인프라, 폐기물·하수 처리시설 등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MZ 2024a; BMZ 2024b). 이러한 사업들은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다루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환경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도시, 산림·생태계 보전, 글로벌 파트너십 영역에서 핵심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BMZ의 인도 국가 페이지와 기후·개발 파트너십 관련 문서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그린 모빌리티, 탄소중립 도시, 산림·생태계 복원, 삼각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인도-독일 협력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다(BMZ 2024a; BMZ 2024b; BMZ 2024c; GSDP n.d.). 요약하면, 인도에 대한 독일의 ODA는 기후·에너지 전환과 도시·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면서, 농업·교육·성평등·물·순환경제·일자리 등 여러 SDG를 매개로 녹색·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 왔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인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2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SDG 4번과 8번 달성을 지원하는 'Make in Indi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은 두 SDG 모두 성과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SDG 4번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심은 낮은 편이고 SDG 8번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은 두 SDG 목표 모두 많지 않아 선별적 관찰 유형과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SDG 6, 7, 9, 12번 달성을 지원하는 '혁신적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SDG 7과 12번 성과는 괜찮은 반면, 6과 9번의 성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SDG 7번 빼고 모두 낮은 상황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선별적 관찰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SDG 2, 4, 5번 달성을 지원하는 '성평등 기반의 포용적 지역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SDG 4번은 성과가 좋으나, 2와 5번은 그렇지 못하다. 협력국의 관심은 SDG 2번에 대해서는 높으나 4와 5번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선별적 관찰 유형,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표 Ⅱ-2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규모	유형
Make in Indi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8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혁신적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SDG 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7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12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성평등 기반의 포용적 지역개발 지원	SDG 2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5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 측은 인도가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석 결과와는 달리 정부의 SDG 4번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인도 정부가 원조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교관계 또는 경제협력 관계를 많이 고려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에게는 조선, 반도체, 제조업 등의 산업인력 양성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사무소가 첫 번째 프로그램 이행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SDG 7과 9번 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의 경우는 성평등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지방균형발전 성격의 지역개발사업 안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하거나 여성 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도 정부의 Skill India 정책은 결국 제조업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이 실제 산업 현장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서브프로그램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역량강화를 통해 인도가 과제로 안고 있는 높은 비공식 부문 고용 비율을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SDG 7번을 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SDG 달성을 지원을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 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있다. 인도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사무소 또한 기후변화 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성평등을 프로그램명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SDG 4번의 높은 성과와 SDG 2번에 대한 인도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들 목표에 대한 지원을 SDG 5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지역 여성 청소년의 STEM 교육이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역량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프로그램 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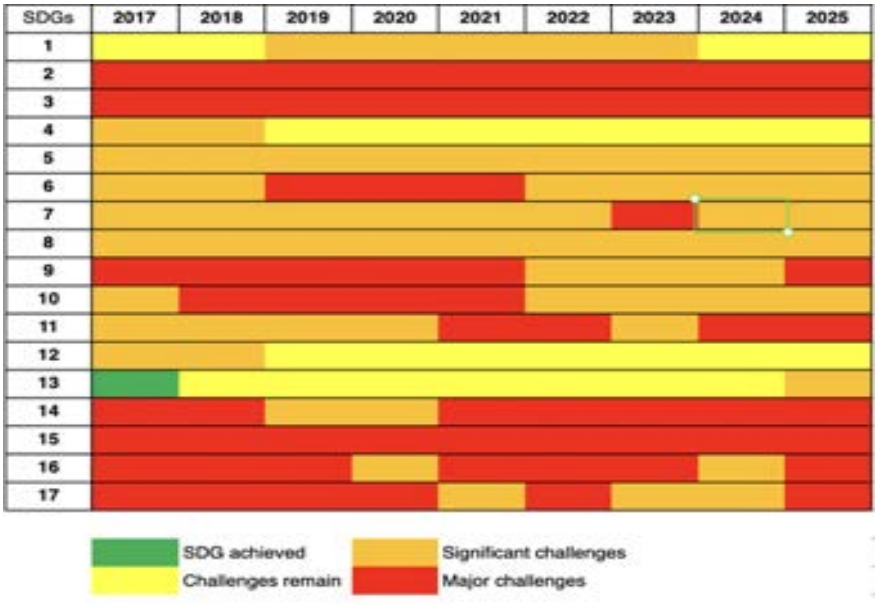
10) 인도네시아

(1) SDGs 이행 현황

인도네시아의 SDGs 이행은 2017년 최초 VNR 이후 2019년과 2021년 후속 보고서와 2025년 최신 VNR을 거치며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형성해 왔다(Government of Indonesia 2017; 2019; 2021; 2025). 이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가 빈곤 감소, 식수·위생 접근성 제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도시·산업 기반 개선, 제도·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에서 구조적 진전을 이루어 왔음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사회보호 확대와 기초서비스 유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충격을 흡수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회복 단계에서의 취약계층 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지역 간 격차와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는 모든 VNR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핵심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Government of Indonesia 2021; 2025; Statistics Indonesia 2024).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SDG 1, 3, 6, 7, 9, 11, 16번 등 다수의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지역 간 불평등, 서비스 접근성 격차, 제도적 역량 한계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향후 SDGs 이행 과정에서 사회보호-보건-도시-인프라 정책 간의 조정 강화, 지방정부 역량 제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55] 인도네시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SDGs 이행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인도네시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55]의 대시보드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 동안 SDG 4와 12번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접근성과 학습 성과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그리고 자원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 관리 개선 등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분야의 정책적 조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 65.6점에서 2025년 70.2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SDSN 2025).

[그림 Ⅱ-56] 2025년 인도네시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KOICA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각각 4, 16, 11,

9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자료를 바탕으로 CP에서 집중하는 4개 SDGs 목표별 인도네시아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SDG 4번은 총 12개 지표 가운데 4개가 목표를 향해 개선되는 추세, 1개가 정체, 3개가 후퇴, 4개는 추세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DG 4.1.1, 4.b.1, 4.c.1번은 2015년 이후 저하 또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SDG 4.3.1번은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된 흐름이다. SDG 4.2.1번은 단일 시점 자료만 존재해 추세를 평가하기 어렵다(UNESCAP 2025).

SDG 9번은 10개 지표 가운데 3개가 개선, 3개가 정체, 3개가 후퇴, 1개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으로 요약된다. SDG 9.5.1, 9.5.2, 9.c.1번은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긍정적 성과를 보여준다. 반면 SDG 9.1.2, 9.2.1, 9.2.2번은 대체로 정체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SDG 9.4.1, 9.a.1, 9.b.1번은 악화 추세를 보여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과 녹색 전환 측면에서 과제를 시사하며, SDG 9.3.2번은 단일 시점 수치만 제시되어 있다(UNESCAP 2025).

SDG 11번의 경우, 전체 지표의 절반 이상에서 추세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ESCAP가 제시한 9개 핵심 지표 기준으로 보면 4개는 개선, 1개는 정체, 2개는 후퇴, 2개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다. SDG 11.1.1, 11.5.2, 11.b.1, 11.b.2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 재난 거버넌스 측면에서 진전이 확인된다. 반면, SDG 11.5.1, 11.5.3번은 최근 수치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 여전히 재난 영향의 규모와 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SDG 11.6.2번은 장기적으로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고, SDG 11.4.1과 11.a.1번은 제한된 시점의 정보만 제공되어 추세 판단이 어렵다(UNESCAP 2025).

마지막으로 16번 평화·정의·포용적 제도는 총 9개 지표 중 6개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3개 지표는 여전히 데이터가 부족하다. SDG 16.2.2, 16.3.2, 16.5.1, 16.5.2번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DG 16.7.1번도 완만한 개선을 보인다. SDG 16.a.1번은 최고 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은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SDG 16.10.2, 16.3.1, 16.9.1번은 단일 연도 자료 또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실제 이행 수준과 추세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UNESCAP 2025).

[그림 Ⅱ-57] 인도네시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인도네시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57]에서 볼 수 있듯이 SDG 이행 점수와 서로 다른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SDG 4번은 네 목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지표로, 모든 연도에서 SDG 이행 점수를 상회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된다. SDG 9번은 전체 기간에서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며, 일부 연도에서 소폭 상승이 나타나지만 이후 정체 구간이 이어져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다. SDG 11번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반복되며, 변동 폭도 작아 정체된 범위가 유지된다. 반면 SDG 16번은 변동성이 가장 큰 항목으로, 초기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단기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며 후반부에는 두 지표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된다.

(2) 인도네시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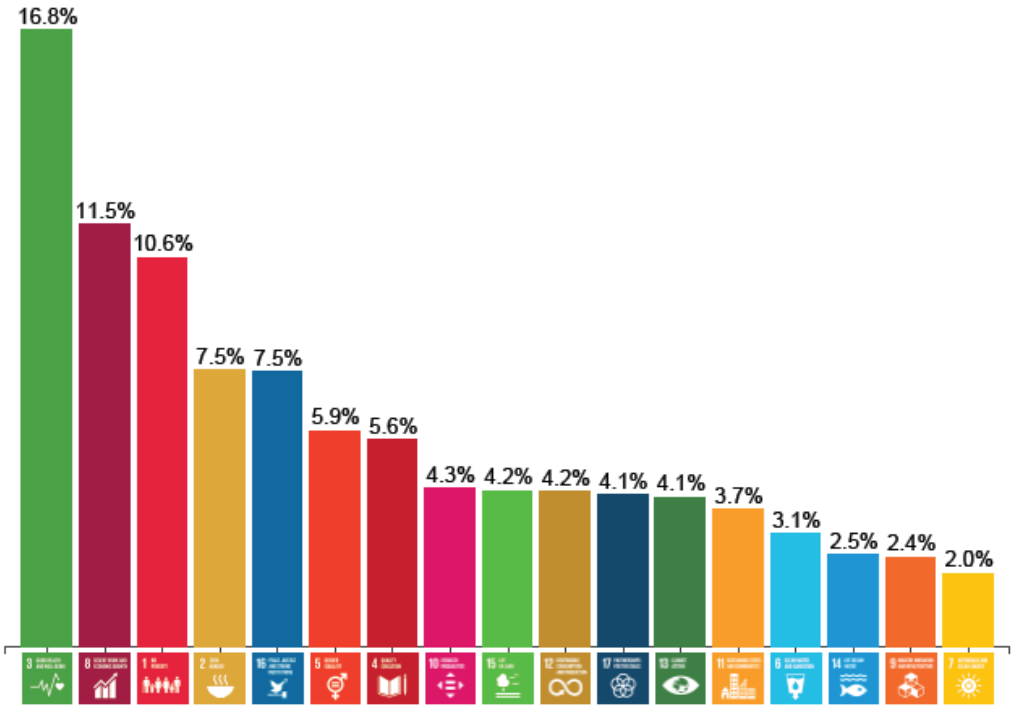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첫 번째 VNR에서 SDGs를 '2015~2019 국가중기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의 핵심 과제로 통합하여 범국가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했음을 언급하며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을 위해 인적 자원 품질 향상과 경제적 기회 및 지속가능한 생계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Government of Indonesia 2017). 두 번째 2019년 VNR에서는 지방단위까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19개 주에서 '지방 SDGs 행동계획(Rencana Aksi Daerah, RAD)'을 수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SDGs 이행의 현지화를 추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 수쿠크(Green Sukuk)[15], 혼합금융, 이슬람 자선 기금(Zakat) 등 다양한 혁신적 재원 조달 기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SDGs 파이낸싱 허브'를 설립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320개의 국가 SDG 지표를 정의하고, 통계청을 중심으로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Government of Indonesia 2019).

세 번째 2021년 VNR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SDGㄴ 목표와 지표를 '2020~2024 RPJMN에 다시 주류화하여 이행의지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지방 SDGs 행동계획에서 나아가 SDG를 풀뿌리 수준까지 확산하기 위해 '마을 SDGs'를 도입하고, 마을 기금이 SDGs 달성을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사회보장체계, 국가보건시스템, 재난 회복력 시스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Government of Indonesia 2021). 가장 최근 2025년 VNR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SDGs 이행의 전반적 전략 방향을 재정비하며, 포용적 발전, 제도적 회복력, 지방화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제시했다(Government of Indonesia 2025).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경기 충격 이후에도 SDGs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기반 주인의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힌다(Government of Indonesia 2025). 특히 정부는 교육, 인프라, 도시 서비스, 제도·거버넌스 등 핵심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개혁, 사회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이 공동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원칙을 전 부처 정책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5)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며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혁신적인 이슬람 채권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2017년, 2019년, 2021년, 2025년 4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3, 8, 1, 2, 16번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5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5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황금인도네시아 2045(Indonesia Emas 204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5개년 이행계획 문서인 2025~2029 RPJMN과도 일부 일치한다. 인도네시아는 동 문서에서 연평균 6~7%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통해 중진국 함정 탈출을 시도하며 빈곤율의 획기적인 감소 및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자본강화, 식량 및 에너지 자립, 디지털 및 녹색전환, 현지가공산업육성, 신수도 건설 등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Yofa 2025).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16번이었다.

[그림 Ⅱ-58] 인도네시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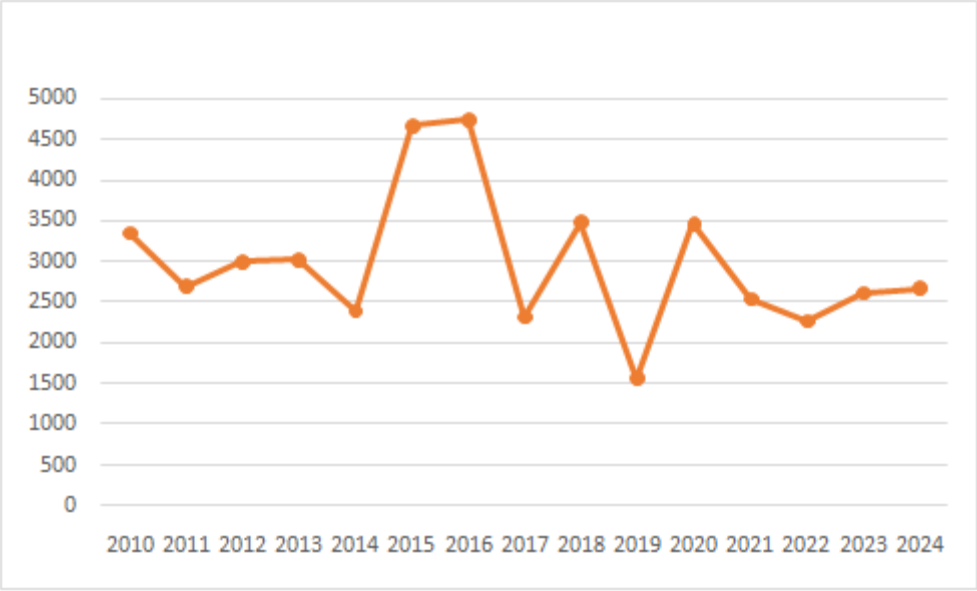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59]에서 확인되듯이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총 ODF 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2015년부터 증가하시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 확대, 인프라 투자 수요 증가, 기후·재난 리스크 대응, 코로나19 시기 긴급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59] 인도네시아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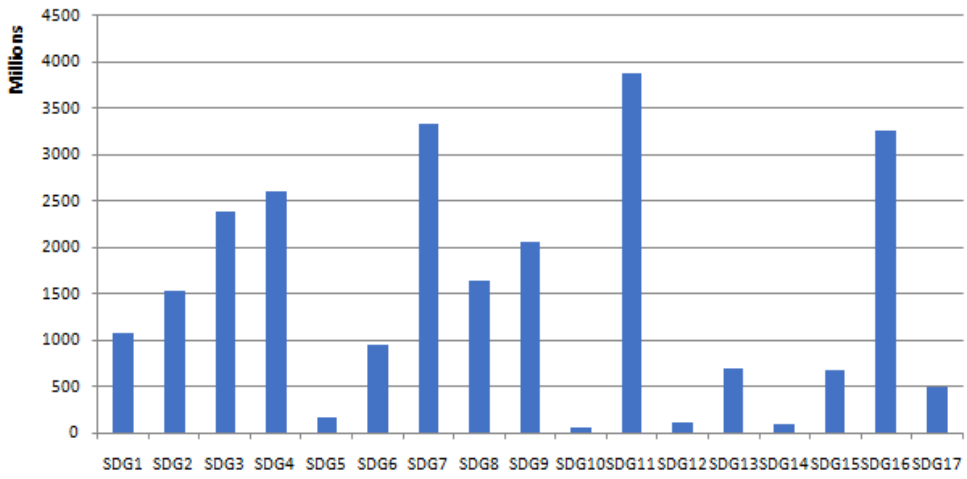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SDG 11, 7, 16, 4번 순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16%, 13%, 13%, 10%로 합산하였을 때 상위 50%을 차지한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11과 16번에 다른 공여국도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누적 지원 구조는 인도네시아가 장기간 직면해 온 보건·에너지·도시·경제·제도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1; 2022)과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 2021)은 인도네시아의 보건 시스템 역량 부족, 전력·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및 도시 인프라 부족, 산업 생산성 제약, 지방행정 역량 격차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국제사회의 대규모 외부 재원이 특정 목표에 집중되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UNDP 또한 인도네시아가 겪는 기후·재난 취약성, 광범위한 섬·지역 간 불균형, 행정·사법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복합 취약성이 지속적인 외부 지원 수요를 강화한다고 분석한다(UNDP 2019). 이러한 문헌에 비추어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SDG 3, 7, 8, 11, 16번의 누적 ODF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재정 투입의 결과를 넘어, 중진국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구조적 수요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60] 인도네시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호주, SDG 9와 11번은 일본, SDG 16번은 독일이었다. 네 개의 SDG을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호주가 각각 SDGs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25〉 인도네시아 SDG 4, 9,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913**	372	157	610	**2,052**
프랑스	52	31	465	386	935
독일	563	111	149	**1,163**	1,985
일본	389	**1,136**	**2,846**	313	**4,685**
한국	56	226	71	66	420
미국	339	63	92	471	966
기타	296	121	98	253	768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일본의 대(對) 인도네시아 협력은 2016년 이후 교육·기술훈련, 산업·교통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행정·거버넌스 네 축을 중심으로 SDG 4, 9, 11, 16번과 높은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인도네시아 산업화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일본은 직업훈련기관 역량 강화, 산업계 연계 실무훈련, 기술인력 배출 체계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JICA 2018; JICA 2025).

SDG 9번 분야에서는 전력, 교통, 물류, 항만, 철도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연결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를 갖는다.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은 도시계획, 교통체계 개선, 홍수·재난 대응, 상하수도 관리 등 SDG 11번 분야를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JICA 2025).

SDG 16번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책수립 지원, 행정역량 강화, 지방정부 제도 정비, 공공투자 관리 체계 개선 등 제도 기반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JICA 2018). 이러한 지원은 부패 위험 감소,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적 측면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지향한다.

이 외에도 일본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계 보전, 수자원 등 다수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나, 2016~2025년 전반을 기준으로 할 때 직업훈련·인프라·도시·거버넌스의 네 축이 인도네시아 협력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다(JICA 2025).

② **호주**

호주의 인도네시아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포용적 성장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 자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 중 SDG 4, 9, 11, 16번과 관련된 지원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단순한 시설 건립보다는 교사의 질 향상과 학습 결과 개선에 집중하며, 경제, 공학, 보건 분야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DG 4번 달성을 지원해 왔다(DFAT 2015). 또한 효율적인 경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 물 및 위생시설의 품질을 개선하며 프로젝트 기획 및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SDG 9번 달성을 측면 지원해왔다(DFAT 2020). 아울러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대테러,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교도소 개혁 및 부패 방지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지방 분권화를 지원하여 SDG 16번 달성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에는 인도네시아가 보건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하였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모든 활동의 우선순위에 두었다(DFAT 2020).

이외에도 SDG 8번과 관련된 금융부문 안정성, 세수증대, 예산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SDG 5번 달성에 기여하는 여성의 정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 폭력 감소, 모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지원해 왔다. 또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해 농업 시장 운영 강화와 식량안보 개선, 소농의 소득 증대 및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SDG 2번 달성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DFAT 2015). 24년 새롭게 수립된 지원전략에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기후회복력 있는 공동체, 강력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어, 28년까지 SDG 5과 10번을 비롯한 13과 16번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DFAT 2024).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2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SDG 4번 달성을 지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술 및 고등 교육'은 해당 SDG의 성과는 높지만 인도네시아의 관심은 많지 않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정합성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이다.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은 해당 SDG의 성과는 낮으나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높은 편이고 공여국의 지원도 많은 상황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SDG 11번 달성을 지원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은 해당 SDG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도 낮은 편이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수요 재확인 유형이다. SDG 9번 달성을 지원하는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은 해당 SDG의 성과는 낮은 편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도 다른 SDG 대비 많지 않은 상황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표 Ⅱ-2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및 고등교육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SDG 11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는 현재 CP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 SDG 16번을 지원하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경우는 우리의 비교우위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요청이 일치하는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SDG 11번을 지원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이 느슨해진 점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 사업의 성과 확대를 고려하여

홍수 재해 관리 쪽으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첫 번째 교육관련 프로그램과 마지막 교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관심이 식량안보, 무상급식, 보건, 초중고 교육 등 기초 서비스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관측되어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교육관련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공여국의 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한국만의 비교 우위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간 계층간 디지털 격차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같은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원격 교육 및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반적인 거버넌스보다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부패방지에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과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신수도 이전이나 기후변화대응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도시는 주거 문제 자체보다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재해 등의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 아래 인프라를 짓기보다는 도시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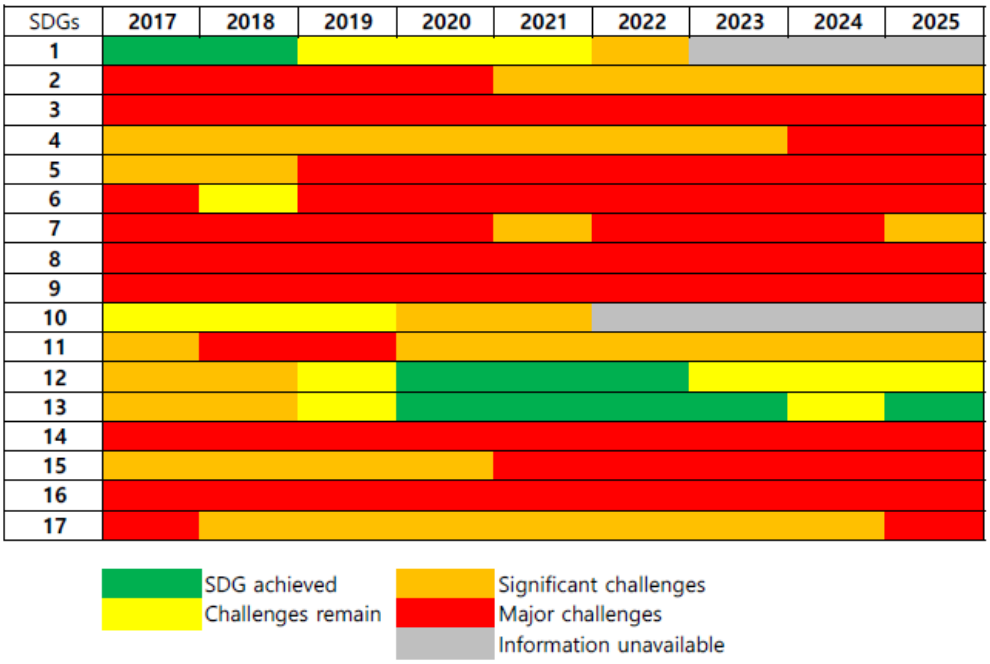
마지막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유료도로 운영정보 시스템 구축이나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 등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성과관리에 집중하거, 추가적인 확장은 신중히 검토하면서 대안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SDG 6번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세 번째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11) 캄보디아

(1) SDGs 이행 현황

캄보디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SDGs를 캄보디아 실정에 맞게 변형한 '캄보디아지속가능발전목표(Cambodi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SDG)'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표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와 다르게 국가 실정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정된 내용이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을 SDG 18번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지표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다. 따라서 VNR에서 발표된 SDG 목표별 성과가 UN에서 발표하는 목표별 달성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 VNR에서는 캄보디아가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한 SDG 목표가 SDG 7, 10, 11, 12, 14번이었으며, 대다수의 지표가 진전을 보여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목표가 SDG 1, 13, 17, 18번이었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23a). 특히 SDG 1번에서 코로나19 이전 빈곤율 26.3%에서 2020년 17.8%로 크게 감소했으며, 사회 보호 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 중임이 언급되었다. 또한 SDG 17번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약 20억 달러 규모의 ODA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림 Ⅱ-61] 캄보디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캄보디아의 지난 10년간의 SDGs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캄보디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2, 11, 12, 13번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캄보디아의 SDGs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61.5점에서 2024년 66.4점으로 4.9점 상승하였다(SDSN 2025).

KOICA는 현재 캄보디아에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향상', 'ICT,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총 3개의 C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목표는 각각 3, 4, 2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2번은 5개는 진전, 2개는 정체, 1개는 후퇴, 6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2.3.1과 2.1.2번이며, 후퇴하는 지표는 SDG 2.2.2번이다. 데이터가 부족한 지표는 SDG 2.3.2, 2.4.1, 2.5.1, 2.5.2, 2.b.1, 2.c.1번이다. 다음으로 SDG 3번은 13개 지표가 진전, 3개는 정체, 3개는 후퇴, 9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3.b.2, 3.9.3, 3.4.2번이고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3.1.1, 3.5.2, 3.d.2번이다. 마지막으로 SDG 4번은 6개가 진전, 1개가 후퇴, 5개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4.b.1번이다(UNESCAP 2025).

[그림 Ⅱ-62] 2025년 캄보디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캄보디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큰 변화없는 점수를 유지하다가 2021년 점수가 급 상승하여 이후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SDG 이행 점수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수가 더 벌어져 성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DG 4번 점수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높고 교차하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가 현재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Ⅱ-63] 캄보디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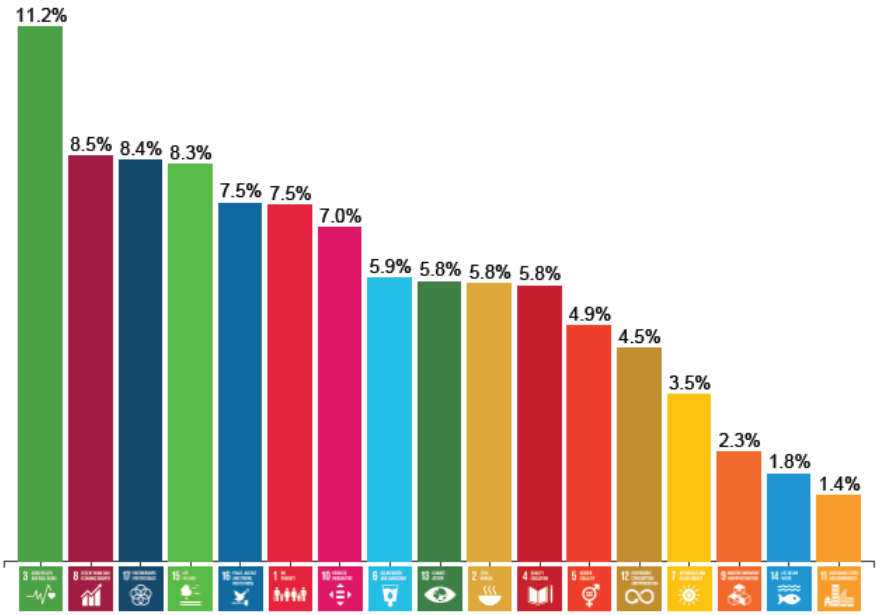
(2) 캄보디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SDGs 채택 이후 이를 국가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CSDG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왔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9). 글로벌 17개 목표에 캄보디아의 특수 상황인 '지뢰 및 불발탄 제거'를 18번 목표로 추가하여 총 18개 목표, 88개 세부 목표, 148개 지표로 구성된 현지화된 체계를 완성했으며 CSDG를 국가의 핵심 개발 전략인 '사각전략 4단계(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및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9~2023'에 통합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SDG 4, 8, 10, 13, 16, 17번 등 6개 목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초기 동력을 확보하였다.

2023년 발행된 두 번째 VNR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가속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빈곤층의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23a). 또한 추적 지표를 148개에서 193~195개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노력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투자법 제정과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 2021~2035(Cambodian Digital Economy and Society Policy Framework 2021~2035)',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 2022~2030(National Energy Efficienc Policy 2022~2030)' 등을 수립하여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실시하였다.

[그림 Ⅱ-64] 캄보디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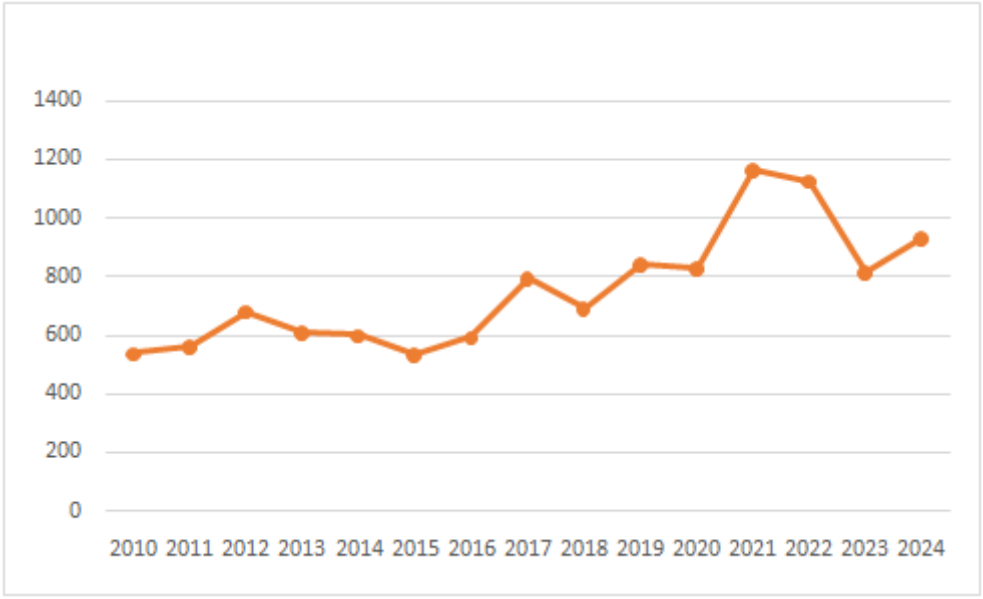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의 2019년과 2023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3, 8, 17, 15, 16, 1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3번이었다. 2023년 8월에 발표된 캄보디아의 '5각전략 1단계(Pentagonal Strategy-Phase 1)'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상위중소득국, 2050

년까지 고소득국을 목표로 하여 5대 핵심 우선순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5대 우선순위는 인적 자본 개발,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민간부문발전 및 고용,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사회발전이다. 이를 위해 즉시 시행되는 6대 정책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 빈곤가구 청년을 위한 국비 기술 및 직업훈련, 국가사회보호시스템의 제도화, 비공식경제 발전 전략 추진, 농산물 생산 및 시장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전국 모든 면 단위에 농업 기술자 배치이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23b). 관심도 높은 SDG 목표가 3번과 8번으로 분석된 결과가 이러한 개발계획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원액보다 50% 가까지 증가한 지원액을 2021년에 받은 이후 지원이 축소되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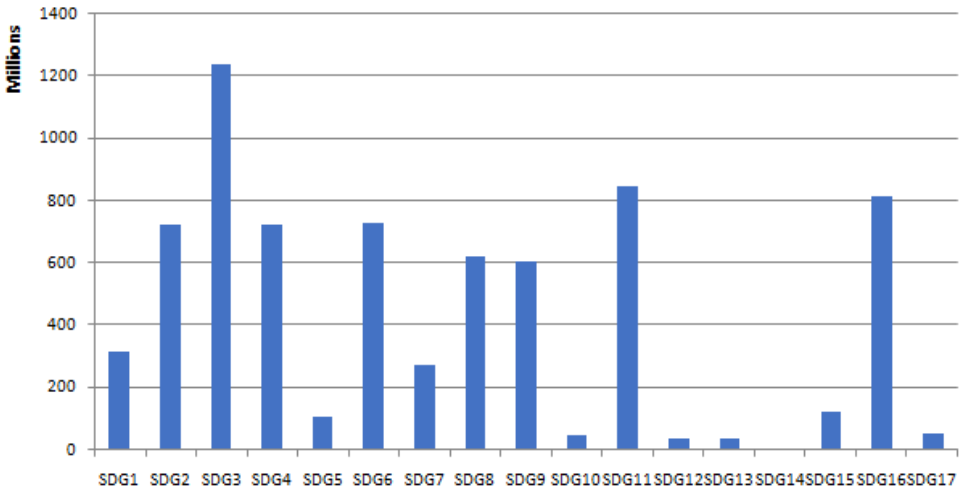
[그림 Ⅱ-65] 캄보디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6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캄보디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3, 11, 16, 6번 관련하여 각각 17%, 12%, 11%, 10%를 지원받아 이들을 합산했을 때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3번에 다른 공여국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66] 캄보디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과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고 SDG 3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세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일본, 다음은 미국이었다. 이들 공여국이 캄보디아에 SDGs 목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27〉 캄보디아 SDG 2, 3, 4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합계
호주	134	181	77	393
프랑스	73	22	117	212
독일	30	141	9	179
일본	**165**	141	**170**	**476**
한국	95	144	95	333
스웨덴	2	4	100	106
미국	159	**462**	48	**670**
기타	65	146	107	425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SDG가 채택된 이후 USAID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수립한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2014~2018'을 살펴보면 USAID는 세 가지의 큰 개발목표를 가지고 캄보디아를 지원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강화, 정부 책임성 증진 및 인권 존중,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보건 및 교육 상태 개선, 마지막은 특정 지역 및 대상의 빈곤 감소이다(USAID Cambodia 2014). 이들 목표를 SDG와 연결해 보면 첫 번째 목표는 SDG 16과 5번 달성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목표는 SDG 2, 3, 4, 6번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 목표는 SDG 1, 2, 8번과 연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중 CP가 지원하는 SDG 2, 3, 4번과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먼저 캄보디아의 SDG 2번 달성을 위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와 영유아 영양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미래를 위한 식량 보장 캄보디아 하베스트 (Feed the Future Cambodia Harvest III)'가 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5개년 사업으로 2010년 중반부터 이어온 1차와 2차의 후속사업으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원예, 수산물, 육류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농민들이 시장에 원활히 접근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Abt 2025). 이외에도 캄보디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동 발육 부진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영양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 사업은 생애 초기 1,000일(임신부터 두 돌까지)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빈곤 가구에 조건부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 내에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텃밭 가꾸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USAID n.d.).

이 사업은 이후 '통합 영유아 발달 사업(Integrate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ECD)'으로 이어져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영양 민감형 농업을 보급하고 이를 실제 식단으로 연결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Dimagi 2025).

미국이 말라리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SDG 3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마을 말라리아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숲에서 일하는 고위험군에게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배포하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이다(URC 2025). 또 다른 보건사업은 결핵 퇴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병원 방문을 기다리는 대신, 이동식 흉부 X선 검진과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를 활용해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가 진단을 하는 사업이다. 앞서 설명한 IECD 사업도 SDG 3번 관련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발육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 초기부터 산후관리까지 생애초기 1,000일 돌봄 강화, 장애아동 조기 선별 및 지원, 가정 내 위생 교육을 통한 수인성 질병 예방 등 포괄적인 건강 증진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Dimagi 2025).

SDG 4번 관련, 미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캄보디아(All Children Reading-Cambodia, ACR)'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국가 초기 문해력 프로그램인 '코마르 리엔 코마르 첸(Komar Rien Komar Cheh)[16]'의 개발과 시행을 직접 지원하였다(US Embassy in Cambodia 2025). 단순히 교과서를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기반의 교수법을 도입하고 교사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후 ACR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포용적 초등교육활동(Inclusive Primary Education Activity, IPEA)'사업으로 발전되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자 및 수어 교재를 개발하고, 특수 교육 교사를 양성하였으며,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USAID 2022). 이외에도 미국 농무부가 세계식량계획과 협업하여 2016년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맥거번-돌 학교급식 및 교육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학교 등록률과 출석률 제고 및 중도 탈락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도서관 구축, 교사 훈련 등을 병행하여 학습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WFP 2020).

16) 아이가 배우면 아이가 알게 된다는 캄보디아어

② 일본

일본은 SDGs가 채택된 이후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2024; JICA 2025a). 세 가지 핵심 분야는 산업발전, 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으로, 먼저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역연결성 강화와 산업육성을 위해 도로,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선을 지원해 왔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산업 인적자원개발, 농촌 지역의 식품 가치 사슬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급격한 도시화 문제에 대응하여 상수도, 하수도, 배수 시설, 도시 교통(철도, 버스)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 및 사회 보장 분야에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법적 체계의 질적 향상, 선거 제도 개혁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를 추진하고, 환경 관리와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중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2, 3, 4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JICA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SDG 2번 관련하여 농업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개 및 배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와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농산물 가치 사슬 및 유통망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급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원을 해 오고 있다. SDG 3번 관련하여 보건 의료 인적 자원을 위한 현지 교육 강화 사업과 지역 병원개발 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 인력 및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환 관리와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개선 사업을 통해 주요 질병 관리 및 보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4번 관련하여 기초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사 교육대학 강화 사업을 통해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한 공학 교육 및 연구 강화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고등 교육기관과 산업계, 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장학금 지원과 창업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JICA 2025b).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캄보디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28〉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향상'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의 성과는 낮지만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이다. 'ICT,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지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성과는 높고,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적은 편으로 선별적 관찰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 성과,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모두 낮아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표 Ⅱ-28〉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향상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ICT,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지원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는 먼저 보건분야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점에는 동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디지털 보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가 낮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공여국의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를 역량강화 중심의 사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과학기술교육 및 ICT 교육 중심이지만 향후에는 용접, 금형, 건설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의 경우는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사무소는 농업 역시 산업발전 및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으나 농업 관련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프로그램의 유지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헌분석, 사무소 인터뷰와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은 관련 SDG 3번의 성과가 개선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공여국이나 캄보디아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건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공여국이 지원하지 않는 보건 사업으로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련된 캄보디아 보건부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점인 ICT를 접목한 원격 협진 또는 모바일 보건소 등 소외 지역에 보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ICT,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지원' 프로그램은 관련 SDG 4번의 성과가 높게 나타고 있으나 캄보디아의 정책 환경이나 국제 원조 지형이 호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일본이 고등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쪽을 집중 지원하고 있어 KOICA의 프로그램과 일부 겹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중등 ICT 교육 및 STEM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살피며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 가능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무소에서 추진예정인 산업다각화를 위한 뿌리 기술 교육 지원을 차별화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성과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있는 SDG 2번의 성과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느린 편이다. 한편, 일본과 미국 모두 농업 가치사슬 강화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편시 이를 고려하여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통합적 기술지도-교육-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을 선별하여 수확 후 가공 및 시장과 연결하는 부문에 선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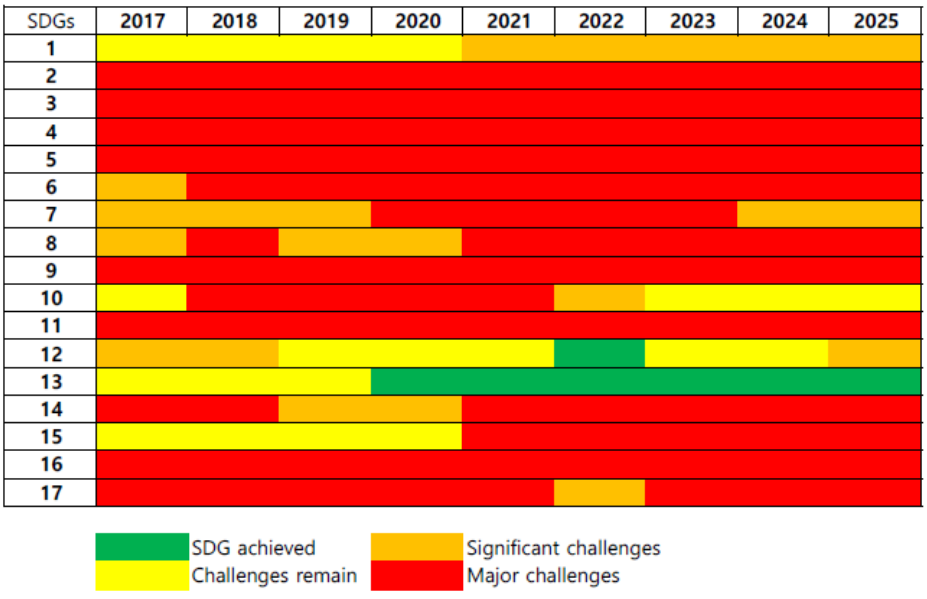
12) 파키스탄

(1) SDGs 이행 현황

파키스탄 정부는 2022년 VNR를 통해서 SDG 1, 3, 7, 5번 등에서 성과가 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Government of Pakistan 2022). 지난 15년 동안 빈곤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으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빈곤율이 2.4퍼센트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2006~2007년 10만 명당 276명이었던 산모사망율이 2018~2019년 186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을 6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해서 2022년 3월 최초의 '성 평등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Gender Policy Framework)'를 발표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지난 10년간의 SDGs 이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파키스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7, 10, 13번으로 확인된다. 또한 파키스탄의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54.7점에서 2024년 57점으로 2.3점 상승하였다(SDSN 2025).

[그림 Ⅱ-67] 파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는 현재 파키스탄에 '통합적 물 안보 증진', '지속가능성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회서비스 강화, 소득증대를 위한 포괄적 취약계층 지원' 총 3개의 C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목표는 SDG 6번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목표는 SDG 7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을 매칭되는 SDG 목표가 없는 상황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68] 2025년 파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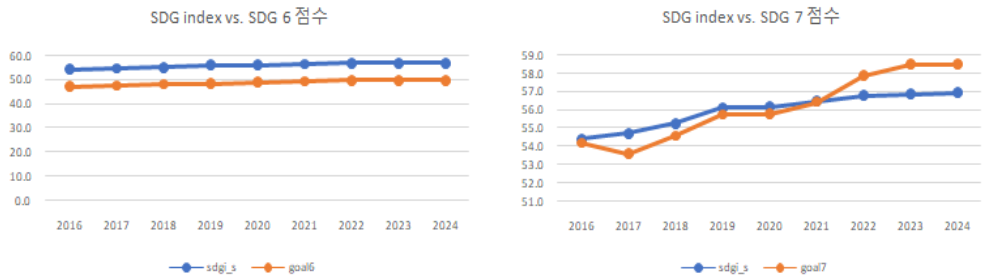


자료: ESCAP 2025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SDG 6번은 6개는 진전, 1개는 후퇴, 4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는 SDG 6.a.1번으로 물과 위생 관련 ODA 지원액이다. SDG 7번은 3개 진전, 2개 후퇴, 1개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후퇴하는 지표는 SDG 7.2.1 과 7.a.1번이다(UN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파키스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6번의 경우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조금씩 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SDG 이행 점수와의 점수 폭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SDG 7번의 경우는 꾸준히 SDG 이행 점수와의 거리를 좁혀 2021년에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이행 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Ⅱ-69] 파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파키스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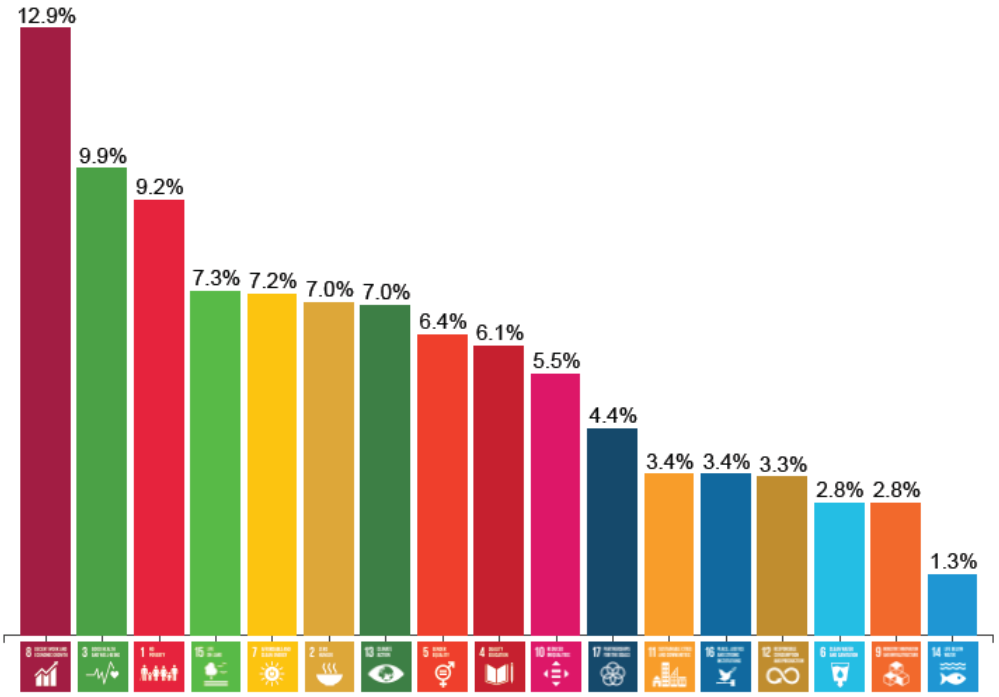
파키스탄은 2016년 국회 결의를 통해 SDGs를 국가 개발 의제로 공식 채택하였다(Government of Pakistan 2019) 연방 및 주 단위에 SDG 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국회 내에 전담 팀을 구성하여 정책 이행을 감독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y Committee, NEC)'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필요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행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첫 VNR에서는 SDG 1, 2, 3, 15번 달성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SDG 1번과 2번 관련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인 '에흐사스(Ehsaas)'[17]를 출범시켰으며 SDG 3번 관련 '세핫 사훌랏(Sehat Sahulat)'[18]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억 그루 나무 쓰나미(Billion Tree Tsunami)'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산림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연결성과 인프라확충,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협력 모델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추진하고 있다(Government of Pakistan 2019).

두 번째 VNR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기술혁신을 SDG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First Policy)'를 도입하고 전국으로 28개의 소프트웨어 기술 단지를 조성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키우고,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을 위한 로샨 디지털 계좌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라스트(Raast)를 도입하여 금융 포용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파키스탄의 2019년과 2022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3, 1, 15, 7, 2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이 관심 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유일하게 SDG 7번이었다.

17) 파키스탄 우르두어로 공감 또는 연민을 뜻함.
18) 파키스탄 우르두어로 건강복지를 뜻함.

[그림 Ⅱ-70] 파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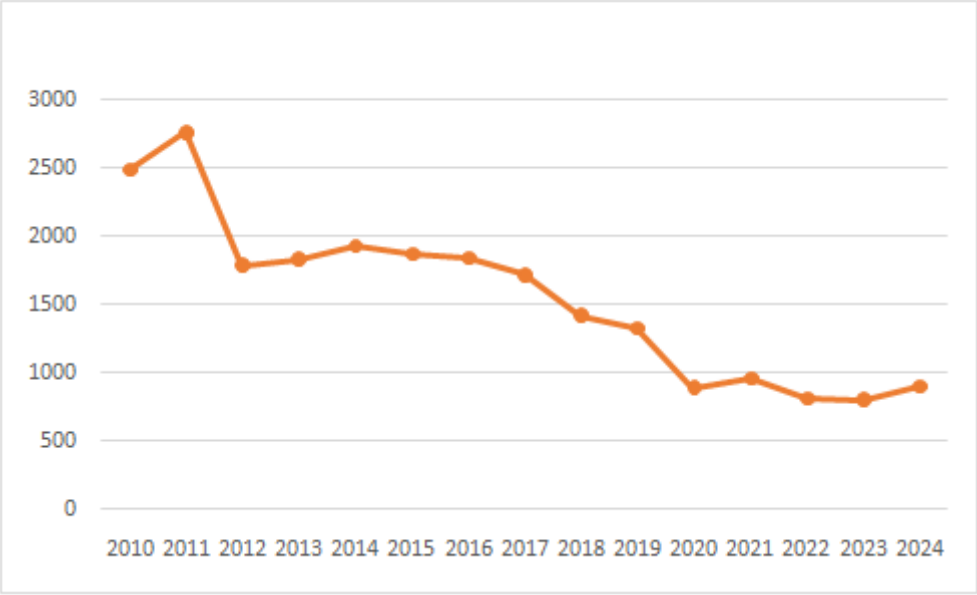
한편, '우란 파키스탄(Uraan Pakistan)'[19]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개발계획(2024~2029)를 살펴보면, 파키스탄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 수출 잠재력 구축, 공공서비스 질 향상, 예방 및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와 고등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Uraanpakistan n.d.). 이를 위해 수출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며, 환경보호와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재생가능 자원으로 에너지 구성을 다양화 하고, 교육, 건강,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국가의 저개발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SDG Mapper 분석을 통해 정부의 관심도가 높은 목표로 확인된 SDG 1, 2, 3, 7번 등이 개발계획의 목표로도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떠오르는 파키스탄을 뜻함.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파키스탄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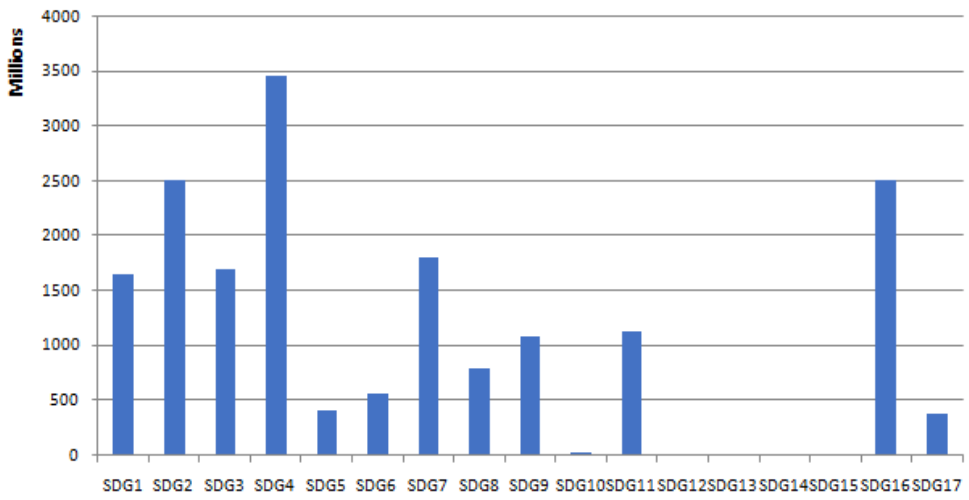
[그림 Ⅱ-71] 파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7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키스탄은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4, 16, 2, 7번 관련하여 각각 19%, 14%, 14%, 10%를 지원받아 이들을 합산했을 때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7번에 다른 공여국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72] 파키스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6과 7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두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미국, 다음은 일본이었다. 이들 공여국이 파키스탄에 SDGs 목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 Ⅱ-29〉 파키스탄 SDG 6, 7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6 지원	SDG 7 지원	합계
프랑스	1	188	189
독일	30	120	151
일본	175	497	**672**
한국	13	173	186
스위스	23	6	28
영국	65	114	180
미국	**195**	**700**	**895**
기타	70	13	83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2022년 발표된 '파키스탄 통합 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 ICS)'를 통해 4가지 미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테러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감소, 둘째 지역 안정, 통합 및 안보 증진, 셋째 포용적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넷째 민간 민주주의 제도 강화 및 인권 보호이다. 이 중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미션 목표를 위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 집행 기관 내 성별 포용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미션 목표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감소,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교육 및 보건 인프라 투자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미션 목표를 위해서는 여성, 종교, 민족 소수자등 소외 계층의 정치 참여와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 옹호, 검열 없는 시민사회활동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으로 보인다(State Department 2022).

한편, USAID의 국무부 통합으로 파키스탄 지원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SDG 6번 관련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신드 지방 서비스 프로그램(Municipal Services Program-Sindh, MSP-S)'이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파키스탄 신드주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 하수 처리 및 고형 폐기물 관리 등 필수적인 지방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5년 완료로 계획되었다. 정수탱크, 식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시스템 건설과 역량 강화 활동 등으로 약 3천 7백만 달러의 사업비 투입되었다. USAID 사업으로 드물게 건축 요소가 포함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미국의 감사원 감사 결과 현지 정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 부족과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USAID 2025). 2024년 파키스탄의 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후 변화(홍수 및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포용적 물 거버넌스 활동(Inclusive Water Governance Activity)'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과 함께 사업이 취소되었다.

SDG 7번 관련 미국의 주목할만한 사업은 2021년 UNIDO와 함께 시작한 '파키스탄 민간 부문 에너지 사업(Pakistan Private Sector Energy Project, PPSE)'이다. '민간금융자문네트워크(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PFAN)'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중소 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 완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은 3년간의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전기 자동차, 순환 경제, 에너지 효율,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의 청정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첫 투자 유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FAN n.d.). 이외에도 2021년 시작한 '전력 분야 개선 사업(Power Sector Improvement Project, PSIA)'이 있는데 PSIA는 파키스탄 도매 전력 시장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것,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는 것, 전력망 부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4년간 2,350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Numark n.d., ESG n.d.).

② 일본

일본은 2023년 가을에 발표된 대 파키스탄 국가개발협력정책 문서를 통해 인간 안보 보장 및 사회 안정화,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경제 성장 견인, 평화와 안정 공고화 라는 3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 인간 안보 보장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해 교육, 보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고품질 경제 성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산업 등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교통망 및 전력 공급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안정 공고화를 위해 접경지역 안정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초인프라, 사회 서비스 지역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한편, 일본이 SDG 6번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파이살라바드 물 공급, 하수도 및 배수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The project for water supply, sewerage and drainage master plan of Faisalabad)'이다. 이 사업은 파키스탄 제3의 도시인 파이살라바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및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핵심 기술 협력 사업이다. 파이살라바드 상하수도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하고, 수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하며, 파일럿 지역(Sarfraz Colony, Madina Town 등)을 선정하여 누수 탐지, 유량 측정, 요금 징수 시스템 개선 등 실증 작업 수행 등을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JICA 2019). 이외에도 2021년 '파이살라바드 정수장 및 배수 시스템 개선 사업(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Treatment Plant and Water Distribution System in Faisalabad)'과 2022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파이살라바드 상수도 분야 관리 역량 강화 사업(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Capacity of Water Supply Sector in Faisalabad)'을 통해 파이살라바드 지역의 상수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정수 및 배수 시설을 직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물의 공급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JICA 2025).

일본의 파키스탄에 대한 SDG 7번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 강화, 전송 효율 개선, 그리고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4). SDG 7번 관련한 지원은 크게 2개 사업, '이슬라마바드 및 부르한 송전선로 보강 사업(Islamabad and Burhan Transmission Line Reinforcement Project)'과 '펀자브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I(Punjab Transmission Lines and Grid Stations Project I)'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은 파키스탄의 수도권 지역인 이슬라마바드와 부르한(Burhan) 일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송전망을 현대화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완료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은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지인 펀자브(Punjab) 주의 전력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되어 2022년 이후까지 지속적인 후속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JICA 2023)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파키스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30〉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통합적 물 안보 증진'은 SDG 6번을 지원하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SDG 6번 성과는 낮은 편이고, 해당 SDG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액은 낮은 편이다. 즉,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 향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지원으로 SDG 7번을 지원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SDG 7번 성과, 정부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모두 높은 상황으로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30〉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통합적 물 안보 증진	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지속가능성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지원	7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사회서비스 강화, 소득증대를 위한 포괄적 취약계층 지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에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SDG 6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부 뿐만 아니라 물 관련 전담 부처

가 별도로 존재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물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SDG 7번 관련해서도 파키스탄 정부가 저탄소 전환과 기후회복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사무소가 생각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디지털 기반 물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올해 대표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어떤 취약 계층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추후 방향성을 고민해야하는 프로그램이며 현재로서는 파키스탄 국가전략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 축 중 하나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SDG 2번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통합적 물 안보 증진'은 일본 및 미국과 같이 공여국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을 피해 지원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아보타바드 지역의 상수도 공급 사업과 같이 공여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모델 마을'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키스탄은 지역 갈등과 치안 문제로 인해 양자 공여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자기구를 통한 사업 수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WASH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파키스탄 사무소는 통합 물관리, 상수도 시설, 우수관리 시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물 관련 데이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며, SDG 6.1 지표 보고 역량도 낮은 편이다. 이에 서브프로그램인 '디지털 물 정보화'를 강화하여,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와 시설 운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하여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 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성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지원'은 다른 공여국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송전망 확충 및 발전소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위주의 지원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KOICA가 이미 추진 중인 '태양전지모듈 인증시험소' 건립과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질적 관리를 지원하되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사업 기획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전력망(On-grid)은 다른 공여국이 주도하므로, KOICA는 전력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형 재생에너지 모델에 집중하여 지리적 에너지 공백을 메우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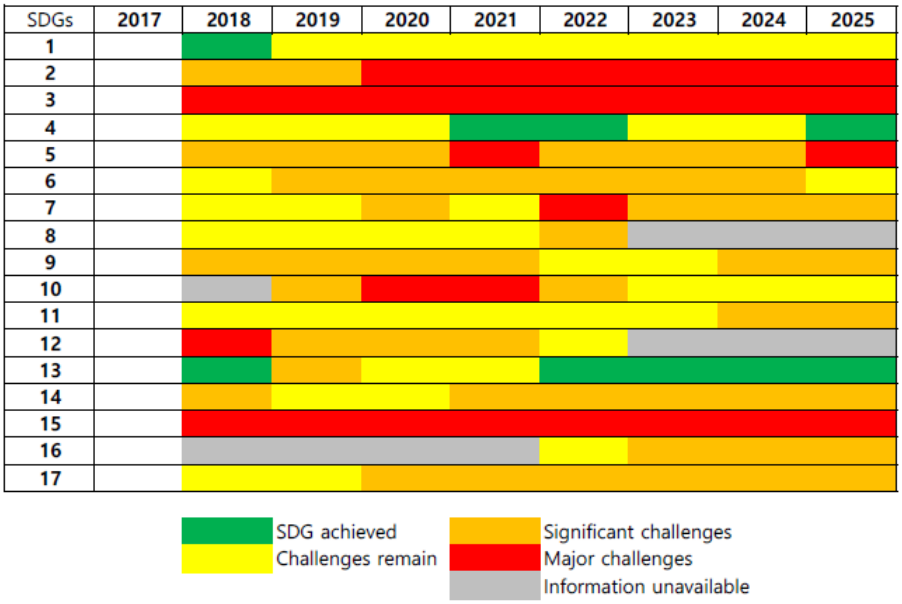
마지막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SDG 목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 프로그램을 나머지 두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높고 파키스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조심스레 제안한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지진, 홍수, 가뭄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3) 피지

(1) SDGs 이행 현황

피지의 가장 최신 VNR을 바탕으로 피지의 전반적인 SDGs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169개 세부 목표 중 14%(24개)에서 양호한 진전을 보였으며, 27%(45개)는 좀 더 노력해야 달성가능하고, 17%(28개)에서는 퇴보가 나타나는 등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Strategic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and Statistics 2023). SDG 6번은 피지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목표 중 하나로, 2030년 목표 달성 궤도에 올라와 있으며 위생 시설 접근 및 국제 협력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SDG 10번 또한 2030년 목표 달성 궤도에 있는 목표로 송금 비용 절감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SDG 3번은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신생아 사망률과 감염병, 교통사고 사망 등 많은 지표에서 퇴보가 관찰되고 있다. SDG 14번은 해양 국가로서 중요하지만 지표상으로는 퇴보가 관찰되었으며, 데이터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지 정부는 현재 추세로 볼 때 2030년까지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표를 SDG 6번과 10번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달성이 어려운 목표 및 도전 과제를 SDG 3과 15번으로 보고 있다. SDG 7번, 2번, 9번은 정부의 의지와 자원 배분에 따라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Ⅱ-73] 피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피지의 지난 10년간의 SDGs 이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피지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에는 관련정보가 없고, 2018년부터 시작하여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4, 6, 10, 13번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지의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70.6점에서 2024년 72.9점으로 2.3점 상승하였다(SDSN 2025).

[그림 Ⅱ-74] 2025년 피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KOICA는 현재 피지에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병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미래 디지털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 총 3개의 C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목표는 SDG 13, 7, 3, 4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SDG 3번의 경우, 8개 진전, 3개 정체, 7개 후퇴, 나머지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체되고 있는 지표는 SDG 3.1.1, 3.9.3, 3.b.1번이고 후퇴하는 지표는 SDG 3.2.1, 3.2.2, 3.3.1, 3.3.2, 3.5.2, 3.8.1, 3.b.2번 이다. SDG 4번은 2개 진전, 2개 정체, 1개 후퇴, 나머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정체되고 있는 지표는 SDG 4.1.2와 4.a.1번이고,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SDG 4.b.1번이다. SDG 7번은 3개 진전, 1개 정체, 1개 후퇴, 1개 데이터 부족 상황으로, 정체되는 지표는 SDG 7.1.1번 후퇴하는 지표는 SDG 7.2.1번이다. 마지막으로 SDG 13번은 1개 진전, 1개 정체, 1개 후퇴, 나머지 4개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정체되는 지표는 SDG 13.1.3번, 후퇴하는 지표는 SDG 13.1.1번이다(UNESCAP 2025).

[그림 Ⅱ-75] 피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피지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SDG 3번의 경우는 [그림 Ⅱ-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아던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8년에는 이행 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후 차이가 점점 벌어졌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 점수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SDG 4번은 2016년부터 꾸준히 SDG 이행 점수와 격차를 벌이며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2020년 약간 주춤한 후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행 점수 보다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SDG 7번은 2016년부터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여 2020년에는 SDG 이행 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으나 다시 낮아져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SDG 13번은 큰 변화의 흐름 없이 꾸준히 SDG 이행 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

(2) 피지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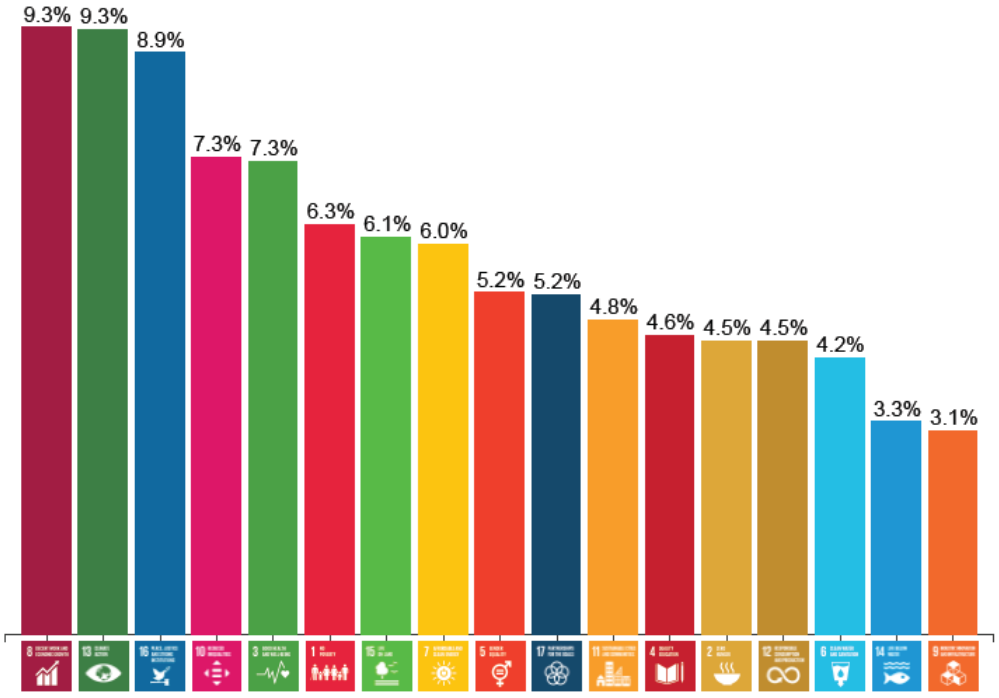
2019년 VNR에 따르면, 피지 정부는 '변화하는 피지(Transforming Fiji)'라는 비전 아래 수립된 5개년 및 20개년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SDGs를 국가 정책과 예산 시스템에 통합하여 이행하고 있다(Ministry of Economy 2019). 국가 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SDGs 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 간 협업 체계인 SDG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법안 심사와 예산 채택 시 SDGs 관점을 반영하며, 사법부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주제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지 정부는 사호 보호 강화를 위해 빈곤층 지원, 노인 연금, 취약 아동 지원 및 장애인 수당 등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무상화, 교과서 및 통학 지원, 대학생을 위한 정부 대출 및 장학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며, 오지 마을에는 생태적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기후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 기반 그린본드(Green Bond)를 발행하고 기후 적응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기후와 환경관련 대응에도 힘써왔다.

2023년 발행한 두 번째 VNR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지정부가 SDGs 이행의 정책적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SDG 추적 도구(SDG Tracker)'를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Ministry of Finance, Strategic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and Statstics 2023). 피지 정부는 SDG 달성 성패가 데이터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와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인플레이션완화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문해력 및 수리력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피지(digital FIJI)'이니셔티브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나부투(Navutu)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해 산업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을 제정하여 탄소세 도입 및 저탄소 개발 전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Ⅱ-76] 피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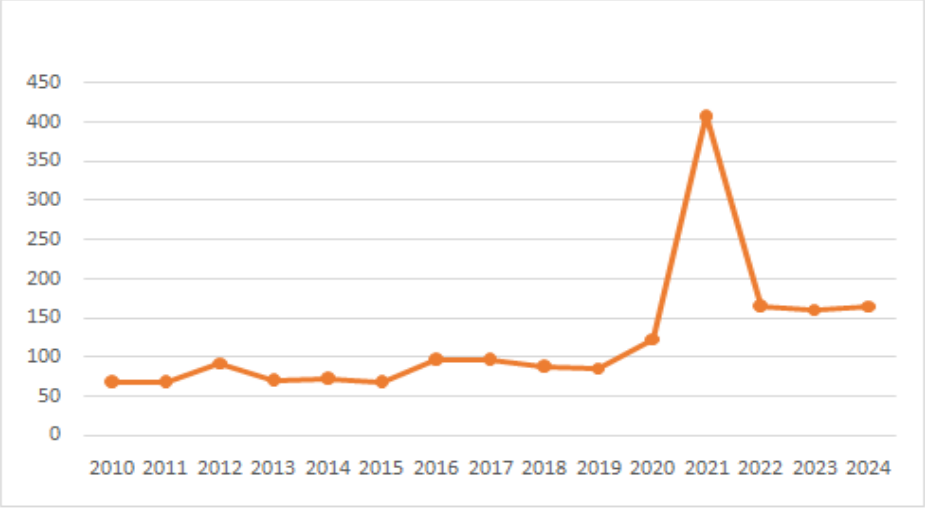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피지의 2019년과 2023년 2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13, 16, 10, 3, 1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에서 이 6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지 정부가 이 6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는 목표는 SDG 3과 13번이었다.

‘피지의 국가개발계획(Fiji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5~2029 and Vision 2050)은 통합을 통한 피지 국민의 역량 강화라는 비전 아래 2024년 수립되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ji 2024). 이 전략 문서는 모든 국민을 개발의 중심에 두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회복력, 국민역량강화, 굿 거버넌스를 핵심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2030년까지 빈곤율을 18%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보호 시스템(가족 지원, 연금 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도로와 전기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9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를 모든 부문 계획에 통합하고,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개발계획은 피지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SDG 8, 13, 16 등의 목표들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피지가 DAC 회원국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면 [그림 Ⅱ-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지원액이 기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분야 지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지원액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기존보다는 약 30% 증가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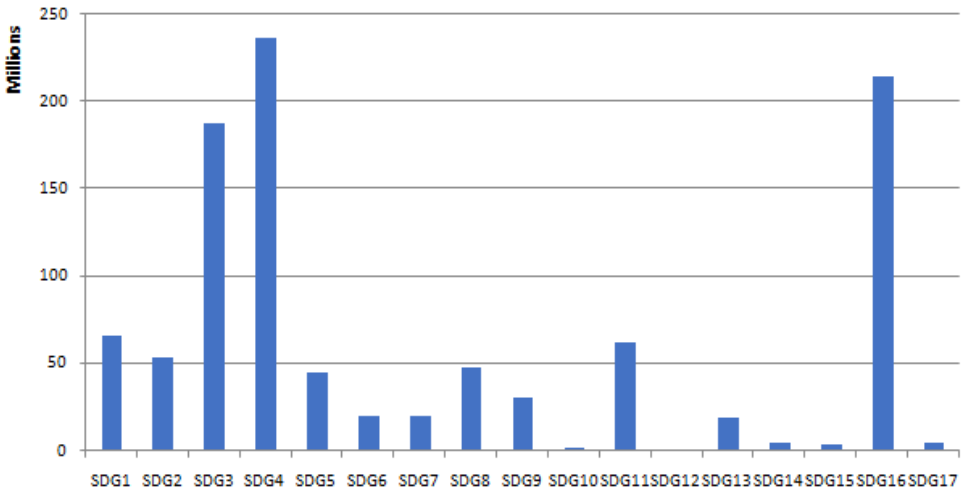
[그림 Ⅱ-77] 피지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Ⅱ-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지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SDG 4, 16, 3번 관련하여 각각 23%, 21%, 18% 를 지원받아 이들을 합산했을 때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SDG 3과 4번에 다른 공여국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78] 피지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지원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3, 4, 13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호주였고 SDG 7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네 개의 목표를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호주, 다음은 일본이었다. 이들 공여국이 피지에 SDGs 목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표 Ⅱ-31〉 피지 SDG 3,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7 지원	SDG 13 지원	합계
호주	**124**	**176**	1	**10**	**311**
독일	0	3	1	1	4
일본	20	26	**9**	0	**55**
한국	9	5	7	3	24
뉴질랜드	25	16	2	3	46
기타	8	11	0	3	2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호주

호주의 2015/16~2018/19 피지 지원 개발협력전략은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한 번영 촉진 및 빈곤 감소를 핵심 목표로 하며, 민간 부문 개발 확대와 인적 자원 개발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DFAT 2015). 첫 번째 전략적 우선 순위를 위해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 민간부문투자, 무역역량강화를 지원하며, 두 번째 우선 순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수립된 개발협력전략은 일부 변화가 확인된다. 2023년 10월 양국 총리가 서명한 격상된 '부발레 파트너십(Vuvale 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안정적인 피지를 위해 5가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DFAT 2023). 5가지 핵심 목표는 인적 연결 강화, 경제적 관계 심화, 안보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 문제 협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다. 경제적 관계 심화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기존 전략으로부터 이어져 온 분야이지만 나머지 3개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양국의 유대, 경제, 안보, 지역문제 관련 더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호주의 대 피지 보건분야 지원은 단일 프로젝트보다, 피지 보건부의 정책 수립 능력을 돕고 공급망, 정보체계, 인력 등 보건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피지 보건 프로그램 (Fiji Health Program)'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피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공급망 개혁, 디지털 보건 체계 구축, 의료 서비스 접근성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Tetra Tech 2022) 최근에는 피지 내 HIV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5년에 4,800만 호주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보건 협력을 발표하고 감염 방지, 진단, 치료 시스템 구축

및 인적 자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Australia Global Health Alliance 2025). SDG 4번 관련, 호주의 '피지 교육 프로그램(Fiji Education Program)'은 2017년 시작되어 2024년까지 지속되었다. 피지의 모든 남녀 아동의 학습결과 개선을 최종목표로 하여 포용적인 초등 읽기·쓰기 및 수리 커리큘럼 개발과 교사 가이드 제작, 특수 및 포용 교육을 위한 충분한 자원(기금, 교재 등) 확보 및 장애 아동의 학교 등록 지원, 피지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구축 및 인사 개혁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에 이어 받아 교육의 질적 도약과 디지털 학습 및 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호주-피지 교육 프로그램(Australia Fiji Education Program)'이 새롭게 시작되었다(AusConnect 2025).

마지막으로 SDG 7과 13번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최근에 시작한 피지의 소외된 도서 지역(Kadavu, Lau, Lomaiviti 군도 등)에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인 '피지 농촌 전기화 기금(Fiji Rural Electrification Fund, FREF)' 사업과 홍수 및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탄력성 강화하는 '피지 기후적응 프로그램(Fiji Climate Adaptation Program, FCAP)'이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2025; Pacific News Service 2026).

② 일본

일본은 피지 지원에 있어 취약성 극복을 우선순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피지의 국가 개발 계획에 맞추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및 사회기반시설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교육부문 및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환경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농촌 및 도서 지역 생활 개선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SDG 3번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위기 대응 긴급 지원 차관이 지원되었다. 이후 고혈압, 당뇨 등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사업과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이 함께 학습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JICA 2025). SDG 4번 관련해서는 피지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남태평양 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또한 해당 대학교 내 일본의 무상 자금 원조로

설립된 '해양 연구 학부'와 '일본-태평양 ICT 센터'의 연구 수준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공해 왔다. 도농 학교간의 교육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농촌 학교에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교사 훈련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피지 전역 및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장학금 사업(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을 진행하고 있다(JICA 2025).

SDG 7번 관련 사업으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태평양 도서국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도입 사업(The project for Introduction of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in Pacific Island Countries)'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태평양 도서국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Project for Energy Transition in the Pacific Islands Countries)'가 진행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JICA 2025). 두 사업 모두 기술 협력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SDG 13번 관련 사업으로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차관지원, 기상 예보 및 경보 개선과 태평양 지역 센터 설립을 위한 역량 개발 사업, 재난 위험 경감 주류화 사업 등이 있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피지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II-3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은 SDG 7과 13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두 목표의 성과와 목표에 대한 피지 정부의 관심이 상이한 상황이다.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어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과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병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는 SDG 3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지의 SDG 3번 성과는 낮지만 피지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규모는 많은 편이다.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은 SDG 4번을 지원한다. 피지의 SDG 4번 성과는 높은 편이나 피지정부의 관심은 낮고 공여국의 지원규모는 많은 편으로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3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SDG 7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1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병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미래 디지털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지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무소에서는 SDG 7번에 대한 피지 정부의 관심이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SDG 13번 또한 다자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SDG 13번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SDG 3과 4번 등 다른 목표와 매핑되면서 SDG 13번 지원 규모가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CP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후변화를 에너지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계하여 접근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지원 방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와 교육, 보건, 특히 어업 분야를 연계한 접근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피지는 체계적인 환자 의뢰·회송(referral) 시스템이 부재하고,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시설 또한 노후되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시스템 강화, 의료인력 역량 강화, 보건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KOICA가 피지 유일의 재활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최초의 외래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건립 등 피지 최초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가장 가시성 있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고급 ICT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에게 경쟁력 있는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기 어려워 상당수가 호주로 이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디지털 인력 양성에 대한 피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인 이유로 분석하고 있었다. 한편 원격 디지털 교육의 경우, 외섬 지역에 스타링크 기반 인터넷 연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은 공여국들의 지원이 적은 것을 생각해보면 '중점 전략 분야'로 설정하여 선도적·집중적 지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역일 수 있다. 피지는 기후 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 중 하나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관련 SDG 목표에는 협력국의 관심이 덜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나 사무소는 피지 정부의 에너지 분야 관련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기후 변화를 재난·재해 대응 또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기후변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정해도 좋을 것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병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SDG 3번 달성을 지원하지만 호주를 비롯한 공여국의 보건 분야 지원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차별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후변화대응 보건역량강화사업'을 심화하고 여전히 부족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시스템 강화와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 시에도 중단 없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기후 스마트 보건소 모델이나 보건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 대한 지원도 KOICA만의 좋은 성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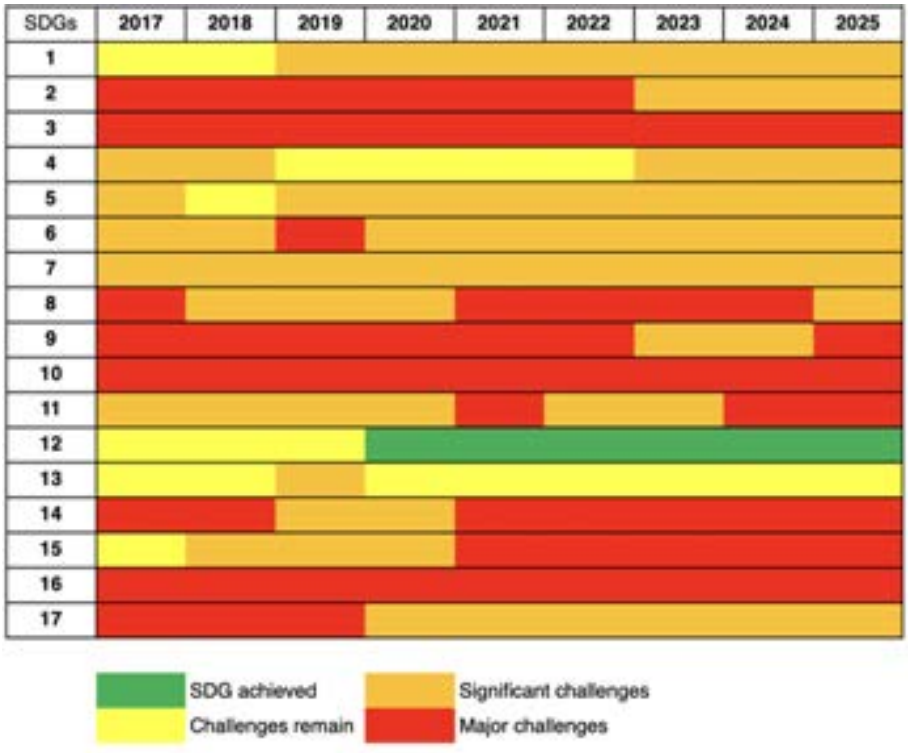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역량개발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또한 보건 분야 만큼 공여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차별화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있겠다. 호주는 초등 읽기·쓰기와 수리력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특정 대학교를 통한 광역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라는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지만 KOICA는 피지 정부의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전환 비전에 맞춰,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ICT 기술(코딩, AI, 사이버 보안 등) 및 취·창업 연계 교육에 자원을 집중하고, 더불어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력을 활용하여, 호주나 일본이 제공하기 어려운 원격 교육 플랫폼 고도화나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14) 필리핀

(1) SDGs 이행 현황

필리핀의 SDGs 이행은 사회부문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확인되는 반면 환경·기후·도시 분야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 네 차례 VNR에 따르면 SDGs와 국가개발계획의 연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책·예산·제도 간 정합성 제고가 여전히 요구되며(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6; 2019; 2022; 2025), 지역·계층 간 불평등과 기후·재난 취약성이 전반적 진행 속도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9; 2022; 2025). 2025년 VNR은 특히 SDG 3, 5, 17번에서 지표 후퇴 또는 진전 부족을 보고하고, 2번은 '진전(on track)'으로 평가되었으나 영양·식량안보 지표의 자료 부족으로 달성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후퇴의 배경에는 기후·재난 취약성, 지역별 불평등, 제도·보건체계 역량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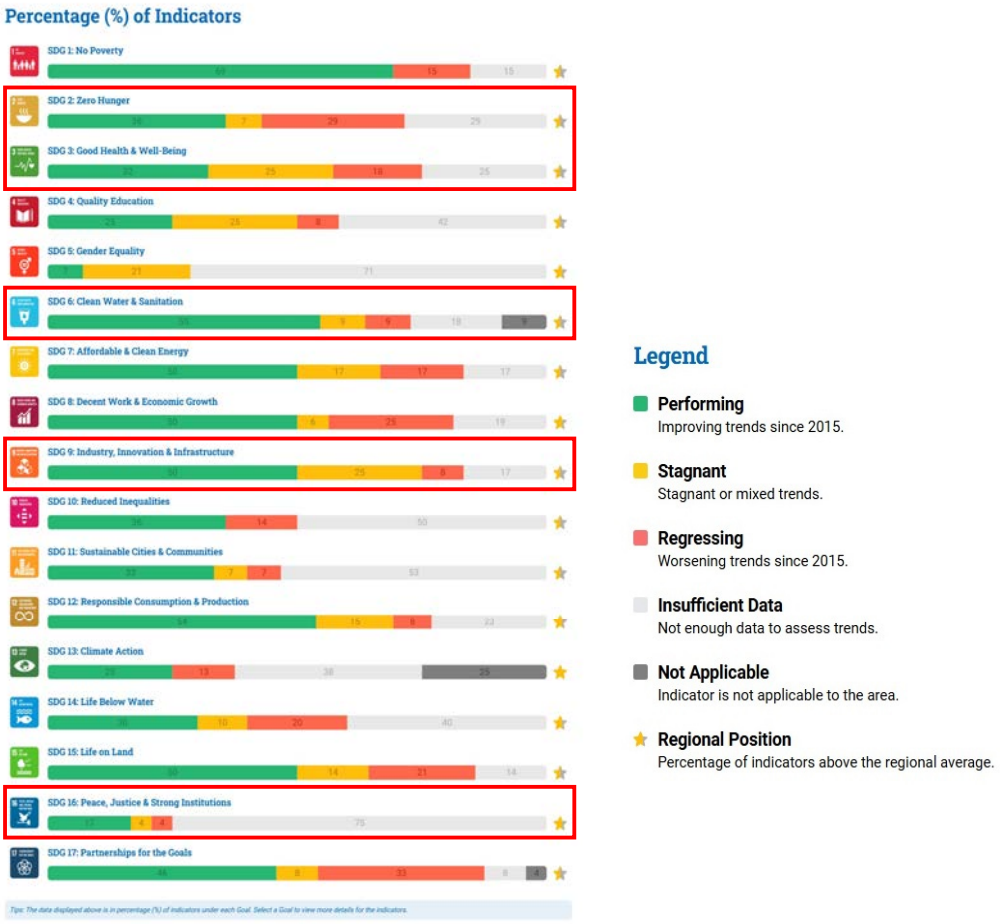
[그림 Ⅱ-79] 필리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지난 10년간 필리핀의 SDGs 이행 추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DSN에서 발표하는 필리핀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79]에서 보는 바에 같이 필리핀은 이 기간 동안 SDG 2, 8, 12, 17번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식량·영양 개선, 경제활동 회복,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국제협력 기반 강화 등에서 일정 수준의 구조적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2016년 63.2점에서 2025년 68.3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SDSN 2025).

[그림 Ⅱ-80] 2025년 필리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KOICA가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개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분야 융합',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 확립'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2, 9, 6, 3,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UN자료를 바탕으로 CP에서 집중하는 5개 SDGs 목표별 필리핀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2번의 경우 10개 지표 가운데 5개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1개는 정체, 4개는 후퇴하고 있다. 성과를 보이는 지표는 SDG 2.1.1, 2.2.1, 2.2.2, 2.2.3, 2.a.2번 등으로,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와 관련 예산 흐름은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SDG 2.1.2, 2.5.1, 2.5.2, 2.a.1번은 목표로부터 후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토지 비중을 나타내는 SDG 2.4.1번은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다(UNESCAP 2025).

다음으로 SDG 3번은 27개 지표 중 약 32%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25%는 정체, 18%는 후퇴, 25%는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된다. SDG 3.1.1, 3.1.2, 3.3.3, 3.7.1번 등은 개선 추세를 보이며 모자보건 및 특정 감염병 관리에서의 진전을 시사한다. 동시에 상당수 지표가 정체 또는 후퇴 그룹에 속해 있어, 일부 건강결과와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섯 개 지표는 추세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UNESCAP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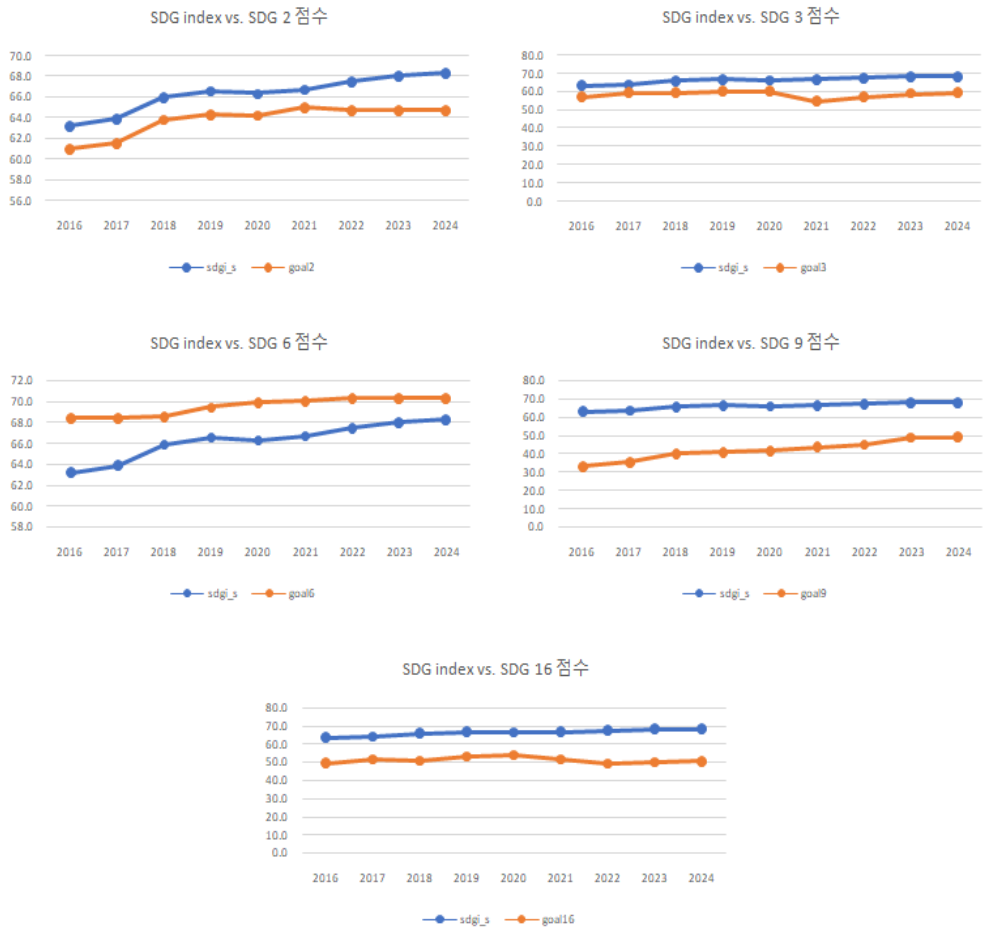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은 11개 지표 중 6개가 성과를 보이고, 1개는 정체, 1개는 후퇴, 2개는 데이터 부족, 1개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다. SDG 6.2.1, 6.3.1, 6.4.1, 6.5.1, 6.a.1, 6.b.1번은 모두 개선 추세로 평가된다. 반면 SDG 6.1.1번은 2015년 46.3%에서 2022년 47.9%로 거의 변동이 없어 정체로 분류되며, 수자원 관련 1개 지표는 후퇴 추세로 나타나 물이용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시사한다(UNESCAP 2025).

9번은 12개의 지표 중 50%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3개는 정체, 1개는 후퇴, 2개는 데이터 부족 상태이다. 모발폰 사용자, 인프라에 대한 국제공적지원, 연구자 수, R&D 투자 등에서 성과를 보이며 반면, 하이테크 산업의 부가가치,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행편과 승객 규모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제조업의 고용이다(UNESCAP 2025).

마지막으로 16번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의 이행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14개 지표 중 약 75%가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되어 전반적 추세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SDG 16.9.1번 등 일부 지표에서 성과가 확인되지만, 이는 단일 연도 중심의 제한적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장기적 개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SDG 16.10.2는 최근 수년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정체로 평가되며, SDG 16.5.1번은 2016년 3.2%에서 2019년 5.5%로 상승하여 후퇴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 밖의 폭력, 아동학대, 부패, 사법접근성 등에 관한 다수 지표는 시계열 데이터가 부재해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필리핀의 SDG 16 이행은 부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격차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며, 핵심 제도·거버넌스 영역 전반에서 체계적 모니터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UNESCAP 2025).

[그림 Ⅱ-81] 필리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필리핀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81]에서 확인되듯 SDG 3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표 점수가 SDG 이행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래프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면 각 목표별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SDG 2번은 전 기간에 걸쳐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SDG 이행 점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SDG 2번 점수도 유사한 상승세를 보인다.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 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SDG 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SDG 9와 16번 역시 전반적으로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점수가 형성되어 있다.

(2) 필리핀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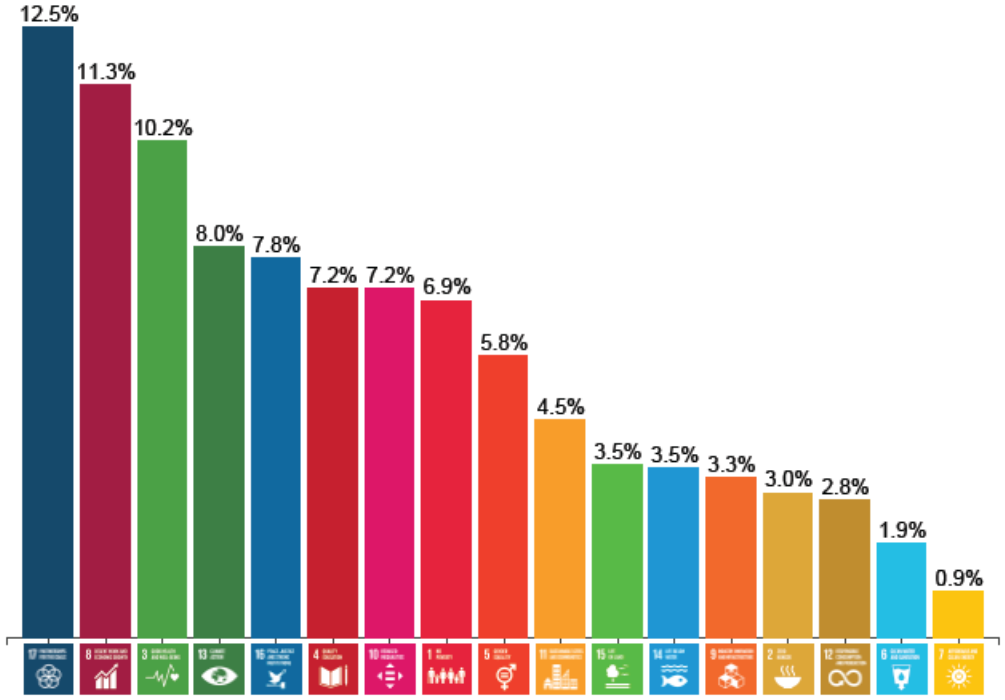
필리핀 정부의 SDGs 전략 방향은 네 차례에 걸친 VNR을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구체화해왔다. 2016년 첫 번째 VNR에서 필리핀 정부는 SDGs를 '국가개발계획 (Philippine Development Plan, PDP)'와 연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인의식 기반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6). 이를 위해 SDGs의 목표와 지표를 국가·부문별 중기계획, 지역개발계획, 지방정부 실행계획 등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빈곤층, 농촌 주민, 여성, 아동, 원주민, 재난 취약계층 등 소외되기 쉬운 그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가 발전전략의 전면에 배치했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6).

2019년 VNR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보다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보고서는 SDGs를 정부 중기 개발계획인 PDP 2017~2022의 주요 전략축으로 반영하고, 부처별로 SDG 목표에 대응하는 세부 계획과 프로그램을 정비했음을 설명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9). 동시에 지역정부(Local Government Units, LGUs)의 역할을 확대하여 이행 책임을 분산시키고, 교육·보건·일자리·사회보호 분야에서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 완화, 지역·도시 간 격차 축소, 기후 취약성 대응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했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9). 이 시기부터 필리핀의 SDGs 전략은 단순한 목표 나열을 넘어,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재원 배분 구조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틀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작성된 2022년 VNR은 SDGs를 국가 회복전략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코로나19는 교육·보건·고용 부문에서 취약계층의 외부 충격 노출을 크게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 확대,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공공보건체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 대응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2). 특히 주인의식 관점에서 2022년 보고서가 강조하는 지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정·협업체계의 기능 강화이며, 재난·보건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SDG 목표와 다시 정렬함으로써 위기 대응과 중장기 목표 이행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점이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2).

2025년 VNR은 SDGs를 차기 PDP 2023~2028과 직접 연계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SDGs 이행 책임을 보다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5). 보고서는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물·위생, 성평등 등 사회 분야 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지역 개발, 기후·재난 복원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국가 차원의 장기 과제로 재확인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5). 특히 2025 보고서는 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data ecosystem)' 구축을 중요한 체계적 개혁과제로 제시하는데, 이는 행정데이터 개선, 통계 생산능력 확대, 지역별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정책·성과·지표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설명된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5).

[그림 Ⅱ-82] 필리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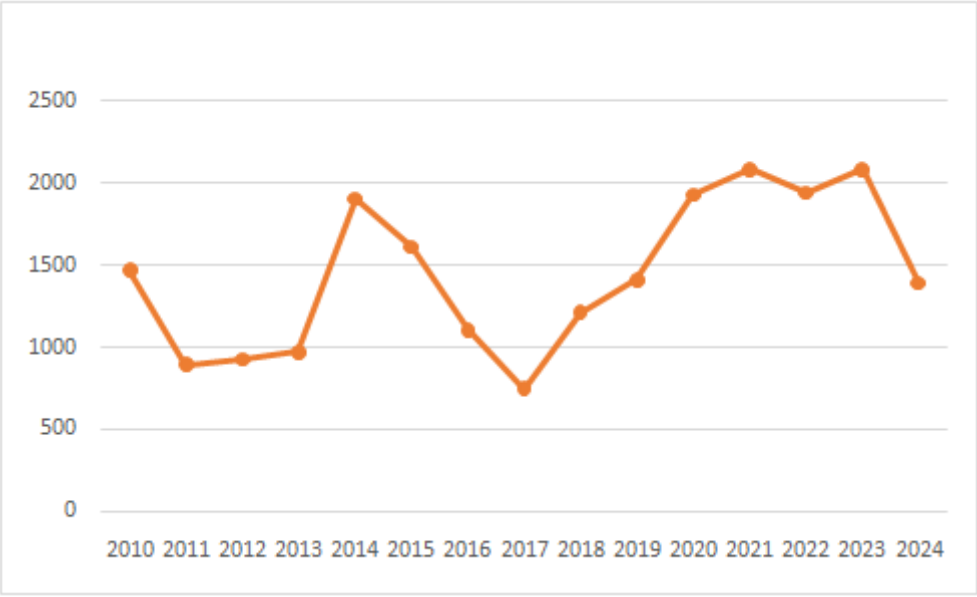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필리핀의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4개의 VNR이 어떤 SDG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17, 8, 3, 13, 16번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NRs에서 이 5개 SDG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필리핀 정부가 이 5개

SDG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심은 2040년까지 필리핀을 중산층 수준의 부유하고 가난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장기 비전인 '우리의 비전 2040 (AmBisyon Natin 2040)'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6개년 실행 지침인 PDP 2023~2028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연평균 GDP 성장률 6.5~8%를 달성하고, 빈곤율을 2021년 18.1%에서 2028년까지 9% 수준으로 낮추며, 더 많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4~5%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NEDA 2023). 이를 위해 보건 시스템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인적 자원을 현대화하고, 생산 부문을 혁신하여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규제완화를 통해 거버넌스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 중에서는 SDG 3과 16번이 이 관심순위와 일치하였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필리핀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Ⅱ-8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리핀이 수원한 연도별 총 ODF 규모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3년 큰 지원액을 기록하고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Ⅱ-83] 필리핀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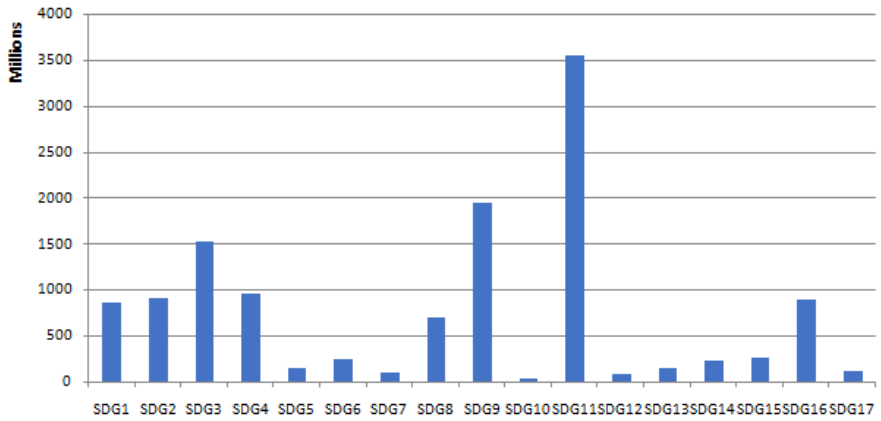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이 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8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필리핀은 SDG 11, 9, 3번 순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ODF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SDG에 지원된 금액은 누적 총액 대비 각각 28%, 15%, 12%로 합산하였을 때 상위 50%를 차지한다. 한편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SDG 3번과 SDG 9번이 다른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누적 지원 구조는 필리핀이 장기간 직면해 온 도시 인프라 부족, 재난 취약성, 행정·제도 역량 불균형, 빈곤·불평등 지속 등 구조적 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여러 국제기구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도시화 압력, 사회·경제 인프라 취약, 재난·기후 리스크, 행정 역량 한계와 함께 공공 인프라 부족, 도시 혼잡,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약, 기후변화 위험을 주요 개발 제약 요인 및 중장기 성장제약으로 분석한다(World Bank 2022). UNDP 또한 사회·도시 인프라 취약성과 제도역량 부족의 결합을 필리핀 SDGs 달성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평가했다(UNDP 2022).

이러한 문헌들에 비추어 보면, SDG 1, 3, 8, 11, 16번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누적 ODF 규모는 단순한 프로젝트 수요라기보다 경제·사회·제도·도시 인프라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지속적 협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이 중진국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도시 복원력, 재난 대응체계, 빈곤층 서비스 접근성, 제도적 투명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도 일치한다(World Bank 2022; UNDP 2022).

[그림 Ⅱ-84] 필리핀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와 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독일, SDG 3번은 일본, SDG 16번은 미국이었다. 네 개의 SDG을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각 SDGs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33〉 SDGs 2, 3, 6,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6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62	49	6	47	208	372
프랑스	4	39	6	171	120	339
독일	28	28	15	38	60	169
일본	**301**	**713**	**114**	**1,319**	72	**2,520**
한국	136	256	15	224	12	642
미국	236	362	45	127	**288**	**1,057**
기타	135	68	41	21	132	397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2016년 이후 일본의 대(對)필리핀 개발협력은 농업·식량안보(SDG 2번), 보건·의료체계(SDG 3번), 물·위생(SDG 6번), 행정·재난·거버넌스(SDG 16번)를 핵심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JICA의 '필리핀에서의 JICA 협력'(JICA 2021)과 '연례보고서'(JICA 2022; 2023; 204) 및 MOFA의 ODA 평가보고서(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필리핀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도시 인프라 건설·공공행정 역량이 부족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므로, 일본은 사회·경제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함께 결합한 형태의 협력 접근을 구축해 왔다.

농업·식량안보(SDG 2번)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기반시설 구축, 가치사슬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JICA 2023; JICA 2024). 이는 농촌 빈곤층 생계 안정과 식량공급 체계 내구성 강화에 기여하며, 농업 부문의 단순 보조가 아니라 시장 기반 형성을 동반한 중장기 협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보건(SDG 3번) 협력은 의료시설 개선, 응급의료체계 구축, 모자보건·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JICA 2023). 이는 필리핀 보편적 의료

보장 추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 및 보건체계 관리 역량을 보완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다.

SDG 6번 분야는 필리핀 대도시·지방도시·취약지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시설 개선, 수질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JICA 2023; JICA 2024).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식수 오염·상수도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이는 보건·환경·지역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SDG 16번 분야는 JICA 협력의 차별적 영역이다. 일본은 재난위험관리(DRM) 체계 개선, 지방정부 역량 강화, 공공투자관리 고도화, 조달·프로젝트 관리 투명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JICA 2023). 2022-2024 JICA 보고서는 특히 재난관리훈련·홍수통제·재난정보체계 개선·지방행정 역량 발전 등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단순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재난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임을 보여준다(JICA 2022; JICA 2023; JICA 2024).

이외에도 일본은 도시·교통과, 재난회복력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메트로 마닐라 교통망·홍수방지·항만 인프라 등은 대표적 사례이며(JICA 2024), 이러한 구조는 도시취약성·재난취약성을 동시에 해소하고 경제 접근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은 단기적 물적 자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기반 형성 및 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unde, Bandura, and Baumunk 2019). 이는 필리핀의 경제구조 변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② 미국

미국의 대(對)필리핀 개발협력은 특히 보건(SDG 3번), 식량·영양(SDG 2번), 식수·위생(SDG 6번), 거버넌스·평화(SDG 16번) 영역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보여 왔다. 이러한 지원은 PDP 2023~2028이 제시하는 인적자본 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제도 신뢰도 제고라는 중점 과제와 밀접하게 정렬되어 있다(NEDA 2023).

SDG 3번 분야에서 미국은 일차의료 강화, '보편적의료보장법(Universal Health Care Act)' 이행 지원, 감염병 대응,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HRH2030 Philippines 사업은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하여 국가 보건인력 장기전략인 '2020~2040 국가 보건 인력 기본

계획(National Human Resources for Health Master Plan 2020~2040)'을 수립하고, 보건 인력 정보시스템과 인력 배치, 역량 개발, 유지 전략을 정비함으로써 보편적의료보장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DOH 2020; HRH2030 2020). 보건인력 배치 기준을 실제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산정하고 '업무량 기반 인력 소용 산정 지표(Workload Indicators of Staffing Need, WISN)' 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SDG 3.c 번인 보건인력 확대 목표와의 정합성을 보여준다(Aytona et al. 2022).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미국은 결핵 관리, 민간의료 연계, 진단 접근성 제고 등을 지원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결핵 혁신과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TB Innovations and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Project)'과 같은 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해당 사업은 결핵 진단 개혁과 지역 보건체계 강화 사례로 학술 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Calderon et al. 2022). 이와 같은 보건 분야 개입은 보편적의료보장법과 '국가 보건 목표(National Objectives for Health) 2023-2028'이 제시하는 일차의료 중심 보건체계 강화 방향과도 일관성을 가진다(DOH 2020; DOH 2023).

SDG 2번 분야에서 미국은 농업 생산성 제고, 식품 가치사슬 개선, 취약계층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SDG 2.1과 2.3번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PDP 2023~2028이 제시하는 농업 현대화, 농촌 소득 증대, 식량안보 강화 전략과도 연계된 개입이다(NEDA 2023). SDG 6번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BARMM)'지역을 포함한 취약지역의 안전한 식수·위생시설 접근성 확대, 수자원 관리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우선순위 국가 계획(Philippines High-Priority Country Plan)'에서 제시된 중점 방향과도 부합한다(USAID 2022).

SDG 16번 분야는 미국의 필리핀 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축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법치와 사법개혁, 선거제도 및 시민 참여, 지역 분쟁 영향지역(특히 BARMM) 거버넌스 안정화, 반부패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USAID 2020). 이러한 개입은 PDP 2023~2028이 제시한 제도 신뢰 향상, 분쟁 예방, 행정 역량 개선 목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NEDA 2023).

이 밖에도 미국은 경제성장·혁신, 기후변화·재난, 해양·생태계,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과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2020~2024'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 시장주도 성장 확대, 환경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필리핀 전략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혁신, 인프라 투자,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USAID 2020). 도시·기후 분야에서는 '도시 연결 (Urban Connect)' 등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회복력이 높은 도시 개발과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PDP 2023~2028의 인프라 확충과 기후 회복력 강화 전략과 정렬된다(NEDA 2023; USAID 2023). 해양·연안·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미국은 '산호초 어업 및 식량안보에 관한 상호 삼각지대 이니셔티브(Coral Triangle Initiative on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 CTI-CFF)' 등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연안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CTI-CFF 2017).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측면에서 미국의 지원은 정책 자문, 데이터·통계 역량 강화, PDP 작성 과정 지원, 다자협력 촉진 등 제도 전반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PDP 2023~2028은 감사의 글에서 USAID가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동원해 여러 부문 전략과 지표 설계에 참여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NEDA 2023), 브루킹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SDGs 연계 전략을 보다 넓은 국익 중심·SDGs 연계 개발협력 흐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Ingram and Pipa 2023). 이는 미국-필리핀 협력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을 넘어, SDGs 및 국가개발계획 전반의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이행 현황, 필리핀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Ⅱ-3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필리핀의 SDG 2와 9번 달성을 지원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개발'은 해당 SDG의 성과와 필리핀 정부의 관심이 모두 낮은 편이다. 그러나 타공여국의 지원은 SDG 2는 적고 SDG 9는 많은 편이다. 수요 재확인 유형과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SDG 6번 달성을 지원하는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분야 융합'은 해당 SDG의 성과는 높은 반면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즉, 선별적 관찰 유형이다. SDG 3번 달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은 해당 SDG의 성과는 낮은 반면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다. 즉,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SDG 16번 달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 확립'은 해당 SDG는 성과는 낮으나 필리핀 정부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지 않은 편으로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이다.

〈표 Ⅱ-3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개발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9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분야 융합	SDG 6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 확립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관점에서 SDGs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 사무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을 크게 개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의 세부적인 조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하던 세 번째 프로그램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소외지역의 모자보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SDG 16번과 연결된 마지막 프로그램의 경우는 필리핀 정부의 굿거버넌스 강화 기조에 발맞춰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ICT를 도구로 삼아 정부의 투명성 제고 또는 효율성 강화에 무게를 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CP 프로그램 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새로운 농촌 개발 지역을 대폭 늘리기 보다는 기존 사업지의 내실을 기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PDP 2023~2028에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 기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살피며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재 프로그램의 경우는 SDG 6번이 이미 2024년 진전 중인 목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성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물 정보화 및 홍수관리, 가뭄대응에 집중하여 기존 수자원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분야인 만큼 중복 투자를 피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현재 UNICEF,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등 다자기구와 진행 중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여 해당 협력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보편적 의료보장 법안 이행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며 다른 공여국이 간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하여 KOICA의 비교우위를 만들어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정부의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비중을 전략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거버넌스 및 서비스 전달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한국형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이 혁신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성공시켜 거버넌스 분야의 선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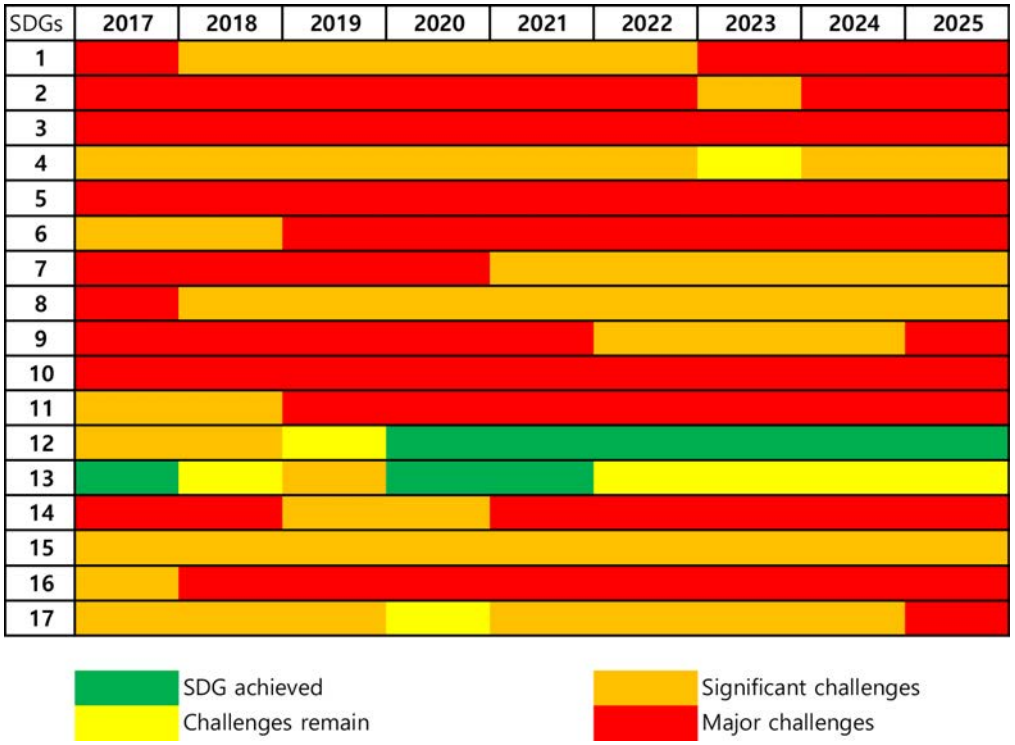
2. 아프리카 16개 협력국

1) 가나

(1) SDGs 이행 현황

가나의 SDGs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하위 수준의 성과 속에서 분야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Sachs et al. 2025). 가나는 SDG 이행 점수 63.1점으로 167개국 중 120위를 기록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글로벌 평균 68.6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SDSN 2025). 가나는 2015년 이후 SDG 이행 점수가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2022년 경제위기(식량·연료·재정의 삼중위기)로 인해 일부 지표에서 퇴보가 발생하였다. 특히 빈곤율 증가와 식량 안보 악화가 SDG 1.2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Ayisi-Quartey 2025). 한편, UN HLPF에 제출한 VNRs에 의하면 가나는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과 일부 성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적자본 개발 및 환경 분야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는 한 SDGs 달성에는 상당한 도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Ⅱ-85] 가나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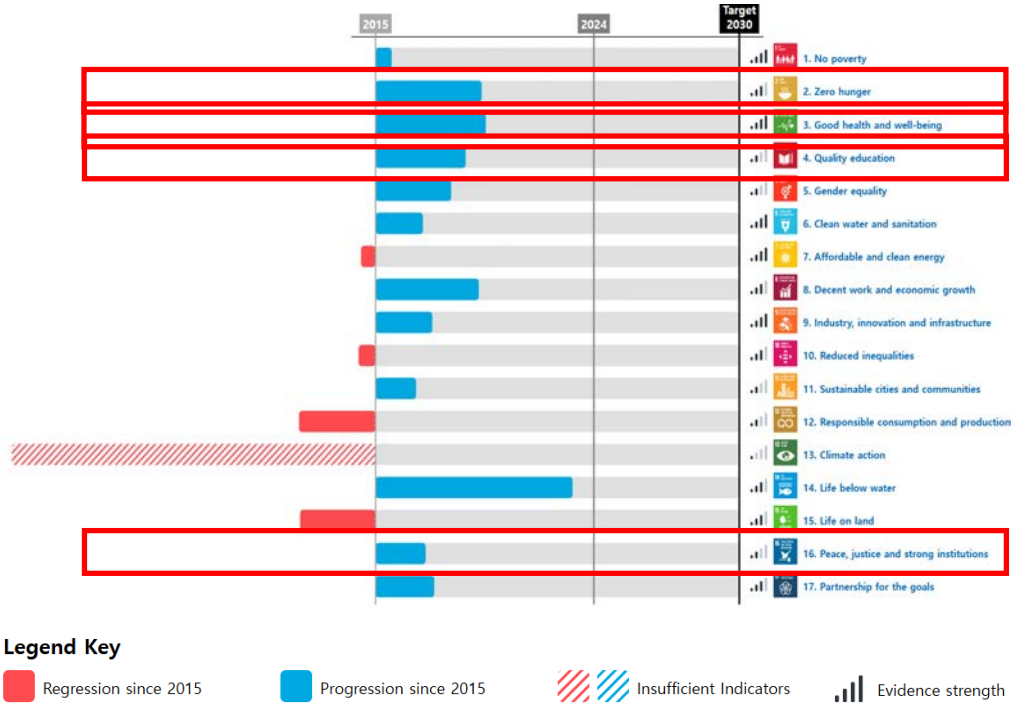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나는 대부분의 SDGs는 심각한 도전 또는 중대한 도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곤, 보건, 위생, 교육, 불평등 등 기초 사회개발 분야는 장기간 적색 또는 주황색 구간에 머물며 개선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생산, 기후행동 등 일부 목표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 혹은 안정적 개선 신호가 관찰된다.

한편 VNRs 및 관련 국가보고서를 종합하면, 가나는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실제 성과는 재정 제약, 경제위기, 기후변화,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22~2023년 경제위기는 빈곤 증가, 식량 안보 악화, 재정 여력 축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SDGs 이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최근 지표 정체 및 일부 후퇴로 나타난다. 동시에 보건·교육 접근성 확대, 전력 보급, 제도적 민주주의 유지 등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어, 가나의 SDG 이행은 제도적 진전과 성과 간 괴리가 존재하는 '혼합적(mixed) 이행 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UNDP 2023).

한편,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86]과 같다. 대부분 목표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일부 지표에서는 후퇴 양상도 확인된다. 이는 앞서 Sachs et al. (2025)과 VNRs에서 제시된 결과와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86] 2024년 가나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2019년, 2022년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UN HLPF에 제출한 VNRs에서의 가나의 SDGs 이행은 최근 수년간 사회적 기초 서비스 확충과 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축적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아동 및 신생아 사망률의 지속적 감소[20],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 확대,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률 증가 등 모자보건 지표의 뚜렷한 개선[21]이 확인되며, 이는 보건 시스템 접근성과 서비스 질의 동시적 향상을 시사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 교육 단계에서 성별 격차가 사실상 해소되고, 무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을 통해 중등 및 기술교육 참여가 확대되는 등 인적자원 개발 기반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전력 접근성 및 식수 이용률 증가 등 기초 인프라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모바일 금융 확산과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는 경제·사회 전반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정, 사법 접근성 개선, SDG 지표 관리 체계

20)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2003년 1,000명당 111명에서 2017년 56명, 2022년 40명으로 개선되었고, 신생아 사망률 역시 같은 기간 43명에서 17명으로 감소 (NDPC, 2019, 2022, 2025)

21)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분만 비율이 2016년 55.5%에서 2022년 87.6%로 크게 상승하고,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87%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자보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 (NDPC, 2025)

확장 등 거버넌스 및 데이터 역량이 강화[22]되었으며, 이는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실행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며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회복력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나는 전반적으로 제도적 진전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점진적 발전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35〉 가나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SDG3	• 5세 미만 및 신생아 사망률의 지속적 감소 •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분만율 급증 (2022년 87.6%) •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NHIS) 모바일 앱 도입 등 의료 디지털화 진전	• 산모 사망률 감소세가 더뎌 SDG 목표치의 4배 상회 • 숙련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및 해외 유출
SDG4	• 유치원~중학교 단계의 성비 균형(Gender Parity) 달성 및 유지 • '무상 고등학교(Free Senior High School)'를 통한 중등교육 접근성 확대	• 기초 교육 단계의 영어 및 수학 숙련도 저하 문제 • 고등 교육 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료율 및 인프라 부족
SDG6	• 개선된 식수원 접근성 90% 이상 달성 (2021년 92.2%) • 통합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체계 강화	• 야외 배변 근절 이행 속도가 미진함 • 불법 소규모 광업(Galamsey)으로 인한 주요 수계의 수질 오염 심화
SDG7	• 전국 전기 보급률의 획기적 향상 (2017년 81.1% → 2024년 89%) •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및 탄소 시장 참여	• 북부 지역의 낮은 전기 접근성 등 지역 간 격차 지속 •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요리용 연료로 목재/숯에 의존
SDG 16·17	• 알 권리 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 Act) (2019) 및 적극적 조치법(Affirmative Action Act) (2024)[23] 통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계 역량강화로 추적 지표 확대 (2019년 66개 → 2025년 105개)	•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 인식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됨 • SDGs 달성을 위해 연간 약 430억 달러의 막대한 재원 격차 존재

자료: NDPC 2019, 2022 및 2025 활용하여 재구성

가나는 교육과 에너지 보급 등 기초 서비스 분야에서 보편적 수준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모 사망률과 위생(야외 배변) 문제는 여전히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데이터의 적시성 및 세분화 부족은 정책 설계와 성과 모니터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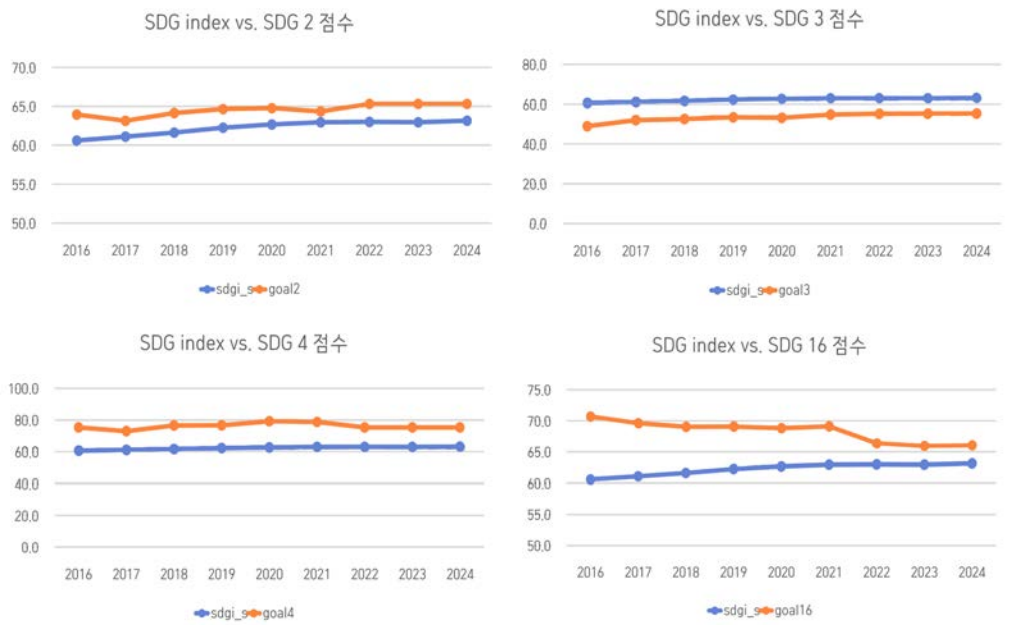
22) VNRs에서 다루는 지표 수가 2019년 66개에서 2022년 102개로 증가하는 등 가나 통계청(Ghana Statistical Service, GSS)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

23) (RTI Act) 가나 국민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단체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 (Affirmative Action Act)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오래 기간 소외되어 온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의무 할당제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낮은 세수 기반과 높은 공공부채로 인해 SDGs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년층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고용/훈련에 미참여하는 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 측면에서는 불법 광산 활동에 따른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폐기물 증가 등 문제가 지속되며, 기후변화 취약성과 결합하여 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이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는 SDGs 이행 기간이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급효과가 큰 5대 고영향 세부목표(High-Impact SDG Targets)로 SDG 16.6, 8.5, 4.1, 6.2, 7.3번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과 재원을 집중하여 SDGs 이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NDPC 2025).

한편, KOICA 가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성 및 가치사슬 강화',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강화'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2, 3, 4,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87] 가나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가나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3번을 제외한 SDG 2, 4,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우선 SDG 2번의 경우, 점수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 기간에 걸쳐 가나의 이행 점수를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식량 및 영양 관련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SDG 3번은 완만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 동안 이행 점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가나의 전반적 발전 수준 대비 보건 분야의 상대적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SDG 4번은 전반적으로 이행 점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2021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관찰되며 점차 이행 점수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는 이행 점수 대비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의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경우 중기적으로 평균 수준에 수렴하거나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은 초기에는 이행 점수 대비 뚜렷한 초과 성과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1~2022년 사이 비교적 큰 폭의 감소가 관찰된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이행 점수와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추세상 중장기적으로 이행 점수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가나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가나 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은 2019년, 2022년, 2025년 세 차례의 VNRs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성과를 기반으로 SDGs를 국가 발전계획과 정렬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상 고등학교 도입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기금 조성 등 주요 정책 성과가 강조되었다. 2022년 VNR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발표되면서 보건·교육·식수 접근성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SDG 지표 보고 범위 확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식량 가격 상승, 재정 부담 증가, 공공부채 확대 등 구조적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으며, 2025년 VNR에서는 '식량·연료·재정의 삼중 위기' 이후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 빈곤, 청년 실업, 모성 사망률 등 사회적 지표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보다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으로 '원조를 넘어선 가나(Ghana Beyond Aid, GBA)[24]' 비전은 SDGs를 국가 발전에 내재화하는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원조 의존

24) 가나가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8년 아쿠포아도

구조에서 벗어나 세수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자립적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시에 SDGs는 국가 최상위 정책 프레임워크인 경제·사회 발전 정책 통합 프로그램(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CPESDP) 및 중기 국가개발정책 기본방침(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MTNDPF)과 같은 중기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부문별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되며, 중기 지출 기본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을 통해 실제 예산 배분으로 이어지는 정책-계획-예산 간 통합적 이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과 일자리를 위한 재배 2.0(Planting for Food and Jobs 2.0)[25]' 및 '가나 지원 프로그램(Feed Ghana Programme)'[26], 환경 대응을 위한 '그린 가나(Green Ghana)' 캠페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IMF 프로그램 참여 및 통합국가재원조달체계(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INFF) 구축, 그리고 사회 보호 확대 정책 등이 병행 추진되며, 이는 경제·사회·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다층적 정책 대응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5년 VNR 보고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책 방향은 고영향(High-impact)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SDG 16.6, 8.5, 4.1, 6.2, 7.3번 등 상호 연계성이 높은 고영향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과 재원을 집중하는 한편, '빅 푸시(Big Push)' 이니셔티브[27]를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화 전략을 병행하여 경제 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G 촉매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다자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및 디지털 공공 인프라 확장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2070년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 번영 계획(Climate Prosperity Plan, CPP)'을 통해 녹색 전환과 경제성장을 결합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

(Akufo-Addo)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적 비전이자 전략적 프레임워크임. 다만, 2025년 출범한 마하마 정부는 GBA를 공식적으로 계승하지 않고, "Resetting-Ghana Agenda" 및 24시간 경제(24H+) 프로그램을 내세움.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두 정책이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분석함(Donkor, 2025)

25) 정부의 농업 현대화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인 투입재 보조금에서 체계적인 시장 구조와 연계된 스마트 농업 투입재 신용 시스템(ICS)으로 전환하고, 개량된 투입재의 활용을 강화하여 생산성과 생산량을 높이며,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업적 농업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 회복력 및 수출을 개선하고자 함(https://mofa.gov.gh/site/index.php/feed-gh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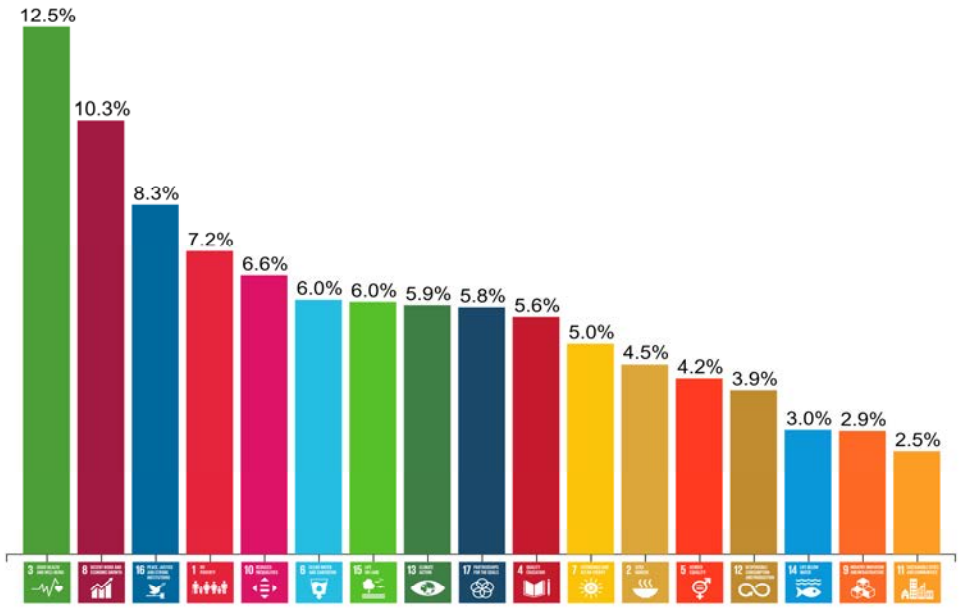
26) 정부의 4개년 핵심 농업 프로그램으로, 가나의 농업 부문 변혁을 가속화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생산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https://mofa.gov.gh/site/index.php/feed-ghana)

27) "빅 푸시(Big Push)"는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나의 100억 달러 규모 5개년 국가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국 16개 지역 전반에 걸쳐 도로, 철도,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중대한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https://presidency.gov.gh/president-mahama-unveils-major-road-infrastructure-boost-for-western-north-region-under-big-push/)

(Metropolitan, Municipal and District Assembly, MMDA)의 재정과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발적 지역 검토(Voluntary Local Reviews, VLRs) 확대와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통해 SDGs 이행을 지역 단위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SDG Mapper를 통해 분석한 3개년 VNRs 키워드 빈도 분석은 SDG 3, 8, 16, 1, 10, 6번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나의 SDGs 이행 전략과 정책적 우선 순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SDG 3, 8, 16, 1, 10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서술상의 편중이라기보다 가나 정부가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이다. SDG 3번은 모성 사망률 감소, 보편적 건강 보장 확대 등 VNR 전반에서 핵심 성과 및 과제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SDG 8번은 'Agenda for Jobs' 및 산업화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최우선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SDG 16번은 국가개발전략 및 GBA 비전에서 핵심 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실행력과 재원 동원 구조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SDG 1과 10번 역시 다차원적 빈곤과 지역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서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88] 가나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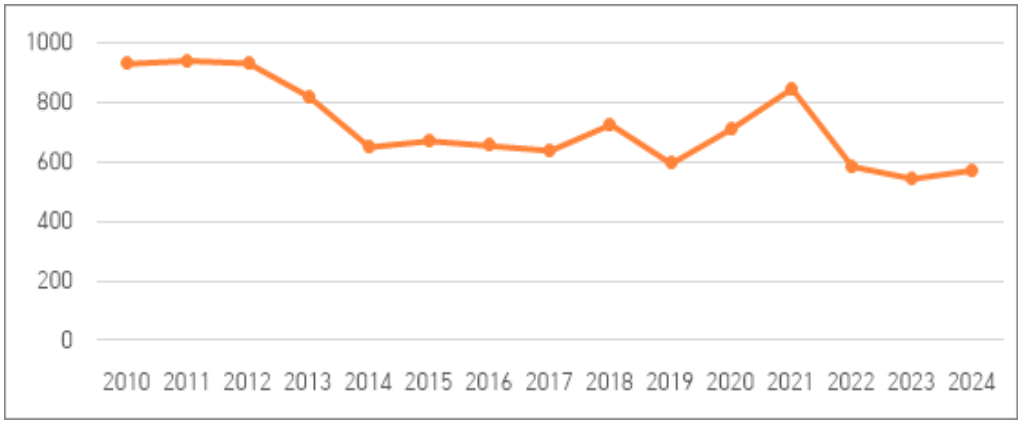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출범한 가나 지원 프로그램은 주요 농산물의 국내 생산 확대, 농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도입을 핵심 축으로 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가 재정 지원과 MTNDPF 2026~2029를 통해 기후적응형 농업 및 농촌 시장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MoFA 2025). SDG 3번과 관련하여서는 모성 사망률 제로 선언과 함께 보편적 건강보장의 단계적 확대, 1차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기반 보건 계획 및 서비스(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CHPS) 재활성화, 디지털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NHIS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건 혁신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NDPC 2025). SDG 4번에서는 취학 이탈 아동 재통합,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산업 연계 강화, STEM 및 디지털 교육 확대, 교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포용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는 인적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연계성 강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접근으로 이해된다(The Borgen Project 2025). 마지막으로 SDG 16번과 관련하여, 국가반부패행동계획(National Anti-Corruption Action Plan, NACAP II) 이행, 사법 및 행정의 디지털화, 출생등록 확대, 지방정부 책무성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MTNDPF 2026~2029에서 SDG 16.6번을 핵심 우선과제로 명시함으로써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고 있다(UN Ghana 2025; APRM 2025).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가나의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기적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2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이는 가나가 2011년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면서, ODA 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된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에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및 보건 사회 분야 ODA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이후에는 지원 규모가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가나가 2022년 말 채무불이행을 선언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IMF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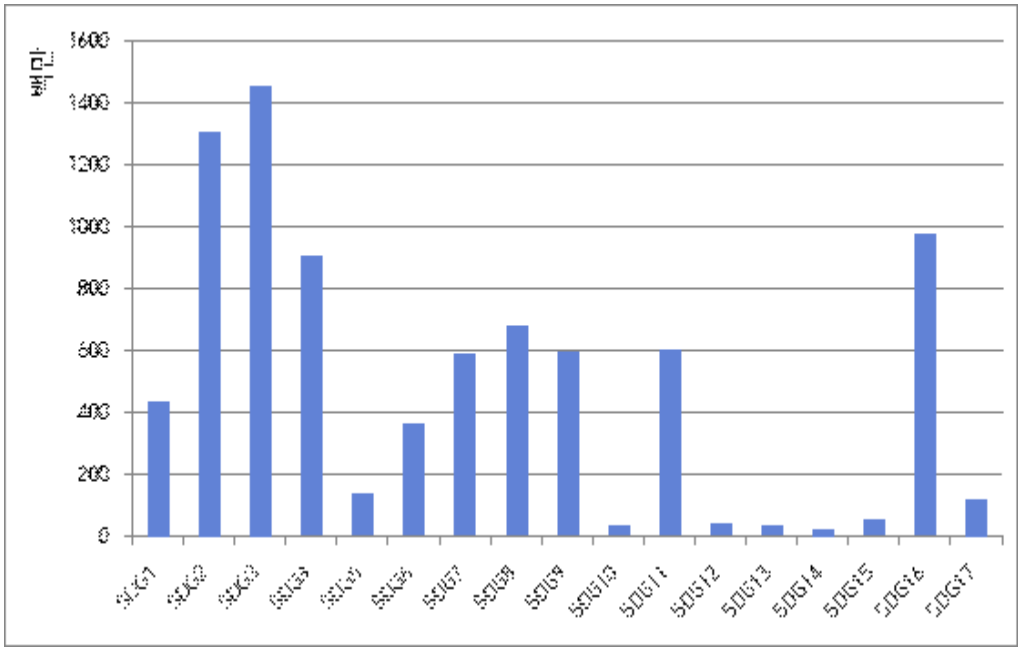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DAC 회원국의 가나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SDG 3번이 17.5%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뒤로 2번이 15.7%, 16번이 11.7%, 4번이 10.9%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전체 지원액의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89] 가나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그림 Ⅱ-90] 가나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 DAC 회원국 지원액을 살펴보면, 각각 SDG 2번은 미국, 캐나다, 일본, 3번은 미국, 영국, 덴마크, 4번은 미국, 영국, 독일, 16번의 경우는 독일, 덴마크, 영국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개 목표의 합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으며, 미국의 지원이 약 37%, 영국이 14%, 독일이 11%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은 6번째로, 4개 목표 합계 대비 3% 정도 수준이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25.4%는 SDG 3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7번에 24.1%, SDG 6번에 21.6%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36〉 가나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캐나다	279	62	20	116	476
덴마크	8	108	7	213	337
프랑스	52	28	27	55	162
독일	73	9	175	240	498
일본	90	98	54	5	248
한국	25	70	34	4	133
네덜란드	66	96	0	7	170
영국	35	233	260	139	667
미국	634	713	262	110	1,718
기타	42	37	59	84	222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의 對 가나 ODA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 협력 축 중 하나로 기능해 왔으며, 2015~2024년 기간 동안 약 1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건, 농업, 교육, 거버넌스 등 핵심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구조적 영향을 미쳐왔다(The High Street Journal 2025). 특히 2024회계연도 기준 약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집행되었다(USAFACTS n.d.). 분야별로 보면, 보건은 PEPFAR와 PMI 등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HIV/AIDS 대응, 말라리아 예방, 보건시스템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농업·식량 안보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식량(Feed the Future)을 통해 소농 생산성 향상과 시장 접근성 개선이 추진되었다(IFDC n.d.). 교육에서는 교육 책무성 강화(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Ghana's Education System, SAGES) 등 교원 역량 강화와 여학생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U.S. Embassy in Ghana 2023; Batoma 2025).

한편, 2025년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변화에 따른 원조 동결 조치와 2025년 7월 USAID의 공식 폐쇄로 가나는 재정 공백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약 7,800만 달러의 결손이 발생하면서 HIV 치료, 말라리아 예방, 모성보건 등 핵심 공공서비스 제공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직접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The Presidency, Republic of Ghana 2025). 동시에 가나는 채무 재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MCC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에너지 인프라 지원도 중단되었다(Adeyemi 2025).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재원 감소를 넘어, 기존의 프로그램 기반 협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미국은 기존 USAID 체계를 대체하는 'America First 글로벌 보건 전략'을 통해 조건부 양자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가나와의 협상은 데이터 주권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6년 최종 결렬되었다. 특히 미국 측이 보건 데이터의 해외 저장 및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은 가나의 데이터 보호법과 충돌하면서 협력 지속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현재 미국-가나 간 보건 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단기간 내 과거 수준의 지원이 복원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UN 체계와의 협력 확대, 국내 재원 동원 강화, 민간 재단과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재원 공백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News Ghana 2026).

② 영국

영국의 대가나 지원은 식민지 시기 이후 형성된 역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핵심 양자 협력 축 중 하나로, 지난 약 20년간 누적 28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을 통해 가나의 사회·경제 발전과 제도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2011년 가나가 하위 중소득국으로 전환된 이후, 영국의 지원 전략은 전통적인 재정 이전 중심의 원조에서 점차 경제 거버넌스, 민간 투자 촉진, 제도 역량강화 중심의 구조적 접근으로 재편되었다(ICAI 2020). 특히 2023년 영국-가나 개발 파트너십(UK-Ghana development partnership)에 따르면, 영국은 국제개발전략(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DS) 및 2023 통합검토서(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IR23)에 따라 가나와의 협력을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닌 장기적·체계적 구조개혁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의 거시경제 안정, 민간주도 성장, 그리고 제도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나는 지난 수십 년간 빈곤 감소와 민주주의 정착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재정위기와 부채 부담,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단기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경제·제도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FCDO 2023).

분야별로 보면, 영국의 지원은 크게 경제 전환, 인간개발, 거버넌스, 기후·환경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경제 및 제도 개혁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수 개혁, 투자 환경 개선, 수출 중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가나의 '원조 의존 탈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조세 협력과 세정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국은 IMF 프로그램 이행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탄소시장 및 농업 기반 기후 대응 사업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간개발 분야에서는 보건·교육 시스템 개혁과 사회보호 체계 구축이 병행되며, 특히 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원조를 넘어선 파트너십(Partnerships Beyond Aid, PBA)'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LNOB)' 프로그램은 보건·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선거 관리, 반부패, 국경 안정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나의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대외원조 정책 변화는 가나에 대한 지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ODA/GNI 0.7% 목표에서 2021년 0.50%로 비율을 낮추었으며, 향후 2027년부터는 0.3% 수준까지 추가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FCDO의 다년 재원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ODA 규모가 약 31% 감소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ODA는 2024~2025년 대비 최대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FCDO 2026; Cohrs 2026). 이와 동시에 영국은 ODA 감소를 단순한 축소가 아닌 '개발협력 방식의 전환'으로 설명하며, "원조에서 투자로(from aid to investment)"라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자개발금융기관(예: IDA, AfDF)을 통한 간접 지원 확대,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 시스템 역량강화로의 전환, 보조금 중심에서 기술지원 및 정책 자문 중심으로의 변화, 그리고 국제 주도 개입에서 현지 주도 해법으로의 이동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가나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ODA 감소에 따른 재원 공백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종합하면, 영국의 대가나 ODA는 2015~2024년 기간 동안 제도적·구조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나, 최근의 급격한 재정 축소와 전략 전환은 가나의 SDGs 이행, 특히 보건·교육과 같은 인간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나 정부는 다자 파트너십 확대 및 국내 재원 동원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37〉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성 및 가치사슬 강화	SDG 2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강화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SDG 16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성 및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은 가나의 SDG 2번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의 SDG 2번의 이행 수준은 양호하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낮게 나타나며, 대신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으로, 이러한 특성은 해당 분야가 이미 일정 수준의 발전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KOICA의 개입이 단순한 자원 투입 확대보다는 전략적 재조정이 요구되는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나 정부는 최근 가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 수준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하게 될 경우 기후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등 차별화된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은 가나의 SDG 3번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모두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SDG 3번 이행 수준이 제한적인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다. 이는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보건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행력 부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나 정부는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와 CHPS 강화, 모성사망률 감소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관찰하기에도 높은 가시성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가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 CHPS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

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모자보건 중심 지원에서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 대응을 포함한 기초보건 역량강화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보건 분야의 경우 단순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운영체계와 인력 역량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되며, 정책 실행력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강화' 프로그램은 가나의 SDG 4번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의 SDG 4번에 대한 이행 수준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높지 않게 나타나며, 따라서 유형으로는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또한 다른 협력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교육 자체보다는 산업화, 양질의 일자리,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 정부는 직업기술교육 훈련 강화, STEM 교육 확대, 디지털 역량 제고 등을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OICA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STEM 교육사업을 향후 교육 분야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수준의 STEM 교육은 다른 공여기관과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가나 내에서도 높은 가시성과 정책적 관심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사 역량강화, 교수법 개선, STEM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질적 개선과 함께 직업기술교육 훈련 및 산업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학습성과와 취업 연계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OICA가 추진 중인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은 SDG 16번을 지원한다. 가나의 SDG 16번은 이행 수준이 높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도 많은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이다. 전자정부, 세무행정, 공공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가나 정부의 핵심 정책과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 성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투명성, 책임성, 국민 체감도 등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거버넌스 분야가 이미 일정 수준의 제도적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분야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가나의 SDGs 이행 환경은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농업과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지원 방식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향후 KOICA

는 기존 중점 분야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탄소 감축과 같은 신규 협력 분야를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가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28]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 예를 들어,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 산림복원,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사업은 SDGs 달성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와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나는 하위 중소득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원조 의존도가 높지 않은 만큼, 향후 협력은 기초 서비스 제공 중심의 전통적 원조를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투자 촉진, 기후금융 활성화 등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가나의 'Ghana Beyond Aid' 비전과도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 방향이 될 것이다.

28) 2026년 3월 11일 한-가나 정상회담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https://www.yna.co.kr/view/AKR20260311086400001)

2) 나이지리아

(1) SDG 이행 현황

2020년과 2025년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간한 제2차 및 제3차 VNR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SDG 의제가 채택된 2015년 이후 이행을 위하여 국내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 등 SDG 달성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SDG 이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고 '중기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2021-2025' 및 '나이지리아 아젠다(Nigeria Agenda) 2050' 등 여러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OSSAP-SDGs 2025). 다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가시적인 개선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지표는 후퇴하는 등 향후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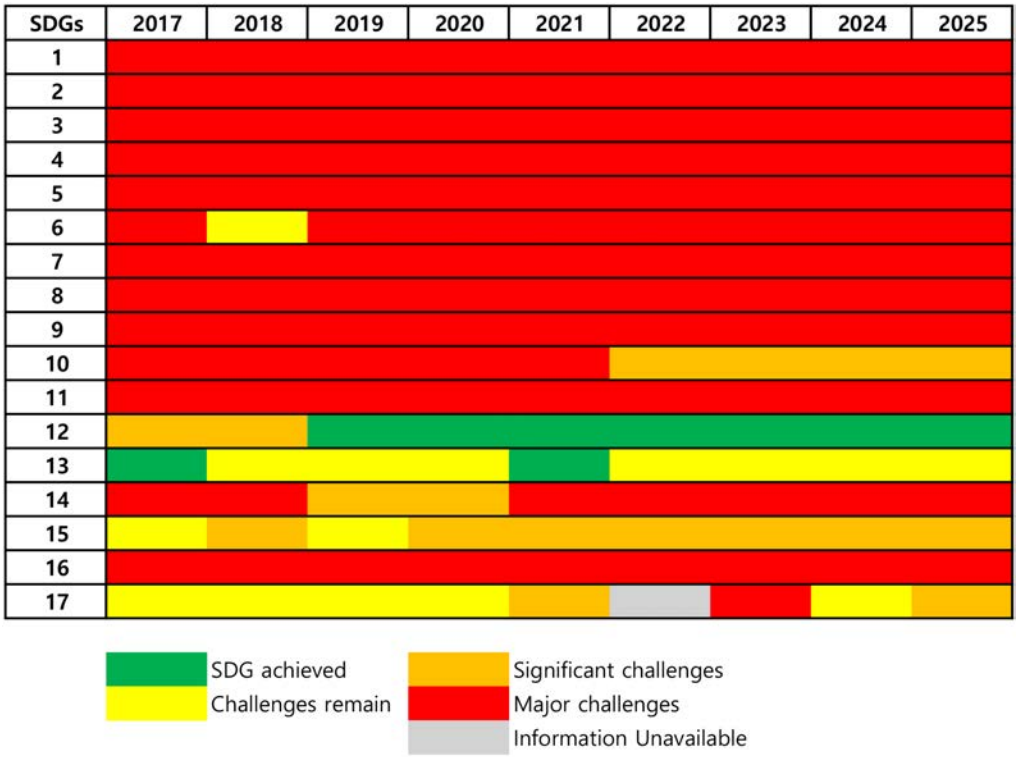
먼저 SDG 4번 관련, 2020년 VNR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교육 부문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로 공립 및 사립학교 미취학아동, 특히 여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참여율 증가를 꼽았다. 그러나 2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지역에 따라 교육 수준의 격차가 매우 커 이에 따른 상이한 조치가 필요하였다(OSSAP-SDGs 2020).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지역 아동의 78%가 문장을 전부 또는 일부 읽을 수 있는 반면, 북동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불과 17%에 그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연령의 아동 중 1,0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학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GDP의 1.6%에 그치는 등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체 진단하였다.

아울러 SDG 16번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는 SDG 달성을 위하여 평화, 정의 구축, 그리고 책임성 있는 제도가 부재하는 경우 자국의 SDG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OSSAP-SDGs 2020).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현재 이러한 평화, 제도개선 등의 측면에서 대폭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내 부패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공직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뇌물을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비율은 2016년 32.3%에서 2019년 30.2%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언론인과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이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위협받거나 공격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SDG 16번과 관련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OSSAP-SDGs 2020).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나이지리아는

[그림 Ⅱ-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이후 진척을 보였던 목표는 SDG 12번이 유일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의 경우 변화가 없거나 지표 달성 정도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SDG 목표들의 달성 점수를 나타내는 SDG 이행 점수들도 2017년 52.7점에서 2024년 54.7점으로 단 2점 상승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대폭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SDSN 2025).

[그림 Ⅱ-91] 나이지리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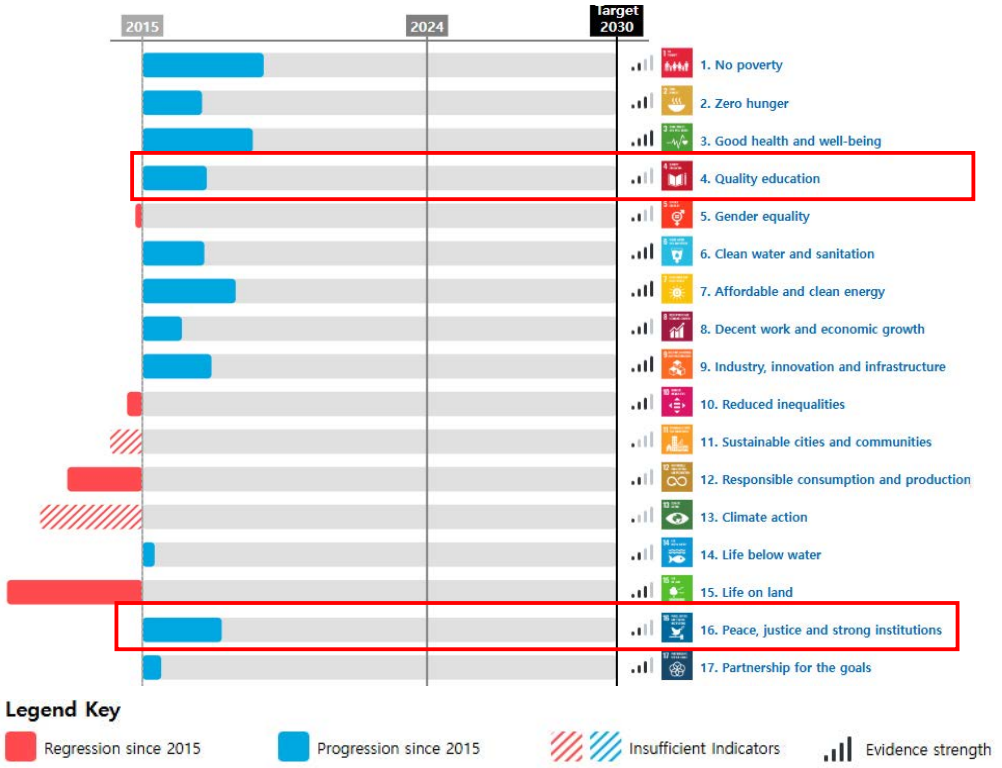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나이지리아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및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 강화'이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SDG는 각각 SDG 4번과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2015년 이후 SDG 5, 10, 12, 15번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고 11번과 13번의 경우는 충분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외의 목표들은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SDSN에서 발표한 목표별 양상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세부목표 수준에서 살펴보면, SDG 4번의 경우 SDG 4.5번에서는 일부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SDG 4.3번과 4.c번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여타 세부목표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성과 측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SDG 4번이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제한적이다. 한편, SDG 16번의 경우, 16.6번과 16.7번에서는 일부 진전이 관찰되었으나, SDG 16.2번과 16.3번에서는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6.1번과 16.5번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SDG 16번 역시 일부 세부목표에서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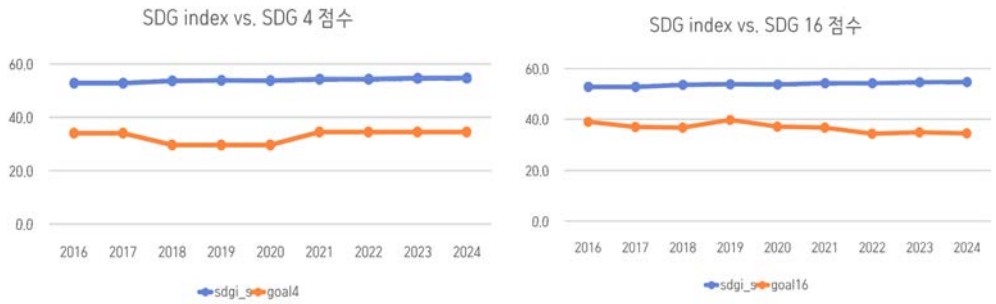
[그림 Ⅱ-92] 2024년 나아지리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나이지리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았다. SDG 4번과 16번의 성과를 SDG 이행 점수와 비교해보면, [그림 Ⅱ-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번과 16번의 점수는 나이지리아의 SDG 이행 점수보다 모두 낮아, 전반적인 국가의 SDG 성과 대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93] 나이지리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나이지리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나이지리아는 2015년 UN SDGs 채택 직후 대통령실 산하에 'SDG 담당 대통령선임특별보좌관실(Office of the Senio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on SDGs, OSSAP-SDGs)'을 설치하여 SDG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다. OSSAP-SDGs는 정부 간 수직·수평적 조정, 다부처 통합 SDG 달성을 위한 정책 기획,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 재원 동원, SDG 의제에 관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활동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36개 주정부와 수도지역 모두 동일한 조직 및 제도적 구조를 채택하게 해 지방 단위까지 유사한 거버넌스를 확장하였다(OSSAP-SDG 2020).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정부는 SDG를 국가 개발 프레임워크에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우선 나이지리아의 정책적 비전인 '나이지리아 비전(Nigeria Vision) 2020'을 SDG의 목표들과 정합시키고, 중기 전략으로는 '경제회복성장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ERGP) 2017-2020'을 수립하여 SDG를 부문별 계획과 연방 예산에 반영하였다(나이지리아 정부, 2020). 이후에도 후속 중기계획인 'NDP 2021-2025'과 장기 비전인 '나이지리아 아젠다(Nigeria Agenda) 2050'을 수립하면서 SDG의 정책적 통합을 심화하였다(OSSAP-SDGs 2020).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UNDP 및 EU와 협력, '통합 국가재원조달 프레임워크(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INFF)'를 출범하여 SDG 달성을 위한 재원 동원 전략을 체계화하기도 하였다(OSSAP-SDG 2025).

SDG 4번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ERGP 2017-2020과 NDP 2021-2025에서 보편적 기초교육 보장, 교원 역량강화, STEM 교육 투자 확대, 여아 및 취약계층 아동 교육 우선 지원을 정책 골자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주 정부-민간 간의 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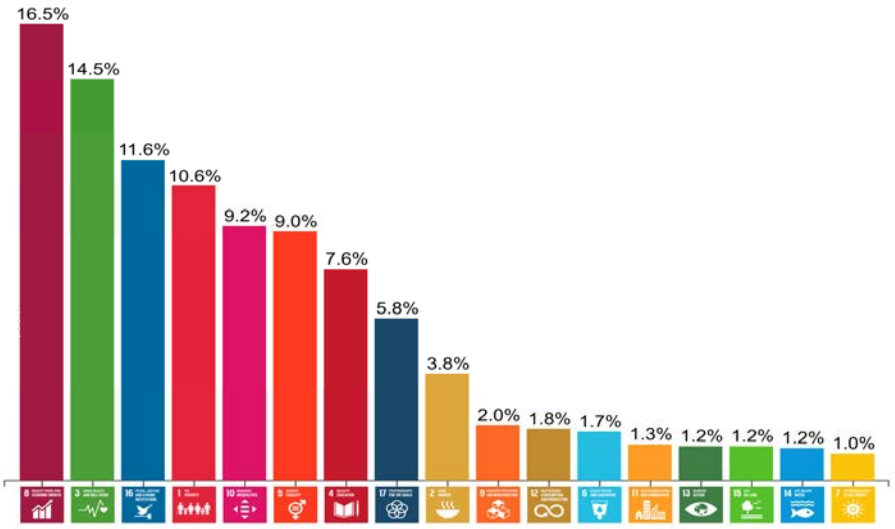
통한 직업기술교육 기관 확충, 국가교사연수원을 통한 최소 자격 보유 교사 양성, 고등교육 기금을 활용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이 명시되었고, 학교급식 프로그램 및 청소년 여아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순출석률은 2016년 60.9%에서 2021년 68.4%로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순출석률은 같은 기간 정체되거나 초중등교육 완료율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일부 지표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학교 밖 아동 수의 지속적 증가, 여아 조혼 등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자체 평가하였다(Federal Republic of Nigeria 2017; OSSAP-SDGs 2025).

한편, SDG 16번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단순한 분야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북동부 보코하람 분쟁지역의 인도적 지원, 재정착 및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주에 최소 1개 여단 배치를 통한 국가안보전략 이행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를 위하여 단일재정계좌 도입을 통한 재정 자금 누수 차단,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시행, 정보공개법 집행, 전 정부부처에 반부패·투명성 제고 부서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OSSAP-SDGs 2020). 그 결과 5세 미만 아동의 출생등록 비율은 개선 추세로 돌아섰으나,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와 성폭력 피해 인구 비율은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북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만성적 부패, 약한 제도적 책임성 및 부실한 공적자원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체 진단하였다(OSSAP-SDGs 2020).

이처럼 나이지리아는 대통령실 직속 SDG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정교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SDG를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에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핵심 성과지표들이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SDG 4번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아동 문제와 SDG 16번의 치안·부패 문제가 도전 과제로 지속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나이지리아 정부는 SDG 1, 3, 8, 16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목표 중 상위 50%),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16번에 해당하여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Ⅱ-94] 나이지리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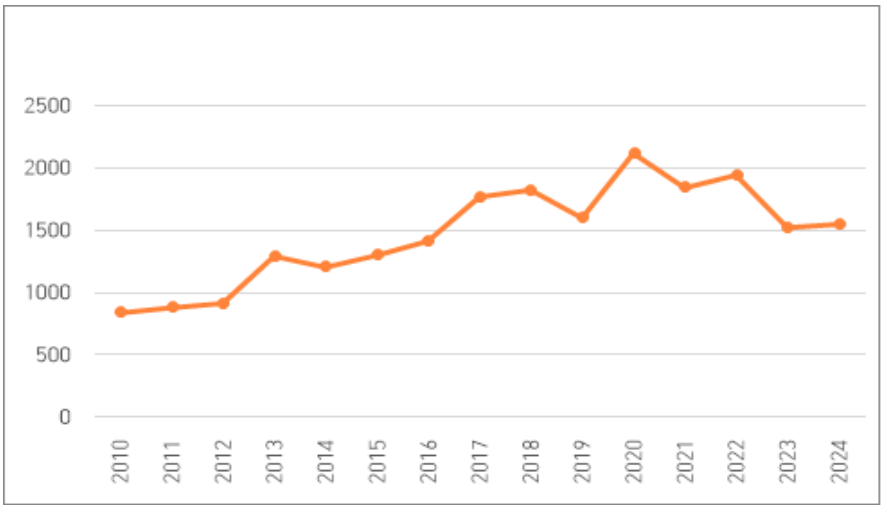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나이지리아에 대한 ODF 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에 소폭 감소해 2010년대 후반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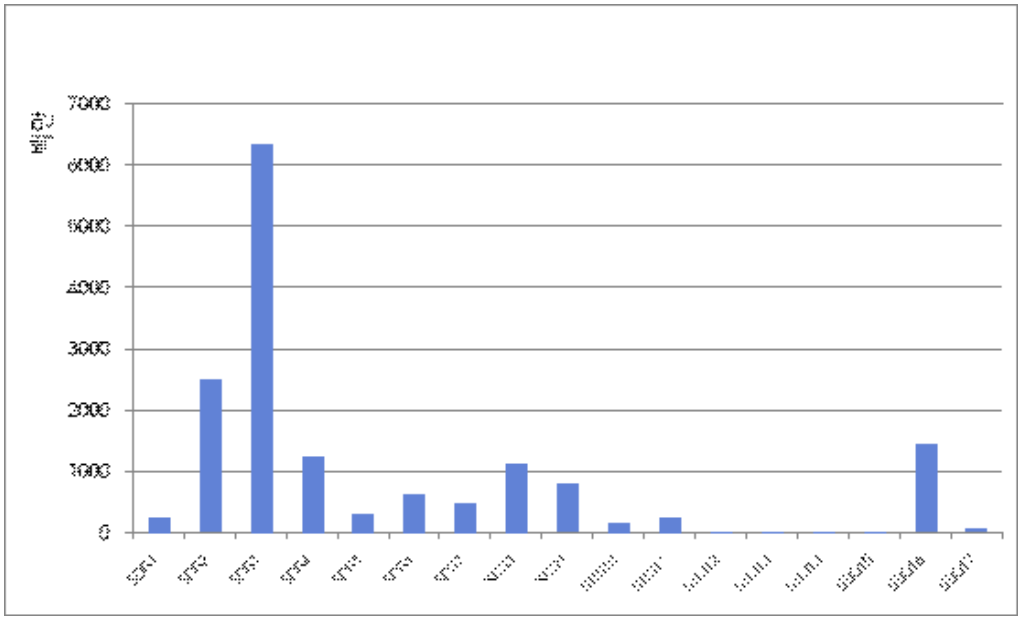
[그림 Ⅱ-95] 나이지리아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나이지리아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았을 때는 SDG 3번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이었고, 이외에는 SDG 2번이 해당하여, SDG 2번과 3번이 상위 50%를 차지하였다.

[그림 Ⅱ-96] 나이지리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SDG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CP 프로그램 목표인 SDG 4번과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었다. 한편 SDG 4번에 대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는 국가는 독일이었으며, SDG 16번의 경우 미국이었다. 두 목표의 총 지원금액 합계를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영국, 그 다음은 미국이었음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영국과 미국이 각 SDG 목표별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38〉 나이지리아 SDG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17	2	19
캐나다	15	23	38
프랑스	60	6	66
독일	271	84	355
일본	43	15	58
한국	27	9	37
스위스	3	17	20
영국	514	796	1,310
미국	206	409	616
기타	83	63	146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영국

2023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영국 ODA의 여섯 번째로 큰 협력국으로, 1억 파운드 이상이 배정되는 등 영국 ODA에서 주요한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영국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동시에, 대륙 내 경제 규모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협력을 지속해왔다(UK Parliament 2026). 영국의 FCDO는 안보·국방, 이주, 사법,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이지리아 정부와 정례적인 양자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전반적으로 나이지리아의 국가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모든 지원의 기반에는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핵심 요소로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SDG 4번과 관련하여, 영국은 나이지리아 교육 지원을 위하여 'Partnership for Learning for All in Nigeria(PLAN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영국의 FCDO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학교 밖 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보코하람 분쟁에 직접 노출된 북부 5개 주의 약 800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교육사업이다. 특히 이러한 아동 중에서도 여아와 장애 아동 같은 교육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역량과 효율성 제고, 학습 평가체계 구축, 교육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소외 아동 포용 등 다양한 활동을 개진하고 있다(Plan International Nigeria 2026). 이와 함께 영국은 LINKS 등 북부 경제성장 프로그램 등에서도 여아의 디지털 역량과 직업훈련 접근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음 SDG 16번과 관련, 영국은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SPRiNG(Strengthening Peace and Resilience in Nigeria) 프로그램(2024-2028)'을 지원하고 있다(SPRiNG Nigeria 2026). 해당 프로그램은 분쟁 예방 및 해결,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거버넌스, 자연자원관리,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및 근거 기반 학습을 골자로 하는 4개년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영국은 영국문화원을 통해 EU 자금을 활용, 'Managing Conflict in Nigeria' 사업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의 평화구축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종합하여 영국의 나이지리아 지원은 다음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부 분쟁지역에 대한 집중 투입이다. PLANE, SPRiNG 프로그램 등은 모두 북부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있어 교육과 평화, 거버넌스를 연계하고 있다. 둘째, 여아,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사업의 우선순위 수혜자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 개혁을 모든 부문 사업의 토대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교육 지원에서도 단순한 시설 및 교사 투입보다는 교육 부문 거버넌스 개선을 PLANE 프로그램의 결과로 삼는 등 모든 사업에서의 거버넌스 강화를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영국은 2020년 이후 ODA 예산을 GNI 0.7%에서 0.5%로 축소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난민 비용에 대한 ODA 자금 지출, 국내 국방 예산 증대 등으로 실질 가용 재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업의 연속성과 규모 확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② 미국

2024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미국 ODA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약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가 배정되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에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은 상위권 협력국으로 자리해왔다(USAFacts 2026). 미국은 나이지리아를 서아프리카 안보, 보건 및 거버넌스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보건, 인도적 지원, 식량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으며, 특히 미국 USAID,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대통령 에이즈 구호 비상계획(PEPFAR) 등을 통한 보건 분야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북부 분쟁지역의 교육과 평화 사업이 병행되어 온 점이 특징이다(Punch 2025).

먼저 SDG 4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LEARN to Read(Leveraging Education Assistance Resources in Nigeria, 2022-2027)' 사업을 핵심 교육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약 4,88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학교 밖 아동 비율이 높은 분쟁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약 350만 명의 초등학생들의 조기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Creative Associates 2026).

뿐만 아니라, 여학생, 고아, 비공식교육을 받는 아동 등 교육 취약계층 집중 지원, 교사 및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평가 및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활동으로 포함하였다.

다음 SDG 16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Community Initiatives to Promote Peace(CIPP)' 사업과 'Northeast Connection(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to Violent Extremism and Conflict in Northeast Nigeria), 2021-2023' 등과 같이 북부 분쟁지역에서의 비폭력적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을 지원해왔다. 'Northeast Connection'은 약 1,010만 달러 규모로 분쟁지역의 지역사회 지원을 행하였으며, 약 40개 현지 시민사회 조직에 대해 210만 달러의 소액보조금을 지원해 풀뿌리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였다(U.S. Embassy and Consulate in Nigeria 2023). 또한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정책 기조 하, 나이지리아 청년의 역량강화, 여성의 평화구축 참여,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등 다층적 활동을 병행해왔다.

다만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USAID 해체와 다수의 ODA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LEARN to Read'를 포함한 다수의 교육, 평화, 거버넌스 사업이 조기 종료 또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미국은 2025년 9월 'America First Global Health Strategy'를 발표하고 2025년 12월 나이지리아와 2026~2030, 총 5년간 51억 달러 규모의 양자 보건 MOU를 체결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5). 동 MOU는 현지 NGO 중심의 보건 사업 실행에서 미국-나이지리아 정부 간 직접 협력 및 협력국 자체 분담 확대로의 원조 형태 전환을 표방하는 등 새로운 보건 사업 방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건 이외 부문에 대한 후속 협력 구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SDGs 이행 수준,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를 바탕으로 CP 프로그램과 엮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SDG 4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목표는 SDGs 이행 수준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고 다른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라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 강화'는 SDG 16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는 SDGs 이행 수준은 낮고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은 편이었다. 다만,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낮은 편에 속하여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3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 강화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한편,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사무소와 현장의 관점에서 CP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SDG 목표의 성과 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체감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인력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관심도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낮아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교사 처우 수준이 낮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큰 편이며, 강한 연방제 구조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 분야는 지방정부 권한이 강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패와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이 높아 사업 관리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초·중등교육 중심 지원보다는 청년 창업, 디지털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한 연방제 구조와 부처 간 분절화로 인해 통합적인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 결과 시스템 간 연계와 데이터 공유가 제한적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타 공여기관들의 참여 역시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경쟁 환경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최근 나이지리아가 당면한 이슈는 인도주의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특히 북부 지역은 치안 불안과 분쟁 영향으로 인도적 지원 의존도가 높으며, 생계지원이나 보건 등 분야에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사무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

장 지원사업'과 같이 청년 창업, 디지털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KOICA 나이지리아 사무소가 지속 지원해왔던 초등 및 중등교육과 같은 기초교육 분야는 아니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높고 KOICA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다만, 나이지리아의 강한 연방제 구조와 부패 등으로 인한 사업 집행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국 단위 사업 확대보다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분야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세부 주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 환경 조성사업'은 전자정부 기반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리의 어려움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관리, 관세행정 디지털화, 특정 행정서비스 전산화 등 협력국의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 측정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KOICA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발성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보다는 2-3차 사업으로 연계되는 장기적 관점의 협력을 통해 제도 정착과 운영 역량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존재한다.

한편, 나이지리아 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도주의 수요를 고려할 때,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사업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의 보건·생계 분야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 교육 및 거버넌스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인도주의 분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근성과 치안 문제를 고려할 때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원은 나이지리아 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분쟁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제약요인을 완화함으로써 KOICA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KOICA는 교육, 디지털 거버넌스 등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되,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확산보다는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지역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인도주의적 지원 등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제한된 재원 내에서도 가시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르완다

(1) SDGs 이행 현황

르완다 정부는 SDGs와 관련한 의제를 자국의 국가전환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NST1)과 '비전 2050(Vision 2050)' 프레임워크 등 국가정책 전략에 적용하여 통합·관리해왔다. 르완다는 2023년 발행된 VNR을 통하여, MDGs 시대부터 SDGs가 수립된 지난 20년간 지속된 르완다의 글로벌 아젠다 이행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빈곤 감소, 보건·교육 수준 향상,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의 거시적인 인구 지표상으로도 나타났다. 르완다의 인간개발지수는 1990년 0.250에서 2021년 0.524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평균기대수명도 2000년 49세에서 2022년 69.6세로 약 20년이나 증가했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GDP 성장률 또한 2000~2018 기간 동안 연평균 7.9%, 2019~2022 기간 동안 연평균 6.3%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도 2018년 797달러에서 2022년 1,004달러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세부 목표별로 살펴보았을 때, SDG 2번과 관련, 르완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5세 미만 아동 만성영양실조 유병률은 2014~2015 기간 동안 38%에서 2019~2020 기간 동안 33%로 5%포인트 감소하였고, 발육 부진이나 중증 영양실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다만, 여전히 SDG 2번은 르완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행해야 할 세부 정책목표로는 영유아발달, 식량 생산 및 안보 등이 꼽히고 있다.

SDG 4번과 관련, 교육 부문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몇 개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전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르완다의 2019년 대비 2020~2021 교실 수는 유치원 5,879개에서 7,414개로, 초등학교는 34,468개에서 46,604개, 중학교는 15,825개에서 18,895개로 증가하였고, 학생 대 교실 비율 또한 유치원(48 → 40), 초등학교(73 → 59), 중학교(39 → 35) 모두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눈에 띄었던 점은 여학생의 등록률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르완다의 학교 등록률 성별 격차는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이나 직업기술훈련 단계에서 여학생 비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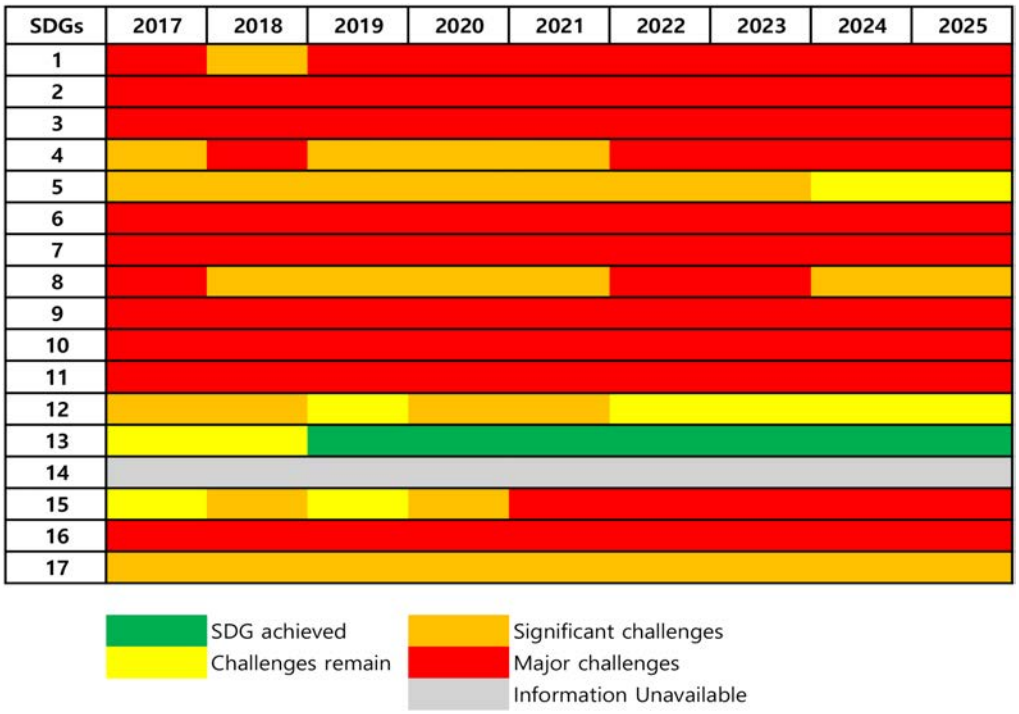
SDG 9번 관련해서는 르완다 정부가 산업 부문 개발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르완다의 산업 부문 GDP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22년 21%로 상승하였고,

포장도로 연결 또한 2017년 1,305km에서 2022년 1,654km로 확대되었고, 신공항(부게세라 지역) 건설도 진행중이라 도시 간 연결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르완다는 거버넌스와 평화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르완다의 법치주의 지수는 2010년 67.7%에서 2018년 84.5%로 증가했으며, 2018년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아프리카 4위 및 동아프리카 지역 1위를 기록하였다. 전자행정 관련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르완다의 출생등록률은 2015년 56%에서 2019년 89%로, 정부접근성도 2014년 76.5%에서 2018년 84.86%로 상승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거버넌스 및 평화 관련 지표에서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공공서비스 만족도나 시민들의 야간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 등이 다소 감소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르완다가 진전이 보이는 목표는 SDG 5, 12, 13번 정도였다.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의 경우 2016년 57.7점에서 2024년 62.3점으로 약 5점 상승한 수준이었다(SDSN 2025).

[그림 Ⅱ-97] 르완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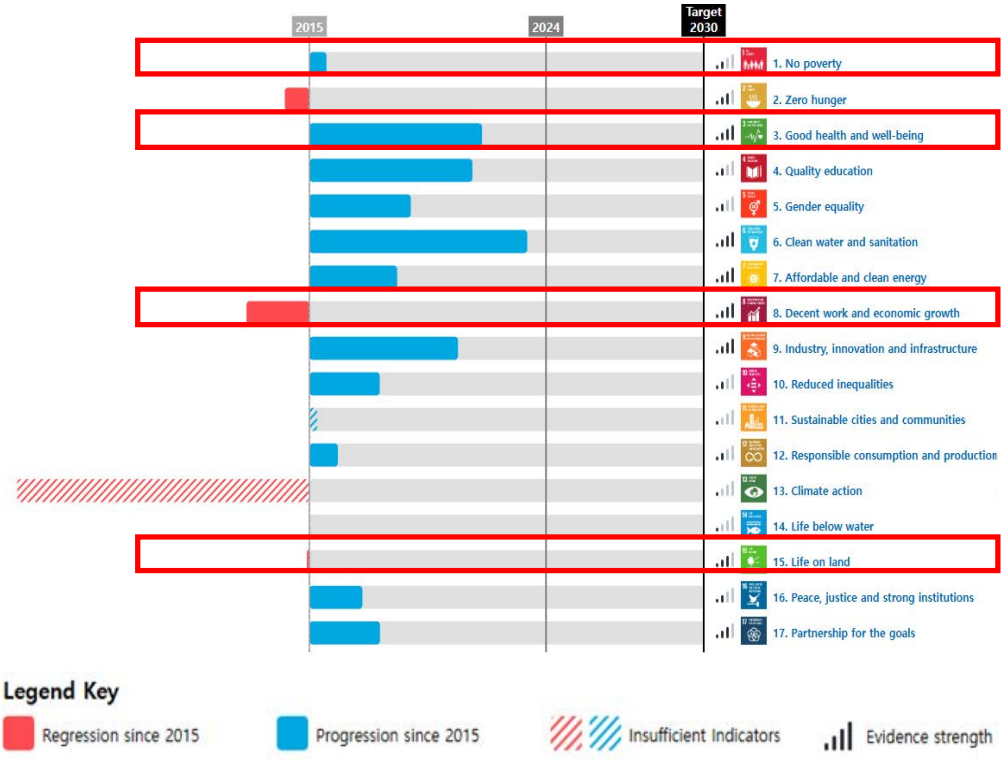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르완다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농업의 국가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굿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접근성 강화',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및 기업가 역량강화'에 해당한다. 다만 마지막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및 기업가 역량강화'의 경우 달성을 지원하고 있는 지표 중 SDG와 관련한 목표는 부재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98]과 같이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SDGs 목표별 진척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SDG 2, 8, 15번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의 목표에서는 일정 수준의 진전이 확인되었다. 한편, SDG 13번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진척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98] 2024년 르완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CP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SDGs 성과지표 위주로 살펴보았을 때, SDG 2번의 경우 SDG 2.1번, 2.a번에서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2.2번과 2.5번에서 정체가 나타났다. SDG 4번에서는

SDG 4.3번에서 정체가 있었으나, 4.2번, 4.5번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SDG 9번의 경우, 9.a번과 9.c번에서는 진전이, 9.3번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SDG 16번의 경우 16.7번에서는 진전을, 16.1번, 16.2번 쪽에서는 후퇴하였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르완다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이행 점수가 SDG 2번과 9번보다는 높고 4번과 16번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즉, 르완다의 평균 SDG 달성 정도에 비하여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 부문과 거버넌스·평화 부문의 성과는 높고, 기아종식과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Ⅱ-99] 르완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르완다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르완다는 SDG 이행 거버넌스 구축에서 국제 의제의 국내 의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UN의 2030 의제,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AU Agenda 2063)' 등을 르완다의 주요 정책들인 국가전환전략(NST1) 및 '행정구역 단위 개발전략(District Development Strategy, DDSs) 2024-2029' 등에 통합하였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특히 이 중에서도 NST1은 3가지 핵심 축인 경제전환, 사회전환, 전환적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SDGs의 경제·사회·환경 3가지 차원과 직접 정렬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르완다는 SDGs 달성에 있어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고유한 접근인 '자생적 해법(Home-Grown Solutions, HGS)'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Rwanda Governance Board 2026). 이는 외부 개발 모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르완다의 전통적 문화와 역사적 관행을 현대적 거버넌스 도구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접근은 2020년까지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20(Vision 2020)'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이와 같은 HGS 접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가치에 기반한 해결책을 SDGs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활용, 르완다 정부는 먼저 SDG 2번 관련, '4차 농업전환전략계획(The Fourth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e Transformation, PSTA-4)'을 핵심 정책 프레임워크로 관개시설 정비, 작물 집약화 프로그램(단위 면적당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농경지 침식 통제 및 축산업 발전을 골자로 정책을 전개하였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9). 특히 '기린카(Girinka)-빈곤 가구당 젖소 1마리' 프로그램은 르완다의 가장 상징적인 영양 정책으로 빈곤 가구에 젖소를 분배하고 그 첫 번째 송아지를 다시 다음 빈곤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구 단위 영양 개선과 사회연대를 동시에 추구하였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아울러 '아이 한 명당 우유 한 컵(One cup of milk per child)'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431,348명의 아동에게 도달하여 6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9).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별로 임산부에게 철·엽산 보충제 공급,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기반 영유아 영양 교육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SDG 4번 관련, 르완다는 '교육 부문 전략계획(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2018-2024)'을 기반으로 교육 접근성 확대, 학습 성과와 질 제고,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법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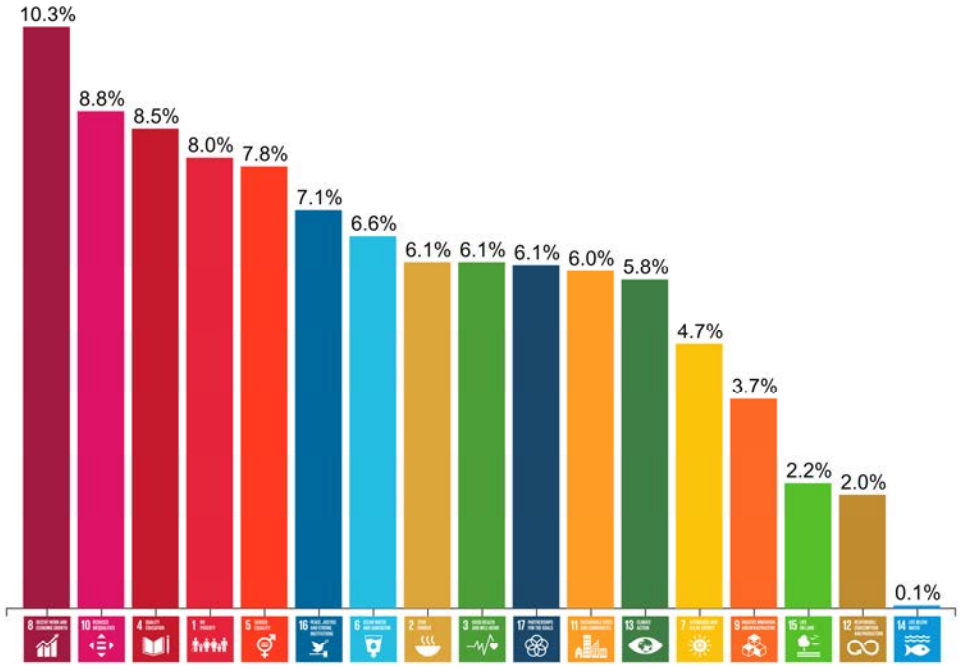
모든 르완다 아동 및 청년 대상 형평적 기회 제공, 학교 인프라와 시설 현대화 및 교원의 지속가능한 전문성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9). 또한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르완다는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훈련 분야에서 여학생의 등록률이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개선과 함께 학교 이탈 방지를 추구하였고,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 역량강화도 부수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SDG 9번과 관련하여, 르완다는 '비전 2050'의 '2035년 중상위 소득국, 2050년 고소득국'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화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메이드 인 르완다(Made in Rwanda)'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를 확대해 인프라, 토지, 물류, 인력 공급을 통합 제공하는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또한, '키갈리 혁신도시(Kigali Innovation City)'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학 및 기업을 유치하여 ICT 기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로망 확충과 농촌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국제공항 건설, 국경통관 간소화, 내륙 항만 및 철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평화 및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사법·거버넌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사법 부문에서는 보편적 양질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형사·상사·민사·행정 시스템 현대화, 취약계층 대상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9). 뿐만 아니라, 반부패 법제 정비와 함께 공공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기여했다.

한편, 르완다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르완다 정부는 SDG 1, 4, 5, 8, 10번에 대해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4번에 해당하였다.

[그림 Ⅱ-100] 르완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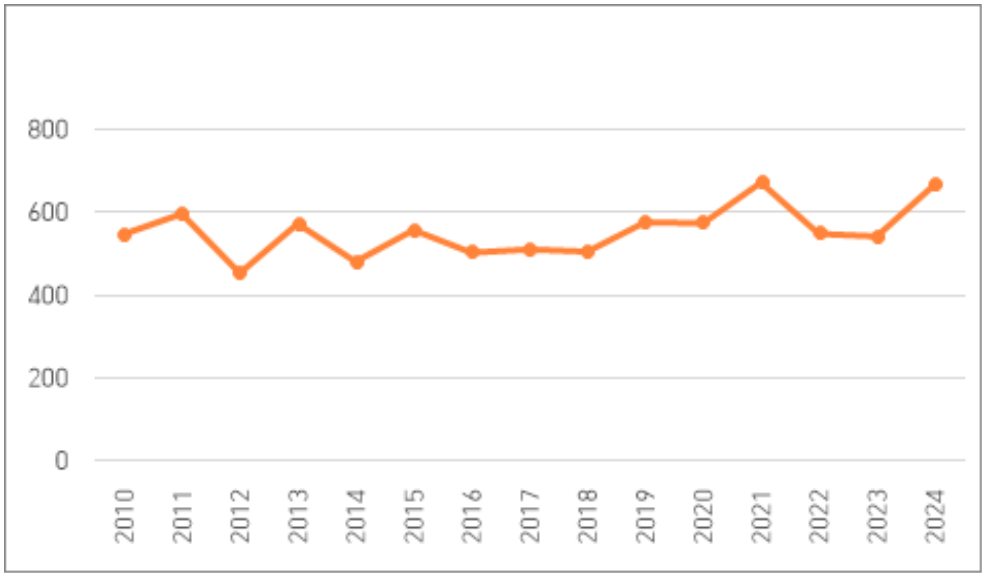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對 르완다 ODF 지원액은 2010년대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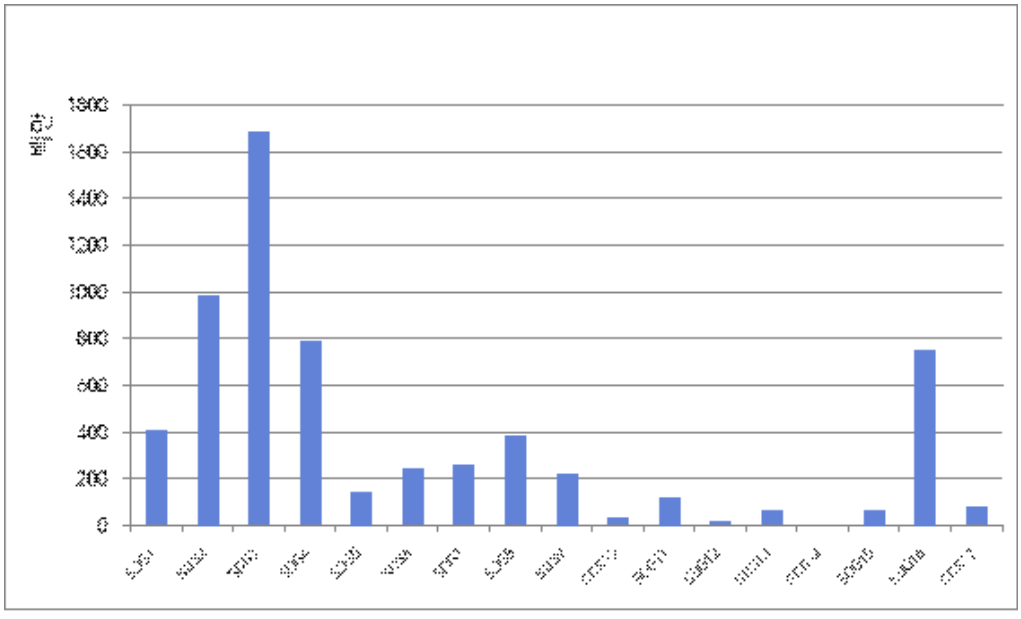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SDGs 목표별 지원에 대해서는, [그림 Ⅱ-102]와 같이 SDG 3번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이외에는 SDG 2, 4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 KOICA가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2, 4, 9, 16번을 지원하고 있어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사업 연계 등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그림 Ⅱ-101] 르완다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그림 Ⅱ-102] 르완다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한 기간 CP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 목표인 SDG 2, 4, 9, 16번의 DAC 회원국 ODF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았다. SDG 2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 SDG 4번은 영국, SDG 9번은 일본, SDG 16번은 영국이었다. 4개의 SDG 목표를 합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었음에 따라, 르완다에서 영국과 미국이 각 SDGs 목표별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표 Ⅱ-40〉 르완다 SDG 2,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8	13	-	-	21
캐나다	49	35	2	11	96
프랑스	1	38	-	1	40
독일	6	62	43	163	273
일본	168	36	45	4	253
한국	34	72	17	15	138
스위스	11	1	1	10	22
영국	187	297	16	186	686
미국	305	84	33	64	487
기타	218	148	65	299	730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영국

영국은 르완다의 가장 오래된 양자 공여국 중 하나이다. 영국은 르완다가 아프리카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도 주요 병력 제공국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한 파트너십 국가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3). 또한, 영국은 르완다의 차기 '국가전환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II, NST2)'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영국은 현재 르완다에서 기존의 대규모 재정지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지원, 정책적 영향력 강화, 르완다 정부와의 파트너십 확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SDG 2번과 관련, 영국은 르완다의 농업시장 시스템 강화와 민간투자 동원을 통한 간접적 영양 개선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SDG 4번 관련, 영국은 르완다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르완다 내 2만 가구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사회보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활동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초등 교사 역량강화 지원, 여학생 교육 지원, 장애 아동의 교육 접근과 학습 활동 지원 등 기초교육 활동 지원을 지속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다(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3).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르완다의 소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Girls in Rwanda Learn, GIRL)'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UNICEF와 함께 6천만 파운드 규모로 운영하며 취약계층 여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70만 명의 아동의 학습활동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3).

SDG 9번과 관련하여, 영국은 에너지 개발, 디지털 역량강화, 금융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르완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국제투자공사(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BII)는 이러한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II는 FCDO와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루지지(Ruzizi) 지역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역내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2025). 또한 혁신적 금융 모델을 통해 운영자에게 저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BasiGo'의 르완다 법인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 교통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16번과 관련하여, 영국은 르완다의 지방정부 공공재정관리 및 세수 징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재원 동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원조 의존도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Development Tracker 2026). 또한 동 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감사원의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시민사회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병행하여 정부의 책무성 제도와 시민사회의 견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르완다에 대한 영국의 개발협력은 FCDO 및 BII를 중심으로 SDG 2번, 4번, 9번, 16번 전반에 걸쳐 농업시장 강화, 교육 접근성과 질 제고, 에너지·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공재정 및 거버넌스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② 미국

미국은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의 핵심 양자 공여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2020년 USAID는 르완다 국가 개발을 위해 6,050억 프랑을 약속하는 5년간의 '개발목표 보조금 협정(Development Objective Grant Agreement, DOAG)'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정은 르완다의 NST1의 우선순위 중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해당 협정이 체결될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19로 인한 르완다 경제사회에의 타격을 회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시작되었다(Top Africa News 2020). 이 협정은 USAID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에 기반하며 특히 르완다의 자립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자본, 민간부문 역량강화, 책무성 있는 정부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기반하여 수립되었다.

SDGs 목표별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SDG 2번과 관련, USAID는 르완다의 농업 기술 현대화를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영양 제품 생산을 돕기 위한 농업 보조금 사업인 'ModAg(The Modernizing Agriculture Activity)'을 운영하였다(Grants Bay 2026). 해당 보조금을 통해 USAID는 포용적 성장, 식량 안보, 영양 증진에 대해 약 2,500만 달러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USAID는 'Hinga Wez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르완다의 장애인과 같은 식량안보 취약계층들에 협동조합 가입 장려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 시장접근성 및 영양 개선 등의 혜택을 주었다(Top Africa News 2020).

SDG 4번과 관련, USAID는 2020년 'LEARN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특히 교육 취약계층인 여학생들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은 '3학년 말까지 모든 르완다 아동의 문해력 향상'이며, 여성과 교육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낙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포용적인 교수 환경을 조성해 교사의 행동이 여성의 교육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르완다는 2022년 약 275만 명의 초등학생을 배출하였고,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USAID는 밝혔다(The Borgen Project 2024).

다음 SDG 9번과 관련하여, USAID는 'Power Africa'라고 하는 대규모 대륙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르완다 또한 지원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USAID는 2016년부터 르완다 내 가정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 공급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약 280만 명 이상의 르완다 인구가 수혜를 받았다. 특히 이는 전력 공급이 열악했던 농촌 및 교외 지역에 특히 큰 도움을 주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뿐만 아니라, 기타 보조금, 기술 지원, 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을 통하여 르완다의 청정 에너지 활용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SDG 16번 관련, 미국은 르완다의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정책 참여 소외계층

의 거버넌스 참여와 인권 수준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다만 최근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해체 이후 다수 중단되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USAID의 지원 철회로 연 1억 2,600만 달러에서 1억 3,800만 달러의 원조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르완다 GDP의 1.01%, 광산 수출 수익의 11.8%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았던 르완다의 상황상 이러한 USAID의 철수는 외환보유고를 긴축시키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USAID와 연관되어 있던 약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AHFIA 2025).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SDGs 이행 수준, 르완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엮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농업의 국가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프로그램은 SDG 2번과 9번을 지원하고 있다. SDG 2번의 경우 SDGs 이행 수준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많은 편에 속했다. 이에 '수요 재확인 유형'에 해당하였다. 아울러 SDG 9번의 경우에는 이행성과와 정책적 관심, 공여국 지원 모두 낮아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해당했다.

두 번째로 '굿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은 SDG 16번을 지원하고 있으며, SDGs 이행 수준은 높지만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적어 '선별적 관찰 유형'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의 경우, SDG 4번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SDGs 이행 수준과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많아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에 해당하였다.

〈표 Ⅱ-41〉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농업의 국가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굿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접근성 강화	SDG 16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SDG 4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한편,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르완다 사무소와 현장의 관점에서 CP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SDG 목표의 성과 수준, 협력국의 협력국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체감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농업의 국가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프로그램 관련, 르완다 정부는 분석 결과와 다르게 농업을 국가 발전전략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르완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커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 역시 국가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국 등 주요 공여기관들도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 역시 높은 분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농업 생산량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경작환경과 생산기반 부족 등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DG 9번과 관련해서는 르완다 정부의 관심은 높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화 여건에 제약이 존재해, 현재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굿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접근성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르완다 정부는 분석 결과와 다르게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와 AI 활용 확대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앰버서더 프로그램(Digital Ambassador Program, DAP)'과 같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르완다 정부는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TVET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었다. 특히 KOICA가 르완다에서 지원한 직업기술훈련센터, 르완다 코딩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등은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였으며, 청년 창업 및 민간부문 활성화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사무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르완다의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의 국가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 스마트 가치사슬 지원사업' 및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사업' 등은 르완다 정부가 추구하는 농업 생산성 효율화와 걸맞은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생산품 가공-유통-시장 접근성 개선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필

요가 있다. 특히 빈곤층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르완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된 농산물을 가치사슬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판매와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르완다 농업 개선의 핵심 과제이므로 해당 사업들이 KOICA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공여기관 사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KOICA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SDG 9번과 관련해서는 르완다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제한된 산업기반으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에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산업표준화 ICT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같이 직접적인 산업 육성보다는 상품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산업 육성 사업 확대보다는 해당 사업과 같이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조성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굿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실제 르완다 정부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KOICA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 사업'과 같은 사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용성과 접근성 확대를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의 높은 행정역량과 투명한 재정관리 체계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협력 방식과 사업모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관련, 향후에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강화 사업', '직업기술 학위보유자 양성을 위한 청년 취창업 촉진 사업' 및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바탕으로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확대, 취업 연계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르완다 정부의 관심도가 높은 디지털 분야와 연계해 TVET와 디지털 역량 개발을 연계한 미래형 인적자원 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르완다는 다른 협력국에 비해 협력국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정부의 행정역량 및 재정관리

체계가 비교적 우수한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공여국 간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방식의 협력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협력국 주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가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체계를 재편하고,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KOICA는 농업 가치사슬 고도화, 디지털 전환, 직업기술교육 등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하되,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국가 전략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르완다 정부의 높은 사업 이행 의지와 책임성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제도와 정책 수준의 성과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KOICA의 개발협력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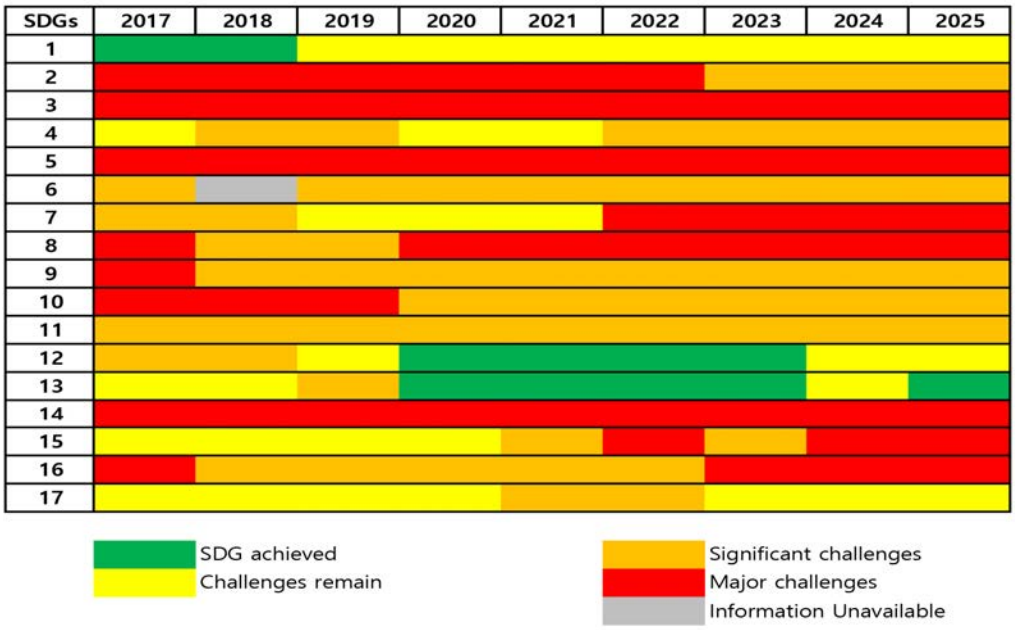
4) 모로코

(1) SDGs 이행 현황

모로코는 2016년과 2020년 VNRs을 통해 SDGs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16년 VNR 제출에 앞서 국가 협의(Les Consultations Nationales)를 통해 SDGs를 모로코의 국가 맥락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 우선순위(빈곤, 보건, 교육, 물, 지역, 기후)를 식별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Royaume du Maroc. Haut-Commissariat au Plan 2016). 또한 2017년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 SNDD) 및 2021년 새로운 개발 모델(Nouveau Modèle de Développement, NMD) 등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의 SDGs 달성과 2035년까지의 포괄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다(Royaume du Maroc. Haut-Commissariat au Plan 2020).

모로코의 SDG 이행 점수는 71.68점으로 167개국 중 68위를 기록하며 SDGs 이행에서 중간 이상의 성과를 보인다(SDSN 2025).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안에서는 두 번째 국가로, 지역의 SDG 이행 점수인 65.5점 보다 높게 나타난다.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로코는 전반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다수의 목표에서 여전히 상당한 도전과제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SDGs 1, 3, 4, 6, 7번 등 기본 사회서비스 영역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과제가 일부 남아있는 수준이다. SDGs 5, 8, 10, 11, 13, 14, 15번 등에서는 여전히 큰/매우 큰 도전이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여러 목표에서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목표는 정체 또는 후퇴로 평가되어, 구조적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rab Region SDG Index 2025도 모로코를 지역 평균(60.5점)보다 높은 71점 수준의 국가군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불평등·도시·환경·기후 영역의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강조한다(Zakzak, L. et a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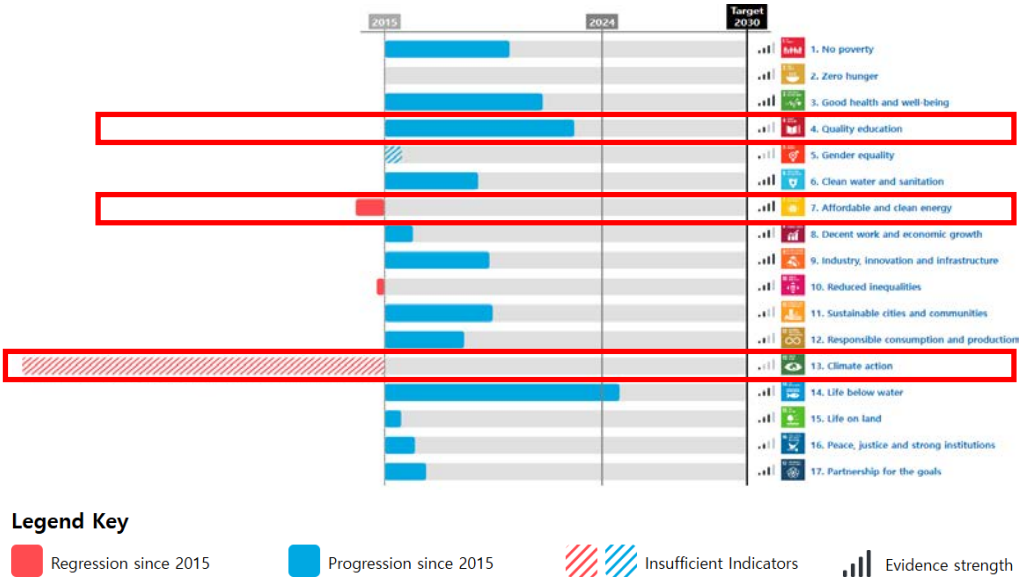
[그림 Ⅱ-103] 모로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또한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04]와 같다.

[그림 Ⅱ-104] 2024년 모로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2016년 및 2018년 VNRs을 종합해보면, 모로코는 SDGs 달성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취약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 혁신적인 금융 등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및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000~2018 연평균 경제성장은 4.2%에 달하며, 9% 실업률 감소, 빈손 수준 저하, 지역 간 불평등 감소 노력, 에너지 자원 투자 확대, 도시개발 이니셔티브 진행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취약 계층, 특히 시골 지역, 여성, 청년(특히 교육/고용/훈련에 미참여하는 청년(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노인, 이민자가 직면한 배제 문제, 모성 사망률과 도시-시골 간 격차 존재(농촌 111명/10만 대비 도시 44명/10만), 높은 청년 실업률(27.4%)과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의 실업 문제 등의 사회적 불평등 및 배제에 대한 도전과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체 SDGs 지표의 60.8%가 국가 인적개발관측소(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ONDH)의 데이터로 쉽게 파악 가능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시스템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요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42〉 모로코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SDGs	성과	한계
SDG1	빈곤율의 상당한 감소: 빈곤율은 2018년 2.9%로 감소하여 퇴치 단계에 근접, 도시 지역의 빈곤은 2018년 1.1%로 거의 사라졌음.	농촌 지역의 빈곤 및 취약성: 농촌 지역의 빈곤율(5.9%)과 취약성(19%)이 도시 지역 대비 여전히 높음.
SDG3	모성 및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사망률(10만 출생당 72.6명, 2018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출생당 22.16명, 2018년)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였으며, 의료 보험 가입률이 2019년 68.8%에 달함.	보건 인력 부족 및 불균형: 의료 인력 밀도(의사 7.2명/10,000명)가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 간 격차가 큼. 재정 조달: 보건 지출이 GDP 대비 5.8%에 머물러 국제 권고치(10~15%)에 미치지 못하며, 가계가 지출의 50.7%를 직접 부담함.
SDG7	전기 접근성 일반화: 전력 접근성이 2018년 98.1%에 도달하며 거의 보편화되었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2019년 전체 전력 용량의 34%를 차지함.	외부 에너지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2018년 91.7%로 여전히 높음. 화석 에너지 비중: 에너지 혼합(Mix Énergétique)에서 화석 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우세함.
SDG8	경제성장: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2%의 경제성장을 이룸. 실업률 감소: 실업률이 2019년 9.2%로 하락함.	양질의 일자리 부족: 비공식 고용(Emploi Informel) 비율이 36%로 높고,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함. 청년 실업: 15~24세 청년 중 미취학, 미취업, 미교육(NEET) 비율이 26.5%(2019년)로 여전히 높음.
SDG11	빈민가 감소: 도시 지역의 빈민가 비율이 2004년 8.4%에서 2018년 3.6%로 크게 감소함. 폐기물 관리 개선: 도시 고형 폐기물 전문 수거율이 2008년 44%에서 2019년 95%로 증가함.	도시계획 부재 및 비일관성: 통합적이고 일관된 국가 도시 정책 부재함. 빈민가 및 노후 주택 문제: '빈민가 없는 도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부족과 노후 주택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SDG1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시나리오 대비 42%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기후변화 거버넌스 강화: 국가 온실가스 목록 시스템(Système National d'Inventaire des Gaz à Effet de Serre, SNI-GES)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국가 위원회(Comité National sur les Changements Climatiques et la Diversité Biologique, CNCB)를 제도화함.	기후변화의 취약성: 농업, 수자원, 인프라 등 주요 부문이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에 매우 취약함. 적응 노력 부족: 국가 담론에서는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공공정책에서는 단기적이고 비상 대응적인 조치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자료: Royaume du Maroc. Haut-Commissariat au Plan 2016 및 2020 활용하여 재구성

한편, KOICA 모로코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모로코 탄소 중립 달성 지원'과 '자동차 분야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7번 에너지, SDG 13번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SDG 4번 양질의 교육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05] 모로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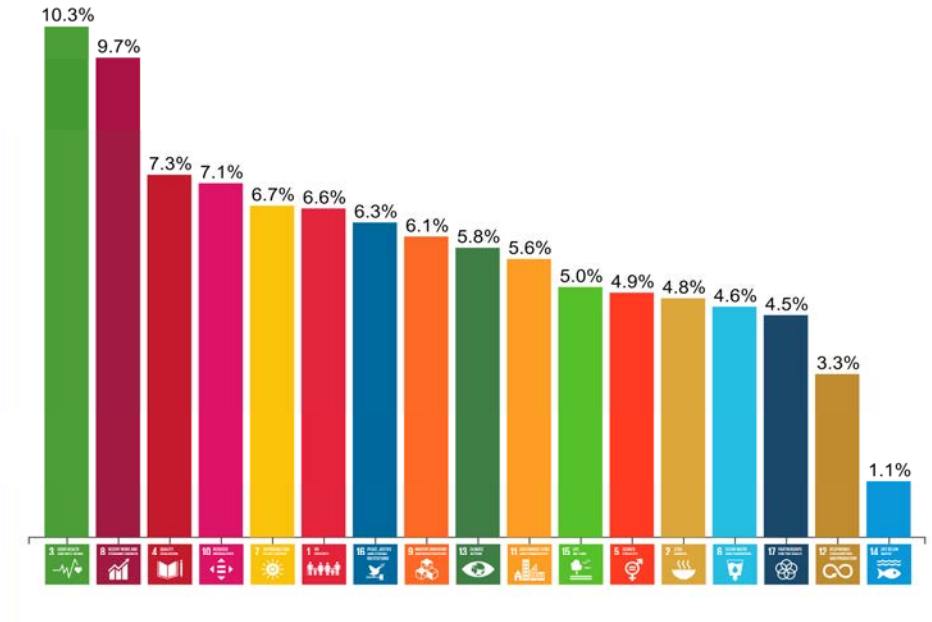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모로코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와 13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아 SDGs 달성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SDG 4번은 2019년 이후 SDG 이행 점수를 상회하며 성과를 보이며, SDG 13번의 경우 약간의 격차가 좁아지기는 하였으나,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SDG 7번의 경우 2016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미미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상승 폭이 SDG 이행 점수의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해 2018년부터는 SDG 이행 점수를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그 격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모로코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모로코의 2016 및 2020 VNRs에서 정부는 빈곤, 보건, 교육, 물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전을 자평하면서도, 불평등, 청년 고용, 여성 경제 참여, 지역 격차 등을 지속적 도전 과제로 명확히 인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정책 일관성(공공정책의 일관성 강화 및 조율 개선), 참여적 접근(정부, 의회, 감시 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광범위한 참여 확대), 지역화(지역 수준에서의 SDGs 소유권 강화 및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권화(지역 권한 강화와 자원 확충을 통한 균형적 지역 개발

촉진), 평가 메커니즘 제도화 등을 통해 SDGs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모로코 VNRs의 키워드 빈도를 확인해보면 SDG 3, 8, 4, 10, 7, 1, 16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보건, 교육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목표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Ⅱ-106] 모로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4번과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비전 2015~2030을 최상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 로드맵 2022~2026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이를 법제화하는 학교 교육 기본법안이 승인되기도 하였다(Royaume du Maroc 2025). 이를 통해 모로코 정부는 중도탈락률 1/3 감축, 기초 학력 성취도 개선 및 국제 학업성취도 순위 상향, 유아교육 확대, 직업기술교육 훈련 및 고등·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수요 연계 강화, 교사 전문성·학교 리더십 강화 및 교육 거버넌스 분권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SDG 7 및 13번과 관련 에너지 전환 전략은 국가 결정 기여(Contribution Déterminée au niveau National, CDN) 및 장기 저탄소 전략(Stratégie Bas Carbone à Long Terme Maroc 2050, SBCT-LT 2050)[29]를 통해 2030년까지 전력설비의 5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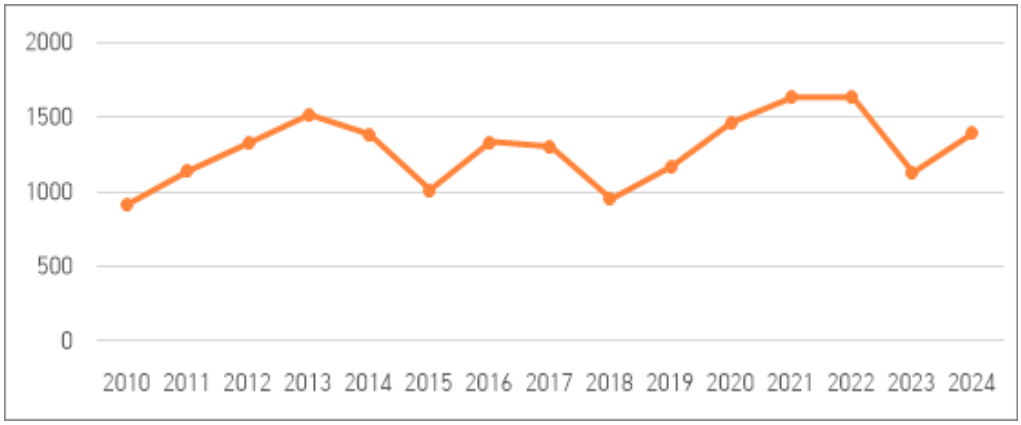
29)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CDN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15%를 절감하고, 2050년까지 전력 믹스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전반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목표한다(Khadidja Sakhraoui et al. 2024). 또한, 모로코는 CDN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45.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실행체계 등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모로코의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대략 1,000백만 달러에서 1,500백만 달러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다. 2013년까지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 2015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107] 모로코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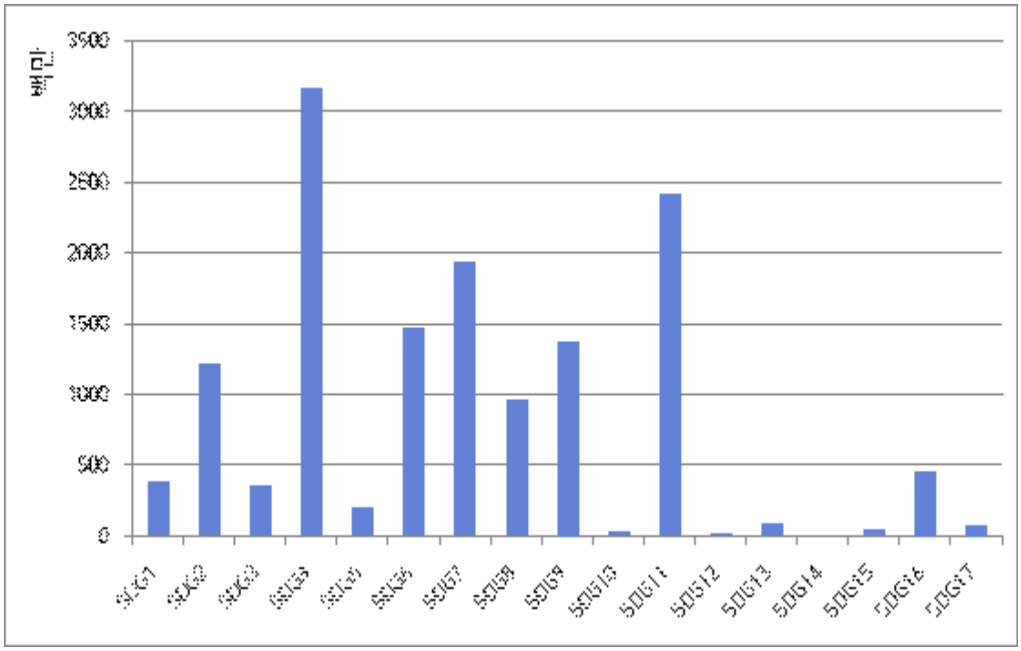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모로코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DGs 목표별 누적 규모로는 4번, 11번, 7번 순으로 지원을 받았다. 상위 3개의 목표가 전체 지원액의 53% 이상을 차지하며, 교육, 에너지,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등 정부 우선순위 정책 방향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략임. UNFCCC에 제출된 모로코의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T-LEDS)에 국가의 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해당함

[그림 Ⅱ-108] 모로코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회원국의 지원액을 살펴보면, 4번은 프랑스 독일, 미국 순이며, 7번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13번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순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3개 목표 지원 합계를 기준으로 프랑스가 약 50%, 독일이 약 37%를 지원하며, 그다음으로 미국이 약 5%를, 나머지 모든 국가가 13%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6번째 순위로, 3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약 0.7% 수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44%는 SDG 9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4번에 19%, SDG 7번에 12%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43〉 모로코 SDG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7 지원	SDG 13 지원	합계
벨기에	31	0	-	31
캐나다	27	0	3	29
프랑스	2,074	456	39	2,569
독일	442	1,417	33	1,893
일본	118	12	-	130
한국	21	13	0	34
스페인	116	19	0	135
영국	31	0	0	32
미국	272	8	-	280
기타	24	3	1	28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프랑스

프랑스는 모로코의 최상위 공여국 중 하나로, 프랑스의 모로코 지원은 주로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를 통해 이뤄지며, 2024년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Les Rencontres à Haut Niveau, RHN)을 통해 특별한 파트너십(Partenariat d'exception renforcé)을 유지하고 있다. AFD의 모로코 국가전략(2022-2026)은 '모로코의 기후변화 적응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SDGs 달성 지원'이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 ①민간투자·기업가정신, ②청년·여성 포용, ③경제 탈탄소화, ④지역의 생태·사회적 회복력의 4개 축을 제시하며 관련 SDGs로는 3, 4, 5, 7, 11, 12, 13, 16 및 17번을 언급하고 있다(AFD 2022; n.d.; OECD 2026). 프랑스는 이와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항만·수자원·농업·OCP 녹색 전략 등 기후·환경 프로젝트에 대규모 차관·공동금융 확대와 모로코의 NDC·LT-LEDS 이행 지원을 지속·심화를 포함하는 그린 전환·기후·물에 대한 대규모 지원 확대, 교육·직업훈련·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 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AFD, n.d., The North Africa Post, 2024). 전략은 나아가 농업·비료, 문화유산, 교육·연구 등에서 '프랑스-모로코-아프리카' 삼각 협력을 확대해, 모로코를 서북아프리카 협력 허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Morocco MICEPP, 2024, OCP Group 2025). 즉, 프랑스는 모로코의 NDM 및 SDGs 이행 가속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모로코 지원 사업으로는 기후·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누르 와르자자트(NOOR Ouarzazate) 태양광 발전소[30] 프로젝트가 있다. 공동재원조달을 통해 2030년까지 모로코의 재생에너지 비율 52% 목표 달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LT-LEDS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맞춰 재정 지출을 정렬하는 그린 예산(Green Budgeting)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훈련기관(Institts de Formation aux Métiers des Energies Renouvlables et de L'efficacité Enérgétique, IFMEREE)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 부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농촌 개발과 자연 자원 지속 관리, 식수 및 위행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및 EU와 공동으로 모로코의 차세대 국가 농업 혁신 전략인 그린 제너레이션(Generation Green 2020-2030)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업 금융, 농업의 생태 전환(Agroecology), 농촌 청년 창업, 농산물 유통 현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AFD n.d.). 또한 2024-2025년 양국 합의에 따라, 통합 수자원 관리 및 기후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가 물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l'Eau, SNE) 이행을 위한 1억 유로 규모 지원 프로그램도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2024년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선언은 에너지 전환 그린 수소 수자원 등에 있어 협력 강화 외에도 철도망 개발, 기후 탄력적 농업·아프리카 식량 체계 협력 확장, 보건안보, 백신 생산, 프랑스-모로코 연구센터(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문사회 포함), 비디오게임·문화·창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아프리카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 22가지 우선 협력 영역을 제시하였다(Morocco MICEPP 2024).

② 독일

독일의 모로코 지원은 BMZ의 개발정책 2030(Entwicklungspolitik 2030, Reformkonzept BMZ 2030)을 기반으로 GIZ 및 KfW 등을 통해 공공재원 기반의 정책지원·기술협력과 민간투자 동원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독일은 아프리카를 위한 마샬플랜(Eckpunkte eines Marshallplans mit Afrika)[31]을 수립하고 모로코와는 개혁 파트너십(Reformpartnerschaften mit ausgewählten Ländern in Afrika)[32]을 지정하고 기후·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30) 누르 와르자자트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은 모로코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SDG 7번 달성을 위한 모로코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임(MASEN, https://www.masen.ma/en/projects/noor-ouarzazate-i, https://www.surgepv.com/blog/morocco-noor-solar-program,)

31)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창출,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목표로 단순한 공여국-수혜국 관계를 넘어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독일의 아프리카 정책 이니셔티브

32) 개혁을 추진하는 아프리카의 6개 국가(튀니지, 가나,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모로코 및 세네갈)와의 협

이주·거버넌스를 축으로 한 장기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BMZ 2018, 2020b, 2021; GIZ n.d., 2024). 즉, 독일의 모로코 지원은 기후·에너지를 축으로 한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속에서 모로코의 NDM·SDG 이행을 지원하되, 동시에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라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33].

독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누르 와르자자트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 모로코의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그린 수소 산업화를 위해 3억 유로의 보조금과 차관을 지원하여 겔밈(Guelmim)시의 그린 수소 기준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기반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며, 2028년부터 연 10,000t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아프리카 최초의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기준 시설로, 독일의 녹색 강철 산업용 수소 수입 계획과도 연계된다(BMZ 2025; PAREMA 2024).

이 외에도 GIZ는 모로코 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MTEDD), 아가디르(Agadir)시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지속 가능 모빌리티 프로젝트(Taki 2023), 하이 아틀라스(High Atlas)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포함한 자연 자원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재해 위험에 덜 노출되도록 수자원 거버넌스, 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GIZ 2025)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주 및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양국이 '포괄적 이주 파트너십(Comprehensive Migration Partnership)' 체결하였으며, 불규칙한 이주 감소와 합법적 노동 이주 촉진을 목표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협업 메커니즘 구축하였다. 모로코 청년의 독일·EU 노동시장 접근 경로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의도한 것이다(BMZ 2024; GIZ n.d.).

력 모델 구축

33) 독일과 모로코의 에너지분야 협력은 2012년 모로코-독일 에너지파트너십(PAREMA: Partenariat Énergie Maroc-Allemagne) 수립 이후, 재생에너지·기후변화 대응·그린 수소 산업화를 중축으로 한 전략적 장기 협력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에도 양국은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모로코-독일 동맹(Moroccan-German Alliance for Climate and Energy)"을 체결하는 등 유사한 형태의 협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4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모로코 탄소중립 달성지원 프로그램	SDG 7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강화 유형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자동차 분야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SDG 4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2010년 이후 모로코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동시에 모로코는 국왕 체제로 정부 혹은 다른 공여국과의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국가이기도 하다. 2023년 대지진 당시에도 외국의 지원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분별한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며, 자국의 경제적 자율성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현장에서는 파악된다. 모로코에서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SDG 4, 7, 13번은 각각 목표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 그리고 공여국의 개입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SDG 7번의 경우 목표 이행 수준은 낮으나 모로코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분야이다. SDG 7번은 흔히 대규모 장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국가적 관심이 확대되는 동시에 인접 유럽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유입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소규모 지원을 하고있는 KOICA 입장에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제도 개선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반면, SDG 13번의 경우 목표 이행 수준은 높으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으로 나타나 선별적 관찰이 필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으나, SDG 7번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에너지 전환에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방향성보다는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정책 및 제도 실행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SDG 4번의 경우 목표 이행 수준과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모두 높고 다수의 공여국이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만큼, KOICA의 지원은 성과 확대보다는 모로코의 역량개발계획 2030(Cap-Compétences 2030) 및 지방 직업·역량 도시(Cités des Métiers et des

Compétences, CMC) 구축 등의 핵심 정책 의제에 대한 정합성 유지와 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해 온 한국 개발 경험의 연속성 확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KOICA의 기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로코의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고급인재 양성의 기회도 제공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는 접근성 확대 중심의 양적 지원보다는 교육의 질 제고, 디지털 교육,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등 차별화된 영역으로의 고도화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로코의 주요 국가전략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녹색기술 분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것도 유의미한 협력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 환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KOICA는 교육 분야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모잠비크

(1) SDG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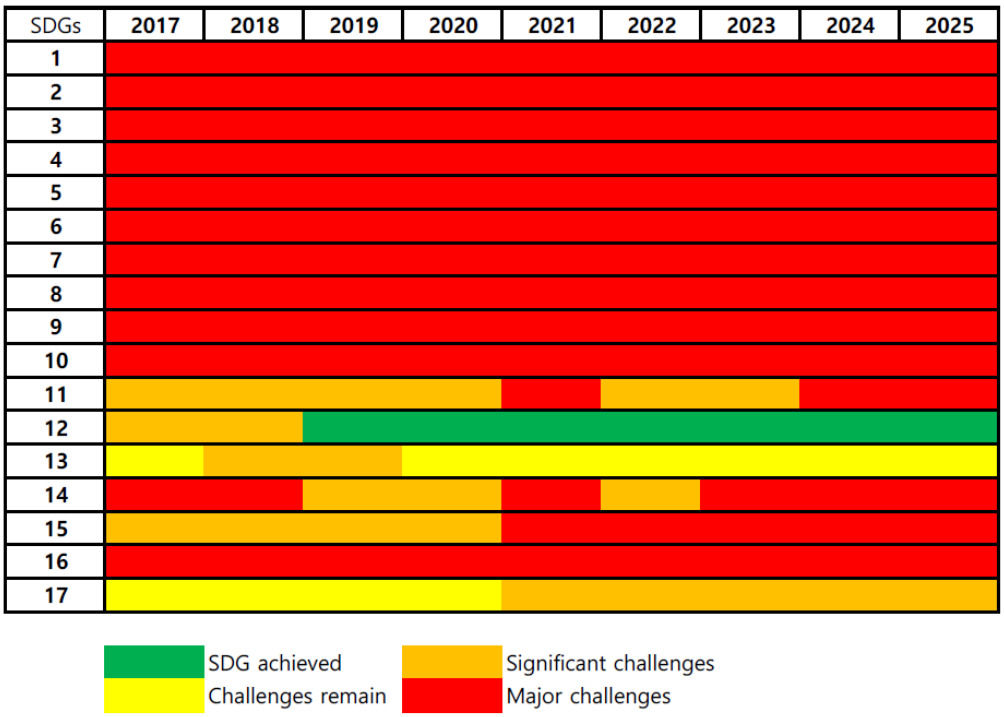
2020년 발표된 모잠비크의 VNR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SDG 이행 현황은 여러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Republic of Mozambique 2020).

개선이 이루어진 목표는 보건, 교육, 위생, 물 접근성, 식량안보 등 사회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SDG 3번에서는 기대 수명 상승(2007년 49.4세 → 2019년 53.7세), 시설 분만율 개선(2014년 71% → 2018년 87%),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완치율 개선(2015년 75% → 2018년 87%) 등의 성취를 거두었다. 또한, SDG 4번에서는 학교 수 및 등록 학생 수 증가, 남녀 학생 수 평등(학생 인구 48.2%가 여학생)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빈곤, 기아 종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잠비크는 인구의 절반(46.1%)이 빈곤한 상황이며, 만성 영양실조 유병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불평등과 관련, 여성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 증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2020년 기준 정부 내 여성 비율 47.6%, 의회 내 여성 비율 37.6%), 여전히 심각한 성 불평등이 존재하며, 여성의 빈곤율과 문맹률이 아직 높다고 보고했다(여성의 HDI는 0.422, 남성 0.468).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환경 분야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등(산림 면적 7.3% 감소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 모잠비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 간 통합적 정책을 실시하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동원 및 효율성 향상을 견인한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잠비크는 SDG 1번부터 10번 및 16번은 지난 2017년부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SDG 11, 14, 15, 17번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달성 정도가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유행한 코로나19의 악영향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모잠비크의 경우, 달성이 긍정적이거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표는 SDG 12번과 13번 두 가지에 불과하였다.

[그림 Ⅱ-109] 모잠비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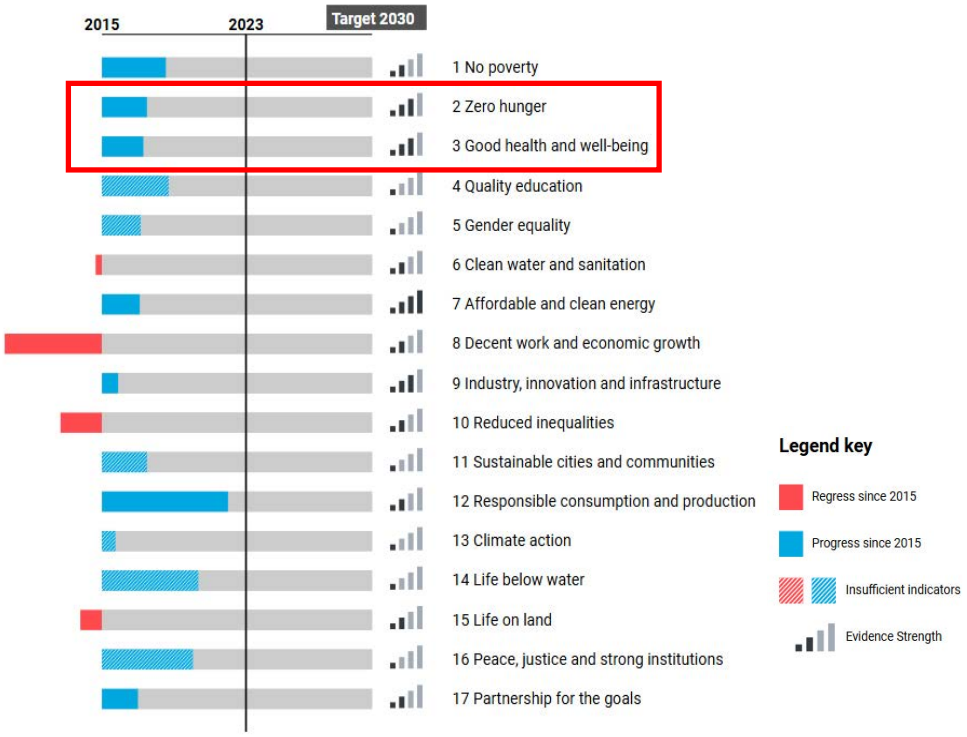
한편, KOICA가 모잠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적자원 양성', '보건의료서비스 및 식수위생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피해 감소'[34] 및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통환경 구축'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다음으로는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를 바탕으로도 모잠비크의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다. 17개의 지표 중 7개의 지표는 지난 2015년에 비하여 진전이 있었으나 4개 지표는 후퇴, 6개의 경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이 중 CP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SDG 3번과 4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SDG 3번과 관련하여 먼저, SDG 3.1번의 경우 2015년 10만 명당 약 182명이 사망하였으나 2023년 기준 82명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SDG 3.2번 또한 1천명당 53.8명(2015)에서 2023년 45.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외에 기초적인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도 49.1%(2015)에

34)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에서 성과지표를 가져옴

서 2023년 63.2%로 상승하여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0.7명(2015)에서 20.1명(2021)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치들은 여전히 세계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Ⅱ-110] 2023년 모잠비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모잠비크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3번의 이행 점수는 모잠비크의 SDG 이행 점수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앞서 UNECA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것처럼 모잠비크는 지난 2015년 대비 보건 의료 관련 지표에 개선을 보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SDG 이행 점수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Ⅱ-111] 모잠비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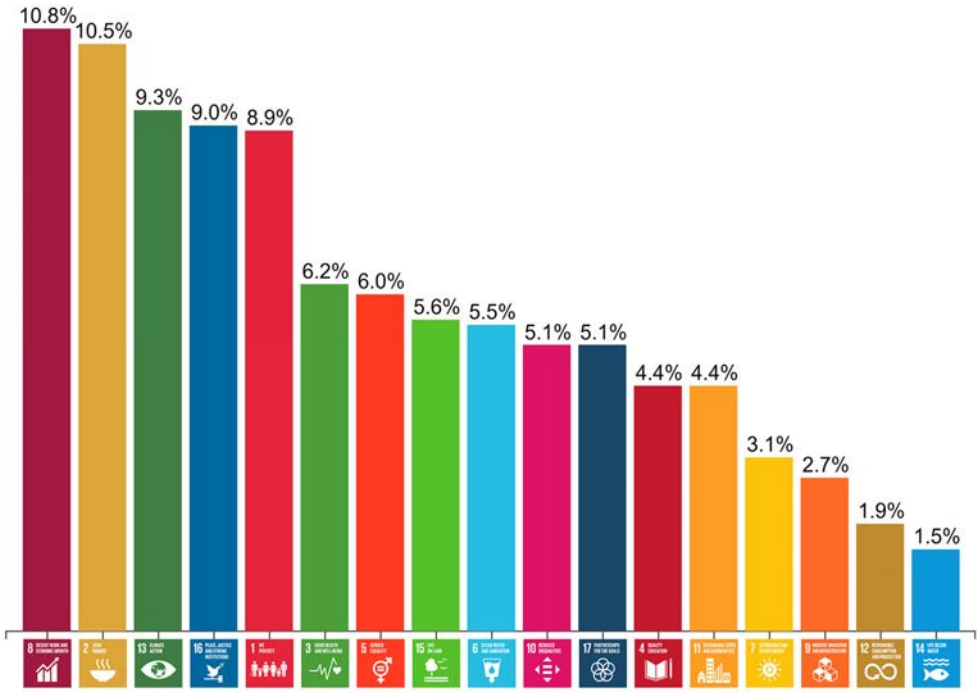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모잠비크 정부의 SDG 이행 노력

모잠비크의 SDG 달성 노력은 모잠비크 정부가 2015년 수립한 '아젠다 2030(Agenda 2030)'을 국가 개발계획 및 예산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이행되어 왔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모잠비크 국가개발전략(Estrategia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NDE 2015-2035)과 정부 5개년 프로그램(Programa Quinquenal do Governo, PQG)에 SDG 목표를 연계시키고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괄적 원칙을 모든 이행 과정의 핵심으로 두었다. 이 과정에서 모잠비크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SDG 국가 참조 그룹(National Reference Group)을 설립해 부문 간 협력과 사회 전반의 참여를 조정하며 글로벌 이행약속을 국가의 우선순위에 맞춘 SDG 국가 지표 체계를 채택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Republic of Mozambique 2020).

특히 SDG 3번 관련해서는, 질 높은 기초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와 현대적 장비 확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하며, 아울러 수원지 개방과 급수 시스템 구축을 우선시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가구비율을 늘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모성사망률, 신생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전략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별도의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다.

[그림 Ⅱ-112] 모잠비크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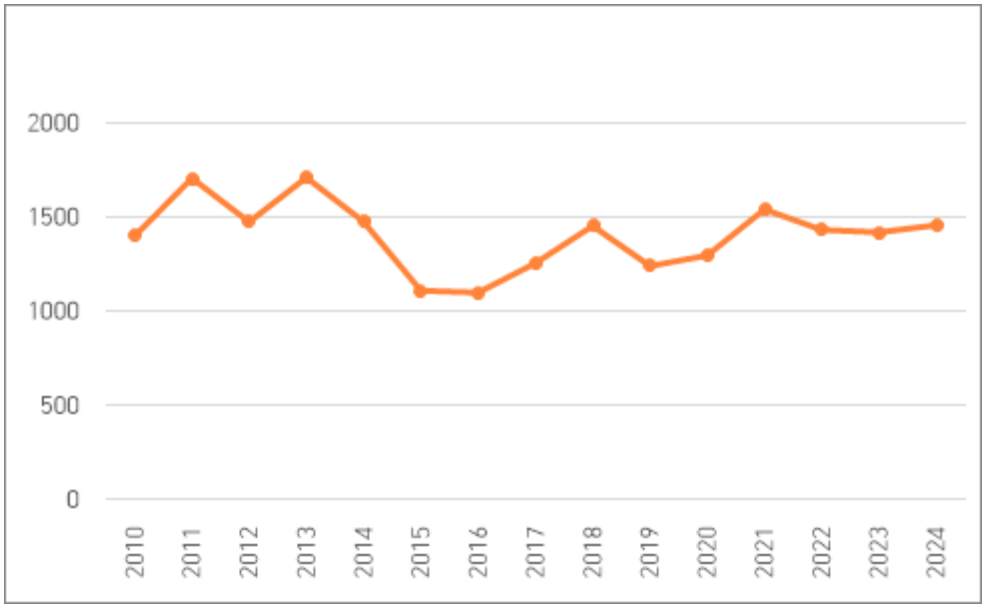
자료: Africa SDG Progress Mapper Tracker

한편, 모잠비크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모잠비크 정부는 SDG 1, 2, 3, 8, 13, 16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3번에 해당하였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Ⅱ-1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은 2010년대 초반에 높았다가 2010년대 중반 소폭 줄어들었다. 이후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를 계기로 소폭 늘었다가 최근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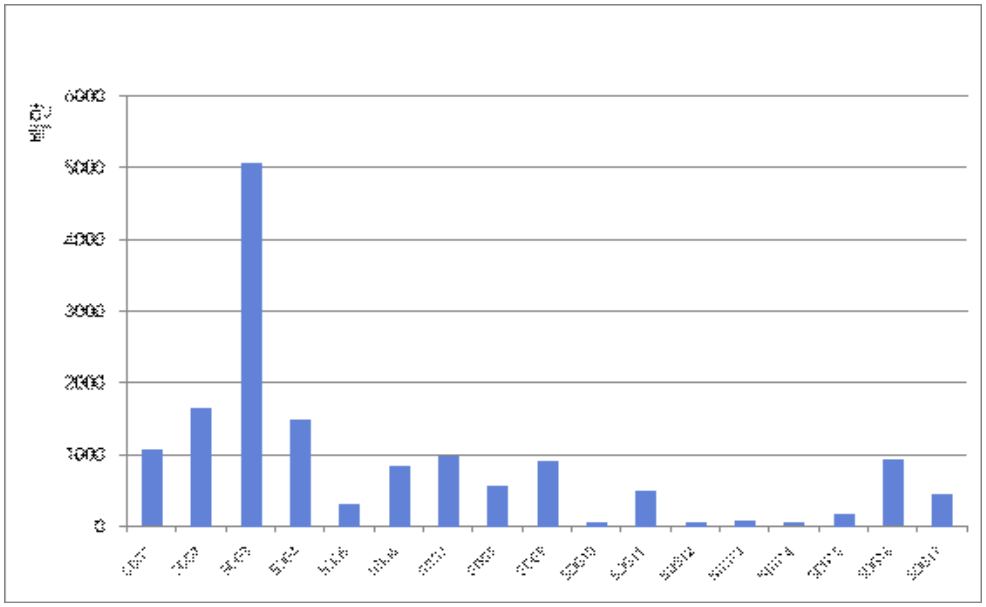
[그림 Ⅱ-113] 모잠비크 연도별 ODF 금액 (2010~2024)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모잠비크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3번이며, 그다음은 SDG 2, 4, 1번 순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및 높은 모성사망비 등으로 인해 SDG 3번에 대하여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KOICA의 CP 프로그램과도 일치한다. 한편, SDG 10, 12, 14번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불평등(빈부격차, 성별격차) 정도가 높은 모잠비크의 사회구조를 고려하더라도, SDG 10번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림 Ⅱ-114] 모잠비크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한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SDG 3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였으며, SDG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였다. 해당 두 분야에 가장 많은 누적적인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였음에 따라 두 나라가 모잠비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Ⅱ-45〉 모잠비크 SDG 3, 4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합계
호주	3	21	24
캐나다	338	193	531
프랑스	19	36	55
독일	14	343	356
일본	65	81	146
한국	90	32	123
스위스	73	2	75
영국	149	70	219
미국	3,674	140	3,814
기타	636	568	1,204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모잠비크가 석탄, 루비, 흑연, 티타늄, 탄탈럼 등 주요 광물의 수출국이나, 이러한 자원 개발 수익이 모든 모잠비크 국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잠비크가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을 해결하고 공정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강화, 공공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현지 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U.S. Department of State 2018).

SDG 3번 관련, 모잠비크는 국가의 보건 정책 및 시스템 유지와 관련하여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의 기여 정도가 가장 컸다. 특히 미국은 PEPFAR(미국 대통령의 AIDS 구호 계획)과 같은 수직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잠비크의 높은 HIV/AIDS 유병률 대응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모잠비크에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을 개선하고 여성이 자신의 성생식건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Improved Family Planning Initiative(USAID IFPI)' 프로젝트를 통해 모잠비크 남풀라, 소팔라, 잠베지아 주에서 생식 건강 관리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U.S. Embassy in Mozambique 2021).

교육 분야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는 'Eu Lei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20 동안 읽기 자료 배급을 증가시키고, 학교 건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로 116개의 학교 도서관이 설립되는 성과를 얻었다(The Borgen Project, 2025). 아울러 USAID는 'Improved Learning Outcomes in Primary Education(SABER 프로젝트)'을 지원함으로써 참여 주에서 220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문해력과 산술 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사 및 학교장 훈련, 학습자료 개선, 읽기 진단 도구 활용 촉진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U.S. Embassy in Mozambique 2023).

② 캐나다

캐나다 정부의 원조 중 모잠비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對모잠비크 원조는 2010년 이후 16억 달러 이상이었다. 캐나다 원조의 핵심은 '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한 부여(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이고 원조에서의 여성주의를 중시하는 국가로 모잠비크에서도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여성에 대한 양질의 교육 확대, 성평등, 경제적 회복력 및 분쟁 해결 촉진, 더 포용적이고 분쟁에 민감한 민주적 과정 및 공공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25).

SDG 3번 관련,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총 1억 8,6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은 모잠비크의 코로나19 대응과 여성 및 소녀의 성생식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모잠비크 국립보건연구소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보건인력 교육,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소득 손실이 있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총 2,000만 달러를 지원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기본 생필품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통한 다자간 지원 일환으로, 출생 및 사망 등 인구통계 등록 강화 및 모자보건 정책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였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잠비크의 마푸토, 테테, 카보델가도, 니아싸 주 4개 교사양성대학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교폐쇄기간 중 원격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etter'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 교육인적개발부를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교 기반 성생식 건강 및 권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정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모잠비크의 보건과 교육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Government of Canada 2021).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모잠비크의 SDGs 목표별 성과, 모잠비크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엮어 표로 정리하였다. 먼저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적자원 양성'은 SDG 4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SDGs 이행 수준과 정책적 관심이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에 속하였다. 이에 '수요 재확인 유형'에 속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및 식수위생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통환경 구축'의 경우, SDG 3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목표는 이행성과는 낮지만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고 공여국 지원 규모도 많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강화' 유형에 속하였다.

〈표 Ⅱ-4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적자원 양성	SDG 4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보건의료서비스 및 식수위생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통환경 구축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강화 유형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잠비크 사무소와 SDG 목표성과,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모잠비크의 경우, 교육과 보건과 같은 기초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모잠비크 정부의 제도적·행정적 역량과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어 지원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잠비크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 마푸투의 경우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4.8명 수준이고, 지방의 연간 인구 증가율도 3%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기초 사회인프라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나, 교육·보건 등 기본 서비스의 공급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우선순위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초등교육 이수율은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은 교사 양성, 교육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 지역에서는 모잠비크 내 다양한 방언 사용으로 인한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의 전체 예산 중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 외부 지원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 분야 역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특히 HIV/AIDS 예방 및 퇴치 분야에서 모잠비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HIV 지원 체계 상당 부분이 USAID의 지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특정 공여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USAID의 지원 중단과 함께 기존 보건 분야를 지원하던 일부 공여국들도 지원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건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북부 분쟁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 사업 및 실행 전략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이 매장된 지역의 분쟁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전략 또한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채 잠재력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잠비크의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제도적 흡수 역량강화,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특정 공여국 의존 구조 완화, 그리고 정책-재정-집행 체계 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지·인프라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연계할 경우,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상호보완적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천연가스 개발

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통해 현지 고용 창출과 산업 역량 축적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 결과를 종합할 때,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KOICA가 비교우위를 보유한 직업훈련 중심 사업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모잠비크 교육체계 전반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모잠비크 정부의 교육 분야 재정 비중이 낮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고려할 때, 단위 사업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모잠비크 교육부의 정책 기획, 예산 연계,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구조적 개입을 KOICA의 차별화된 지원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프라 지원을 넘어, 교육체계의 운영 원리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실질적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향후에는 주 정부 단위 교육행정 조직의 교원 배치 관리, 학습 성과 모니터링, 예산 집행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성과 보고 및 환류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집행-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실행 역량 중심의 지원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KOICA가 장기간 축적해 온 마톨라 지역 직업훈련 사업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직업기술교육 자격체계 정비, 산업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 민관 협력 기반의 훈련-고용 연계 메커니즘 구축 등 제도화 수준으로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업기술교육이 노동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가 특정 지역·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향후 지원 방향은 직업훈련이라는 KOICA의 기존 강점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교육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과 실행 역량강화로 확장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재원 하에서 지속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기초 보건서비스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모잠비크 정부의 높은 정책적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전략적 지원이 요구된다. KOICA는 니아싸 주에서 모성·신생아·청소년 보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팔라 및 마니카 주에서도 모자보건 개선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제도적 이해를 토대로, 기초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보건부문의 제도개선과 보건부의 행정·운영 역량강화, 나아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모잠비크에는 섹터별 공여협의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공여국의 개입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예산·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HIV/AIDS와 관련, 미국 USAID 프로그램 중단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건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우려되는바,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모자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KOICA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부터 마푸투 지역에서 추진 예정인 지역병원 건립사업은 보건 체계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전략적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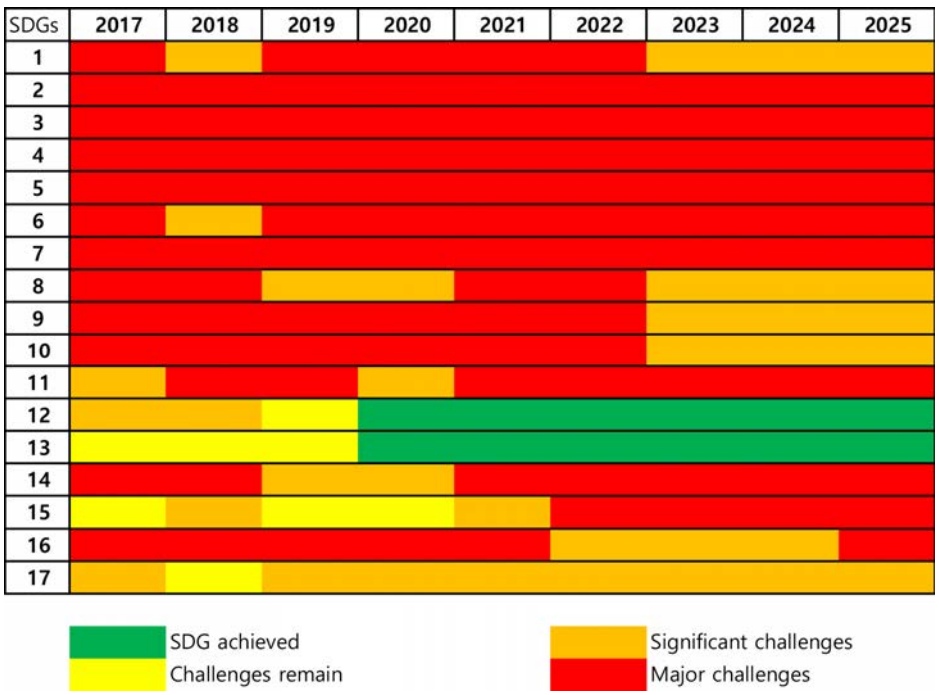
종합하면, 기초사회인프라가 취약한 모잠비크에서 교육과 보건 분야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기초 모자보건 및 직업훈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하되, 향후 정부가 해당 성과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모잠비크 정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는 산업 인프라 개발, 자연재해(홍수) 대응,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산업·인프라 분야 지원 역시 추가적인 전략 분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세네갈

(1) SDGs 이행 현황

세네갈 정부는 2014년 수립된 세네갈 신흥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 PSE 2014~2035)을 중심 개발전략으로 삼아 SDGs를 국가계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왔다. PSE는 SDG 목표의 97.1%를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구조 전환, 인적 자본 및 사회보호, 거버넌스 및 제도의 3대 전략 축을 통해 2030 의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UCLG 2022). 나아가 2024년 10월에는 비전 세네갈 2050(Vision Sénégal 2050)을 발표하고, 2025-2029년 국가발전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SND)을 통해 SDGs를 국가계획에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EPC 2025; Présidence du Sénéga, 2024; Nations Unies Sénégal 2026).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세네갈의 SDG 이행 점수는 48점에서 63.5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25년 평가대상국 167개 국 중 117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6개국 중 8번째로 평균(53.9) 보다 높은 수준이다(SDSN 2025). 다만, SDGs를 내재화하려는 세네갈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은 고무적이나, 정책적 선언이 실질적인 지표의 증진으로 전이되는 효율성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15] 세네갈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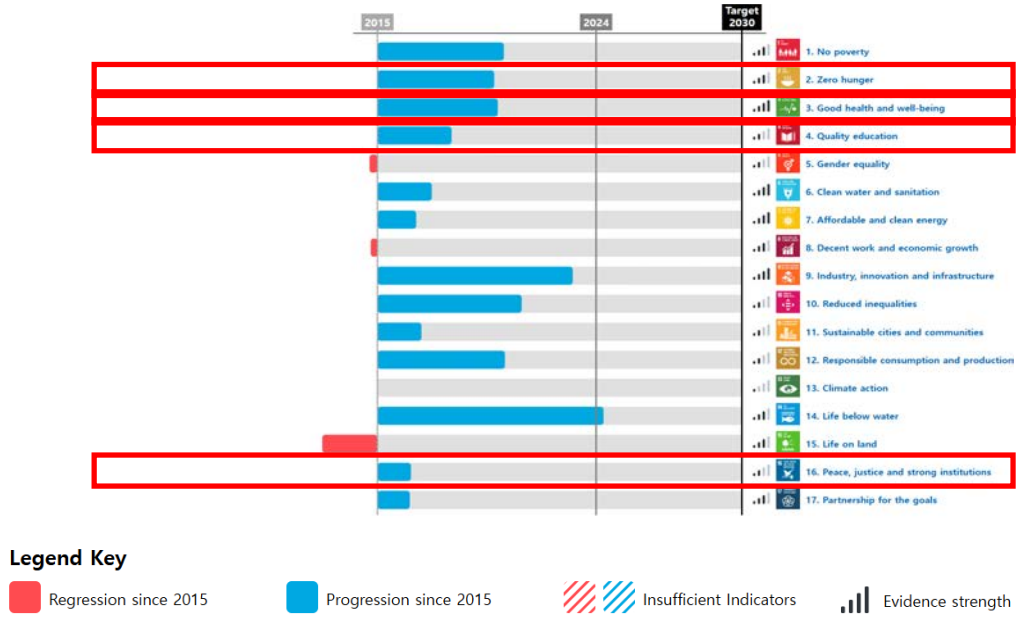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네갈은 대부분의 목표가 여전히 심각한 도전과제 단계 또는 중대한 도전과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SDGs 1, 2, 3, 4번 등 인간개발 핵심 영역에서는 뚜렷한 단계 상승 없이 장기간 정체가 지속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세네갈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 영양, 보건, 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DGs 12와 13번은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부분적 달성 단계 또는 목표 달성 단계로 개선되며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특정 목표에 국한된 것으로, SDGs 14, 15, 16번 등 환경 및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최근 오히려 후퇴 또는 정체 양상이 관찰되며, 특히 SDG 16번의 경우 지표 변동성이 크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거버넌스 역량이 SDGs 이행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16]과 같다. 지표 수준에서의 성과 추이를 보면, 2024년 기준 세네갈은 일부 경제 및 인프라 관련 지표에서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SDGs 1, 9, 10번 등 일부 경제적·물적 지표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SDGs 5, 16번 등 사회적 질적 지표와 SDG 15번 등 환경적 지표에서는 심각한 병목현상이나 퇴보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116] 2024년 세네갈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세네갈의 SDGs 이행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UN HLPF에 제출한 VNR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SDGs의 국가 전략 내 내재화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8년 VNR에서 PSE와 SDGs 간 일치는 약 7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 VNR에서는 97.1%까지 상승하여 SDGs가 사실상 국가 최상위 발전전략에 거의 완전하게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DGs가 별도의 국제 의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설계와 이행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보호 체계의 확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뚜렷한 개선이 확인된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의 확대는 세네갈 SDGs 이행의 핵심 성과로 평가되며, 질병 위험 보장률은 2015년 46.8%에서 2021년 53.2%로 증가하였다. 아동 대상 의료보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피임 보급률 상승과 청소년 출산율 감소 등 생식 보건 지표의 개선은 여성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보건 접근성 및 권리 보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47〉 세네갈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한계
SDG1	• 극심한 빈곤율이 2011년 12.2%에서 2018년 6.8%로 대폭 감소함 • CMU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32%에서 2021년 53.2%로 향상됨	• 코로나19로 인해 빈곤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SDGs는 당초 달성 궤도에서 이탈함 • 가족안전망 지원제도(Bourses de Sécurité Familiale, BSF)에 대한 예산 집행 지연 및 재원 부족 문제가 지속됨
SDG2	• 서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MDG 기간(1990-2015) 동안 기아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함 • 중등도 이상 식량불안정 인구 비율이 2015년 28%에서 2016년 16%로 감소함	• 기후 변화(사막화, 토양 침식)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위협받고 있음
SDG8	• 2014~2019 GDP 실질 성장률은 평균 6%를 상회함 • 2023년 목표 달성 예상치가 68.2%로 매우 높은 편임	• 코로나19로 2020년 성장률이 1.3%로 급락하며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줌 •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
SDG12	• 세부지표 달성률이 76.7%로 전체 SDGs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Consommation et Production Durables, CPD)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소비량 증가와 폐기물 관리 인프라 부족이 과제로 남아 있음
SDG15	• 지속가능한 관리 하에 있는 산림 면적 비율이 2015년 49.53%에서 2021년 71.23%로 크게 확대됨	•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Indice Liste Rouge)'는 0.95에서 0.90으로 하락하며 생태계 위협이 증가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2018 및 2022 활용하여 재구성

세네갈은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이라는 거시적 목표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부족이 실질적인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속가능성 및 불평등 관련 지표의 측정 역량이 4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도 여전히 상당수 지표가 측정 불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국가 통계 발전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Statistique, SNDS)의 재원 확보율이 약 44%에 그치는 등 재정적 제약이 데이터 생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원 조달의 한계와 외부 원조 의존성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2018년 VNR은 빈곤 감소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상당한 추가 재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2022년 VNR에서는 ODA의 감소 추세가 SDGs 달성에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KOICA 세네갈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농촌종합개발',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창업지원'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2, 3, 4,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17] 세네갈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세네갈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목표 모두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DG 2번의 경우 SDG 이행 점수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행 점수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는 해당 분야의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교란, 농촌 지역의 구조적 소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도시 및 인프라 중심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 평균은 개선되고 있으나, 식량 안보와 농업 부문은 이러한 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DG 3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동일 기간 이행 점수 역시 상승하고 있어, 그 격차는 크게 축소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보건 분야에서 점진적 성과는 존재하나, 전반적인 발전 속도 대비 상대적 개선 속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SDG 4번 역시 SDG 이행 점수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 속에서 2021~2022년 사이 소폭의 개선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며, 교육 접근성 및 질적 수준 개선이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DG 16번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목표로, 2016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이행 점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제도적 안정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네갈의 민주주의 후퇴 경향과도 일정 부분 맥락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세네갈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세네갈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VNRs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3월 제3차 VNR 준비 프로세스를 공식 출범하였다(Nations Unies Sénégal 2026). 세네갈 정부는 SDGs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내재화하며 체계적 대응을 추진해 왔다. 2022년 기준 PSE와 SDGs 간 정합성은 97.1%까지 제고되었으며, 빈곤 감소, 사회적 포용, 기초 서비스 접근성 확대,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대응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PSE의 3대 전략 축—경제 구조 전환(Transformation structurelle de l'économie et croissance), 인적 자본 및 사회 보호(Capital humain, Protection sociale et Développement durable), 거버넌스 및 제도(Gouvernance, Institutions, Paix et Sécurité)—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통합국가재원 조달체계(Cadre National de Financement Intégré, CNFI), 민관협력(Partenariats publics-privés, PPP), 조화된 모니터링 체계(Cadre harmonisé de Suivi et d'Évaluation,

CASE) 등을 통해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République du Sénég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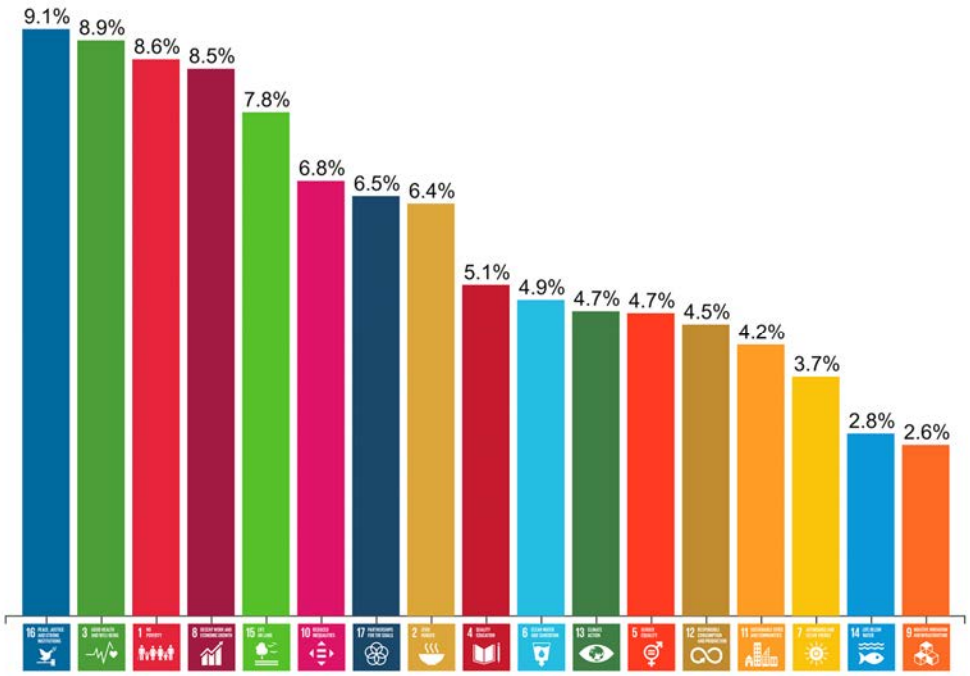
특히 2022년 VNR은 향후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원 조달 구조의 혁신을 위해 INFF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PPP 제도 개선과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 secteur privé, SNDP)을 통해 민간 투자를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기후 및 녹색기금, 이슬람 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개발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SDGs의 지역화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계획(Plans de Développement communal(PDC), Plans de Développement départemental(PDD))을 바탕으로 SDGs 이행에 참여하는 분권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데이터 기반 이행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포용적 데이터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성별·연령·지역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SNDS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넷째, 분야별 가속화 전략으로서 'Gas to Power' 정책을 통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 CDN과 적응 계획(Plan National d'Adaptation, PNA)을 통한 기후 대응 강화, 그리고 사회 보호 및 금융 포용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참여를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PSE 기반의 이행 전략은 최근 발표된 Vision Sénégal 2050과 SND 2025~2029를 통해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프레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sion Sénégal 2050은 8개 경제 거점을 중심으로 한 분권화 발전 전략을 통해 SDGs 이행의 지역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제3차 VNR 준비 프로세스 역시 이러한 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22년 VNR에서 제시된 재원 다변화, 지역 중심 이행, 데이터 기반 관리, 분야별 가속화 전략이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재구성·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SDG Mapper를 통해 키워드 빈도로 살펴본 VNRs은 SDG 16, 3, 1, 8, 15, 10번이 많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세네갈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SDG 16번은 PSE 및 후속 전략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거버넌스 개혁, 공공행정 현대화,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제도적 기반 구축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 의제가 집중적으로 서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원 조달, 정책 이행 관리, 데이터 체계 구축 등도 모두 제도적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SDG 16번은 SDGs 이행 전반을 관통하는 '횡단적 목표(cross-cutting goal)'로 기능하고 있다. SDG 3, 1, 8번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VNRs에서

강조된 사회보호 확대, CMU,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과 같은 핵심 정책 영역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SDG 15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네갈이 직면한 사막화, 토양 황폐화, 해안 침식 등 기후·환경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나아가 농업 생산성, 식량안보, 생계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다루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SDG 10번 역시 지역 간 격차,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포용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빈번히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SDG 2와 4번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는 해당 분야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은 SDG 3이나 1, 8번과 결합된 통합적 서술 방식으로 다루어지면서 개별 목표로서의 직접 언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Ⅱ-118] 세네갈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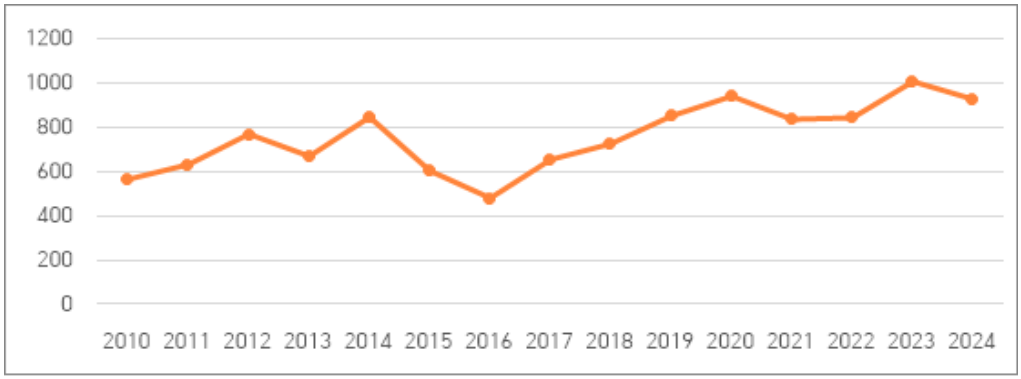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SDG 2번과 관련해서는 외부 원조 의존적 식량 체계에서 탈피하여 식량 주권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식량 안보 회복력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Résilience, SNSAR 2015~2035)을 핵심 이행 틀로 삼고, Vision Sénégal 2050의 농업 부문 전략과 연계하여 식량 자급

률 제고와 농업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Ulysseus European University, 2024). 특히 WB와의 아그리커넥트(AgriConnect) 협력을 통해 식량자급률 90% 달성과 농업 부문 고용 확대(정규 일자리 80만개 창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WFP의 지원 역시 직접 식량 제공에서 정부의 사회보호·영양 시스템 역량강화로 전환되는 등 국가 주도형 식량안보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World Bank 2026a; WFP 2024). SDG 3번에서는 CMU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세네갈은 CMU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까지 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기반 보험 관리,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등은 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UNDP 2025). 또한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NAATANGUE 2030(Senegal Health System Development and Financial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모성·신생아·아동·청소년 보건 개선, 취약계층 보험 확대, 농촌 지역 의료 인력 배치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건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World Bank 2026b). 또한 SDG 4번에서는 교육의 질·형평·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PAQUET-EF 2018~2030(Programme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Équité et de la Transparence du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을 중심으로 이행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교육 재정 시뮬레이션 모델 도입을 통해 정책 목표와 재정 계획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교육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정책 방향은 직업기술교육 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중등교육 이후 일정 비율을 직업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업, 사회적 배제, 청년 이주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UNESCO 2023; Diouf and Neyestani-Hailu 2019). 한편 SDG 16번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제도 자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e-Justice 플랫폼을 도입하여 행정 및 사법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조세 기반 확대, 탈세 방지, 에너지 계약 재조정 등을 통해 국내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원조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CINU Dakar 2025; Miridzhanian 2025). 이러한 정책은 SDGs 이행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그림 Ⅱ-119]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의 세네갈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증감이 반복되는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비교적 뚜렷한 감소세가 관찰되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여국 지원이 긴급 대응 국가로 재배분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었던 세네갈에 대한 재원 유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특히 2023년 재원의 증가세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35]과 같은 기후·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대규모 협력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되는데, 이는 대선 전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공여기관의 위험회피적 태도 강화, 그리고 국제적 재정 긴축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림 Ⅱ-119] 세네갈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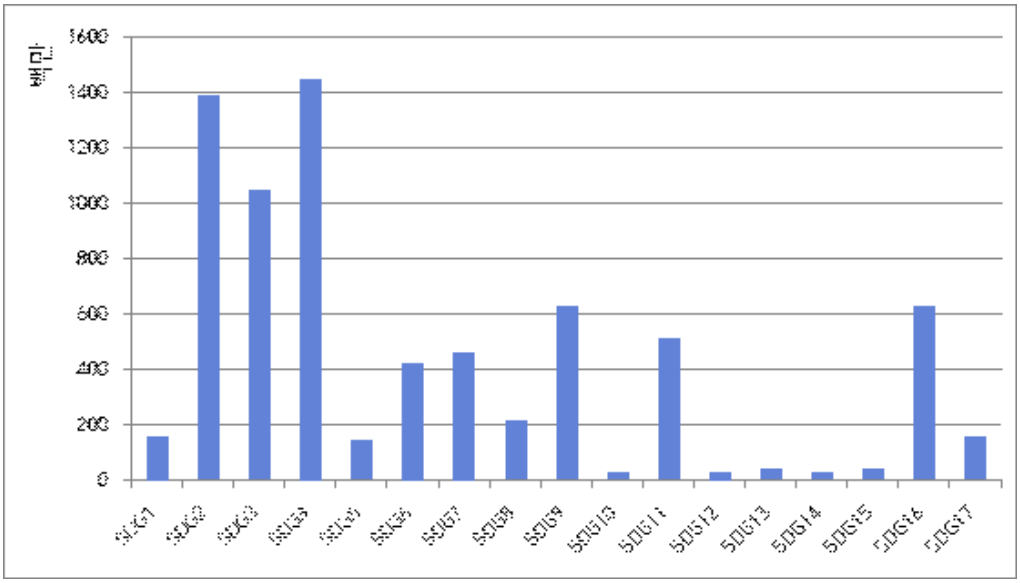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세네갈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SDGs 4, 2, 3번이 각각 20%, 19%, 14%를 차지하며, 전체 지원액의 총 53%를 구성한다. 이는 해당 세 목표가 SND 2025-2029의 4대 전략축, 특히 인적 자본 및 사회 정의 및 경쟁력 있는 경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여국 지원이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2021년 COP26에서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화석연료(특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금융 및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체로, 세네갈과는 2023년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총 25억 유로 규모의 협정 체결함 (https://www.keei.re.kr/pdfOpen.es?bid=0014&list_no=127166&seq=1)

[그림 Ⅱ-120] 세네갈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살펴보면 2번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가, 3번은 미국, 일본, 프랑스가, 4번과 16번은 프랑스, 캐나다, 미국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개 목표의 합으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지원이 각각 33%와 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10번째로 4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2%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50%는 SDG 9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4번에 13%, SDG 2번에 12%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48〉 세네갈 SDG 2,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벨기에	43	41	20	15	118
캐나다	173	35	225	89	522
프랑스	210	92	683	248	1,233
독일	17	7	43	82	150
이탈리아	65	3	32	5	105
일본	138	147	118	7	411
룩셈부르크	4	42	70	26	143
스페인	64	23	18	44	149
미국	607	626	182	80	1,495
기타	65	28	57	25	174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세네갈은 미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로 기능해 왔다. 미국의 대세네갈 개발협력은 지난 10여 년간 인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지원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재정 축소와 함께 자립 기반 협력 모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보건, 식량안보, 교육 등 SDGs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의 정책 변화는 지원 규모의 축소와 함께 협력 방식의 질적 전환을 동반하고 있다. 미국의 대세네갈 개발협력은 전통적으로 보건, 식량안보, 교육 등 SDG 3, 2, 4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세네갈의 SDGs 이행에서 핵심적인 인간개발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지원 규모는 약 2억 3,510만 달러(USAID, 국무부, 평화봉사단 등 포함) 수준이었으나, 이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2025 회계연도에는 약 7,44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USAFacts n.d.).

먼저 보건 분야는 미국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PMI)[36]는 살충 처리 모기장 보급, 지역사회 보건인력 양성, 실내 방역 활동 등을 통해 말라리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PMI 2024).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과기반재정(Results-Based Financing, RBF) 도입과 모성·신생아·아동보

36) 2005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하는 범아프리카적 보건 안보 프로젝트

건(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RMNCH)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과 의료기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R4D n.d.; Abt Global 2021), 지역 건강보험과 CMU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접근성과 재정적 보호를 제고하였다(Abt Global 2020). 나아가 HIV/AIDS 대응 프로그램은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Puentes 2025). 이러한 개입은 세네갈의 주요 보건지표 개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식량 공급 (Feed the Future, FTF)'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 시장 접근성 강화, 농촌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 가치사슬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청년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는 세네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접근성 및 질적 개선 정책과 일정 부분 정합성을 가지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원조 축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중단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ahim et al. 2025).

2025년 이후 미국의 지원은 USAID 기능의 대폭 축소와 함께 다수의 원조 계약이 종료되면서, 세네갈에서도 보건·영양·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재원 공백이 발생하였다(Afrique XXI 2026; Puentes 2025). 특히 HIV/AIDS 대응과 같은 취약계층 중심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서비스 축소가 나타나는 등 단기적 충격이 확인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기존의 프로젝트 중심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택적이고 조건부적인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026년 체결된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37]를 통해 구체화된다. 2026년 체결된 미-세네갈 보건 협력 MOU(2026~2030)는 약9천만 달러 규모로, 기존 USAID 중심의 원조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립(self-reliance)'을 명시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보건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의약품 조달, 인력 급여, 실험실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세네갈 정부로 이전하는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이다(Ekanem 2026; U.S. Embassy in Senegal 2026). 또한 해당 협력은 단순한 보건 서비스 지원을 넘어 디지털 보건,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보건 시스템 전반의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네갈

37) 미국은 향후 5년간 최대 6,3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주요 보건 프로그램, 디지털 보건 사업 및 기술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함. 세네갈은 향후 5년간 새로운 보건 자금으로 2,73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며, 조달, 인적 자원 및 디지털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함 (U.S. Embassy in Senegal. 2026)

정부 역시 재정적 공동 부담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공중보건연구소 설립, 전자 환자기록 시스템 도입, 원격진료 확대, 의약품 자급률 제고 등 '보건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 모델은 일부 조건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도 존재한다. 특히 자원 접근 및 데이터 공유와 연계된 조항에 대한 우려는 향후 개발협력에서의 조건성(conditionality)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Lawal 2026).

② 프랑스

프랑스는 세네갈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 공여국 중 하나로(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5), 양국 간 개발협력 관계는 식민지 시기 이후 형성된 정치·경제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지속되어 왔다(AFD, n.d.). 프랑스의 대세네갈 개발협력은 주로 AFD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 이후에는 경제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도시 개발, 사회 분야(교육·보건)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AFD 2024).

첫째, 경제 경쟁력 및 민간 부문 지원은 세네갈의 구조적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세네갈 경제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Programme d'Appui au Renforcement de la Compétitivité de l'Économie Sénégalaise, PARCES)[38]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 투자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민간 주도 성장 기반 구축과 직결되는 개입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은행과의 공동 재원 조달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권화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면서, 국제개발금융 간 협력적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공동 파이낸싱 규모는 협약 이후 크게 증가하여, 다자개발은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도시 개발 분야는 프랑스 지원의 핵심 영역으로, 특히 다카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거버넌스 및 지방분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카르 광역권 지방분권 지원 프로그램(Programme d'Appui à la Décentralisation et au Développement Local, PRECOL)[39]을 통해 도시 인프라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역량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및 광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며, 산업화와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를 보인다. 셋째, 교육·보건 및 사회 개발 분야는 프랑스 ODA의 전통적인 핵심 영역으로, 인적자본 개발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AFD는 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건설, 농업기술 보급, 해양

38) 세네갈 정부의 산업 정책 초기 모델로 사업의 재원 상당 부분을 AFD에서 지원함
39) 세네갈 정부의 국가 지방 분권화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프로그램으로 AFD에서 재원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CMU 체계 강화와 지역 보건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세네갈의 인간개발 지표 개선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프랑스의 개발협력 정책은 재정 제약에 따른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에서도 추가적인 감액이 확정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DA/GNI 비율 역시 하락하여 국제사회에서의 0.7% 목표 달성은 장기적으로 연기된 상황이다(Donor Tracker 2025). 특히 이러한 삭감은 인도주의 지원, 식량 지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 보조금 중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아, 보건, 교육 등과 직결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Focus 2030 2025).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4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농촌종합개발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창업지원	SDG 4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전략적 개입 필요 유형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은 세네갈의 SDG 2번을 지원하고 있다. 세네갈의 SDG 2번 목표 달성 수준은 낮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낮은 편이다. 단,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재확인 유형으로, 국제적 개입과 협력국 정책 수요 간 괴리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세네갈 정부는 Vision Sénégal 2050과 식량주권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AgriConnect 이니셔티브, 캐나다 및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농업 분야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40].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KOICA는 기존의 인프라 확충이나 투입물 중심 지원 외에도,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시장 연계 강화 등 성과 중심 접근으로의 변화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네갈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민간

40) 사무소 인터뷰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농업 기술 도입, 가치사슬 고도화,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공여국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세부 영역에 선택적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적합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한 협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KOICA의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또는 자원 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유형임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국의 정책 수요 또는 협력 여건이 현저히 약화될 경우에는 신속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은 세네갈의 SDG 3번을 지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네갈의 SDG 3번 목표 달성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높은 편이며, 공여국의 지원도 많은 편이다. 이는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으로 구조적 병목이 존재하는 보완적 개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세네갈 정부는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 NAATANGUE 2030 프로그램 추진, 디지털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건 분야를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청소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보건 인프라와 공공보건 체계에 대한 관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고, 농촌 및 취약지역의 의료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KOICA는 병원 및 보건 시설 구축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보건정보시스템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성과관리 역량강화 등 제도적·운영적 보완에 중점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나 디지털 보건과 같은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여를 모색하고, 공여국 간 분업과 조율을 통해 특정 기능 또는 지역 단위의 전문화된 개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내륙 및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보건체계 강화는 세네갈 정부의 우선순위와도 높은 정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세네갈의 SDG 4번을 지원하고 있다. SDG 4번은 SDG 2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목표 달성 수준은 낮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수요 재확인 유형이다. 국제적 개입과 협력국 정책 수요 간 괴리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농촌개발 분야와 유사하게 개입 방식의 재검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단순히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세네갈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교육 자체보다는 청년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SDG 8)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직업기술교육훈련 확대와 청년 일자

리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네갈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KOICA는 전통적인 직업훈련 시설 구축이나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접근을 넘어,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산업 수요 연계형 인력 양성 등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 공여국이 참여하는 분야인 만큼 공여국 간 조율을 통해 IT 기반 직업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발휘될 수 있는 틈새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SDG 2번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향후 사업 성과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높은 개발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의 전략적 조정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은 세네갈의 SDG 16번을 지원하고 있다. 세네갈의 목표 달성 수준은 낮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에 KOICA의 선도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개입 필요 유형에 해당한다. 세네갈의 행정·제도 분야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나 실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KOICA는 전자정부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네갈은 국가 오너십이 강한 국가로 평가되며, 외부 공여기관이 주도하는 제도 개혁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협력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 하나, 이를 다른 행정부처로 확대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지원은 파일럿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으로, 세네갈의 제도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네갈은 최근 Vision Sénégal 2050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오너십 역시 비교적 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KOICA의 지원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자재 제공 중심의 접근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협력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확산할 수 있는 역량 구축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과지표 설정, 운영체계 구축,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에 협력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공동 합의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세네갈 정부가 민간투자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중심 협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연계,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중심 협력 등 보다 다양한 협력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네갈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성과의 현지화와 장기적 확산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알제리

(1) SDG 이행 현황

알제리는 2019년 VNR을 처음 발간하며, 빈곤 감소, 포용적 사회보호 체계 구축,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및 모자사망률 감소 등을 목표로 SDG 아젠다를 이행하겠다 밝혔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다만 알제리 정부는 자국의 SDG 이행에 대하여 아직 알제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데이터 수집 역량 등에 제한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글로벌 아젠다인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알제리에서 현재 KOICA는 SDG 4, 9, 16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3가지 목표의 SDG 이행 현황을 VNR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SDG 4번 관련, 알제리는 교육 분야에서 '알제리 교육: 2030을 향한 교육의 질 과제(L'Ecole algérienne: les défis et la qualité 2030)' 비전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상 미취학-대학생까지의 무상교육과 6세부터 16세까지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이에 따라 학령기별 총취학률은 2018~2019 기준 초등학교 약 97%, 중학교 약 96%로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비중이 남학생보다 높았다(전체 학생 비중 중 62%) (Government of Algeria 2019). 또한, 2018년 기준 문맹률(비문해율)도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즉, 교육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성별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에는 정부지출 중 교육 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2013년 정부지출의 17.6%에서 2024년 14.4%), 초등교육 단계에서 질적 수준을 갖춘 교사의 비율이 2014년 100%에서 2023년 91.5%로 감소하는 등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질적 수준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교육 분야 관심 제고와 교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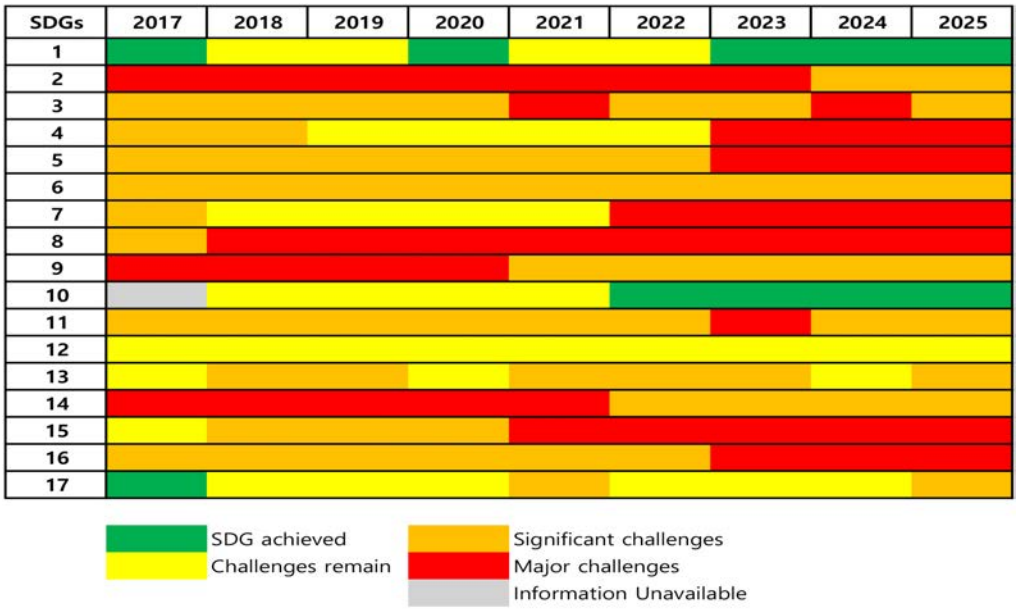
SDG 9번과 관련하여 알제리 정부는 인프라 및 통신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알제리는 약 20만km의 도로망 구축을 이루었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항·지하철 및 트램 등 교통수단의 확장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통신 측면에서도 모바일 가입자가 2000년도 4.2만 명에서 2018년 5,150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 인구가 1,000명당 1.5명에서 725명으로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산업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19년 VNR에서 '제조업 부문을 통한 부의 창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으며,

알제리의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GDP는 최근 5년 평균 GDP의 3.9%에 불과하고 전체 고용 중 산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12%에 그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음 SDG 16번 관련, 알제리는 평화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알제리는 2016년 기준 살인, 인신매매 및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에 대하여 수치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고, 2015년 아동보호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하였음을 강조했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또한, 2016년 헌법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생등록률 상승, 시민사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자금 및 부패 부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정량적 개선 수준이 VNR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해당 영역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SDG 16 전반에서 일부 제도적·법적 기반의 개선은 확인되나, 거버넌스의 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과 성과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제리에서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1, 2, 10번 정도였다. 반면, 전체 SDGs 목표별 달성도를 평가한 SDG 이행 점수의 경우 2016년 71.1점에서 2024년 70.1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SDSN 2025).

[그림 Ⅱ-121] 알제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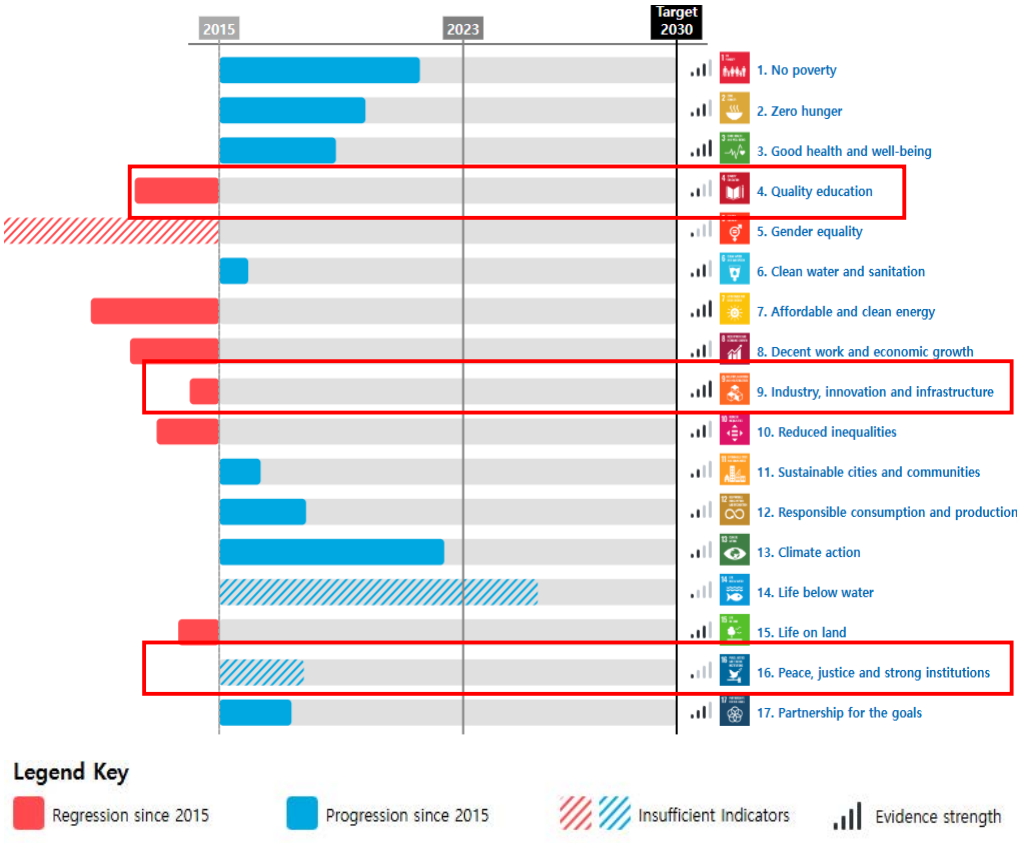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가 알제리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행정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기후회복력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16, 9, 4번에 해당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22]와 같이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대비하여 SDG 4, 7, 8, 9, 10 및 15번 목표는 후퇴하고 있었다. 한편, SDG 1, 2, 3, 6, 11, 12, 13 및 17번 목표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SDG 5, 14 및 16번은 진척 정도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그림 Ⅱ-122] 2023년 알제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알제리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 9 및 16번 모두 알제리의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보다 낮았다. 특히 SDG 4번의 경우, 2018~2019까지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2021년 이후부터 SDG 이행 점수보다 수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Ⅱ-123] 알제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알제리 정부의 SDG 이행 노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알제리는 SDG를 '2017년 정부행동계획(Plan d'Action du Gouvernement 2017)' 등 국가 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알제리 외교부는 부처 간 SDG 조정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ODD)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는 양원 의회, 국가경제사회위원회, 통계청 등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해당 위원회는 △빈곤 종식 및 젠더평등 증진, △식량안보 보장 및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경제발전, △생태계 보호,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 △글로벌 연대의 6개 주제별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각 그룹은 주무 부처가 주도적으로 분담된 SDG 목표를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 내부에는 별도의 분야별 위원회를 두어 SDG 이행 진행상황을 환류·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알제리는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거시적인 국가전략 중 하나로 '알제리 국가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NEDD) 2019-2035'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9). SNEDD는 알제리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자연 및 문화 자산 보전, △녹색·순환경제 발전, △사막화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환경 거버넌스 개선 등 7대 축에 초점을 맞추고 SDG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통계청을 주축으로 국가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SDG 목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국가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된 71개 지표를 활용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9).

한편, 목표 4번과 관련하여 알제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교육분야 전략인 'L'Ecole algérienne: les défis et la qualité 2030' 전략을 토대로 헌법상 미취학-대학생 무상교육 및 6~16세 무상교육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문해 교육 및 학습평가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Government of Algeria 2019). 또한, 2022년 6월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칙령을 통해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하도록 결정, 알제리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2023학년도부터 약 20,000개 초등학교에서 주 2회 45분 단위 영어수업이 시작되었으며, 2023~2024부터 고등교육 기관에 초등 영어 교사 양성 전공이 신설되기도 하였다(BBC 2022).

SDG 9번과 관련, 알제리는 자국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알제리 지식경제 및 스타트업 대표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창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부처가 지식경제, 스타트업 및 마이크로 기업부로 승격되었다. 해당 부처 설립 이후 알제리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2,0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기업 발전을 위한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3). 또한 가장 최근 2025년 5월에는 '디지털 알제리를 위하여(For a Digital Algeria)' 슬로건 하에 2030 알제리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공식 발표되었다. 해당 로드맵은 5개의 축(인프라, 인적자원, 규제, 서비스 및 거버넌스)으로 구성되어 알제리의 2030년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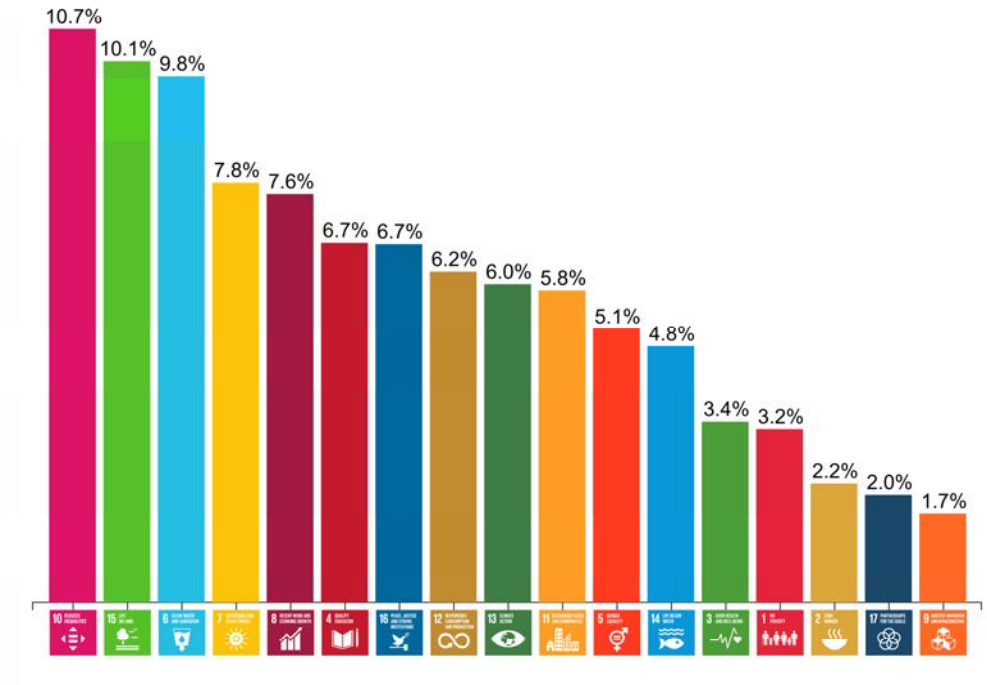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알제리 정부는 2020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하여,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판권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고등기구의 헌법기관화 등 헌법

기반의 국가 체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하였다(Massensen Cherbi 2023). 이후 2022년에는 새로운 '부패방지·예방·투명성 고등기구(Haute Autorité de la Transparence, de la Prévention et de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를 설립하여 공직자의 부정에 대한 행정적, 재무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재산공개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였다(HATPLC 2023).

이처럼 알제리는 SDG를 국가 발전 전략과 제도 전반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면서, 거버넌스 기반 구축, 교육개혁, 산업·디지털 전환, 제도 개혁을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을 추진해왔다. 특히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과 국가 전략(SNEDD)을 중심으로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 확인된다.

한편, 알제리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알제리 정부는 SDG 6, 7, 8, 10, 15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OICA가 C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목표는 해당이 없었다.

[그림 Ⅱ-124] 알제리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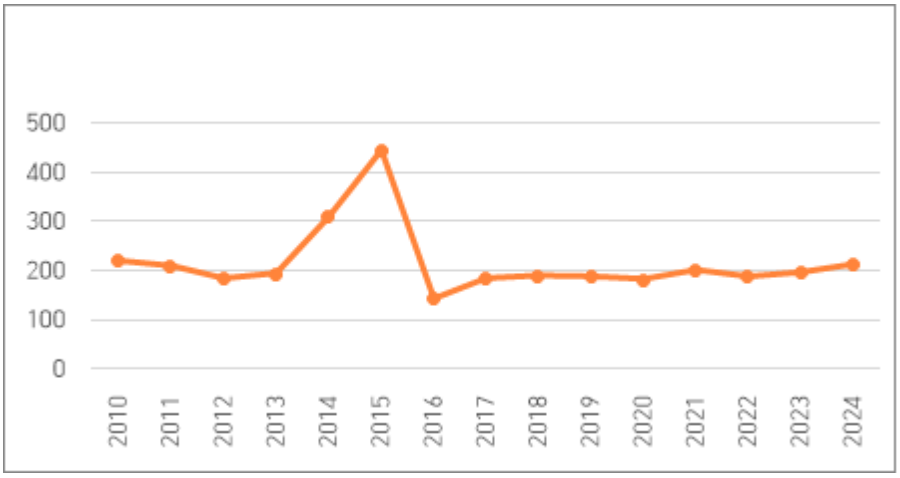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알제리에 대한 ODF 금액은 2015년에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2016년 급감한 후 현재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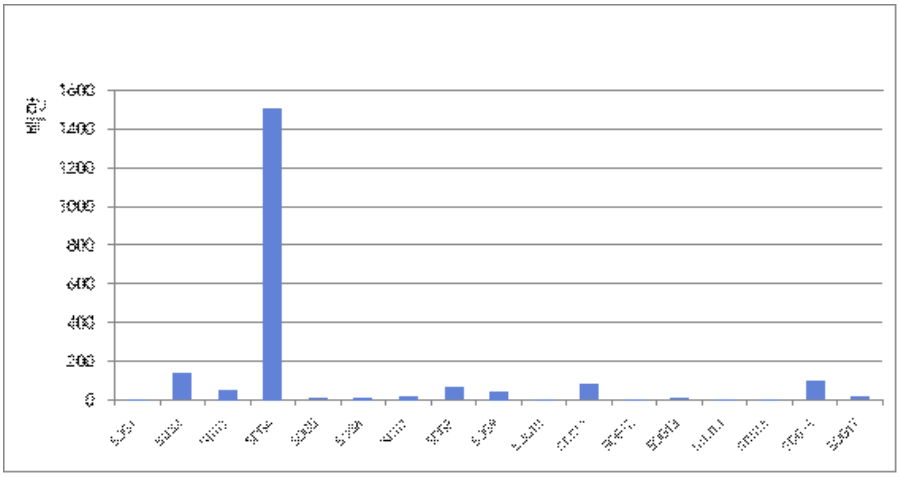
[그림 Ⅱ-125] 알제리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알제리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1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DG 4번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Ⅱ-126] 알제리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CP가 지원하는 SDG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보면, SDG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프랑스, SDG 9번은 독일, SDG 16번은 다시 프랑스였다. SDG 4번, 9번, 16번을 합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프랑스였고 그 다음은 독일이었던 바, 해당 두 국가의 對알제리 SDG 지원 활동을 살펴보았다.

〈표 Ⅱ-50〉 알제리 SDG 4,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	-	-	-
캐나다	3	-	1	3
프랑스	1,394	-	32	1,427
독일	34	11	1	46
일본	14	-	1	16
한국	4	4	2	10
스위스	1	-	1	2
영국	16	7	19	42
미국	-	-	7	7
기타	41	21	30	92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프랑스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1962년에 독립하였으나, 프랑스와 알제리의 양자 협력 관계는 해당 시점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프랑스 AFD는 1968년 알제리 사무소를 개설하고 알제리의 인적자본 개발, 경제 다각화, 저탄소 전환, 환경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현재까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 UMIC)인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은 저소득국 지원과는 다른 양상으로, 양허성 차관, 기술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2022년 8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선언(Déclaration d'Alger pour un Partenariat renouvelé)'을 발표하였고, 향후 보건·농업·기업 발전·산업·교육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앞으로도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Élysée 2022).

특히 이러한 양국 간 협업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은 'PROFAS B+(Programme de Formation Algéro-Français)' 박사과정 장학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알제리 양국이 매년 각 120만 유로씩 균등부담하는 구조로 2014~2018 300여

명의 알제리 박사과정생이 프랑스의 우수 연구소에 진출하였으며, 연 650명 규모의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하였다(Campus France 2018).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알제리 현지에서 프랑스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거나 양국 합작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양국 대학 학위를 모두 공동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협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4년 양국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알제리 학생들의 프랑스 비자 발급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기 시작했으며(TSA Algérie 2025), 영어 교육을 프랑스어 교육보다 강조하면서 교육 분야 협력이 주춤하는 추세이다.

목표 9번 관련, 프랑스는 AFD를 통해 1968년부터 알제리의 경제, 에너지,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해당 지원이 AFD의 민간부문 자회사 프로파코(Proparco)와 Expertise France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과정에서는 EU 자금 운용 비중이 매우 큰데, 이는 알제리가 UMIC 국가이면서 알제리도 산업 분야 지원에서 전통적 ODA 형태보다는 민간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AFD 2026). 이외에도 프랑스 AFD는 알제리 도시 개발 부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FD는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알제리 지하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를 개발하고, 알제리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맞추어 알제리 에너지광산부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AFD 2026). 또한,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다각화 측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 부문 지원들도 2024년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향후 원만한 추진에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16번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먼저 알제리 사법 행정인력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알제리 법무부 산하 국립 사법서기관학교와 프랑스 기관 간에 교환인력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약 204명의 사법 서기관 및 기술직 직원이 양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인력들은 사법 기록 관리, 법원 행정 디지털화 등에 대한 연수를 수료하였다(Algerian Ministry of Justice, 2025). 또한, AFD는 알제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후원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NGO Batik International은 AFD의 지원을 받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4개국에서 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Karama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여성 인권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Batik International 2025).

종합하면, 프랑스와 알제리 간 협력은 1962년 알제리의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왔으며, 알제리가 UMIC라는 점에서 전통적 원조보다는 양허성 차관, 기술협력, 민간투자 연계 등 차별화된 형태를 보였다. 다만, 2024년 이후 외교 관계 경색으로 인해 최근의 협력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독일

독일의 알제리 지원은 GIZ를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경제발전, 직업교육훈련, 기후행동,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먼저 SDG 4번과 관련, GIZ는 BMZ 위탁으로 직업훈련센터 졸업생의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취업 연계 강화,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IT 분야 중심 교육모듈 개발, 교사 및 강사 역량강화, 기업 협력 기반 교육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GIZ 2023). 또한, GIZ TVET 아카데미를 통해 알제리 직업교육 시스템의 거버넌스, 디지털화, 녹색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역량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다음 목표 9번과 관련, 독일은 알제리의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제도적·구조적 지원 모델을 구축해 왔다. 핵심 축은 2015년 출범한 '독일-알제리 에너지파트너십(German-Algerian Energy Partnership)'으로 이는 정책 대화, 에너지 관련 작업반 운영, 정례 협의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분야의 제도 학습과 정책 이전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기반 협력이다(GIZ 2025). 이러한 거버넌스 협력을 기반으로 'TaqatHy' 및 'TaqatHy+'은 EU와 독일이 공동 재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망 통합, 녹색수소 경제, 에너지효율, 메탄 배출 저감 등 에너지전환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및 유럽 연계 프로젝트와도 직접 연계되고 있다(Hydrogen Central 2025). 한편 GIZ의 녹색·디지털 경제발전 사업은 스타트업 정책 자문과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목표 16번 관련, 독일의 알제리 대상 협력은 정부 대 정부 간 직접 협력보다는 민간재단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원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Ebert)' 재단은 알제리 현지 사무소를 기반으로 정치교육,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협력, 정책연구 발간, 장학금 지원 등을 수행하며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정책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Friedrich Ebert Stiftung 2026).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Adenauer)' 재단은 정치적 대화, 미디어,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정당-시민사회-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알제리 내 시장경제, 인권 향상, 법치주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Konrad Adenauer Stiftung 2026). 이처럼 독일은 민간재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간접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성과, 알제리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엮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행정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은 SDG 16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SDGs 이행 수준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적어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속하였다. 다음 SDG 9번을 지원하는 '기후회복력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해당하였다. 한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이행성과와 정책적 관심이 낮고, 공여국 지원 규모는 많아 '수요 재확인 유형'에 속하였다.

〈표 Ⅱ-51〉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행정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기후회복력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SDG 4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알제리는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행정 인력의 디지털 역량강화 등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 정부 역시 최근 헌법개정, 반부패 기구 설립, 국가 통계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SDG 16번 분야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는 알제리에서 '알제리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 사업' 및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디지털 보안 및 공공안전 분야의 기술적·제도적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사업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경험은 치안 행정뿐 아니라 공공행정

전반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기후회복력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기반 구축과 실행 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디지털 알제리 2030(Digital Algeria 2030)'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등 주요 공여기관 역시 재생에너지, 녹색수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KOICA는 현재 추진 중인 '대기환경 모니터링 및 대기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역량강화와 환경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물 관리와 농업 등 기후 취약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SDG 4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 중심의 접근보다는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노동시장 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알제리의 청년 실업 문제를 고려할 때,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와 취업 연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KOICA는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기업 참여형 훈련 모델 도입,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고용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공여국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ICT·녹색기술 등 차별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개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알제리는 상위 중소득국으로서 기초적인 서비스 접근성 확대보다는 산업 다각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 과제에 직면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헌법개정, 반부패 기구 설립, 디지털 알제리 2030 전략 수립 등 제도 및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교육, 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OICA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 지원보다는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기후·환경 관리, 미래 인재 양성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성과를 제도와 정책 수준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알제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에티오피아

(1) SDG 이행 현황

2022년 에티오피아가 발간한 VNR에 따르면 SDG 목표 전반에 대하여 개선을 이루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FDRE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2022). 특히 가장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분야는 SDG 13번이었다. 에티오피아는 가뭄, 홍수, 감염병, 지진 및 분쟁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3년부터 Disaster Risk Management(DRM) 정책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9~2020에는 낙농업,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분야의 기여로 총 91.4 MtCO2(백만 톤)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향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임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분야들의 기여를 더욱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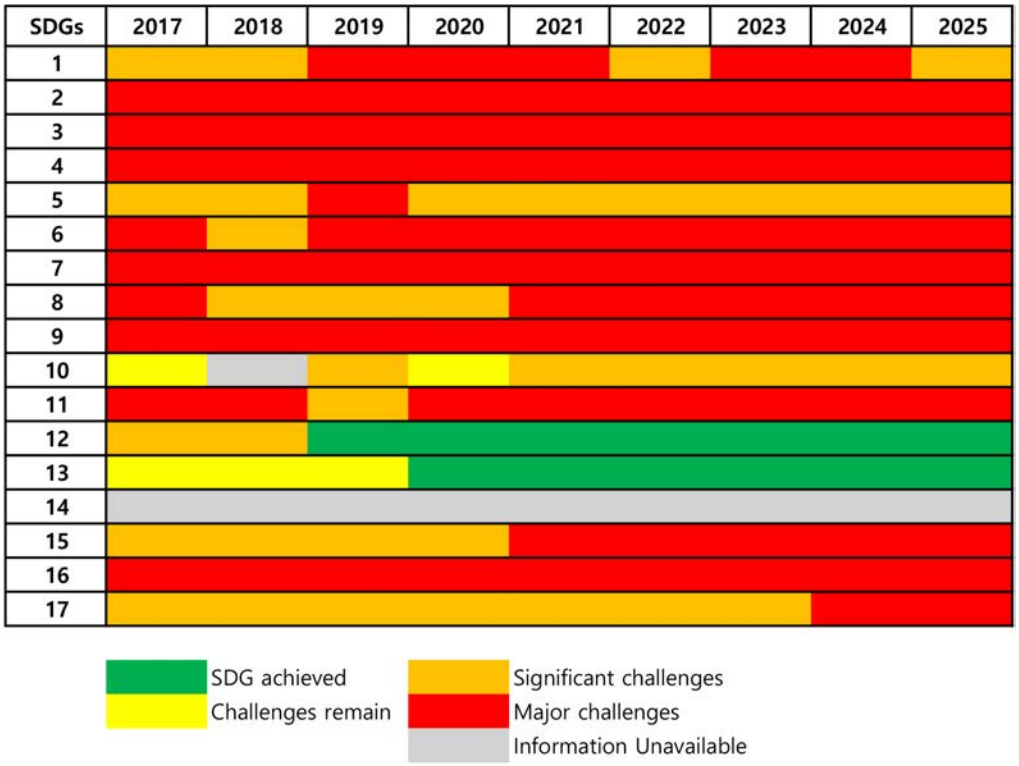
이외 SDG 지표에 대해서는 일부 유의미한 개선이 존재하였다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고하였다. 먼저, SDG 1번과 관련, 정부는 빈곤해소를 위하여 총예산의 2/3을 빈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교육, 보건, 식수, 교통 등에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에티오피아 인구의 빈곤율은 2015~2016 23.4%에서 2019~2020에 19%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2021년부터 아파르 및 암하라 지역 내에서의 분쟁이 발발, 해당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2번 목표 관련,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유병률이 2015~2016 38%에서 2019~20 37%로, 저체중 유병률은 10%에서 7%로 감소하였다. 다만, 만성적 영양실조 유병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뭄, 코로나19, 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번 목표와 관련, 5세 미만 사망률은 2015~2016 1,000명당 67명에서 2019~2020 59명으로 감소하였고 숙련된 보건 인력이 참여한 출산의 비율도 동일 기간 28%에서 50%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29명에서 33명으로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중등교육 등록률(2015~2016 23.8% → 2020~2021 29.5%) 및 중등교육 성평등지수(2015~2016 0.87 → 2020~2021년 0.92)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초등교육 등록률 및 중도 탈락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 SDG 5번과 관련, 에티오피아의 글로벌 젠더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가 2015년 124위에서 2021년 97위로 크게 향상되는 등 성별 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SDG 9번 분야에서는 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SDG 16번 분야에서도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2015~2016 102위 → 2020~2021 87위)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인프라와 사회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거나 인도주의적 위기와 안보 불안정을 야기하여 전반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티오티아에서 2017년 이후 진척을 보였던 목표는 SDG 12번, 13번이었으며, 나머지 지표들의 경우 변화가 없거나 지표 달성 정도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SDG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에티오피아는 2017년 51.9점에서 2024년 55.4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목표별 달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SDSN 2025).

[그림 Ⅱ-127] 에티오피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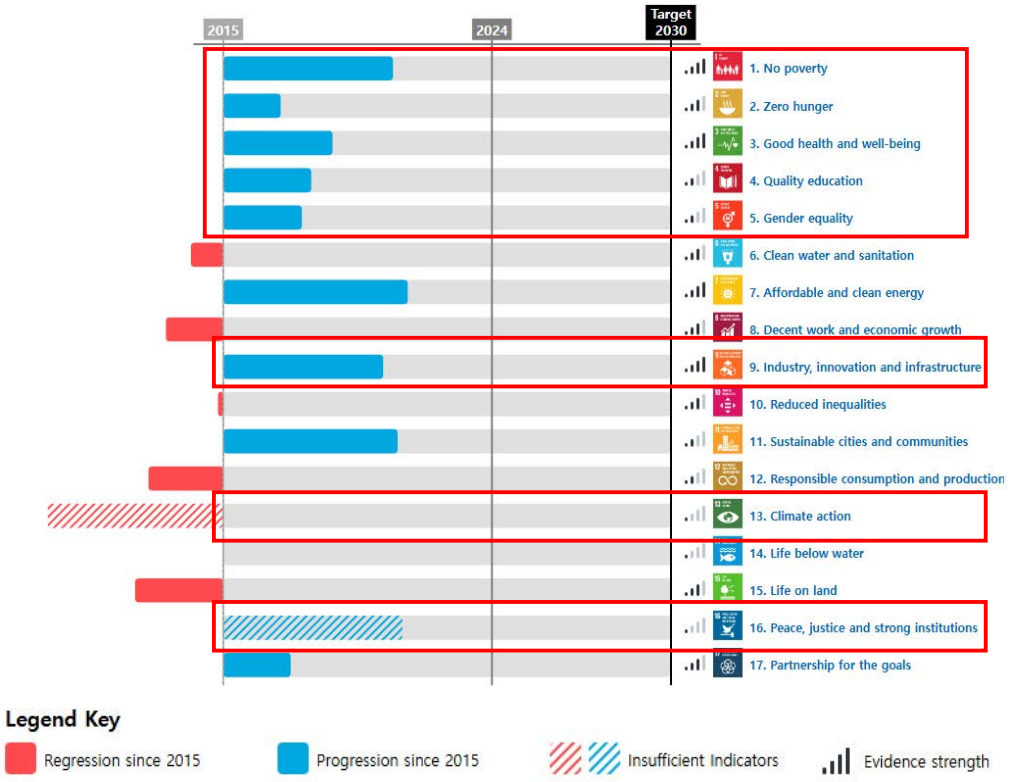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에티오피아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미래번영을 위한 제조업 역량 강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회복력 강화 및 성인지적 사회통합'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SDG는 각각 SDG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13번,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2015년 이후 목표 1, 2, 3, 4, 5, 7, 9, 11, 17번에서 진전이 있었고(9개 목표), 6, 8, 10, 12, 15번 목표(5개 목표)에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SDSN에서 발표한 양상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된 목표들에서도 세부목표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진전이 있었던 세부목표는 소수였으며 대부분은 정체 혹은 후퇴한 경우가 다수였다. 먼저 SDG 1번과 관련해서는 SDG 1.1번 자체는 진전이 있었으나 나머지 빈곤 관련 지표인 SDG 1.3번, 1.4번, 1.5번 등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SDG 2번에서는 SDG 2.1번 및 SDG 2.5번 측면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SDG 2.2번 및 2.a번 부문에서는 정체되었다고 보고했다. SDG 3번에서는 SDG 3.9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가 후퇴하거나 정체하였는데, SDG 3.5번, 3.6번, 3.8번에서는 2015년 대비 후퇴하였으며, 이외 SDG 3.1번, 3.2번, 3.3번 등 지표에서는 정체하였다. SDG 4번은 SDG 4.5번만 진전이 있었으며 SDG 4.2번, 4.3번 등은 정체되어 있었다. 소폭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된 SDG 5번 관련 목표에서도 세부지표들은 모두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SDG 9번 관련해서는 9.a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SDG 13번에서 SDG 13.2번은 2015년 대비 후퇴하였다고 보고되었다. SDG 17번 관련해서는 SDG 17.17번 및 17.9번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이외 세부지표에서는 후퇴/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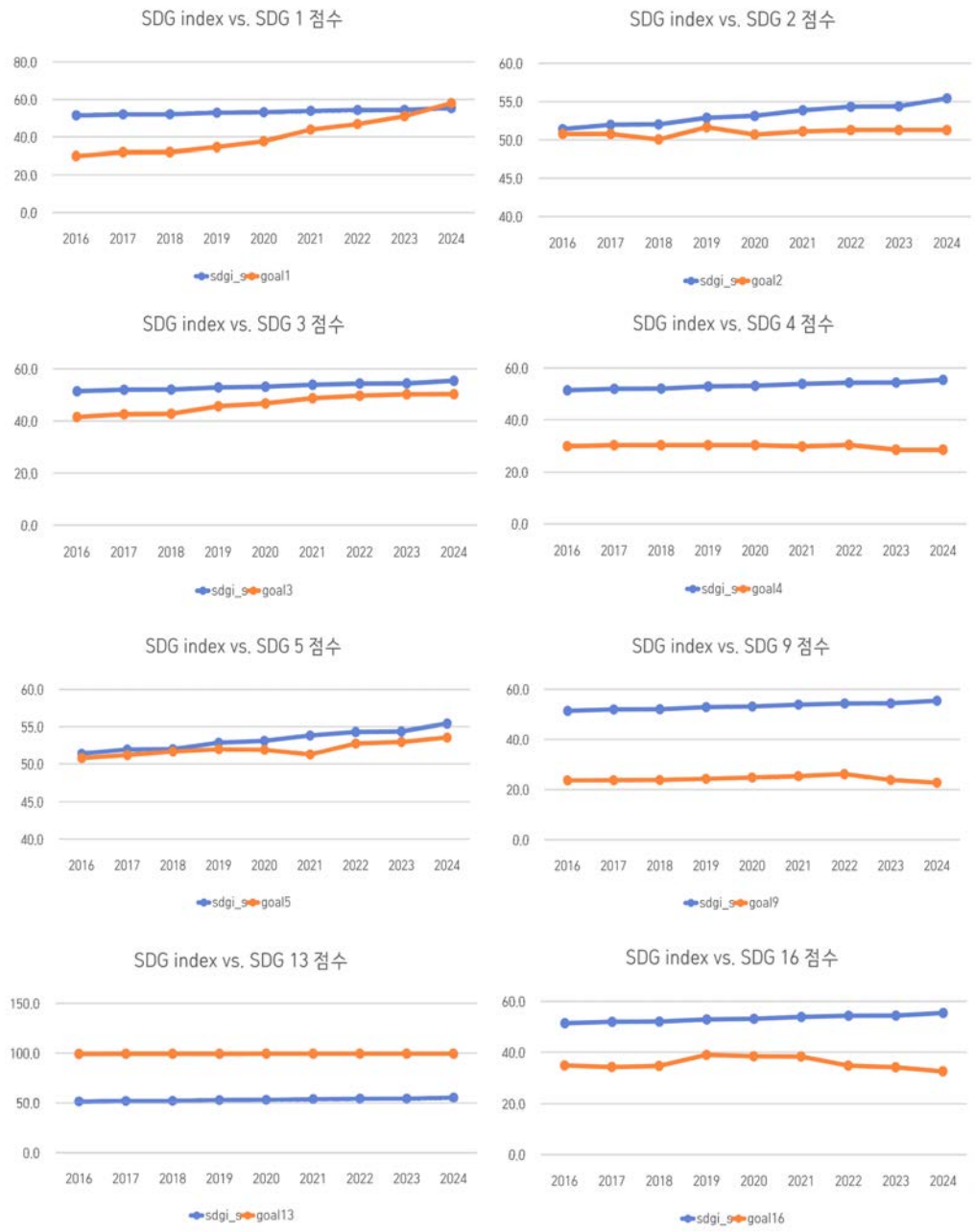
[그림 Ⅱ-128] 2024년 에티오피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에티오피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 3, 4, 5, 9, 16번의 점수는 에티오피아의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SDG 1번의 점수는 2023년까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2024년에 높아진 상황이다. SDG 이행 점수 대비하여 성과가 우수했던 지표는 SDG 13번이 유일해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29] 에티오피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에티오피아 정부의 SDG 이행 노력

에티오피아는 SDG를 에티오피아 국가전략인 Second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 II, 2015/16 - 2019/20)과 연계하여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SDG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도 설립되어 SDG의 원활한 실행을 도왔으며, 해당 태스크포스에는 정책 수준의 전략적 지원과 SDG 전체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전략위원회와, SDG를 국가 현실로 전환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에티오피아 정부 장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 및 국제기구 사업 책임자들 등이 참여하였다(UNDP 2025).

이후 에티오피아는 2021~2030까지의 10개년 개발계획(Ten-Year Development Plan, TYDP)을 발표하고 에티오피아의 번영('African Beacon of Prosperity')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에티오피아의 GDP 성장률 10.2%, 1인당 소득을 2,248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빈곤율을 19%에서 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UNDP 2025).

CP와 관련한 SDG 지표 개선을 위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TYDP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 1번과 관련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확대할 것이며, 정부의 예산 배분은 빈곤 감소를 비롯,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생산 부문 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 밝혔다. 목표 2번 관련해서는 2029/30까지 총 연간 작물 생산량을 5억 4,300만 퀀탈(quintal, 100kg)에서 9억 2,500만 퀀탈로 증가시키고, 식량 작물 생산량 또한 3억 2,600만 퀀탈에서 6억 6,200만 퀀탈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주요 농업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해 수입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DG 3번과 관련, 예방 및 질병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출발로 하여, 모성사망률·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기대 수명 증가 등 주요 보건 관련 지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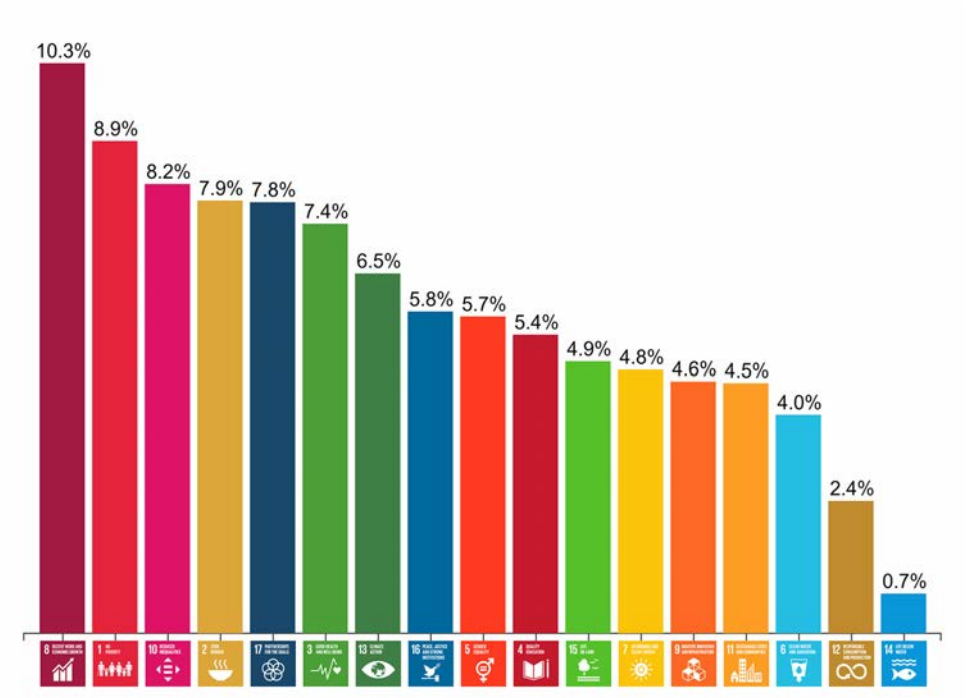
SDG 4번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취학 전부터 중등교육까지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초중등교육 순등록률을 100%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 및 사립 기술·직업교육 훈련기관 수를 늘리고 고등 교육기관과 사업 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SDG 5번 관련,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하여 입법·사법기관 및 최고관리직에서 여성 의사결정자 비율을 높이고 여성지도자 1만 명을 배출해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9번에서는 제조업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통하여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늘리

는 것이 목표이며, SDG 13번 관련, 대규모 나무 심기 이니셔티브인 '녹색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 파괴, 토지황폐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억제하고 생계 개선 및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SDG 16번 관련, 에티오피아의 부패, 자원낭비, 책임성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 시스템과 성숙한 민주주의 확립, 부패 감소 등을 위한 활동을 증진하겠다 밝혔다.

이처럼 에티오피아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개발계획을 통하여 KOICA가 CP에서 선정한 8개 SDGs 목표별로 구체적인 이행 목표 및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는 등 SDG의 정책 단위 반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는 SDG 1, 2, 3, 8, 10, 17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목표 중 상위 50%),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1, 2, 3번에 해당하여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Ⅱ-130] 에티오피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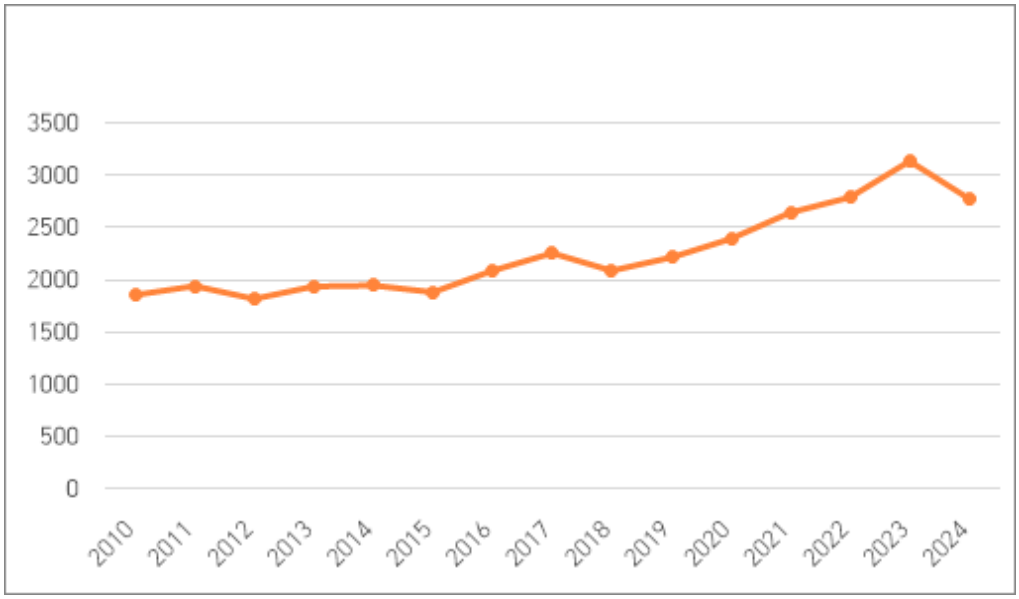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ODF 금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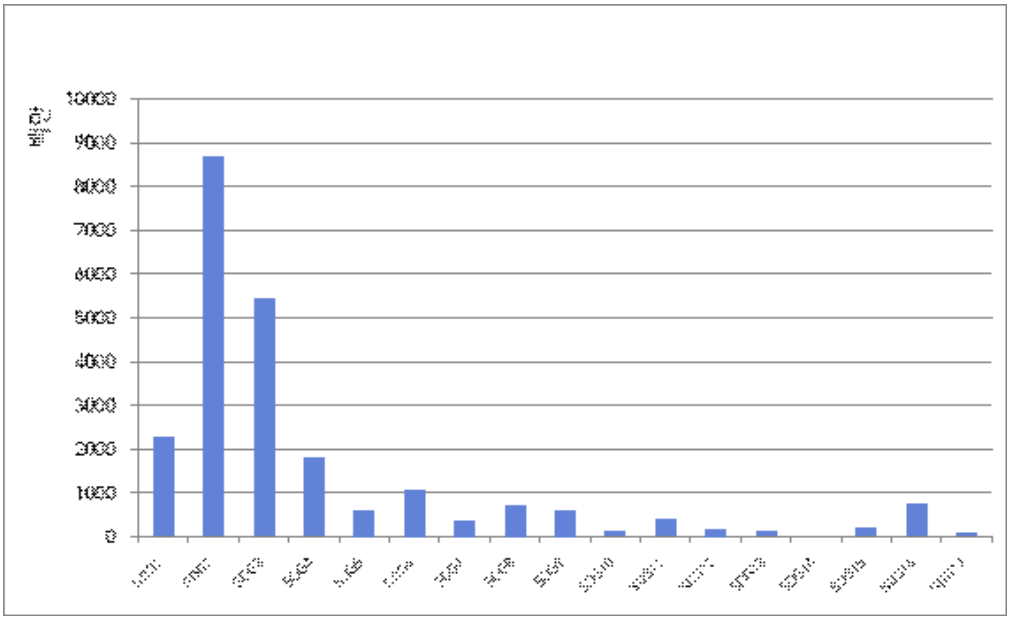
[그림 Ⅱ-131] 에티오피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에티오피아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았을 때는 [그림 II-1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DG 1, 2, 3번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DG 2번에 대해서는 공여국들이 생각했을 때 기아 종식이 에티오피아에서 해소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Ⅱ-132] 에티오피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CP가 지원하는 SDG인 SDG 1, 2, 3, 4, 5, 9, 13, 16번의 DAC 회원국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SDG 1-5번 및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었고 SDG 9는 영국과 일본, SDG 13은 영국과 독일이었다. 8개의 SDG 목표들 모두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인바, 해당 두 국가의 對에티오피아 SDG 지원 활동을 살펴보았다.

〈표 Ⅱ-52〉 에티오피아 1, 2, 3, 4, 5, 9,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1	SDG 2	SDG 3	SDG 4	SDG 5	SDG 9	SDG 13	SDG 16	합계
호주	2	35	23	7	4	-	1	1	73
캐나다	144	640	115	32	50	20	8	26	1,035
프랑스	-	34	13	90	1	30	-	7	175
독일	192	430	103	233	9	36	21	84	1,108
일본	19	207	60	78	59	134	-	25	582
한국	4	105	132	74	6	81	1	7	410
스위스	5	40	6	4	1	-	-	5	61
영국	901	1,169	1,144	513	104	250	39	165	4,285
미국	441	4,952	3,311	327	131	10	5	144	9,321
기타	540	1,052	510	423	225	26	36	276	3,088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1961년부터 에티오피아의 빈곤 감축, 식량안보, 보건, 교육, 젠더 및 거버넌스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먼저 SDG 1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빈곤 완화와 생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특히 농업 분야 지원에 집중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는 농업 생산량 증대 및 농업시장 활성화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빈곤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식량이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식량 불안정성은 내전으로 비롯된 무력 충돌, 심각한 가뭄, 코로나19를 포함한 경제적 충격으로 악화되었다. 미국 USAID의 인도적 지원국(Bureau of Humanitarian Affairs, BHA)은 2021~2023 동안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33억 달러 이상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정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SDG 2번 달성에 기여하였다(USAID 2025).

목표 3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2025년 상반기 USAID의 대외원조 축소 이전까지 에티오피아의 국가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매년 1억 5,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특히 미국 대통령 에이즈 구호 비상계획(PEPFAR)을 통하여 HIV/AIDS 대응에 약 20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여 에티오피아의 HIV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국가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을 도왔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PMI)를 통하여 2008년 이후 약 5억 4,400만 달러를 투입, 모기장, 신속진단검사 키트 배포, 말라리아 치료제 보급 등 감염병 예방에 힘써 에티오피아의 보건지표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3).

SDG 4번 관련, USAID는 에티오피아의 불평등 완화 및 빈곤에 대한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교육 분야 지원을 지속해왔다. 예를 들어, USAID는 에티오피아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내 어린이 1,500만 명을 위한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READ II'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첫 3년 동안 70개 이상의 지역에서 3,000여 개 학교를 지원했으며, 최소 3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도 하였다(The Borgen Project 2025).

SDG 5번과 9번 관련, USAID는 보건 프로그램에 여성, 아동 및 영양, 모자보건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젠더 및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은 농업지원, 민간 부문 강화, 경제성장 및 민간기업 지원 등에도 이루어져 민간 부문 발전을 위한 SDG 9번과 연계되어 왔다.

SDG 13번과 관련, 미국은 2020년 이후 에티오피아에 약 36억 달러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해 내전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USAID가 실시한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PSNP) 및 Food for Peace(FFP)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분쟁, 가뭄 등의 영향을 받은 취약한 인구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왔다. 또한 FFP 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의 자생적 경제개혁과 연계되어 기후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영양 상태를 개선했다(Institute of Foreign Affairs 2025).

내전이 잦은 에티오피아의 상황상 미국은 SDG 16번 달성을 위한 지원도 다수 실시하였다. 미국무부는 2023년 에티오피아에서 민주주의, 인권 존중, 분쟁 완화 촉진을 위하여 약 445만 6,000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의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대응 등이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배포를 막기 위하여 기자, 편집자, 관리자에게 언론 전문가 대상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 침해 대응 및 정의 프로그램에 약 30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U.S. Department of State 2023).

그러나 최근 미국은 USAID의 폐쇄와 ODA 정책 변경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개발원조에서 세 번째로 큰 삭감을 겪었고, 약 3억 8,700만 달러의 양자 ODA 손실이 있어 향후 미국 원조 삭감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의 SDG 달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andefur & Kenny 2025).

② 영국

영국 정부는 2023년 발표한 'UK-Ethiopi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에서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을 위한 4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신뢰가능한 투자제공, △여성과 소녀들의 자유와 기회 확대,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자연·글로벌 보건 과제 추진이 그것이다(FCDO 2023).

SDG 3번과 4번 관련, 영국은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을 통해 교육, 보건, 식수위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SDG 3번 관련 영국은 '영국 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 프로그램을 통하여 에티오피아가 질병 발생과 기타 공공 보건 위협을 준비하고 탐지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에티오피아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SDG 5번과 16번 관련,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갈등 회복을 위해, 거버넌스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의 여성과 소녀, 취약계층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평화 구축 프로그램(Human Rights and Peacebuilding Programme, HARP)은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를 지원하고, 티그라이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며, 에티오피아의 인접국인 소말리아 지역에서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를 촉진하여 해당 지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2~2023 동안 영국은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95만 명에게 필수 의료물품 제공, 영양실조 아동·임산부 8만 명 지원, 20만 명 이상에 현금 지원, 아동 120만 명에 양질의 교육 지원, 2,000개 이상 학교와 보건 시설에 물 공급 및 개선된 화장실 시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은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동부의 가장 중요한 개발파트너 중 하나로 손꼽고 있으며 영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인도적, 안보적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이익이 되는 국가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 목표별 성과,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엮어 표로 정리하면 〈표 II-53〉과 같다. 먼저 '미래번영을 위한 제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SDG 4번과 9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2개 목표는 이행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모두 낮고, 공여국의 지원도 적은 편에 속했다. 이에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속하였다. 두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SDG 3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이행성과는 낮지만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은 많아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에 해당되었다. 세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는 SDG 2번과 13번을 지원한다. SDG 2번은 성과가 낮고 정책적 관심이 높으면서 공여국 지원이 많은 편에 속해 SDG 3번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에 속했으며, SDG 13번은 성과가 높고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 지원이 적어 '선별적 관찰 유형'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회복력 강화 및 성인지적 사회통합'은 SDG 1번, 16번, 5번을 지원하였으며, SDG 1번은 성과와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 지원 규모가 적어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으로, SDG 16번과 5번은 성과와 정책적 관심 그리고 공여국 지원이 적어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분류되었다.

〈표 Ⅱ-53〉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미래번영을 위한 제조업 역량 강화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평화구축을 위한 회복력 강화 및 성인지적 사회통합	SDG 1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5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사무소와 각 SDGs 목표별 현장의 인식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수준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현장에서 체감되는 인식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DG 9, 13, 16번의 경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적 관심은 데이터 분석 결과와 달리, 비교적 높은 분야로 보였다. 이에 유형은 〈표 Ⅱ-53〉에서와 같이 데이터 기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하였으나, 최종적인 제언 방향은 현지 사무소와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정책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보완·조정한 바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의 상황이 상이한 3가지 분야 중 먼저 SDG 9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을 주요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조업 발전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에도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SDG 4번과 SDG 9번 간의 연계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SDG 3번 보건 분야의 경우,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국가로 보인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최근 모자보건 개선 및 시설분만율 증가 등 일부 지표에서 점진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티그라이 지역 내전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부 정체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DG 13번의 경우에도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가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확인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나무심기 운동과 총리가 주도하는 '녹색 유산 프로그램(Green Legacy Initiative)'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COP32 개최도 예정되어 있

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SDG 16번과 관련하여, 최근 약 2년간 에티오피아 내에서 여러 차례의 내전 및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어 평화, 제도 안정성,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 결과와 현지 사무소와의 논의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 번영을 위한 제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현재 KOICA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 창업 및 중소기업(SMEs)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 확보된 실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 향후 에티오피아 정부의 산업 정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전략적 개입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산업 정책 및 제도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산업 인력 양성, 창업 생태계 지원 등과 연계한 단계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KOICA가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과 기반 공동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티오피아 보건부의 자립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협력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정책적 관심과 실행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향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도너 미팅에 적극 참여하고, 보건 재정 및 통계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하게 하여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 공여기관으로서의 가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에티오피아 정부의 보건 분야 정책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에티오피아 내 KOICA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는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식량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어 기후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연계한 접근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국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활용하여, KOICA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DG 2번과 13번의 달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후 스마트 농업, 농업 가치사슬 개선 등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7년 개최 예정인 COP32를 계기로 형성될 국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장기 기후정책 이행 체계를 뒷받침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 구축을 위한 회복력 강화 및 성인지적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는 최근 수년간의 분쟁 경험을 거치면서 평화 구축과 정세 안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진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회복력 강화 지원을 추진할 경우, 협력국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DG 5번의 경우, 젠더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에 따라 단기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환경의 변화와 수요 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 구축 및 빈곤 완화 사업 내에 성인지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내재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우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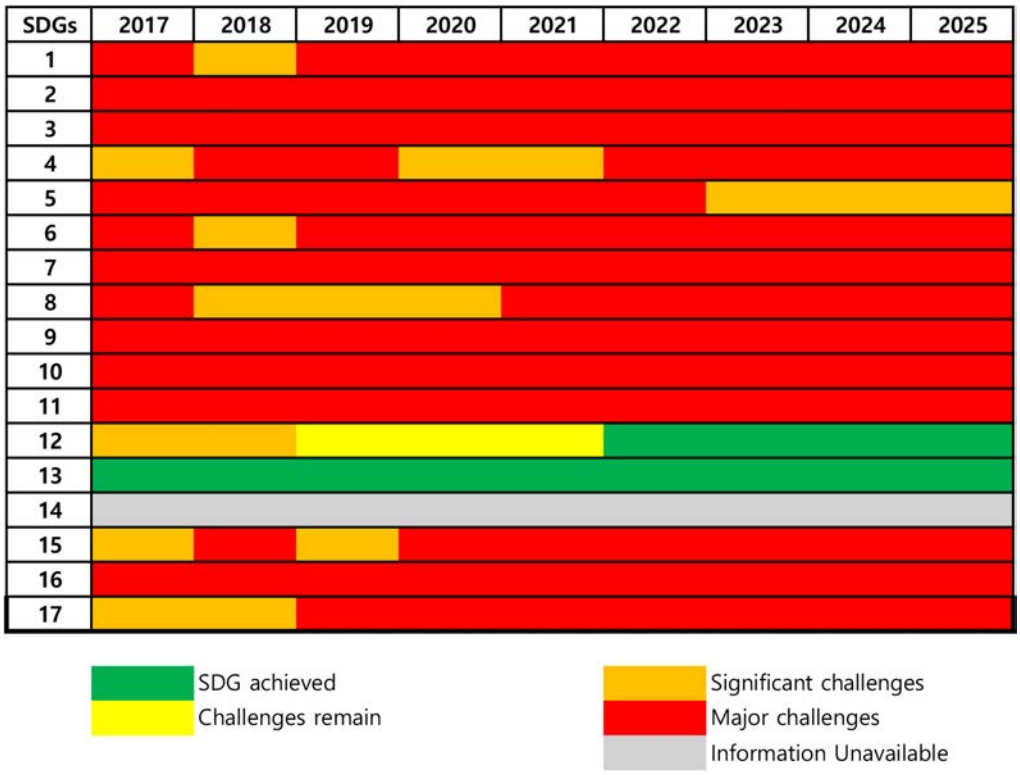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우간다는 2030 의제를 국가 개발 프레임워크에 통합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SDGs를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전반적인 SDGs 이행 수준의 점진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우간다의 SDG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2000년 약 47점 수준에서 2023년 약 55점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 전반적인 개발 성과와 제도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개선됐음을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가 차원 통합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점수의 완만한 상승세는 우간다가 SDGs를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의 핵심축으로 통합한 정책적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SDGs가 국제적으로 채택된 직후로, 우간다는 조기에 2030의제를 자국의 중장기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National Planning Development Framework, CNDPF)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국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간다의 SDG 이행 점수는 2025년 55.8점으로 여전히 167개국 중 142위에 머물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점수(53.9점)를 약간 상회하지만 전세계 점수(68.6점)에는 미치지 못한다(SDSN 2025). 이는 양적 지표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보건·교육·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기초 분야에서의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SDGs 전반의 진전을 제약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Ⅱ-133] 우간다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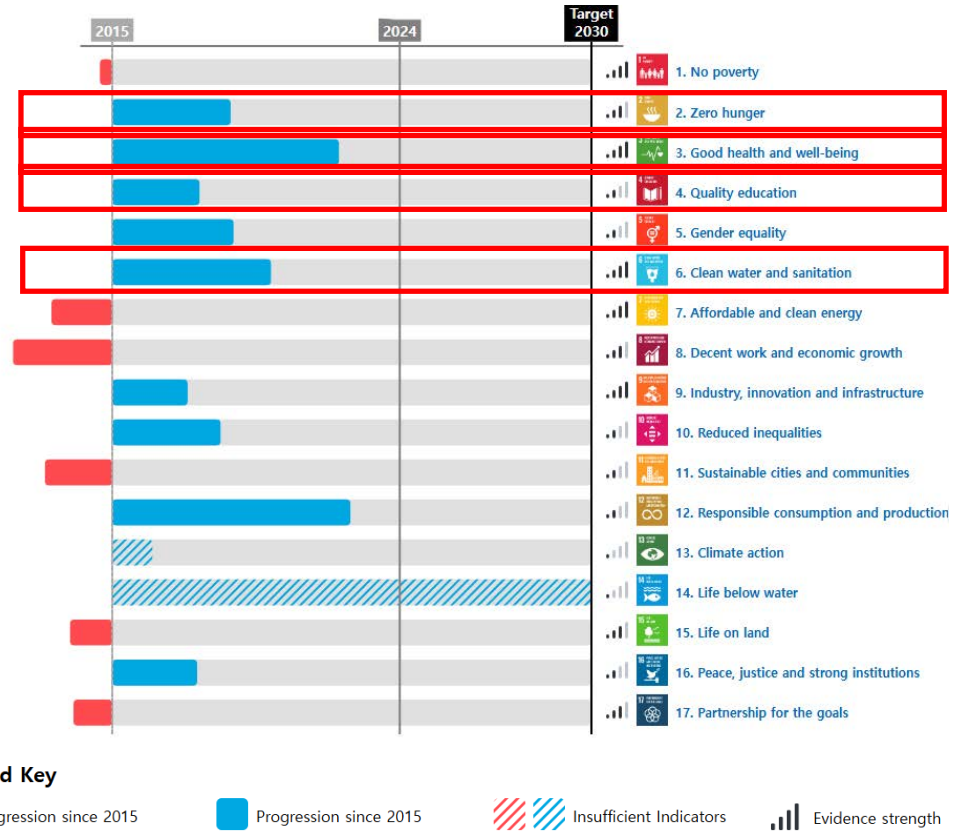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우간다는 SDGs 전반의 이행 현황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목표의 26%만이 정상 궤도에 있고, 54%는 제한적 진전을, 약 20%의 목표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MoFPED 2025; UNDP n.d.).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의 목표별 달성도 변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간다는 대부분의 목표에서 심각한 도전 단계에 해당하는 붉은색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SDGs 영역에서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5, 16, 17번 등 사회·경제적 기초 부문의 목표들은 전 기간 혹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심각한 도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포용적 성장과 제도적 역량강화가 우간다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있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SDG 14번은 관련 데이터 부재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SDG 12번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며 2017~2018 중대한 도전 단계에서 2019~2021 부분적 달성 단계로 전환된 이후, 2022년부터는 목표 달성 단계로 평가되었다. 또한 SDG 13번은 전 기간 동안 목표 달성 단계로 유지되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분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34]와 같다.

[그림 Ⅱ-134] 2024년 우간다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또한, 우간다의 VNRs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Ⅱ-54〉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 1 빈곤퇴치	2012/13년 빈곤율 19.7%에서 2016/17년 21.4%로 일시 악화됐으나, 2023/24년 16.1%로 현저히 개선되었음. 이는 패리시 개발 모델(Parish Development Model, PDM) 등 포용적 성장 정책과 사회보호 확대를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지역 격차(예: 카라모자 지역 74.2% 빈곤율)가 심각하며, 도시·농촌 간 빈곤 불평등도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SDG 4 교육	초등교육 등록률과 문해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700만 명 이상의 성인 비문해자가 존재하고, 낮은 기초학습 성과(초등 3학년 문해·수리력 달성률 25%) 등 질적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ICT 도입, 교사 역량강화 등 개혁이 이뤄졌지만, 교육의 질과 형평성 개선은 미흡함.
SDG 3 보건	모성사망률 및 아동사망률 감소, HIV 감염률 하락 등 진전을 보이나, 여전히 말라리아·결핵 등 전염성 질환, 아동 및 여성 영양실조와 같은 보건 위기는 계속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 접근성과 약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었음.
SDG 5 젠더	여성 국회의원 비율(34.7%), 여성 토지 소유 증대 등 정책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과 조혼, 비공식 부문 내 여성 노동차별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음.
SDG 13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CO2 배출량이 근본적으로 낮고,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개발 등 기후행동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나, 광범위한 산림파괴, 기후재정 부족, 재해위험(홍수, 가뭄) 증가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SDG 16 평화·제도와 거버넌스	일부 치안 지표 개선(사회안전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패, 사법 접근성 제한, 지역 갈등·폭력, 사회적 불평등 등이 지속적으로 SDG 16번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음.

자료: Republic of Uganda 2016, 2020 및 2024 활용하여 재구성

한편, KOICA가 우간다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교육',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향상'으로, 관련 SDGs는 각각 2번 기아종식, 4번 양질의 교육보장과 6번 물과 위생, 그리고 3번 건강과 웰빙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35] 우간다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우간다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목표별 점수는 우간다 SDG 이행 점수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DG 3번의 경우 2021년 이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SDG 2번의 경우 2021년까지 SDG 이행 점수에 근접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금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SDG 4와 6번은 SDG 이행 점수와 각각 15점 및 7점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우간다의 지난 10년간 SDG 이행을 살펴보면, 제도적 기반 확보와 일부 성과(빈곤·문해율·여성 참여 확대 등)를 이루었으나, 구조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제도개선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DP로의 SDGs 내제화 상승, 데이터 가용성 증가,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빈곤·보건 등에서의 부분적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SDG 이행 순위에서 142위(2025년 기준), SDG 1·3·4·16 진전 정체, 지역·사회 계층 간 불평등, 기후·재정 취약성 등의 심각한 한계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이에 우간다 정부는 범국가 농촌개발 캠페인인 PDM[41]에 기반한 포괄적 성장, 무역·기후 스마트 투자 및 혁신금융 확대, 과학·기술·혁신 촉진,

41) 우간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생계형 가구를 화폐 경제로 전환하고 350만 가구 1,750만 명의 우간다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후적응 전략 및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데이터 가용성 및 지역별 자발적 검토 활성화, SDG 거버넌스/조정체계 강화 등의 여섯 가지 가속화 약속(The Six Commitments for SDG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을 채택하며 SDGs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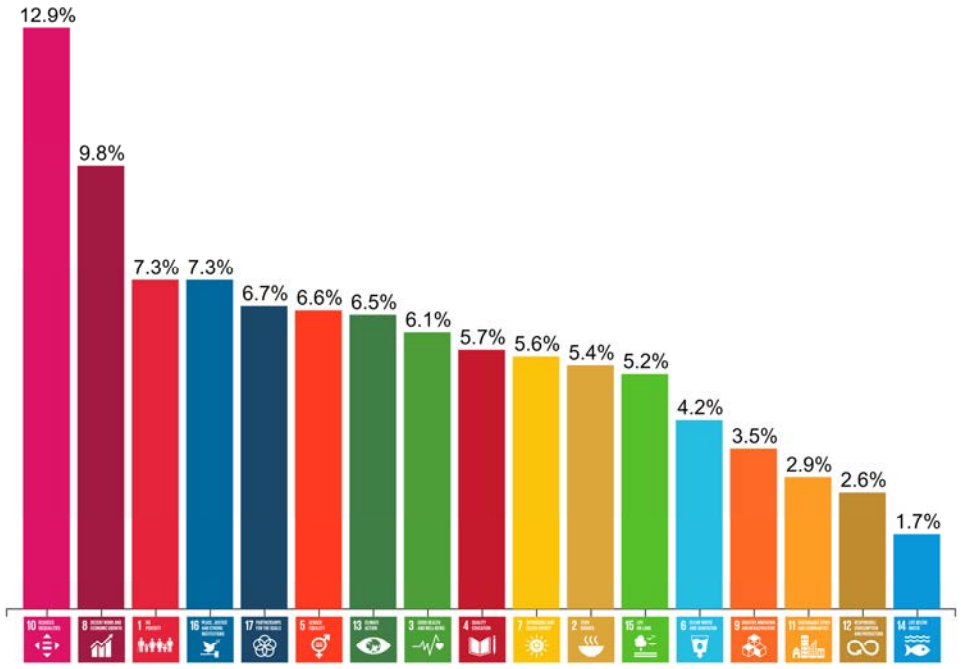
(2) 우간다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우간다는 SDG 채택 직후부터 NDP와 SDG의 정합성 확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두었다. 2016년 보고서에서는 SDG와 제2차 국가개발계획(NDP II, 2015/16-2019/20) 간의 69% 정합성이 달성되었음이 강조되었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4년 기준, 제3차 국가개발계획(NDP III, 2020/21-2024/25)에서는 SDG와의 정책 정합성이 95% 이상 달성되어, 제도 통합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SDG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High Level National SDG Taskforce), 행정데이터 개선, 지방정부 및 지역기반 참여(Voluntary Local Reviews, VLR)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SDG 가속화를 위한 여섯 가지 국가 약속(PDM, 혁신 재정, 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을 선언하며 SDGs 추진체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2016년 이래 우간다는 SDG 1, 4, 5, 6, 8, 13, 16, 및 17번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왔다. 특히 2020년 이후 NDP III 체제에서는 '산업화(Agro-industrialization)', '거버넌스(Governance)', '환경(Environment)'이 SDGs 가속화 영역임을 명시하고, SDGs 이행과 국가 개발정책의 동조성을 강화하였다. 산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거버넌스는 투명성과 법치, 환경은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및 자연자원 관리 등 구체적 이슈와 연계된다. 정부 주도 계획 내에서 각 SDGs 목표는 최상위 정책 우선순위로 분류되어, 각 부처의 사업 및 예산 할당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간다 정부의 VNRs에 언급되는 키워드 빈도에도 대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SDGs 10, 8, 1, 16, 17, 5번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른 목표와 관련된 키워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36] 우간다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서는 제4차 NDP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농공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생산 및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영양 민감성 농업(Nutrition-sensitive Agriculture)을 강조하고자, 가정 내 영양 상태 개선과 학교 급식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 영양 행동계획(Uganda Nutrition Action Plan, 2019-2025)을 이행하고 있다. SDG 3번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부 전략계획(Ministry of Health Strategic Plan 2020/21-2024/2025) 및 보건 부문 개발계획(Health Sector Development Plan IV)을 통해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 거버넌스 및 조정 강화, 보건 인력개발, 전염성·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질병감시·재난대응·전염병 통제 역량강화, 의약품·백신·기술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보건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다. 또한 NDP에서는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추가 감소와 예방의료 및 1차 보건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2026~2030 국가필수보건연구의제(Essential National Health Research Agenda, ENHRA)를 통해 모자보건,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정신건강, 기후변화 관

련 보건연구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SDG 4번에 대해 NDP는 기초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 낙후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교사 역량강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ICT 활용 역량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예산 비중을 UNESCO 권고 수준[42]에 맞추어 확대하고, 학교 내 식수 및 손씻기 시설 보급률을 높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SDG 6번과 관련하여서는 물환경부 전략 개발계획(Ministry of Water and Environment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25/26-2029/30)에서 물과 위생 서비스의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접근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계획으로는 농촌 및 도시 지역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접근성 확대, 농업용 다목적 벌크 용수 공급 확대, 물 자원의 통합적·지속 가능한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정보 정확도 제고, 정책·법·규제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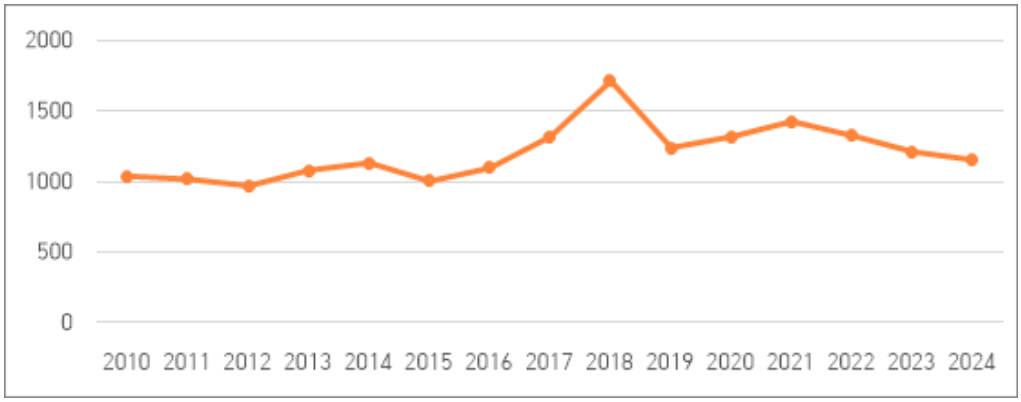
(3) 공여국 지원 현황

[그림 Ⅱ-137]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의 우간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2019년에는 다시 2017년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에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우간다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SDGs 목표별로 살펴보면 3, 2, 16번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전체 지원액의 40% 수준으로 3번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2번에 대한 지원이 약 17% 정도로, 두 개 목표에 대한 지원이 전체 50%를 넘는다. 반면, SDG 10, 12, 13, 14, 15, 17번에 대한 지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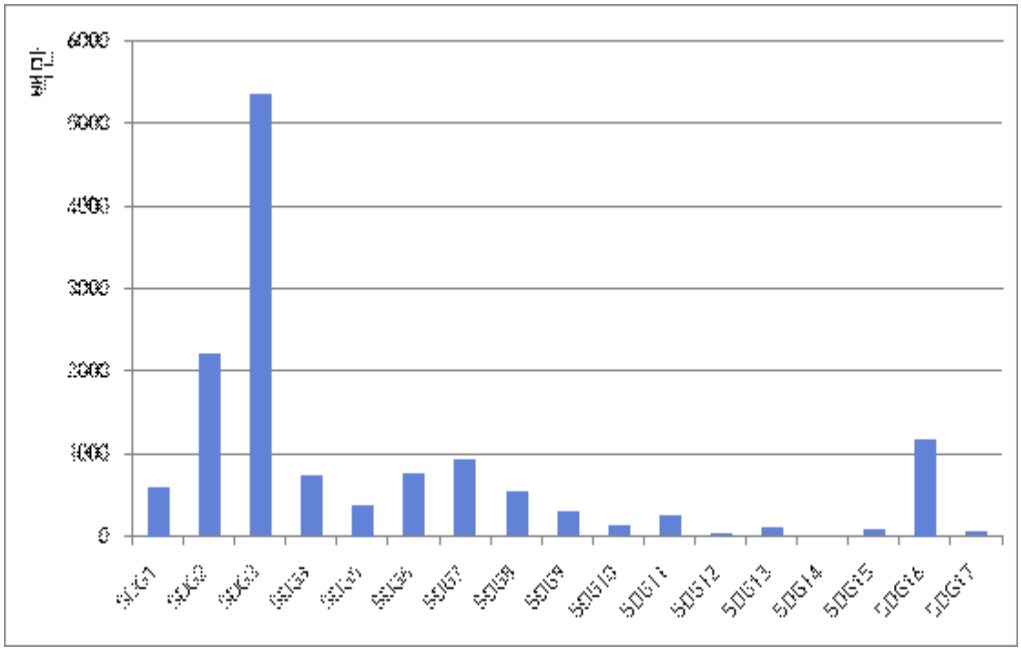
42) GDP 대비 4~6%, 또는 국가 예산 20%

[그림 Ⅱ-137] 우간다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그림 Ⅱ-138] 우간다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살펴보면, SDG 2번은 미국, 영국, 일본이며, SDG 3번은 미국, 영국, 스웨덴으로 나타난다. SDG 4번의 경우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이며, SDG 6번은 프랑스, 독일, 덴마크가 많이 지원하였다. 4개 목표의 합으로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에서 한국은 10번째 순위로 기타에 포함되어

있으며, 4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1.81% 수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81%는 CP관련 SDGs에 지원되었으며, 그중에서도 SDG 4번에 대한 지원이 27.5%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Ⅱ-55〉 우간다 SDG 2,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6 지원	합계
벨기에	42	82	87	12	223
덴마크	93	55	2	126	276
프랑스	25	10	5	235	275
독일	69	28	45	138	280
아일랜드	35	82	61	8	187
일본	119	98	37	53	307
스웨덴	32	110	67	2	211
영국	316	388	59	10	773
미국	1,212	4,274	109	55	5,648
기타	253	207	242	107	809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우간다의 최대 양자 공여국으로서 매년 약 5억~1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를 지원해왔으며, 2017년 기준 우간다 정부 예산의 58%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2023년 기준 미국의 對 우간다 원조 약정액은 약 6억 5천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도 6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인구(약 4억 4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1억 1천만 달러), 농업(4천만 달러)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USAFacts, n.d.)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대통령 에이즈 구호 긴급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이 있으며, 2004년 이래 약 3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PEPFAR를 통해 74만여 명 이상의 HIV 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를 받았고, 600만 명의 임산부가 HIV 검사를 받았으며, 모자 감염 예방으로 23만 명의 영아 감염이 방지되었다(U.S Embassy in Uganda n.d.). 농업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식량(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빈곤 감소, 식량 안보 강화, 영양 개선을 목표로 북부·동부 우간다 42개 지구에서 활동해왔다. 나아가 2024년 9월에는 100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새로운 5개년 글로벌 식량 안보 전략 우간다 국가계획(Global Food Security Strategy(GFSS) Uganda Country Plan)을 발표하였다(U.S

Embassy in Uganda 2024).

그렇기에 미국의 USAID 폐쇄 및 원조 중단의 영향은 그 파급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 관련 일부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USAID의 해체로 인한 서비스 전달 역량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HIV/AIDS 클리닉 폐쇄, ART 약물 공급 중단, 말라리아 방제 프로그램 중단, 결핵 치료 차질 등의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의료 인력에 대한 급여 중단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프로그램 중단, 시민교육 활동 축소 등이 보고된 바 있다(Namara 2025; Uganda National NGO Forum 2025). 현재 미국의 대우간다 지원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우간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원조 의존도 감소, 국내 재원 동원, 자립적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계획 마련을 촉구받고 있다.

② 영국

영국은 2022년 국제개발전략(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DS)과 2023년 통합검토(The Integrated Review Refresh, IR23)에 기반하여 개발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우간다와의 장기적·상호책임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영국은 우간다의 주요 양자 공여국으로서 지난 10년간 일관된 개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의 對 우간다 원조는 평균 연 3,280만 파운드 규모였으며, 2022/23 회계연도에도 3,280만 파운드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ODA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23/24년 계획 배정액은 1,830만 파운드로 43% 급감했다. 2024/25년도에는 예상 배정액이 5,700만 파운드로 일시 증가했으나, 이는 난민 관련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FCDO 2023).

영국의 對 우간다 원조는 주로 난민 지원, 보건(특히 성·생식 건강), 교육, 사회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 FCDO 양자 원조는 100% 성평등 촉진, 80% 장애인 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Ⅱ-56〉 영국의 對 우간다 주요 지원

난민 및 인도적 지원	'회복력 강화 및 효과적인 긴급 난민 대응(Building Resilience and an Effective Emergency Refugee Response(BRAER), 2018-2024)' 프로그램에 총 2억 1,000만 파운드가 투입되어,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모두에 대한 생명 유지 지원, 자립 기반 구축, 증거 구축 활동을 수행
성·생식 건강	'고출산율 감소 및 성·생식 건강 성과 개선(Reducing High Fertility Rates and Improv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utcomes in Uganda(RISE), 2018-2024)' 프로그램(3,000만 파운드)을 통해 425만 피임보호연수(Couple Years of Protection, CYP) 기여, 21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방지 성과를 달성
교육	'학습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Strengthening Education Systems for Improved Learning(SESIL), 2016-2023)' 프로그램(4,200만 파운드)을 통해 3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지역사회 주도 학습(Community Led Learning) 수업으로 혜택받았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 문해력 회복을 중점 추진
농업 및 기후변화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한 북부 우간다 경제 전환(Northern Uganda: Transforming the Economy through Climate Smart Agribusiness(NU-TEC, 2014-2022)' 프로그램(4,400만 파운드)은 북부 우간다 17만 호 이상의 가구 소득을 15% 이상 증대시켰으며, 220만 명이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
사회보호	'우간다 사회보호 확대 II단계(Expanding Social Protection in Uganda - Phase Two(ESP II), 2015-2022)' 프로그램(4,200만 파운드)은 고령층 수당(Senior Citizens' Grant)의 국가 정책 편입을 지원하여 43만 9,06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
금융 포용	2015년부터 영국이 투자한 금융부문심화(Financial Sector Deepening(FSD) Uganda) 프로그램(1,700만 파운드)은 60만 명 이상의 개인과 4,000개 소상공인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2022년부터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주도권을 이양

자료: FCDO 2023

한편, 영국 정부는 2025년 2월 ODA를 2027년까지 GNI의 0.3%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53억 4,000만 파운드(GNI의 0.58%)에서 2024년 ODA는 140억 7,000만 파운드(GNI의 0.5%)로 감소했으며, 2025/26년에는 약 40% 추가 감축이 계획되어 있다. 2025/26부터 2027/28년까지 누적 감축액은 30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Cohrs 2025).

영국 정부는 양자 원조 축소 대신 다자 기구 중심의 원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 금융 목표 충족, 다자 협약 이행, 인도적 지원 유지, 우크라이나·수단·가자 지역 보호가 우선순위다(Mitchelle and Hughes 2025). 영국의 우간다에 대한 개발원조는 양적·질적 축소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對 우간다 지원은 기후금융 지원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CDO는 기후금융 접근성 혁신 프로그램(Transforming Access to Climate Finance)을 통해 우간다 재무부 기후금융 담당 부서 지원 및 기후금융 예산 편성(Climate Change Budget Tagging, CCBT)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영국 FCDO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우간다 국가 기후금융전략(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 2025-2030)'이 수립되었으며, 본 전략에는 약 28.1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금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재원 동원 로드맵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FCDO n.d.; GGGI 2025a; 2025b).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57〉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6	낮음	낮음	적음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향상	SDG 3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간다에서 KOICA가 추진 중인 SDGs 2, 4, 6, 3번 관련 지원은 목표 이행 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그리고 공여국의 개입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SDG 2번의 경우, 목표 달성 수준과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모두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공여국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SDG 2번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해서 우간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낮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43]. 특히 우간다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담당 부처가 정부 내에서 상당한 조직적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 및 농촌개발이 실제 정책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 발표한 PDM은 농업 중심의 지역 개발 모델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 및 소득창출을 통한 농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우간다의 중요한 경제 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 재확인 유형이라고 정리하였으나, 사실상 공여국의 지원과 정책적 의지는 높으나 성과가 부진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 및 실행 역량강화 유형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한편, SDG 2번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며,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대규모 지원도 상당한 반면 KOICA의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기에 타 공여국과 협력하기에는

43) 주요 키워드가 SDG 8번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거나, 21년도 PDM 발표 및 농산업화 관련 내용이 24년도 보고서에서만 강조되어 언급되었을 가능성, 혹은 향후 실행 결과가 나와야 VNR에 반영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승부하기 보다는 채소 종자 가치사슬 강화 및 소농 조직화 등을 통해 우간다 정부의 핵심 사업인 PDM에 한국의 경험을 녹여내는 소트프웨어 중심의 접근을, 즉 기술·역량 중심의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ICA의 사업은 비교적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교육·훈련 중심의 기술협력과 달리 농업 생산기반, 공동시설, 지역 인프라 등 가시적 성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우간다 정부 및 지역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협력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될 수 있다.

SDG 4와 6번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행 수준과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도 모두 낮아 사실상 개입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간다의 교육열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육 정책은 매우 정치적이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상태로 평가된다. 교육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운영이 어렵고 교사 급여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초교육 및 초등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미미하며, KOICA의 개입이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영역처럼 보여진다. 다만, SDG 6번 관련 WASH 사업은 통상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나 우간다에서는 낡은 학교 인프라로 인한 중도 탈락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타 공여국에서도 학교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OICA의 SDG 4번 관련 사업은 대학교 및 직업훈련학교 역량강화이기에, 오히려 우간다의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혹은 지역 간 불평등 완화 등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청년 실업 해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 SDG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DG 3번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목표 이행 수준은 높으나 정부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공여국 지원은 높다고 나타난다. 특히, 미국이 PEPFAR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우간다 보건 체계는 상당 부분 특정 공여국 지원에 의존해 온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미국

의 지원 철수 및 축소는 우간다의 의료 공백을 야기하며 보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간다 정부 역시 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이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우간다 보건부가 해당 공백을 자국 역량으로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보건 시스템 내 제도적·인적 기반이 일정 수준 축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는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수 있는 질적 협력 분야, 즉 디지털 헬스 보건 정보 시스템, 의료데이터 관리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반 보건 역량강화와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간다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협력은 기존 공여국 중심의 질병 대응형 지원과 차별화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간다 보건 시스템의 자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협력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집트

(1) SDG 이행 현황

이집트 정부는 2016년, SDG 달성을 위한 장기 개발 청사진인 '이집트 비전(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gypt Vision) 2030'을 통해 'UN 2030 의제' 및 '아프리카연합 아젠다 2063'과 연계된 국가 SDG 이행 체계를 구축해 왔다(Government of Egypt 2018). '이집트 비전 2030'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각 SDGs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성과 점검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제출된 가장 최근 VNR인 2021년 VNR을 살펴보았을 때, 이집트는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에서 양적 확장을 하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정부는 2016년 이집트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IMF와 협력하여 재정적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정건전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고, 이집트의 GDP는 2013~2014 2.9%의 성장률에서 2018~2019에는 5.6%로 회복되었다. 재정적자 또한 2013~2014 12%에서 2018~2019 8.2%로 낮아지면서, 거시적 경제 회복이 SDG 이행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특히 기초 인프라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서의 양적 확대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집트의 발전용량은 2014년 6,000MW에서 2020년 19,000MW로 증가하여 높은 보급률(99.7%, 2019년 기준)을 달성하였고 사실상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였다. 위생시설 접근도 50%(2015)에서 66.2%로 확대(2018)되었고, 청년 문맹률도 28%(2015)에서 19.8%(2020)로, 학교 중도탈락률도 6%(2015)에서 2%(2020)로 대폭 감소하였다. 보건지표 역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었다.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45.9명(2016)에서 42.8명(2019)으로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험 가입자는 5,110만 명(2015)에서 5,690만 명(2019)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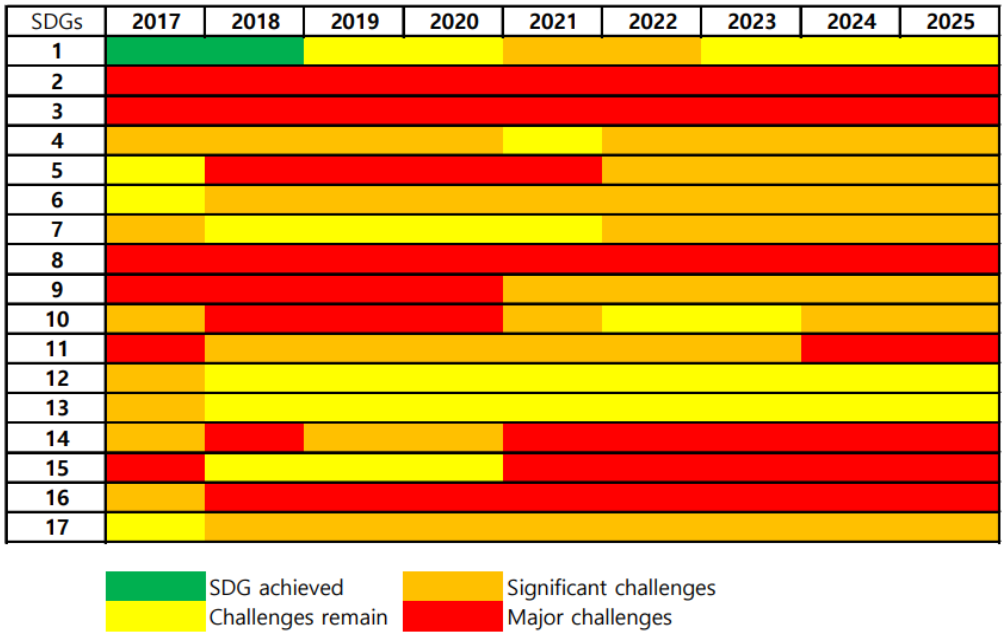
다만, 이집트의 경우 정책 이행의 패턴이 중앙정부 중심의 인프라 확대, 하향식 접근에 치우쳐져 있어 질적 향상은 양적 향상에 비하여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의 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에서는 아직 양적 규모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회복되었지만 비공식 고용은 52%(2018)에서 55.3%(2020)로 오히려 증가했고, 여성 청년의 실업률도 45.8%(2020)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빈곤층과 청년·여성 등에는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교육 부문 또한, 그 양적 수준은 늘었지만 질은 정체되어 있다. 이집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Education 2.0'이라는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시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는 42.6명(2018)에서 44.8명(2020)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15세 이상 남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교육 이탈이 지속되는 등 교육의 지속성과 질이 떨어질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이집트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SDG 달성에 구조적 제약을 겪고 있다. 이집트의 인구는 2017~2018 9,710만 명에서 2020~2021 1억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약 30년 후인 2052년에는 1억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빈곤 문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더 많은 공공재원의 투입을 요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집트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Egyptian Family Development National Plan'을 통해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가 적용되는 것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집트의 SDG 달성 과정 역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집트가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5번과 9번이었다. 해당 목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들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정체된 상황에 가까웠다.

[그림 Ⅱ-139] 이집트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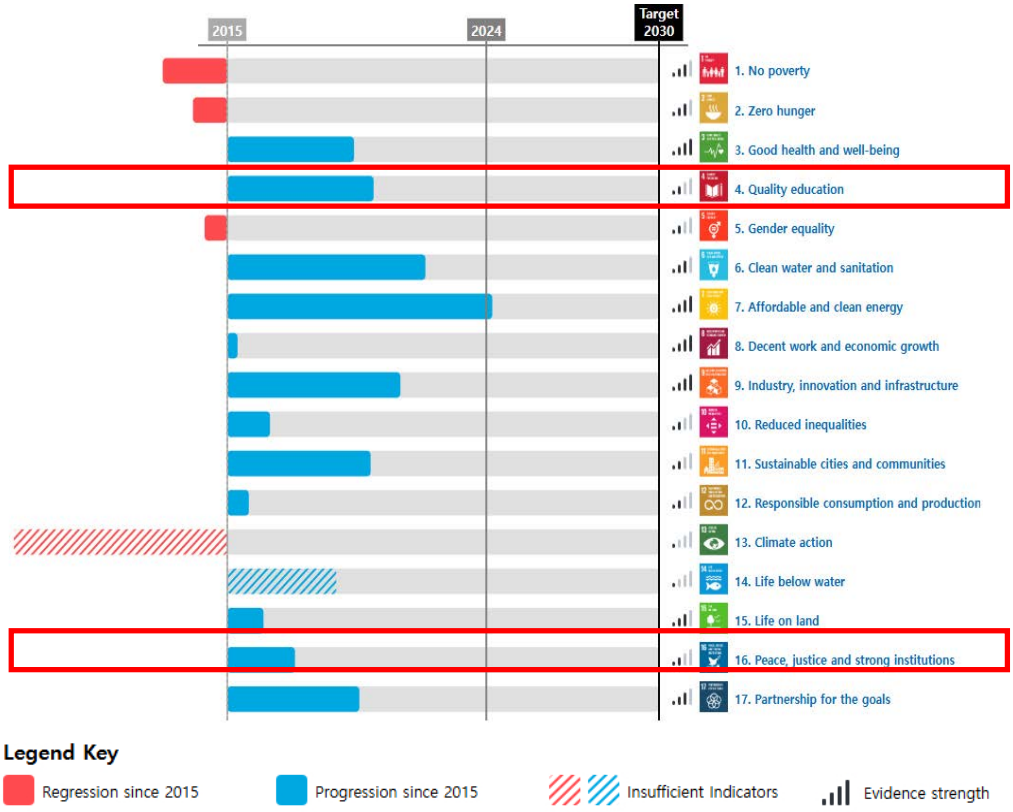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이집트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 및 '여성 및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포용적 사회통합'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는 각각 4번 및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한편,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가 발표한 이집트의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5년 대비 후퇴한 목표는 SDG 1, 2, 5번에 해당하였다. 데이터가 부족하여 진척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SDG 13번과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는 2015년 대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림 Ⅱ-140] 2024년 이집트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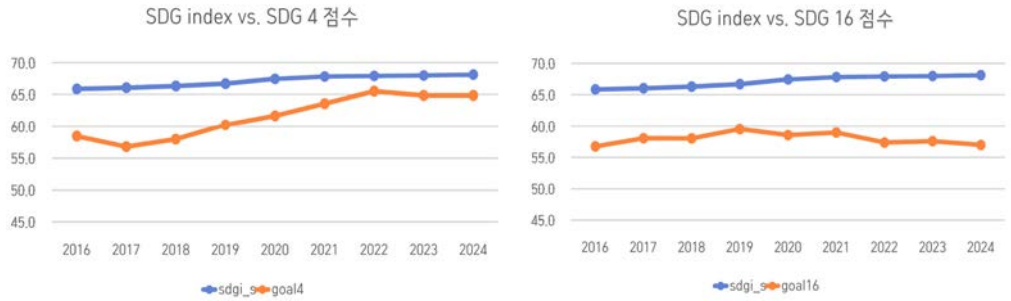
자료: ECA 2025

CP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SDG 세부성과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SDG 4번의 경우, SDG 4.5번 및 4.c번에서 개선이 존재했다. 이외에 SDG 4.2번, 4.3번, 4.a번에서는 정체가 나타났다. 이외의 교육 관련 세부지표는 충분한 분석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SDG 16번의 경우 SDG 16.5번, 16.6번, 16.7번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6.3번은 정체, 16.1번 및 16.2번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의 16번 관련 세부지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SDSN에서 발표하는 이집트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SDG 이행 점수는 SDG 4번과 16번에 비해 모두 높은 편이었다. 즉, 이집트의 평균적인 SDG 달성 정도보다 KOICA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CP 프로그램들과 대응되는 SDG 목표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41] 이집트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이집트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이집트 정부는 2016년 SDG 달성을 위한 국가 종합 전략으로 '이집트 비전(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gypt Vision) 2030'을 출범하였다. 해당 전략은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한 참여형 접근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집트 비전 2030' 출범 직후 총리실 산하에 'SDG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가 설치되었고, 해당 위원회는 17개 부처 및 국가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SDG 이행을 조율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1).

특히 이집트는 SDG 이행에 대하여, 지방화(localization)·증거 기반 정책·시민참여·경제구조 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중에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포용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집트는 주 단위 경쟁력 지수와 SDG 이행 보고서를 통해 지역 간 SDG 이행 격차를 진단하고, 지역 정부의 SDG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분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19년 '품위 있는 삶(Haya Karima)'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이집트를 포함하여 가장 빈곤한 농촌 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약 5,000개의 최빈곤 마을(전체 인구의 약 50%에 해당)을 지원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취약지역의 인프라 개선, 기초서비스 접근성 확대,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강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SDG 이행 노력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 특징은 '증거기반 정책 접근(Evidence-Based Policy)'이다. 정부는 SDG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UNICEF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 진입 위험을 낮추는 요인을 식별하는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정책 설계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IMF, IFPRI 등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시나리오 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해왔다. 이와 같이 이집트는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증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SDG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의 VNR 작성 자체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SDG 이행을 위해 참여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상시적 참여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SDG 이행을 단순한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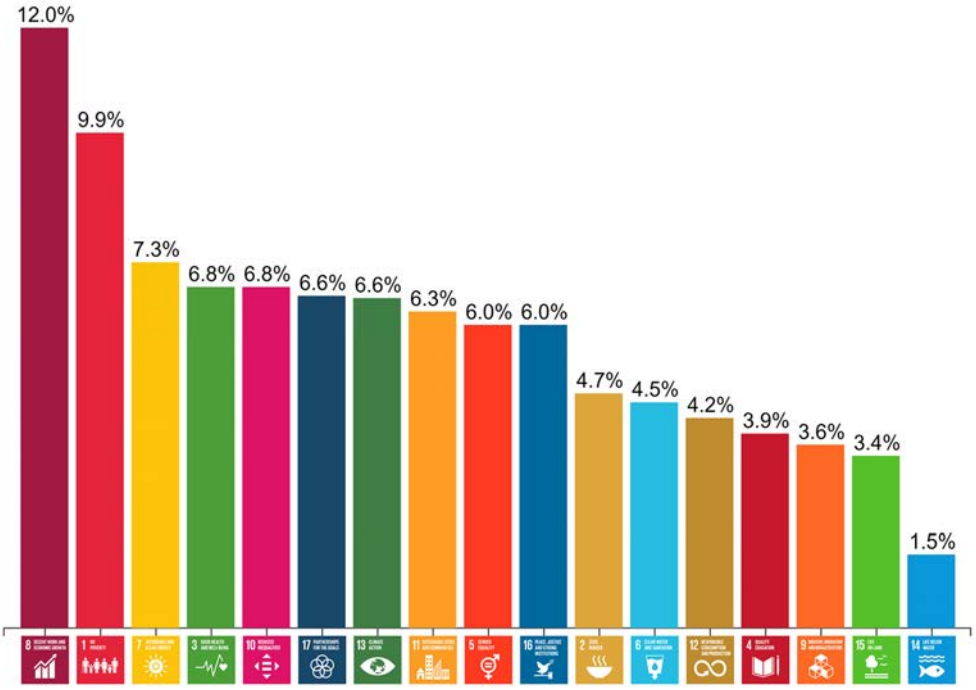
KOICA가 지원한 SDG 개별 목표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SDG 4번 관련, 2018년 이집트 교육부 주도로 출범한 'Education 2.0' 프로그램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이집트 비전 2030'과 정렬되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교육 전환 프로그램으로, 초중등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집트 정부는 학습자 경험에 초점을 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휴대용 학습기기 활용 및 컴퓨터 기반 시험 등 IT 통합 프로그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학생 수에 비해 적은 교실과 교사 수가 교육의 질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남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학업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SDG 16번 관련, 이집트 정부는 시민참여 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정책·법률·이니셔티브를 시민에게 알리고, 동시에 시민의 의견·제안을 수렴하는 양방향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 산하기관으로 2020년 '국가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발전처(National Institut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거버넌스 및 SDG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국가 반부패 전략인 '2차 Egyptian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2019~2022)'를 출범하여 부패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이집트 정부의 VNR을 분석한 결과, 이집트 정부는 SDG 1, 3, 7, 8, 10, 17번 목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의 대상 목표인 SDG 4번과 16번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Ⅱ-142] 이집트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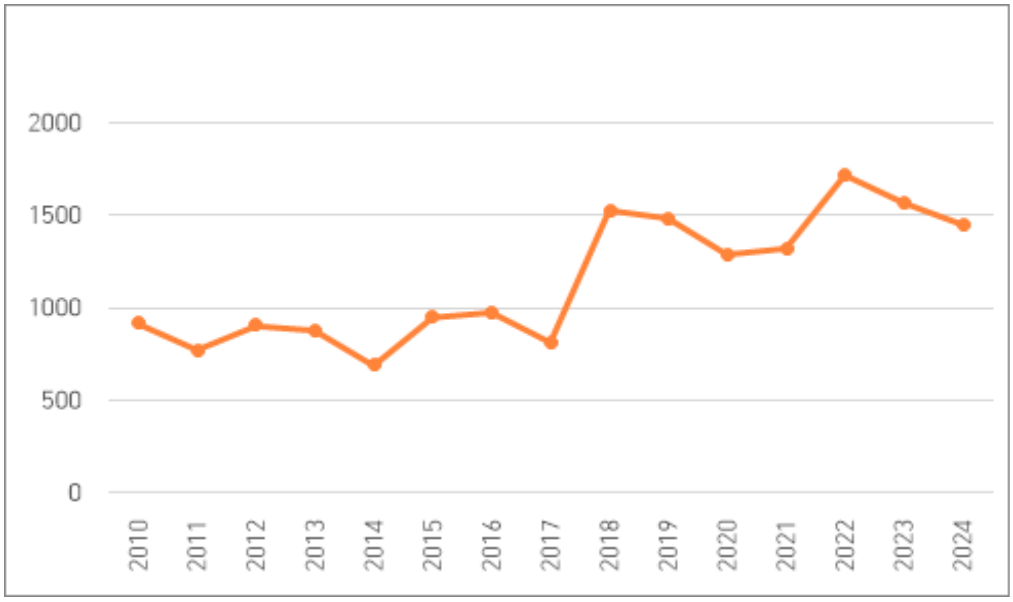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對 이집트 ODF 지원액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가 다시 소폭 감소,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다시 전고점을 기록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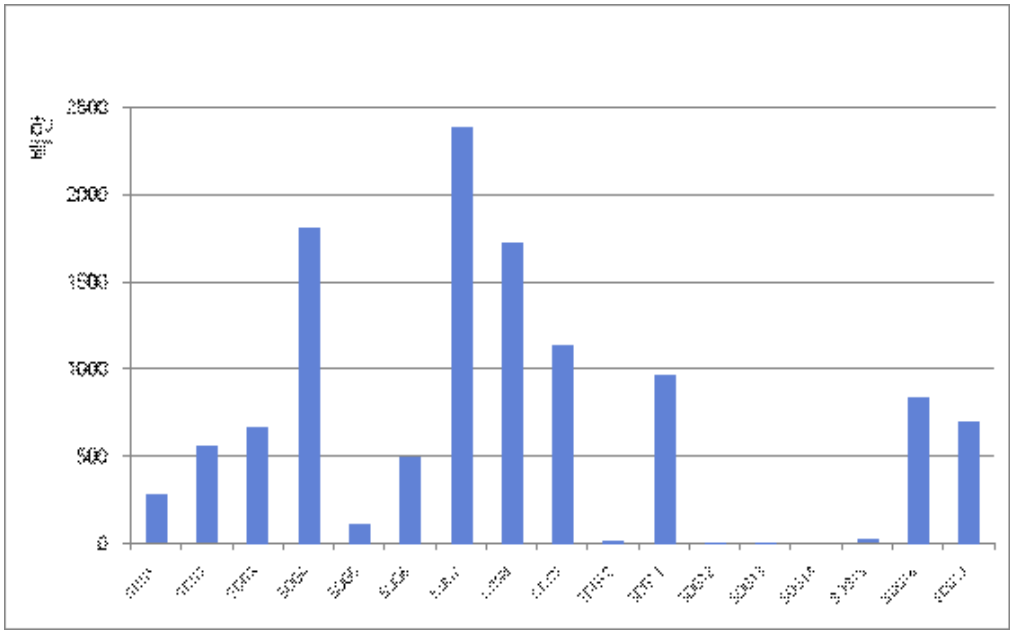
한편, SDGs 목표별 지원에 대해서는, [그림 Ⅱ-14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DG 7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SDG 4, 8, 9번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KOICA CP 프로그램에도 포함된 SDG 4번은 공여국들 또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목표에 해당하였다.

[그림 Ⅱ-143] 이집트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그림 Ⅱ-144] 이집트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한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KOICA CP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목표인 4번과 16번에 대해서는, SDG 4번은 독일이 가장 많은 지원을, SDG 16번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다. 2개 목표를 합해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에 해당하여 각 SDGs 목표별로 해당 국가들이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58〉 이집트 SDG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2	2	4
캐나다	18	12	30
프랑스	187	95	282
독일	720	69	789
일본	247	12	259
한국	22	8	30
스위스	5	29	34
영국	98	42	140
미국	428	487	915
기타	84	82	166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1946년 이래 이집트에 누적 900억 달러 이상의 양자 원조를 제공해 온 최대 양자 공여국 중 하나로,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군사·경제 원조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2026). 미국의 원조기구인 USAID는 1978년 이래 이집트의 교육·보건·경제발전·거버넌스 분야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등(The Borgen Project 2024),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SDG 4번 관련, 미국은 이집트의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미-이집트 고등교육 이니셔티브(U.S.-Egypt Higher Education Initiative)'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에게 이집트 및 미국 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집트 경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U.S. Embassy in Egypt 2026).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약 1,900명의 이집트 연수생을 대상으로 이집트 우수

대학 및 미국 대학의 수학 기회, 장학금 지원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이집트의 정책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고 밝혔다(U.S. Embassy in Egypt 2026).

아울러 미국 정부는 2017~2025 총 3,700만 달러 규모의 '대학 경력개발 센터(University Centers for Career Development)' 사업을 통해 이집트 내 23개 공립대학 재학생의 70% 이상에 대하여 진로 멘토링과 영어 및 취업역량 훈련을 제공하였다(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2026).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출범한 USAID Egyptian Pioneers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보건·디지털화 분야 인력 양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The Borgen Project 2024).

SDG 16번 관련 분야는 미-이집트 관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 중 하나였다. 미국은 USAID를 통해 법치·인권, 굿거버넌스, 시민사회 강화를 중심으로 이집트 내에서 민주주의·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이집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운영한 것이었다. 2005년부터 USAID는 인권·선거·정당역량 강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 NGO 및 이집트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지원을 시작했다(Hawthorne 2016). 아랍의 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어,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변화 지원 원조 프로그램(Transition Support Grants Program)'은 선거·정치 과정 참여 확대, 사법 접근권 강화, 인권 문제 가시화,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협력국 주권과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미국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이집트 간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Hawthorne 2016).

종합하면, SDG 4번에 대하여 미국은 고등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DG 16번에서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강화를 목표로 한 직접 지원 방식이 시민사회 역량 확대라는 일부 성과를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국 주권과의 충돌 및 정치적 긴장을 야기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개발원조를 넘어 정치적·외교적 목적과 긴밀히 결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② 독일

독일은 1956년부터 이집트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는 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직업기술교육, 행정개혁, 여성·청년·지역개발 등으로 광범위하였다. 독일 GIZ는 이집트를 전략

적 위치를 가진 우선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KfW는 1990년대부터 이집트 대상 양자 차관을 개발사업 투자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왔다(Ministry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5).

독일은 SDG 4번 관련, TVET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부터 자국의 이중교육제도(dual education system,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기업에서의 실무 훈련을 병행하는 직업 중심 교육 시스템)를 이집트에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산업 단지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Mohamed 2023). 2018년에는 이집트-독일 '포괄적 기술교육 이니셔티브(New Comprehensive TVET Initiative, NCTI)'가 출범하였으며, 노동시장 수요와 직접 연동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한편, SDG 16번 관련 분야에서 독일은 미국과 상이한 접근을 취해왔다. 이집트에서 GIZ의 거버넌스 활동은 인권 향상이나 시민사회 활동 지원과 같은 민감한 영역보다는 인구통계 정책 역량 강화, 청년·여성 역량강화, 행정개혁 등 비교적 비정치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GIZ, 2025). 특히 독일은 '공공행정 개혁 강화 사업(Strengthening Reform Initiativ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2016-2021)'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현대화, 디지털 정부 도입 등을 지원하여 이집트 행정역량 현대화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사업 종료 시점까지 1,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인적자원관리 역량 훈련을 이수하고 정부조직 내 성과관리체계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GIZ 2022).

종합하면, 독일의 對이집트 ODA는 SDG 4번 분야에서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이중교육제도와 TVET 모델을 이전하는 산업 연계형 인적자본 개발 전략을 펼쳐왔다. 한편, SDG 16번 분야에서는 미국이 보여준 시민사회 직접 지원 방식과 달리, 정부 간 협력의 틀 내에서 행정 효율성 및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등 비교적 비정치적인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하는 접근을 채택해왔다.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성과, 이집트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엮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프로그램은 SDG 4번을 지원하고 있다. SDG 4번의 경우 이행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낮지만, 다른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에 속하였다. 이에 '수요 재확인 유형'에 속하였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의 경우, SDG 16번에 속했다. 해당 목표의 경우 이행성과와 정책적 관심도 낮으면서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적은 편에

해당하여,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속했다.

〈표 Ⅱ-5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SDG 4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집트 사무소와 현장의 관점에서 CP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SDG 목표들의 성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와 달리 이집트 정부는 현재 기술인력 양성과 TVET를 국가 발전전략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대학 확대 및 직업교육 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GIZ와 같은 주요 공여기관도 기술교육과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지원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 또한 높은 분야로 보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훈련 간의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과 기대임금 및 실제 임금 간 격차 역시 교육성과가 이집트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데 제약요인이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도, 이집트 정부는 분석 결과와 다르게 전자정부와 디지털 전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AI 활용 및 행정 디지털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 및 디지털 행정 분야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EU 등 타 공여기관도 우리나라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포용적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SDG 성과목표는 부재하지만 관련한 상황을 사무소로부터 청취할 수 있었다. 이집트는 시리아, 수단, 에리트리아 등 주변국 출신 난민과 이주민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난민 및 취약계층 지원 수요가 지속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최근 가자지구 사태 등 역내 분쟁의 영향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앞선 분석 결과와 사무소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는 현재 추진 중인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 양성사업' 및 '직업훈련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고도화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사업들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협조도도 높은 편이며 현지에 삼성, LG 등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산업계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원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과 고용 간의 간극이 큰 만큼,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 구축,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취업 연계 메커니즘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고용 간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이집트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창업 생태계 조성은 중장기 과제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KOICA만의 차별화된 틈새 분야, 예를 들어 디지털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을 고려해 전략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직업훈련 분야의 질적 경쟁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 프로그램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서비스청(GAGS)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이집트 지식재산권청 통합서비스 전산화사업' 및 '무역 촉진을 위한 수출입청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정착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인력 양성, 유지관리 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집트는 전자정부 및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은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종료 이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적·행정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 및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KOICA는 해당 분야에서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원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제도 운영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높은 정책적 관심이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집트 사무소와의 논의 결과, 가자지구 사태를 비롯한 역내 분쟁의 영향으로 난민 및 이주민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은 난민캠프에 집단 거주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도 이들의 수요와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난민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대한 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민 지원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집트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고려하여 양자 사업보다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KOICA의 對이집트 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역량 강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취약계층 포용성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을,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정착을,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한된 재원 내에서도 KOICA가 차별화된 개발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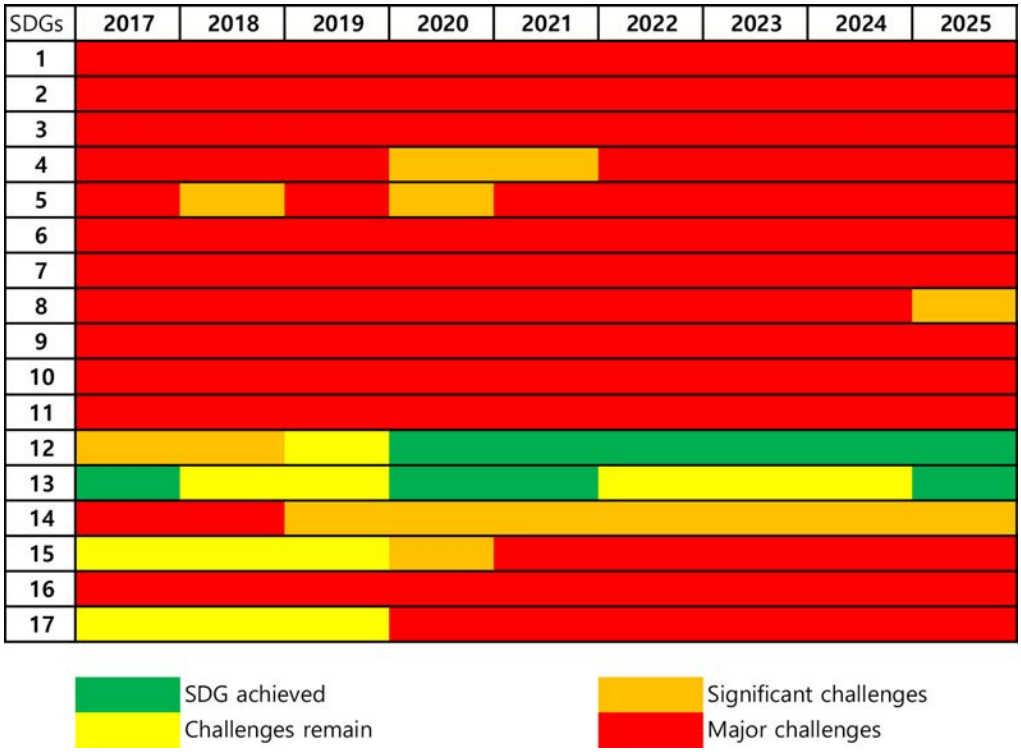
11) 카메룬

(1) SDGs 이행 현황

카메룬은 2016년 1월 1일부터 SDGs 이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를 자국의 장기 개발 비전인 '2035 비전(Cameroun Vision 2035)' 및 국가개발전략 2020-2030(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2020-2030, SND30)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카메룬의 2025년 SDG 이행 점수는 57.81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6개국 중 17번째로 지역 평균 53.9보다는 높으나, 전체 167개국 중에서는 133위로 전반적인 이행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SDSN 2025). 2015년부터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 비교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정책적 노력과 부문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보 불안정, 재정 제약, 취약한 제도 역량, 낮은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앙글로폰 분쟁과 극북 지역의 안보 위기는 국가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교육·보건 등 핵심 사회 부문의 성과 개선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앙글로폰(Anglophone) 지역의 무장 갈등(2017년~), 극북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인접국에서의 난민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DGs 1, 2, 3, 4, 5, 16번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특히 학교 폐쇄,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식량 위기, 강제 이주 등은 단기적 인도주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개발성과를 역행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45] 카메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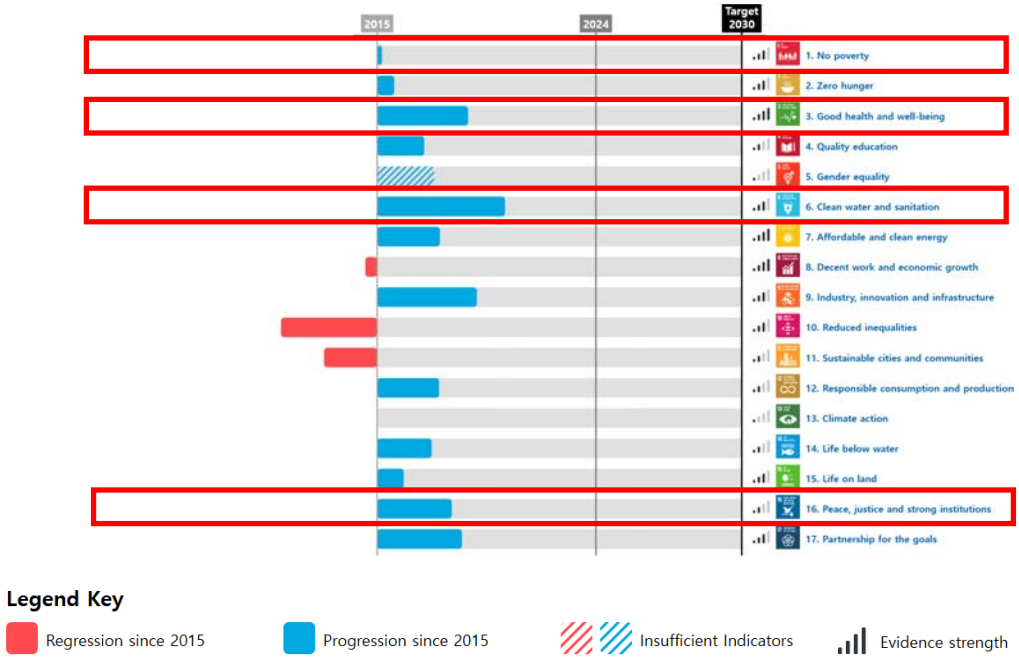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룬은 대부분의 SDGs가 심각한 도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목표에서만 중대한 도전 또는 부분적 달성 수준의 제한적 개선이 관찰된다. 특히 SDGs 1, 2, 3, 4, 9, 10, 16번 등 주요 사회·경제적 목표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SDGs 12와 13번 등 일부 환경 관련 목표에서는 일시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난다.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46]과 같다. 특히 SDGs 6, 3, 9번 등은 비교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영역으로,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점진적 개선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146] 2025년 카메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카메룬의 SDGs 이행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UN HLPF에 제출한 VNRs를 통해 확인된다. 카메룬 정부는 SDGs를 SND30을 중심으로 통합하였으며, SDGs를 국가 정책에 내재화하기 위해 2017년 맥락화·우선순위화 작업을 통해 42개 핵심 세부목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계획(Plan Communal de Développement, PCD)에 반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전략을 지역 단위 실행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카메룬은 사회안전망 확대, 보건·교육 서비스 개선, 재원 동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SDGs 이행의 점진적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조세 수입 비중을 2016년 55%에서 2021년 79%로 확대하고, 관리 산림 면적 및 보호구역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재정 및 환경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표 Ⅱ-60〉 카메룬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한계
SDG4	• 중등 교육 수료율 대폭 향상(일반교육 2015년 53.2%에서 2018년 80%, 기술 교육 2015년 59.3%에서 2018년 71.8%) 및 초등 교육 수료율 개선(2019년 70.6%에서 2021년 73.5%) • 코로나19 중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297만 권 이상의 교과서 무료 배포	• 학생 수 급증과 보안 위기로 인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악화 • 분쟁 지역 아동의 교육권 침해 및 낮은 교육 품질
SDG5	• 성인지 예산제도(Budgétisation Sensible au Genre, BSG) 본격 시행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시장 등 의사결정직 내 여성 비율 상승 • 출생 신고율 제고를 위한 보건-시민 등록 시스템 연계	• 여성 및 소녀의 코로나19 이후 가정 폭력(62%), 생계 수단 접근성 저하(56%), 생존을 위한 성매매(14%) 등에 노출 • 사회 문화적 관습에 의한 여성의 권리 행사 제약
SDG14,15	• 보호 구역을 국가 영토의 20.46%까지 확대 및 관리되는 산림 면적 증가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44] 강화	•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관리 확대를 추진에 재정적 제약과 제도적·기술적 역량 부족이 지속가능한 관리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됨
SDG17	• 조세 개혁을 통해 국가 예산 내 조세 수입 비중을 2016년 55%에서 2021년 79%까지 확대 • 새로운 통계법(2020) 제정[45] 등 성과 측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 부채 비율 상승(2015년 GDP 대비 26.5%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45.1%) 및 상환 부담 증가

자료: République du Cameroun 2019 및 2022 활용하여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의 SDGs 이행은 구조적 제약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서부·남서부 지역의 지속적인 안보 위기는 교육, 보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며, 국가 자원의 배분 구조를 왜곡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세분화된 통계 데이터의 부족은 정책 설계와 성과 모니터링의 정밀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카메룬 정부는 극북지역 재건 및 개발계획(Plan de Recouvrement et de Développement de la Région de l'Extrême-Nord, PRD-EN)을 통해 분쟁 지역 회복을 추진하고, 통계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향후 SDGs 이행 성과

44)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법률 Loi N°2021/014 du 09 juillet 2021 régissant l'accès aux ressources génétiques, à leurs dérivés, aux connaissances traditionnelles associées, et le partage juste et équitable des avantages issus de leur utilisation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체계를 규정한 법률

45) 카메룬 통계 활용에 관한 법률 Loi n°2020/010 du 20 juillet 2020 régissant l'activité statistique au Cameroun - 국가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발전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마련하고 통계비자(Visa statistique) 제도 도입과 통계 생산기관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통계체계를 현대화한 핵심 제도적 기반

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KOICA 카메룬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식수 위생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성 해소 및 회복력 강화'로, 관련 SDG는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3번 건강과 웰빙,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와 1번 빈곤퇴치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47] 카메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카메룬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47]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카메룬은 SDG 6번을 제외한 SDGs 1, 3, 16번에서 모두 카메룬의 SDG 이행 점수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DG 6번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2021년 이후 SDG 이행 점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이행 점수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SDG 6번의 이행 수준이 후퇴한 결과라기 보다는 SND30 추진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회복 과정에서 다른 SDGs의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SDG 1과 3번은 여전히 이행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행 점수 수준에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정책

적 노력과 일부 성과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기적으로 성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SDG 16번은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관찰되며, 동일 기간 SDG 이행 점수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어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카메룬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 즉 지속되는 안보 불안, 지역 갈등, 제도적 취약성, 부패 및 정치적 긴장 등 복합적 요인이 제도 분야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카메룬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카메룬 정부는 SDGs를 국가 발전 전략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행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Vision 2035와 SND30을 중심으로 SDGs를 정책 체계에 내재화하였으며, 경제 구조 전환, 인적자본 개발, 포용적 고용, 거버넌스 및 분권화라는 4대 전략 축을 통해 SDGs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국가통계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Statistique, SNDS) 이행, CNFI 도입 등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재원 동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는 SDGs를 개별 목표의 집합이 아닌 국가 발전의 통합적 지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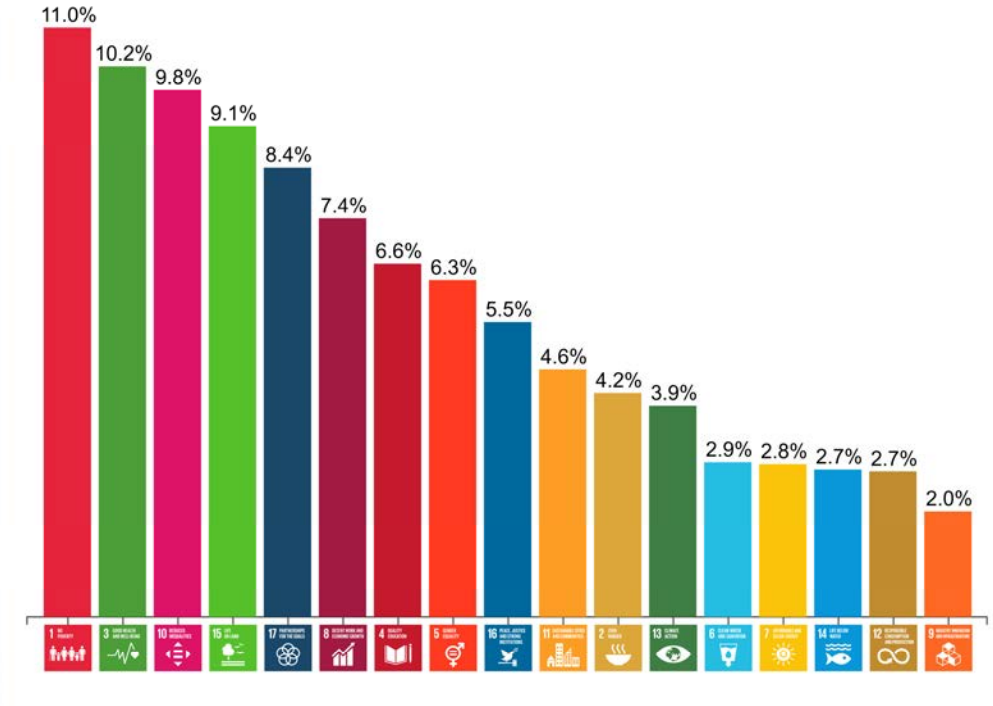
이러한 전략적 틀 하에서 카메룬 정부는 재원 조달과 정책 실행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조세 행정 현대화와 세원 확대를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후 금융, 디아스포라 채권 등 혁신적 재원 조달 수단을 활용하여 재원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PCD에 SDGs를 통합하고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SDGs의 현지화(Territorialisation des ODD)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하고자 한다. 또한 BSG를 도입하여 재정 운용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SDGs 이행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별 이행 정책을 보면, 카메룬은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포용,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SDGs를 구체화하고 있다. SDG 1·2와 관련하여 사회안전망 프로그램(Filets Sociaux)을 통해 약 21만 가구 이상에 현금 이전을 제공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SDG 4에서는 기술·직업교육 확대와 함께 통합 원격교육 시스템(Dispositif National Intégré d'Enseignements à Distance)을 도입하여 교육 접근성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SDG 5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와 여성·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SDG 8·9에서는 산업화와 경제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제조업 비중 확대와 청년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SDG 13 및 15번에서는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Plan National d'Adaptation aux Changements Climatiques, PNACC)과 REDD+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32%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SDG 16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écentralisées, Law No. 2019/024)과 북서부·남서부 지역 재건 및 개발계획(Plan Présidentiel de Reconstruction et de Développement des Régions du Nord-Ouest et du Sud-Ouest, PPRD)을 통해 분권화와 분쟁 지역 회복을 병행하고 하고자 한다.

한편, VNRs 키워드 빈도를 살펴보면, SDG 1, 3, 10, 15, 17, 8번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SDG 1번 관련 키워드의 높은 비중은 카메룬 정부가 빈곤 완화를 핵심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SND30에서 제시된 포용적 성장 및 사회보호 강화 전략과도 일관된다. 특히 SDG 10번이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단순한 소득 빈곤 완화를 넘어, 도농 간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SDG 3번의 높은 언급 빈도는 카메룬 보건 시스템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국제 지원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 불확실성이 정책적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카메룬의 SDGs 이행이 빈곤, 불평등, 보건이라는 상호 연계된 핵심 개발 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국가 발전 전략의 방향성과도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48] 카메룬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6의 경우 2025년 국가수자원정책(Politique Nationale de l'Eau, PNE)을 채택하고 도시 100%·농촌 85%의 음용수 접근과 위생 보급률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SND30을 통해 분권화, 민간 참여 확대, 재원 조달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Amara 2025). SDG 3번에서는 보건부문전략(Stratégie Sectorielle de Santé 2020-2030)과 국가보건발전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Sanitaire, PNDS)을 통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보편적 건강보장(Couverture Santé Universelle, CSU)을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CSU 1단계는 2024년 기준 약 300만 명이 등록하였고 80여 개 보건 서비스를 포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6% 수준에 불과하여 정책 목표와 실제 이행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Africa 24 2025). SDG 16번의 경우 카메룬의 정책적 의지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SND30의 네 번째 축을 통해 반부패, 법치, 분권화를 핵심 이행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가반부패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Anti-Corruption, CONAC) 및 최고국가감사원(Contrôle Supérieur de l'État, CONSUPE) 등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UNCAC Coalition 2024).

평화 구축 측면에서는 2019년 대국민 대화[46] 이후 국가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위원회(Comité National de Désarmement, de Démobilisation et de Réintégration, CNDDR)와 국가 이중언어·다문화증진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pour la Promotion du Bilinguisme et du Multiculturalisme, CNPBM) 등을 통해 앙글로폰 위기에 대응하였다(GPPAC, 2019). 또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을 제정하여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이전(15%)을 법제화하였으나, 실제 배분은 약 7.2%에 그쳐 제도와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UCLG 2022). SDG 1번과 관련하여서는 SND30을 통해 2030년까지 빈곤율을 30.8%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사회보호정책(Politique Nationale de Protection Sociale, PNPS)의 4대 축(현금이전,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경제적 포용)을 중심으로 이행 체계를 구축하였다(République du Cameroun 2022). 또한 사회보호 적용률을 2018년 22%에서 2030년 50%로 확대하고, 연평균 약 3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République du Cameroun n.d.). 그러나 2024년 세계은행 빈곤 평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빈곤율은 38.6%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25).

(3) 공여국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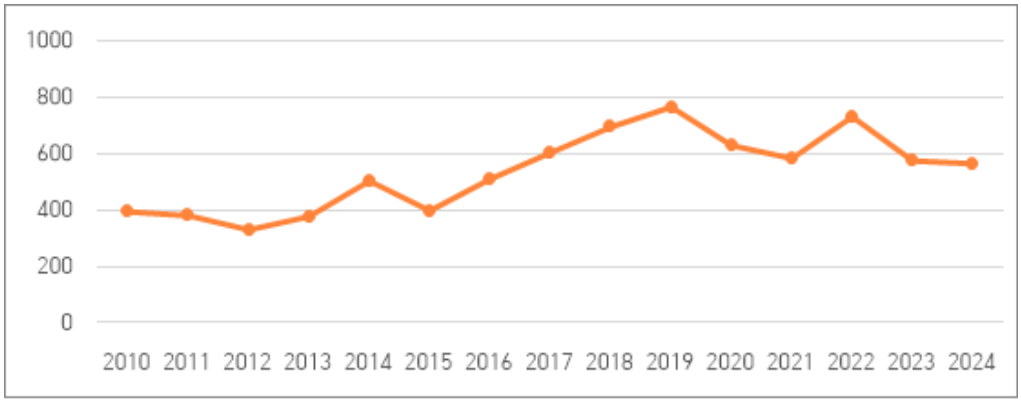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의 카메룬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최근에는 재차 하락 및 정체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경제 여건, 공여국의 재정 상황, 그리고 카메룬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DAC 회원국의 카메룬 각 SDGs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SDG 4번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뒤로 SDG 3, 2, 17번 순으로 많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던 주요 전략 및 정책에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음에도 4번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교육이 단일 부문 목표라기보다 산업발전, 불평등 완화, 지역균형 발전 등 복합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요소로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SND30은 기술·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생산성

46) Grand Dialogue National / Major National Dialogue - 카메룬 내 영어권 지역의 위기, 이른바 앙글로폰 위기(Anglophone Crisis)를 해결하고자 대통령의 소집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영어권 2개 주에 대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행정적·법적 자율권 부여하기로 함(Law No. 2019/024 of 24 December 2019 on the General Code of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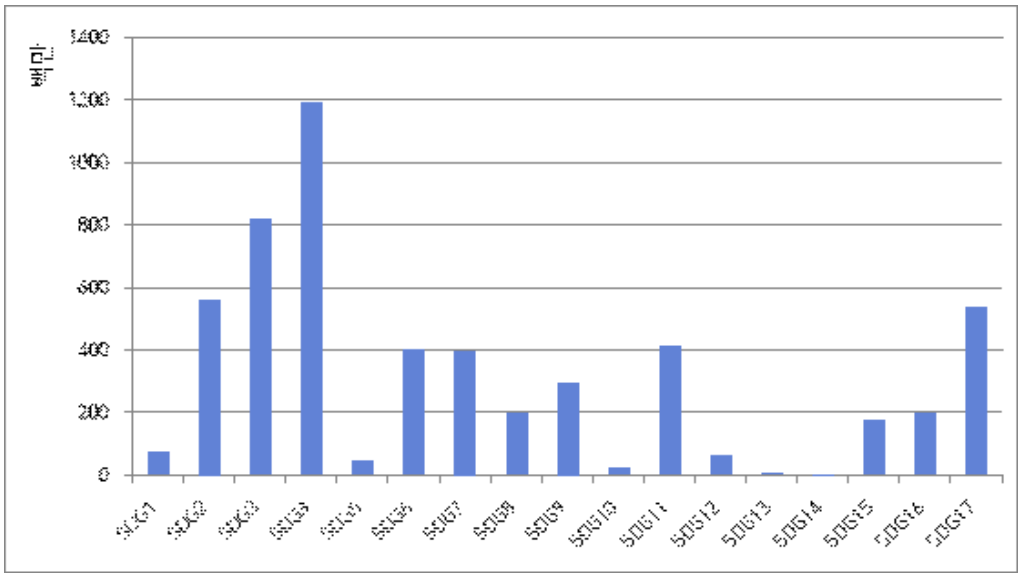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SDG 8 및 9번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교육 접근성 확대는 도농 간 격차 완화와 사회적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 SDG 10번과도 연결되는 교차적 성격을 가진다. 더 나아가 앙글로폰 분쟁 등 취약 지역에서는 교육이 사회통합과 회복력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되며, 인도적·개발 연계(HDP nexus)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SDG 4번에 대한 높은 ODF 규모는 카메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지원이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Ⅱ-149] 카메룬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그림 Ⅱ-150] 카메룬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s별로 살펴보면, 각각 1번은 독일, 미국, 영국, 3번은 미국, 독일, 한국, 6번은 프랑스, 벨기에, 일본, 16번은 독일, 프랑스, 미국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개 목표 합으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으며, 미국이 40%, 프랑스가 29%를 차지한다. 한국은 6번째로, 4개 목표 합계 대비 5% 수준을 지원하였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37%는 SDG 3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4번에 35%, SDG 16번에 7.3%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61〉 카메룬 SDG 4, 7,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1 지원	SDG 3 지원	SDG 6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벨기에		1	22	1	24
캐나다	1	11	1	9	22
프랑스	2	44	340	37	423
독일	28	99	4	86	218
일본	6	11	10	7	34
한국	3	59	8	12	81
스페인	1	19	1	1	21
영국	8	14		2	24
미국	15	539	6	28	587
기타	7	22	6	15	49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對 카메룬 개발협력은 규모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전체 對 카메룬 원조 규모는 약 2억 4,680만 달러로, 국무부, USAID, 농무부, 평화봉사단 등 다수 기관을 통해 집행되었으며, 보건·인구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주의, 교육, 거버넌스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USAFacts n.d.).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PEPFAR, PMI, 글로벌 보건 공급망 프로그램-조달 및 공급관리(Global Health Supply Chain Program - Procurement and Supply Management, GHSC-PSM),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등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HIV/AIDS, 말라리아 대응, 보건물자 공급망,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SDG 3번 달성에 핵심적인 외부 재원으로 기능하였다(Villagomez 2025; Cintia 2025). 이와 함께 인도주의 지원은 앙글로폰 분쟁 및 난민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보건, 위생, 생계 지원을 포함하는 복합적 긴급 대응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농업,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보완적 지원이 병행되었다(USAID 2024; US Department of State 2026).

그러나 2025년 USAID 폐쇄와 함께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변화는 이러한 협력 구조에 급격한 전환을 초래하였다. 미국의 ODA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며(Stepansky 2026), 이에 따라 카메룬에 대한 지원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의 충격이 두드러졌는데, PMI에 의해 운영되던 지역사회 보건 인력 다수가 활동을 중단하였고,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말라리아 및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 현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중단은 질병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직접적인 인도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insai 2025; Atabong, et al. 2025).

현재 미국의 대카메룬 지원은 국무부 산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지원 내용 역시 긴급 인도주의 대응과 생명유지 수준의 보건 서비스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카메룬 정부는 이러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재원 확대 및 글로벌펀드 등 대체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기존 미국 지원 수준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SDGs 이행, 특히 보건 및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카메룬의 가장 전통적인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AFD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23년 기준 AFD의 카메룬 포트폴리오는 약 11억 유로로 중앙아프리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며, 카메룬은 프랑스 개발협력에서 핵심 개입국으로 위치한다(CEMAC Eco Finance n.d.; AFD n.d.). 연도별 약정액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재원은 주권대출(prêt souverain)[47], 채무탕감개발협약(Contrat de Développement et de Désendettement, C2D), 무상원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C2D는 카메룬이 프랑스에 상환하는 채무를 재투자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2006년 이후 누적 약 9,670억 CFA프랑[48] 규모가 개발 재원으로 전환되며 프랑스-카메룬 협력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C2D Cameroon n.d.).

47) 카메룬 정부 또는 정부보증을 받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상 개발금융으로, 국가가 상환책임을 부담하며 대규모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사업의 장기 재원으로 활용
48) 중앙아프리카 CFA 프랑(XAF)

대표적으로 공공재정거버넌스지원사업(Projet d'Appui à la Gouvernance Financière Publique, PAGFI)[49]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재정 관리 역량 강화와 행정 분권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 인프라 및 물·위생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카메룬의 국가 참여적 개발 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e Développement Participatif, PNDP)[50]을 통해 식수 및 상수도 개선, 농가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도시화 대응, 기후 적응,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더불어 교육·직업훈련, 기후·환경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경제적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된다(AFD n.d.).

최근 프랑스의 ODA 예산은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카메룬에 대한 협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2025년 이후 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체 지원 여력은 감소하고 있으나(Donor Tracker 2025; Focus 2030 2026), AFD는 2026년 신규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 홍수 관리, 여성 경제 역량 강화, 농업·식량안보, 교육, 분권화 거버넌스 등 핵심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Malloum 2026).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ODA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건·교육·거버넌스 등 프랑스 지원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카메룬의 개발성과와 SDGs 이행에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9) 카메룬의 재무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랑스 정부(AFD 및 Expertise France 수행)의 핵심 기술협력 사업 / PAGFI 1: 2015-2019, PAGFI 2: 2019-2024, PAGFI 3: 2024-2028 (RFP Cameroon, 2024)

50) 카메룬의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개발 프로그램으로, 카메룬 정부가 주도하고 프랑스(AFD/C2D)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요 재원을 지원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적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6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식수 위생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SDG 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취약성 해소 및 회복력 강화	SDG 1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카메룬에서 추진 중인 '식수 위생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은 SDGs 6과 3번을 동시에 포괄하나, 두 목표의 전략적 위상 차이를 반영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SDG 6번은 이행 수준이 낮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 지원 또한 제한적인 영역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SDG 3번은 이행 수준은 낮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분야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에 해당한다. 카메룬의 보건·위생 여건과 국제 원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보다는 제한적인 정책 영향력과 재정 여건, 기존 식수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 미흡, 의료인력 및 기반 시설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프로그램은 식수 위생 분야의 직접적 물적 투입을 확대하기보다, 정부 수요가 높은 보건 분야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재편을 고려해볼 수 있다. SDG 6번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식수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학교, 보건시설,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DG 3번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확충보다는 보건 시스템의 실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보완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USAID 철수 이후 보건 분야의 지원 공백이 현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UNDP 등 국제기구가 KOICA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초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인력 양성,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확대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 보건 시스템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카메룬의 SDG 16번을 지원한다. 카메룬의 SDG 16번 이행 수준은 낮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낮게 나타나며, 공여국의 지원도

적은 편이다. 이는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단기적 우선순위는 제한적인 분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은 내실 있게 마무리하되, 신규 대규모 사업 확대는 지양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우선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결코 낮지 않으나, 제도적 기반과 행정역량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 분야로 파악된다. 특히 디지털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변화 저항, 부처 간 협업체계의 미흡, 복잡한 승인 절차와 법·제도 정비 지연 등이 전자정부 사업의 실행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범위한 국토 면적과 지리적 파편성은 전국 단위 디지털 시스템의 통일성 있는 구축 및 운용에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원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제도 운영능력 제고, 공무원 교육 및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등 행정체계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 전반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전자조달과 같이 정책적 수요와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보건·사회보호·재정관리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하는 기능적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전산화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해소 및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SDGs 1과 16번을 포함하나, 전략적 중심은 빈곤 해소(SDG 1)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가나의 SDG 1번은 목표 달성 수준은 낮고 공여국의 지원은 적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전략적 개입 필요 유형이다. 카메룬의 취약성 해소 및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분쟁, 난민 유입, 기후위기 등 복합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이나, 지역별 취약성의 양상이 상이하여 획일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성 대응을 독립적인 중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기초보건, 생계 회복,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등 기존 중점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연계하는 사업은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기에,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기본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과 연계되는 보완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KOICA의 비교우위와 사업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부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을 고려할 때, 현지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12) 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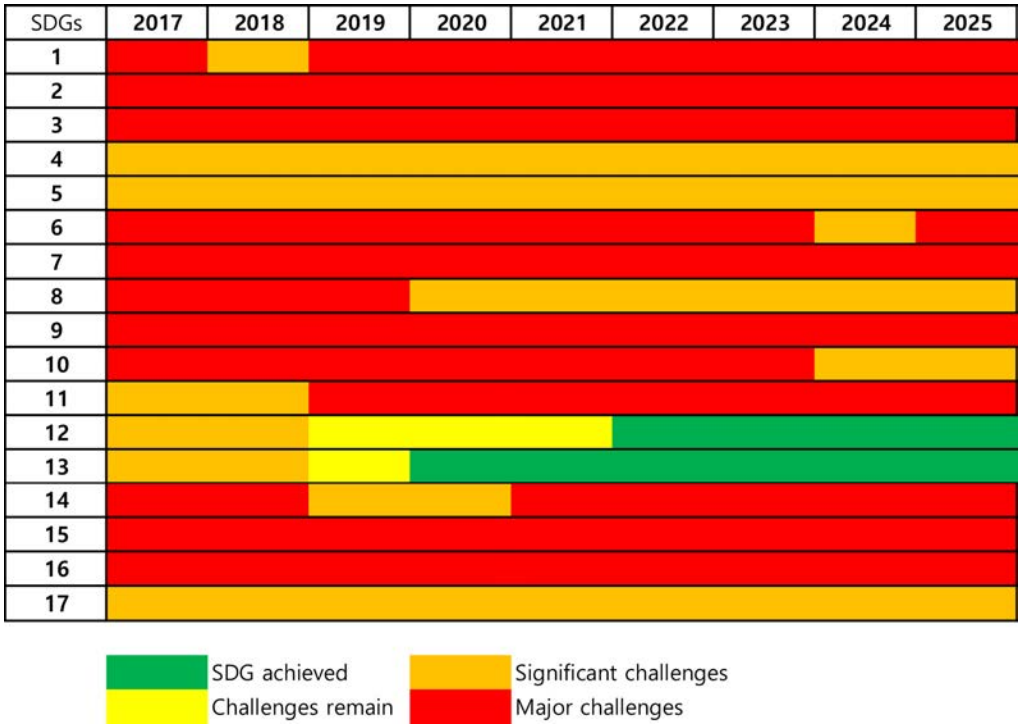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케냐 정부는 '케냐 비전(Kenya Vision) 2030'이라는 장기 개발 청사진 아래, 5개년 중기계획을 통하여 SDG를 국가 개발계획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케냐 재무부(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는 'SDG 조정국(coordination directorate)'을 설치하여 정부 정책 기획·예산 편성 측면에서의 SDG 주류화를 유도하고 있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그 결과 SDG 이행 점수에서 아프리카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4년 6월 발표된 제3차 VNR에 따르면, 17개 목표 전반에 걸쳐 일부는 진전을 보였으나 다른 일부는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등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케냐 정부에 따르면, 국가 SDG 지표 프레임워크 168개 지표 중 60%는 긍정적 진전을 보였고, 12%는 정체, 17%는 후퇴, 11%는 데이터 부족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특히 SDG 3, 4, 5, 6, 7, 8, 11, 13, 15, 17번 10개 목표에서 상당한 긍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예를 들어, SDG 3번 관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2019년 1,000명당 52명에서 2022년 41명으로 개선되었으며, 숙련된 의료 인력이 분만을 지원하는 비율은 2016년 70.2%에서 2022년 89.2%로 크게 증가하였다. SDG 4번 관련해서는 성별 격차 없이 거의 모든 수준에서 학교 등록 및 수료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유아교육 참여율은 2019년 73.8%에서 2022년 87.9%로 증가했고, 초중등교육 자격 교사 비율은 2019년 이후 100%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SDG 1, 2, 9, 10, 14, 16번 등은 더딘 진전을 보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였다. 국가 빈곤율은 2020년 42.9%에서 2022년 39.8%로 소폭 감소했지만, 농촌지역의 빈곤은 악화되어 식량불안을 겪는 인구비율은 2020년 60.3%에서 2022년 62.4%로 증가해 SDG 2번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냐가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12번, 그리고 13번이 유일하였다. SDG 이행 점수는 2018년 59.92점에서 2023년 61.8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SDSN 2025).

[그림 Ⅱ-151] 케냐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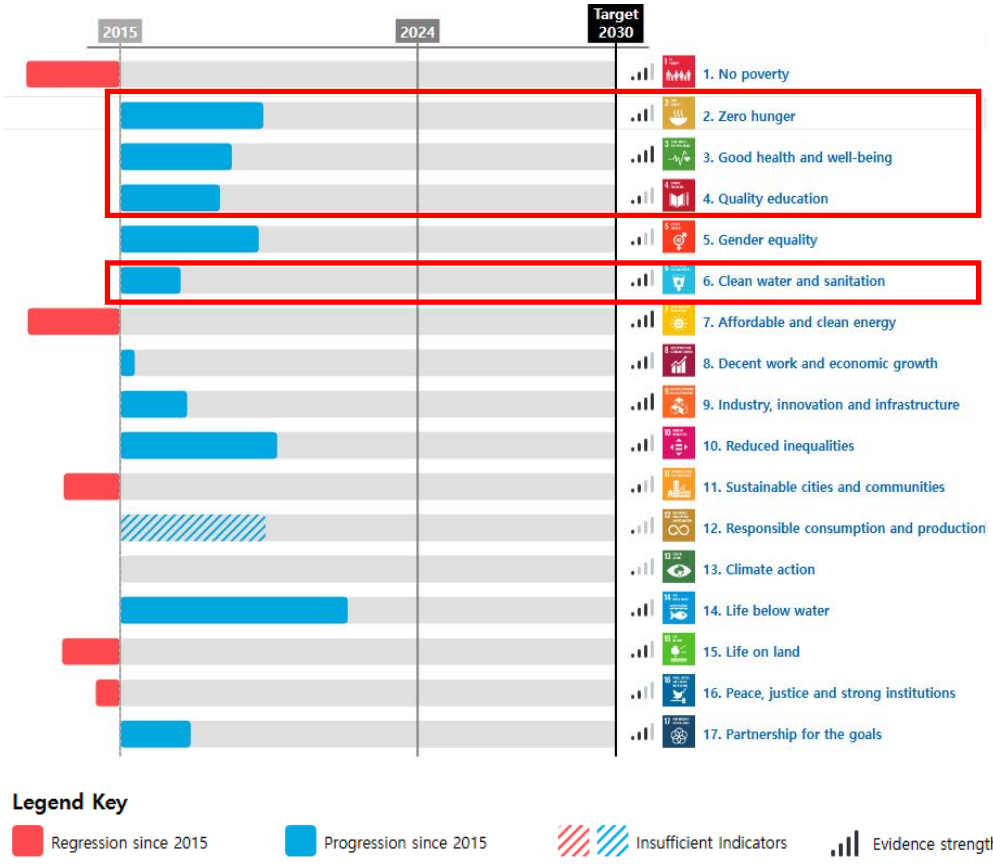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케냐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및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및 포괄적 위생증진'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SDG는 각각 2, 3, 4 및 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한편,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가 발표한 케냐의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중 2015년 대비 후퇴한 목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던 SDG 12번을 제외하고, SDG 1번, 7번, 11번, 15번, 16번이었다.

이 중 KOICA의 CP 프로그램과 대응되는 SDG 목표를 중심으로 케냐의 SDGs 목표별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먼저, SDG 2번의 경우, SDG 2.1번에서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고, SDG 2.2번, 2.5번 및 2.a번에서는 정체가 있었다. SDG 3번 관련, SDG 3.3번, 3.7번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3.5번, 3.6번, 3.c번에 대해서는 후퇴한 결과가 나타났다. SDG 4번에서는 SDG 4.5번에서만 진전이 있었고, 4.2번, 4.3번은 후퇴하였다. 마지막으로 SDG 6번에서는 SDG 6.a번은 진전이 있었지만, 6.4번은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Ⅱ-152] 2023년 케냐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케냐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53]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케냐의 SDG 2번과 3번 점수는 케냐의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에 비하여 낮았으며, SDG 6번은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에 비하여 높은 수준, SDG 4번은 2021년까지의 SDG 이행 점수에 비해 낮았으나 2022년 그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Ⅱ-153] 케냐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케냐 정부의 SDG 이행 노력

케냐 정부는 SDG 관련 전략 방향과 구체적인 노력들을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케냐는 2017년, 2020년에 이어 2024년에 세 번째 VNR을 제출하였으며, 2030년 SDG 달성 의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또한, 케냐 정부는 SDG 이행 가속화를 위해 케냐의 경제 회복과 포괄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5가지 핵심 전략 분야(△농업(식량 안보 증진 및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보건의료(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 △주택 및 정착 지원(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소규모 및 중소기업 경제 지원(기업의 경제적 기회 창출), △디지털 통신망 구축 및 창조경제(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를 설정하여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더해, SDG를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계획 및 예산 책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하여 SDG 목표 이행, 모니터링, 평가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을 단일 부처(케냐 경제 기획국)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SDG 달성에 있어 부처할거주의를 막고자 하는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기획국이 주도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공동 의장을 맡는 '범기관 기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 SDG 달성에 있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SD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언어, 문화 및 관습을 활용한 현지화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케냐 정부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통해 SDG 달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케냐 정부는 '케냐 국가 비료 보조금 프로그램(Kenya National Fertilizer Subsidy Programme, NFSP)'을 통해 농민들에게 E-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비료 공급을 시행하여 2021-2023년까지 38만 톤의 비료를 제공하여 식량 생산을 도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주요 식품, 원예 상품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60만 개의 다양한 묘목 및 식재 자재를 제공하였으며, 기아 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해 케냐 건조지역 내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무조건적인 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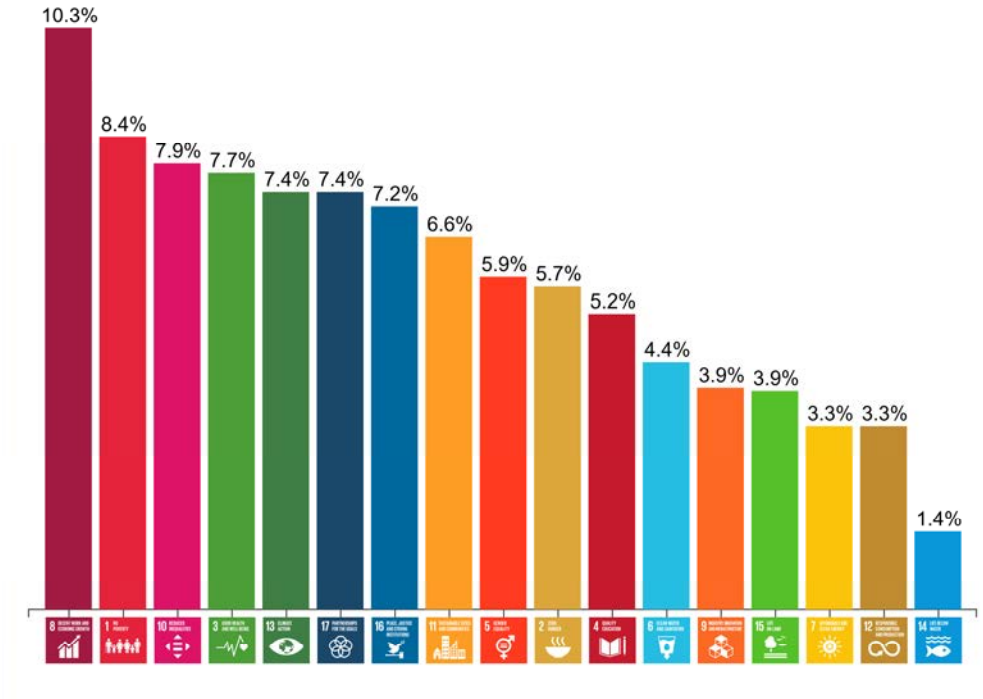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도, 케냐 정부는 국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상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케냐 정부는 20개의 지역사회 '기본적인 건강 관리 네트워크(Primary Health Care Networks, PCN)' 설립을 통해, 7,476명의 지역사회보건요원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및 마을 단위에서의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린다 마마(Linda Mama)' 프로그램을 통하여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3,452,266명의 임산부 및 영아 수혜자에게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 및 영아사망률 감소에 일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케냐 정부는 먼저, 교육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하여 2020-2023년 동안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 등록률 증가 및 출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Edu Afya' 프로그램을 통해 케냐 국가교육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 학생들이 몸이 아파 학교를 나오지 못하거나 중퇴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케냐 건조지역 기숙학교 학생들에게 기숙사 및 기타 시설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케냐 정부는 Yamo, Forole Peace, Kases 등의 댐을 완공하여 약 5,000만 입방미터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였고, 581개의 소형 댐 및 물 저수지를 건설해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식수 분야의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 및 건조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 및 도시 식수와 위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90만 명에게 식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569,467명에게 위생 서비

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케냐 정부는 SDG 2번, 3번, 4번 및 6번 지표 상승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54] 케냐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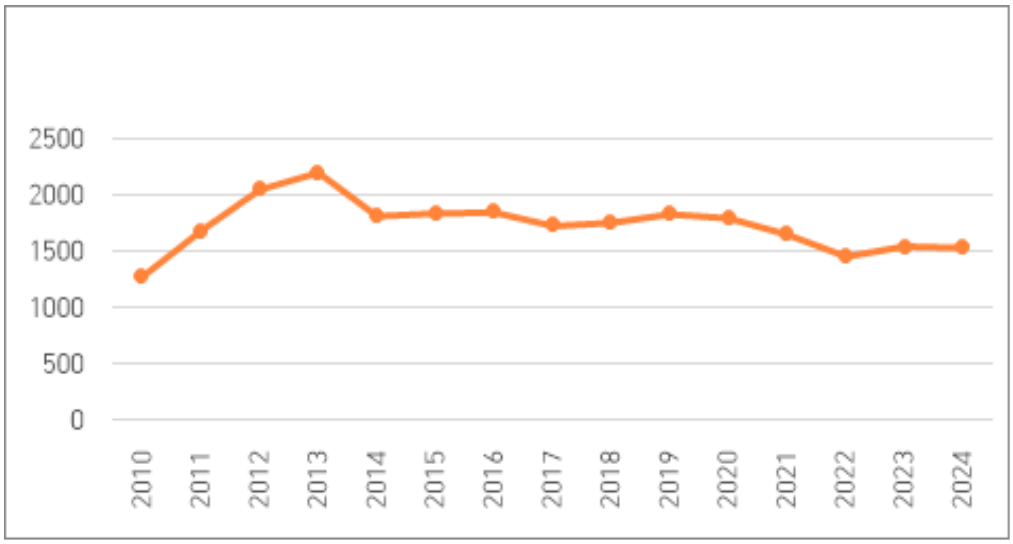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한편, 케냐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케냐 정부는 SDG 1, 3, 8, 10, 13, 17, 16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2, 3, 4 및 6번에 해당하였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케냐의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에 15억~1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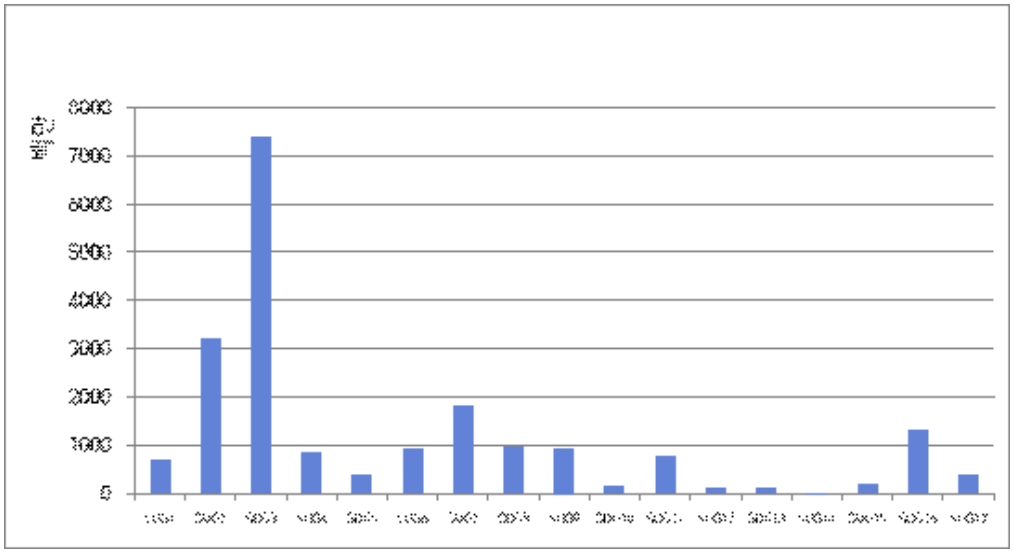
[그림 Ⅱ-155] 케냐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DAC 회원국의 케냐 각 SDGs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SDG 2번, 3번, 7번, 16번에 주로 집중되었으며, 반면 SDG 5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에 머물렀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2번과 3번이 타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Ⅱ-156] 케냐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SDG 2번과 4번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국가는 미국, 독일이었고, SDG 3번은 미국, 일본, SDG 6번은 미국과 프랑스였다. 누적 ODF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이 케냐에서 각 SDGs 목표별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표 Ⅱ-63〉 케냐 SDG 2,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6 지원	합계
호주	42	9	24	3	78
캐나다	139	74	46	3	262
프랑스	33	84	20	232	369
독일	267	123	203	175	768
일본	255	169	78	111	613
한국	55	8	26	18	107
스위스	28	3	10	6	47
영국	161	423	126	49	759
미국	1,833	6,224	167	126	8,350
기타	380	246	130	199	955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케냐의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개발 파트너이며, 특히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양자 및 다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Prakash et al. 2020). 미국은 케냐를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꼽았으며, 미국 정부 주도의 지원은 매년 약 16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케냐 경제에 기여한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미국은 2010~2018간 케냐에 대한 양자지원의 62%를 보건 분야에 집중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은 케냐의 HIV/AIDS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자금 출처로서 활동하였고, 결핵, 말라리아,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 모자보건, 신종 감염병 대응과 같은 주요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증가시켜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자 지원 외에도 2014~2018까지 케냐에서 활동하는 20여 개 다자간 기구에 대한 핵심 지원을 통해 연평균 약 750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의 대부분(62%) 또한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는 산업 및 인프라, 식량 안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미국은 케냐 정부에 대하여 △사회 개발, △위기대응 및 분쟁지역 지원, △농업 및 식량안보, △민주주의/인권 및 거버넌스, △교육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케냐의 국가 개발 전략인 '비전 2030(Vision 2030)'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Ⅱ-64〉 미국의 케냐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지원 분야	구체 내용	SDG
빈곤완화/식량안보	• 기아 퇴치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약 1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영양실조 예방 및 농업 생산 지원(옥수수 및 내건성 작물, 낙농업, 원예 지원 등)을 통해 식량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사업 지원	2
보건	• 미국 대통령 에이즈 구호 비상계획(PEPPAR) 등을 통하여 케냐 HIV/AIDS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자금 지원 • 미 국방부 주도로 나이로비, 키수무, 키시안, 콤베와, 케리초 현장 연구소를 설립, 말라리아, 트리파노소미아, 리슈마니아증, HIV/AIDS, 아르보 바이러스 등 케냐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약물 개발에 기여	3
교육	• K-YES(Kenya Youth Employment and Skills)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기술 격차 완화 지원	4
식수위생	• USAID 주도로 진행된 'Kenya RAPID' (2015~2020) 사업을 통하여 식수위생 접근성을 높이고, 가축에 대한 물 제공, 건강한 초지 생태계 관리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발 접근 실시 (USAID, 2020) • 'Afya Jijini (나이로비 시 WASH 개선 사업)'을 통해, 나이로비 시내 비공식 정착 주민들의 열악한 수돗물 및 위생 접근성 문제 대응 (USAID, 2020)	6

자료: Prakash et al. 2020

그러나 2025년 중반 USAID 폐쇄로 인해 미국의 對케냐 지원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수십 년간 USAID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보건 부문에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케냐에는 약 140만 명의 HIV 감염인이 있어 이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Sollay Kenyan Foundation 2025). 그러나 USAID 자금 삭감으로 인해 HIV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일부 의료시설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미흡한 농촌 및 소외 지역의 모성 및 아동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ollay Kenyan Foundation 2025).

② 독일

독일은 케냐를 동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심지이자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이며 지역 안보의 요충지라 꼽으며, 케냐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1963년 케냐와의 개발협력을 개시한 이후 독일은 케냐와의 양자 협력에 대하여 총 25억 유로를 제공하였고, 2022년 개최된 개발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상에서 독일 정부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신규 자금으로 1억 5,300만 유로를 케냐에 추가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German Embassy Nairobi n.d.).

케냐의 기아 종식을 위하여 독일은 농업 가치사슬 회복 및 관개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약 110만 명의 케냐 농민들이 독일 개발협력 하에 수행된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으며, 농업 가치사슬에서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지원되거나 신규 창출되고, 일자리 60%는 청년들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일은 케냐의 식량안보 수준을 증대시켰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d.).

교육 부문에서 독일은 케냐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케냐-독일 TVET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케냐 교육부 및 민간 회사들과 협업하여 직업훈련을 위한 7개의 우수센터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직업훈련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활동을 벌여, 농촌지역 청년들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독일의 직업훈련 지원으로, 34,000명 이상의 케냐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취업 기회가 향상되었다. 이 중 29,000명 이상이 프로그램 종료 직후 취업에 성공하였고 이 중 11,000명 이상이 여성 취업자였다.

이외에도 독일은 식수 위생 프로젝트를 통해 약 150만 명의 케냐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23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약 34만 명에게 위생 시설을 제공하였다.

보건 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4) 소결 및 KOICA의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성과, 케냐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 및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SDG 4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고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편으로 보여, 선별적 관찰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프로그램은 SDG 2번과 6번을 지원하고 있다. SDG 2번의 경우 성과와 정책적 관심은 낮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에 속해 수요 재확인 유형에 해당하였으며, SDG 6번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어 선별적 관찰 유형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및 포괄적 위생 증진' 프로그램은 SDG 3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성과는 낮으나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 지원 규모도 많은 편에 속해,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에 해당하였다.

〈표 Ⅱ-65〉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SDG 6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및 포괄적 위생 증진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케냐 사무소와 현장의 시각에서 SDGs 목표별 성과 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그리고 공여국 지원 현황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독일 GIZ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GIZ는 케냐 교육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 제도 구축 및 개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C-TVET(Cooperativ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산학연계시스템)과 Green TVET(친환경 직업훈련) 분야에서 뚜렷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SDG 2번의 경우 성과 수준이 낮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지만, 협력국 차원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식량안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며, 현재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보다는 카쿠마 난민캠프가 위치한 지역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SDG 6번의 경우, 각 공여국이 이미 정형화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기후환경의 차이와 강한 지방분권 구조를 가진 케냐의 특성상, 식수·위생 사업 접근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 개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KOICA 케냐 사무소 역시 투르카나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SCORE(Strengthening Resilience against WASH-related Climate Crisis in Turkana) 사업을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해당 모델은 스웨덴 공여기관이 벤치마킹 사업을 기획할 정도로 KOICA 케냐만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지막으로 SDG 3번은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고 국제 공여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가 확인되는 영역이다. 다만, 최근 USAID가 주도하던 보건 프로그램이 축소·철회되면서 키수무와 카지아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표가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모자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하면, 향후 지원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의 경우, 대규모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KOICA는 '여성 고용 증진 및 친환경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GIZ)'과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 사업' 등 직업훈련 분야의 양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GIZ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케냐 교육 분야에서 GIZ 중심 구조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KOICA의 비교우위와 차별적 강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가시성과 전략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케냐 정부가 디지털 교육 확산과 교육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한 디지털 분야 신규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굴·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프로그램 가운데 SDG 2번은 공여국 지원 규모에 비해 성과 개선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는 외부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성과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케냐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ODA 사업 기획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KOICA는 현재 추진 중인 'ITC 케냐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대상 시장 중심 소득 기회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 사업'의 사업 성과를 참조하여,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회복력을 갖춘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량안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SDG 6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공여국들이 축적해 온 식수위생 지원 모델이 일정 수준 표준화·정착되면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접근보다는 주정부 및 지방 행정 단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기후·수문 환경과 서비스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KOICA가 건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식수·위생 지원 모델과 현장 경험을 고려할 때, 케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식수·위생 분야가 KOICA 케냐 사업을 대표하는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원조 기획과 사업 수행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서비스 강화 및 포괄적 위생 증진' 프로그램은 SDG 3번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이다. KOICA 케냐 사무소는 수도 나이로비 인근 카지아도주를 중심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보건서비스 접근성과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USAID의 HIV 프로그램 철수 이후 카지아도 지역의 보건지표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모자보건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카지아도주에서 축적된 사업 경험을 토대로 보건 행정·재정 운영 역량 강화, 지역 보건체계의 실행 능력 제고,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정착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적된 성과와 운영 모델을 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하거나 모자보건 외 필수 보건 서비스 영역으로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3) 코트디부아르

(1) SDGs 이행 현황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의 주요 경제 국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7%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코트디부아르는 SDGs를 국가 발전의 청사진으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개발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PND)에 SDGs를 통합하여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PND 2016-2020 계획에서는 5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을 국제적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각각 특정 SDGs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계획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PND 2021-2025 계획에서는 더 통합된 코트디부아르를 위한 경제 및 사회 변혁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총 6개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SDGs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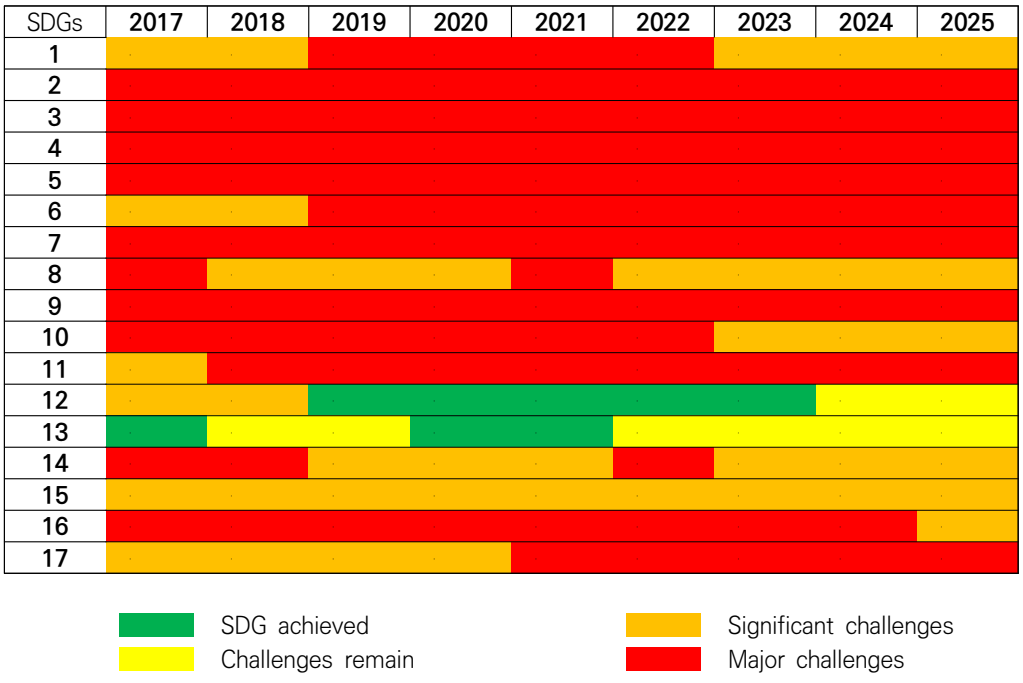
〈표 Ⅱ-66〉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계획과 SDGs 목표 연계 현황

PND 2016-2020	
제도 및 거버넌스 강화(Renforcement de la qualité des institutions et de la gouvernance)	SDG 11, 16
인적 자본 개발과 사회적 복지 증진 (Accélération du développement humain et promotion du bien-être social)	SDG 1, 2, 3, 4, 5, 14
산업화 가속 및 경제 구조 변혁 (Accélération de l'industrialisation et la transformation structurelle de l'économie)	SDG 8, 12
인프라 개발 및 환경 보전 (Infrastructures modernes harmonieusement réparties sur l'ensemble du territoire et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SDG 6, 7, 9, 13, 15
지역 균형 발전 (Renforcement de l'intégration régionale et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SDG 10, 17
PND 2021-2025	
더 빠른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혁 가속화(Accélération de la transforamtion structurelle de l'économie par l'industrialis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grappes)	SDG 1, 2, 9, 12
인적 자본 개발 및 고용 촉진(Développement du capital humain et promotion de l'empoi)	SDG 4, 8
민간 부문 및 투자 개발(Développment du secteur privé et de l'investissement)	SDG 6, 7
포용성 강화, 국가적 연대 및 사회복지 활동 (Renforcement de l'inclusion, de la solidarité nationale et de l'action sociale)	SDG 3, 10, 5
균형잡힌 지역 개발,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Développement régional équilibré, préservation de l'environment et lutte contre le changement climatique)	SDG 11, 15, 14, 13
거버넌스 강화, 국가 현대화 및 문화적 변혁(Renforcement de la gouvernance, modernisation de l'État et transformation culturelle)	SDG 17, 16

자료: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19 및 2022

코트디부아르는 SDGs 전반에서 사하라 이남 평균보다 빠른 개선속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다수 목표에서 중대한 도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빈곤·기아, 보건, 교육, 물·위생, 불평등, 기후·생태계 영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남아있으며, 일부 목표는 정체 또는 후퇴 양상이 관찰된다. 2025년 코트디부아르의 SDG 이행 점수는 63.16점으로 167개국 중에 119위를 차지하였다(SDSN 2025). 전 세계 SDG 이행 점수인 66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SDG 이행 점수인 53.9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인 국가[51] 가운데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트디부아르의 이미 달성 또는 부분적 달성 목표는 SDG 12와 13번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반면, 나머지 다수의 목표는 중대한 또는 심각한 도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대 수준은 낮지만 추세 측면에서는 상당수가 완만한 개선으로 나타난다. 즉 최근 10여 년간 경제성장·사회지표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며 점진적 수렴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57] 코트디부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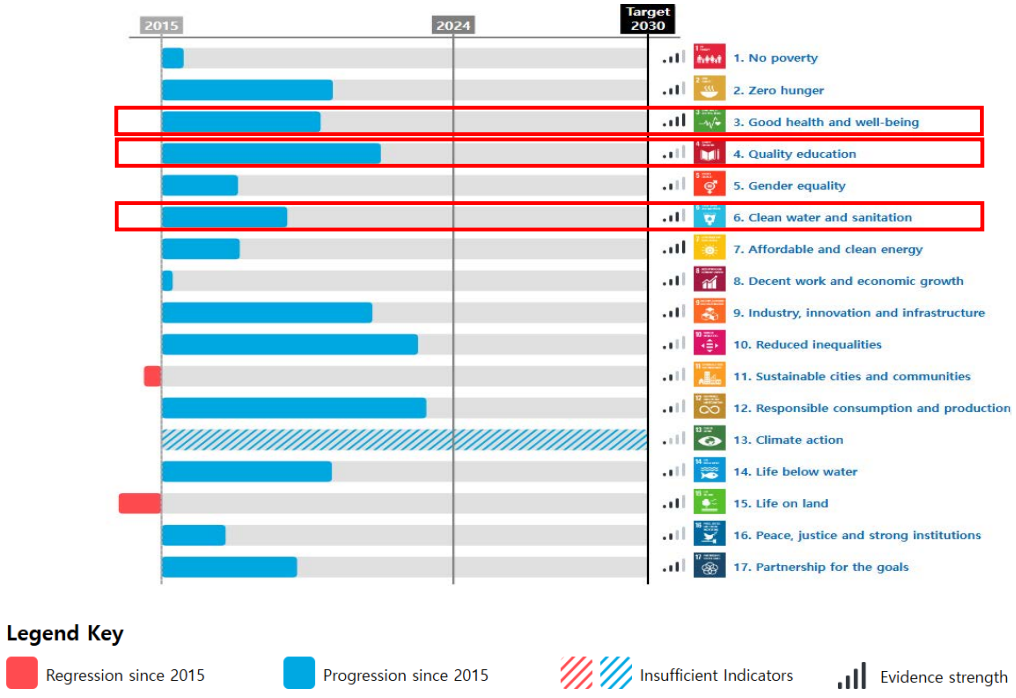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51) 베넹, 토고, 에스와티니 등

UNDP (n.d)에 의하면, 2023~2025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SDGs를 산업국가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아울러 UNDP는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바탕으로 SDGs 8.5, 11.2, 16.6번을 SDGs 달성을 가속화할 핵심 정책 경로로 제시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정책 개선이 고용 확대, 생활여건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SDGs 전반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2019년 VNR에서는 SDGs 목표 중에서도 교육(4), 일자리(8), 불평등 감소(10), 기후변화(13), 평화·정의(16), 파트너십(17)를 주요 우선순위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교육(4), 성평등(5), 해양 생물과 해양 자원(14), 육상 생물과 육상 생태계(15), 그리고 파트너십(17)을 강조하였다. 2019 및 2022 VNRs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기 공급율, 초등학교 졸업률, 보편의료보장 등록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산림 손실(연간 약 0.5%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불안정성 악화, 성평등 진정 미흡,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과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58]과 같다.

[그림 Ⅱ-158] 2024년 코트디부아르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또한, 코트디부아르의 VNRs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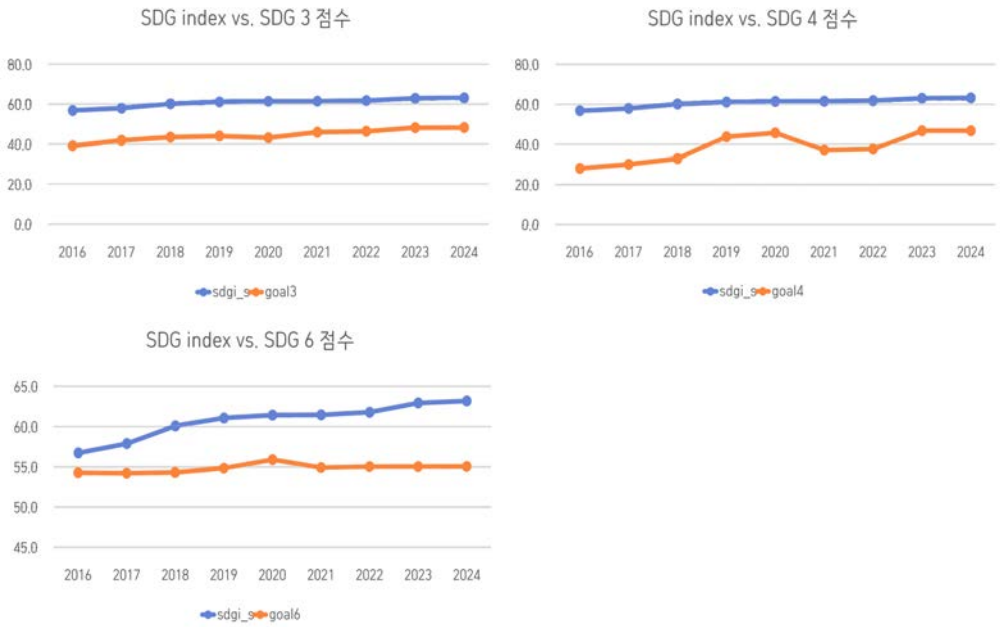
〈표 Ⅱ-67〉 코트디부아르 VNR(2019년 및 2022년) 주요 SDG별 성과 및 한계 요약

SDGs	주요 성과 및 한계
SDG 1 & 8	• 강력한 경제성장: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의 긍정적인 성장률을 유지 •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확대: 빈곤층 40%의 가계 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생산적 사회 안전망(Filets Sociaux Productifs, FSP) 프로그램 수혜 가구가 2019년 127,000가구에서 2021년 227,000가구로 증가 • 높은 빈곤율 잔존: 빈곤율이 2018년 39.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인간 개발 지수(Indice de Développement Humain, IDH)는 2018년 기준 189개국 중 170위로 낮은 인간 개발 수준 범주에 속함 •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질 문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대다수 일자리가 비공식 부문에 집중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
SDG 4	• 교육 접근성 및 완료율 향상: 초등학교 완료율(Taux d'Achèvement, TA)은 2014년 63.9%에서 2018년 80.5%로, 2021년에는 83.7%에 도달함 • 성평등 달성: 초등 교육의 성별 패리티 지수(Indice de Parité entre les Sexes, IPS)가 2021년 1.18에 도달하여, 여학생의 등록률이 남학생의 등록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임 • 교육의 질 문제: 취학률은 높으나,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및 수학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여성 문해력 격차: 여성 문해율(47.2%)이 남성(63.8%)보다 현저히 낮음
SDG3	• HIV 감염률 대폭 감소: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HIV 신규 감염률이 77% 감소 • CMU 확대: CMU 등록 인원이 2019년 대비 2021년에 324만 4,503명으로 증가 • 높은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2012년 기준 10만 명당 614명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감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 서비스 접근성 격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불균형하며, 숙련된 의료 인력이 부족함
SDG6	• 식수 접근성 개선: 개선된 식수원에 접근하는 가구 비율이 2016년 80.7%에 달했으며, 시골 지역에서 30분 이내에 식수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77.98%를 기록함 • 위생 시설 부족: 위생 시설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위생 시스템 부족(특히 농촌 지역의 야외배변 완전 종료 선언(Fin de la Défécation à l'Air Libre, FDAL)이 과제로 남아있음
SDG15	• 정책 의지 및 전략 수립: 산림 보존을 위한 REDD+ 국가 전략과 기후 스마트 농업 국가 전략(Stratégie nationale pour l'agriculture intelligente face au climat, SNAIC) 채택하였으며, 2021년에 2,8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함 • 심각한 산림 손실 지속: 산림 면적이 1990년 790만 헥타르에서 2020년 297만 헥타르(국토의 9%)로 감소함
SDG17	• 정책 정렬 및 거버넌스 강화: 105개 SDG 목표 중 87개(83%)가 국가 계획 및 부문별 정책에 일치시키고, 상설 기술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Permanente de Suivi des ODD, CTPSE-ODD)를 설립함 • 데이터 가용성의 구조적 한계:SDG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이 가장 큰 구조적 도전 과제로, 230개 SDG 지표 중 2019년 기준 44%만 이용 가능하며, 많은 우선순위 지표의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낙후되어 있음

자료: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19 및 2022 활용하여 재구성

한편, KOICA 코트디부아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6, 3, 4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59] 코트디부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코트디부아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59]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SDG 이행 점수보다 목표별 개별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DG 3번은 유사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폭이 미미하게 좁혀지고, SDG 4번의 경우 상당히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DG 6번의 경우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나, 선진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다른 지표 상황과는 대비되며, 지속적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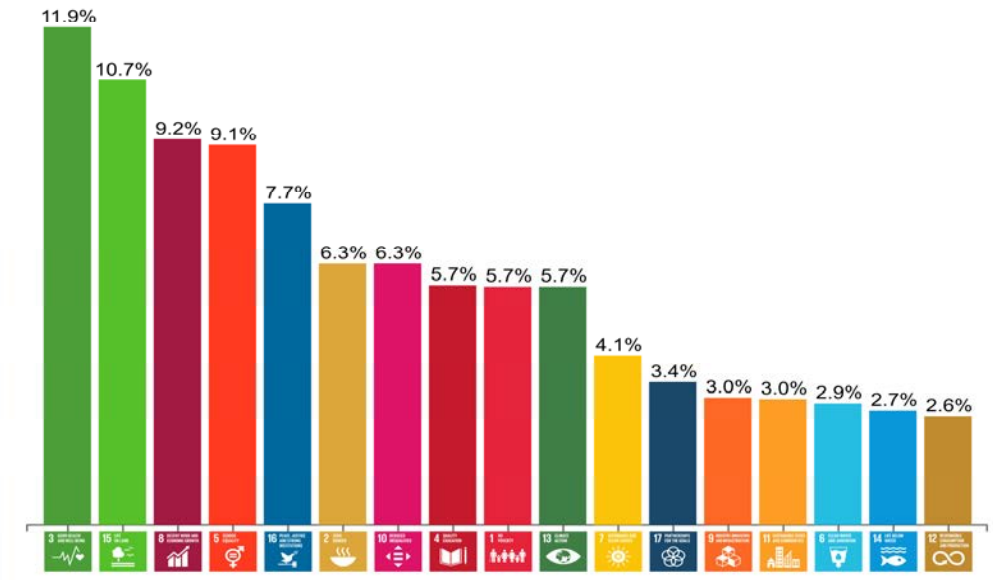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의 지난 10년간 SDGs 이행을 살펴보면, 빠른 경제성장 기반의 긍정적인 초기 진전과 구조적 불균형 및 데이터 부족이라는 지속적인 과제가 공존하는 혼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개발전략과의 연계 등을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전기 접근성, 교육 충원, 보편 의료 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살림

손실, 성평등, 모성 보건 등의 영역에서는 진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행정적 해결이 용이한 영역에서는 빠른 진전이 가능하나, 구조적·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진전이 더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의 대응 조치는 개념적 타당성이 있으나, 실행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이 입안되고 선언이 실제 싱행의 일관성, 예산의 적정성, 지역 수준의 역량 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강화, 통계 시스템의 고도화, 재정 동원의 확대, 그리고 국제협력의 심화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2)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SDGs 달성을 국가 개발의 핵심으로 삼아, PND에 SDGs 17개 목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2022년 기획개발부(Ministère du Plan du Développment) 주도의 CTPSE-ODD를 설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이와 함께 PND 2021-2025와 SDGs 일치 현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검토 대상인 105개 SDGs 세부 목표 중 87개(83%)가 국가 정책과 일치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적자본 개발, 녹색 경제 전환, 포용적 기관 강화, 재정 동원 강화를 4대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국가 통합 재정 프레임워크(Cadre National Intégré de Financement, CNIF) 도입, 지역화 가속화, 통계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VNR에서는 SDG 3, 15, 8, 5, 16, 2번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른 목표와 관련된 키워드 보다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는 4대 우선순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SDG 3이나 5번과 같이 다소 예상 밖의 목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우는 크로스커팅 의제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산림 감소 문제나 코코아 농업과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이슈가 많고 농업·산림 정책이 국가 경제와 직결되며 SDG 15번이 정책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정부의 전략적 관심사가 해당 목표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Ⅱ-160] 코트디부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KOICA CP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3번과 관련하여서는 CMU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등록 인원 324만여 명이며, 2022년 3월 기준으로 197,322명이 치료를 받았고, 593,271건의 의료 행위가 수행되고, 402, 953건의 질료가 이루어졌으며, 474개 의료센터가 이용되었다. CMU 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17%이며, 정부는 37% 이상 보장을 목표하고 있다. HIV 감염률 감소(2010~2021년 77% 감소 달성)를 지속하고, 신생아 관리실 확충,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화, 성·생식보건 서비스 개선(피임약 접근성 현 22.5%에서 대폭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다(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22). SDG 4번과 관련하여서 정부는 2030년까지 초등학교 완료율을 83.7%에서 90%로 달성, 모든 아동의 기초 문해력을 80% 이상 도달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1차 중등교육 완료율 대폭 향상, 여성 문해율을 현 47.2%에서 남성 수준 이상으로 개선, 시골 지역 인터넷 접근성 제고, 9개 여학생 기숙사 신축 등을 통해 성평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SDG 6번에 대해서는 시골 지역 안전한 식수 접근성을 약 78%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며, 수질 기준 100%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생 부문에서는 FDAL을 2030년까지 전국 확산시키고자 하며[52], 수동식 화장실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위생 실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21; Ministè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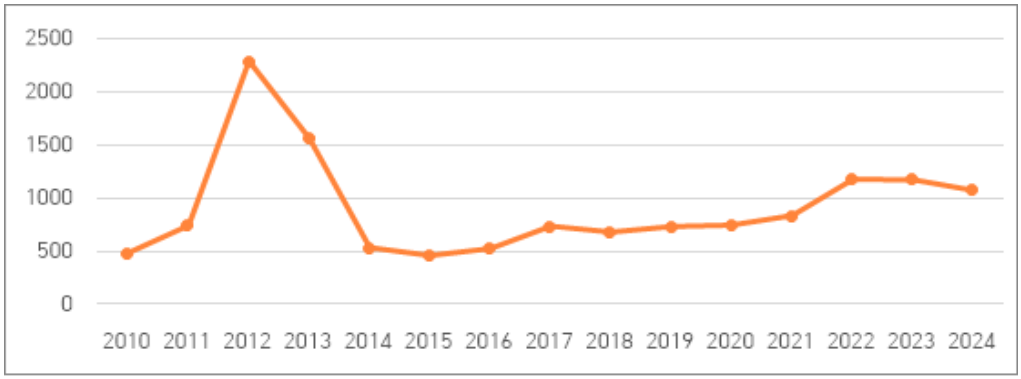
52) 2,200개 마을 완료

de l'Hydraulique, de l'Assainissement et de la Salubrité 2016). 그리고 각 SDG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가 통계 개발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Statistique, SNDS) 수립으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코트디부아르에 지원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급격히 상승한 지원 규모는 이후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2010년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등 다소 특이한 점들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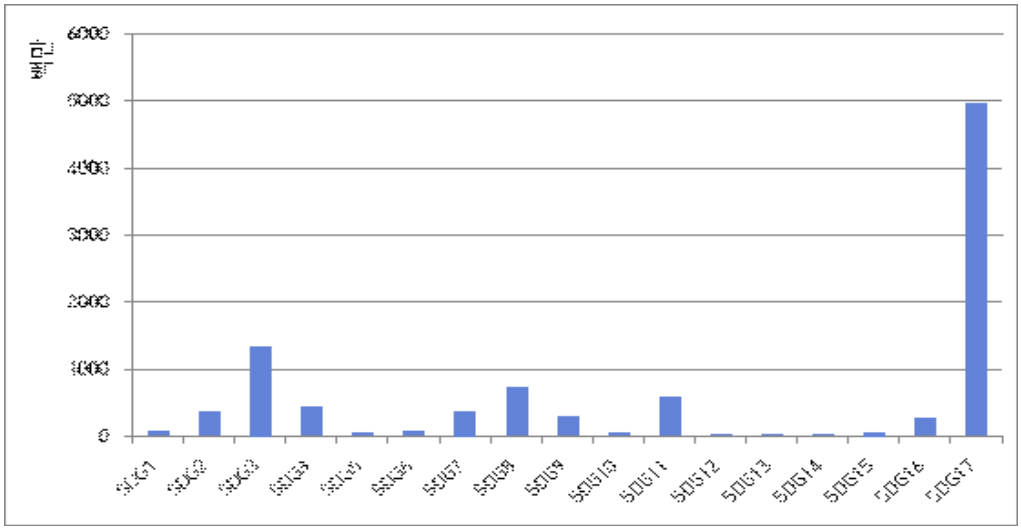
[그림 Ⅱ-161] 코트디부아르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DAC 회원국의 코트디부아르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별로는 17, 3, 8, 11, 4번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전체 지원액의 약 52%의 지원이 17번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단, SDG 17번에 집중적인 지원과 2012년의 비정상적 급증의 주된 원인은 대규모 부채 탕감의 회계적 반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트디부아르 내전 종료 후 정세가 안정되면서 국제사회의 부채 탕감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었다. 2012년에는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가 C2D를 통해 대규모 부채 탕감을 단행하였으며, 뒤이어 일본 또한 2013년에 채무 면제 조치를 하였다(IMF, 2012). 이러한 일회성 부채 탕감액은 당해 연도 원조 실적으로 일괄 계상되며, SDG 17번의 세부목표인 개발도상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됨에 따라 SDG 17번 지원 비중 또한 동반 상승하는 통계적 특성을 보인다.

[그림 Ⅱ-162] 코트디부아르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살펴보면, SDG 3번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며, SDG 4번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로 나타난다. SDG 6번은 지원 규모가 미미하지만 프랑스, 독일, 한국 순으로 지원하였다. 3개 목표 합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로 프랑스, 독일 등의 순으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4순위로, 3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3.12%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은 주로 SDGs 3, 11, 4번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약 76% 정도이다.

〈표 Ⅱ-68〉 코트디부아르 SDG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6 지원	합계
캐나다	11	12	-	23
프랑스	63	321	43	427
독일	41	40	13	95
이탈리아	2	5	0	7
일본	24	10	4	39
한국	39	11	8	57
노르웨이	1	3	0	4
스페인	35	6	0	42
미국	1,113	10	0	1,124
기타	6	8	1	15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의 코트디부아르 지원은 국가전략 상 네 가지 축(민주적 거버넌스, 안보, 보건 및 교육, 경제성장(U.S. Department of State 2023))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건 영역에서는 대통령긴급에이즈구호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을 통해 HIV/AIDS 예방·치료·돌봄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2004년 이후 누적 투자액은 9억 달러 이상으로 코트디부아르 HIV 대응 최대 공여자 지위를 유지했다. 항레트로바이러스(ART) 치료를 확대하고 임산부로부터 아동으로의 감염 예방(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PMTC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코트디부아르의 HIV 유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와 협력하여 전염병 감시 시스템과 실험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보건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Bekelynck et al. 2019). 나아가 2017년 체결된 5억2,470만 달러 규모의 MCC 콤팩트는 아비장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술·직업교육을 통해 경제 다각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한다. 이와 병행해 농업·농촌 소득 증대,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 선거 지원·사법개혁·인권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국무부·USAID를 통해 운영되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8).

한편, USAID 폐쇄와 예산 축소의 영향은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 약 8,600명의 보건요원·커뮤니티 헬스 워커의 계약이 종료되고, 다수의 HIV 관련 NGO·보건시설 지원이 중단되어 현장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의 전체 대코트디부아르 약정액은 아직 수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지만, 신규 프로젝트 승인과 장기 프로그램 연장이 줄어들면서 향후 몇 년간 실집행액 감소가 전망된다(Prabonnaud 2025).

최근 미국의 전략은 USAID 폐쇄와 국무부·USAID 예산 동결 조치로 양자 개발예산을 급격히 줄이는 대신 전통적인 무상원조에서 민간 투자와 수혜국의 재정분담을 강조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 헬스 전략은 PEPFAR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2025년 12월 30일에 체결되는 신규 양해각서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분담하도록 유도하며(U.S. Department of State 2025),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핵심 서비스는 유지하는 공동 투자 방식으로 변화를 취하고 있다. 이는 원조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하에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재정적 자립을 압박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26년부터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자체 예산을 HIV 대응에 투입하기로 발표하며, 미국의 신규 보건 모델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UNAIDS 2025; U.S.

Embassy in Côte d'Ivoire n.d.).

둘째, MCC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evelopment Finance Corportaion, DFC)를 통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에너지 콤팩트를 체결하고 코트디부아르를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미국 제조·물류 기업들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DFC 및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확대하여 농식품 가공, ICT,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보증을 제공하며 미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민주·거버넌스 및 안보 협력 프로그램 중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일부를 우선순위로 유지하되, 규모와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U.S. Embassy in Côte d'Ivoire 2025).

② 프랑스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는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양자 공여국으로서 교육, 보건, 도시 인프라, 농업 및 거버넌스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발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 외교·개발 전략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정부가 전체 ODA 예산을 긴축하는 기조 속에서도 C2D[53] 체결 등의 개발협력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AFD n.d.). 이는 프랑스의 대외 개발협력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외교·안보·경제적 이해관계와 결합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코트디부아르 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C2D의 활용일 것이다. 프랑스는 2012년 이후 세 차례의 계약을 통해 누적 약 29억 유로 규모의 부채 전환 재원을 개발 사업에 투입하였다(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n.d.). 특히 제3차 C2D를 통해 프랑스 국내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육·보건 등 핵심 사회 부문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정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개발협력이 단기적 예산 변동에 취약한 전통적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진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기반 위에서 AFD그룹은 약 30억 유로 규모, 80여 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53) 특정 협력국의 채무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프랑스 고유의 개발재원 메커니즘으로, 협력국이 만기일에 맞춰 프랑스에 부채를 정상 상환하면, AFD는 상환액과 동일한 액수를 무상원조(Grant) 형태로 협력국 내부의 빈곤 퇴치 및 사회개발 프로그램 재원으로 전액 투입되어, 국가 재정의 건전화와 자체적인 개발 재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https://www.afd.fr/en/node/142)

통해 PND 2021~2025와 정렬된 부문별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AFD n.d.). 인적 자본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산업 수요에 연계된 직업교육훈련과 청년·여성 고용 촉진을 통해 SDG 4번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부문에서는 프랑스의 글로벌 보건 전략(2023~2027)에 따라 CMU와 1·2차 의료 인프라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2). 동시에 아비장 메트로 건설을 비롯한 도시 교통·환경 인프라 사업은 SDGs 11과 13번에 부합하는 도시 회복력 및 기후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2023년 개발협력 각료회의(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CICID)의결에 따라, 사하라 이남 보건·사회보호, 교육·청년, 기후·생물다양성은 예산 제약 속에서도 상대적 보호·우선 분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In Côte d'Ivoire n.d.; Focus2030 2023). 또한 최근 프랑스의 정책 기조는 보조금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융자, 혼합금융, 민간 투자 촉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프로파코(Proparco)를 통한 중소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對 코트디부아르 개발협력이 전통적 원조를 넘어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6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SDG 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3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서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이면에서 SDGs 이행수준은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성장이 도로·전력·에너지 등 물적 인프라 투자와 자원 기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적자본, 사회서비스, 제도적 역량 등 소프트웨어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된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한편, 코트디부아르는 다수의 공여국 및 개발 파트너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개발협력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순수한 개발협력 목적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국익 및 영향력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그 결과 일부 협력 사업은 공여국의 경제·외교적 이해관계와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KOICA CP가 지원하고 있는 SDGs 이행 수준은 모두 낮게 나타나며,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SDG 3번에 대해서만 높고 나머지는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여국의 ODF 지원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공여국의 ODF 지원 규모는 SDG 17번 지원분을 제외하면 SDGs 3, 8, 11번 등에 지원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목표별로 살펴보면, SDG 6번의 경우 정량적 분석에는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타 공여기관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정책 동향을 보면 위생 환경 개선과 급수·식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노상방뇨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같은 위생 개선 정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까지 유도하는 등의 점진적인 정책적 노력이 확인된다. 한편 SDG 3번의 경우 최근 미국의 보건 협력 축소 이후 발생한 지원 공백을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의지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수의 공여국이 핵심 사회부문에 대한 실질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KOICA의 SDG 3번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은 공여국 간 중복을 초래하기보다는, 정부 수요가 명확하나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보건 분야에서 축적된 개발협력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SDGs 3, 4, 6번 지원 규모 기준으로 32개 공여국 중 상위 6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적 존재감과 비교우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의 지원은 기존에 추진해 온 식수 공급 및 상수도 연결 등 기초 인프라 중심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보건·위생 환경 개선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특정 질병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모자보건, 지역 보건체계 강화, 기초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기초보건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는 물·위생과 보건 간 연계성을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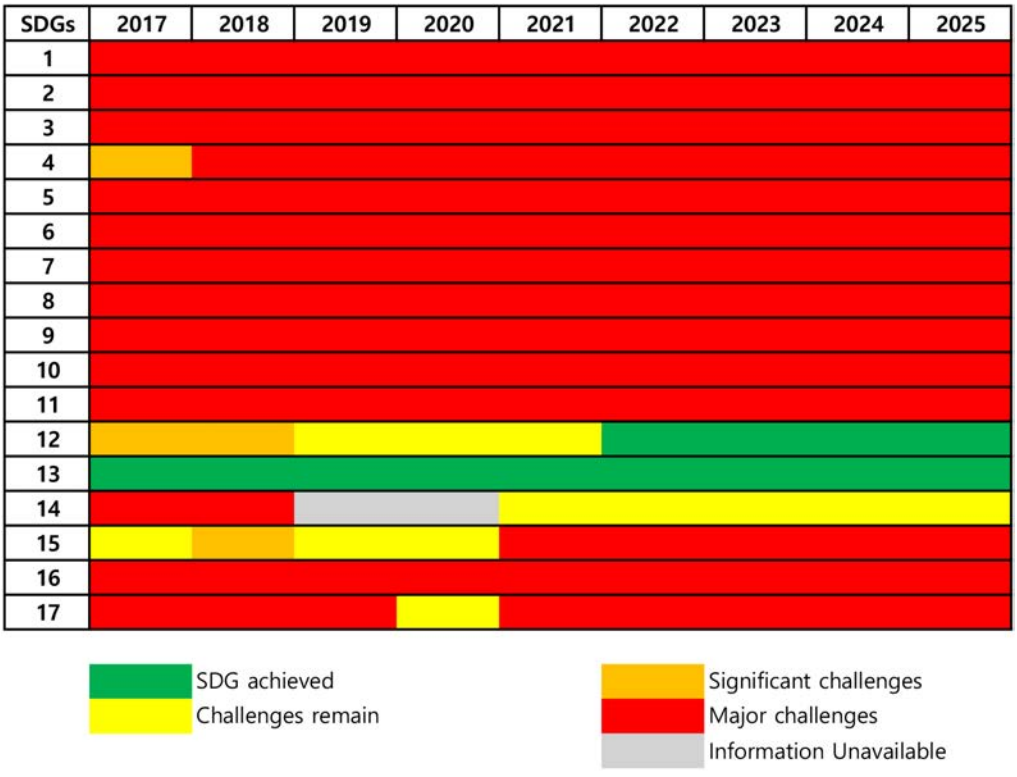
한편 SDG 4번과 관련하여서는 KOICA의 프로그램이 PND 2021~2025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핵심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SDG 4번의 이행수준이나 정책적 관심,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 정도가 모두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지원 확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ICA는 중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과 선택적 개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의 범위를 당장 확대하기보다 학습 성과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성과 검증이 우선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낮은 이행수준이 반드시 정책적 관심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속되는 코트디부아르의 인프라 중심의 고속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향후 산업 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 직업기술교육, ICT/디지털 역량 강화 등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는 단순히 현재의 지원 여건만을 기준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고등교육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인적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산업 발전과 연계된 기술·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발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력 방향이 될수 있을 것이다.

14) 콩고민주공화국

(1) SDGs 이행 현황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SDG 이행 점수는 2000년대 초반 약 45점에서 2025년 48.24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평가대상국 167개국 중 162위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53.9)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SDSN 2025).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부문에서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의 무장 분쟁, 취약한 거버넌스, 재정 제약, 낮은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이 SDGs 달성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경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IMF 2026). 그러나 여전히 극빈율이 70%를 넘는 세계에서 극빈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지니계수는 44.7로 소득불평등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Bertelsmann Stiftung 2026).

[그림 Ⅱ-163] 콩고민주공화국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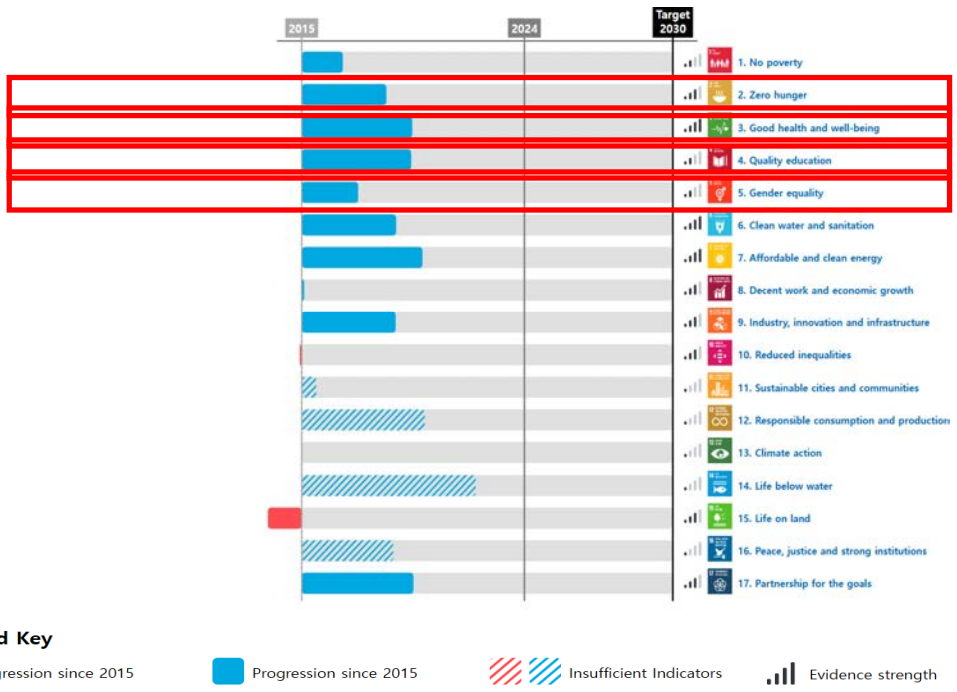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콩고민주공화국은 대부분의 목표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도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목표에서만 중대한 도전 또는 부분적 달성 단계가 관찰된다. 특히 빈곤(SDG 1), 보건(SDG 3) 교육(SDG 4), 제도 및 평화(SDG 16) 등 핵심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장기간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환경·자원 관련 목표(SDGs 12, 13)에서는 단기적 개선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는 목표별 불균형과 구조적 제약이 누적되어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도 및 목표에서 데이터 결측이 존재하는 것은 통계 기반 모니터링 체계의 결여, 지속적인 분쟁과 사회불안정은 목표 달성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달성도 변화는 정책·제도적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SDR 2025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조정체계를 일부 갖추었으나, 예산 반영 및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의 결여, 지속적인 분쟁과 사회불안정은 목표 달성의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64]와 같다. 특정 목표에서는 SDR 2025 평가에서 강조한 전반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지표 수준에서는 일정한 개선과 진전의 흔적이 확인된다.

[그림 Ⅱ-164] 2024년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이행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UN HLPF에 제출한 VNR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빈곤 퇴치를 국가 발전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SDGs를 국가 개발정책의 중심축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SDGs 가속화 프레임워크(Cadre d'Accélération des ODD, CAO)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구조적 전환의 초기 단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145개 지역 개발 프로그램(Programme de Développement Local des 145 Territoires, PDL-145T)의 추진을 통해 SDGs 이행의 지역 기반 강화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육 무상화와 보건 개혁, 조세 수입 증대에서 괄목할만한 수치상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풍부한 산림 및 이탄지 자원을 방으로 기후 해결 국가(Pays-solution)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은 SDGs 달성 궤도에서 이탈해있으며, 지속적인 분쟁, 광범위한 빈곤과 식량 불안정, 높은 산모 사망률, 낮은 전력 접근성, 부패 및 제도적 취약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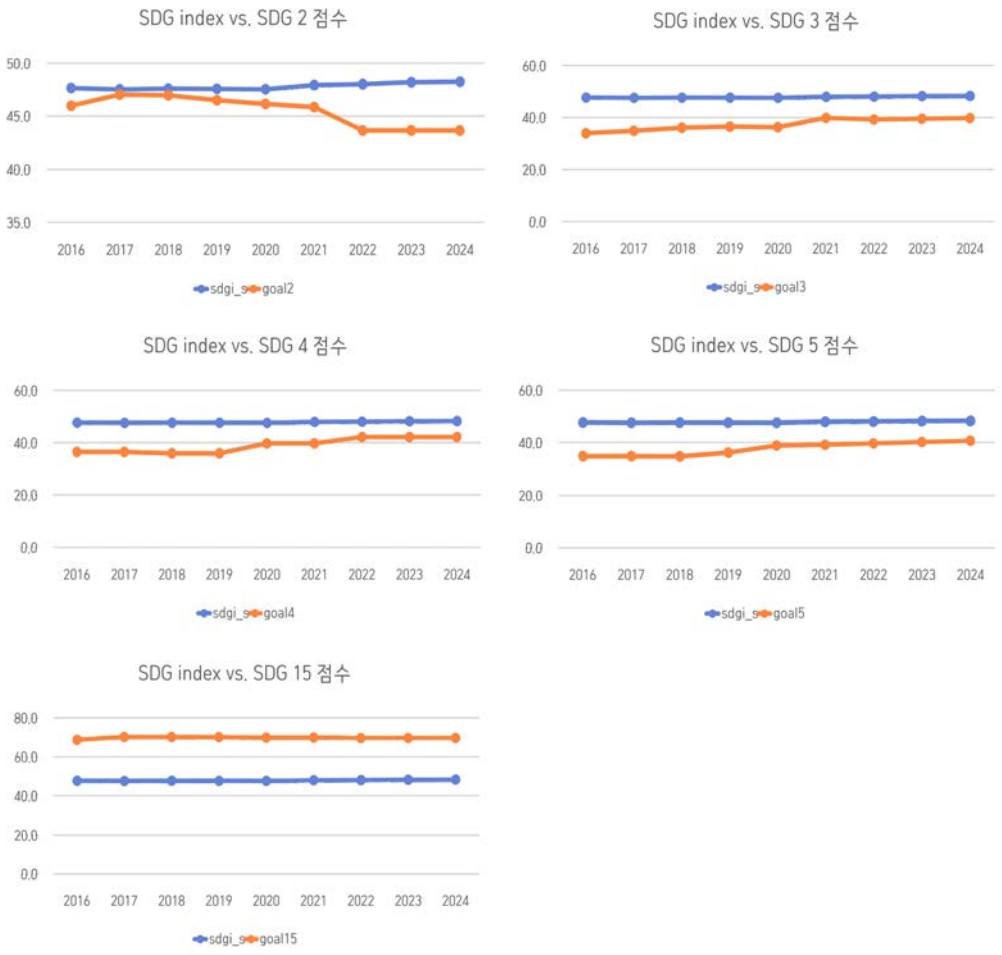
〈표 Ⅱ-70〉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한계
SDG 4	• 초등 교육 무상화(2019~2020) 실시로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로 복귀함 – 교육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를 초과하는 등 재정 투입 대폭 확대	• 학교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약 3만 개의 학교 추가 건설 필요) 및 교사의 질적 수준 미흡 • 초등 교육 이후의 중도 탈락 위험 상존
SDG 3	• CSU 개혁 착수 –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감소(104명→70명) 및 HIV 감염인의 96.6%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접근	• 높은 산모 사망률(여전히 10만 건당 547명 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매우 낮음 • 백신 수급 불안정 및 공급망 문제 지속
SDG 17	• 조세 노력 강화로 조세 부담률이 9.35%(2020년)에서 18.5%(2022년)로 급증 – 공공 수입이 2년 사이 약 2.45배 증가하며 내부 재원 조달 능력 강화	• 원조가 아프리카 내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원조가 장기 개발보다는 긴급 인도적 구호에 편중됨
SDG 13	• 세계 열대림의 10%를 보유한 '기후 해결책 국가(Pays-solution)'로서의 위상 정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7%에서 21%로 상향 조정	• 국제 사회의 기후 금융 지원 부족 (필요 자금의 극일부만 지원됨). – 인구 증가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삼림 벌채 압력
SDG 1	• 빈곤율의 소폭 하락(2020년 74.7% → 2022년 72.3%) 및 145개 지역 개발 프로그램(PDL-145T)을 통한 지방 분권적 개발 본격화	• 높은 인구 성장률로 인해 빈곤 인구의 절대적 숫자는 매년 약 120만 명씩 증가 –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 대비 가용 재원의 심각한 부족(약 10%만 확보)

자료: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20 및 2023 활용하여 재구성

한편, KOICA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보편적 건강 달성을 위한 포괄적 보건 역량강화', '평화로운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서비스 개선'과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을 위한 기후회복력 및 농업 생산성 강화'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3, 4, 5, 15, 2번이아 종식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65] 콩고민주공화국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콩코민주공화국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SDG 2, 3, 4, 5 모두 SDG 이행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DG 3, 4, 그리고 5는 이행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미미하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전후로 그 성향이 더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SDG 2번의 경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2021년 동부의 북키부(North Kivu)와 이투리(Ituri)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국가 전체 식량 공급량 급감하며, SDG 2번 지표의 하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DG 15번의 경우 이행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국토의 60%가 열대우림이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규모 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콩고민주공화국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VNRs를 제출하며, SDGs 이행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2016년 설립된 콩고지속가능발전관측소(Observatoire Congolais du Développement Durable, OCDD)는 기획부 산하의 SDG 모니터링 및 조정 기구로서 기능하며, 두 차례 VNR 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우선 순위화한 100개 SDGs 세부목표와 133개 지표를 국가전략개발계획(Plan National Stratégique de Développement, PNSD) 2019-2023에 반영함으로써, SDGs를 국가 개발전략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자 노력하였다(UCLG 2022). 이 외에도 무상 기초교육 도입 선언, CSU 추진 방향 설정, 그리고 26개 주 중 11개 주에서의 주별 개발계획(Plan de Développement Provincial, PDP) 수립 등의 주요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SDGs 이행의 정책적 출발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분권적 개발계획 수립을 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의지 표명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21년부터 정부는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와 SDGs의 현장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145개 지역 개발 프로그램(PDL-145T)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기초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45개 지역에 걸쳐 1,210개 학교와 788개 보건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약 38,000km 규모의 농촌 도로 정비, 3,000개 이상의 수자원 개발 시설 구축이 포함되며, 농촌 및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UNDP에 의하면 2025년 12월 기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16개 보건소를 신설하여 약 390만 명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553개 초등학교 건립을 통해 약 120만 명의 아동이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고, 68개 행정건물 운영을 통해 약 3,400만 명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UNDP 2025). 이러한 접근은 SDGs 이행을 중앙 정책 수준에서 지역 단위의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려는 분권적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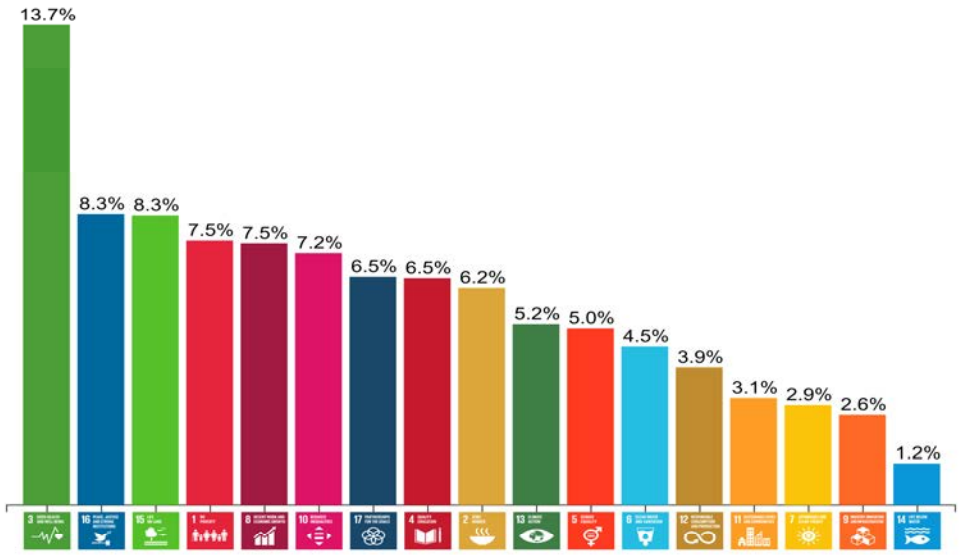
동시에 정부는 국가 전략계획의 고도화와 통합적 정책 설계를 통해 SDGs 이행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PNSD 2019-2023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PNSD 2024-2028을 수립하고, 정책 간 상호의존성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iSDG 시뮬레이션 모델[54]을 도입하고 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CNFI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 국내외 재원을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일치시키고자 하며, 탄소세 도입 및 탄소 크레딧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 관련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병행되고 있다. 한편,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는 CSU 개혁과 초등교육 무상화 정책(La gratuité de l'enseignement primaire)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약 3만개 학교 건설과 18만명 이상의 교사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국가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과 거버넌스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SDGs 지표 클러스터 조사(Enquête Groupe d'Indicateurs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EGI-ODD)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Open SDG'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 데이터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구축 역시 SDGs 이행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1% 감축하는 CDN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농업, 에너지 부문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권위 회복과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평화 구축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콩고민주공화국 VNRs의 키워드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DG 3, 16, 15, 1, 8, 10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SDG 3번에 대한 언급이 높은 것은 강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또한 SDGs 15, 1, 8, 10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언급된 것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최상위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볼 수 있다. SDG 15번은 콩고 분지의 열대우림과 생물다양성을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서도 산림과 생태계 보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SDG 1과 8번은 PNSD의 핵심 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빈곤 탈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DG 10번은 PDL-145T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4) iSDG 모델은 특정 섹터에 ODA 예산이나 정책적 개입을 투사했을 때, 그것이 다른 SDGs 목표들에 미치는 양의 시너지(Synergy)와 음의 상충 관계(Trade-offs)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하고, 2030/2050년까지의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시각화해 주는 통합형 정책 시뮬레이션 도구(UN, n.d.)

[그림 Ⅱ-166] 콩고민주공화국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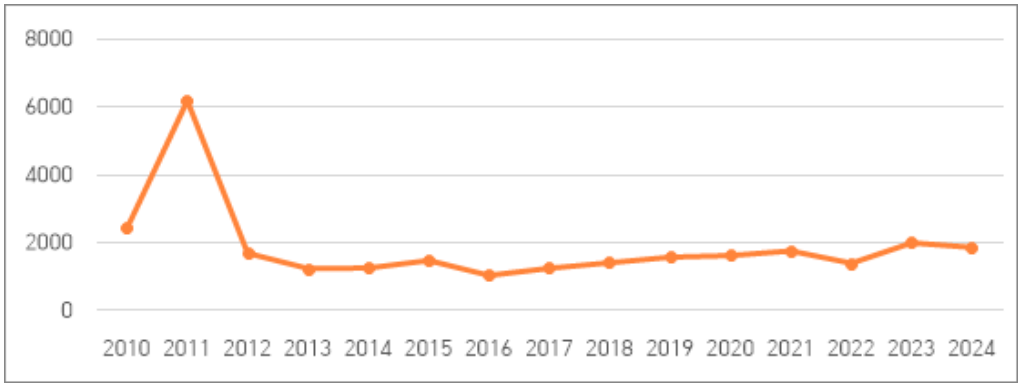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기본법[55]과 국가농업투자계획(IFAD 2019)을 통해 소농 중심의 생산성 향상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생물강화작물 도입(HarvestPlus 2025) 등 영양결핍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법적 기반 정비와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무상 기초교육 정책 도입을 통해 취학률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재정 지속성과 교육의 질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SDG 5번과 관련해서는 법·제도적 정비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성과로의 전환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분지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국가 산림 정책(Politique Forestière Nationale, PFN) 수립[56], REDD+ 이행, 대규모 보호구역 지정,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광물·에너지 개발 정책과의 상충, 불법 벌목,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산림 관리 공백 등은 SDG 15번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55) Loi n° 11/022 du 24 décembre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griculture
56) 2025년 초안 작성 및 주별 검토 단계 완료: 탄소 흡수량이 막대한 이탄지(Tourbières, Peatlands) 보호와 REDD+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하고 있음

(3) 공여국 지원 현황

[그림 Ⅱ-167]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의 콩고민주공화국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에 잠시 상승했었으나 이후 2010년 수준이거나 미만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1년의 대규모 ODF 지원 규모는 부채 면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7월 과중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57]가 완료되면서 123억 달러 규모의 부채 면제가 2011년 원조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Ⅱ-167] 콩고민주공화국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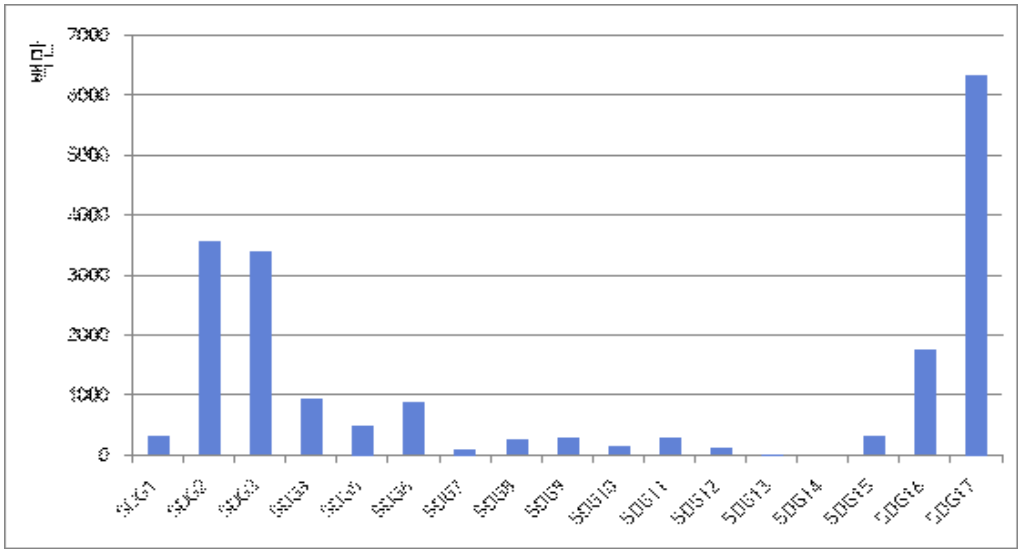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DAC 회원국의 콩고민주공화국 SDGs 목표별 ODF 지원액을 살펴보면, SDG 17과 2번이 전체 지원액의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SDG 17번이 약 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찬가지로 부채 탕감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SDG 17번을 제외하고는, SDG 2번, 3번, 16번이 각각 약 19%, 18%, 9%를 차지하며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 우선순위 정책 방향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57) 1996년 도입된 IMF 및 월드뱅크의 국제 부채 탕감 프로그램

[그림 Ⅱ-168] 콩고민주공화국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s 별로 살펴보면, 각각 2번은 미국, 독일, 벨기에가, 3번은 미국, 영국, 벨기에, 4번의 경우는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5번은 미국, 캐나다, 영국이, 15번은 독일, 미국, 일본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개 목표의 합으로는 미국, 영국, 벨기에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으며, 미국의 지원이 약 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13번째로, 5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0.65%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20.6%는 SDG 6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9번에 18.7%, SDG 2번에 16.3%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71〉 콩고민주공화국 SDG 2, 3, 4, 5, 15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5 지원	SDG 15 지원	합계
벨기에	296	319	179	40	21	855
캐나다	140	115	23	59	2	339
프랑스	28	33	112	1	15	189
독일	336	107	67	13	164	687
일본	134	108	84	12	27	364
노르웨이	22	33	14	34	26	129
스웨덴	82	111	2	46	12	252
영국	202	556	68	52	13	891
미국	2,195	1,810	274	168	29	4,477
기타	117	179	98	58	2	454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발·인도주의 지원을 주도해 왔으며, 특히 2002~2021년 기간 동안 총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재건과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3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통해 전체 수원액의 약 23%를 차지하였고, 2024년에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자원이 동원되는 가운데 이 중 약 9억 달러 이상이 미국에서 제공되어 전체의 약 70%를 담당하는 등 압도적 위상을 유지하였다. 미국의 지원은 인도주의, 보건, 거버넌스, 농업·경제개발, 환경 등 다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동부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지원은 식량, 쉼터, 보호, 위생(WASH) 서비스를 포함하며, 대규모 국내 실향민 및 난민 문제 대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6; Mukena 2025; Physicians for Human Rights 2025).

보건·인구 분야는 미국 지원의 핵심 축으로, 통합보건프로그램(Integrated Health Program, IHP, 2018~2024)을 비롯하여 PMI, PEPFAR, 에볼라 대응 등 다수의 대형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모자보건, 결핵, 말라리아, 영양, 가족계획 등 주요 보건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질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정보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USAID 지원은 전체 사망률 및 HIV/AIDS 사망률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Wisniewski et al. 2024).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Title II 긴급식량지

원 프로그램(The Title II Emergency Program)을 통해 WFP와 협력하여 수백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소농 생산성 향상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병행되었다(Claps 2025). 안보·평화·거버넌스 분야 역시 미국 지원의 중요한 축이었다. 미국은 2021년 콩고민주공화국과 '평화·번영·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파트너십(Privileged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PP4PP+P)'을 체결하고(U.S. Department of State 2022), 동부지역 비국가 무장단체 활동 억제, 콩고민주공화국 국군(Forces Armées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FARDC)의 전문성 강화, 반테러 협력, 무장해제·동원해제·사회복귀(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 지원 등을 통해 분쟁 안정화와 국가 권위 회복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3년 총선 지원, 반부패 및 법치 프로그램, 언론 자유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제도적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콩고 분지 산림 보전, REDD+ 지원,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이 양국 협력 의제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분야 지원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오너십 부족, 제도 역량의 취약성, 외부 재원 의존도 심화는 지속가능성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취약성은 2025년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전환 이후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2025년 초 대외원조 중단 조치와 함께 USAID 프로그램의 약 83%가 종료되고, 이후 기능이 국무부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개발협력 구조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 결과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미국 지원 규모는 2024년 약 9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약 1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산과적 의료서비스, 가족계획, 감염병 대응 등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Physicians for Human Rights 2025). 이와 동시에 미국의 對 콩고민주공화국 접근 방식은 인도주의 및 개발원조 중심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U.S. Embassy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26). 2025년 체결된 전략 광물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PA)은 코발트, 구리, 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 기업의 우선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공동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자원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ODA를 대체하여 안보·자원 확보 중심의 협력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영국

영국은 미국에 이어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양자 공여국으로서, DFID와 이후 FCDO를 중심으로 장기 안정·평화·안보 증진, 인도주의 프로그램, 거버넌스·책임성 강화, 여성·여아 역량강화

및 모자보건·교육,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경제개발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포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최근 지원 규모는 2023~2024년 약 4,460만 파운드에서 2024~2025년 1억 500만 파운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부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대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FCDO 2023; UK Government 2026). 해당 지원은 식량, 쉼터, WASH 서비스를 포함하며, 대규모 국내실향민과 난민 문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 교육, 성평등, 평화·안보, 기후 분야가 보완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장기 분쟁과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단기적 생존 지원과 중장기 제도 구축을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WFP를 통한 긴급 식량 지원을 핵심으로, 분쟁 및 재해로 인한 식량 불안정 인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국제보건개발기구(IMA World Health)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카사이 주를 중심으로 영양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식이 다양화 모델 구축, 아동 영양실조 조기 발견 및 치료 역량 강화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었다(WFP 2024; NASC 2025). 보건 분야에서는 10년 이상 지속된 보건시스템 강화 사업 - 일차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사업(Accès aux Soins de Santé Primaires, ASSP) 및 콩고민주공화국 보건시스템 강화 사업(Appui au Système de Santé en RDC, ASSR)을 기반으로, 필수 모자보건 서비스 프로그램(Services Essentiels de Santé Maternelle et Infantile, SEMI)을 통해 모성 사망률 감소, 응급 산과 치료 역량 향상, 신생아 생존율 개선, 디지털 보건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성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 통합 성·생식건강 프로그램(Women's Integrated Sexual Health, WISH)을 통해 성·생식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원치 않는 임신 감소 및 모성 사망 예방에 기여하였다(FCDO n.d.a.; IMA World Health 2025; UNFPA 2024; Ipas DRC 2026).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지원, 교원 훈련, 기초문해 개선 등 양적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성평등 분야에서는 성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아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었다(FCDO 2023). 또한 평화·안보·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분쟁·안정·안보기금(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CSSF)[58]을 통해 동부 지역 분쟁 완화, DDR 지원, FARDC 역량 강화, 선거 지원 및 반부패·법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권위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관련 평화 프로세스 조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외교적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59].

58) 영국의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금으로, 해외의 갈등과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독특한 재정 모델임. 단순한 인도적 지원(ODA)를 넘어, 외교부(FCDO), 국방부(MoD), 내무부(Home Office) 등이 협력하여 안보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 (UK Government, 2024)

59) MONUSCO(Mission de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a Stabilisation en République

환경·산림 및 기후 분야에서는 콩고 분지 산림 보전을 핵심 전략 축으로 설정하고, 콩고 분지 산림 행동 프로그램(Congo Basin Forest Action Programme, CBFA), 파트너십 포 포레스트(Partnerships for Forests, P4F), 산림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투자 프로그램(Investment in Forests and Sustainable Land Use Phase II, IFSLU2) 등을 통해 저탄소 개발, 민간 투자 유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 생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FCDO n.d.b.; P4F, n.d.; FCDO, n.d.c.). 이러한 접근은 영국이 개발협력과 기후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공여국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영국의 콩고민주공화국 지원은 재정 축소 환경 속에서 보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 ODA 비율 축소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소하면서 교육 및 일부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사업 축소와 조기 종료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 및 식량안보 분야에서도 장기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긴급 대응, 여성·여아 보호, 평화 구축, 산림·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역 기반 보건시스템 강화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확보와 정부 오너십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단기 식량 지원과 장기 회복력 구축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FCDO 2026; Cohrs 2025; Adow 2025). 종합적으로 볼 때, 영국의 콩고민주공화국 지원은 다분야 통합적 접근과 인도주의-개발-기후 연계라는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향후에는 제한된 재원 하에서 우선순위 중심의 선별적 개입과 성과 중심 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평가된다(P4F n.d.; Cowen 2026).

Démocratique du Congo, 콩고민주공화국의 UN평화유지군, 2024년부터 단계적 철수 중) 지원 협력 및 지역안보 프레임워크(평화·안보·협력 프레임워크, PSCF) 이행 지원 등 (ICAI, 2022, UK Governme nt. 2024)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7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보편적 건강 달성을 위한 포괄적 보건 역량강화	SDG 3	낮음	높음	적음	전략적 개입 필요 유형
평화로운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서비스 개선	SDG 5	낮음	낮음	적음	전략 재검토 유형
	SDG 4	낮음	낮음	적음	
지속가능한 국가 개발을 위한 기후회복력 및 농업 생산성 강화	SDG 15	높음	높음	적음	성과기반 우선 확대 유형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KOICA가 추진 중인 '보편적 건강 달성을 위한 포괄적 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SDG 3번을 지원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SDG 3번 이행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여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SDG 17번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도 있다. 낮은 성과 수준, 높은 협력국 정책적 관심,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여국 지원이라는 조건을 종합할 때, 전략적 개입 여지가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CSU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국가 개발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 중심의 접근을 넘어, 선도적 공여국으로서 보건 분야 성과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보건 시스템 도입, 지역 단위 통합 보건모델 구축 등 혁신적 접근을 활용한 파일럿 사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의 확장 가능성(scalability)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국가전략개발계획(PNSD) 및 보건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단기적 성과 창출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KOICA가 추진 중인 '평화로운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은 SDGs 5와 4번을 지원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SDGs 5와 4번 목표 이행 수준은 모두 낮은 편이며,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또한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마저도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성과 수준, 제한적인 협력국 정책적 관심, 그리고 낮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전략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그램은 단기적 성과 창출을 위한 확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 발굴이나 대규모 재원 투입을 지양하고, PNSD의 변화와 국제 원조 지형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는 시점을 선별적으로 포착하는 전략

이 요구된다. 특히 145개 지역 개발 프로그램(PDL-145T)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및 젠더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경우에는 보건 또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 관점에서 분쟁 취약 지역의 사회 서비스 개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본 프로그램에 투입된 재원을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OICA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국가 개발을 위한 기후회복력 및 농업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은 SDGs 15와 2번를 지원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SDG 15와 2번 목표 이행 수준은 각각 높고 낮다. 또한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도 각각 높고 낮다. 반면, 공여국의 지원은 각각 낮고 높다. 즉, SDG 15번은 높은 성과 수준, 높은 협력국의 관심, 낮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라는 조건을 토대로 성과기반 우선 확대 유형인 반면, SDG 2번은 낮은 성과 수준, 낮은 협력국의 관심, 높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로 수요 재확인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프로그램은 SDG 15번의 정책적 정합성과 실행 기반을 활용하여 SDG 2번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농업 생산성 제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축으로 설정한 '기후-농업 넥서스' 기반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이나 혼농임업(Agroforestry)과 같은 모델을 통해 산림 보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KOICA는 SDG 15번 분야에서의 선도적 공여국으로서 파일럿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SDG 2번 분야의 새로운 개입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단순 농업 인프라 확대보다는 기후 대응과 연계된 기술 협력 및 성과 중심 지원으로 재편함으로써 전략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기후 대응을 매개로 농업 생산성 개선을 유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구조적 개발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5) 탄자니아

(1) SDG 이행 현황

탄자니아는 2023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SDG 2, 3, 4, 5, 6, 7, 8, 16번에 대해서는 '좋은 진전(Good Progress)'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였으며 SDG 1, 9, 10, 11, 12, 13, 14, 15, 17번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진전(Relatively Moderate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3).

보통 수준의 진전이 있었던 SDG 1번에 대해 탄자니아는 지난 20년 동안 빈곤 감소에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최근 몇 년간 진전이 더딘 편이라 평가하였다(2018년 빈곤율 26.4% → 2020년 25.7%). 다만, 최근 탄자니아 정부는 '생산적 사회안전망(Productive Social Security Net, PSSN)' 프로그램을 통하여 130만 가구에 조건부 현금 이전, 공공 근로 프로그램, 생계 지원, 인프라 개발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SDG 2번 관련, 탄자니아는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상태(저신장, 저체중, 영양실조)가 개선되었다고 밝히며, 특히 가임기 여성 건강(15세에서 49세)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상당히 개선되어, 빈혈 유병률이 44.8%에서 28.8%로 감소하였다. 2019~2020에서 2022~2023 사이 식량 작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량 자급자족 비율은 평균 120.8%로 지속 보장되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의 민간 부문, 시민사회조직(CSOs), 국제기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궁극적인 기아 감소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SDG 3번 관련하여, 탄자니아는 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하여 2015~2021까지 잔지바르 공공 보건 시설 168개를 건립하는 등 보건의료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고 임신 중인 여성들을 위한 국가 긴급 교통 시스템(M-Mama)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 덕분에 2019년 이후 HIV 유병률은 1.94%에서 0.79%로 감소하였고,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287명에서 208명, 말라리아 발생률은 1,000명당 122명에서 76명으로 감소하였다.

SDG 4번과 관련, 탄자니아는 교육 부문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몇 가지 지표에서 개선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교육 부문에서 포용성 원칙에 맞춘 특수 교육 아동에 대한 국가 캠페인 실시, 2020/2021-2024/2025 기간 동안 성인 문해력 및 대중 교육 전략을 통해 성인 문해율을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덕분에 초등학교 총 완료율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100.2%로 증가하였으나, 유치원 등록은 2016년 156만 명에서 2020년 14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미진한 분야도 있었다. SDG 5번 관련, 탄자니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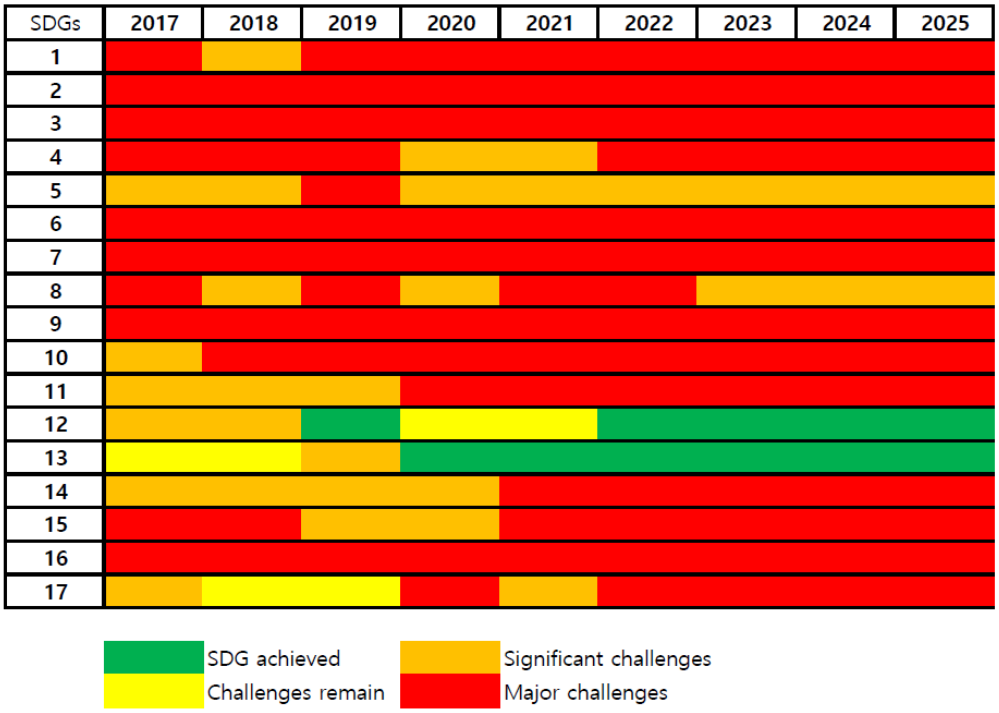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50을 통해 여성과 소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여성 대상 폭력 건수가 2020년(30,772건)에서 2021년(20,897건) 사이에 감소하였으며, 아동 폭력 사건도 2017년 9,810건에서 2022년 4,058건으로 줄어들었다(여아 기준).

SDG 9번 관련, 탄자니아는 국가 도로망을 2015년 31,366km에서 2022년 36,362km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제조업 부문은 연 성장률이 2020년 4.5%에서 2021년 5.1%로 증가하는 등 좋은 진전을 보였다. 이를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 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표준궤도 철도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SDG 13번 관련, 탄자니아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등은 2019년 100,000명당 202명에서 2022년 161명으로 감소하였고,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은 15.4%에서 16.5%로 증가하였다. 탄자니아는 2020~2022까지 탄자니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략 및 계획을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전략들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에서의 기후 주류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는 SDG 15번 이행을 위해 임업과 관광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여 2019~2022 동안 임업이 4.8%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매년 약 469,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침입 종의 확산이 자연 생태계와 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DSN에서 발표하는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 [그림 Ⅱ-1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자니아에서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8, 12, 13번 정도였다. 아울러 탄자니아의 SDG 이행 점수의 경우 2016년 56.1점에서 2024년 57.7점으로 매우 소폭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SDSN 2025).

[그림 Ⅱ-169] 탄자니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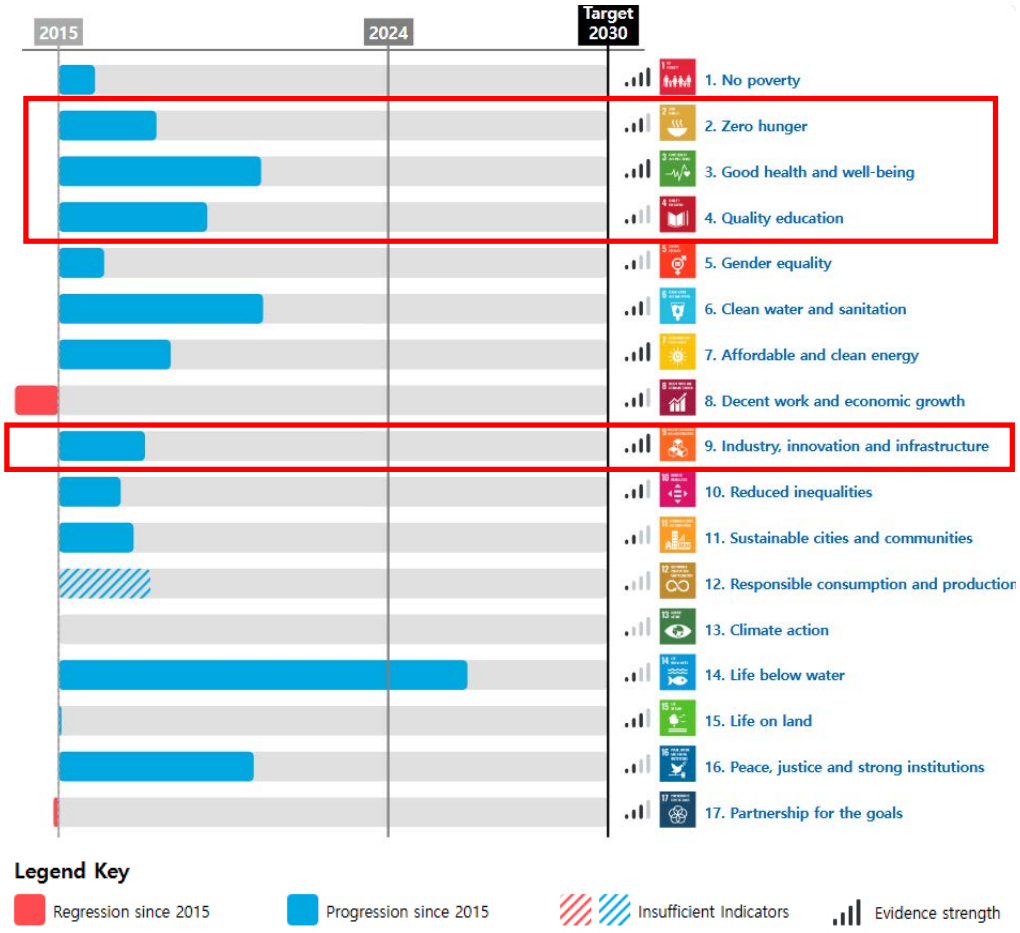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가 탄자니아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개발'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2, 3, 4, 9번에 해당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70]과 같이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하여 SDG 8, 17번 지표는 후퇴하고 있으며, 13, 15번의 경우 정체 상태, 12번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외 나머지 SDG 지표의 경우 2015년 대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70] 2024년 탄자니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CP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SDG 성과지표 위주로 살펴보면, SDG 2번의 경우, SDG 2.1번 측면에서 후퇴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SDG 2.2번, 2.5번 및 2.a번에서 정체가 나타났다. SDG 3번에서는 SDG 3.b번이 후퇴하였으며, SDG 3.1번, 3.a번 등의 목표에서는 진전을 보였지만 이외 목표에서는 모두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SDG 4번에서는 SDG 4.3번의 경우 후퇴하였으나, SDG 4.5번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외 4.2번, 4.a번 등의 목표는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DG 9번 관련해서는 9.3번, 9.4.번, 9.b번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 9번과 관련한 세부목표들은 모두 정체되어 있었다.

SDSN에서 발표하는 탄자니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7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SDG 이행 점수는 SDG 2, 3, 4, 9번에 비하여 모두 높은 편이었다. 즉, 탄자니아의 평균적인 SDG 달성 정도보다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CP 프로그램들과 대응되는 SDG 목표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Ⅱ-171] 탄자니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탄자니아 정부의 SDG 이행 노력

탄자니아는 SDG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탄자니아 총리실 및 재무기획부가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잔지바르의 경우 대통령실 기획위원회 하에 설립되어 운영 중). 해당 부처들을 중심으로, 탄자니아는 '국가 SDG 조정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The National SDG Coordination and Monitoring Framework)'을 '탄자니아 국가 5개년 계획(National Five-Year Development Plan, FYDP-III)' 및 '잔지바르 개발계획(Zanzibar Development Plan, ZADEP)'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3).

특히 FYDP-III에서는 '경쟁력과 산업화를 통한 인간개발 실현'을 목표로 하여 모든 17개 SDG 목표를 탄자니아의 정책·예산·성과관리 주기에 통합하였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개발의 핵심 분야별(산업화, 인프라, 농업, 에너지, 도시화, 인적자본)로 SDG 목표와 지표를 매핑하고 이를 탄자니아의 정책 및 지출 우선순위 설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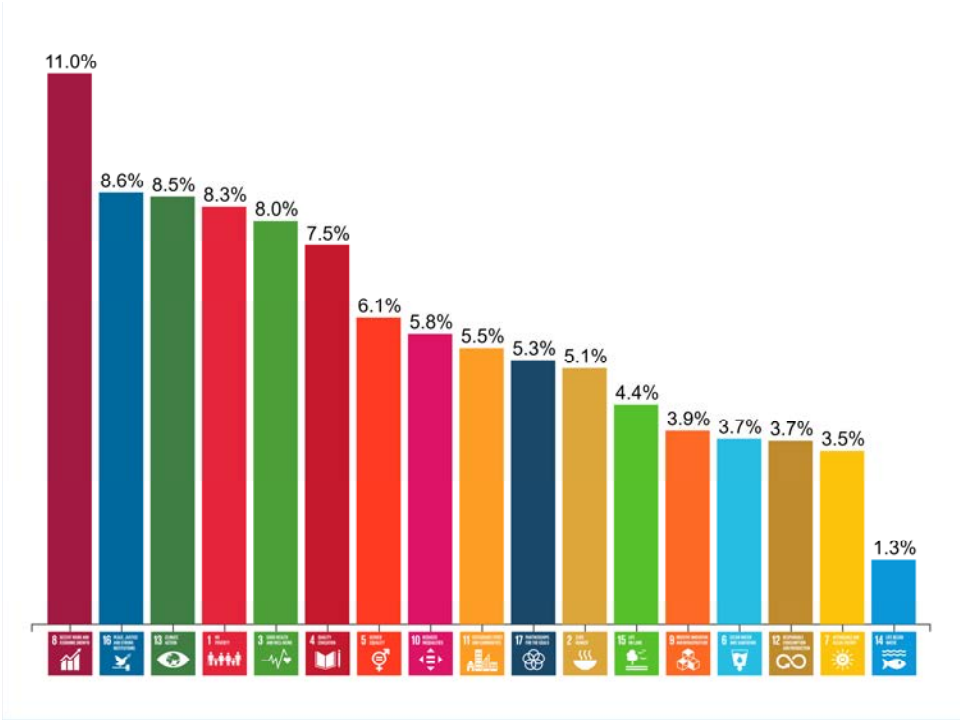
SDG 2번 관련 소규모 농민의 생산성이나 소득 증대, 현대 농업 기술 및 기계화 확대, 식량 가공 및 가치사슬 구축 등을 골자로 한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ASDP) II'와 'Agenda 10/30 Roadmap' 등을 수립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종합전략을 추진해왔다.

SDG 3번 관련, 탄자니아는 'Health Sector Strategic Plan'과 'Health Financing Strategy 2016-2026'을 통해 모든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목표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호 기반의 재정전략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인력, 의약품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Wang & Rosemberg 2018). 아울러 WHO와의 협력하에 UHC 플래그십 국가로 선정되어, 건강재정, 취약계층 이용자 비용 경감, 거버넌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SDG 3번에 맞춘 보건시스템 강화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National Strategy on Inclusive Education 2009-2017'을 통하여 장애, 취약, 과연령 아동을 주류 교육체계에 통합하고, 교사 양성, 대체학습경로를 강화해 취약집단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SDG 9번에 대해서는 'Integrated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2025'를 통해 제조업 연평균 15% 성장, 중소기업 고도화 및 성장 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탄자니아는 SDG 목표들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탄자니아 정부가 발행한 VNR을 분석한 결과 탄자니아 정부는 SDG 1, 3, 4, 8, 13, 16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KOICA가 지원한 CP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목표는 SDG 3번 및 4번에 해당하였다.

[그림 Ⅱ-172] 탄자니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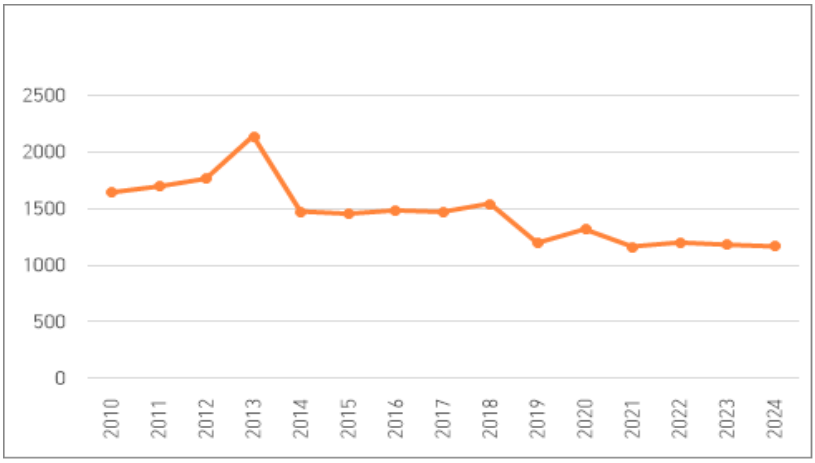


자료 :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對 탄자니아 ODF 지원액은 2013년에 가장 높았다가 2018년 이후 약간 감소, 현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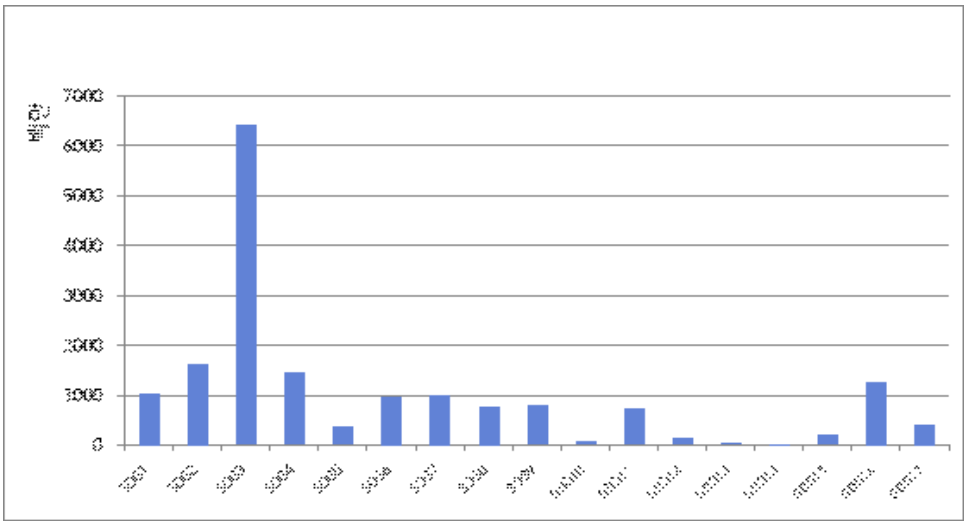
[그림 Ⅱ-173] 탄자니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의 SDGs 목표별 지원에 대해서는, [그림 Ⅱ-17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DG 3번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SDG 2, 4번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SDG 2, 3, 4번에 대한 지원이 상위 50%에 속하였다. 특히, 탄자니아가 공여국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3번 목표가 KOICA 탄자니아의 CP 프로그램 내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탄자니아 내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 사업 연계 등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74] 탄자니아 SDGs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한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SDG 2,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었으며, SDG 3번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였다. 4개 SDG 목표를 합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었음에 따라, 탄자니아에서 미국과 영국이 각 SDGs 목표별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73〉 탄자니아 SDG 2, 3, 4, 9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합계
호주	16	15	18	2	51
캐나다	68	413	188	15	684
프랑스	2	60	8	3	73
독일	52	277	51	2	382
일본	133	44	34	209	420
한국	56	179	57	138	430
스위스	16	131	10	2	159
영국	246	175	582	53	1,056
미국	665	4,464	223	265	5,617
기타	374	643	263	99	1,379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對탄자니아 원조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해 왔던 만큼 보건, 교육, 농업, 산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미국은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탄자니아에 약 74억 달러(연간 6억 7,300만 달러)를 양자원조로 투입하였고, 이는 2위인 국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미국의 탄자니아 지원에는 미국 내 19개 정부기관이 기여하였으며, 미국 USAID 및 MCC와 같은 기관이 참여하였다(Mathew et al. 2024).

SDG 2번 관련, 2000년대 초 미국의 탄자니아에 대한 농업 지원은 대부분 긴급 식량 구호였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미국 농업 원조의 5%만이 단기 식량 원조에 사용되었으며, 대신 대부분은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곡물 생산 등의 분야에서 가치사슬과 수확량 증대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Feed the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만 명의 탄자니아 농민을 지원해, 쌀·옥수수 생산량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435% 증가시키는 등 탄자니아의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미국은 SDG 3번과 관련, 탄자니아의 최대 기여국이었는데, 특히 HIV/AIDS(38억 달러) 및 말라리아(5억 3,400만 달러) 대응이 집중되었다. 이 중 미국 대통령 에이즈구호 비상계획(PEPFAR)에 포함된 'Caring for Children and Empowering Young People(C2EYP)'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탄자니아 고아와 취약 아동을 지원하며, 의료, 교육, 취업 기술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탄자니아에서 높은 질병부담을 지니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PMI)를 통하여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률 및 질병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SDG 4번 관련, 미국은 세계은행과 협업하여 탄자니아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와 함께 직업훈련 및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탄자니아 학생들이 미국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2년부터 2022까지 매년 약 1,095명의 탄자니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여 개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탄자니아 출신 연구자들의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서 탄자니아의 교육 수준 및 연구자 지원을 이어나갔다.

탄자니아의 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은 2013년부터 탄자니아 전기공급 회사, 미국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매년 270만 달러를 전력 생산 및 분배 프로젝트에 투자, 671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전력 접근성과 신뢰성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탄자니아 내 주요 도로(탕가-호로호로, 툰두마-숨바왕가, 므트와라 회랑) 개선 및 탄자니아 국가 도로청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산업 및 인프라 개선에 힘써왔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탄자니아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USAID 폐쇄 및 원조 규모 축소로 인하여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미국의 원조 중단은 특히 탄자니아의 HIV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Physicians for Human Rights 2025).

② 영국

영국은 탄자니아가 영국의 투자와 무역 촉진을 통해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특히 인프라, 무역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FCDO 2023).

식량안보 및 기아 종식과 관련, 영국은 탄자니아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9,9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미국, 영국, EU 등 다양한 공여국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한 농업 부문 개발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를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소규모 농민(특히 여성 농민)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제공하고, 탄자니아 발전을 가속화하며 농민 및 민간 부문과의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인적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할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DFID 2013).

영국은 탄자니아의 여성 및 소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및 보건 분야를 지원하였다. SDG 3번 관련, 영국은 탄자니아 정부와의 MOU를 통해 탄자니아의 국가 건강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모자보건, 성생식 보건, 보건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의료 전문성을 살린 지원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SDG 4번 관련, 영국은 2020~2026 'Shule Bora Better Schooling(8,900만 파운드)' 프로젝트를 통하여 4백만 명의 탄자니아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록률, 학습, 포용성, 학교 안전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영국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졸업시험 합격률을 2014년 57%에서 2023년 80% 이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다.

영국은 또한, 농업 비즈니스에 대한 상업적 대출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혁과 대규모 투자 거래를 지원하였다. 영국은 탄자니아의 성장 전략과 영국의 비교우위(투자, 무역, 분석역량 등)를 연결함으로써, 탄자니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활성화, 환경친화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성과, 탄자니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SDG 3번의 경우 SDG 성과는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아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의 경우 SDG 4번과 9번을 지원하고 있으며, SDG 4번의 경우 SDG 3번과 마찬가지로 성과는 낮고 정책적 관심이 높으면서 공여국 지원은 많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었다. 한편, SDG 9번의 경우 성과와 정책적 관심도 낮고, 공여국 지원도 적어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개발'은 SDG 2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DGs 이행 수준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낮지만, 공여국 지원은 많은 편으로 수요 재확인 유형에 해당하였다.

〈표 Ⅱ-7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SDG 4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개발	SDG 2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자니아 사무소와 현장의 관점에서 CP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SDG 목표성과, 협력국의 관심,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체감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탄자니아의 보건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환자 등록 및 의무기록 시스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디지털 장비와 기본 인프라의 보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간 통합과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적·의료적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교육 분야에 대하여, 탄자니아의 경우 교사 인건비가 낮아 교직 선호도와 교사 수급률이 모두 저조하며, 그 결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졸업 이후 취·창업 및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STEM 분야 교사 인력이 부족하여 기술 기반 인적자원 양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탄자니아가 쌀 생산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나 이러한 높은 생산량이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혁신적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농업생산량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적어 이를 높이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와 사무소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KOICA는 탄자니아 보건부 및 국제기구, 타국 공여기관과 함께 'Health Basket Fund(HBF)'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에서 KOICA의 정책적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향후 KOICA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건정책의 계획-예산-성과관리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행정·재정 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형성되어 있는 높은 정책적 의지가 실질적인 보건 성과로 전환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수 공여국이 활동하는 환경 속에서 KOICA의 비교우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건 분야의 구조적 성과 부진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탄자니아의 환자등록

및 의무기록 시스템의 표준화·통합을 지원하는 중앙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는 향후 KOICA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검토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는 기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개입은 시설 지원이나 단기 훈련 중심 접근을 넘어 제도개선과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보상·경력개발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교사 양성·배치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역량 강화, △STEM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체계 구축, △산업 수요와 연계된 TVET 커리큘럼 개선, △교육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교육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한편 KOICA는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STEM 교육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대상 STEM 교육 및 직업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KOICA의 비교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 성과를 국가 교육정책 및 교사 연수 체계와 연계하여 제도적 수준으로 확산시키고, 산업계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기술-고용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반면 SDG 9번은 SDG 4번과 달리 성과와 정책적 관심이 낮고, 공여국의 지원도 적은 편임에 따라, 즉각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산업·고용 전략 변화와 정책 수요 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적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현 단계에서는 벤처·창업기업 발전,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및 STEM 역량 강화 분야에서 KOICA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되, 향후 산업정책 환경이 성숙할 경우 SDG 9번과의 연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개발은 SDG 2번 달성을 지원하는 분야이나,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낮지만 공여국 지원은 많은 분야임을 고려, KOICA는 농업·농촌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여부, 정부의 재정·행정적 참여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거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보완적 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다수 공여국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조 중복을 최소화하고, KOICA의 재원과 역량을 보다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지원 전략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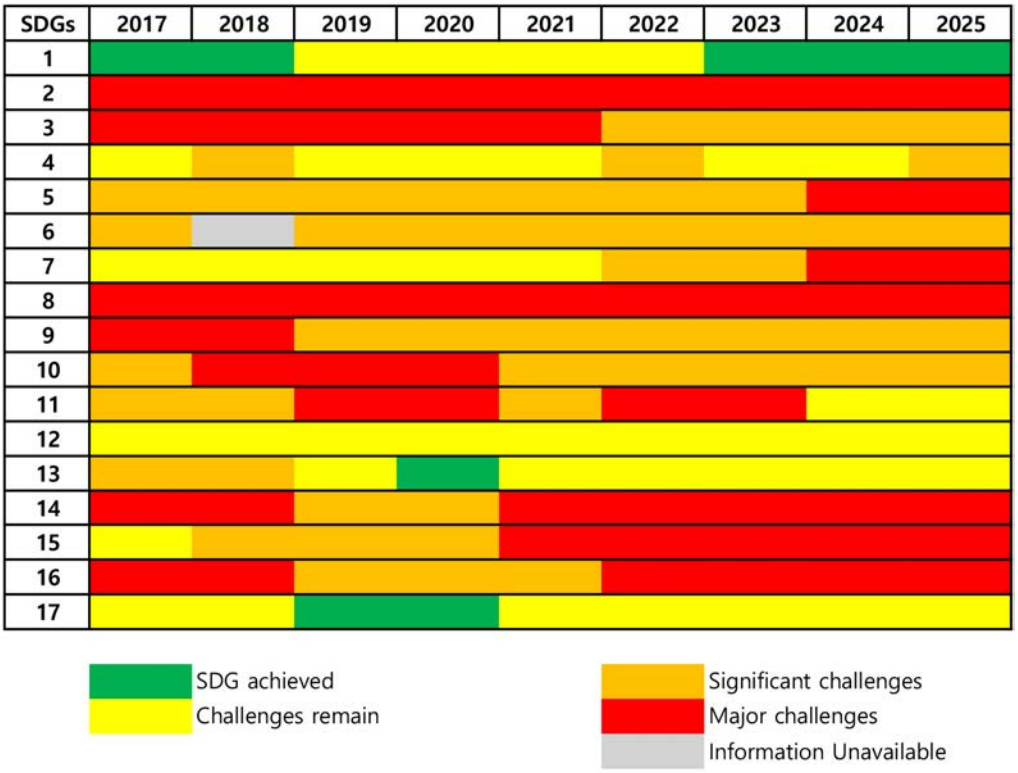
16) 튀니지

(1) SDGs 이행 현황

튀니지는 SDGs 이행을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이행 가속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 계획과의 통합, 취약 계층 지원,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SDGs와 국가 계획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편으로 평가한다. 튀니지는 2019년 및 2021년에 총 두 번의 VNR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세 번째 VNR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2019 VNR에서는 SDGs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이고 더욱 정의로운 튀니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1 VNR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을 달성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SDGs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016-2020 5개년 개발 계획(Plan Quinquennal de Développement, PQD)의 목표 및 조치는 SDG 세부목표의 80%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 49개 세부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2019 VNR에 언급한 바 있다. 다만, 2020년부터 계획된 2021-2025 PQD는 팬데믹과 내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2023-2025 개발계획(Plan de Développement)을 수립하였고, 2026년 1월에 다시 5개년 계획으로 2026-2030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발표하였다(Réalités 2026).

한편, 튀니지의 SDG 이행 점수는 72점으로 167개국 중 66위으로 나타난다(SDSN 2025).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SDG 이행 점수인 65.6점 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정체되거나 개선되는 추세이다. 특히 SDG 1번은 절대 빈곤율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 분야 등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및 환경 관련 목표의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75] 튀니지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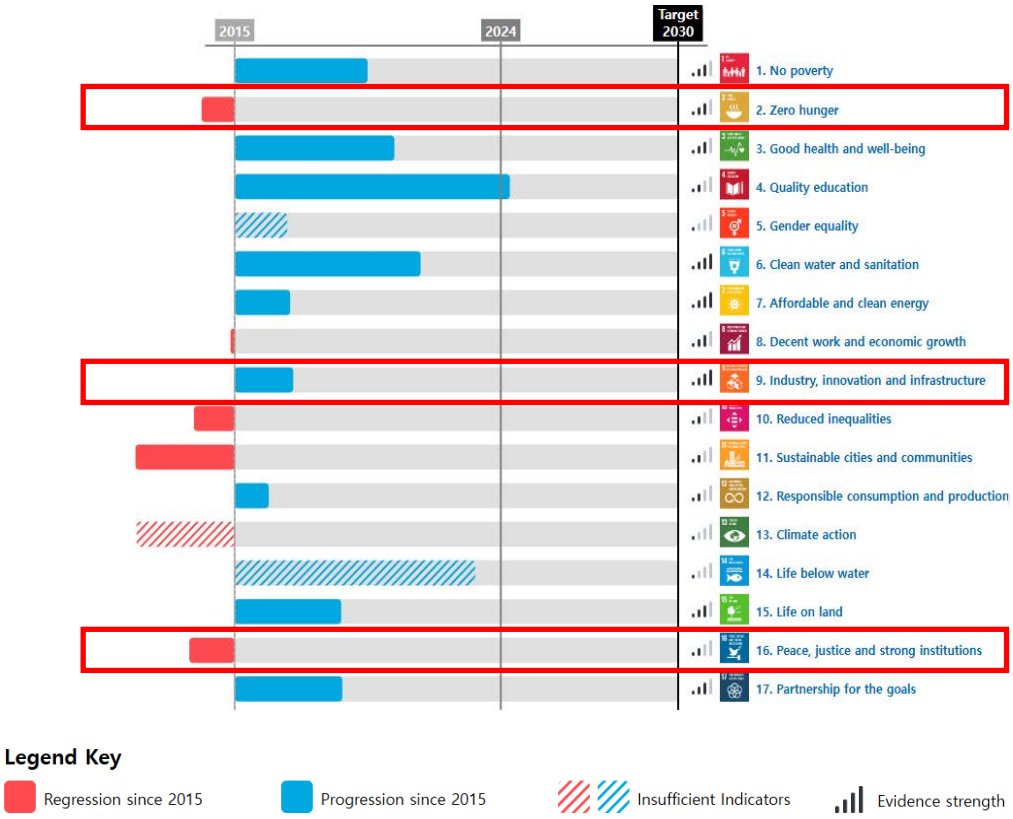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9년과 2021년 VNRs을 살펴보면, 튀니지가 처한 상황의 변화가 감지된다. 2019년에는 혁명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와 지방 분권화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 운영위원회(Comité de Pilotage National, COPIL)를 중심으로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 리비아 국경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국내 정치 혼란이 SDGs 이행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며 논조가 훨씬 절박하고 방어적으로 변화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튀니지 경제 특성상,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는 치명적이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40%를 상회하는 등 사회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한 것으로 언급된다. 이와 함께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서부/남부) 간의 개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내륙 지역의 의료 접근성 부족이 팬데믹 기간 중 더욱 부각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원격 교육/근무 인프라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식 기반 경제 전환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UN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SDGs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76]과 같다.

[그림 Ⅱ-176] 2024년 튀니지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CA 2025

또한, 튀니지의 VNRs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Ⅱ-75〉 튀니지의 SDGs 이행 주요 성과와 한계

SDGs	성과	한계
SDG16	• 2014년 헌법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진보적인 원칙(양성평등, 양심의 자유 등)을 확립함 • 여성 폭력 근절법 및 인종 차별 금지법 등 진보적인 법률 채택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AFI) 블랙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됨	• 2014년 헌법은 입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법률의 현장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며(예: 여성 폭력 근절법, 고문 방지), 법률 및 규정의 시행 부재가 주요 과제로 지적됨
SDG8	• 2016~2020 PQD에 SDGs를 통합하고, 80%의 목표를 포괄함 •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법률을 제정하여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함 • 다양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직업 생활 입문 연구(Stage d'Initiation à la Vie professionnelle, SIVP), 고등교육 졸업생 취업 지원 계약(Contrat d'Insertion des Diplômés du Supérieur, CIDES) 등)을 시행중	•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GDP는 전례 없는 8.8%의 하락을 기록함 • 청년 및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매우 높음(2020년 3분기 기준 고학력 여성 40.7%, 전체 고학력자 30.1%) • 높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인플레이션 및 공공 부채 증가에 직면함
SDG1 & 10	• 빈곤율 2000년 25.4%에서 2015년 15.2%로 대폭 감소 • 취약계층을 위한 '아멘 사회(Amen Social)' 프로그램 등 사회 지원 법률을 제정함 • 불평등 감소 노력 지수(Indice de l'Engagement pour la Réduction des Inégalités, ERI)에서 MENA 지역 1위, 아프리카 3위를 차지함	• 심각한 지역 간 격차 존재 (중서부 지역 빈곤율 30.8%) • 코로나19로 인해 빈곤 감소 추세가 역전될 위험있음 • 빈곤층 파악을 위한 최신 데이터 및 지역별 세분화된 데이터 부족
SDG5	• 아랍 세계에서 여성 권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과학 분야 고등 교육 여성 졸업생 비율이 세계 2위임 •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법률 및 제도를 강화함	• 여성의 노동 시장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며, 실업률은 남성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경제적 배제가 심각함 • 여성폭력(2011~2015년 공공장소에서 54% 경험)이 여전히 주요 도전과제임
SDG13	• 2014년 헌법에 환경 보호 의무를 명시하며, 2030년까지 탄소 집약도를 4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2020년에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Stratégie Ntionale de Réduction des Risques des Catastrophes, SNRRC) 2021-2030 수립함	• 가뭄,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함 • 99%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 (2020년 4% vs. 목표 12%).
SDG17	• SDG 지표 격차 분석(DGA)을 수행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파악하고 SDG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노력 중	• 필요한 지표 중 56%가 수집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데이터의 세분화(지역, 성별, 연령 등)가 미흡

자료: République Tunisienne 2019 및 2021 활용하여 재구성

두 개의 VNRs을 통해 살펴보는 SDGs 이행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 지표의 뚜렷한 악화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현금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의료 지원 및 감면 혜택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경제 전환을 추진하며 SDGs 달성 궤도로 복귀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한편, KOICA 튀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생산성 강화'로, 관련 SDGs는 각각 SDG 16, 9, 2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77] 튀니지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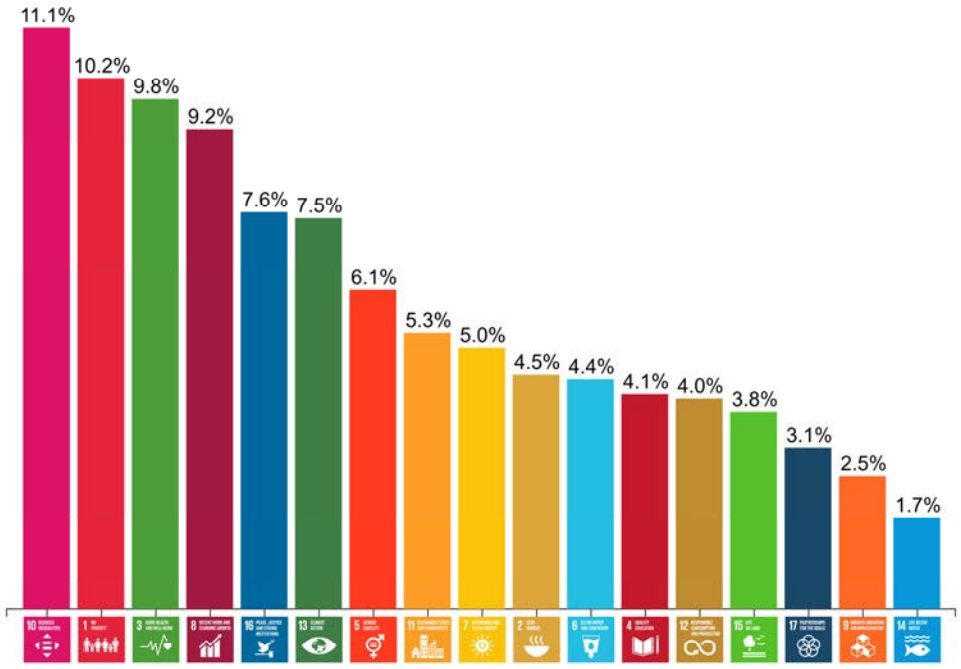
SDSN에서 발표하는 튀니지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77]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각 목표별 점수는 튀니지의 SDG 이행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 SDG 2번은 그 간격이 미미하게나마 좁혀지는 추세임을 관찰할 수 있다. SDG 9번의 경우 여전히 이행 점수보다는 낮지만, 그 간격에 좁혀지는 것을 미루어보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DG 16번의 경우 다른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행 점수보다는 낮으나, 21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

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튀니지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21년 VNR에서 튀니지 정부는 외부 충격(팬데믹, 유가, 인접국 정세 등)에 의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위기는 디지털화 및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넘어, 2023~2025 개발계획과 연계된 '튀니지 비전 2035(Vision Tunisie 2035)'를 통해 SDGs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식 기반 경제를 이끌어갈 고숙련 인재 양성에 교육 투자를 집중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액트(Startup Act)'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꾀하며, 내륙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튀니지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에서의 사회적 안정, 취약계층 보호, 기본 서비스 회복, 그리고 제도적 신뢰 회복 등은 SDGs 키워드 빈도분석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 아래의 SDGs 키워드 분석은 UN에 제출된 2019년과 2021년 VNRs에 언급된 SDG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SDG 10, 1, 3, 8, 16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DG 10번과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튀니지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DGs 1과 3번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과제들인 만큼 튀니지 또한 이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튀니지 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SDG 8번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SDG 16번에 대한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2021년 이후 정치적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Ⅱ-178] 튀니지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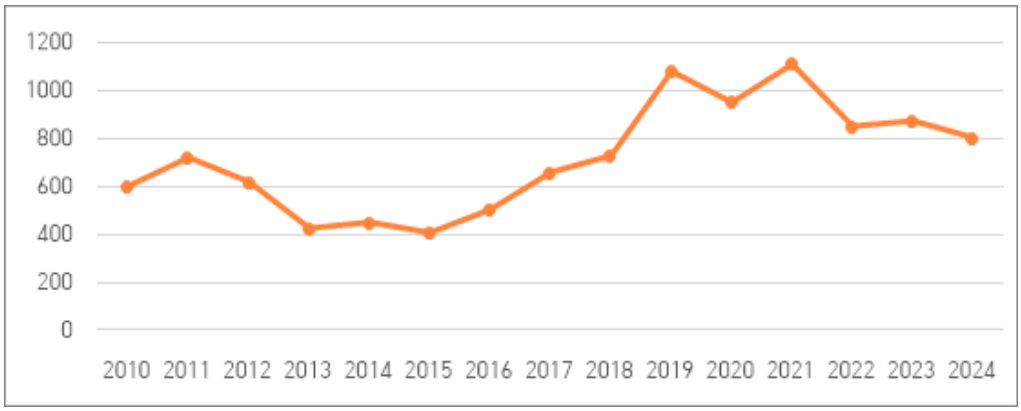
KOICA CP 관점에서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과 수입 의존적인 식량 구조를 탈피하고, 2040년까지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농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성 증대와 농업 혁신 시나리오를 통해 현재 26.7%에 달하는 작물 수입 의존도를 2040년까지 0%로 낮추고, 2043년까지 약 6%의 초과 생산(잉여)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국가 식량 안보를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현대적인 영농 기술 도입, 기후 저항성 종자 개발, 그리고 비료 및 관개 효율성 개선을 통해 헥타르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수확 후 식품 손실을 줄여 가용 식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UCLG 2022). SDG 9번과 관련하여서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138개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전면적 디지털화, AI 및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통신 인프라 현대화를 포괄하고자 한다(Ben Youssef, 2024). 또한 기존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튀니지 정부는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

한 '스타트업 액트 2.0(Startup Act 2.0)'을 추진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교육, 기후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혁신 창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스타트업 액트를 통해 달성한 3억 디나르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과 해외 자본 유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adroleslami 2025). SDG 16번에 대해 정부는 민주주의 후퇴 우려 속에서도 부패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부(E-government) 구축을 통해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Ben Youssef 2024). 물 관리 등 자원 배분 문제에서도 중앙 집중식 통제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République Tunisienne 2021).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튀니지의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9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22년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후로는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79] 튀니지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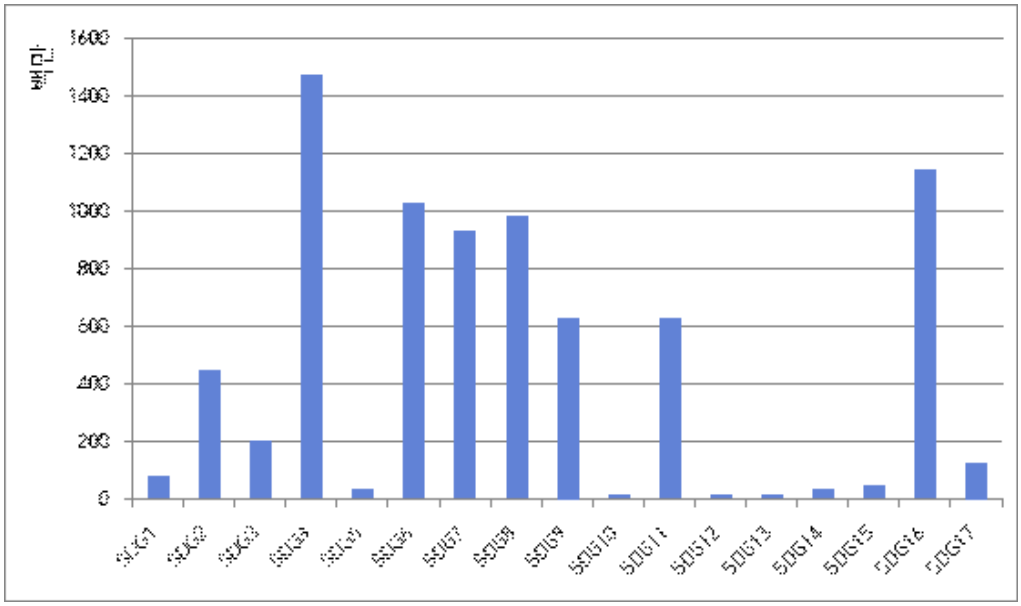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SDGs 목표별로 보면 [그림 Ⅱ-18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DG 4, 16, 6, 8번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전체 지원액에서 이들 목표가 59%를 넘는다. 반면, SDG 5, 10, 12, 13, 14, 15, 17번 등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성평등, 불평등, 환경 관련된 목표이지만 미미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누적 금액은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한 변화로 인해 각 목표별 지원 규모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그림 Ⅱ-180] 튀니지 SDGs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살펴보면, SDG 2번은 독일, 프랑스, 일본 순이며, SDG 9번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SDG 16번은 미국, 프랑스, 독일 순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76〉에서 한국은 11번째 순위로 기타에 포함되어 있으며, 3개 목표 지원 합계 대비 1.3% 수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이 지원한 ODF 금액의 약 38%는 SDG 16번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SDG 4번에 16%, 9번에 12%, 7번에 10%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76〉 튀니지 SDG 3,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프랑스	148	140	261	549
독일	184	125	223	533
이탈리아	17	106	26	149
일본	62	105	15	182
네덜란드	7	-	42	49
스웨덴	0	-	29	30
스위스	7	14	68	89
영국	4	6	74	85
미국	9	84	331	424
기타	8	46	69	124

자료: Burgess et al. 2023을 활용하여 재작성

① 프랑스

프랑스는 튀니지의 과거 식민 모국이자 현재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튀니지가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때마다 핵심적인 외부 지원국으로 기능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튀니지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지중해 안정과 직결된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AFD를 중심으로 ODF를 활용한 중장기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對 튀니지 지원은 단기적 위기 대응보다는 경제·사회 구조의 안정화와 전환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AFD의 북아프리카 지역 전략 2021~2025(Stratégie régionale Afrique du Nord 2021-2025)에 따르면, 튀니지는 모로코, 이집트 등과 함께 프랑스의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분류되며, 차관과 증여를 병행하는 혼합금융 방식을 통해 재정 여건과 부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로파코(Proparco)를 통해 중소기업과 민간 투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재정 압박 속에서도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프랑스 개발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프랑스의 對 튀니지 협력은 물·기후 대응, 포용적 경제와 고용, 지역 불균형 완화,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AFD n.d. 2021). 우선 튀니지는 대표적인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국가로, 프랑스는 상수 및 관개 시스템의 현대화, 누수 저감, 폐수·우수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가뭄에 취약한 농업 구조를 고려한 접근으로, 물 관리와 농업 생산성, 기후 적응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포용적 경제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및 여성의 높은 실업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직업교육훈련,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소득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SUNREF[60] 등 그린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는 도시와 농촌 간, 연안과 내륙 간 격차 완화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PROVILLE(Urban Policy Support Program)[61]을 중심으로 취약 도시지역의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참여형 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곤층, 장애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주요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투자역량 강화, 참여형 지역개발, 도시정책 수립 및 기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프랑스의 대튀니지 협력은 녹색 전환과 사회적 포용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에너지 위기 대응은 지속적인 핵심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청년·여성 고용과 귀환 이주자 재통합을 통한 이주의 근본 원인 완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 동원과 녹색·블루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튀니지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려는 전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대튀니지 개발협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개발금융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독일

독일은 튀니지를 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전환과 고용 창출, 거버넌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식해 왔다. 독일 개발협력은 단순한 시혜적 원조를 지양하고, 튀니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혁 파트너십(Reformpartnerschaften mit ausgewählten Ländern in Afrika)'이라는 정책 틀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SDGs 이행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다만 최근 튀니지의 정치·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독일은 거시적 제도 개혁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

60) 녹색금융인증제도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에너지 전환과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투자를 지원하는 금융 메커니즘임.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 대출, 투자보조금 및 기술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https://www.afd.fr/en/sunref-afd-group-green-finance-label)

61) 도시개발 프로그램으로, 취약한 도시지역의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 공공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https://www.afd.fr/en/actualites/afd-supports-urban-renewal-tunisias-cities)

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현장 중심 프로젝트로 협력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BMZ, n.d. 2020).

독일의 對 튀니지 개발금융은 BMZ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GIZ와 금융협력을 수행하는 KfW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적 체계를 통해 추진된다. 이 체계 하에서 독일은 튀니지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지역 간 격차, 에너지 구조 전환은 독일 협력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 개혁을 전제로 한 정책·제도 중심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직접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형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중단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지원 방향은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대 중점 지원 분야	주요 사업 분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직업 훈련 및 고용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민간 부문 및 금융 부문 개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 (선정 및 공공행정 역량 강화)
기후 및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자연 및 천연자원 보전	수자원 관리

자료: BMZ, n.d.

주요 사업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미래 기술 개발, 기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내륙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BMZ는 여성주의적 개발 정책 전략에 따라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튀니지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한다(BMZ, n.d.).

SDG 8과 9번에 해당하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GIZ는 노동시장 정책 자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디지털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특히 내륙 취약 지역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 실업과 불규칙 이주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전력망 현대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출범한 튀니지-독일 그린수소(Power-to-X) 협력은 대표적인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튀니지의 태양광·풍력 잠재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 국

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GN-SEC 2020; BMZ n.d.). 이와 함께 물·자연자원 관리와 기후 적응(SDGs 6, 15)과 관련하여서는 통합 수자원 관리(Integriertes Wasserressourcen-Management, IWRM), 하수 재이용, 기후친화적 농업 기법 확산 등을 통해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거버넌스와 젠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행정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함께 독일의 페미니스트 개발정책 기조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모든 사업에 주류화하고 있다.

향후 독일의 대튀니지 협력은 에너지 전환 심화, 디아스포라 연계, 회복력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62].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파트너십은 중장기적으로 유지·확대될 전망이며, 독일 내 튀니지 디아스포라의 지식·기술·투자를 연계하는 인적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 상황에 민감한 거시 개혁보다는 보건, 물, 식량, 고용 등 기본 서비스 개선과 지역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접근은 기술과 산업 혁신을 기반으로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모델로서, 튀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표 Ⅱ-77〉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강화 유형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기술 인력 양성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생산성 강화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튀니지의 전반적인 SDGs 이행 현황은 특히 CP와 관련된 목표의 이행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으나, 2021년 이후 독재적인 정치 체제로의 회귀가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튀니지는 현재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 통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공공부

62) 최근 BMZ는 튀니지의 정치 상황 변화로 '개혁 파트너십'은 중단했으나, SDGs 이행과 국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협력은 계속 유지·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BMZ n.d.).

문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여국들은 튀니지의 권위주의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협의체나 국제적 파트너십 회의가 협력국 정부의 저항으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현장에서의 사업 발굴과 실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사업 지연과 승인 지연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SDGs 이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SDG 16번의 경우,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라 판단되지만 SDGs 목표 달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는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ODF 지원규모 또한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나 정책 개혁을 선도하기 보다는 보완자 혹은 연결자로서의 개입이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영역에서 정책 실행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 또한 SDGs 2 및 9번과 연계된 부문별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통해 SDG 16번을 독립적인 목표가 아닌 다른 SD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튀니지에서 KOICA가 지원하는 SDGs 2와 9번은 해당 목표의 낮은 달성 수준과 정부의 제한적인 정책적 관심, 그리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마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SDGs 2와 9번은 튀니지의 중장기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취약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은 기후변화, 생산성 정체, 청년실업 및 지역 격차 등 복합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 역량과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병목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KOICA의 개입은 SDG 16번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 및 산업 분야의 정책 실행 여건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협력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공여국 간 중복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조적 취약 분야에 대한 공백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개발협력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KOICA의 대튀니지 전략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연결자(connecting actor)'로서의 역할에 전략적 초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단기적 가시 성과보다는 정책 실행 환경 개선과 제도적 학습 효과를 중시하는 접근으로, KOICA의 중장기적 협력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유라시아·중동 8개 협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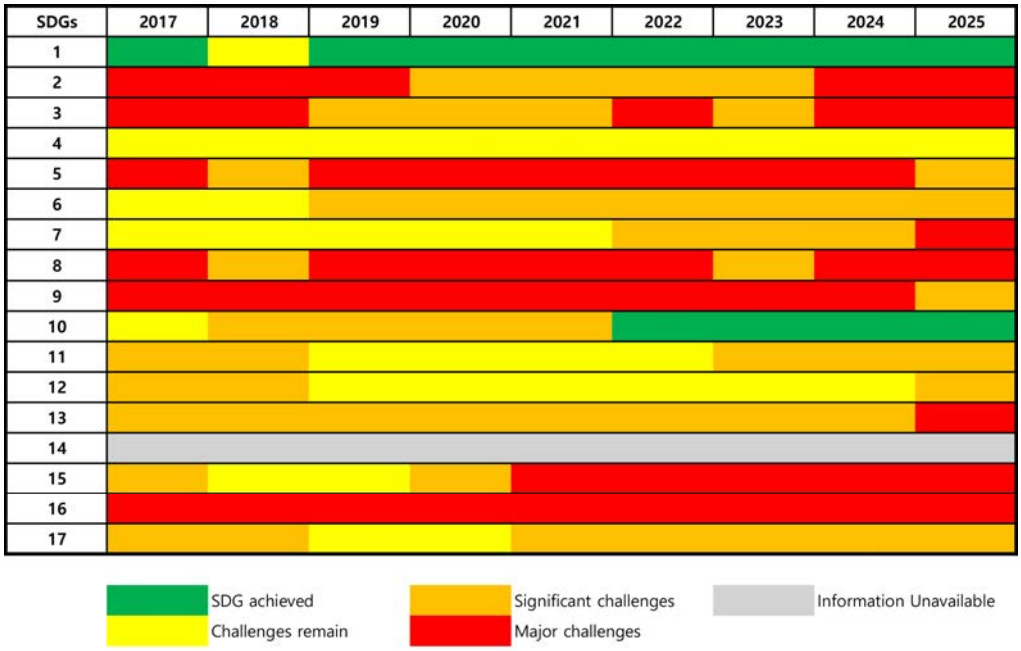
1) 아제르바이잔

(1) SDGs 이행 현황

아제르바이잔의 SDGs 이행 현황은 2024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SDG 1, 3, 8, 13번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SDG 1번과 관련해서 2010년 9.1%이던 빈곤율이 2022년 5.5%로 감소했으며, 여성 빈곤율 또한 2020년 6.6%에서 2022년 5.1%로 개선되었다. SDG 3번에 대해서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2022년 76.0세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2015년과 2021년 사이 악화되었던 산모 사망률이 2022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SDG 8번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 또한 2021년 5.6%, 2022년 4.6%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020년 7.2%에서 2022년 5.6%로 안정화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특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다각화를 통해 비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도모했다. SDG 13번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5%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9)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하며 국제적 기후 행동의지를 보여주었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그러나 2024년 VNR은 여전히 SDG 2번과 관련하여 식량불안정 및 영양 문제가 남아 있으며, SDG 4번 직업교육 및 전문 중등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SDG 6번과 관련해서는 석유산업으로 비롯된 수질오염이 공중 보건 및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SDG 9번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율을 높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수수 지표가 악화하는 등 SDG 16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SDSN에서 발표하는 아제르바이잔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척이 보이는 SDG는 1번과 10번,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며 9번 정도이다. SDG 4번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목표는 전반적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6번은 2017년 이래로, 쭉 빨간색으로 진전이 없이 목표달성이 희박한 상태를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의 SDG 이행 점수는 2016년 71.15점에서 2023년 73.4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4년 한 차례 꺾인 후 72.2점을 기록하였다(SDSN 2025).

[그림 Ⅱ-181] 아제르바이잔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운영하는 CP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행정 혁신'과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후회복력 향상'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각각 16번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13번 기후변화 대응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각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SDG 13번에서는 13.2.2번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63%의 지표는 불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25%의 지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 16번에서는 16.4.2번이 정체되어 있으며, 16.1.1, 16.2.2, 16.3.2, 16.7.1, 16.a.1번 모두 퇴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밖에 75%의 지표는 불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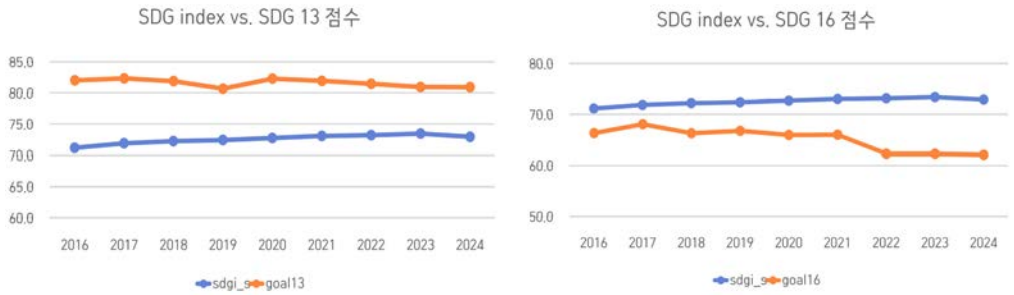
[그림 Ⅱ-182] 2025년 아제르바이잔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아제르바이잔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3번의 점수는 아제르바이잔의 SDG 이행 점수보다 높고, SDG 16번의 점수는 SDG 이행 점수 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SDG 16번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Ⅱ-183] 아제르바이잔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2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를 통해 SDGs와 연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발전을 이끌 다섯 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 정의에 기반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현대 혁신 분야 및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 △ 해방 영토로의 대규모 귀환(Great Return), △ 깨끗한 환경과 녹색성장 국가이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이러한 국가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2~2026'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률을 회복하고,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경쟁력있고 개방적인 경제 모델을 육성하고자 하며, 전략산업을 제외한 국유 자산의 점진적인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해방 영토로의 대규모 귀환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해방된 영토의 재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빠른 귀환과 국가 경제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되는데 먼저 도시 및 마을 재건과 더불어, 교통, 도로, 통신, 물, 가스, 전기 인프라 재건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두 번째로 새로운 투자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농업 생산성 회복 및 통합을 통한 경제 재건, 셋째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리지, 녹색에너지 구역 적용을 통한 환경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특기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이 지뢰 및 불발탄 오염을 SDG 달성의 주요 장애물로 보고 인도적 지뢰제거 활동(Mine Action)을 국가 SDG 18번으로 자체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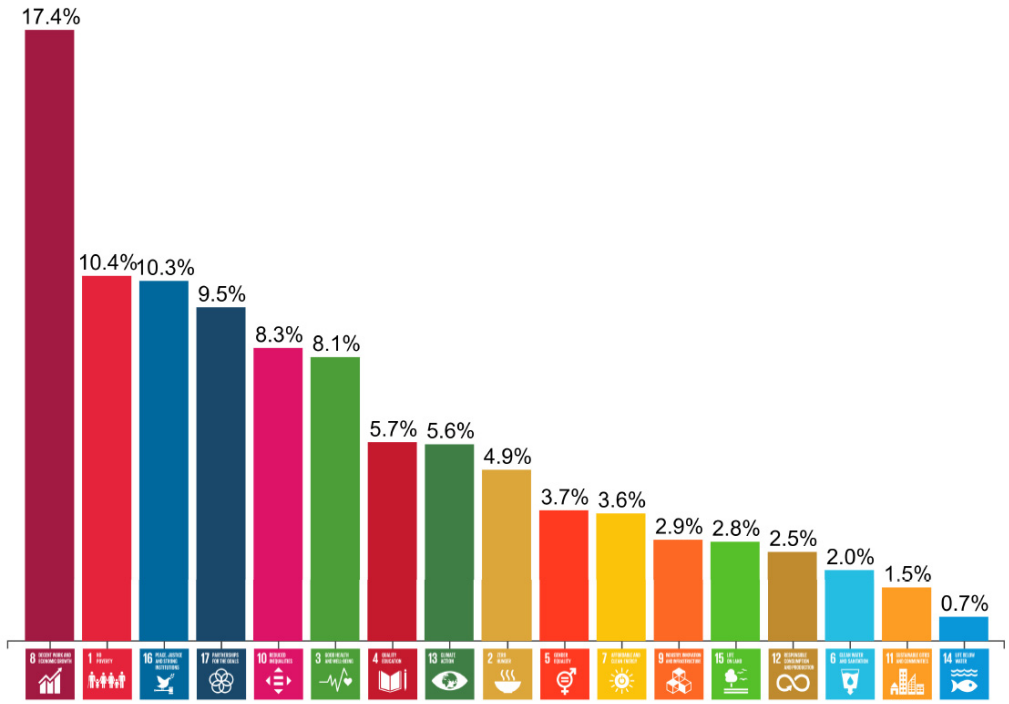
장기간 군사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지뢰오염은 영토 재건 및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뢰 위협에 맞서 안전한 귀환, 정착, 재활, 번영 및 해당 영토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이 밖에도 2016년에 발표된 경제 다각화 및 녹색성장 전략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부문의 성장에 중점을 두며 민간기업 역할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다른 한 축으로는 녹색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5% 감축, 2050년까지는 40%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30%로 늘리고자 한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아제르바이잔은 SDG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통합 국가지원체계(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INFF)를 구축하여 국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이는 SDGs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 개발자금 조달을 최적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계획 및 조정 메커니즘이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또한 UNDP와 협력하여 구축한 SDG 투자 매핑(SDGs Investment Mapping) 플랫폼은 인프라, 재생에너지, 식음료, 서비스(관광) 등 국가 4대 우선 분야에서 개발 수요와 민간의 투자 기회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SDG 17번을 핵심으로 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SDGs 달성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public of Azerbaijan 2024).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해 2017년과 2023년 VNR에서 나타난 SDG 목표별 키워드 분석 결과 [그림 Ⅱ-1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8이 17.4%로 월등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SDG 1, 16, 17번이 뒤를 이어 상위 50%에 드는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는 한편, 빈곤을 종식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며, 제도와 파트너십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Ⅱ-184] 아제르바이잔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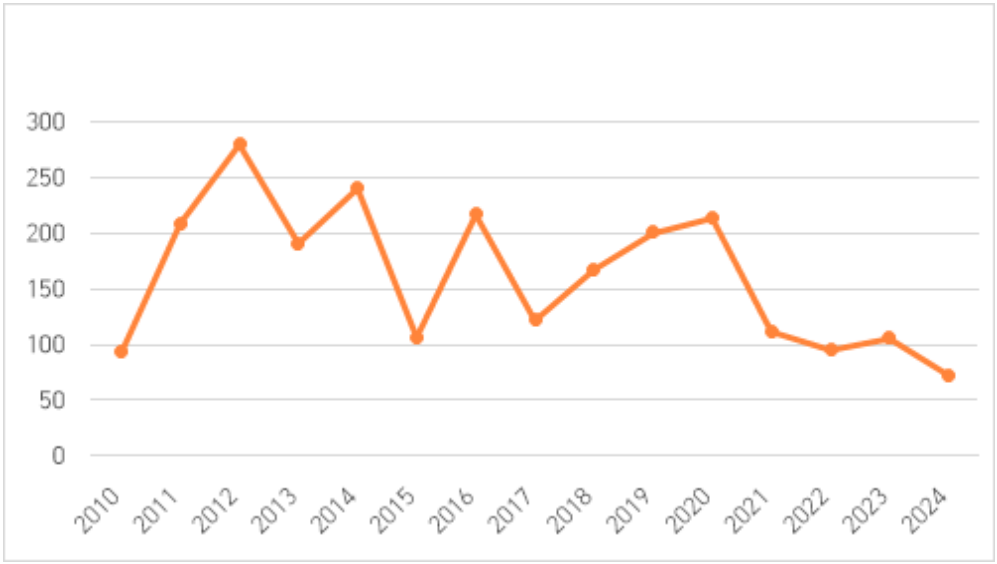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1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250백만 달러를 상회하며 지원액이 고점을 찍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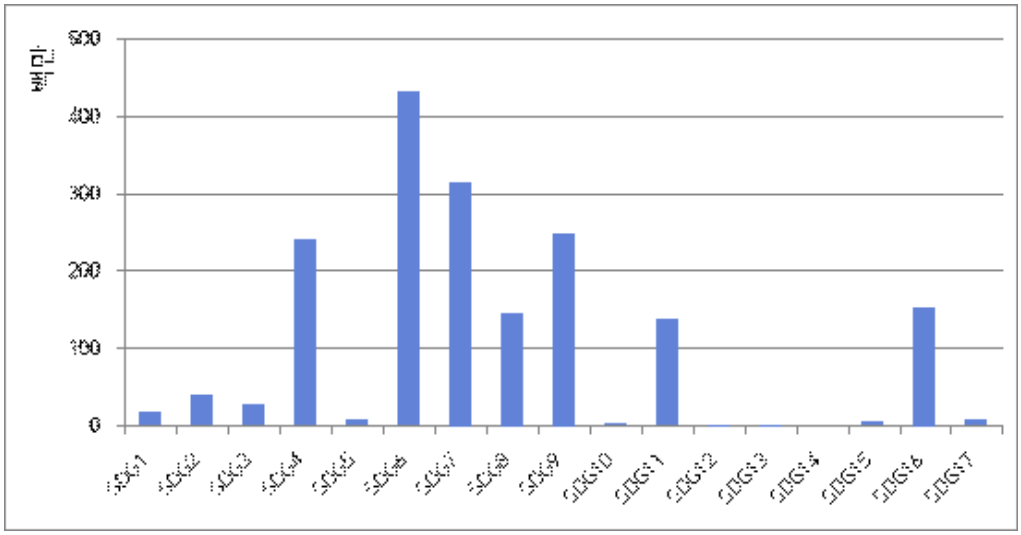
[그림 Ⅱ-185] 아제르바이잔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1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6번으로 7, 9번이 그 뒤를 잇는다. 물과 에너지,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SDG와 관련된 지원 금액은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24.35%, 17.78%, 14.02%를 기록하여 합산 시 상위 50%를 차지한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하나인 13번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확인한 바로는 눈에 띄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림 Ⅱ-186] 아제르바이잔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동 기간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13번 지원액을 살펴보았으나 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결과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아래 표 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DAC 회원국 중 호주가 227,839달러, 독일이 6,273달러 지원한 것이 전부로 나타난다. SDG 16번 지원액의 경우 미국이 122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독일이 7백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보인다. SDG 13번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개의 SDG 지원액을 합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상위 2개국은 미국과 독일이다. 이에 미국과 독일이 SDG별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Ⅱ-78〉 아제르바이잔 SDG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13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핀란드	-	1	1
독일	-	7	7
한국	-	6	6
네덜란드	-	1	1
노르웨이	-	2	2
스웨덴	-	3	3
스위스	-	6	6
영국	-	3	3
미국	-	122	122
기타	-	2	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2023년 기준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에 25.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ForeignAssistance.gov 2025). 미국이 아제르바이잔에 가장 많이 지원한 영역은 △평화 및 안보와 △경제성장이며, 그 뒤를 이어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 △교육과 사회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였다(USAFacts 2025).

USAID는 SDG 13번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기후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스마트 농업과 에너지 개혁을 지원하였다. 이는 SDG 7, 8, 9번과도 맞닿아있다. 먼저 농업 중심의 민간부문활동(Private Sector Activity, PSA)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에서 현대 기술과 지속가능한 영농 관행을 발전시킴으로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USAID 2024).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11개의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대적인 관개 시설 및 토양 수분 센서를 갖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다(USAID 2024). 에너지 부문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전력시장을 민영화하여 시장원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2023년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채택되면서, 재생에너지 부문에 민간 및 해외 투자 유치 및 거버넌스 개선이 기대된다(USAID 2024).

SDG 16번은 2020년 기준 USAID가 아제르바이잔에 가장 많이 지원한 영역이며(U.S. Department of State 2021), 2023년 기준으로는 2번째로 많이 지원한 영역이다(USAFacts 2025). 먼저 미국 상무부 산하의 상법개발프로그램(Commercial Law Development

Program, CLDP)은 아제르바이잔의 법관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 법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또한, 시민들이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과 아제르바이잔 시민의 다양한 정보원 및 공정한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이밖에 미국은 SDG 8, 9번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농업, 관광, ICT와 같은 비석유 부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2021). SDG 3번과 관련해서는 HIV/AIDS, 결핵 등 전염병 퇴치 프로그램 운영, SDG 4번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바쿠 외곽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2월 만료된 USAID의 국내 활동을 규정한 기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및 통보하였다. 이에 2024년 6월 이후 USAID의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활동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최근 USAID의 활동이 아제르바이잔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함에 의한 것이다(Reuters 2025).

② 독일

독일 GIZ는 현재 기후 및 환경보호,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고 있다(GIZ 2025). 먼저 SDG 13번과 연계된 기후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남부 카프카스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목초지 관리, 토지 이용 개선,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대체 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낮은 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지원 활동을 실시한다(GIZ 2025). 두 번째로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동부 파트너십 국가(EaP)를 대상으로 국가 기후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시 지자체에서 자연기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기후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가적응계획 및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며, 녹색 금융을 위한

규제 시스템 개발 및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한 그린본드 시범 운영 및 투자자 수요 평가도 진행한다(GIZ 2025).

SDG 16번과 연계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공공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및 의사 결정자의 역량 개발과 공공 서비스 재설계, 의회 자문 서비스, EU 통합 및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및 국가 기관의 인력 역량강화를 지원한다(GIZ 2025). 마지막으로 포용적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적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 및 지역 협력 실행,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GIZ는 아제르바이잔의 지역 시민단체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GIZ 2025).

이밖에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EU 내부 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물류 및 운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 친화적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경제 다각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적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중소기업과 독일의 기업을 연결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GIZ 2025).

특기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은 상위 중소득국으로 BMZ 2030 개혁전략에 따라 핵심 양자 개발협력국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경제/에너지 협력 및 유럽 근린 정책 차원(European Neighborhood Policy, ENP)의 지역적 파트너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GIZ가 실시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업 또한 ENP 차원에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타 국가와 함께 지역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여 주체 또한 유럽연합,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등과 함께 다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MZ 2021).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를 CP 프로그램과 통합 요약하여 〈표 Ⅱ-79〉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행정 혁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이행수준은 낮은 반면, 해당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도는 높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후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3번의 이행수준은 높은 반면 협력국의 관심도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선별적 관찰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7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행정 혁신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후회복력 향상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개발 상황과 현장의 관점에서 CP 지원 목표별 이행수준, 협력국의 관심도, 공여국의 지원규모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무소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공증, 행정 서류 발급 등 통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산센터(ASAN Center)를 운영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노인, 실업자)을 위한 서비스 기관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학생 통합 관리 플랫폼을 런칭했으며, 디지털, 교통 시스템, 원자력, 우주항공 등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혁신청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시스템, 인력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 역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AI, 개인정보보호, 기술 보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된다. SDG 13에 대해 사무소는 아제르바이잔이 현재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COP 29 개최국으로서 모든 부처가 기후·환경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등 정부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라는 국제적 과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공여국의 지원 동향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중진국 전환 과정에서 UN 일부 기관과 GIZ, JICA, USAID를 비롯한 다수의 공여기관이 이미 철수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UN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음을 밝혔다. 사무소는 미국과 EU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KOICA에 대한 지원 요청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경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 또한 향후 지원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한편 사무소는 아제르바이잔 소외 지역의 보건·교육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낮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전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행정 혁신' 프로그램은 한국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현대화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제고, 부패 개선, 제도 개혁에 기여하도록 기획되었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는 SDG 16번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 및 취약계층 지원과도 관련되어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정책 우선순위인 SDG 1번과 8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 역량이 높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 및 계층이 존재하며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 및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제도적 컨설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현지 공무원의 전문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후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은 사무소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제르바이잔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KOICA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저탄소 개발전략, 국가적응계획의 제도적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자문과 INFF를 통해 녹색금융 유치를 위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수자원 고갈 대처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카라바흐 등 '해방된 영토'는 아제르바이잔 정보가 그린 에너지 존이자 스마트 시티로 선포한 미래형 도시 모델의 테스트 베드이다. 현재 KOICA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와 협업하여 이 지역에 물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략적 입지로 삼아 해당 지역에 최신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도입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제르바이잔이 중진국 궤도에 오르는 과도기에 진입하면서, KOICA의 지원방식 또한 직접적인 지원에서 점점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기술 전수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KOICA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점진적으로는 유상차관이나

상호 호혜적 기술협력으로 사업 형태를 전환하는 단계적 졸업(Exit)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이뤄낸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KOICA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 요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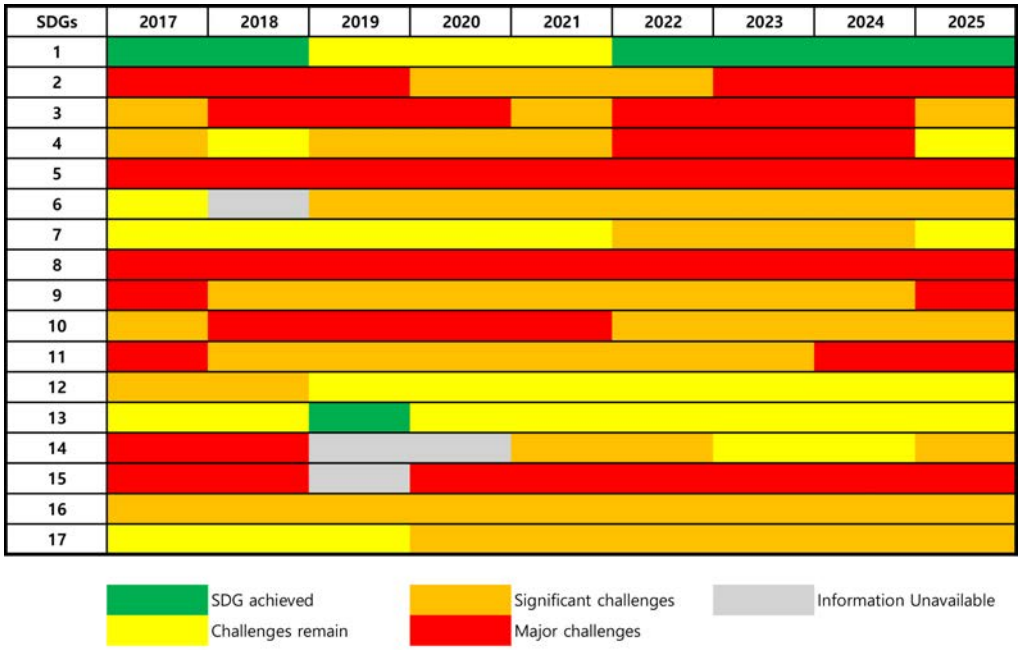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요르단은 2022년 제출한 두 번째 VNR을 통해 SDG 2, 4, 6, 9, 12, 14번에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지속가능 농업 면적 비율이 2015년 50%에서 2020년 56%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식량안보지수 또한 2020년 60.4점으로 2015년 대비 약 2점 상승하였다. 양질의 교육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교육 접근성을 높인 점이 주목되는데, 장애학생 접근 가능 학교 비율이 2020년 60%로 2015년 대비 20%P 증가하였다. 깨끗한 물과 위생의 경우 많은 지표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1인당 일일 수돗물 소비량이 WHO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손실률도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 스트레스 지수가 138%로 재생가능한 수자원보다 38%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혁신·인프라에서는 제조업 고용 비중이 확대되고 R&D 지출이 늘어나는 등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SDG 8번과 10번은 성과가 가장 저조한 목표로 꼽혔다. 실업률은 2015년 13%에서 2020년 23.2%로 악화되었고, 여성 실업률은 30.7%에 달했다. 또한 지속적인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난민 비율이 2015년 19.8%에서 2020년 24.4%로 늘어났으며, 지역간 개발 격차, 재원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 및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실질적 불평등 완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한편, 요르단은 2022년 VNR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개발재원의 전용, 지역 분쟁 여파(난민 유입, 무역 단절, FDI 감소), 만성적 물 부족, 높은 공공부채, 에너지 대외의존 등을 SDG 이행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평가했다. 재원 부족과 지방정부 역량 미흡도 한계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SDSN에서 발표하는 요르단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 변화로 현재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1, 3, 4, 6, 7번이다. SDG 2, 5, 8, 9, 11, 15번은 여전히 주요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요르단의 SDG 이행 점수는 2024년 69.1로 2016년 62.7보다 6.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7개국 중 71위를 기록하였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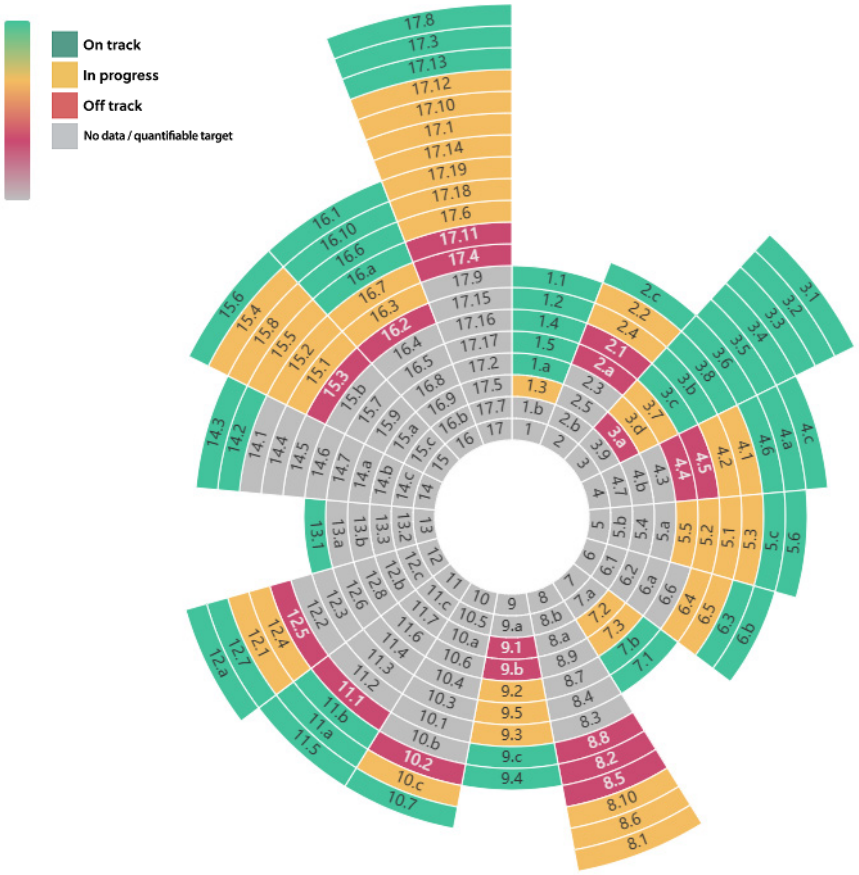
[그림 Ⅱ-187] 요르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요르단 CP 프로그램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물 안보 증진', '취약 아동·청년 및 커뮤니티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제고'이다. 물 안보 증진 프로그램은 SDG 6번을 지원하며 서브 프로그램으로 식수 공급 및 위생(WAS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SDG 4번을 지원하며, 기초교육 질 제고 프로그램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KOICA는 효율적인 물관리와 취약계층 및 커뮤니티의 교육 지원을 통해 요르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188] 2025년 요르단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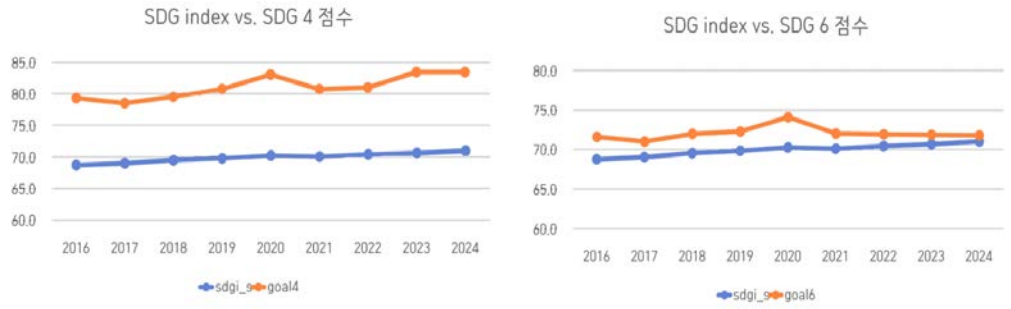
자료: Arab Development Portal 2026

CP 관련 SDG 각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6번은 8개의 세부목표중 2개의 목표(6.3, 6.B번)가 2030 목표에 맞춰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개의 목표(6.4, 6.5번)는 제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4개의 세부목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지표단에서 살펴보면 6.4.2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르단의 물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Arab Development Portal 2026). SDG 4번은 10개의 세부목표 중 3개의 목표(4.6, 4.a, 4.c번)가 2030 목표 달성이 확실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개의 목표(4.1, 4.2번)가 제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SDG 4.4와 4.5번의 경우는 후퇴하고 있어 교육과 취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에서 성별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의 세부목표는 데이터가 불충분해 이행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지표단에서 살펴보면 4.1.1번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ab

Development Portal 2026).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요르단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번은 SDG 이행 점수에 비해 10점 정도 높은 80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SDG 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살짝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189] 요르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요르단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17년 VNR에 따르면, 요르단은 SDG 이행을 위해 기존 정부 제도 및 행정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핵심 거버넌스 구조는 3층위로 작동한다. 먼저 총리가 이끄는 최고운영위원회(Higher Steering Committee)가 국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며, 계획국제협력부(MoPIC) 장관이 의장을 맡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고위위원회(National Higher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63]가 SDG 우선순위와 권고사항을 심의한다. 실무 수준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집행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부처 간 연계를 조율한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17). 2022 VNR에서 고도화된 부분은 목표별 태스크포스의 상설화다. VNR 작성을 위해 16개 목표별로 설치된 태스크포스가 영구 기구로 전환되어 상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요르단은 2030 SDG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문서로 'Jordan 2025'를 발표했으며, 이를 5년 단위로 구체화한 집행개발계획을 통해 600여 개의 지표에 대한 분기별, 연간 점검을 실시해왔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17). 2022년 VNR에 따르면 정부 지표집행계획

63) 지속가능발전 국가고위위원회는 관련 부처·민간부문·시민사회·의회·여성·청년 대표가 참여하며, 이 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2017년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Government Indicative Executive Programme 2021-2024, GIEP)이 집행계발계획의 역할을 담당하며, 동 계획은 7개의 핵심 필라(△구조·경제 개혁, △정치·법치, △디지털·녹색 경제 전환, △투자·생산부문, △인프라 서비스, △사회서비스, △고용·빈곤 감소)와 24개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개 이상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2022). 현재는 2022년 요르단 경제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sation Vision, EMV)이 출범하며 GIEP를 대체한 상위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1) 경제성장의 가속화, 2)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8대 경제성장 동력을 발표하였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a).

〈표 Ⅱ-80〉 요르단 EMV에 나타난 8대 경제성장 동력

동력	내용
High-Value Industries	제조·제약·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
Future Services	ICT·금융·의료관광 등 미래 서비스 산업
Destination Jordan	관광·문화 허브화
Smart Jordan	디지털 전환·AI·스타트업
Sustainable Resources	수자원·에너지 지속가능 관리
Invest Jordan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
Green Jordan	녹색경제·재생에너지·기후대응
Vibrant Jordan	지역경제·스포츠·문화 활성화

자료: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a

2026년 1월 경제현대화 비전 2차 집행계획(2026-29)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이니셔티브로 △산업지원기금 신규 단계 착수, △식량안보 강화, △학교 495개 신·증축, △교사 6만 명 훈련, △지방 일자리 최소 5천 개 창출, △재생에너지·천연가스 프로젝트 강화 등이 포함된다(MENAFN 2026). 이 밖에도 요르단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행동계획, 여성전략, 사회보호전략, 식량안보전략, 인적자원개발전략 등 SDG와 연계하여 부문별 전략을 마련하였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2022년 VNR에서 나타난 요르단의 SDG 달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 Ⅱ-81〉과 같다.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표 Ⅱ-81〉 2022년 VNR에서 나타난 요르단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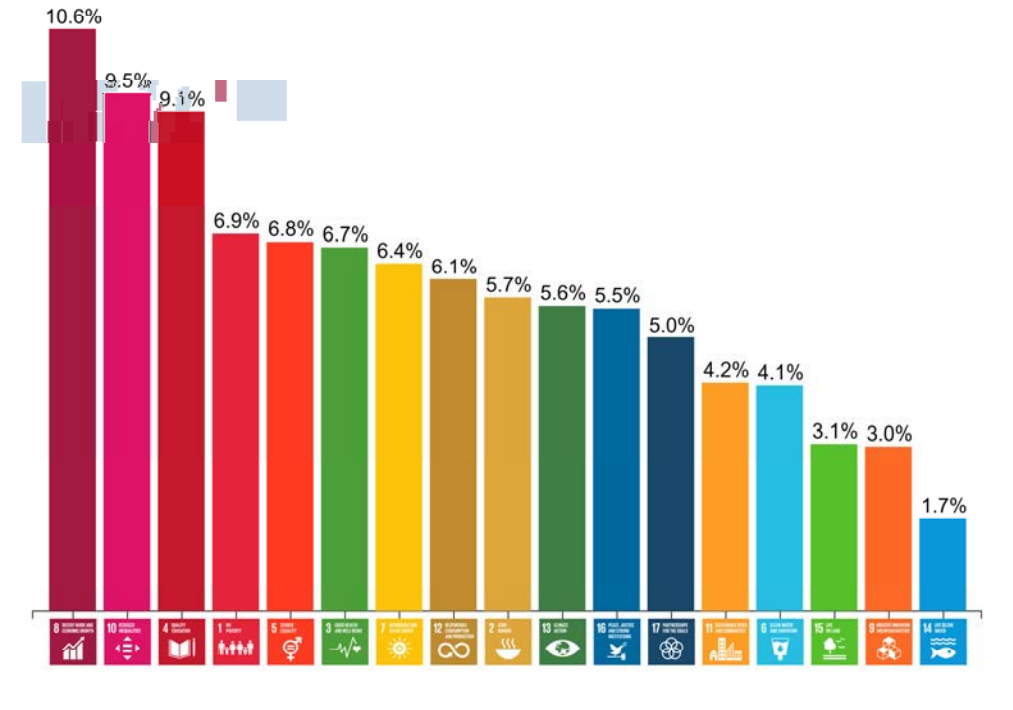
우선순위	주요내용	연계 SDG
구조적 경제 개혁	세수 기반 강화, 공공부채 관리, 투자 및 수출 환경 개선	8, 9, 17
고용 창출 및 빈곤 감소	실업률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SME 지원, 여성·청년 경제참여 확대, 사회보호안전망 강화	1, 8, 10
수자원 확보	아카바-암만 해수 담수화 송수관 사업, 비수익수[64] 감축, 통합 수자원 관리	6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95% 수입의존 탈피,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국가철도망·전기차 등 저탄소 인프라 확충	7, 13
디지털·녹색 경제 전환	정부 디지털 전환, Industry 4.0 혁신센터, 녹색성장 행동계획 이행	6, 12, 13
교육의 질 향상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기술교육 강화, 취약계층 교육 접근성 보장, 고등교육 온라인 전환	4
젠더 평등 주류화	여성 경제 참여율 제고, 성인지예산 도입, 의회 여성 할당제, 가정폭력 보호 법제 강화	5
난민·취약계층 포용	136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서비스·백신 동등 제공, 요르단 대응계획 (Jordan Response Plan, JRP) 국제재원 확충 요청	1, 3, 4, 10

자료: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요르단의 2017년과 2022년 VNR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Ⅱ-1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8, 10, 4, 1, 5, 3번이 상위 50%에 드는 SDG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VNR에서 해당 6개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이는 모두 〈표 Ⅱ-81〉에서 다루어진 SDG 목표이다. 다만, SDG 6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르단은 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아카바-암만 해수 담수화 송수관 사업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SDG Mapper를 통한 분석에서는 상위 50%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CP 지원 목표인 SDG 4번은 협력국의 상위 관심 목표, 반면 SDG 6번은 하위 관심 목표로 분류되었다.

64) Non-Revenue Water(NRW)로 생산된 물 중 누수나 도수 등으로 손실된 물을 가리킴

[그림 Ⅱ-190] 요르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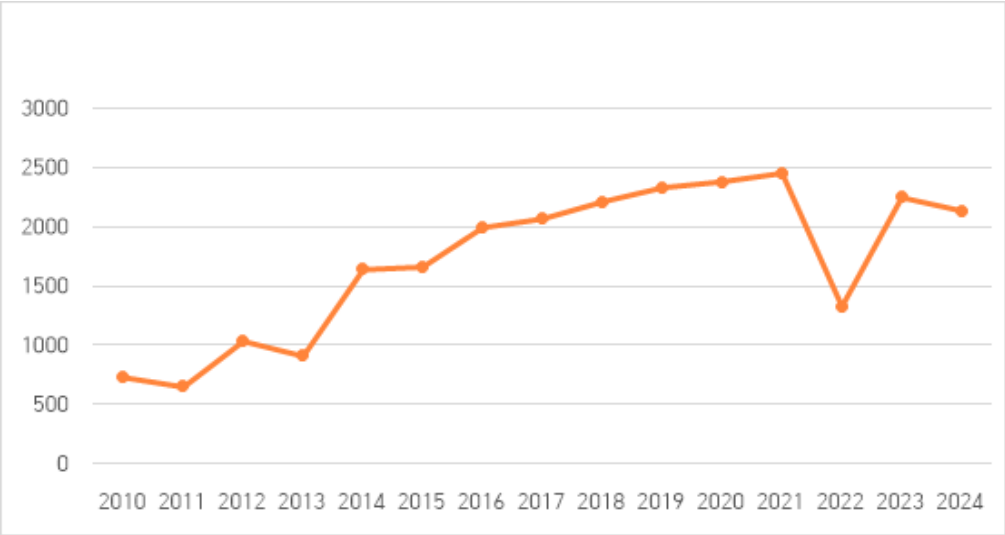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요르단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적개발재원 금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1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까지 지원액이 25억 달러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10억 달러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다음 해 반등하였으나 2021년의 수치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2022년 요르단 ODF 급감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발생으로 글로벌 ODA가 재편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며, 2020~2021 팬데믹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집행된 긴급 ODA가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줄어든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요르단은 2022년 VNR에서 2021년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요르단 대응계획의 소요예산은 24억 달러였으나, 실제 수령액은 7억 7,400만 달러로 필요 금액의 30.6%에 불과했음을 지적하며, 공여국들의 책임을 촉구하였다(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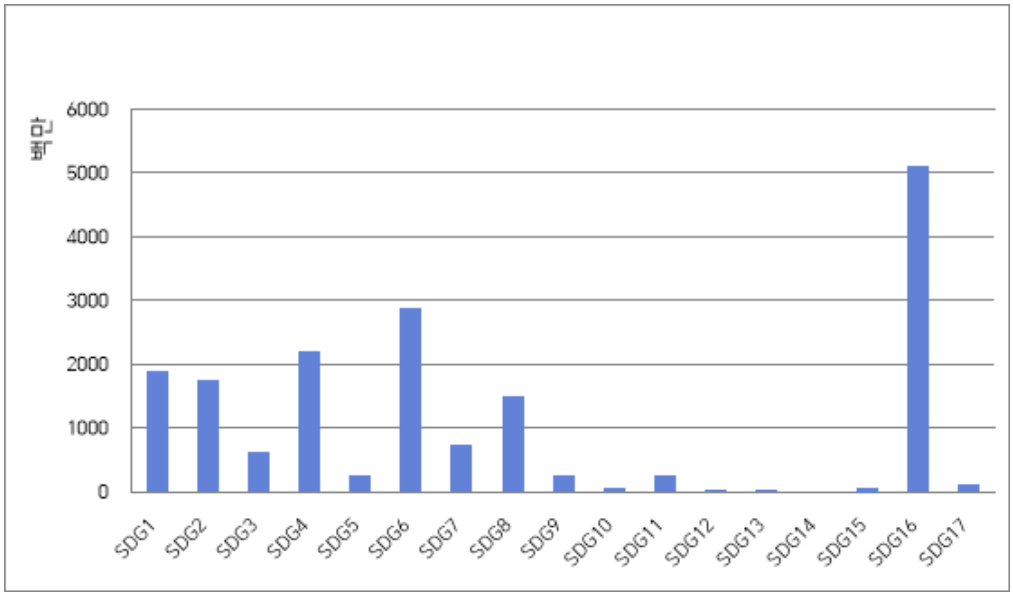
[그림 Ⅱ-191] 요르단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1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SDG 16, 6, 4번으로, CP가 지원하는 모든 목표가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92] 요르단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며, SDG 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독일이었다. 2개의 SDG 지원 ODF 금액을 합한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이에 미국과 독일이 요르단에서 SDG별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Ⅱ-82〉 요르단 SDG 4, 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6 지원	합계
호주	20	-	20
캐나다	176	7	183
프랑스	31	660	691
독일	663	991	1,654
일본	24	112	136
한국	61	133	194
스위스	13	24	36
영국	181	35	216
미국	818	880	1,698
기타	202	22	224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2022년 요르단과 체결한 7개년 양해각서(2023~2029)에 따라 연간 최소 1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약 10억 3,500만 달러는 경제지원기금, 4억 달러는 대외군사금융으로 구성된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원조 의무액은 약 18억 2천만 달러로 상위 중소득국 중 1위에 해당한다(USAFacts 2025).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영역은 △경제개발, △수자원 안보,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 △교육 및 청소년, △보건이다. USAID/요르단의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2020-2025)에 따르면, 미션의 목표는 "요르단이 건강하고 교육받은 인구를 위한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수자원 안보를 개선하며, 시민과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장벽을 줄임으로써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USAID 2020).

CP와 관련한 SDG 달성을 위한 미국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SDG 4번과 관련하여 미국과 요르단은 1950년대 교사 및 기술 훈련부터 시작된 오랜 교육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USAID는 요르단 교육부 및 공공사업주택부와 협력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소외지역의 학교 신축·확장·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377개 학교를 건설 또는 보수하였다. 또한, 초등 저학년 교사의 읽기·수리 교수역량을 강화하는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비정규 교육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10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USAID 2020). 2024년에는 암만, 자르카, 이르비드에 6개 학교를 추가 완공하였으며, 향후 4년간 요르단 전역에 60개 학교의 건설 및 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Jordan Times 2024). SDG 6번과 관련해서 USAID는 요르단의 수자원 안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관리엔지니어링서비스계약(MESC III)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금액 상환협정[65]에 기반한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간(G2G) 수자원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 자문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요르단의 국가적 물 위기 해결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암만 해수담수화 및 송수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홍해에서 연간 3억㎥의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도 암만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ickey 2025).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해체 방침에 따라 요르단 내 일부 원조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 간 MOU에 따른 핵심 재정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확인되었다(Reuters 2025).

② 독일

독일은 2024년 5월 요르단 정부와의 협의에서 2024~2025 개발협력을 위해 총 6억 1,875만 유로 지원을 약속하였다(BMZ 2024). GIZ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준 요르단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로, 6억 1,390만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Devex 2025). 독일의 대요르단 양자 개발협력은 세 가지 핵심 분야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난민 및 이주, 굿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훈련·고용(기술직업교육훈련, 민간·금융 부문 개발), △자연자원 보전 및 생명 보호(수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BMZ 2024). 독일은 기술협력과 재정협력을 통해 이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수자원 분야는 2001년부터 요르단-독일 협력의 최우선 분야로 자리 잡아왔다(GIZ 2025).

요르단 CP 관련 SDG 달성을 위한 독일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SDG 4번과 관련해서 교육부문 정책 차관과 기술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KfW는 요르단 교육개혁 및 학교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 유로 규모의 교육부문 개발정책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시리아

65) 고정금액 상환협정(Fixed Amount Reimbursement Agreement, FARA)은 USAID가 요르단 정부와 체결한 정부간 원조 방식으로, 요르단 정부가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뒤, 사전에 합의된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USAID가 해당 비용을 사후 상환하는 구조임.

난민 학생이 다수인 2부제 공립학교의 교사 및 행정인력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2,550만 유로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GIZ는 요르단 교육부와 40만 유로 규모의 포용적 교육 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Jordan Times 2025). 이와 더불어 독일은 SDG 8번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난민(시리아, 팔레스타인)의 TVET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BMZ 2024). SDG 6번과 관련해서 GIZ는 요르단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및 하수처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GIZ는 상하수도 관리 효율화, 비수익수 감소, 수도 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GIZ 2025). KfW는 2024년 수자원관개부 소관 하수 찌꺼기의 지속가능한 처리를 위해 5,000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하수처리 인프라 현대화 및 신설을 지원하고 있다(Jordan Times 2025). UNICEF와의 협력으로 KfW/BMZ는 자타리 난민캠프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 바 있다(UNICEF Jordan 2024).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요르단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 정리하면 〈표 Ⅱ-8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물 안보 증진'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6번의 성과는 높으며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낮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취약 아동·청년 및 커뮤니티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제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은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도 모두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 규모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83〉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물 안보 증진	SDG 6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취약 아동·청년 및 커뮤니티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제고	SDG 4	높음	높음	많음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르단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무소는 SDG 6번에 대

해 요르단 정부는 물 안보를 국가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여기관과 함께 아카바-암만 해수담수화 송수관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SDG 6번에 대한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및 참여 수준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SDG 4번(교육)에 대해서는 물에 이어 가장 공여기관의 협력이 활발한 분야이며, 청년의 약 절반이 실업 상태인 만큼 기초교육보다는 노동시장 연계 기술교육, 고도화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무소 또한 이를 고려하여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요르단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 이에 걸프 국가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USAID의 철수와 일부 유럽 공여기관의 ODA 예산 감축에 따라 KOICA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CP 이외에 디지털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요청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의견을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물 안보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사무소 인터뷰 결과 SDG 6번에 대한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높음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유형 또한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에서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독일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므로 KOICA는 차별화된 틈새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을 이어가며 한국의 상수도 관리 경험과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난민 밀집지역(이르비드, 마프라크 등)이나 농촌 취약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수자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SDG 4번과 연계하여 학교 WASH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두 CP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향후 CP 개편 과정에서는 최근 물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범분야 이슈인 SDG 13번을 추가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틀 안에서 물 관련 사업을 다루는 방안 또한 검토해볼 수 있다.

'취약 아동·청년 및 커뮤니티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제고' 프로그램은 질적 성과를 심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엔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데이터에 따르면 세부목표 4.4, 4.5번이 후퇴하고 있으며, 지표 4.1.1번도 하락 추세에 있어 교육의 질과 노동시장 연계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무소도 이러한 방향성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교육에서 노동시장 연계형 교육으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첫째, 기초교육 질 제고 프로그

램에서는 학교 인프라 지원에서 학습 성과 개선으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원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교사 역량강화, 교수학습자료 개발, 형성평가 시스템 도입 등 질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요르단 경제현대화 비전의 8대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디지털 역량 및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 및 산업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디지털 분야에 특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에서도 SDG 13번과 연계하여 녹색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 또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교육 형평성의 후퇴 추세를 고려했을 때, 농촌지역 학생·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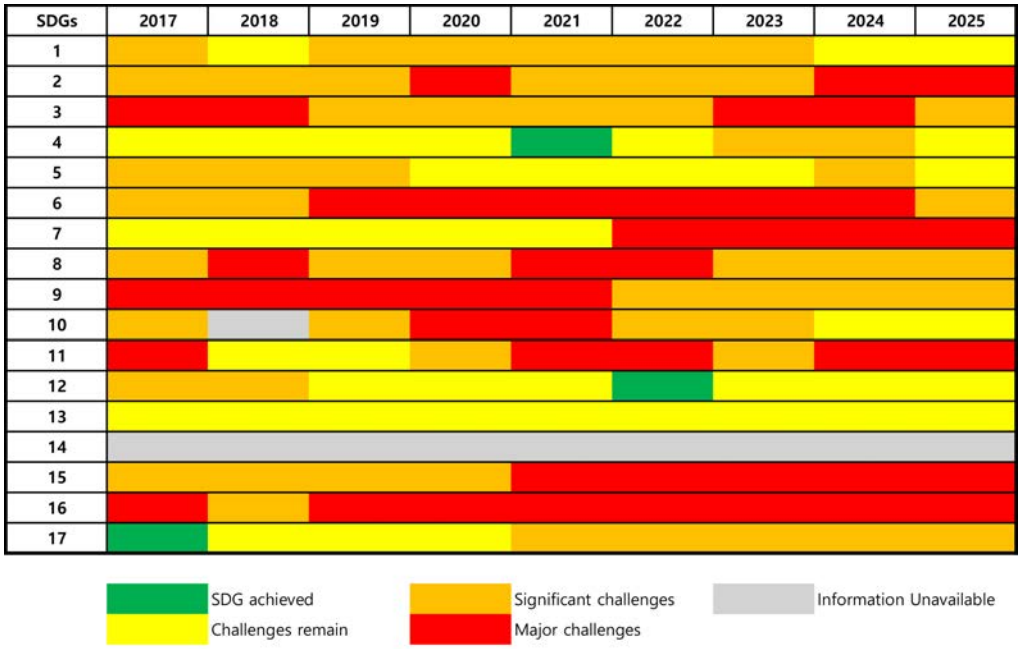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2023년에 발표한 VNR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조세개혁 및 산업 다각화 등 여러 경제 개혁을 단행한 결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SDG 10번인 불평등 완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또한, 국가빈곤율이 2021년 17%에서 2022년 14.1%로 감소했고, SDG 3번에 해당하는 보건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 1만 명당 보건 종사자 수가 6.9% 증가했으며, 산모 사망률 51% 감소, 결핵 발병률 27%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UzDaily 2024).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SDG 4번 교육 부문에서 취학 전 교육 시설의 확충하고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했으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Youth Notebook'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SDG 8번 경제성장 및 고용 증진에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GDP 기여도가 20%에 도달했으며,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vation Index, GII)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66].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9~2021 사이 4.4배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SDSN에서 발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93]에서는 보는 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 변화로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1, 3, 4, 5, 6, 10번 정도로 확인된다. 한편, SDG 8번과 9번의 경우는 2022, 2023년에는 진전이 확인됐으나 최근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DG 2, 7, 11, 15, 16번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SDG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SDG 이행 점수는 2024년 69.2점으로 2016년 68.75점에서 소폭 상승하였다(SDSN 2025). 이는 2016년 이후 2023년 73.39점을 기록하기까지 쭉 상승세를 나타내다 꺾인 것으로 SDG 2, 7, 8, 12, 13, 15, 16번 등 SDGs 전반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SDG 11번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Sachs et al 2024, 26).

66) 글로벌 혁신 지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의 혁신 역량과 성과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제도적 환경, 인적 자본 및 연구 역량,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역동성, 창출된 지식과 기술 성과, 문화적·창의적 성과 등 7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위를 매긴다.

[그림 Ⅱ-193] 우즈베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프로그램은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강화', '양질의 현대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s는 4, 8, 9번 그리고 3,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CP 관련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94]와 같다.

[그림 Ⅱ-194] 2025년 우즈베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먼저 SDG 4번은 50%에 해당하는 지표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4.3.1번이 후퇴하고 있으며, 42% 해당하는 지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SDG 8번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이 2023년 VNR을 통해 진전을 이룬 목표로 자체평가한 것과는 달리 가장 후퇴하고 있는 목표로 나타났다. 지표의 25%가 진전, 6%가 정체, 31%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8.4.2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8.1.1, 8.2.1, 8.4.1, 8.5.2, 8.8.2번에서 후퇴하고 있다. SDG 9번에서는 50%에 해당하는 지표가 진전을 보이며, 17%의 지표가 정체, 또한 17%가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나머지 17%는 데이터 불충분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9.1.2, 9.5.1번이 정체되어 있으며, 9.2.2, 9.3.1번이 후퇴하고 있다.

SDG 3번에서는 46%에 해당하는 지표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14%가 정체, 11%가 후퇴하고

있다. 정체된 지표로는 3.1.1, 3.8.1, 3.b.1, 3.c.1번이 있으며, 후퇴하고 있는 지표로는 3.5.1, 3.7.2, 3.d.1번이 있다. SDG 16번의 경우 83%의 지표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지표 가운데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없으나, 16.2.2번이 정체를 보인다.

특별히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강화 CP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가 후퇴양상을 보이고 있는 4.3.1과 8.5.2번인바 해당 지표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16번 목표에 대한 이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바, 사업 이행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1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3번과 4번의 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SDG 이행 점수를 상회한다. SDG 3번은 꾸준히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살짝 주춤하긴 했으나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SDG 4번은 201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SDG 8, 9, 16번의 점수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다. 특히 SDG 8번의 경우, 2016~2017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2018년부터 쭉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SDG 16번은 2016~2025의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Ⅱ-195] 우즈베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우즈베키스탄은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국가행동전략 2017~2021'에 이어 '신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 개발전략 2022~2026'을 마련하였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동 전략은 '인간의 존엄(In the name of human honor and dignity)'을 최고 가치로 두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복지 보장, 수자원 절약 등 국민에게 편리한 생태학조건 마련, 공정하고 현대적 국가건설 및 법치주의 보장, 안전과 평화유지를 최우선 실행과제로 두고 있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특별히 2023년에 제출한 VNR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설정한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질서를 받아들이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주민자치제인 마할라 제도(Mahalla model)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가 본인이 속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2030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 단일 레지스트리'[67]와 '마할라'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SDG 16번 목표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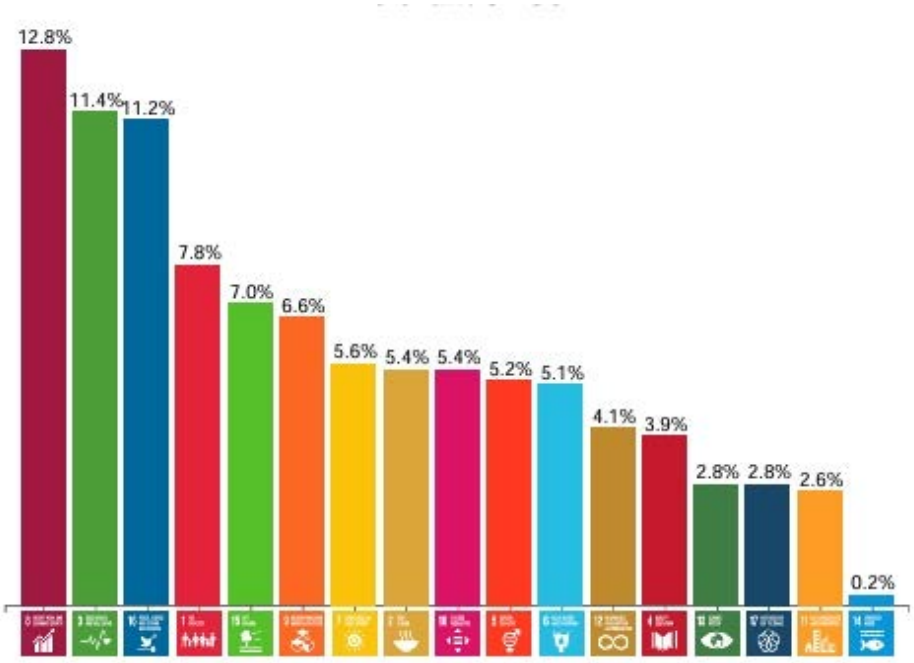
이후 2023년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Uzbekistan-2030 Strategy)이 채택되며 향후 2030년까지의 7개년 국가개발전략이 마련되었다. 동 전략은 우즈베키스탄의 상위 중소득국 진입, 공공의 수요 및 국제기준에 맞춘 교육, 보건,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국민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건 조성, 정의롭고 현대적인 국가 건설, 국가의 주권과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가지 중점 분야를 지정하였는데 △모든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양질의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복지 보장, △수자원 보존 및 환경보호, △법치주의 보장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 공공행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 원칙에 기반한 정책의 일관성이다(Development Strategy Center 2025).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과 2023년 VNR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II-1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50% 비율에 드는 SDG 목표가 8, 3, 16, 1, 15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67)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저소득 가구를 자동 식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급여와 물질적 지원을 자동으로 할당한다. 복지 제공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원금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평가된다(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이는 앞서 우즈베키스탄 SDG 전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성장, 보건, 제도 구축, 빈곤 감소,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CP가 지원하는 SDG 3, 8, 16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으며, 4, 9번은 순위권에서 벗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96] 우즈베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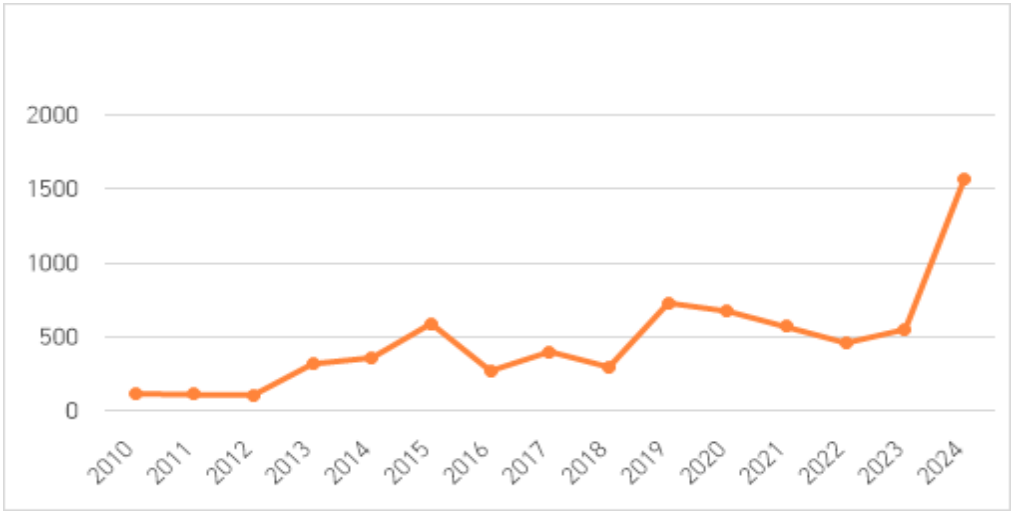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Ⅱ-1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과 2019년 각각 고점을 찍은 뒤 2024년 전년 대비 200%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환율 자유화, 국영 기업 민영화, 비자 면제 확대 등의 개혁조치가 DAC 회원국들의 투자 및 원조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EU와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 증가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Development Strategy Center 2025, SpecialEurasia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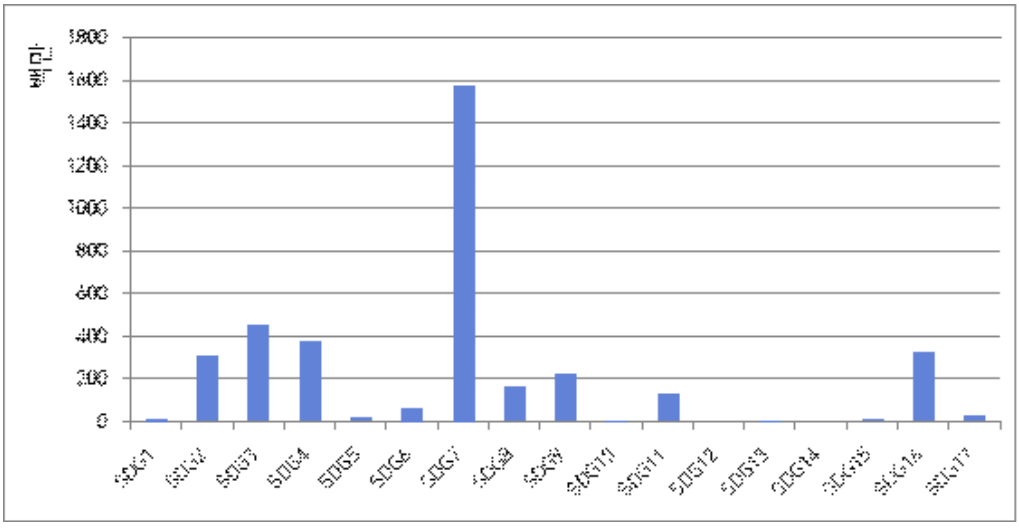
[그림 Ⅱ-197]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1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서 2021년까지 누적액 기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7, 3, 4, 16번 순으로 재생에너지, 보건. 교육, 거버넌스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위 50%를 기준으로 두면 누적액 기준 각각 43.36%, 12.41%를 차지한 SDG 7번과 3번만이 기준선 안에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98] 우즈베키스탄 SDG 목표별 ODF 지원현황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3번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프랑스, SDG 4번은 한국, SDG 8번은 독일, SDG 9번은 일본, SDG 16번은 프랑스였다. 다섯 개의 SDG 지원액을 합한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한국,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독일이 SDG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84〉 우즈베키스탄 SDG 3, 4, 8, 9,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8 지원	SDG 9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프랑스	173	11	46	1	233	464
독일	60	124	71	30	10	294
일본	27	50	9	112	7	205
한국	135	133	5	72	9	354
폴란드	1	6	-	-	-	8
스위스	1	11	2	1	1	16
영국	-	17	1	-	7	26
미국	52	10	24	-	52	138
기타	2	9	1	1	2	14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프랑스

프랑스는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당면한 과제인 지속가능한 성장,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및 기후 거버넌스, △도시개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경제 구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AFD 2020, 2023). SDG 3번과 관련해서는 현재 AFD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으나, SDG 6번과 관련하여 실시한 타슈켄트, 페르가나, 카슈카다리야 지역과 협력하여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이나, 사마르칸트 시의 고형 폐기물 관리 현대화 사업, 카르마나, 키토브, 샤크리스압즈 등 3개 중규모 도시 내 위생 시설 설치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SDG 3번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AFD 2023). SDG 4번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TVET을 지원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11년 교육과정을 국제기준에 맞춘 12년 과정으로 개편하는 중등교육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SDG 8, 9, 16번과 관련해서 AFD는 우즈베키스탄 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지원했다. 소규모 사업체 및 중소기업(SMEs) 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민간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은행의 SMEs을 위한 금융상품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금융상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녹색 책임성 목표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AFD 2023).

이밖에 SDG 11, 13, 16번과 연계하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정부의 녹색경제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마련 및 실행을 지원했다(AFD 2023).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계획 및 시설 마련을 지원한바, 앞서 언급한 고형 폐기물 관리 현대화 사업, 도시 내 위생 시설 설치 및 현대화 사업, 상수도 시스템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AFD 2023). 또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연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개발을 목표로 축산 분야에서 소규모 생산자와 기후 친화적 투자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AFD 2023).

② 독일

독일의 對 우즈베키스탄 개발협력은 주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와 에너지,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우즈베키스탄에 2024~2025 최대 1억 7,6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중 1억 5,200만 유로는 재정 협력 프로젝트에, 2,400만 유로는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BMZ 2025).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공행정 현대화와 투명성 증진에 초점을 맞춰 GIZ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자문과 직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서는 특별히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농업, 관광, 수공업 영역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와 에너지에서는 주로 수자원과 위생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국가 보건전략 수립과 국민 건강보험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BMZ 2025).

우즈베키스탄 CP 관련 SDG 달성을 위한 독일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DG 3번과 관련해서 GIZ는 선진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집중하여 우즈베키스탄 의료 및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장비의 활용 및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GIZ 2025). KfW은 지역단위로 의료센터 인프라 현대화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촌인구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도입, 의료진 IT 교육 등을 통해 보건 서비스의 효율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KFW 2022). SDG 4번과 관련해서는 SDG 8번과 연계하여 GIZ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도입하는 고등교육 및 전문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GIZ 2025). 이와 더불어 SDG 8과 관련해서 GIZ와 KfW는 농촌지역의 생산성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지원한다(GIZ 2025). SDG 9번과 관련해서 KfW는 SDG 3, 6번과 연계하여 하수 처리 시스템 신설 및 현대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SDG 13번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한다. SDG 16번과 관련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거버넌스 개혁을 지원하며, 사법기관의 역량강화를 실시한다(GIZ 2025).

이 밖에도 SDG 7, 13번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소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건설 등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였으며, 카슈카다리야, 사마르칸트, 수르칸다리야 지역의 삼림, 초원 등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였다(GIZ 2025).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와 통합하여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I-85〉와 같다. 먼저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의 이행수준은 높으나 정책적인 관심도는 낮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은 편이다. 또 다른 지원 목표인 SDG 8의 경우 이행수준이 낮고 공여국의 지원도 적은 편이지만 협력국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SDG 9은 이행수준 및 정책적 관심도가 낮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저조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선별적 관찰 유형,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양질의 현대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은 이행수준이 높으며, 협력국의 관심도가 높고 공여국의 지원도 많은 편이다. 즉,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은 이행수준이 낮지만 협력국의 관심은 높고, 공여국의 지원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이다.

〈표 Ⅱ-85〉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강화	SDG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8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양질의 현대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SDG 3	높음	높음	많음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	SDG 1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CP 지원 목표별 이행 수준, 협력국의 관심도, 공여국의 지원도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무소는 SDG 4, 8, 9번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 특성상 교육, 고용,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AI와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과 맞물려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급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무소에 따르면, 정부의 높은 기대 수준 대비 실제 디지털화 이행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의 경우 독일, 스위스 등 공여국은 주로 현지 언어 교육이나 초청 연수 형태로 직훈 지원에 나서고 있는 한편, KOICA는 협력국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직훈 사업을 발굴하고 상생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 또한 밝혔다. SDG 3번에 대해서 사무소는 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갖춰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와의 면담에서도 병원 운영 및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현장에서의 협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우즈베키스탄 CPS에서 보건이 우선순위 분야로 지정되어 있고, 국무조정실 차원의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범정부 협력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DG 16번과 관련하여 사무소는 공공행정 분야가 CPS 및 CP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 사업들이 여러 SDG 목표에 걸쳐 매핑될 수 있어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착수한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사업이나 '광물자원 및 지질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같이 SDG 16번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이밖에 사무소는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이 우수성과 사례로 선정되는 등 협력국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CP에 기후대응을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애로사항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수준이 한국과 유사한 영역도 있어 기존의 ODA 사업의 방식으로 기획했을 때 협력국 정부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시 한국과의 상생 도모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SDG 4번을 지원하는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SDG 9번을 지원하는 기술기반 창·취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SDG 4번과 9번을 지원하는 청년인재 및 과학기술 고등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종국적으로 SDG 8번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SDG 4번에 대한 이행수준은 높은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수요와 국제적인 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미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DG 4번의 지표 중 직업교육을 받는 15-24세 청년 비율이 후퇴하고 있는 만큼 동 CP의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SDG 8, 9번과 연계하여 취창업에 직접적인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AI, IT분야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기존 직훈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AI, ICT 기반의 고도화된 기술인재 양성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타 공여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의 조선, 반도체, 제조업 등 산업 분야 비교우위를 살린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SDG 8번에 동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졸업생 사후 관리 체계 수립 또한 필요하다.

'양질의 현대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은 이행수준이 수치상으로는 높게 평가되나, 사무소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병원 운영 및 의료인력 운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구소련식 의료체계의 한계로 인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기초 보건서비스 제공 역량이 낮은 만큼 KOICA는 의료인력 역량강화, 기초 의약품 및 장비 지원 등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 보건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등 범정부 협력 틀을 적극 활용하여 KOICA 사업을 이 흐름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의 낮은 대응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은 우즈베키스탄의 수요는 높으나 성과와 국제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개입과 성과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강점인 전자정부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포털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WTO 가입 추진과 연계하여 전자정부 및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우즈베키스탄 VNR이 SDG 이행에 있어 통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의 부족을 주요 도전과제로 언급하고 있는바, 국가 통계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 인터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부의 사업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CPS 및 CP 개편 시 기후변화 및 농업 분야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수준이 전통적인 ODA 수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한국 기업 진출과 연계한 상생형 협력,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등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4) 우크라이나

(1) SDG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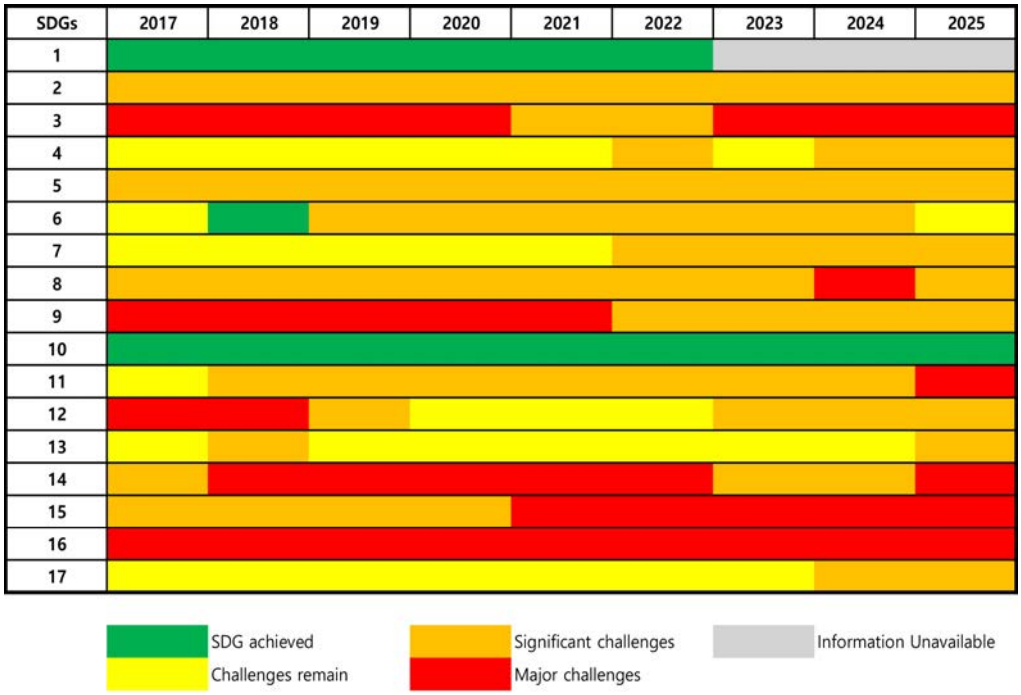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2020년 첫 번째이자 유일한 VNR을 제출하였다. VN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9년 기준 17개 SDG 중 15개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빈곤율 감소(2015년 58.3%에서 2018년 43.2%), 교육개혁(New Ukranian School) 추진, 전력시장 자유화, ICT 서비스 무역흑자 2.5배 증가, 4G 도입, 농촌 주민의 의료·교육·기타 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 이후 1,029개 통합 지역공동체 설립 및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원 41.5배 증가를 꼽았다(Ministry for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2020).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과는 후퇴했다. UN-우크라이나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UNCF 2025-2029)에 따르면, 빈곤율이 2021년 20.6%에서 2023년 35.5%로 급등하였으며, 이로 지난 15년간의 진전이 소멸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4년 실질 GDP가 2021년 대비 78%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상업 및 산업 부문 직접 피해가 175억 달러에 달하며 에너지 발전 용량의 70%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570만 명의 아동 교육이 중단되었고, 약 540만 명의 국내 실향민, 650만 명의 해외 난민이 발생한 상황이다(Government of Ukraine & United Nations 2025). 2025년 2월 실시한 제4차 신속 피해·수요평가(Fourth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NDA4)는 직접 피해가 약 1,76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복구비용이 5,24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ropean Union, & United Nations 2025). 우크라이나 복구 우선순위 2025에 따르면 2025년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재원이 총 173.2억 달러이며 이 중 73.7억 달러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복구 우선순위에는 △에너지(48억), △주택(40억), △교통(30억), △사회보호(20억), △교육(12억) 등 10개 분야 348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Ministry for Development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of Ukraine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우크라이나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1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번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을 유지하며 성과 달성 수준에 도달했으나 전쟁 이후 데이터의 부재로 성과 측정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SDG 10번이 전쟁 중에도 쭉 녹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SDSN 지표가 지니계수와 소득 하위 40% 성장률 등 상대적 불평등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상대적 불평등 지표는 크게 악화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체감되는 것과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DG 3번과 11, 14, 15번은 전쟁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주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며, 16번은 전 기간에 걸쳐 적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Ⅱ-199] 우크라이나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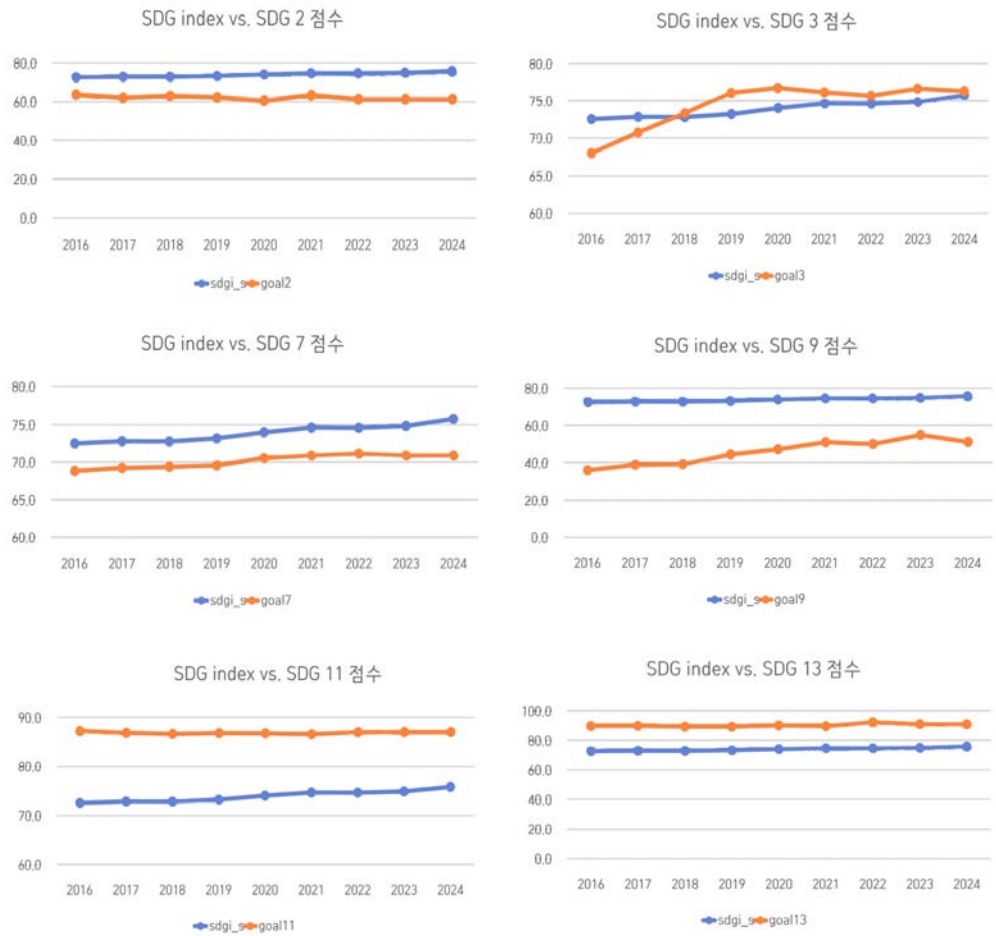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우크라이나 CP 프로그램에는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 육성',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 정부 행정 구현' 프로그램이 있다. 교통 프로그램의 경우 교통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과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기술 및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 3, 9, 11, 13번을 지원한다. 산업육성 프로그램은 스마트팜 조성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에너지 자립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 2, 7, 13번을 지원한다. 보건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은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과 디지털 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서브로 두고 있으며 SDG 3번을 지원할 것으로 추측되나 SDG를 성과지표로 두고 있지 않다. 디지털정부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관세물류행정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프로그램

또한 SDG 16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로 두고 있지 않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KOICA는 이와 같은 조속한 전후 복구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경제전략(NES 2030)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돕고자 한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우크라이나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00]과 같이 SDG 2, 7, 9번은 SDG 이행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SDG 11, 13번은 전 기간에 걸쳐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DG 3번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7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Ⅱ-200] 우크라이나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우크라이나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20년 VN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간 SDG 이행을 위한 4대 가속전략(Accelerators)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행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모든 SDG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역량강화, 행정구조 간소화, 부패 근절, 사법 및 반부패 개혁 가속화 등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가속전략으로 삼았다. 둘째로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였는데, 천연자원 및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첨단 기술, 디지털화, Industry 4.0 기반의 혁신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가속전략은 고용정책의 변화로 중산층 확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포용, 완전하고 합법적인 고용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은 보건과 교육의 혁신에 관한 것인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을 정비하고 포용적·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Ministry for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2020). 우크라이나는 SDG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162개 법규로의 통합, 183개 지표 체계 구축 등 SDG의 국내 제도화와 성과 모니터링 측면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 또한 VN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for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2020).

그러나 2022년 러시아와의 전면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SDG 이행체계는 전시 복구와 EU 가입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 2022년 6월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가 부여되면서 복구 지원을 단순 원조가 아닌 EU 가입을 위한 개혁 가속화의 수단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받게 되면서 그 중 380억 유로에 달하는 중기 재정지원 및 개혁 투자(Pillar Ⅰ)를 받기 위한 로드맵으로 우크라이나 플랜(Ukranian Plan 2024~2027)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Government of Ukraine 2024). 우크라이나 플랜은 복구, 재건, 현대화, EU 가입의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국가개혁 의제를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Ⅱ-86〉과 같다. 전시 상황에서도 개혁을 미루지 않고, 단기 복구 수요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점이 특징이며, 지자체를 복구의 주체로 설정하고 Pillar Ⅰ 무상지원의 20%를 지방정부에 배정하도록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우크라이나 플랜은 동 플랜의 성공적인 이행과 전쟁 종료 시 2028년까지 실질 GDP가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33년까지 2021년 대비 4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Government of Ukraine 2024).

〈표 Ⅱ-86〉 우크라이나 플랜에 나타난 분야별 개혁 내용

분야	내용
공공행정 개혁	EU acquis 이행을 위한 공직 전문화, 디지털화,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
공공재정 관리	공공투자관리 개혁, 재정 리스크 관리, 국가수입전략 이행
사법제도	사법부 독립성 강화, 헌법재판관 선정 절차 개혁, 대법관 평가, 판사 교육 현대화
반부패·자금세탁	반부패기구 및 자산추적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역량강화, 자산 회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금융시장	은행 구조조정, 국유은행 지분 축소, 자본시장 발전, 예금보험 제도 EU 기준에 따라 정비
공공자산 관리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ESG 원칙, 공공서비스 의무와 비PSO 활동의 계정 분리
인적자본	교육(직업훈련개혁, New Ukranian 개혁 연속성 확보, 유아교육 접근성 개선), 보건(전쟁 피해 대응 의료·재활·정신건강 서비스, 보건개혁 지속), 노동시장(고용전략, 이주·복귀 정책), 사회보호(탈시설화, 사회주택, 취약계층 대상 보호), 젠더평등(2030 양성평등 국가전략 이행, GBV 대응), 소수자 권리, 장애인 권리, 문화(문화유산 복원, 사회통합 수단)
기업환경	규제완화, 중소기업 금융접근 개선, 경제범죄 대응 규제기관 기능 강화, 도산제도 현대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국가농업등록부(SAR) 구축,
분권화·지역정책	2020년 영토적 분권화 단계 완료 이후의 제도·법률·헌법적 분권화 완성.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소득세 배분 개선, 지역개발전략 갱신, 국가지역개발기금(SFRD) 현대화, 해방 영토에서의 지방자치 복원, 프리펙처형 지방행정 도입
에너지	가스·전력시장 자유화, 공공서비스 의무(PSO) 개혁, 재생에너지 확대(허가 절차 간소화, 경쟁입찰 도입),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 지역난방 현대화, 2035년까지 석탄 단계적 폐지
교통	물류 시스템 복구·현대화, 범유럽교통망(TEN-T) 확장, 철도 부문 EU 표준 정렬, 항만 서비스 경쟁 도입
농식품	EU acquis 규제 정렬, 기능적 토지시장 구축, 식품안전 강화, 지뢰제거 관련 조치
핵심원자재	투자자를 위한 굿거버넌스·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국제 모범관행 도입, 원자재 추출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치사슬 상승
디지털전환	기관 디지털화, EU 규제 정합성, 사이버보안 기준 강화, Diia 전자정부 플랫폼 발전
녹색전환 및 환경보호	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주요 탄소집약 부문 탈탄소화, EU ETS 가입 대비 탄소가격제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공해 통제(Directive 2010/75/EU 정렬), 수자원·폐수 관리(EU water acquis), 순환경제 폐기물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Emerald Network·람사르 습지 17곳·660만 헥타르 보호지역 복원 포함).

자료: Government of Ukraine 2024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후 SDG 이행을 위한 UN과의 공식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UN-우크라이나 지속가능발전 협력 프레임워크(UNCF 2025~2029)를 발표했으며 〈표 Ⅱ-87〉과 같이 4대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했다(Government of Ukraine & United Nations 2025).

〈표 Ⅱ-87〉 UNCF UN-우크라이나 협력 전략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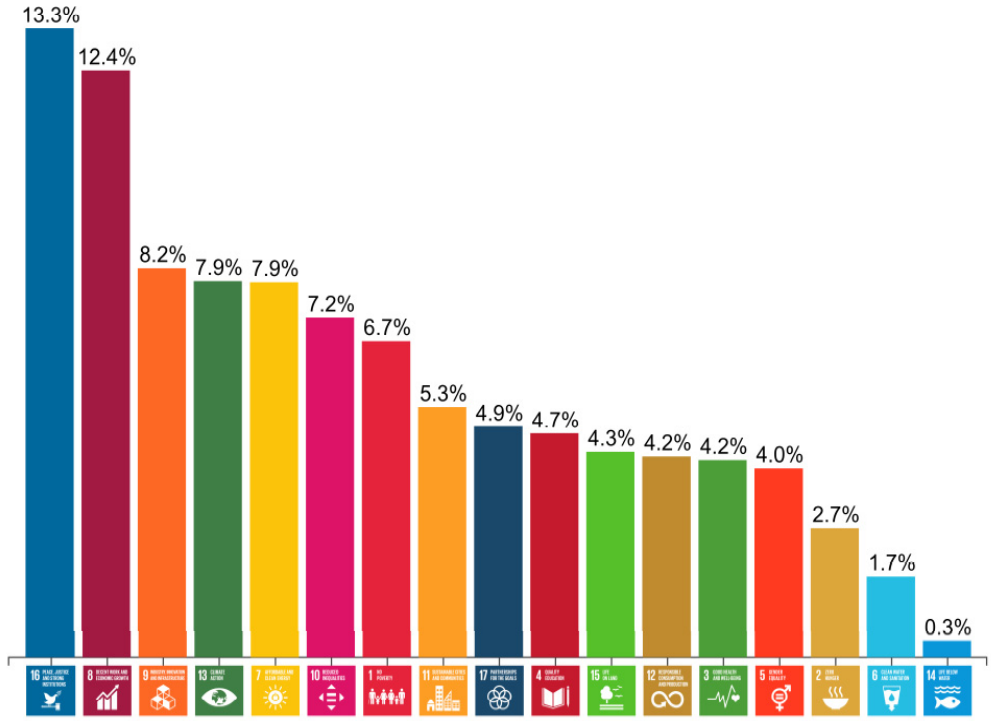
우선순위	내용
인적자본과 인구 동태	보건, 교육, 사회보장, 정신건강, WASH 서비스 강화
2. 포용적 경제성장	지뢰제거, 인프라 복구, 직업교육·훈련,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농식품 생산성 제고 및 혁신, EU 시장 경쟁력 강화
3. 환경	녹색회복 재정 메커니즘, 순환경제 정책, 환경 모니터링, 재난위험 관리, 에너지 탈중앙화·탈탄소화
4.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사법 독립, 사회 결속, 반부패, 시민참여, 포용적 회복 정책, 인권침해 대응

자료: Government of Ukraine & United Nations 2025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중에도 SDG 프레임워크를 전시 상황에 맞춰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UNDP의 지원 아래 추진하였다. 2024년 6월 출범한 UNDP의 「전쟁으로부터의 회복과 유럽 통합 맥락에서의 우크라이나 SDG 이행」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각료회의 사무국을 직접 지원하여 국가 SDG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이행을 주도하였다. 주요 활동은 국가 SDG 지표 개정을 위한 정책 문서·가이드라인 작성, 범부처 협력 역량강화, 그리고 인권·포용성·비차별 분야에서 EU 가입 의제와 SDG를 연계하는 것이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4).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정책 우선순위를 짐작게 하는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2020년 VNR을 마지막으로 추가 VNR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VNR만으로는 현재의 국가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VNR 외에 제4차 신속피해수요평가(RDNA4), 우크라이나 플랜(Ukraine Facility Plan), UN-우크라이나 지속가능발전 협력프레임워크(UNCF 2025-2029) 등 전후 국가 재건·개발계획 문서를 함께 포함하여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Ⅱ-2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6번과 SDG 8번이 전체의 약 1/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SDG 9, 13, 7, 10번이 그 뒤를 이어 상위 50%에 드는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거버넌스 및 제도 개혁 그리고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이 전후 복구 및 재건의 핵심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Ⅱ-201] 우크라이나 VNR 및 재건계획 문서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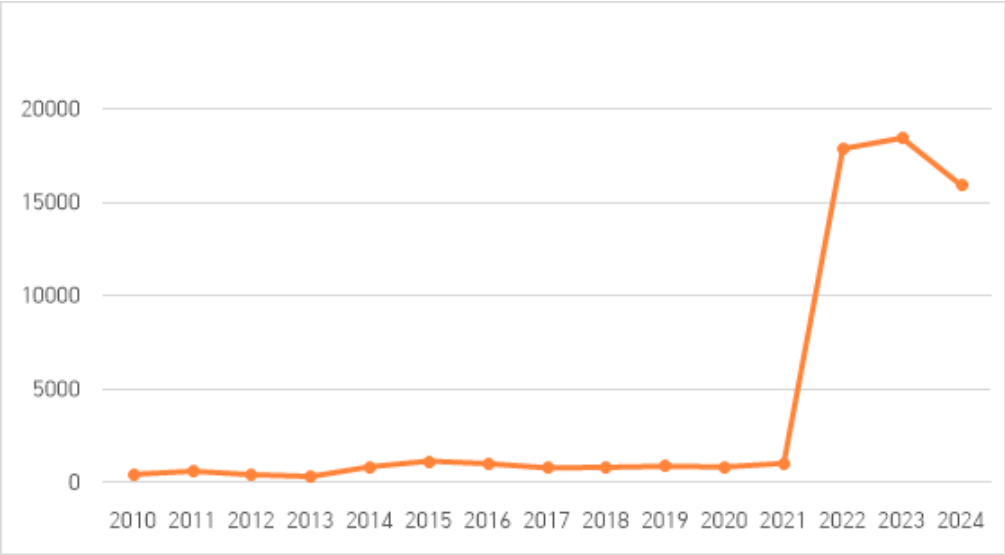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적개발재원 금액을 살펴보았다. 2022년 러시아 침공을 기점으로 ODF가 폭증하여 연 150억~18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거시재정 지원, 복구 및 재건 자금의 대규모 투입에 따른 결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중소득협력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국가 존립과 복구를 위한 대규모 외부 재정 의존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RDNA4가 추산한 향후 10년간 5,240억 달러의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자금 흐름이 장기간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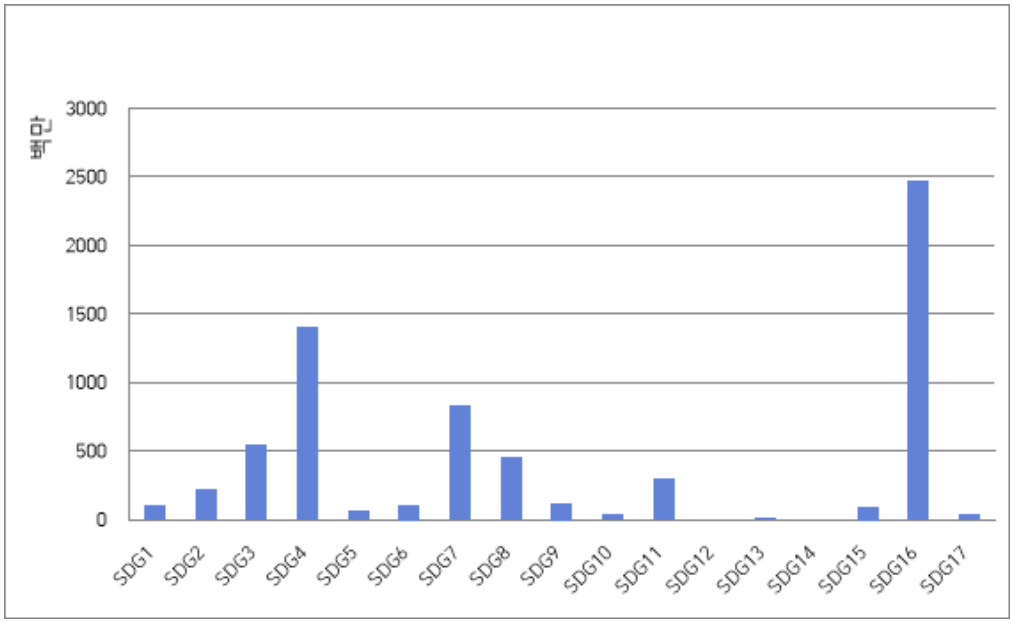
[그림 Ⅱ-202] 우크라이나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SDG 16번과 4번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 약 2,500백만 달러로 압도적인 1위이며,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약 1,400백만 달러로 2위이다. 이 두 목표만으로 전체 ODF의 상위 50%를 차지한다. 그 뒤를 SDG 7, 2, 8번이 잇는다. 앞서 VNR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부패 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역공동체를 통한 분권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도 개혁에 쏠리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높은 SDG 4번에 대한 지원 또한 우크라이나의 고등교육 협력 및 New Ukranian School 지원, 분쟁 지역 교육 접근성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for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2020). 다만, 이 그래프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이므로 전쟁 이후 ODF 배분 구조는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202]에서 확인한 것처럼 ODF 총액이 폭증한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복구(SDG 7번), 인도적 지원(SDG 1, 2번), 도시 재건(SDG 11번) 등으로 배분이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SDG 16번의 높은 비중은 전후에도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플랜에서 공공행정 개혁이 EU 자금 지급의 전제조건이고, UNCF 또한 평화·정의·강력한 제도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Government of Ukraine 2024, Government of Ukraine & United Nations 2025).

[그림 Ⅱ-203] 우크라이나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21 우크라이나에 대한 SDG별 ODF는 미국(546백만 달러)과 독일(493백만 달러)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양대 공여국을 형성했다. 두 국가의 지원 패턴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SDG 3번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지만, 독일은 SDG 7, 11, 9번 등 인프라와 경제 분야에 분산 지원하였다. 일본은 SDG 11번에 133백만 달러를 특화 지원하여 전통적인 인프라 ODA 지원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은 합계 2백만 달러로 여타 DAC 국가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다. 본 데이터는 AidData 기준 2021년까지의 자료로, 2022년 전면 침공 이후의 SDG별 ODF 배분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전전(戰前) 시기 공여국별 지원 패턴의 기준선으로서 의의가 있다. 2022년 이후 총 ODF 규모가 15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주요 공여국 구성 자체는 유사하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분야별 배분은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따른 SDG 7번에 대한 지원 급증, 대규모 인도적 지원으로 의한 SDG 1번과 2번 비중 확대, EU 가입 조건과 연계된 SDG 16번 지원의 지속적 강조 등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활동 내용을 통해 최신 지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88〉 우크라이나 SDG 2, 3, 7, 9, 11,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7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SDG 13 지원	합계
캐나다	49	4	25	18	2	-	97
프랑스	3	3	73	1	13	-	92
독일	72	51	237	48	80	4	493
일본	1	15	2	2	133	-	154
한국	-	-	-	1	-	-	2
스위스	23	48	58	18	10	-	158
영국	5	1	-	-	-	-	7
미국	39	299	201	5	2	-	546
기타	27	122	230	27	51	-	458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2023년 기준 USAID는 우크라이나에 약 16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25년 1월 기준 미 의회는 FY2022~2024에 걸쳐 총 1,742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USAID는 376억 달러를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 우크라이나 중앙 예산 직접 지원에 집행하였다(Congress.gov 2025, CNN 2025).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여국이 되었다. 전쟁 이전 USAID의 최우선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었으나, 2022년 이후 경제회복과 인도적 지원으로 초점이 전환되었으며, 경제회복 지원에는 중소기업 지원, 수출 촉진, 인프라 복구, 고용 창출 등이 포함된다(Visit Ukraine 2025).

우크라이나 CP가 지원하는 SDG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토의 1/3 이상이 지뢰 및 폭발물로 오염된 상황에서 농경지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지뢰 탐사 및 제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4). 농업 부문에서는 USAID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AGRI-Ukraine)를 통해 농가에 종자 및 비료를 제공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USAID 2024). SDG 3번과 관련해서는 전쟁 부상자 치료, 재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USAID OIG 2024). 또한, SDG 7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긴급 에너지 지원을 통해 전력망 장비, 난방 배관, 발전기, 보일러, 소프트웨어, 1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발전소 등을 공급하였다(USAID/ReliefWeb 2024). 또한, USAID 에너지안보 프로젝트(Energy Security Program, ESP)는 에너지 시장 개혁, EU 전력·가스 시장 통합, 재

생에너지 전환, 지역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는데(USAID ESP 2024), SDG 13번과도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자원 데이터 구축, 지역난방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NREL 2023). 이밖에도 2024년 5월에는 Tetra Tech에 4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안보·회복력·연결성 확보(Securing Power, Advancing Resilience and Connectivity, SPARC)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유럽 통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ENR 2024).

다만,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 원조 90일 동결 명령 이후 USAID 프로그램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2025년 2월에는 에너지안보 프로젝트와 금융 부문 개혁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이에 향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NBC News 2025).

② 독일

독일은 GIZ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준 우크라이나를 최대 협력국으로 두고 있으며, 2024년 6월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를 주최하여 복구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EU 가입을 전제로 EU 기준 도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BMZ 2024b).

CP 관련 SDG 달성을 위한 독일의 활동을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 독일은 BMZ의 우크라이나 기업개발기금(BDF) 지원을 통해 전쟁 피해 농업 부문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BMZ 2024a), 인도적 지뢰제거 분야에서도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CSIS 2024). SDG 3번과 관련하여 BMZ는 2022년 초 약 740개 병원·클리닉 등 보건시설을 지원하였으며, 150곳에 장비를, 400곳에 직원 교육을 제공하여 약 340만 우크라이나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였다. 또한, 30개 독일 병원과 80개 우크라이나 병원 간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의료 장비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BMZ 2025). SDG 7번과 관련하여 GIZ는 파괴된 전력·난방 공급 시스템의 복구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EU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효율, 기후중립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GIZ 2025b).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위탁으로 GIZ가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지속가능 경제회복 촉진' 프로젝트는 전쟁 피해 인프라·에너지 공급의 즉각적 복구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며, 'Build Back Better'와 '녹색·디지털 회복'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GIZ 2025a). SDG 9번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기술동맹을 출범하여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인력 275,000명을 교육하였으며(BMZ

2024b), GIZ는 건설, 기계공학, 에너지 효율 분야를 중심으로 독일-우크라이나 기업 간 B2B 연결을 지원하는 'Partnering in Business with Germany'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GIZ/Partnering in Business 2025). SDG 11번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도시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도시 인프라의 복구·신설,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시설 복원, 주택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쟁 피해 기록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시 지적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GIZ 2023). 또한 BMZ 자금으로 UNECE가 수행하는 UN4UkrainianCities 프로젝트를 통해 하르키우·미콜라이우 등 전쟁 피해 도시의 장기 복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주거정책법, 주택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의 법률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UNECE 2024). GIZ의 '통합 도시개발 II' 프로젝트는 빈니차, 체르니우치, 폴타바, 리비우 등 8개 도시에서 EU 가입을 전제로 한 국가 도시개발 정책과 주택 정책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EU acquis에 맞춰 조화시키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GIZ 2023). 이밖에도 학교, 도서관, 유치원, 청소년 시설의 재건·복원과 주택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BMZ 2025). SDG 13번과 관련하여 GIZ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에너지 시스템의 탈중앙화·탈탄소화 자문을 제공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중립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GIZ 2025b). GIZ의 FELICITY II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상하수도 부문에서 저탄소·기후 회복력 도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GFA 2024), 'Build Back Better' 원칙에 따라 모든 복구 사업에 '중대한 피해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역난방 현대화를 통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GIZ 2025a).

이와 같이 독일의 대우크라이나 개발협력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전후에는 보건, 도시 재건, 중소기업 회복, 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EU 가입 준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 정리하면 〈표 II-89〉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프로그램은 4개 SDG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SDG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모두 적음으로 분류된 가운데, SDG 9번의 경우 이행수준은 낮으나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SDG 13번은 정책적 관심과 이행수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SDG 3번과 SDG 11번은 선별적 관찰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이미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KOICA가 독자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보다는 전략적 틈새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육성' 프로그램은 3개 SDG를 지원한다. SDG 7번은 이행수준은 낮으나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여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에너지 발전용량의 70%가 파괴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플랜, UNCF, RDNA4 모두 에너지를 최우선 복구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는 전전 최대 공여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의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여국의 참여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SDG 13번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이다. SDG 2번은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모두 낮아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8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SDG 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9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SDG 11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1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육성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7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SDG 1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	-	-	-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 정부행정 구현	-	-	-	-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무소는 전반적인 분석 결과에는 동의하나, SDG 11번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도시 인프라 훼손과 재건 수요를 고려할 때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을 당초 분석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SDG 7번의 이행수준이 낮은 것은 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우선 분야이자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큰 분야로서 긴급지원에서 향후 장기 인프라 복구로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SDG 2번에 대해서는 농경지 훼손과 지뢰 오염의 영향이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식량안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스마트팜·농산물 가공 등 후방산업은 현 전후 복구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며, 지뢰 제거, 영세농 지원, 농산물 유통 및 수출경로 복구 등이 보다 현실적인 협력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 KOICA는 농업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본 의료체계와 병원 인프라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어 신규 병원 건립 모델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인 반면,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장애인 증가로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 정부행정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상당한 기술적 기반과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자체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의견을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프로그램은 SDG 9번과 13번이 선도적 개입 및 성과 기반 확대 유형으로 분류된 만큼, 이 두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플랜이 교통 분야에서 범유럽 교통망 통합과 철도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녹색 교통 전환이 EU 가입 조건과 직결되므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의 EU 기준 정합성 강화와 관련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KOICA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도시 현황 분석·확장성 검토, 교통·기반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육성' 프로그램에서는 SDG 7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하는 SDG 2번은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스마트팜·농산물 가공 등 후방산업이 현 전후 복구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뿐 아니라 KOICA가 농업 분야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 집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SDG 7번은 선도적 개입 유형으로 분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USAID 에너지안보 프로젝트 종료와 독일의 ODA 감축으로 에너지 분야에 공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건물 에너지 효율 등 한국이 기술적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서의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디지털 정부행정 프로그램은 지원 SDG가 설정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건의료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재활의료 분야로 초점을 전환하여 관련 인력 양성과 장비·시스템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이 차별화된 기여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정부행정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가 이미 구축한 시스템과

의 기술적 연계를 통해 EU acquis 디지털 챕터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다만 관세·물류 행정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고 대국민 민원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을 갖춘 반면, 정부 기관 간·기관 내 업무는 여전히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기관 간 업무 전자화 사업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KOICA 지원은 전시·복구·EU 가입이라는 삼중 맥락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여국이 이미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틈새 전략을 취하고, 디지털 기술, 에너지 효율, 의료 IT 등 한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KOICA의 무상원조 규모상 직접적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이전·제도 구축·역량강화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CP가 모두 현지 수요와 일정 부분 정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향후 10년간의 전후 재건과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세부 사업 분야와 목표를 조정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라크

(1) SDG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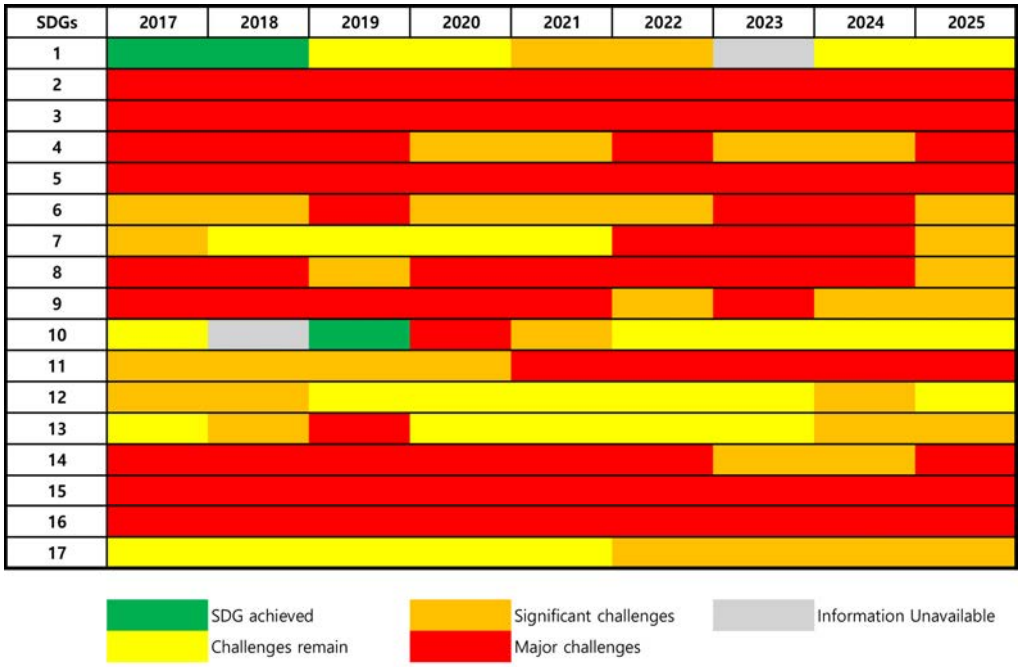
2025년 발표된 제3차 VNR에 따르면, 이라크는 “책임 있는 투자…재건과 정의(Responsible Investment… Reconstruction and Justice)”를 주제로 SDG 1, 3, 6, 7, 16번에서 비교적 뚜렷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빈곤율은 2018년 20.05%에서 2023/24년 사회경제조사 기준 17.5%로 하락했으며, 기대수명은 2019년 71.4세에서 2023년 74.9세로 상승했다. 모성사망률은 2021년 10만 명당 46.1명에서 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 26.9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기초서비스 접근률도 위생(100%), 청정에너지(99.3%), 식수 분야에서 높은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였다. 부패인식지수(CPI)는 3점 상승하여 세계 140위를 기록했으며,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 18,540건에서 2024년 11,582건으로 감소하는 등 평화·거버넌스 분야에서도 개선이 확인되었다(Republic of Iraq 2025).

반면, SDG 2, 5, 8, 10, 13번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빈곤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인구의 16.3%가 영양결핍 상태에 있으며(SDG 2),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타격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남부지역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0.6%에 불과하고 여성 실업률(28.2%)은 남성(14.7%)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성평등과 불평등 해소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GDP 성장률이 2022년과 2024년 각각 0.5%, -1.5% 등으로 부진하며, 청년 실업률은 25.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실업률은 2021년 16.5%에서 2023/24년 13.5%로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후행동의 경우 CO_2 배출량이 높고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1.1%에 불과하여 2030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에서는 GDP 대비 교육지출이 5.3%로 높은 편이나, 10세 이상 문맹률이 15.3%에 달하고 읽기·쓰기·산술 역량이 저조하며 교육시설의 디지털 환경(인터넷 접근률 11%, 컴퓨터 보유율 12.5%)이 열악한 상황이다(Republic of Iraq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이라크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2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 변화로 현재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1, 10, 12번 정도이다. SDG 4, 6, 7, 8, 9번은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정체된 양상이며, SDG 2, 3, 5, 11, 14, 15, 16번은 주요 과제가 남아 2030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라크의 SDG 이행 점수는 2016년 50.9점에서 2024년 64.2점으로 13.3p 상승했으나, 순위 변동은 미미하다(SDSN 2025). 2025년 VNR은 테러와의 전쟁, 유가 폭락, 코로나19라는 삼중 위기를 거치면서

발전 동력이 약화하였으나, 석유 의존 경제의 다변화, 책임 있는 투자, 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SDGs 달성 경로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Republic of Iraq 2025).

[그림 Ⅱ-204] 이라크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이라크 CP 프로그램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피난민, 전쟁피해자, 취약계층 등 소외된 사람을 위한 포용적 개발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료지원 프로그램[68]은 비감염성질환 서비스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과 성생식 모자·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SDG 4번을 지원하고, 포용적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SDG 1번과 16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권리증진 프로그램을 서브 프로그램으로 두고 있다. KOICA는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이라크의 전쟁 피해를 회복하고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을 CP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68) 해당 프로그램은 SDG 3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CP 성과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Ⅱ-205] 2025년 이라크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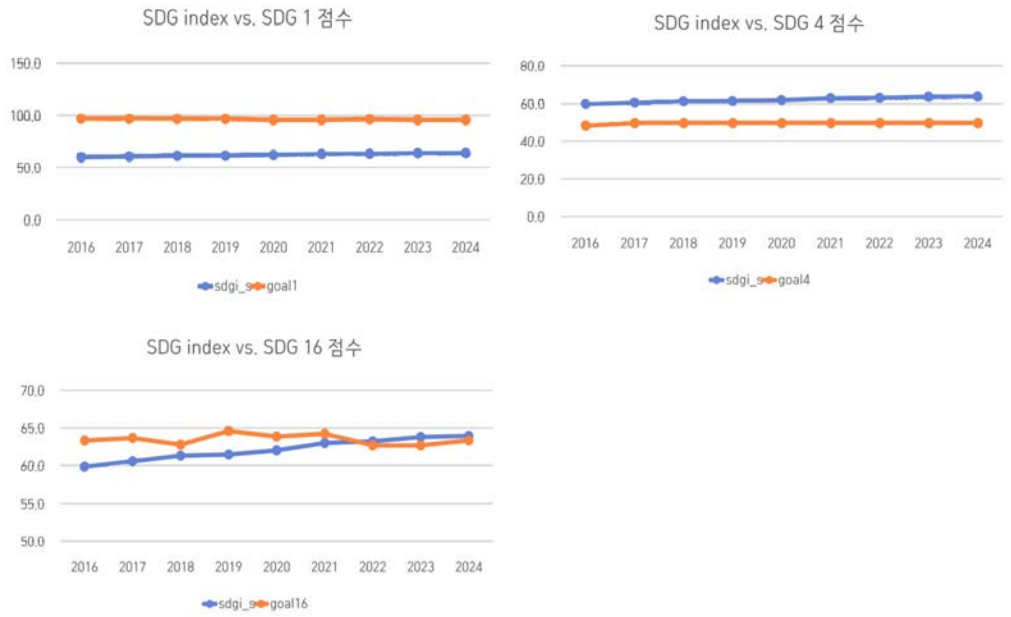


자료: Arab Development Portal 2026

CP 관련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번은 7개 세부목표 중 3개의 목표(1.1, 1.a, 1.5번)가 2030 목표에 맞춰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3개의 목표(1.2, 1.3, 1.4번)는 제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1개의 세부목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지표단에서 살펴보면 1.3.1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SDG 4번은 10개의 세부목표 중 2개의 목표(4.c, 4.6번)가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3개의 목표(4.1, 4.2, 4.5번)가 제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반면 4.4는 후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부목표는 데이터 불충분으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SDG 16번의 경우 12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4개의 목표(16.1, 16.3, 16.6, 16.a번)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3개의 목표(16.2, 16.7, 16.10번)는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다. 나머지 5개의 세부목표는 데이터 불충분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Arab Development Portal 2026).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이라크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0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번의 경우 SDG 이행 점수에 비해 40점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SDG 4번은 SDG 이행 점수에 비해 10점 가량 낮은 점수를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SDG 16번은 2021년까지 등락을 거듭했으나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는데, 2022년과 2023년, 2024년 연달아 SDG 점수보다 소폭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 정부 총선 이후 약 13개월간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SDG 16번 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Ⅱ-206] 이라크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이라크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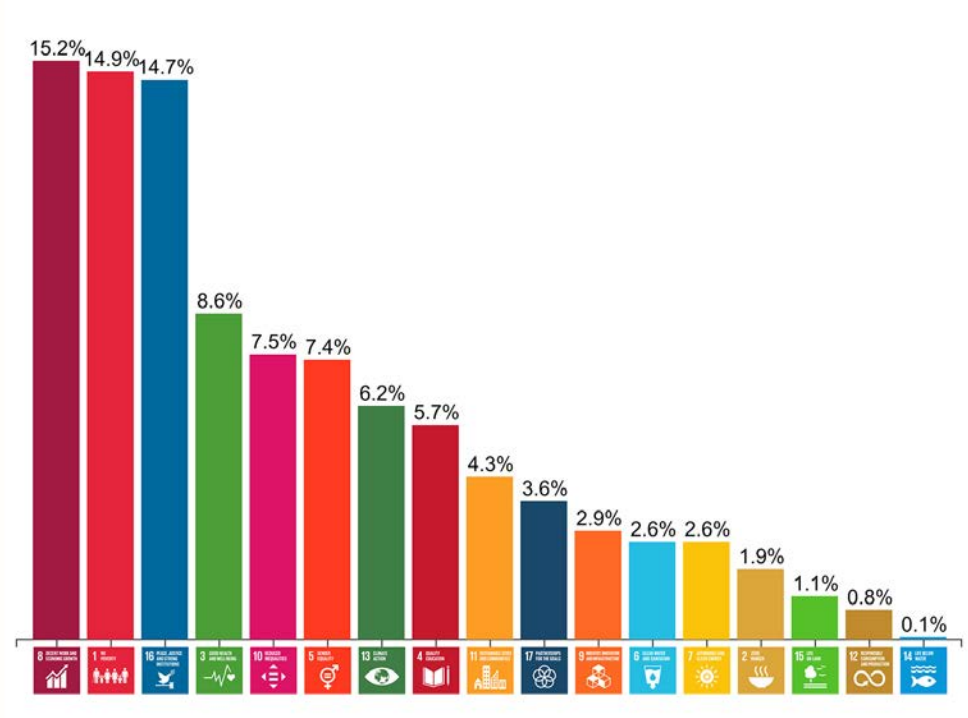
세 차례의 VNR(2019; 2021; 2025)에 나타난 이라크의 SDGs 전략 방향성은 '이라크 비전 2030을 중심으로 한 국가개발체계 정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 대응력 확보와 분권화 및 지방 현지화', '책임있는 투자와 녹색경제 전환' 순으로 변모해왔다(Republic of Iraq 2019; 2021; 2025). 이는 기존의 위기 대응·재건 중심에서 질적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라크는 2016년 초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공식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기 국가 비전으로 이라크 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동 비전은

“안전한 국가에서 역량을 갖춘 국민, 통합된 사회, 다변화된 경제, 지속가능한 환경, 정의와 굿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라크 비전 2030은 중기 국가개발계획(NDP)과 부문별 전략의 상위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며, SDGs 이행의 핵심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public of Iraq 2019). 가장 최근에는 제4차 NDP(2024~2028)와 SDGs 투자자 계획(2024)을 수립하여 투자를 SDGs에 부합하는 부문 또는 지역으로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Republic of Iraq 2025). 정부 프로그램 역시 SDGs와의 연계를 강화해 왔는데, 현 정부 프로그램은 부패 척결, 빈곤 완화, 실업 감소, 경제 개혁, 서비스 개선 등 5대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긴급식량안보 및 개발지원법(2022), 근로자 퇴직·사회보장법(2023), 장애인 권리법 제1차 개정(2024) 등 사회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발전 국가전략(2022~2031), 교육훈련 국가전략(2021~2031), 여성 경제역량강화 계획(2019~2024), 여성·아동·소녀에 대한 폭력 근절 국가전략(2018~2030) 등 부문별 전략을 채택하여 인적자본 투자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SDGs의 지방 현지화는 이라크 SDG 이행체계의 주요한 특징이다. 바스라, 카르발라, 안바르 3개 도가 시범적으로 SDGs를 지방계획에 통합하고 개별적인 SDG 성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이라크 정부는 지방비교개발성과지수(Local Comparative Development Index, LCDI)와 지방비교개발지속지수(Local Comparative Development Perseverance Index, LCDPI)를 고안하여 도 단위 SDGs 진척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Republic of Iraq 2021). 2025년 VNR에서도 동일 방법론을 활용하여 18개 도의 성과를 추적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public of Iraq 2025).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이라크의 2019, 2021, 2025년 VNR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II-2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8, 1, 16, 3번이 상위 50%에 드는 SDG 목표로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CP가 지원하는 목표 중 1번과 16번이 겹치며, 성과지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3번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밖의 CP 지원 목표인 SDG 4번은 상대적으로 하위 관심 목표로 분류되었다. 다만, 현 정부 프로그램의 5대 과제에 포함된 실업 감소와 산업 다각화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SDG 4번에 대한 이라크의 정책적 관심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207] 이라크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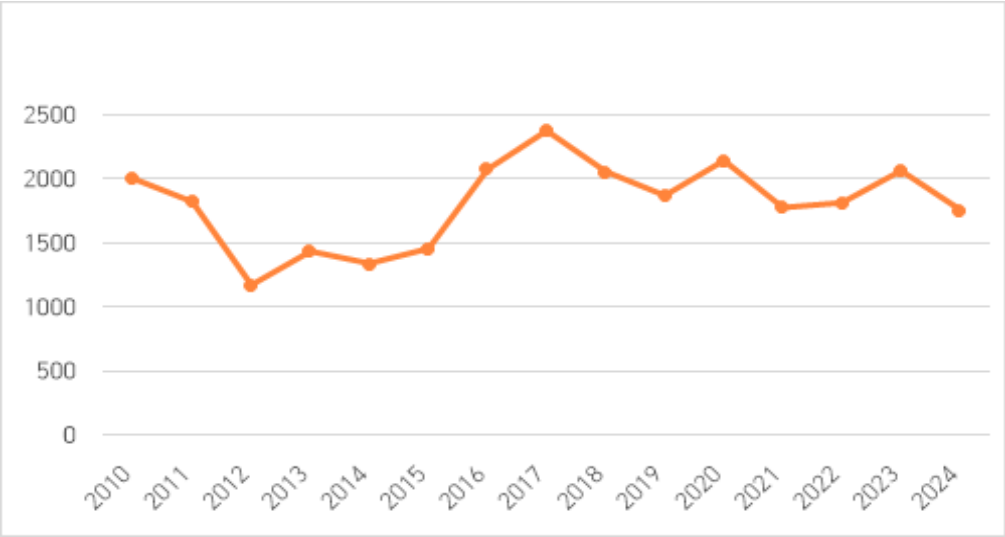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라크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2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18에 나타난 정점은 IS 격퇴 이후 해방 지역의 인프라 복구, 실향민 귀환 지원, UNDP 안정화기금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시기와 일치한다(Iraqi Civil Society Solidarity Initiative 2025). 이후 감소 추세는 IS 이후 재건이 일정 수준 진행되고 이라크가 상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긴급성이 약화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여국들의 원조 우선순위가 재편된 영향으로 분석된다(Republic of Iraq 2021, USAFacts 2025). 그럼에도 이라크에 대한 ODF 규모가 연간 1,700 백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실향민, 기후변화 취약성, 거버넌스 개혁 수요 등 여전히 상당한 개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반영한다(BMZ 2024, U.S. Department of State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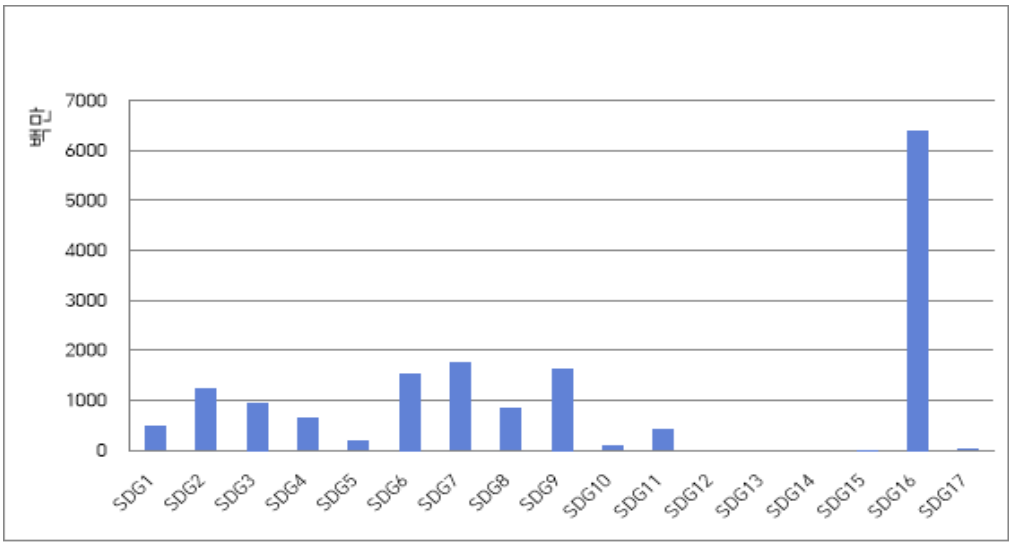
[그림 Ⅱ-208] 이라크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한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Ⅱ-2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6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그 뒤를 SDG 7, 9, 6번이 잇는다. 지원비중이 상위 50%에 드는 목표는 SDG 16번과 7번이며, 그 외에 CP가 지원하는 SDG 1번과 4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209] 이라크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동 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1번과 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독일이며, SDG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세 개의 SDG 지원 ODF 금액을 합한 결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미국이며,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미국과 독일이 SDG 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90〉 이라크 SDG 1,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1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호주	4	30	66	100
캐나다	11	18	133	162
프랑스	1	45	497	544
독일	188	254	798	1,240
일본	39	23	182	244
한국	-	45	14	59
스위스	1	3	16	19
영국	1	42	277	321
미국	159	108	3,890	4,157
기타	81	80	530	69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은 이라크에 약 3억 7,11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중 경제적 목적이 52.5%, 군사적 목적이 47.5%를 차지했다(USAFacts 2025). 2014년 이래 미국은 이라크의 IS 파괴 이후 복구와 장기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35억 달러의 인도적·개발 원조를 투자했으며, 2023년에만 경제개발 원조 1억 5,000만 달러와 인도적 지원 1억 1,420만 달러를 제공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4).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영역은 △경제개혁 및 민간부문 성장, △인권 및 민주주의, △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 △인도적·안정화 지원이다. 이에 따라 SDG 8, 16, 6, 13번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4, USAFacts 2025).

SDG 1번과 관련하여 USAID는 이라크에 2003년 이래 총 93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13억 달러 이상이 인도적 지원에 할당되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또한 1억 4,000만 달러를 경제개발에 투자하여 창업, 일자리 창출, 여성 역량강화를 지원하였다(Iraqi Civil

Society Solidarity Initiative 2025). USAID는 WFP와 협력하여 북부 이라크 캠프에 거주하는 국내 실향민과 시리아 난민 4만 1,000명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수단 회복 및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WFP 2024). SDG 4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4년 이래 약 9,300만 달러의 공공외교 기금을 교육 파트너십, 인력개발, 창업 교육, 영어교육, 문화유산 보존에 투자하였다. 2024년에는 미국 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300명 이상의 이라크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미국 문화원(American Spaces) 네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씽킹,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24). SDG 16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정치 참여, 시민 활동을 강화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며, 잔학행위 예방, 책임성,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24). 구체적으로 USAID가 운영한 이라크 거버넌스 및 성과 책임(IGPA/Takamul) 프로젝트는 부패 척결과 서비스 전달 개선을, Tahfeez 프로그램은 민간부문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였다(Blanchard, C M. 외 4인 2023)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AID 해체를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의 재건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니네베, 안바르, 살라딘 지역의 수백만 실향민이 식량 불안정, 의료 접근 제한, 위생 환경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종료로 경제적 모멘텀도 둔화될 우려가 있다((Iraqi Civil Society Solidarity Initiative 2025).

② 독일

독일은 이라크에 2014년 이래 3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약 20억 유로가 BMZ 예산에서 제공되었다. 2024년 7월 정부 간 협상에서 약 1억 1,770만 유로의 신규 공약을 체결하였다(BMZ 2024). 독일의 이라크 개발협력은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개발·훈련·고용, △기후·에너지·공정한 전환이다. SDG 16번, 8번, 13번 등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MZ 2024).

SDG 1번과 관련하여 독일은 초기에 시리아 난민, 이라크 국내실향민, 수용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수백만 실향민의 귀환과 국가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현재는 위기 대응에서 장기적 개혁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BMZ의 '실향민 및 수용국' 특별 이니셔티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BMZ 2024). GIZ는 특히 여성, 국내실향민, 난민 등 취약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GIZ 2024). SDG 4번과 관련하여 GIZ는 훈련센터와 협력하여 졸업생의 노동시장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에 창업 촉진과 디지

털 경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GIZ 2024). 또한, 독일은 이라크의 민간부문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법규, 열악한 인프라, 부족한 대출 접근성 등 불리한 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청년층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BMZ 2024). SDG 16번과 관련하여 독일은 이라크의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학계를 연결하는 대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BMZ 2024). GIZ는 이라크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대출 등 주요 개혁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귀환자 재통합 지원, 정규 이민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GIZ 2024).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이라크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 정리하면 〈표 Ⅱ-9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69] 먼저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이행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취약 아동·청년 및 커뮤니티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제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은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도 모두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 규모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적 성과 고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피난민, 전쟁 피해자, 취약계층 등 소외된 사람을 위한 포용적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2가지 목표를 지원하고 있는데, SDG 16번의 경우 이행수준은 낮으나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DG 1번의 경우에는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 둘 다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과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69)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논외로 하였다.

〈표 Ⅱ-91〉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	-	-	-	-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SDG 4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피난민, 전쟁피해자, 취약계층 등 소외된 사람을 위한 포용적 개발지원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SDG 1	높음	높음	적음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라크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CP인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성과지표상 SDG 3번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기초보건이 아닌 소아 심장수술 등 전문의료 분야에 특화된 병원 건립사업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라크가 중소득국으로 전환되면서 보건 수요가 기초보건에서 NCD(비감염성질환) 중심의 전문의료로 이동하고 있어 특정 SDG 목표와 매핑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DG 4번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와 달리 이라크 정부의 산업 다각화 전략에 따라 기술인력과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교육예산의 고정비용 비중이 높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이슬람 문화권의 특성상 디지털 교육이나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문화적·제도적 수용성이 낮아 이행 성과가 더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DG 16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외부 지원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2004년 도입된 디지털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완전한 통합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행에 있어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의 행정역량을 고려할 때 SDGs 지방 현지화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치안 문제로 인해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직접 협력사업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SDG 1번에 대해서는 이라크 남부 지역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에 제약이 있으며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식수· 위생 문제가 체감될 정도로 심각한바 향후 CP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의견을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사무소 인터뷰 결과 이라크 정부의 기술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실질적 관심은 석유 의존

탈피와 경제 다변화라는 국가 과제와 맞물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되,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자동차·IT·전자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술역량과 연계할 시 성과 창출 측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KOICA 지원 직업훈련원이 주무부처 인근에 위치하여 상징성과 정책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입지를 활용하여 정책연계형 모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피난민, 전쟁피해자, 취약계층 등 소외된 사람을 위한 포용적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SDG 16번과 SDG 1번이 혼재되어 있으나, 사무소 인터뷰를 통해 기존 평화·거버넌스 중심의 접근은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평화·거버넌스에서 기후변화 대응(SDG 13번) 및 식수·위생 분야(SDG 6번)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수·위생 문제가 현지에서 체감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고, 서부와 남부 지역은 만성적 빈곤과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약이 구조적으로 큰 만큼, SDG 1번과 연계하여 생계역량 강화, 커뮤니티 기반 수자원·위생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지원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라크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자치정부 간 정치적 역학관계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이므로, 국가 단위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 정치, 행정 구조의 차이를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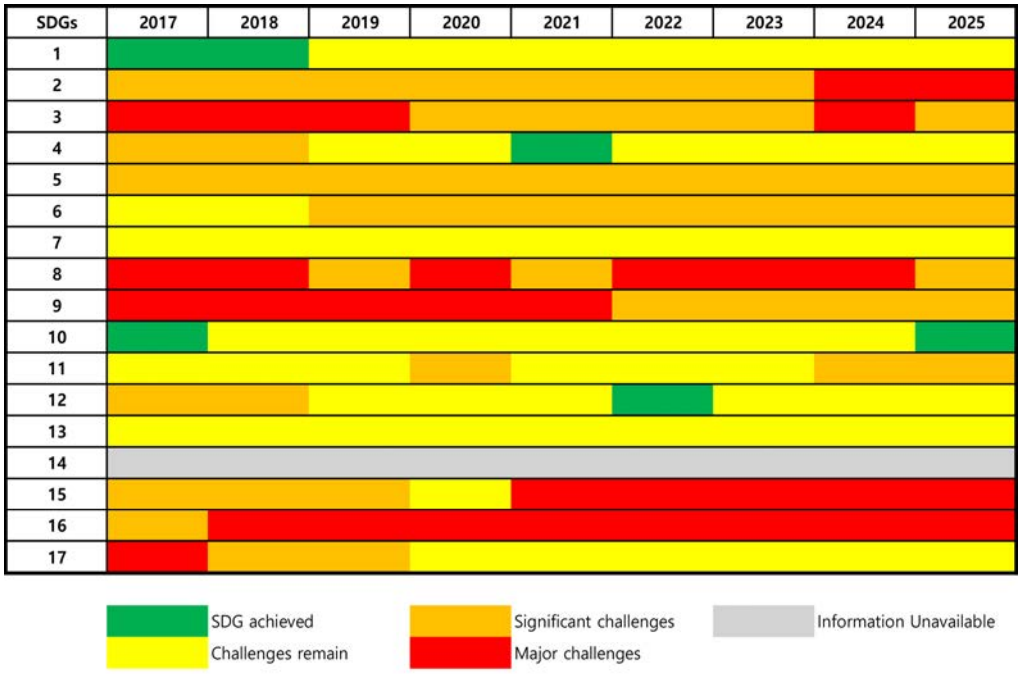
6) 키르기스스탄

(1) SDGs 이행 현황

2025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SDG 3, 4, 5, 6, 17번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천 명당 25명 미만)과 신생아 사망률(천 명당 12명 미만)은 2030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6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등록률은 2023년 56%에서 2024년 98%로 급증했다. 또한, 2021년 총선 이후 여성의 의원직 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성평등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25). 반면, SDG 7번과 12번은 2015년보다도 후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 목표들 또한 2015년에 비해서는 진전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 및 불평등 심화를 겪으며 후퇴한 바 있다. 특히 빈곤율의 경우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2019년 20.1%에서 2023년 29.9%로 크게 상승하였다. 극빈율 또한 5%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사회보조금을 50~200% 인상하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2030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키르기스스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 변화로 현재 진척이 보이는 목표는 SDG 3, 8, 9, 10, 17번이다. 그러나 여전히 17번을 제외하고는 목표달성이 요원해보인다. SDG 1번과 4번은 초기에 진전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후퇴한 상황에서 쭉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SDG 5, 6, 7, 12, 13번 또한 정체되어있다. SDG 2, 15, 16번은 빨강색으로 2030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SDG 이행 점수는 2024년 74.2점으로 2016년 72.64점에서 소폭 상승하였고, 167개국 중 48위를 기록하였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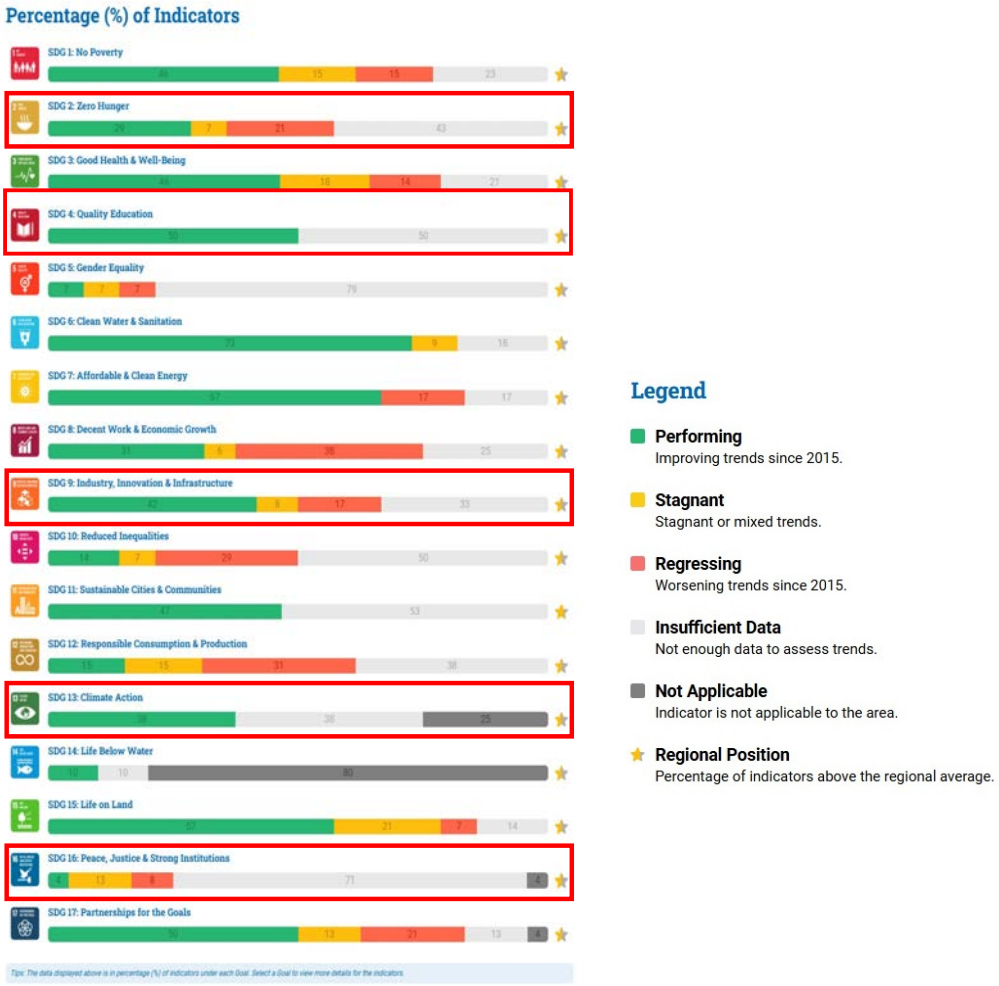
[그림 Ⅱ-210] 키르기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키르기스스탄 CP 프로그램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 및 녹색사회 전환'이다. 농촌프로그램은 SDG 2번, 디지털 공공행정 프로그램은 SDG 16번과 9번을 지원하며, 녹색사회 전환 프로그램은 SDG 13번과 4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KOICA는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경제 및 농촌 경제 집중 지원을 통해 해당국의 중기국가개발전략 달성을 지원하고 상위 중저소득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211] 2025년 키르기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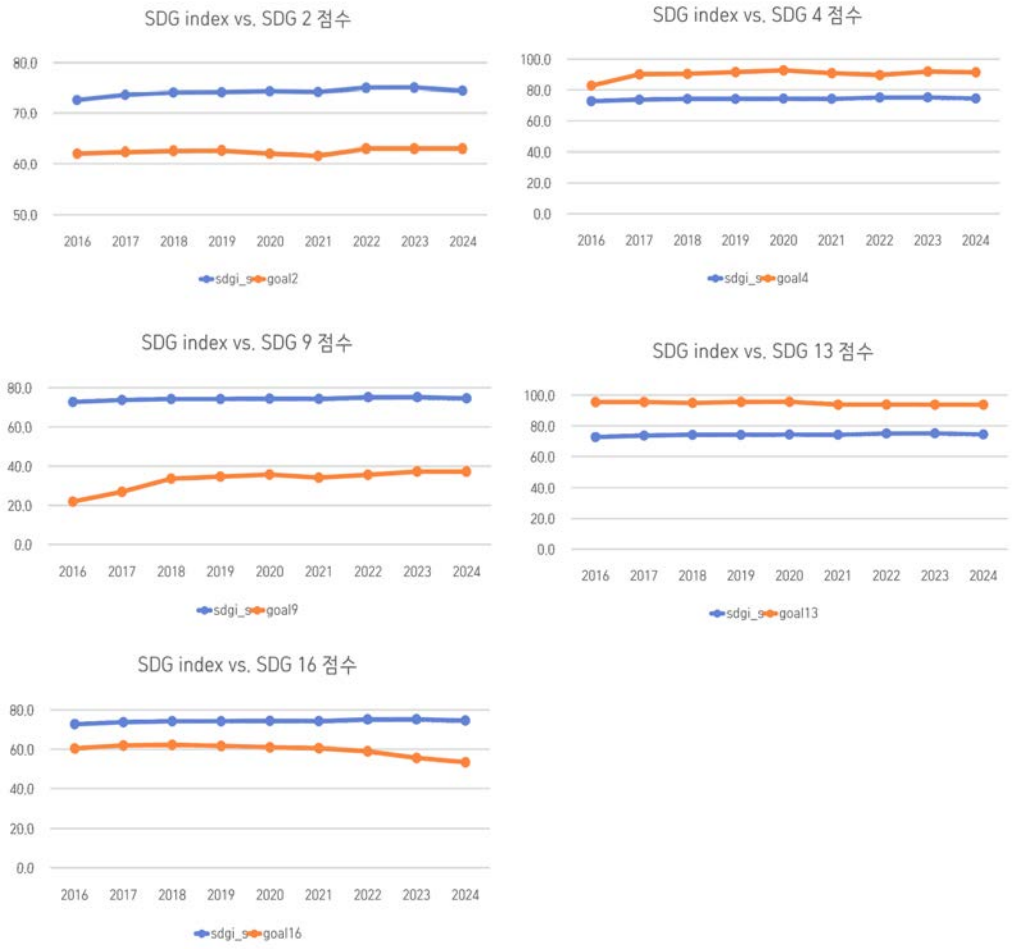
자료: ESCAP 2025

CP 관련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은 14개 지표 중 4개의 지표가 진척을 보이고 있고, 1개의 지표가 정체, 3개의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6개의 지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2.2.3, 2.2.2, 2.1.2번이며, 정체 지표는 2.1.1번이다. SDG 4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나, 50%에 해당하는 지표에 있어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으로 SDG 4.2.1번과 4.7.1번의 성과를 측정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SDG 9번에서는 9.b.1, 9.5.1번이 후퇴했으며, 9.1.2번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SDG 13번은 총 8개의 지표 중 절반이 넘는 5개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나머지 3개의 지표인 13.1.1, 13.1.2, 13.1.3번에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SDG 16번은 24개 지표 중 75%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목표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지표는 16.5.1, 16.3.2번이며, 정체된 지표는 16.a.1, 16.7.1, 16.5.2번이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키르기스스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12]와 같이 SDG 2번과 16번의 경우 SDG 이행 점수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SDG 16번은 계속 점수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SDG 9번의 경우 2~30점대를 기록하며 SDG 이행 점수와는 현저한 점수 차를 보인다. 반면, SDG 4번과 SDG 13번은 90점대의 점수를 기록하며 SDG 이행 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Ⅱ-212] 키르기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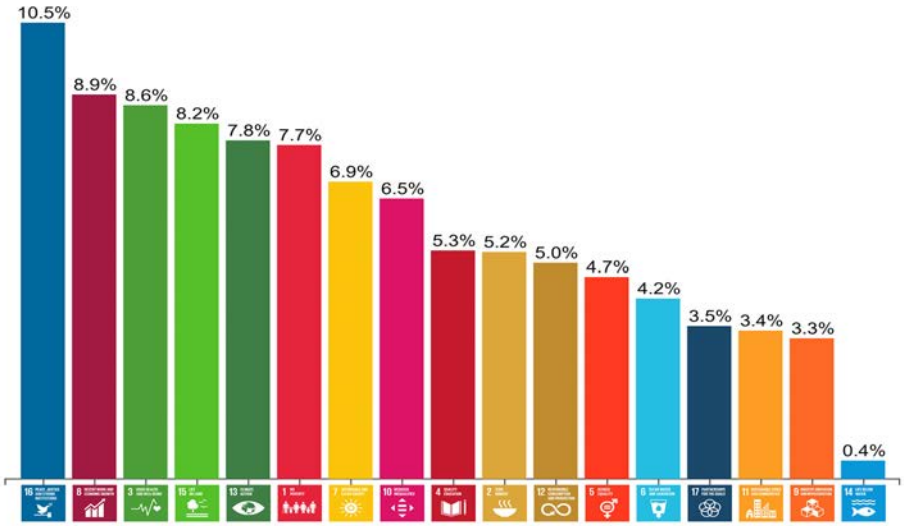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25년 VNR에 나타난 키르기스스탄의 SDGs 전략 방향성은 크게 '인적자본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회복력 확보'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25). 키르기스스탄은 먼저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기 국가전략(2018-2040)을 마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 깨끗한 환경,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강조해왔다. 또한 최근 중기 국가개발전략에 해당하는 '키르키즈 공화국 2030년까지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전의 중기 전략(2026년까지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이후 사회 서비스 복구와 경제 안정화 중심이었다면, 동 전략은 수력, 신재생에너지, 농업, 디지털정부 등 우선 육성 분야의 구체적 사업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실행체계에 있어서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실행력을 강조하며 성과지표와 예산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외교부 2025).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하여 키르기스스탄의 2020년과 2025년 VNR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Ⅱ-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6, 8, 3, 15, 13번이 상위 50%에 드는 SDG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VNR에서 해당 5개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과 경제성장 및 양질의 고용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화두임을 알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와는 SDG 13, 16번이 겹치며, 그밖에 지원 목표인 SDG 2, 4, 9번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 관심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13] 키르기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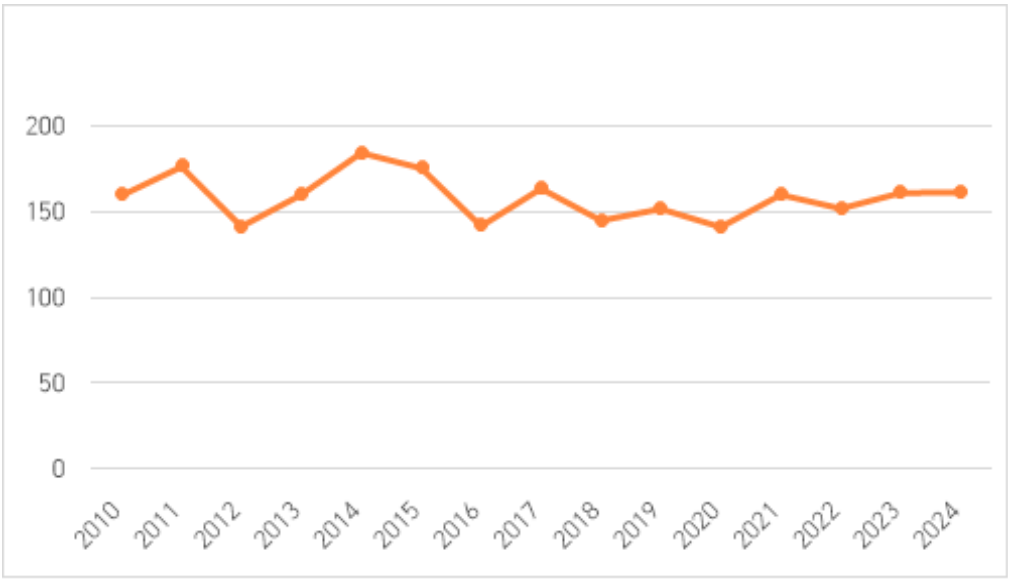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키르기스스탄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적개발재원 금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50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큰 차이 없이 매년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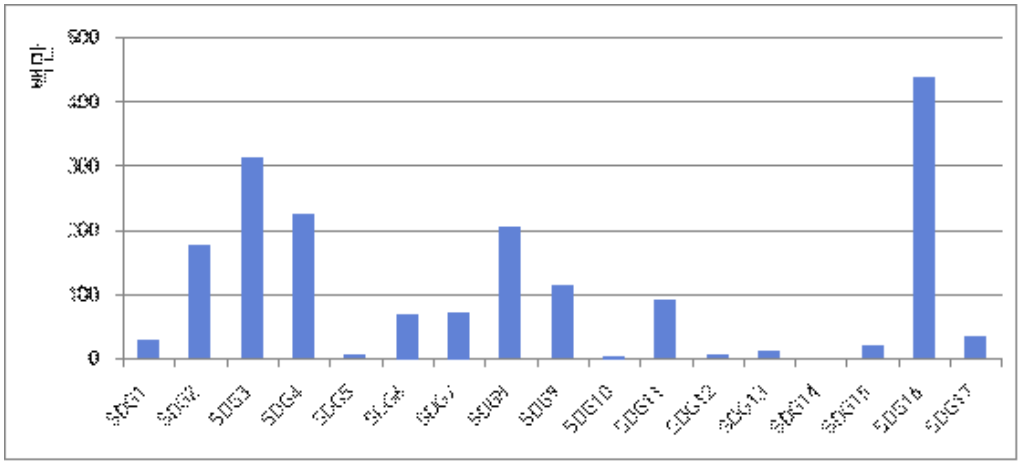
[그림 Ⅱ-214] 키르기스스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16, 3, 4, 8번 순으로 거버넌스, 보건, 교육, 경제성장에 많은 지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인 SDG 4번과 16번은 공여국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SDG 목표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 SDG 2번과 9번, 13번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Ⅱ-215] 키르기스스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Ⅱ-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과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 SDG 4번과 13번은 독일, SDG 9번은 일본이었다. 네 개의 SDG 지원 ODF 금액을 합한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SDG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Ⅱ-92〉 키르기스스탄 SDG 2, 4, 9, 13, 16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9 지원	SDG 13 지원	SDG 16 지원	합계
오스트리아	1	-	-	-	-	1
핀란드	4	-	-	-	6	11
프랑스	-	6	-	-	-	7
독일	6	88	17	7	24	142
일본	23	43	69	1	27	164
한국	8	16	3	-	20	47
영국	1	2	-	-	40	42
미국	121	51	17	-	268	457
기타	11	17	8	2	50	88

자료: AidData를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2023년 기준 미국은 키르기스스탄에 53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원조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지원하는 47개 중저소득국가 중 32위에 해당한다(ForeignAssistance.gov 2025).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영역은 △보건과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이다. 이어서 △경제성장, △교육과 사회 서비스, △평화 및 안보를 지원하였다. SDG 목표 중 3, 4, 8, 9, 11번, 그리고 16, 17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USAFacts 2025). 세부 지원내역을 들여다보면, 보건에서는 결핵과 코로나19 대응, 에이즈, 영양과 관련해 지원하고 있다.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에서는 법치주의 및 인권, 거버넌스, 시민사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서는 주로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영역에서는 주로 기초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평화 및 안보에서는 안정화 및 안보섹터 개혁을 지원하고 있다(USA Facts 2025).

키르기스스탄 CP가 지원하는 SDG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SDG 2번과 관련하여 USAID는 5개년 사업인 키르기스 농업무역 활동(Kyrgyz Republic Agro Trade Activity, KATA)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산량 증진 및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지원하였다(U.S. Embassy Bishkek 2024b). USAID는 SDG 13번과 관련해서는 2024년 2,400만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인 'Green Solutions 활동'을 발표하였는데, 키르기스스탄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U.S. Embassy Bishkek 2024a). 이 외에도 미국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 따르면,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역 내 리더가 되겠다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전문성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녹색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2-3). 그러나 ODA를 통한 지원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국인 투자자 보호 및 원활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개혁, 부정부패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5).

다만, 트럼프 2기가 USAID를 해체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중앙아시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USAID 지원 프로그램의 69%가 중단되었다(Jalolova 2025).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등이 중앙아시아를 오랜 기간 지원해 왔으나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증가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가 USAID의 부재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관건인 상황이다(Jalolova 2025).

② 일본

일본은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회의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성장의 질에 중점을 둔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일본은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품 대부분이 가공수준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축산품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발전이 더딘 것에 주목하여 농산 및 축산 가공 산업을 증진하고 산업 다각화 지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이 SDG 2번, 9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은 SDG 4번과 9번과 연계하여 동 분야의 인력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SDG 16번과 관련하여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보건 의료시스템 강화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a, 2022b). 이 밖에도 일본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표 Ⅱ-93〉과 같다.

〈표 Ⅱ-93〉 일본 JICA의 키르기스스탄 지원 분야 및 구체 내용

지원 분야	프로그램	구체 내용	SDGs
농업 및 산업 활성화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 수출 증진	농업 생산량 증진 및 수출을 위한 체계 마련, 농산 및 축산 가공 산업 활성화, 농업 가치사슬 구축	2
	산업 진흥 및 투자 환경 개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경제다각화를 위한 역량 개발, 경제정책, 민간 개발 분야에서 인력 개발	8, 9, 11
산업 다각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증진	키르기스스탄의 자연 및 기후 조건에 부합한 도로·교량 건설 및 재건, 도로 관리 및 재해방지, 사고예방 역량강화	9
거버넌스 및 정책 기획역량 강화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입안을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e-거버넌스 시스템 도입 지원, 선거 지원, 코로나19 사회경제적 대응 지원	3, 4, 5, 9, 16,
사회 서비스 개선	기초생활필요(Basic Human Needs, BHN)을 고려한 지원	보건, 교육, 장애인 지원 영역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사회보장, 인간 안보 지원,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	3, 4, 6, 11, 13
	사회 부문 재건	2010년 인종간 충돌로 인해 파괴된 남부 지역 모자보건시설 재건	1,3, 6
지역간 협력 증진	환경 및 자연재해 예방	관광자원인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역량강화, 개발 및 환경 보존의 조화, 중앙아시아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 증진	1, 2, 5, 9,11,13, 15
	국경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테러리즘, 마약밀매, 인신매매 및 감염 등 초국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	1, 16, 17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b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요약 정리하면 〈표 Ⅱ-9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의 이행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프로그램은 2가지 목표를 지원하고 있는데, SDG 16번은 이행수준은 낮으나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SDG 9번 또한 이행수준은 낮으며 정책적 관심도 또한 낮고, 공여국의 지원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과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 및 녹색사회 전환' 프로그램은 SDG 13에 대해서는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은 높은 반면,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적어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SDG 4의 경우 이행수준은 높은 반면 정책적 관심도는 낮고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9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 및 녹색사회 전환	SDG 13	높음	높음	적음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무소는 SDG 2번에 대하여 키르기스스탄에서 농업이 타 분야에 비해 성장이 더딘 편이긴 하나, 농촌 거주인구가 총인구의 57%를 차지하고, 농업 고용인구가 17%에 달하는 등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SDG 2번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SDG 16번에 대해서는 키르기스스탄 내 KOICA 프로젝트 이외에도 디지털 분야를 접목한, 즉 SDG 9번의 일부 지표에 해당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디지털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SDG 16번과 13번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달성 의지는 높으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였다. SDG 9번과 SDG 4번의 경우 각각 SDG 16번과 SDG 13번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활용될 뿐, KOICA 사업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 및 녹색사회 전환' 프로그램에서 SDG 4번은 부수적으로 활용될 뿐, 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SDG 3번에 해당하는 보건 분야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SDG 4번에 있어서는 특히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수요가 크며,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초중고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수학 과학 교과과정도 보강하는 등 대통령 이니셔티브 차원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국의 관심이 낮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OICA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SDG 2번 달성을 목표로 농림수산업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을 비춰볼 때 SDG 2번은 이행수준 측면, 협력국의 수요 측면, 공여국의 지원 규모 모두 낮은 상황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한다면,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2020년 대비 2025년 VNR에서 SDG 2번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 화두가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소 인터뷰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적 특성상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SDG 2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된다면 KOICA의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으로 유형이 조정되며,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과의 사업 중복을 피한다면, 단순히 농업생산량을 증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DG 13번(기후) 또는 SDG 9번(IT)과 연계하여 기후회복력 있는 농업 혁신을 통해 농산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농업생산량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또한 중요한데 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보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고, 또한 농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 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공공행정 프로그램'의 경우 SDG 16번은 달성하고자 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정책적 의지는 높으나 성과가 부진한 영역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부패를 줄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는 동 CP가 지원하는 9.c번의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키르기스스탄 정부 내 디지털 공공행정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역량이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시 역량강화를 사업 요소로 포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실현 및 녹색사회 전환 프로그램'은 SDG 13번과 SDG 4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SDG 4번은 대기질 개선 사업에서 국민의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캠페인 실시 등 보조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DG 13번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산악국가 이니셔티브 수립과 탄소 중립 선언, 기후회복력 확보가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된 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할 때, SDG 13번에 대한 수요와 이행수준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제적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OICA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자원 관리 및 기후적응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국제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이 동 프로그램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SDG 13번 또한 키르기스스탄 내 인적자원이 부족한 영역이므로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을 사업 요소로 포함한다면, SDG 13번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소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건 분야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CPS 및 CP 개편 과정에서 SDG 3번을 정식 지원 목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보건을 연계하는 접근을 통해 SDG 13번과 3번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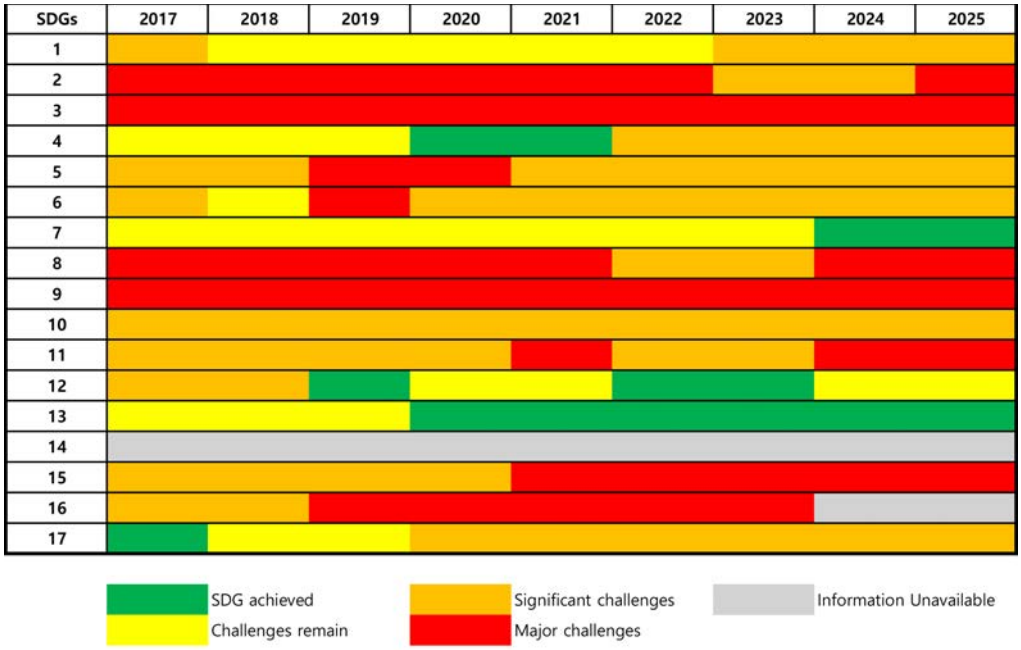
7) 타지키스탄

(1) SDGs 이행 현황

타지키스탄의 SDGs 이행 현황은 2023년 발표된 VNR에 따르면 SDG 1, 7, 12, 13번에 있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타지키스탄은 2015년 31%였던 빈곤율이 2022년 22.5%로 꾸준히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 차례 주춤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3년 기준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약 9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산업 생산량은 2015~2022 사이 2.7배 성장하고 제조업의 GDP 비중도 10.7%에서 15%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타지키스탄은 공공행정 및 제도 개혁으로 세금 감면 등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유효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타지키스탄은 전력의 90% 이상이 수력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전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현재 국민의 99.5%가 전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는 반면, 여전히 사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지역, 성별,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하고 농촌지역은 여전히 빈곤 위험에 취약하며 전체 가구의 약 25%가 여전히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산업 다각화 측면에서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SDSN에서 발표하는 타지키스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Ⅱ-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 색깔 변화를 살펴보면, 진척을 보이는 목표는 SDG 7, 13번 목표와 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12번 목표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목표들은 주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7번 목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 3, 8, 9, 15, 16번 목표의 경우 여전히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SDG 이행 점수 점수는 2024년 68.1로 2016년 66.41에서 소폭 상승하였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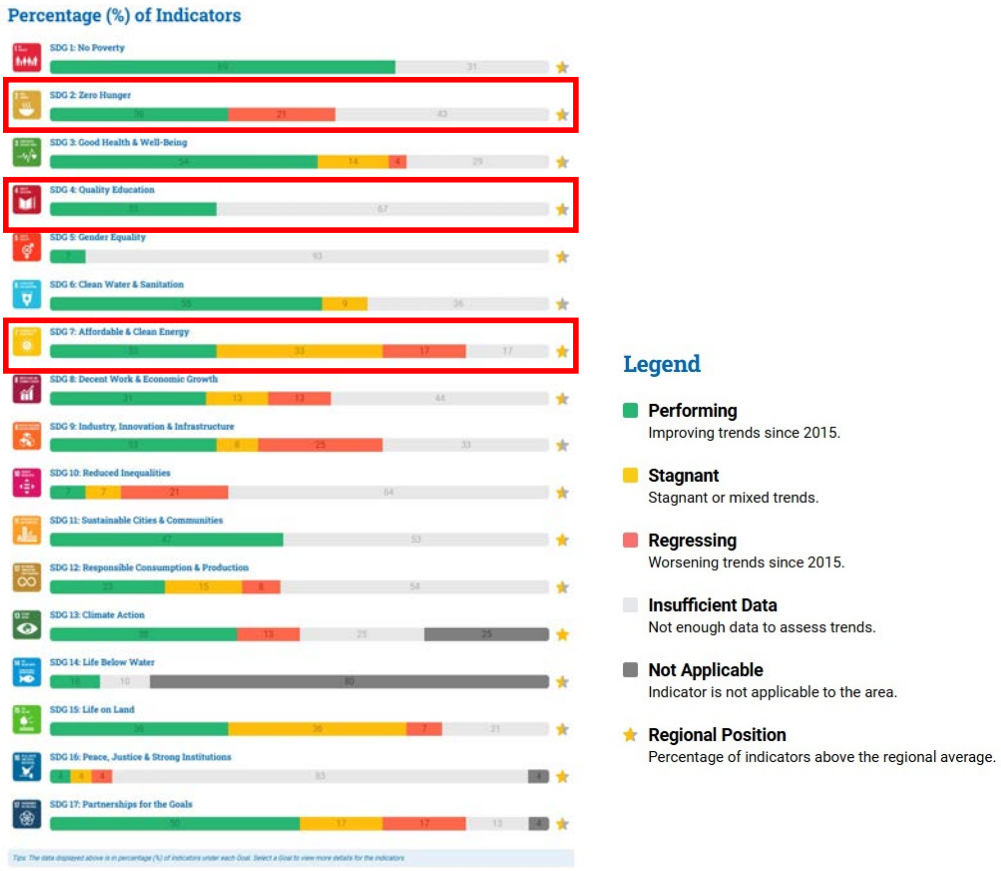
[그림 Ⅱ-216] 타지키스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가 타지키스탄에서 실시하는 CP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농림업 가치사슬 형성', '지속가능한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이다. 이는 각각 SDG 7번 지속가능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2번 기아종식, 4번 양질의 교육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217] 2025년 타지키스탄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ESCAP 2025

CP가 지원하는 각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SDG 2번 목표에서는 2.1.2, 2.2.2, 2.2.3번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43%에 해당하는 지표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SDG 4번에서는 교육 단계별 이수율, 성별에 따른 조직학습 참여율(초등 입학 연령 1년 전), 연구분야 및 유형별 장학금에 대한 ODA 금액 규모, 학령전 및 초등 교사 자질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이밖에 지표 중 67%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SDG 7번에서는 7.1.1이 99%로 정체되었으며, 7.b.1번에서도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율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펴본 결과, CP 성과지표로 연계된 SDG 지표 가운데, 7.1.1번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충분

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성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도 SDG 5, 10, 11, 12, 13, 16번의 경우 50% 이상의 지표가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제출한 VNR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37개의 지표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의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북부 및 중앙아시아 소지역의 평균 SDG 데이터 가용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88).

[그림 Ⅱ-218] 타지키스탄 SDG 데이터 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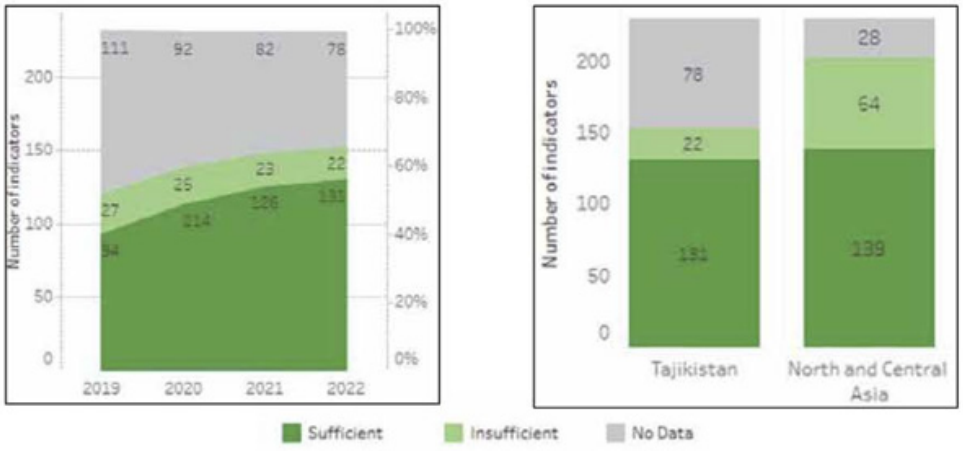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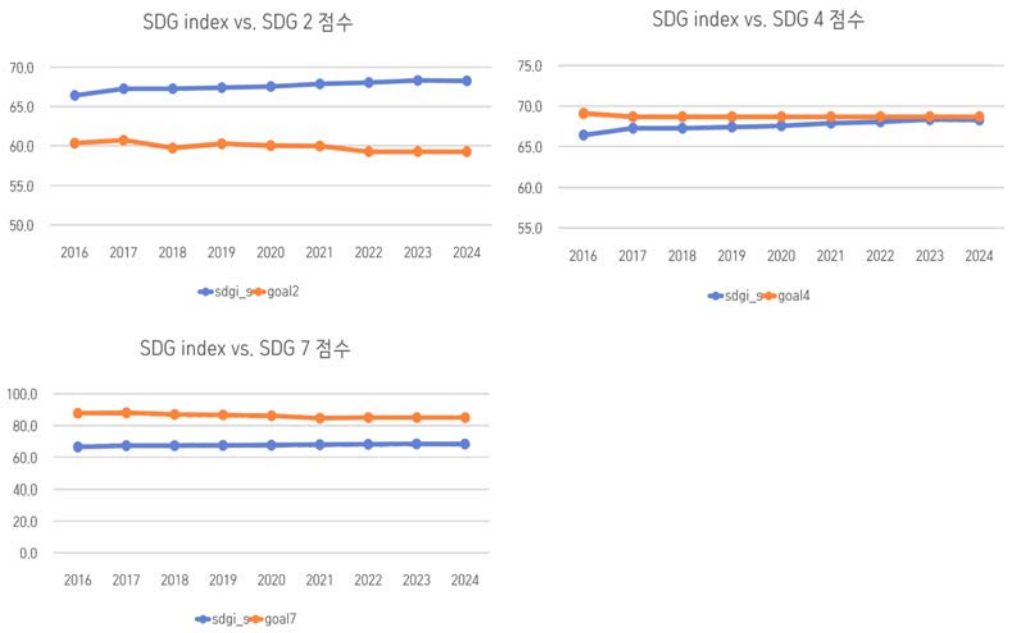
Figure 3 SDG data availability in Tajikistan (2019–2022)[72]

Figure 4. Tajikistan vs. subregion data availability in 2022

자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88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타지키스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번의 점수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SDG 4번의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SDG 이행 점수와 엇비슷해지고 있다. SDG 7번이 유일하게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높은 이행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19] 타지키스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타지키스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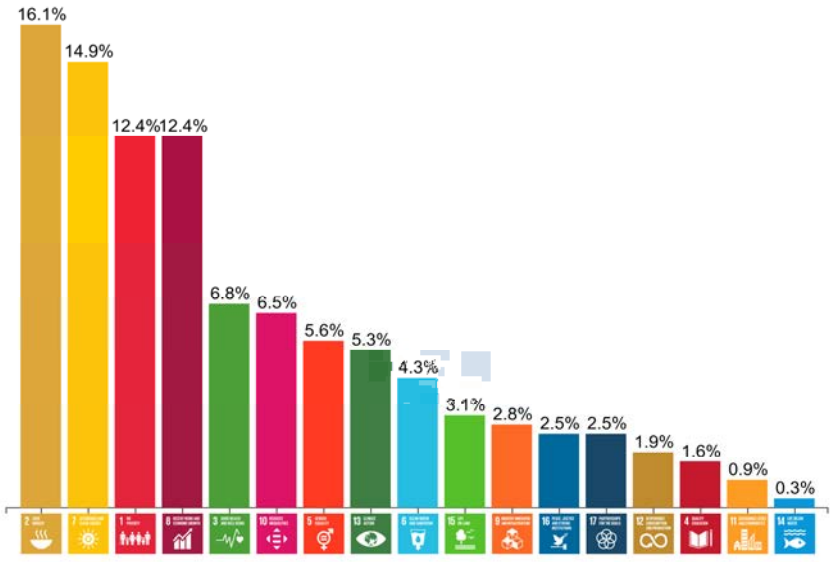
타지키스탄은 SDGs의 이행을 위해 국가개발전략 2030(NDS-2030)을 마련하였다. 동 전략은 타지키스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웠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것(SDG 7번 관련), 둘째, 통신과 교통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통 요충지로 전환하는 것(SDG 9번 관련), 셋째,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SDG 1, 2번 관련), 넷째, 디지털 및 녹색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구축, 교육과 고용의 연계 등을 통해 생산적 고용을 확대하는 것(SDG 8번 관련)이다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개발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2016~2020)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로의 전환 단계로 산업, 농업, 금융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2단계(2021~2025)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교통 회랑의 건설 및 재건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단계(2026-2030)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의 발전을 통해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과 연계하여 녹색경제발전전략(Green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for 2023~2037)을 수립하여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빈곤율을 낮추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동 전략에서는 규제 개혁, 천연자원 활용 최적화, 투자 유치, 최신 기술 도입,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 2배 확대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에너지, 농업, 교통 및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발굴과 고용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및 녹색 기술 관련 다양한 기술협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SDG 지표 측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 및 사회통계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해 2017년과 2023년 VNR에서 나타난 SDG 목표별 키워드 분석 결과 [그림 Ⅱ-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 7, 1, 8번이 상위 50%에 드는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과 기아 종식이 여전히 타지키스탄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정책 목표임을 알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타지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 2030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림 Ⅱ-220] 타지키스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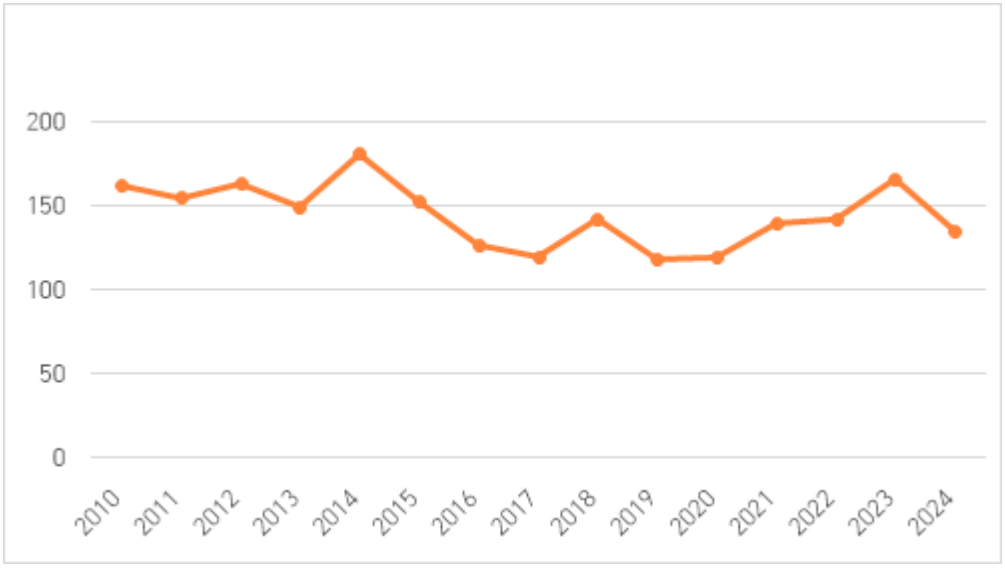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타지키스탄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은 [그림 Ⅱ-2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4년 가장 큰 규모의 지원액이 제공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50백만 달러를 밑돌다가 2023년 지원액이 반등한 후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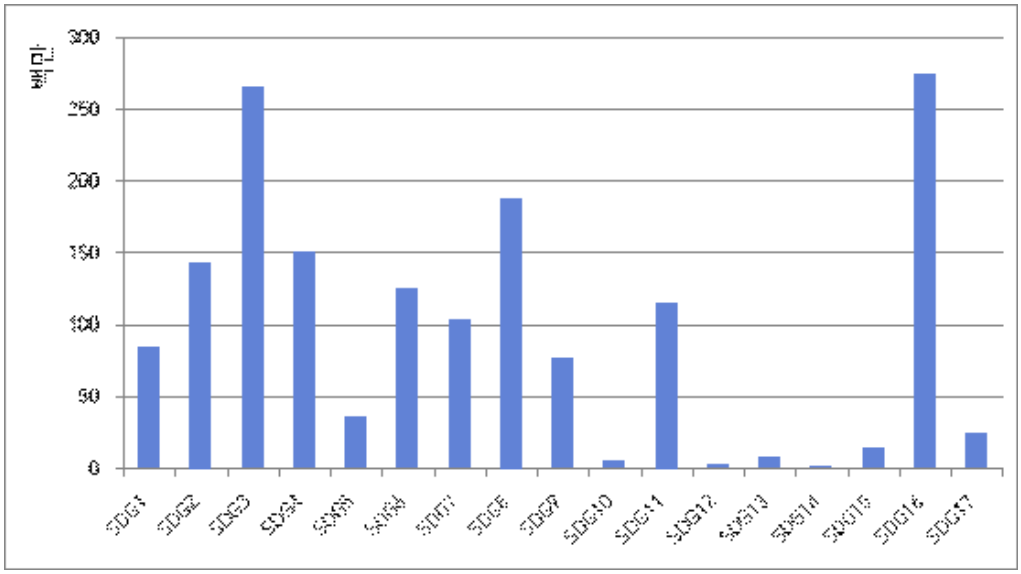
[그림 Ⅱ-221] 타지키스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이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16번과 3번이며, 8번과 4번 목표가 그 뒤를 잇는다. 해당 SDG와 관련된 지원 금액은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17.01%, 16.44%, 11.67%, 9.34%를 기록하며 합산 시 상위 50%의 지원금액을 차지한다. CP가 지원하는 3개 목표 중 SDG 4번만 공여국의 상위 지원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222] 타지키스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동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별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해보았다. 〈표 Ⅱ-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로 SDG 2번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미국, SDG 4번과 SDG 7번은 독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개의 SDG 지원금액을 합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며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이에 상위 공여국 2개국인 미국과 독일이 타지키스탄에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Ⅱ-95〉 타지키스탄 SDG 2, 4, 7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4 지원	SDG 7 지원	합계
오스트리아	1	1	-	2
독일	10	74	42	126
일본	15	24	27	66
한국	-	3	9	12
노르웨이	-	2	7	9
스웨덴	2	-	-	2
스위스	2	1	9	12
영국	4	1	-	5
미국	105	41	8	154
기타	3	3	-	6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2023년 기준 미국은 타지키스탄에 88.5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원조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지원하는 29개 저소득국가 중 22위에 해당한다(ForeignAssistance.gov 2025). 미국이 타지키스탄에 가장 많이 지원한 영역은 △경제성장이며, 그 뒤를 이어 △보건, △평화 및 안보, △교육과 사회 서비스,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를 지원하였다(USAFacts 2025).

경제성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며, 거시경제,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보건에서는 결핵, 영양, 코로나19 대응, 에이즈, 모자보건, 식수와 위생과 관련해 지원하고 있다. 평화 및 안보에서는 반테러, 안정화 및 안보섹터 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에서는 법치주의 및 인권, 거버넌스, 시민사회에 지원하고 있다(USA Facts 2025). 미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통합국가전략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소 속도는 둔화되었고 좁은 수출 기반과 송금에 의존한 현 경제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이에 미국은 민간 부문에 역량을 부여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타지키스탄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섬유, 관광, 식품 가공,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타지키스탄 정부와 협력하여 민간 부문을 확대하고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USAID가 새롭게 런칭한 1,800만 달러 규모의 고용 및 기업개발활동 이니셔티브(Employ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Activity, EEDA)가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EEDA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도입, 투자 확대, 시장 연계 강화를 통해 섬유, 식품 가공 및 IT 분야의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5천 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개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 투자 천만 달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U.S. Embassy Dushanbe 2024). 또한, 미국은 타지키스탄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교육, 보건, 영양에 있어 기술 지원,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타지키스탄의 빈곤 감소 및 포용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CP가 지원하는 SDG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DG 2번과 관련하여 미국은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농업 부문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동 이니셔티브 아래 농업 및 토지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토지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소농민 소득 증대와 여성 경제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U.S. Embassy Dushanbe 2017),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에서는 카틀론 서부 지역의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상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U.S. Embassy Dushanbe 2022). 또한 식량안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가격 충격에 대한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현금 지원을 통해 취약 가구의 즉각적인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하였다(U.S. Embassy Dushanbe 2023). SDG 4번에 있어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와 함께 역량에 기반한 교육을 구현하고 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였다. 모든 아동에게 무료의 공평하고 질 높은 초등 및 중등교육을 보장하고 교사의 자격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교육 관리 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및 국가학습평가(National Learning Assessment, NLA)와 같은 정부 소유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교육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USA Facts 2025). SDG 7번과 관련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 협력 및 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타지스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에너지 시장을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USAID Power Central Asia 2025). 그러나 타지키스탄 또한 USAID의 해체로 2025년 5월 기준 USAID 지원 프로그램의 78%가 중단된 상황이다(Jalolova 2025).

② 독일

독일이 타지키스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훈련 및 고용과 △환경 및 기후변화, △보건이다(GIZ 2025). GIZ는 녹색경제발전을 목표로 타지키스탄 농촌지역의 천연자원 보전을 지원하고 유기농 면화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가치사슬 확장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자격 획득 및 소득·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GIZ는 농업 분야에서 기술과 지리정보를 활용해 파종 시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타지키스탄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중점 사업은 모자보건 분야에서 의료체계를 안정화하는 사업인데, 교육 및 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달을 통해 1차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GIZ 2025).

독일은 SDG 2번과 관련하여 KfW가 농업개발 및 식량안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농민 및 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FINCA 2024). GIZ는 농업 분야 역량 강화 및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원 효율성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관리 및 관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도모하고 취약층의 영양 인식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GIZ 2025). SDG 4번에 대해서는 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하여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점을

두었다. GIZ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설, 섬유, 서비스업 등 실용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GIZ 2025). SDG 7번과 관련해서는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공공건물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 및 금융상품을 지원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도록 했다(KFW 2018, 2025). 또한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부문 전문가 및 기관의 기술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간 에너지 교류와 무역을 촉진하는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GIZ 2025).

독일은 BMZ 2030 개혁 전략에 따라 타지키스탄과의 양자 개발협력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포괄적인 개별 국가원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보다 양자협력 대상국의 수를 줄여 특정 주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유럽연합과의 공동 지원으로 일부 기술협력 및 재정 지원 프로젝트는 지속되며, 중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타지키스탄에 대한 지원도 지속될 전망이다(Federal Foreign Office 2025). 현재 독일은 KfW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사업, 기후변화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녹색 중앙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Federal Foreign Office 2025). 양자간 개발협력이 종료됨에 따라 독일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지원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자적 차원 또는 비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BMZ 2021).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타지키스탄 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와 통합하여 〈표 II-96〉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7번의 경우 이행수준과 정책적 관심도는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은 적은 편이다. 반면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또 다른 목표인 SDG 4번은 이행수준은 높으나 협력국의 관심은 낮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편이다. 즉,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과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역량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또한 SDG 4번을 지원하고 있어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위한 농림업 가치사슬 형성'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은 이행수준은 낮으나 협력국의 관심은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은 적은 편이다. 즉, KOICA의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9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확충 및 역량강화	SDG 7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농림업 가치사슬 형성	SDG 2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지속가능한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지키스탄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타지키스탄의 개발 상황과 현장의 관점에서 CP 지원 목표별 이행수준, 협력국의 관심도, 공여국의 지원도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무소는 SDG 7번에 대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며, 주로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SDG 7번의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전력 보급률이 98%라고는 하나 두샨베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력난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소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에너지 생산량을 높여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투자 유치가 활발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무소는 SDG 4번의 성과에 대해서도 통계 수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에 대한 처우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육의 질, 교실과 기자재, 교재 보급률 또한 낮아 타지키스탄의 교육 환경이 열악함을 언급하였다. 우수한 인력의 유출 현상 또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디지털 분야에 있어 타지키스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여 AI, ICT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산하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력하다.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관련한 역량강화에 지원하고 있으며 KOICA 또한 IT 중심 직훈학교 예비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SDG 2번에 대해서는 농업이 타지키스탄의 근간 사업이며 식량안보지수가 타 국가 대비 양호한 편임을 언급하였다. 다만, 농업 기술과 인프라에 있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또한 하우스 재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SDG 7번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밖에 사무소는 타지키스탄의 보건 분야가 구소련 보건 시스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환자 데이터가 수기로 관리되어 디지털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 국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USAID 철수 이후 보건 분야의 지원 공백

이 발생하면서 타지키스탄 보건부의 KOICA에 대한 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대사관 또한 CPS에 보건 분야 추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헌분석과 사무소 인터뷰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을 위한 현대식 에너지 보급 프로그램',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경제발전 견인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현대식 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2배로 높여 총에너지의 80%를 수력,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유량 변화에 취약한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뛰어나 태양광 사업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먼지바람 등의 환경적 제약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핵심 과제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꼽고 있는 만큼, AI 및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야심찬 정책과 낮은 디지털화 수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원을 KOICA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 견인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타지키스탄의 물류채널 확보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철도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산간 지역이 97%를 차지하는 타지키스탄의 지리적 특성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철도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농림업 가치사슬 형성'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지원' 프로그램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의 식량안보지수가 양호하다고는 하나, 2023년 VNR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밀 소비량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25%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농법 및 기본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영역이므로 KOICA의 적극적인 개입과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하우스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SDG 7번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한 농업 인프라 확충과 관개 시설 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2023년 VNR에서 타지키스탄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인력 송출 및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024년 체결된 한-타지키스탄 인력송출 MOU와 한국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활용하여, IT, 녹색 기술 등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인력유출 문제를 한국과의 공식적인 인력 교류 및 역량강화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 정부의 AI, IT,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인재양성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교육을 매개로 양질의 일자리(SDG 8번), 산업 혁신(SDG 9번), 기후변화 대응(SDG 13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소 인터뷰를 통해, 타지키스탄은 구소련 시절의 낙후된 보건 시스템과 수기 데이터 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혜택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USAID의 철수로 인해 보건 분야의 지원 공백,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대사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현장에서 확인된 보건소 전력·디지털화 수요 등을 종합할 때 향후 CPS 및 CP 개편 시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현대화 사업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SDG 7번과의 연계를 통한 보건소 태양광 전력 지원, 보건 데이터 디지털화 등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높이면서 새로운 지원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8)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2018년 첫 번째이자 유일한 VNR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 의제 이행 현황을 평가하였다. 2020년에는 팔레스타인 중앙통계국(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CBS)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tatistical Report를 발간하여 SDG 지표별 통계를 공개한 바 있으나 공식 VNR로 제출하지는 않았다(PCBS 2020, UNSDCF 2023). 2024년 제출 예정이었던 차기 VNR은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간 적대행위 격화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SDSN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서도 팔레스타인은 데이터 결측으로 SDG 이행 점수 및 순위가 산출되지 않아(Sachs et al 2025), 타 국가 분석에서 사용한 정량적 비교 방법론 적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앞서 밝힌다.

(1) SDGs 이행 현황

2018년 VNR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244개의 SDG 지표 중 44.7%에 해당하는 109개의 지표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가용한다. SDG 4, 8, 16번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가용성이 높은 편이며, SDG 11, 12, 14번은 가용성이 매우 낮다(State of Palestine 2018). PCBS 2020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빈곤율(SDG 1번)은 2011년 38.8%에서 2017년 53.8%로 급증한 반면, 서안지구는 17.8%에서 13.9%로 하락했으며, 실업률(SDG 8번) 또한 가자지구는 29.7%에서 52.0%로 급등한 반면, 서안지구는 17.6%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CBS 2020). 교육(SDG 4번)에 있어서는 기초교육 보편화 달성에는 근접하였으나 유아교육 등록률은 34.2%에 불과하고 장애인 문맹률이 31.7%로 높고, 직업·기술교육 등록률은 2.6%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PCBS 2020, United Nations 2023). 또한 교육의 질적 격차와 가자-서안-동예루살렘 간 지역 격차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State of Palestine 2018). SDG 16번에 대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체감도 31.2%, 정치 참여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41.6%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PCB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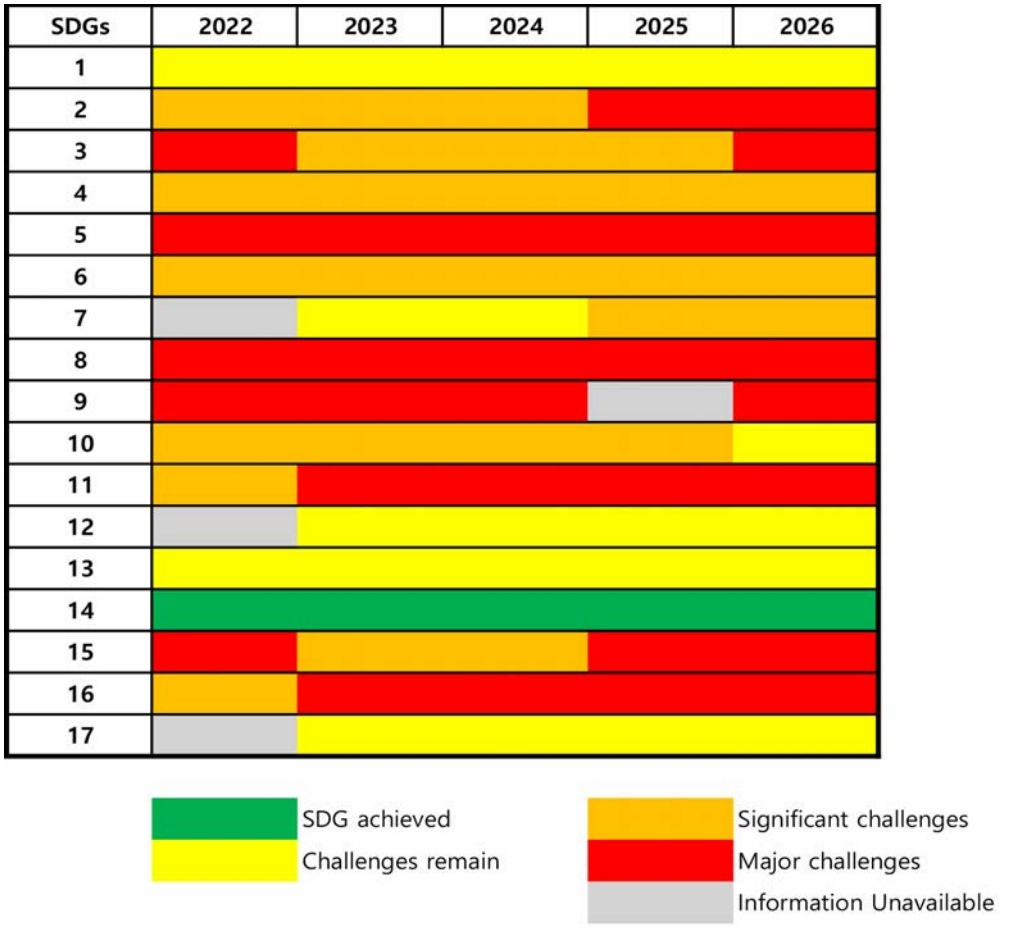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행위가 격화되면서 SDGs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점령지(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의 GDP는 2024년 전년 대비 27% 감소하여 2022년 수준의 70%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1인당 GDP는 2022년 대비 33% 하락하여 지난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15개월 만에 소멸되었다(UNCTAD 2025). 가자지구의 GDP는 2024년 전년 대비 83% 축소되었고 1인당 GDP는

$161로 하락하여 2005년 최고치의 6.4% 수준이 되었으며, 서안지구도 GDP 17%, 1인당 GDP 18.8% 감소로 17년간의 진전이 사라졌다. 2025년 8월 기준 가자지구에서는 기근으로 50만 명 이상이 재앙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학교의 88% 이상이 전면 재건을 필요로 하며 아동 658,000명이 21개월 이상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UNCTAD 2025, OCHA 2025, IPC 2025). 이와 같이 2023년 10월 이후 가자 교육체계는 붕괴하였고, 서안에서도 이동 제한과 재정 압박으로 주 2일만 수업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UNCTAD 2025). ESCWA·UNDP는 팔레스타인 인간개발지수(HDI)가 2022년 0.716에서 2024년 0.643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가자지구에서는 69년 이상의 인간개발 성과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NESCWA and UNDP 2024). SDG 16번에 있어서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이 와해되었으며, 2024년 1월~2025년 7월 사이 서안지구에서 약 4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팔레스타인의 공공부채는 42억에 달하며 체납금 누적액은 42.5억 달러에 이르러 재정 압박으로 인해 정부의 핵심기능 유지와 필수 공공재 제공에 위협을 받고 있다(UNCTAD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팔레스타인의 지난 5년간의 SDG 대시보드[70]를 살펴보면, SDG 14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체되거나 퇴보한 양상을 보인다. SDG 5번과 8, 9, 11, 16번은 진척 없이 계속해서 주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SDG 2, 3, 15번은 퇴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 팔레스타인은 제프리 삭스가 발간한 SDG Report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한 SDSN Arab region SDG Index and Dashboard Report에는 포함된다.

[그림 Ⅱ-223] 팔레스타인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22~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KOICA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CP 프로그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강화',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이다. 보육 및 교육 강화 프로그램은 기초교육 질 제고 프로그램과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서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SDG 4번을 지원한다. 공공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은 SDG 16번을 지원한다. KOICA는 팔레스타인의 인적자원 개발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정상국가로의 전환과 평화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CP 관련 SDG 목표별 진척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번은 10개 세부목표 중 3개의 목표(4.a, 4.c, 4.6번)가 2030 목표에 맞춰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4개의 목표(4.1, 4.2, 4.4, 4.5번)는 제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3개의 세부목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SDG 16번의 경우 12개의 세부목표 가운데 4개의 목표(16.1, 16.5, 16.6, 16.a번)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3개의 목표(16.2, 16.7, 16.10번)는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다. 16.3번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2030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나머지 4개의 세부목표는 데이터 불충분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Arab Development Portal 2026).

[그림 Ⅱ-224] 2025년 팔레스타인의 SDGs 목표별 지표 성과 추이



자료: Arab Development Portal 2026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SDSN은 데이터 결측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SDG 이행 점수 및 각 SDG 목표별 점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에 타 국가 분석 시 실시한 SDG 이행 점수 점수와 각 SDG 목표 점수 비교를 통한 SDG 목표별 이행 수준 판단은 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2018 VNR 및 2020년 PCBS 통계보고서의 지표, 2023년 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의 진척평가, 2025년 UNCTAD 보고서, 2024년 ESCWA·UNDP의 HDI 추정치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SDG 4번과 16번의 이행수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DG 4번과 16번의 이행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모두 낮음으로 평가된다. 결과 및 근거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97〉 팔레스타인 SDG 4번, 16번 이행수준 평가

	2023년 위기 이전	2023년 위기 이후	이행성과
SDG 4	기초교육 보편 접근성 달성했으나, 유아교육 34.2%·중등 74.5% 등 단계별 격차 상존	가자지구 학교 88% 재건 필요, 658천 명 아동 21개월 교육 배제, HDI 기준 69년 이상의 인간개발 성과 상실	중간 → **낮음**
SDG 16	2006년 이후 선거 부재, 입법회의 해산	재정적자 GDP 9.5%, 청산수입 17.6억 달러 보류, 가자 거버넌스 붕괴, 서안 39,847명 강제 이주	**낮음**

자료: PCBS 2020, State of Palestine 2018, UNCTAD 2025, UNESCWA and UNDP 2024, UNSDCF 2023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팔레스타인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세 개의 핵심 국가전략 문서, 즉 2018년 제1차 VNR, 2021~2023 국가개발계획(NDP), 그리고 2024년 9월 무스타파(Mohammad Mustafa) 총리가 임시연락위원회(Ad Hoc Liaison Committee, AHLC)에서 발표한 "Build Palestine" 전략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팔레스타인의 SDGs 전략 방향성은 '시민 최우선의 국가건설과 점령 종식 의지 표명', '회복력·점령으로부터의 이탈·클러스터 개발', '서안-가자 재통합·제도 전환·가자 재건·포괄적 경제발전' 순으로 변모해 왔다(State of Palestine 2018, 2021; Palestinian Authority 2024). 이는 SDGs 이행 기조가 점령 하에서의 점진적 국가건설로부터 위기 대응을 거쳐, 2023년 10월 가자 적대행위 격화 이후 재통합·재건·구조 개혁 중심으로 재정렬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 의제에 대한 공식 약속을 표명한 후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의 지도 하에 총리실 산하 국가 SDG팀을 구성하여 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 24개 조직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12개의 SDG 작업반이 설치되어 목표별 지표 매핑·모니터링을 담당하였으며,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이 지표 모니터링을 총괄하여 약 3,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운영하였다(State of Palestine 2018). 2018년 제1차 VNR에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Putting Citizens First)"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정책의제(NPA) 2017~2022를 SDGs와 연계하여 169개 세부목표 중 105개를 국가 우선순위로 식별하였으며, NPA의 3대 기둥((1) 독립으로의 길, (2) 정부 개혁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점령 하에서도 시민 중심 국가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tate of Palestine 2018).

2021년 NPA의 중간검토 이후 수립된 NDP 2021~2023은 '회복력, 이탈, 클러스터 개발을 통한

독립으로(Resilience, Disengagement, and Cluster Development towards Independence)'를 부제로 채택하여,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체계적으로 부과한 식민 구조로부터의 이탈(disengagement)과 각 주(governorate)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클러스터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동 계획은 제닌·칼킬리야의 농업, 헤브론·나블루스의 산업, 베들레헴의 관광, 가자의 해양·어업, 라말라·알비레의 금융·ICT 등 지역별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경제적 통합과 자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Prime Minister's Office 2021). NDP 2021~2023의 3대 축과 10대 국가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98〉 팔레스타인 NDP 2021-2023 3대 축과 10대 국가 우선순위

축	국가 우선순위
1: 점령 종식	1. 점령으로부터의 이탈 및 국가 실현 2. 분열 종식 및 국가 통일 3. 팔레스타인 국제적 위상 강화
2: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	4. 시민 중심 정부 5. 효과적 정부
3: 지속가능발전	6. 경제적 점령 이탈 및 클러스터 개발 7. 사회정의와 법치 8. 포용적·양질 교육 9. 포용적 보건 커버리지 10. 회복력 있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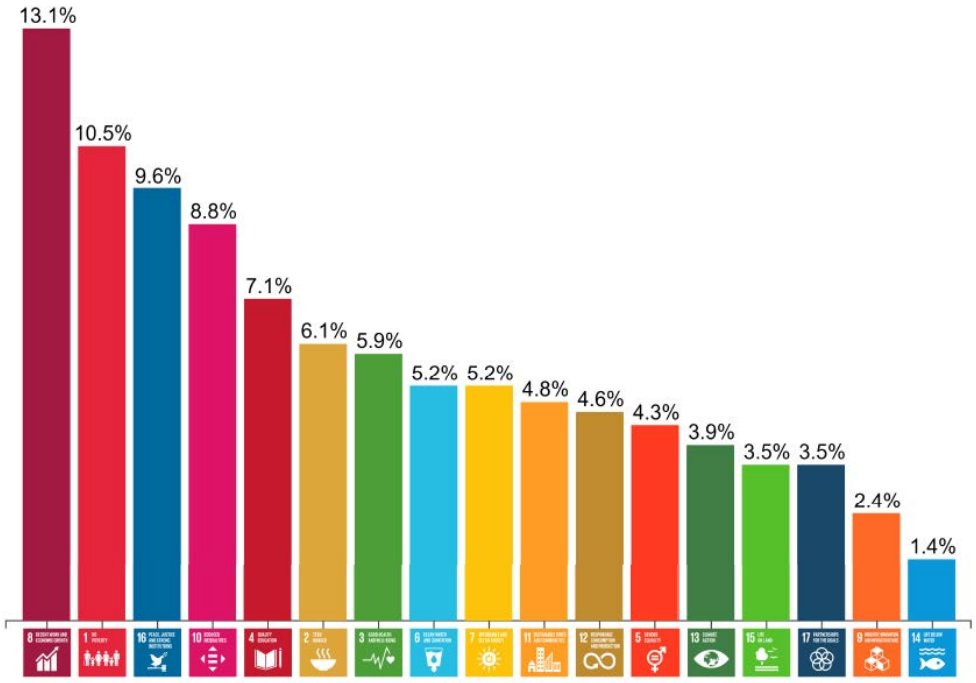
자료: Prime Minister's Office 2021 바탕으로 저자 정리

가장 최근의 전략문서인 "Build Palestine: Institution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2024년 9월)은 2023년 10월 가자 적대행위 격화 이후 도출된 새로운 국가건설 청사진으로,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핵심 구성요소(Key Building Blocks)"를 4대 기둥으로 제시한다. △서안과 가자의 재통합(One Palestine — 통합 거버넌스, 시민서비스, 자유롭고 안전한 통행, 영구적 운송·인프라 회랑), △제도 전환과 개혁(거버넌스·반부패·공공재정관리·법치·사법·기관 통합·지방정부 역량강화·민주주의·인권·보건교육 개혁·치안·디지털 전환·민간부문 주도 성장 등 10대 개혁 영역), △가자 복구·재건(긴급대응 6개월 + 재건 10년+, 가자재건청(GRA) 설립, 세계은행 운영 가자재건기금), △팔레스타인 포괄적 경제발전 프로그램(PCED — 향후 5~10년 내 GDP 두 배 확대,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료서비스 현지화, 디지털 전환, 사회정의·포용, 지방정부 지속가능성, 식량·농업용수·녹색 팔레스타인)이 그것이다(Palestinian Authority 2024). 특히 Build Palestine은 SDGs 이행과 직접 맞닿는 분야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35년 50%, 2050년 100%로 확대(SDG 7번), 의료서비스 현지화를 통한 외부 의료 의뢰 비용 감축과 국립암센터 설립(SDG 3번), STEM 점수를 3년 내 역내 최상위 수준 제고 및 시민·국가 교육 도입(SDG 4번), 세계은행 Business Ready 지수 순위를 2년 내 향상(SDG 8번), 반부패위원회·국가감사행정통제청의 완전한 독립 보장과 부패 무관용 원칙 적용(SDG 16번), 농업 GDP 기여율 향후 10년간 15%로 제고

및 농산물 수입의존도 감축(SDG 2번) 등이 대표적이다(Palestinian Authority 2024). Build Palestine은 또한 동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 직접예산지원을 위한 팔레스타인 공여국조정플랫폼, △세계은행 운영 가자재건기금, △민간부문 프로젝트 투자기구인 팔레스타인 민간부문 금융메커니즘이라는 세 개의 자금조달 플랫폼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지표는 NDP 2021~2023이 제시한 국가우선순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위기 이후 상황에서 이행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Prime Minister's Office 2021, Palestinian Authority 2024). 또한, SDGs의 지방 현지화를 위해 NDP 2021~2023의 클러스터 개발 패러다임은 지방정부단위의 역량을 활용한 경제·서비스 통합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Build Palestine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원 강화와 자유·공정 지방선거 실시를 별도 개혁과제로 명시하였다(Prime Minister's Office 2021, Palestinian Authority 2024).

점령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해 왔다. 재정 주권 부재(파리의정서 청산수입 체제), 영토 분절(A·B·C구역), 가자-서안-동예루살렘 단절, C구역(서안의 64%, 자연자원 대부분 포함) 접근 제한 등은 Build Palestine이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스타파 정부는 2024년 10월 Build Palestine의 후속·구체화 문서로 "국가개발·개혁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Reform)" 1단계 초안을 발표하여, 7개 범분야 개발 이니셔티브(△개발을 위한 교육, △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현지화,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디지털 결제, △농업·식량안보 등)와 4대 제도개혁 기둥(△재정·공공재정관리, △거버넌스·법치, △투자·기업환경, △기초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SDGs 이행과 국가건설 의제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Palestinian Authority 2024, World Bank 2025, UNCTAD 2025)

[그림 Ⅱ-225] 팔레스타인 VNR 및 국가개발계획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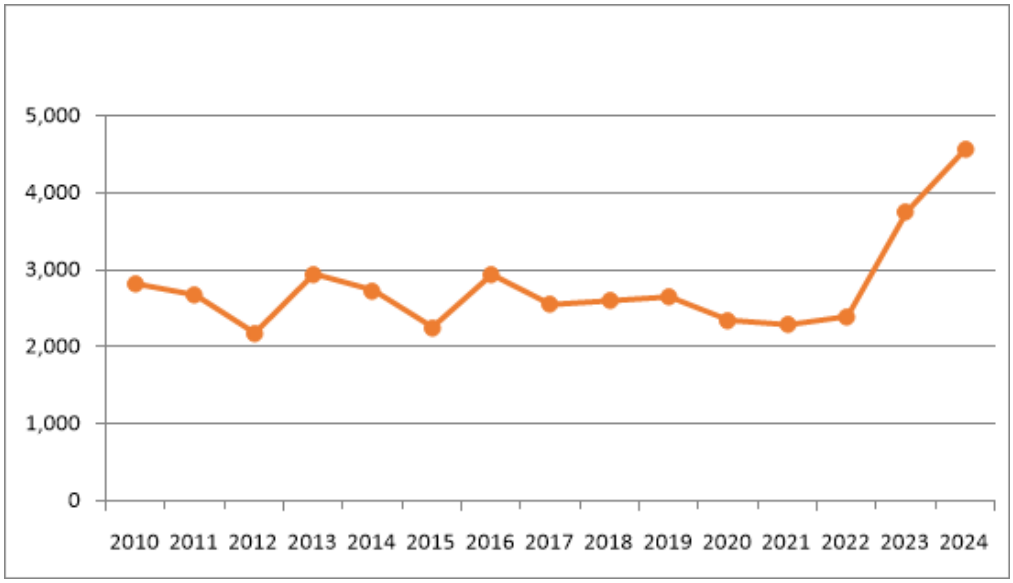
한편, SDG Mapper를 활용해 팔레스타인의 2018년 VNR, NDP 2021~2023, 그리고 Build Palestine 세 문서에 나타난 SDG 목표별 키워드 분석 결과 [그림 Ⅱ-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8번이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그 뒤를 SDG 1, 16, 10, 4번이 잇는다. CP가 지원하는 목표인 SDG 16번은 세 시기 모두 일관되게 최우선 영역으로 다뤄졌으며, SDG 4번 역시 NDP 2021~2023의 3번째 축과 Build Palestine의 인적자본·기술개발(Pillar 4 PCED 4번 행동)에서 핵심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팔레스타인의 ODF 금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ODF 규모는 22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왔다. 2020년과 2021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2023년 10월 적대행위 격화 이후 ODF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어, 2023년 약 37.4억 달러, 2024년 약 45.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91.4%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인도적 지원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같은 기간 직접 예산지원과 장기 개발재원은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개발 격차

의 심화를 보여준다(UNCTAD 2025, Palestinian Authority 2024). Build Palestine 문서는 2010년 이래 GDP 대비 외국원조가 약 90% 감소하였으며, 직접 예산지원이 2013년 13억 달러에서 2023년 3.58억 달러로 급감하였다는 점을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다(Palestinian Authority 2024). 또한 2024~2025 글로벌 ODA 환경 역시 악화되어, 2024년 DAC 회원국 전체 ODA가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으며 미국(-10%), 독일(-23%), 캐나다(-40%) 등 주요 공여국의 감소가 두드러진다(OECD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개편 또한 팔레스타인 지원 환경에 추가적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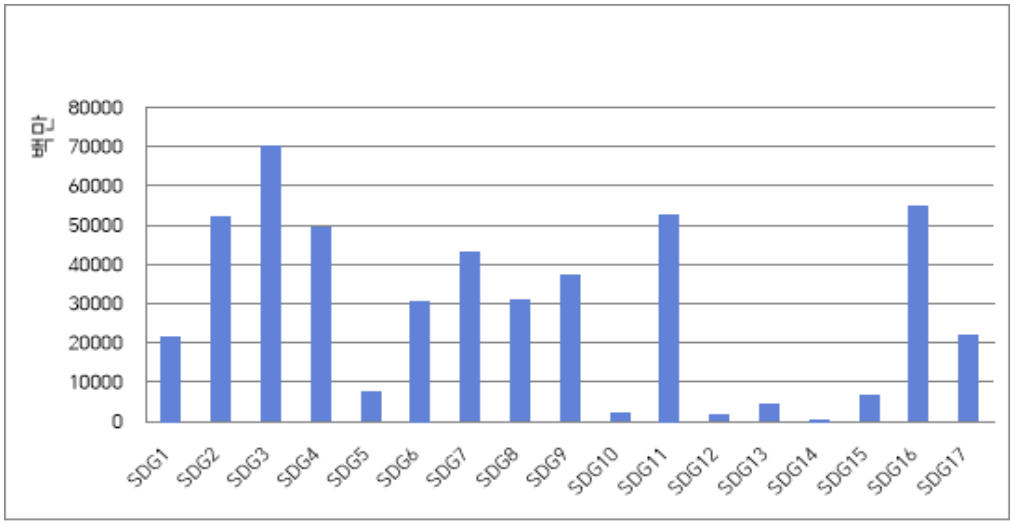
[그림 Ⅱ-226] 팔레스타인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s 목표와 매핑한 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Ⅱ-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3번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그 뒤를 SDG 16, 11, 2, 4, 7번이 잇는다. 팔레스타인 지원에서 보건, 평화·거버넌스, 도시 인프라, 식량지원, 교육이 국제사회의 핵심 지원 분야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환경, 기후, 평등 분야의 자원 동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을 드러낸다. 지원 비중이 상위 50%에 드는 목표는 SDG 3번과 16번으로, CP가 지원하는 SDG 16번은 상위에 있지만, SDG 4번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그림 Ⅱ-227] 팔레스타인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번에는 동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4번과 16번에 대한 DAC 회원국별 ODF 지원 누적 금액을 살펴보았다. 〈표 Ⅱ-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4번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독일, SDG 16번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두 목표에 대한 지원액을 합한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며 영국과 독일이 근소한 2, 3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각 SDG 목표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되, SDG 4번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99〉 팔레스타인 SDG 4, 16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미국	142	1208	1350
영국	70	521	591
독일	413	161	574
노르웨이	89	125	214
스웨덴	2	196	198
덴마크	3	167	170
벨기에	85	74	159
캐나다	29	113	142
네덜란드	17	122	139
기타	334	416	750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2023년 한 해 USAID를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약 1.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 자금을 의무화하였으며, 2023년 10월 가자 적대행위 격화 이후 2025년 1월까지 약 12억 달러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의무화하여 식수, 식량, 보건, 심리지원 등 긴급구호 분야에 집중 투입하였다(USAID OIG 2023, J Street 2025). 1993년 이래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제공한 양자 지원은 누적 76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대 양자 공여국 지위를 지켜왔다(GAO 2023).

미국의 SDG 16번 지원은 USAID의 거버넌스·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핵심 채널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전달 및 재정 개선, △핵심 정부기관의 견제와 균형·책임성 강화, △분쟁관리·완화 보조금 지원으로 구성되며, 서안의 다수 시·군과 부처, 사법기관에 거버넌스 개선 지원을 제공해왔다(USAID 2017). 사법 분야에서는 '개선된 팔레스타인 사법 프로그램(Enhanced Palestinian Justice Program, EPJP)'을 통해 일부 사법 서비스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여성 법원 사업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지원을 제공하였다. 분쟁관리·완화 보조금은 2004년 이래 113건이 시행되어 2012-2014년 기간 약 4만 명의 이스라엘인·팔레스타인인이 참여하였다(USAID 2017). SDG 4번 분야에서 미국은 양자 직접 지원보다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UNRWA) 분담금 등 간접 채널을 주로 활용해왔다(GAO 2023).

다만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원은 정치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AID 팔레스타인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되어 2019년 1월부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지원이 공식 정지되었다가,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개편 방침에 따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원은 다시 축소 국면에 진입하여 USAID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 Street 2025). SDG 16번 핵심 지원국으로 자리해 온 미국의 공백이 향후 팔레스타인 거버넌스·제도 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영국

영국은 2024/25 회계연도에 팔레스타인에 약 1.16억 파운드(약 1.5억 달러)의 ODA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3,400만 파운드는 UNRWA 분담금, 1,000만 파운드는 세계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팔레스타인 공공부문 급여 지원에 활용되었다(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영국의 SDG 16번 지원은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평화구축(peace-building) 프레임워크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여, 팔레스타인 공공부문 급여 직접지원, 사법 접근성 개선, 보안 부문 개혁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EPICS(Effective Palestinian Institutions and Civic Space) 프로그램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관 거버넌스 부문 기술지원, 시민사회 공간 보호, 여성 역량강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다(UK FCDO 2026). SDG 4번 분야에서 영국의 지원은 UNRWA를 통한 다자 채널이 중심으로, 2022~2028 UK Support to Palestinian Refugees 프로그램을 통해 약 59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기초교육·보건·구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정책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2021년 영국은 예산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24년 1월 UNRWA 직원 일부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일시 자금지원을 보류하였다(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2025년 4월 영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자치정부의 개혁 의제에 대한 정치·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UK FCDO 2025), 이는 향후 SDG 16번 분야에서 영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독일

독일은 2023년 한 해 팔레스타인에 약 3.6억 유로(약 3.8억 달러)의 양자 ODA를 배정한 DAC 최대 공여국 중 하나로, 그 중 BMZ가 2.5억 유로의 ODA, 외무부(AA)가 7,90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약 1.25억 유로가 GIZ와 KfW를 통해 양자 채널로 집행되었다(Donor Tracker 2023).

SDG 4번 영역에서 독일의 핵심 지원 채널은 GIZ의 TVET 분야 다년도 프로그램이다. 독일은 △ TVET 시스템 지원 프로그램 (GIZ 2024b), △수요지향 TVET 프로그램 (DO TVET) (GIZ 2024a), △직업교육 교사 연수(GIZ 2021), △팔레스타인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Fit for Jobs, 2015-2023) (GIZ 2023) 등 통합적 TVET 패키지를 운영해왔으며 팔레스타인 고등교육과학연구부, 노동부, 직업교육고등위원회, 국가TVET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구체적 성과로는 △노동시장 수요와 정합한 통일된 직업학교 커리큘럼 개발, △학술·직업·비형식 교육 자격을 통합 비교 가능하게 한 국가자격프레임워크(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설계 지원, △지자체 기반 11개 고용·직업훈련 위원회 설치, △500명 이상의 진로상담사 양성,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MIS) 구축 등이 있다(GIZ 2024b). 동예루살렘 알쿠즈 대학교(Al-Quds University)와 협력하여 전기공학·경영·디지털비즈니스·IT·산업공학 5개 분

야의 이원학위(dual study)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가자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태양광·자동차메카트로닉스·배관 등 단기 직업과정도 운영해왔다(GIZ 2023).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와 통합하여 〈표 Ⅱ-100〉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의 경우 이행수준은 낮으나, 자치정부의 정책 관심도는 높으며 공여국의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경우 SDG 4번과 동일하게 이행수준은 낮으며 정책 관심도는 높지만, 공여국의 지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100〉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강화	SDG 4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무소는 SDG 3번과 16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크지만, SDG 4번에 대한 관심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주요 양자협력 분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발전전략으로 보고 있어 직업기술 교육과 디지털 역량에 대한 수요가 크고,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운영 중단과 재개의 반복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무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KOICA는 기초교육보다는 직업훈련·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하고자 하며, 제한적인 재원을 고려할 때 단기 지원보다는 장기 소득창출, 경제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사업이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의 경우 거버넌스 문제는 구조적이어서 개별 사업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이는 유럽연합이 MDLF(Municipal Development and Lending Fund)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KOICA는 평화구축 및 제도 개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과거의 전자정부 사업은 현 정치·안보 환경상 후속 및 제도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며, 대신 재활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제공이 현실적 협력 영역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세바스티아 지역개발이 관광·수공예를 기반으로 한 갈등 영향 지역의 생계 강화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무소는 SDG 16번을 독립적인 CP로 유지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지역개발·재활서비스와 연계해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팔레스타인 사업 시 최대 리스크는 분쟁 장기화로 인한 전문가·PMC 현장 방문과 이동·접근성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었다. 가자 지역은 공여국 협의체 참여·다자협력(WHO 정신건강, UNFPA)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양자사업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역은 자치정부가 실질 행정권을 행사하는 Area A·B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공여기관이 개입하는 Area C는 지양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밝혔다.

사무소 인터뷰 결과 SDG 4번에 대한 현지의 관심은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주요 양자협력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한편 2025년 작성된 「KOICA 팔레스타인 국가지원계획(CP) 평가 결과보고서」는 분야·개별사업 중심의 기존 구조를 HDP Nexus 접근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면서, CP 전반을 지역공동체 회복(P)과 사회기반 마련(D)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역량 기반의 포용적 인적자원 양성(CP 1),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회복(CP 2), △인도적지원(CP3 신설)의 3개 축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다(하경화 2025). 이러한 평가 결과와 사무소 인터뷰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강화' 프로그램은 폭력과 재정 압박으로 교육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한 세대의 학습 손실이 미래 소득 감소와 사회적 취약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원의 긴급성과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사무소 인터뷰 결과 향후 지원은 기초교육으로 이동하기보다 직업훈련 및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한된 재원을 고려할 때 단기 지원보다 장기적 소득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원조 효과성·가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평가보고서가 CP 1을 '역량기반의 포용적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산업 맞춤형 직업·고등교육과 공공인력 행정역량 강화를 양대 축으로 제안한 점을 고려하여(하경화 2025), KOICA는 첫째, 한국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ICT·디지털 등 산업 연계형 직업교육 모형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UNICEF와 협력한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사업(교육시설·WASH·여성청소년 위생 결합, 정부 우수사례)처럼 취약계층 포용과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되, 낮은 유아교육 등록률을 보완하기 위한 유아·기초교육 요소 포함도 검토한다. 셋째, 전쟁으로 학교 운영이 중단·재개를 반복하며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 R&D 역량강화사업을 교사 ICT·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AI·ICT

기반 청년 인재 양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은 사무소 인터뷰 결과 가장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DG 16번은 자치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매우 높으나 성과는 낮고, 미국·영국 등 주요 공여국 지원은 비교적 크지만 정책 변동성이 큰 분야이다. 사무소 인터뷰 결과, KOICA가 평화구축·정치·제도 개혁에 직접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 정치·안보 환경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디지털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현대화·전자정부 후속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전자정부·디지털 거버넌스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평가보고서가 CP 2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회복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면서 난민·전쟁피해자·여성 등 취약계층을 명확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계기반을 인도(H)-평화(P)-개발(D)로 연계할 것을 제안한 방향에 맞추어(하경화 2025),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 기본 공공서비스(특히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세바스티아 통합적 지역개발사업(관광·수공예 기반 생계 강화)의 성과를 토대로 서안지구 내 다른 자치정부 관할 지역으로 모델을 확장하고, 서안지구 공공재활 치료센터 사업의 경험을 살려 보편적 보건서비스 확대보다 KOICA의 비교우위가 분명한 재활 등 전문분야에 특화할 수 있다. 평가보고서가 제언한 대로 SDG 16번은 독립 목표로 유지하기보다 공공서비스·지역개발·재활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검토하되, 단순한 시설·시스템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인적역량 강화를 사업 요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평가보고서(하경화 2025)는 분쟁취약국 특성과 다채널(국제기구·현지 CSO) 인도적지원 비중을 고려하여 인도적지원을 별도 CP 3으로 격상하고, 단기 긴급구호를 평화(P)·개발(D)과 연계해 지역공동체 회복력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KOICA는 현재 WHO 정신건강 사업, UNFPA 분쟁취약지역 지원 등 다자협력을 지속하며 가자 공여국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자지구 대상 독자 양자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므로 당분간 다자채널을 통한 참여와 연속성 확보가 적절하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역은 자치정부가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는 Area A·B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공여기관이 개입하는 Area C는 지양하며, 분쟁 장기화가 최대 제약요인인 만큼 안보 상황 변화와 이동·접근성 제약을 반영한 위험관리와 유연한 사업 운영이 요구된다. 현 사업들이 2023년 이전 CP 체계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CP 개정 과정에서 위기 이후 상황을 반영한 재구성이 필요하며, 미국 지원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일부 유럽 공여국이 지원을 확대하는 환경에서 KOICA는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안정적 공여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종합적으로 정치·제도 개혁보다 인적자원 개발·직업훈련·지역사회 회복력 강화·기본 공공서비스 등 실행 가능성과 가시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남미 8개 협력국

1) 과테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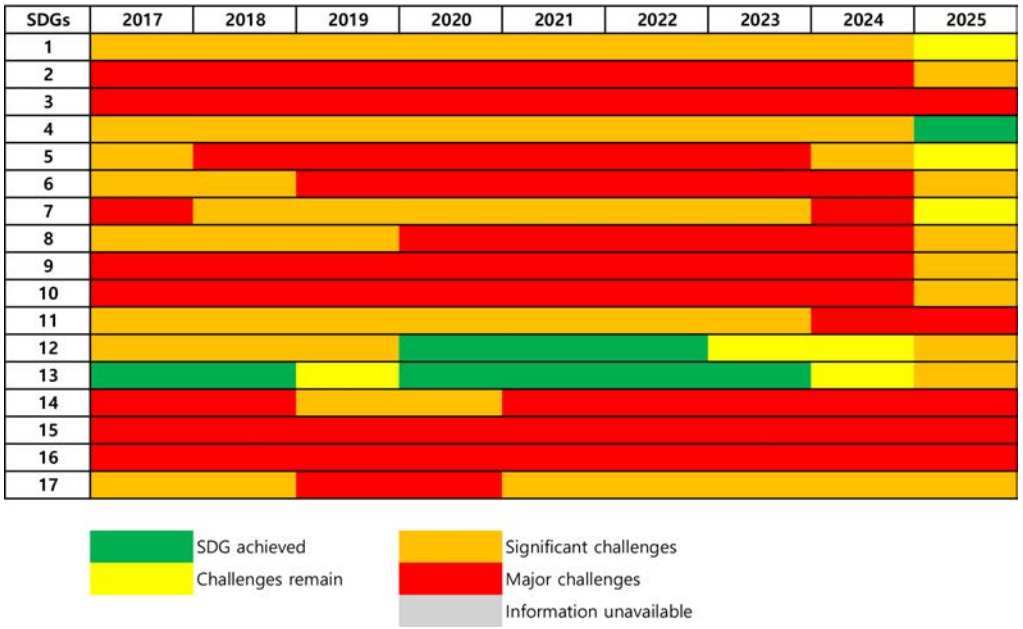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과테말라는 VNR을 2017년, 2019년, 2021년, 2025년 4회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SDGs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과테말라 VNR은 2014년 수립한 '국가개발계획 카툰(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과 연계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이슈를 통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2025년 발간한 과테말라 VNR에서는 SDG 3, 5, 8, 14, 17번의 이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del gobierno de Guatemala 2025). SDG 3번의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 출산 비율, 결핵 및 HIV 발병률 증가에서 진전이 미미하였다. SDG 5번의 2024년 기준 글로벌 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GGGI)는 93위였으며, 2021년 122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특히, 관리직 여성의 비율과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제도·사회적 장벽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여성은 가사와 돌봄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일자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SDG 8번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정부는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 공공 고용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지원, 전문 기술교육과 장학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SDG 14번의 영세 어민들의 해양 자원 및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해양-연안 구역을 통합하여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SDSN에서 발표하는 과테말라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28]에서 보듯이 SDG 4, 12, 13번의 일부 목표에서 가시적 개선이 있었다.

[그림 Ⅱ-228] 과테말라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특히, SDG 4번은 2024년까지 보통 수준의 진전 상황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SDG 2, 3, 9, 10, 15, 16번은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목표들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이며 만성적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테말라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보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분야에서 심각한 현안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과테말라의 SDG 이행 점수의 순위는 167개국 중 127위였으며 SDG 이행 점수는 59.86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SDG 이행 점수는 소폭이나 점진적이고 지속적 상승 곡선을 유지하였다(SDSN 2025).

과테말라 CP에서 제시하는 전략적 목표는 기후대응 강화와 치안 서비스 제고를 통해 과테말라 국가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주요한 프로그램은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효과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리걸 거버넌스 역량 강화'이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s는 2, 15, 16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과테말라 VNR에는 CP에서 지원하는 목표의 성과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del gobierno de

Guatemala 2025). SDG 2.4.1번과 SDG 15.2.1번은 국가 차원에서 통계의 제약으로 인해 SDGs 목표에 해당하는 대리지표(Proxy)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구체적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과테말라 정부는 SDGs에 해당하는 지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DG 16.1.1번은 2016년 28.6명에서 2024년 16.1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2024년 목표인 15.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UN n. d.).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과테말라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CP에서 지원하는 목표의 이행 상황은 [그림 Ⅱ-229]와 같다.

[그림 Ⅱ-229] 과테말라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016년부터 2024년까지 SDG 2, 15, 16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특히 SDG 2번은 SDG 이행 점수와의 차이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SDG 15번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개선 속도는 느리지만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SDG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16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과테말라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과테말라 VNR은 '국가개발계획 카툰(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과 연계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이슈를 통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VNR에서 여성, 청소년, 원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대통령 산하 도시와 농촌개발국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 CONADUR)는 국가개발계획에서 명시하는 우선 정책의 실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SDGs 의제를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주요 거버넌스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자연 자원의 관리와 물, 고용과 투자, 교육, 식량안보, 제도·안보·정의 강화, 자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 영토 계획, 포괄적 세제개혁, 빈곤 감소 및 사회 보호 정책을 우선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SDGs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상황에 맞는 SDGs의 세부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목표를 재정의하였다. 또한 SDG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 역량을 진단하고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SDG 지표를 선택·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표 기준선의 정의와 지표 측정 방법론의 개발 및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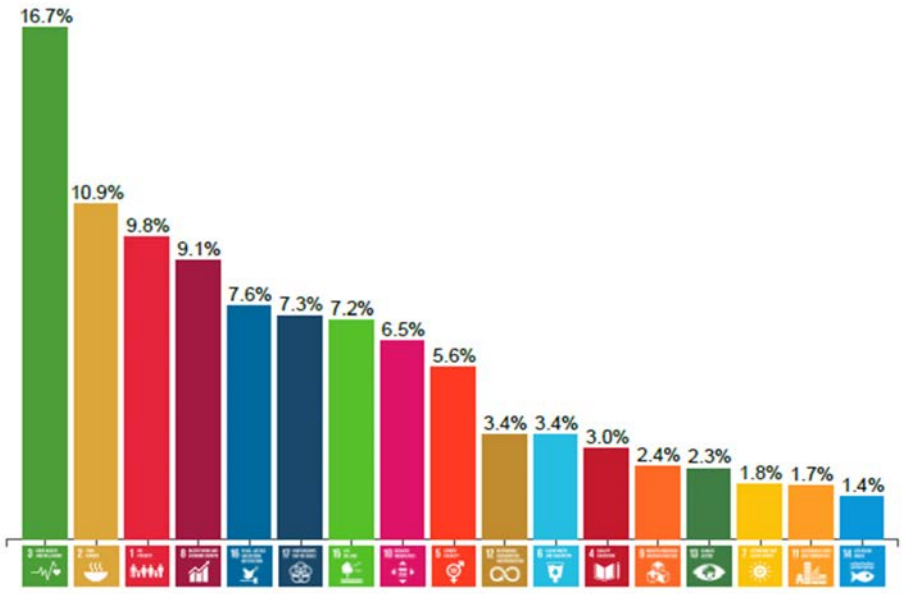
과테말라 정부는 SDGs의 이행에서 사회적 불평등, 제도적 취약성, 기후변화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만성적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 상황은 특히 원주민 공동체와 농촌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 관련하여 부패 문제의 해결이 향후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사법 시스템 및 취약한 제도적 역량을 개선한느 것이 필요하다. 열대성 폭풍, 엘니뇨, 가뭄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해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식량 불안정 상황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이 높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과 관련하여 진전 상황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SDG Mapper를 통해 과테말라 VNR이 SDGs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은 연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30] 에서

보는 것처럼, SDG 3, 2, 1, 8번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4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그래프로 볼 때, 과테말라 정부는 보건 시스템 강화, 공공 보건 서비스 확대,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사회 분야의 이슈를 우선적 고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2, 5, 16번이다. 특히, KOICA가 지원하는 목표 중 2번은 과테말라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

[그림 Ⅱ-230] 과테말라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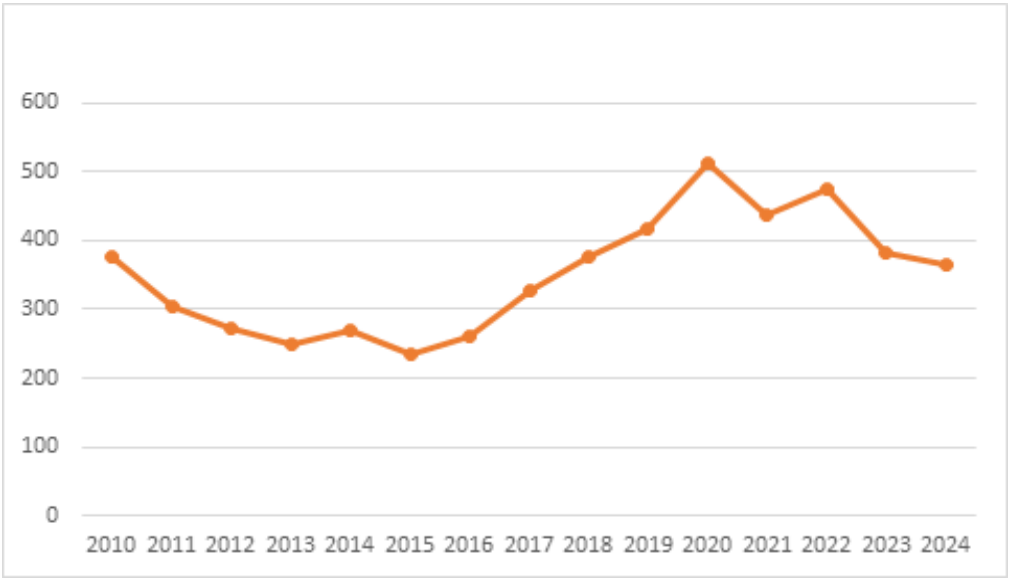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과테말라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5년 최저점에 이르고 있다. 2015년 과테말라는 부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정치적 혼란 상황을 겪었으며 이 시기 국제사회의 원조 지원이 약화 되었거나, 공여국들은 지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대

응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긴급 보건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자금이 유입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피해를 미친 허리케인 에타(Eta)와 이오타(Iota)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 외에도 이 시기 동안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은 중남미의 불법 이주민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2021년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감소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분쟁지역으로 원조 지원이 재분배되면서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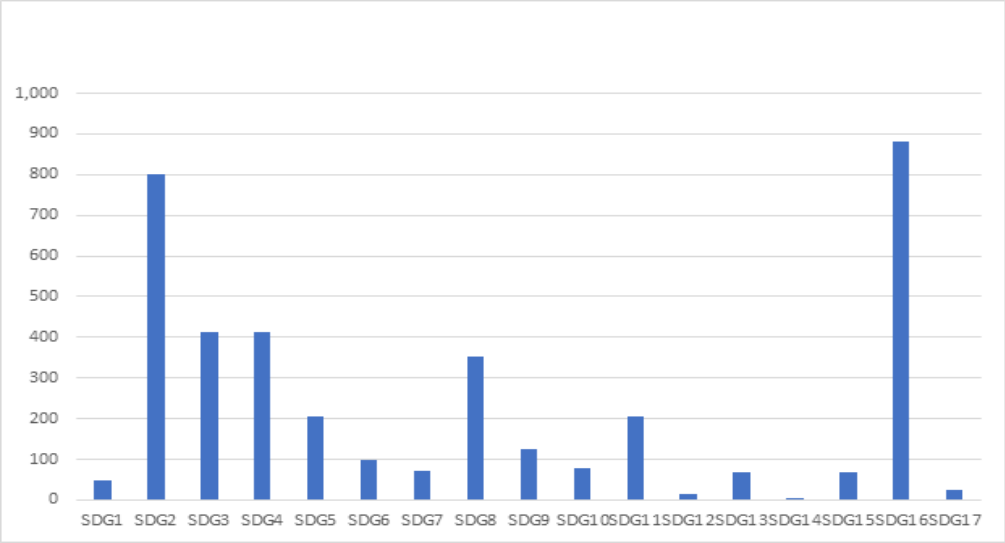
[그림 Ⅱ-231] 과테말라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국의 지원이 가장 많이 집중된 SDG 목표는 16, 2, 3, 4번이었다.

[그림 Ⅱ-232] 과테말라 SDG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은 육상생태계 보존, 기아 종식, 보건의료, 제도 및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공여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목표 중 SDG 2번은 과테말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표 Ⅱ-101〉에서 보는 것처럼 SDG 2, 15, 16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총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스웨덴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공여국이었는데 이들이 SDG별로 어떠한 정책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Ⅱ-101〉 과테말라 SDG 2, 15,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15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미국	650	32	435	1,117
스웨덴	3	-	178	181
독일	10	17	84	112
스페인	57	-	44	102
캐나다	36	1	33	71
네덜란드	0	5	33	38
한국	3	4	12	20
벨기에	15	0	3	18
기타	27	8	60	9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 USAID의 과테말라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20~2025)에 의하면, 미국은 과테말라의 경제적 기회, 안보,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야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의 빈곤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주의 경제적 동기를 완화하고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 신뢰를 회복하며, 폭력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 분야로 청년, 여성, 원주민의 역량 강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 증진,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민주적 제도 강화를 지원하였다(USAID 2020).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SDGs 목표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SDG 2번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취약 지역인 서부 고산지대(Western Highlands)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시장 연결과 영양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였다.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현금지원(Cash transfer) 프로그램을 통해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장기적 회복력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뭄과 홍수에 강한 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산림보존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으며, 작물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가계의 소득 증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개선하였다.

SDG 15번에서 과테말라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였다. 지역 공동체에 산림 관리권을 부여하고 산림 벌채의 원인을 줄이며 탄소 흡수원을 늘려 기후변화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벌채 및 야생동물 밀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였다.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법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경제회복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농업용수의 확보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였다.

SDG 16번은 미국의 전략적 지원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과테말라 정부 부처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범죄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여성과 아동을 위한 긴급 쉼터 제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 대상 교육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로부터의 노출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안 역량을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② 스웨덴

스웨덴의 과테말라에 대한 개발 목표는 빈곤과 불평등 감소,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구체적 분야로 농촌지역 주민, 원주민 청년,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을 대상으로 경제적 역량 강화,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1).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을 통해 SDGs의 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SIDA n.d.). SDG 2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농민조합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식량주권의 확보를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 농업인의 토지 소유권과 경제적 권리 강화 및 영양상태 개선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 외에도 영양실조 퇴치를 위해 유엔 기구, 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및 깨끗한 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SDG 15번에서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산림보존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 경영과 산림복원, 토양 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촌생태계의 보호를 지원하였다. 또한 환경, 기후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소하고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소규모 농민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가뭄에 강한 옥수수와 콩 품종을 활용하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에 기여하였다.

SDG 16번에서 인권과 법치주의 존중,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원주민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면 선거기간 동안 선거 감시 및 허위정보 대응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과테말라 내전 당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및 사회적 화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심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과테말라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02〉로 정리하였다.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은 이행 성과가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이다. 이에 KOICA는 제도개선과 실행 역량 강화 등 협력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입할 수 있다. SDG 15번은 이행 성과, 협력국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이다. 따라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분야로서 장기적으로 환경 대응이 필요하다.

'효과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리걸 거버넌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6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은 낮으나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국제지원과 수요가 불일치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Ⅱ-10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
	SDG 15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효과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리걸 거버넌스 역량 강화	SDG 16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이와 같이 문헌 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는 '과테말라 키체주 농촌취약지역 기후회복력 강화사업', '과테말라 GCF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사업'에서 농업 기술과 기자재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관개 시설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와 같은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통해 이들의 소득을 증진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식수와 상하수도 공급 확대 사업의 경우,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식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특

성상 기후변화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 사업들은 SDG 2번과 15번을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환경 이슈는 지역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KOICA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환경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농업 분야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농업과 환경 분야 사업은 원주민 인구 비중이 높고 지리적으로 고립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KOICA는 지역의 언어 및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WFP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KOICA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의 파견을 통해 사업의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한 인프라 및 예산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의 역량 강화와 사업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KOICA는 농업 기술 전수와 가치사슬 구축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민 조직의 제도화 및 자립역량 강화 등 농업 분야의 제도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SDG 16번의 경우에는 농업 분야와 연계하여 현지에서 수용성이 높은 산림 및 기상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효과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한 리걸 거버넌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16번은 협력국의 입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개혁과 반부패와 직접 관련된 사업보다 현재 KOICA가 추진하는 경찰 교육시스템 개선, 휴대용 조회 시스템 지원과 같이 치안 분야의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및 소규모 기자재 지원에 한정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본 분야에 대해 향후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자원의 재배치와 지원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KOICA는 과테말라 직업훈련청(Instituto Técnico de Capacitación y Productividad, INTECAP)의 요청으로 '기술훈련원사업', '청소년기술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훈련소 건립 사업'과 'ICT 훈련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사업 경험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과테말라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를 중심으로 디지털역량강화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공학·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청소년 실업률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

2) 도미니카공화국

(1) SDG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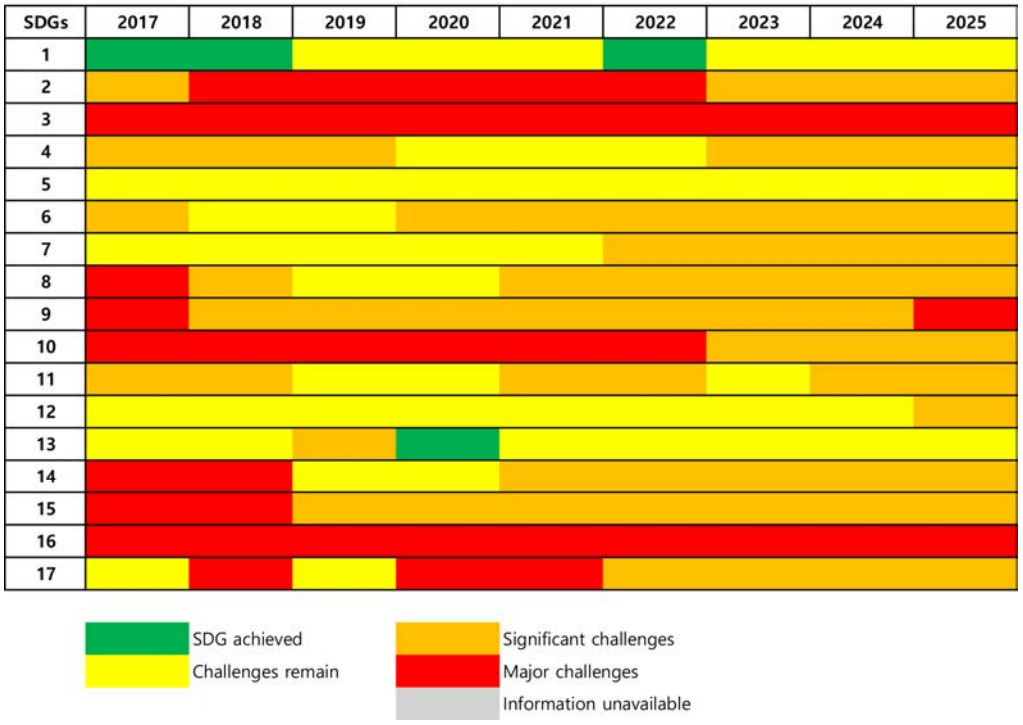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8년, 2021년, 2025년 총 3회 VNR를 제출하였다. 2025년 VNR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은 SDG 1, 3, 5, 8, 10, 12, 14, 16, 17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행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2025).

SDG 1번에서 2024년 기준, 19%라는 역대 최저치의 빈곤율을 기록했으나 국경과 농촌지역에서 빈곤은 지속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맞춤형 현금지원, 돌봄 정책, 주택 및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호 정책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기본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SDG 3번에서 가족건강보험(Seguro Familiar de Salud, SFS)을 통해 인구 97%가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의 진단과 감시체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산모와 영유아의 높은 사망률, 의료 인력의 부족,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SDG 5번과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 노동평등인증(Sello Igualando RD)의 도입과 치안·민생·젠더 위원회(la Mesa Nacional de Seguridad, Ciudadanía y Género) 등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체계를 구축했으나, 무급 돌봄 노동의 불균형한 분배, 정치 및 기업 경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 SDG 8번의 관광과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5%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5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지속되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SDG 12번에서 고형폐기물 통합관리법 및 순환 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다만, 지방정부의 기술적 역량 부족과 부처 간 미비한 협력은 실질적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SDG 14번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30x30(2030년까지 영해의 30%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모자반류해초(Sargassum)의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기구를 창설하는 등 해양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육상에서 유입되는 고형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과 미흡한 하수 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SDG 16번과 관련하여 사법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인해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33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치안의 측면에서 2023년 10만 명당 11.5명으로 살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미결수 비율, 사법절차 보장, 시민 체감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SDG 17번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91%에 달하는 등 디지털 전환과 '재정 책임법'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자체 재원의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조세 부담률 개선과 대외 채무

의존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Meta 2036'을 통해 과거의 양적 성장 모델을 극복하고 2036년까지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고 인적자본의 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Gobierno de República Dominicana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 색깔이 빨간색을 보이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목표는 SDG 3, 10, 16번이다. 이처럼 영유아 사망률과 비감염성 질환 관리가 현안 과제로 고려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사회통합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언급된다. SDG 1, 8, 13번 경제와 환경 분야는 개선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빈곤 감소의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취약하나 탄소 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SDG 2, 14, 15번도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인다.

[그림 Ⅱ-233] 도미니카공화국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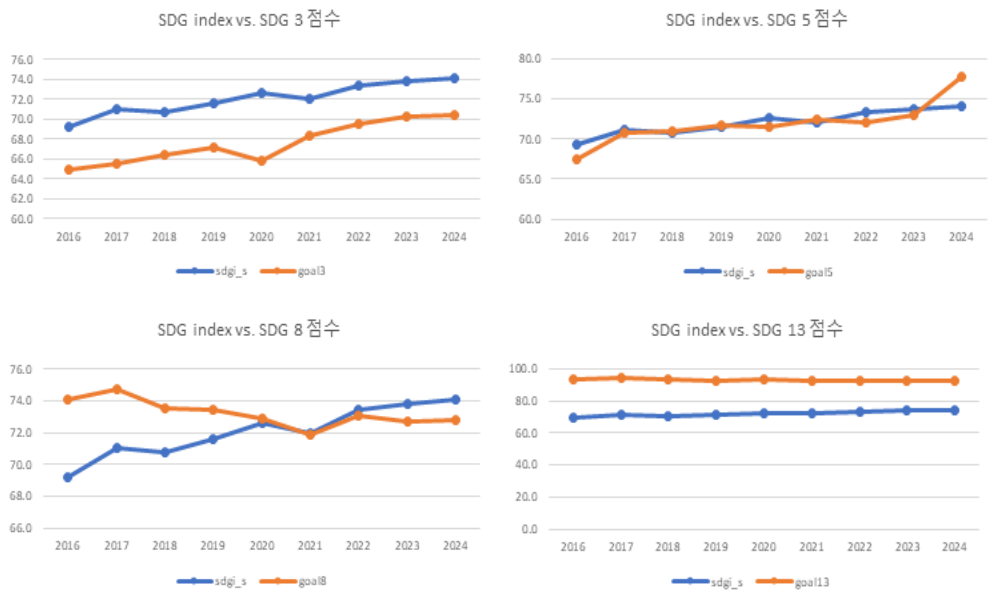
KOICA CP는 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중점 지원 분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SDG 3.7.2번은 2021년 51.77명에서 2024년 36.18명으로 감소하였다(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2025, 43). SDG 8.3.1번은 2015년 56.3%에서 2024년 54.7%로 소폭 상승하였다(ILO n.d.). SDG 5.6.1번은 2007년 7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ontevideo Consensus Regional Monitoring Platform n.d.). SDG 5.3.1번은 2019년 각각 9%와 31.5%였다(UNICEF n.d.). SDG 13.3.1번은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다.

2025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SDG 이행 점수 순위는 167개국 중 52위를 기록했으며, SDG 이행 점수는 74.06점으로 중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SDG 이행 점수는 소폭이나 점진적이고 지속적 상승 곡선을 유지하였다(SDSN 2025).

SDSN에서 발표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34]에서 보는 것처럼 SDG 3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수가 악화했으나 다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SDG 5번은 SDG 이행 점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으며 코로나19의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성과가 미미하게 낮아졌으나 2023년 이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SDG 8번은 2016년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의 발생을 기점으로 SDG 이행 점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2022년 성과가 하락한 상태로 지속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SDG 13번은 다른 목표와 비교할 때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그림 Ⅱ-234] 도미니카공화국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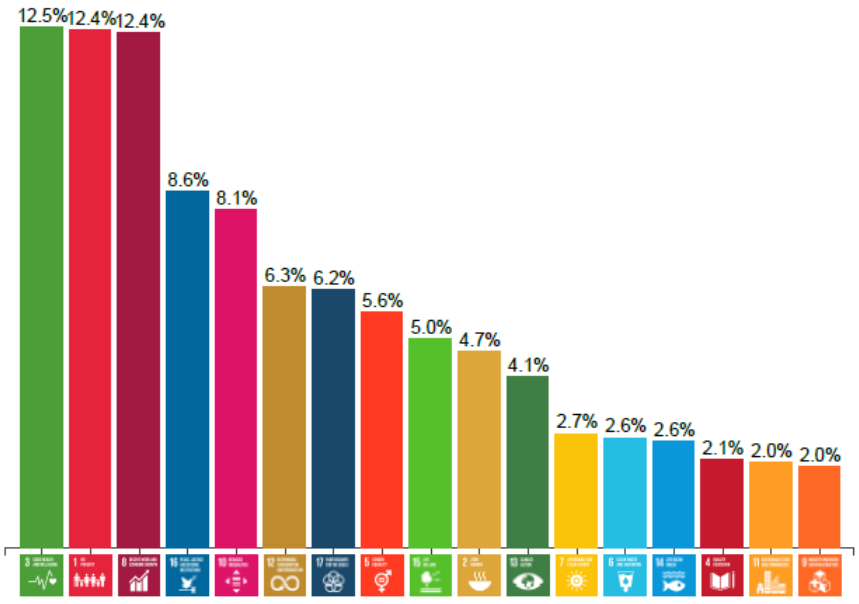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SDGs 이행은 국가개발전략(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2030), 다년간 부문별 공공계획(Plan Nacional Plurianual del Sector Público 2021-2024), Meta 2036(Gobiern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VNR의 작성은 경제기획개발부가 주도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 유엔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지역별, 성별,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었다. 정부는 사회보호 정책의 강화, 공공행정 개선,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강화, 사법부의 독립 보장, 시민 안보, 교육과 디지털 전환 등을 주요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보호 정책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지역 간 격차와 질적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의 안정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재정 도구를 도입하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계획과 재정 및 공공 관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포함하여 정책의 이행 수단을 강화하는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한 핵심 성과는 SDGs와 연계한 예산 편성 및 정책 우선순위 추론 방법론이며 이를 통합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재정통합체계(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 INFF)'를 구축하였다. 특히, 공공지출의 SDG 기여도를 측정하는 재정 관리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2024년 국가 예산의 96%가 SDG 목표와 연계되었다. 이처럼 도미니카공화국은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자원의 배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공공 정책의 '영토화(Territorialization)'의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법적·기술적 기반인 토지이용 및 국토계획법을 제정했으며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운영의 차원에서 88개 지자체 개발위원회의 재편과 32개 모든 주의 계획수립과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림 Ⅱ-235] 도미니카공화국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향후 정부는 사회, 경제, 제도 및 환경적 차원에서 모니터링 역량 강화라는 현안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적 과제로서 비공식 노동인구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특히 국경과 농촌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적 차원에서 해양 오염을 감소하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완화가 필요하다.

SDG Mapper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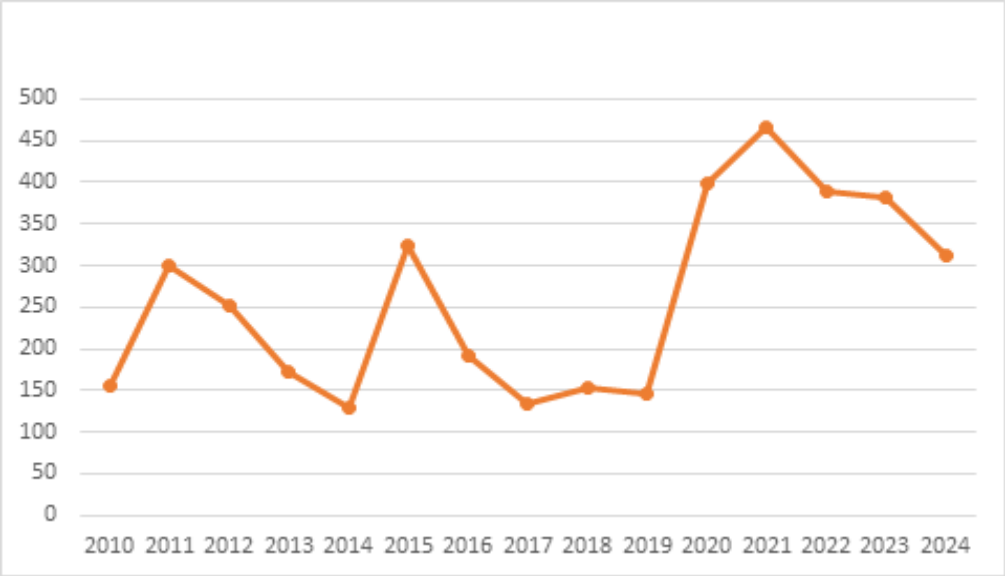
[그림 Ⅱ-235]에서 보는 것처럼 SDG 3, 1, 8, 16, 10번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5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빈곤, 보건의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와 사회분야 및 거버넌스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3, 5, 8, 13번이다. 이 중 3, 8번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이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지원액은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급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1년과 2015년 지원액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교육과 사회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은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2022년 이후 지원 규모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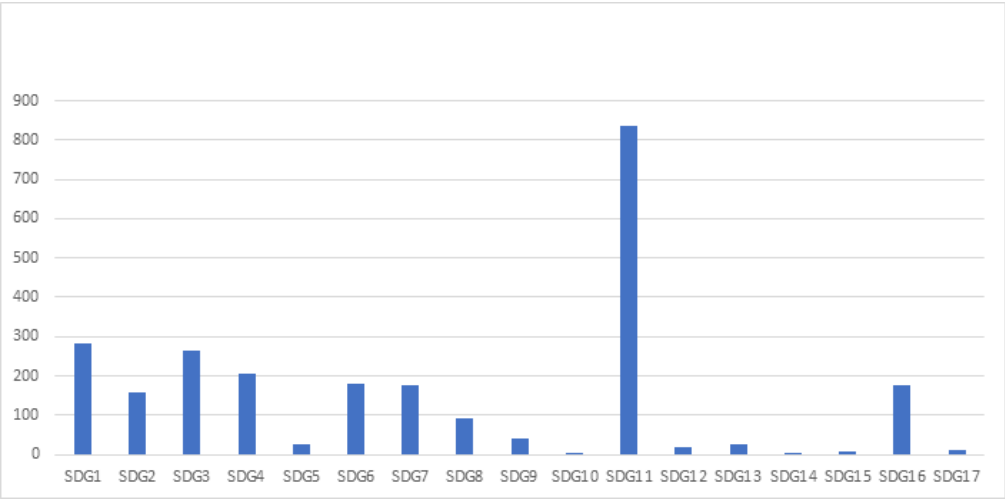
[그림 Ⅱ-236] 도미니카공화국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37]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지원이 집중된 SDG 목표는 11, 1, 3, 4, 16번이었다.

[그림 Ⅱ-237] 도미니카공화국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이처럼 국제사회의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빈곤 퇴치, 보건 및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 3, 16번을 제외하고 공여국의 지원이 집중된 SDGs 목표는 VNR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우선하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표 Ⅱ-103〉에서 보는 것처럼 SDG 3, 5, 8, 14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5번은 스페인이었다. 또한 총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이었는데, 각각의 SDG별로 주요 공여국이 어떠한 정책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Ⅱ-103〉 도미니카공화국 SDG 3, 5, 8, 13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5 지원	SDG 8 지원	SDG 13 지원	합계
미국	231	9	34	14	287
스페인	12	13	21	-	47
일본	11	2	14	-	26
프랑스	-	-	4	9	14
한국	7	1	5	-	13
독일	-	-	10	-	10
캐나다	1	-	1	-	2
기타	0	1	3	1	404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USAID의 2020~2025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안보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후손과의 공동 성장,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회복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SDGs 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USAFacts n.d.).

SDG 3번에서 미국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에이즈(HIV/AIDS) 대응을 지원했으며 HIV 감염인에 대한 직접적 치료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보건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를 현대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ForeignAssistance.gov n.d.). 최근 미국의 전략은 단순한 질병에 대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보건 안보(Global Health Security)'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글로벌 보건 안보 집중 지원 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SDG 3번과 5번을 연계하여 여성 보건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경제의 공식화를 지원함으로써 보건분야의 인적 자원 양성 체계를 강화하였다.

SDG 5번과 관련하여 여성 기업가 정신 고취와 법적 권리보호 정책에 따라 여성 기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디지털 및 금융 문해력을 강화했으며 지역사회가 젠더 기반 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LGBTQI)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SDG 8번에서 미국은 청년들이 폭력과 범죄의 경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제적 대안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소외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입학과 졸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운영 및 현대화 등 인프라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SDG 13번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화력 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국경 지역의 환경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스마트 농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소농들이 가뭄과 홍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고체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차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② 스페인

스페인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 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은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차원의 '트리플 전환(Triple Transition)'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DG의 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5).

SDG 3번에서 보건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략 수립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비감염성 질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스페인은 모성 및 영유아 보건 분야에 대한 강점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취약한 지역의 보건소 인프라 개선과 보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SDG 5번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젠더를 범 분야 이슈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례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돌봄 시스템(Sistema Nacional de Cuidados)' 구축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무급 가사와 돌봄 노동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를 공식 경제의 일부로 통합하여 여성의 시간빈곤(Time Pover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의 운영 표준을 개선하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SDG 8번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립기술직업훈련원(Instituto Nacional de Formación Técnico Profesional, INFOTEP)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국가 기술교육 체계의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핵심 산업 분야인 관광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역사 유적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의 지원을 실행하였다.

SDG 13번에서 스페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경제적 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생태적 전환'을 핵심축으로 설정하였다. 모자반의 대량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연구 역량을 강화했으며, 연안 도시의 기후회복력 지원과 관광 자원 보존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SDG 5번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 시, 젠더적 관점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II-104〉로 정리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은 이행 성과가 낮으며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KOICA는 제도개선과 실행 역량 강화 등 협력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SDG 5번은 이행성과는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이며 이에 선별적인 관찰이 필요

하다. SDG 8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은 적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목표로서 KOICA는 선도적 개입을 통해 성과 창출을 검증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3번은 이행 성과가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서 이에 선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표 Ⅱ-10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SDG 3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
	SDG 5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8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이와 같이 문헌 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SDG 3번과 관련하여 KOICA는 '미성년임신방지 및 보건관리 강화 사업'을 다년간·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을 통해 성·생식 보건 서비스 개선,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추진했던 SDG 3번 관련한 사업들은 보건 분야에서 특히 미성년 여성의 임신 발생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SDG 3번은 5번과 연계하여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사업과 관련한 협력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KOICA의 사업 모델 제도화를 지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역량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SDG 5번과 관련하여 KOICA는 UNICEF와 함께 '조혼 및 여성대상 폭력예방을 통한 성평등 증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은 조혼과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조혼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보건·사법·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구

축과 조혼 및 폭력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사회적 규범의 변화 및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존 사업의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 및 지역사회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소규모 사업과 모니터링 중심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KOICA는 본 분야에서 장기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젠더 이슈는 모든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하는 범 분야 이슈로서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즉, SDG 5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모든 사업에 젠더의 관점과 요소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제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현지의 시스템 내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SDG 8번에서 KOICA는 '여성중심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지원 역량강화사업', '과학기술 특성화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들은 여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 체계 구축, 창업지원, 금융 접근성 제고, IT 등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시장의 개발을 통해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KOICA는 교육과 고용의 선순환 모니터링 체계 및 디지털 이력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기존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국립기술직업훈련원(INFOTEP)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인턴십 개발을 제도화하여 단순 제조·서비스업을 넘어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재생에너지 등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우선하는 미래 전략 산업분야와 연계한 기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체 스페인어권 시장으로 고용의 확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프로그램의 SDG 13번과 관련하여 KOICA는 'ICT 기반 국립공원 기후변화 모니터링 역량 고도화 사업'과 '카리브해 해조류 재해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 데이터 분석 및 인력의 역량 강화, 해조류의 이동 경로 모니터링, 환경친화적 수거 및 처리 기술 전수, 해조류 재해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생태계 보호를 넘어 국가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과 식량안보에 직접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소규모 혹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모색, 지역사회 기반 해조류 수거 방식의 표준화 및

이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단지 운영, 수집한 기후 및 해양 데이터를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도미니카공화국 KOICA 사무소는 현재 카리브 지역 내 유일한 거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인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아이티와 쿠바 등 역내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의 통합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볼리비아

(1) SDGs 이행 현황

볼리비아 VNR에 의하면 볼리비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빈곤 완화 및 소득 불평등 개선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나 2019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변화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거시경제 및 주요한 사회 지표에서 정체 국면이 나타났다(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21).

이처럼 볼리비아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일시적 후퇴를 경험했으나 빈곤과 불평등 완화, 아동의 영양개선,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시적 진전이 나타났으며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기초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볼리비아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급은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극빈층 비율은 19%에서 12.9%로 감소하였다. 5세 미만 아동의 만성적 영양실조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16년 16%까지 하락하였다. 보건 분야에서 보편적 무상 통합 의료시스템(Sistema Único de Salud, Universal y Gratuito, SUS)이 시행됨에 따라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16년 24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개선되었다. 교육 분야의 지표에서 4세부터 17세 학령기 취학률은 2015년 86%에서 2020년 90.8%, 동기간 19세부터 23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35.4%에서 43.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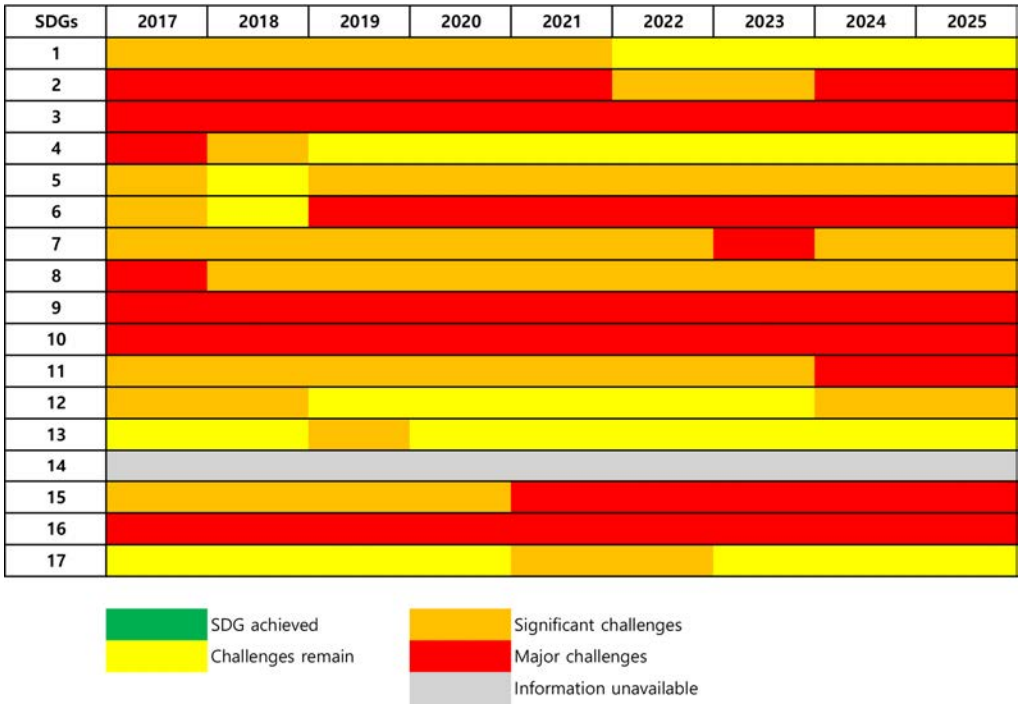
성평등 분야에서 규제의 개선 및 제도 강화가 추진되었으며,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종합 공공정책'의 이행을 전담하는 '기관 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체계의 구축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 지표인 여성 의석 비율은 2014년 47%에서 2020년 48.8%로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감소, 경제적 기회의 창출과 적절한 고용 증대, 부패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국가와 지구를 존중하는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SDSN에서 발표하는 볼리비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색깔이 변화하여 가시적 진전을 보이는 목표는 SDGs 1, 4, 13, 17번이다. 반면에 목표 2, 5, 12, 15번은 지표가 이전보다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목표 3, 9, 10, 16번은 볼리비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목표에서 멀어지거나 후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빨간색이 변화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위한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5년 기준, 볼리비아의 SDG 이행 점수 순위는 167개국 중 94위를 기록했으며, SDG 이행 점수는 67.8점으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정체기를 제외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SDG 점수는 소폭이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유지하였다(SDSN 2025).

볼리비아에서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본권 보장, 보건 및 농업 분야의 기초서비스 확대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좋은 삶(Vivir Bien)'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KOICA는 '효과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 역량 강화', '빈곤 감소를 위한 포용적 농촌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SDGs는 2, 3, 5, 8, 15번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그림 Ⅱ-238] 볼리비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볼리비아 VNR에서는 KOICA CP에서 지원하는 목표의 성과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21).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빈곤 감소, 아동 영양 및 식량 생산, 양질의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여성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물과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세부 목표별로 보면, SDG 2.3번은 토지, 기타 생산 자원 및 투입물,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해 안전하고 공평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농민 특히, 여성과 원주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SDG 2.3.1번은 2015년과 비교할 때, 옥수수, 감자, 토마토, 양파 등 농산물의 생산성과 수확량이 향상되었다. SDG 2.4.1번 농지 면적 비율은 2015년 360만 헥타르에서 2020년 390만 헥타르로 증가하였다.

SDG 3.1.2번은 2015년 87.5%에서 2024년 72.8%로 감소하였다(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n.d.). SDG 3.2.2번은 2016년 출생아 1,000명당 24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신생아 사망률은 2016년 15명이었으나 2023년 6명으로 감소했으며(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n.d.), 이러한 통계를 통해 보건 지표를 통해 전반적 개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SDG 3.7.1번은 2016년 3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DG 3.7.2번은 2020년 71명이었으나 2023년 48명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n.d.).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통합적이며 보편적 무상 의료시스템(SUS)을 시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보편적 무상 의료시스템(SUS)에 대한 접근 비율은 63%에서 2024년 79%로 증가하였다(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n.d.).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보건부문의 주요 지표는 중남미 지역 평균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SDGs 5번과 관련하여 성평등 및 차별 금지를 증진, 시행,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2013년 '여성의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통합법'이 공포되었고,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포괄적 공공정책'의 실행을 위해 다양한 부서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표는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실례로 SDG 5.2.1번은 2016년 44.4%, 15세 이상 여성의 사회적 폭력의 경험 비율은 2016년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DG 8번의 비공식 취업 비율은 2015년 95.2%에서 2024년 83.9%로 감소했는데 이 중 남성은 81.9%, 여성은 86.1%였다(ILO n.d.).

볼리비아 정부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여성 폭력 근절을 우선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여성과 아동 대상 비폭력 문화를 조성하고 포용

적 근로 환경의 구축에 주력하였다. 또한 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과 취약계층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불법 벌채로 인한 삼림 면적 감소라는 현안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2년 전체 삼림 벌채의 92%가 불법적으로 자행됨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 및 제도적 체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산림복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2020년 불법적인 산림벌채가 53.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역의 상류 보존, 생태계 보전구역 지정, 훼손된 지역의 복원을 포함한 조림 및 재조림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산림 면적은 2015년 63,330헥타르에서 2020년 96,343헥타르로 증가하였다.

SDSN에서 발표하는 볼리비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39]에서 보는 것처럼, CP에서 지원하는 목표의 진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239] 볼리비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G 2, 3, 15번의 이행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SDG 2, 3, 8, 15번의 지표는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SDG 2번은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성과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SDG 3번은 2016~2017년 SDG 이행 점수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직후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성과가 개선되면서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이다. SDG 15번은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급격히 악화했으며, 현재 SDG 이행 점수와는 의미 있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SDG 5번과 8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SDG 8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과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2) 볼리비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볼리비아 VNR은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구축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SDGs 목표를 볼리비아 최상위 개발 전략인 '볼리비아 2025 200주년 애국 의제(Agenda Patriótica del Bicentenario 2025)' 및 '2016~2020년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DES)'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71]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개발부의 주도하에 7개 핵심 부서로 구성된 '경제·사회개발계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관 간 위원회(Comité Interinstitucional de las Metas del PDES y de Desarrollo Sostenible)'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는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SDGs 목표를 조정하고 지표별 우선순위 설정과 세부 목표를 재정의함으로써 국가개발계획과 정합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볼리비아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해 국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산림보호 부문에서 가시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SDGs 성과를 내재화하고 지역별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볼리비아 VNR은 SDGs 달성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 구조의 다각화, 생산 시스템의 현대화, 소득 분배 개선 및 시민의 권리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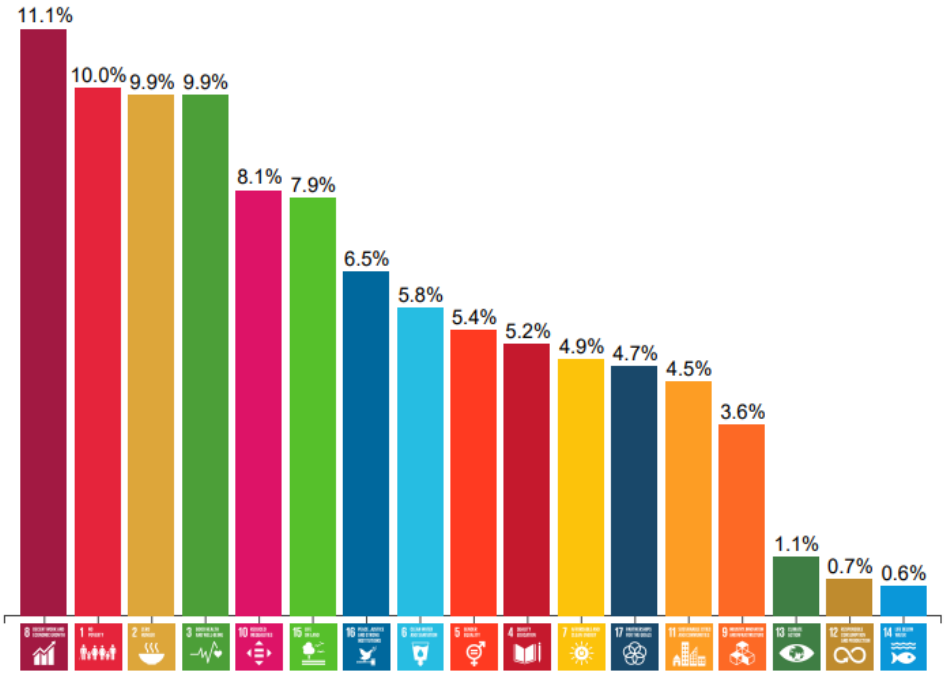
볼리비아는 SDGs 이행의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개발계획 및 부처별 세부 전략에 SDGs 목표를 내재화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와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설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SDG Mapper를 통해 볼리비아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40]에서 보는 것처럼, SDG 8, 1, 2, 3, 10, 15번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6개의 목표가

71)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y Medio Ambiente de Bolivia(2026)에 의하면,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인 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Plan Gener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GDES 2026~2035)과 경제사회발전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DES 2026~2030)은 수립의 과정에 있다.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 안정, 고용, 기업가정신, 생산적 경쟁력 및 혁신, △ 국제무역 및 자본 흐름, 개발을 위한 통합, 전략적 포지셔닝 및 차별화, △ 분권화 및 자율성, 지방 공공 관리, 대도시 및 도시, △ 디지털 전환, 관료주의 감소 및 효율성 증대, 국가 공공 관리, △제도적 투명성 및 부패 척결, 포괄적 사법개혁, 불법 경제 예방 및 척결, △ 기본조건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사회통합과 개발의 기회, △ 생태계 보호,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자원의 통합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의 질, 에너지 전환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240] 볼리비아 VNR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이처럼 볼리비아 정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빈곤퇴치와 기아 해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평등 완화 및 성평등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안데스 지역 등 주요한 자연자원의 보존을 우선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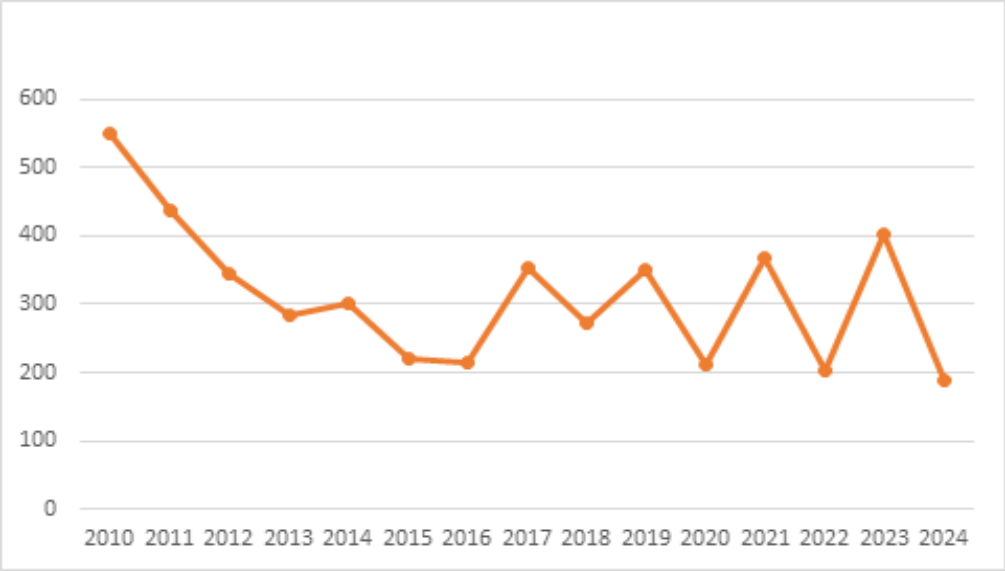
한편,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2, 3, 5, 8, 15번이다. 이처럼 KOICA가 지원하는 목표 중 5번을 제외한 다른 목표들은 볼리비아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025년 11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개발계획은 새롭게 수립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전과는 달리 중도성향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볼리비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액은 2010년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자원 국유화 정책과 미국 USAID의 추방 및 활동 중단으로 인해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가 위축되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볼리비아는 무상원조의 우선 대상국에서 점차 제외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그림 Ⅱ-241] 볼리비아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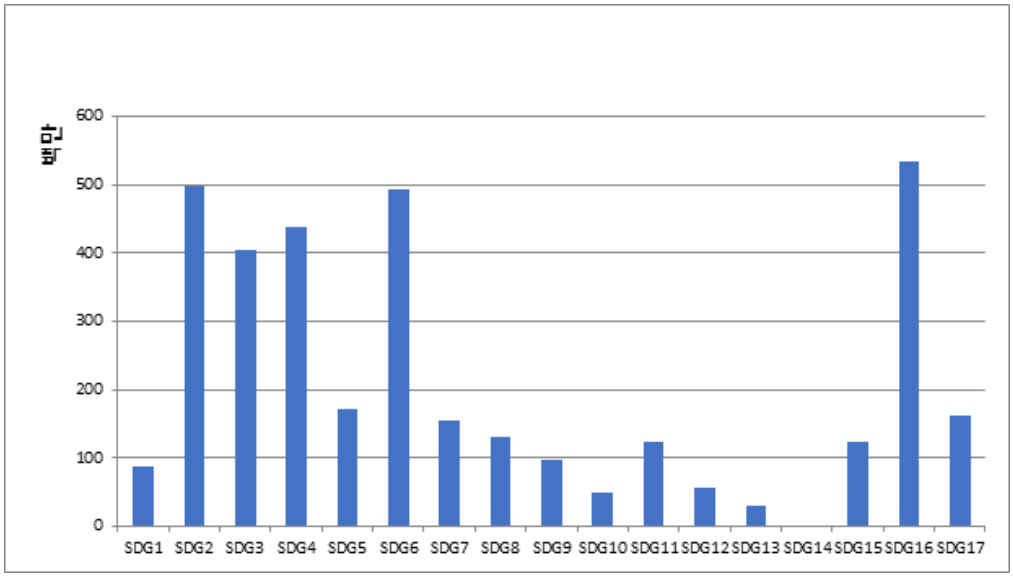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치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여국 지원의 증감 폭이 커지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특히 2019년 치러진 대선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결과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인해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극심한 정치 혼란, 2020년 코로나19와 정권 교체가 겹치면서 공여국의 지원은 급감하였다. 2021년과 2023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자금 투입,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집중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볼리비아 국내 재원의 부족과 경제위기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2016년 수준으로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차원의 복합 위기로 인해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42]에서 보는 것처럼 공여국의 지원이 가장 집중된 목표는 SDGs 16, 2, 6, 4, 3번 순이었다. 이처럼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은 평화, 정의, 제도, 기아 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등 거버넌스와 사회 분야에 집중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SDGs 2, 3번을 제외하고 공여국의 지원이 집중된 목표는 볼리비아 VNR에서 정부가 우선하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림 Ⅱ-242] 볼리비아 SDG 목표별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s 목표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표 Ⅱ-105〉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SDG 2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독일, SDG 3번은 프랑스, SDG 5번은 스페인, SDG 8번은 스위스, SDG 15번은 스페인이었다. 총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스페인과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공여국이었는데, 각각의 SDG별로 주요 공여국이 어떠한 정책을 토대로 활동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Ⅱ-105〉 볼리비아 SDG 2, 3, 5, 8, 15번에 대한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5 지원	SDG 8 지원	SDG 15 지원	합계
스페인	60	56	47	13	3	179
미국	63	51	15	17	11	158
독일	87	12	11	9	15	134
프랑스	4	120			6	130
캐나다	39	33	31	13	3	119
덴마크	59	5	1	20	16	101
벨기에	56	23	2	10	5	96
스위스	32	3	17	22	16	90
기타	98	101	48	27	49	32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스페인

스페인 정부의 외교·유럽연합·협력부는 볼리비아-스페인 국가협력기본협정(Marco de Asociación País, MAP 2022~2025)에 따라 2025년까지 볼리비아에 약 1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의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DES 2021~2025)과 연계되어 있다(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2). 본 정책에서 스페인은 물과 위생, 성평등, 기후변화를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생태적 접근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적 개발을 강조하였다.

SDG 2번과 15번 관련하여, 스페인은 볼리비아 국민이 물과 위생, 식량,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합 수자원 관리 및 폐수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농업 다각화, 농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및 식량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농산물 판매의 지원뿐 아니라 환경 관리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농업 부문과 연계한 환경 분야에서 공공 및 시민사회 행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위험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의 계획과 조치를 지원하였다.

SDG 3번과 관련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국민의 건강, 교육, 문화적 권리 행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보편적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보건정책에 전통 의학을 접목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 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SDG 5번에서 스페인은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 원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권리와 다양성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과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SDG 8번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 개선과 온·오프라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며 고용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② 미국

미국 USAID는 1964년부터 볼리비아에서 활동했으나 2013년 철수 이후 볼리비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줄여왔으며, UN, UNICEF 등 다자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마약 퇴치 이슈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거버넌스, 농촌 개발, 생물의 다양성, 이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개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ForeignAssistance.gov n.d.).

SDG 2번과 관련하여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서 식량안보 확보와 영양개선을 지원하였다. SDG 3번에서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보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히, 가족계획, 피임 교육,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등 모자보건 및 생식 보건 분야를 지원하였다. SDG 5번은 주류화의 이슈로 접근하고 있으며 보건 및 민주주의 관련 지원사업의 전반에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인식 제고와 생식 보건 교육을 통합하여 젠더 관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SDG 8번에서 코카 재배 지역의 경제 다변화를 목적으로 농민들의 불법 작물 재배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해 합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대체 개발(Alternative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커피, 카카오, 과일 등의 작물 재배 기술과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SDG 15번에서 환경 및 생태계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산림벌채 방지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분야를 지원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볼리비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II-106〉으로 정리하였다.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 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며, 이에 KOICA의 선도적 진입을 통해 중장기 성과 검증이 가능하다.

'빈곤감소를 위한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SDG 2번은 이행 성과가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실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SDG 15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로 KOICA의 선도적 개입을 통해 중장기 성과 창출 검증이 가능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기본권 보장 및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5번은 이행 성과는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환경과 원조 지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며, 선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SDG 8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이다. 따라서 KOICA는 성과에 기반하여 선도적으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표 II-10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 역량 강화	SDG 3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빈곤감소를 위한 포용적 농촌 개발	SDG 2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
	SDG 15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SDG 5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8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는 볼리비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전 국민 건강보장 시스템(SUS)의 접근성 개선, 다문화 지역사회 가족 기반 보건의료 정책, 모성사망비 감소, 영유아 성장 지원과 주요 질병의 발병률 감소를 위한 분야에서 선도적이며 지속적 개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볼리비아 엘알또와 오루로 지역에는 '한국병원'이 있으며, 지역 주민은 보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 분야의 성과 창출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했던 성생식 권리 향상과 모자보건 및 디지털 보건 역량 강화 사업 등의 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과거 KOICA는 보건분야의 사업에서 의료센터 설립 및 위생시설 개선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타 공여국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인프라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보다 기존 구축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라파스주 임상병리 검사실 체계 강화사업' 및 '오루로주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및 강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건 행정, 인력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빈곤감소를 위한 포용적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서 SDG 2번은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핵심 분야이다. 현 정부는 원주민 인권과 젠더 등 사회통합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OICA는 본 프로그램에서 독자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볼리비아 정부가 우선하는 취약계층의 식량 생산성과 접근성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기존 공여국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행 성과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력국의 정책, 제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KOICA가 추진하는 커피, 감자, 쌀 등의 주요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상업화를 통해 중소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스페인과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은 SDG 2번을 15번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식량 생산성, 식량 접근성 제고와 관개 시설 개선 지원을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연계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SDG 15번은 볼리비아 정부가 우선하는 불법 산림벌채 감소 정책과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혁신적 산림복원 기술, 디지털 기반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 창출 검증에 기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볼리비아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원주민 자치권 및 지방분

권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 분배의 이슈에서 원주민과 지역유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SDG 5번은 KOICA가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기존의 '성 및 재생산 권리 향상을 위한 성평등 촉진사업',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사건 대응 역량강화사업' 및 '취약계층 여성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성주류화제도 수립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SDG 8번과 관련하여 KOICA는 이 분야를 전략적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립한 국가개발계획에는 경제 안정, 고용, 기업가정신, 생산적 경쟁력과 혁신이 주요한 정책의 축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볼리비아 정부가 강조하는 청년과 여성의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비 공식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 정부는 공공행정과 전자정부 관련 분야 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KOICA는 현재 해당 분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향후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보건, 농촌 개발,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주류화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4) 에콰도르

(1) SDGs 이행 현황

에콰도르 정부는 VNR를 2018년, 2020년, 2024년 3회 제출하였다. 에콰도르는 '새로운 에콰도르 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para el Nuevo Ecuador 2024~2025)'을 SDGs 목표와 연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빈곤퇴치, 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토 개발 및 계획(Plan de Desarrollo y Ordenamiento Territorial, PDOT)'에 따라 2030 어젠다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층적 차원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서 천연자원의 적절하고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024). 즉,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와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와 환경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으며 탄화수소, 광업, 수자원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고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매트릭스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CLAC)에서 국가별 SDGs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국가 프로필과 VNR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 지표의 개선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024; UN n.d.).

SDG 1, 2번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였다. 2023년 기준, 소득 빈곤율 24%와 다차원 빈곤율 37%를 낮추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취업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실조와 임산부 및 5세 미만 아동을 위해 통합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 급식사업의 확대를 통해 식량주권을 제고하였다.

SDG 3, 4번에서 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문화 보건 체계를 도입하여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모성사망률

은 2018년 이래 최저치인 10만 명당 33.9명을 기록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등록률은 95%로 상승했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보급과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의 포괄적 성교육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SDG 5, 8, 10번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폭력 예방과 경제적 역량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23년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43%를 기록하는 등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개선되었으며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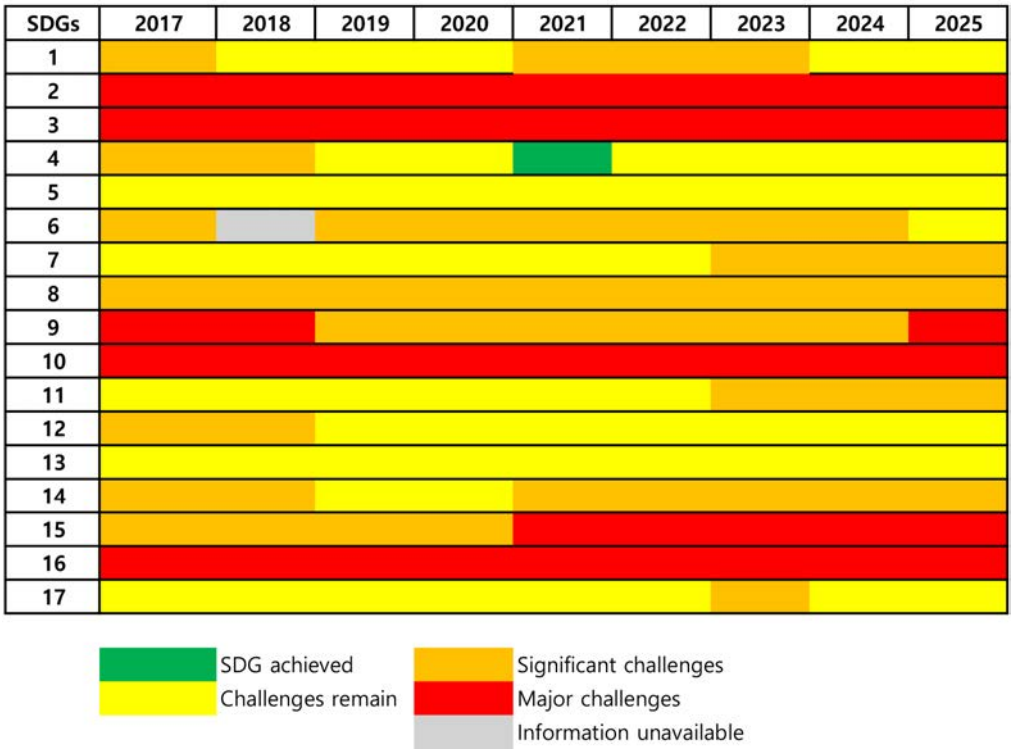
SDG 6, 7, 9, 11번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였는데, 실례로 전 가구의 99%가 전력이용이 가능한다. 또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과 위생 분야에서 농촌지역 식수 사업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수혜자를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도로망의 유지보수와 4G 통신망 확대를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SDG 12, 13, 14, 15번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해 영토의 22%를 보존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에 대한 새로운 해양 보존 구역을 설정하고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등 해양 생태계의 보호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93% 이상이 재난 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며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와 지속가능한 공공 구매 정책을 도입하여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SDG 16, 17번에서 급증하는 살인율의 해결을 위해 통합 안전 프로그램과 사법부 부패 방지 대책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결과 2024년 강력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의 관리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을 통해 인프라 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SDSN에서 발표하는 에콰도르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43]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항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SDG 2, 3, 10, 16번은 전 기간 중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SDG 9, 15번은 정체 상황인 주황색에서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빨간색으로 변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DG 4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21년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으나, 2022년부터 이행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노란색으로 변화하여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243] 에콰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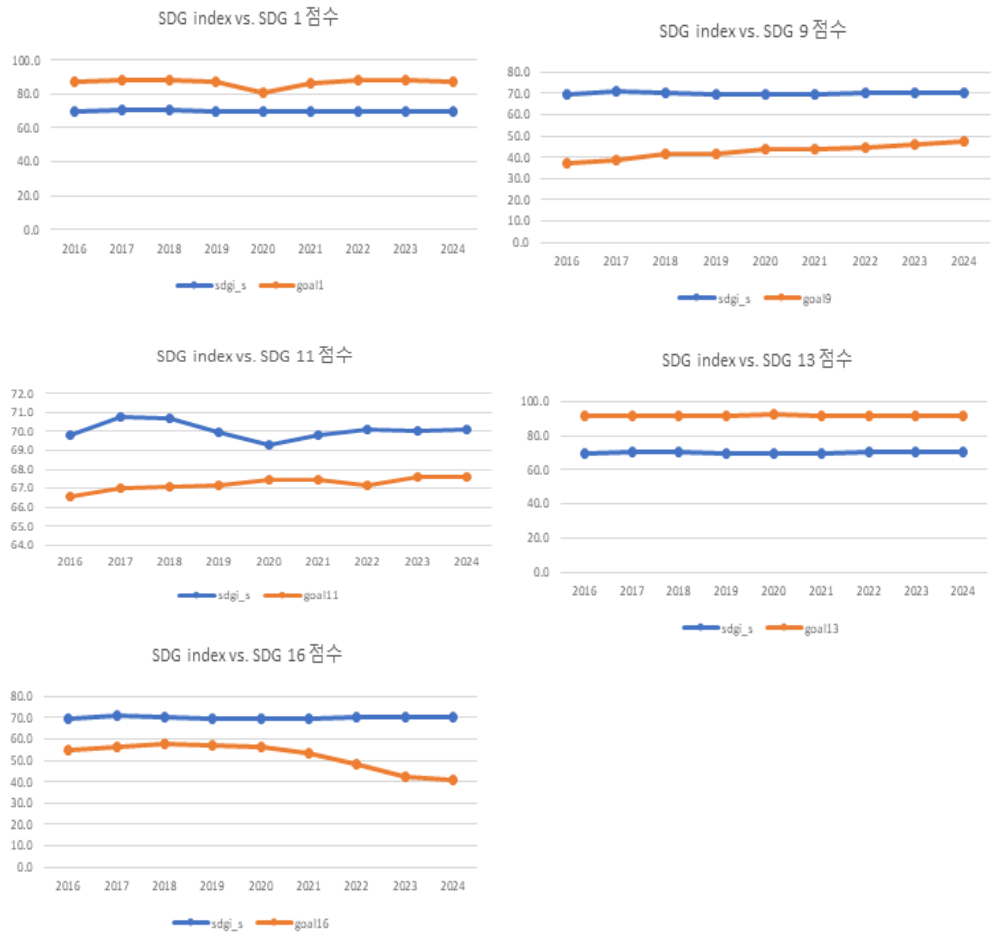
이처럼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 환경, 평화와 관련한 지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목표가 보통 수준의 진전 혹은 이행의 속도가 느려진 것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통해 단기간 내에 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기준, 에콰도르 SDG 이행 점수의 순위는 167개국 중 78위를 기록했으며, SDG 이행 점수는 70.09점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체기를 제외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SDG 점수는 소폭이나 미미한 상승 곡선을 유지하였다(SDSN 2025).

KOICA CP는 산업 혁신, 기후변화대응 및 난민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지원 분야는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계 보존', '평화구축을 위한 난민 지원 및 치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이처럼 CP와 관련한 목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024). SDG 1.4.1번은 기초 공공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하여 미충족 기본욕구 및 다차원 빈곤 비율의 지표를 통해 유사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2019년 전기 보급률은 99%를 달성하였다. 또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다차원 빈곤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3년 37%로 감소하였다. SDG 9.b.1번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과학기술 법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 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기업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생산 단위는 3,986개이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도입을 위한 방법론을 구현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SDG 11.b.1번과 11.4.2번 관련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SDG 13.2.2번의 연간 감소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계획의 수립 결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구수 및 연간 감소한 이산화탄소의 구체적 톤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 지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지수는 2020년 91%에서 2023년 83%로 감소하였다. SDG 16.6.2번은 수치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열린정부' 모델의 도입률은 2020년 20%에서 2023년 40%였으며, 사법서비스 개선과 비상대응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등 제도적 이행 성과가 기술되어 있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에콰도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44]에서 보는 것처럼 SDG 1, 13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반면에 SDG 9, 11,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Ⅱ-244] 에콰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G 1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나 2021년 이후 수치가 반등하여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DG 9번과 11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성과를 유지해 왔으나 미미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며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SDG 13번은 2016년부터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유지했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변동 없이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SDG 16번은 2016년부터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성과가 악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에콰도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기획위원회(Consejo Nacional de Planificación)'를 설치했는데 이는 2030 어젠다를 이행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체계이다. 또한 국립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은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 어젠더의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UN n.d.).

에콰도르에서 국가개발계획은 모든 공공정책, 프로그램, 국가 예산 집행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적 도구이며 정부는 국가개발계획과 SDGs 목표를 연계하여 국가 상황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세분화하고 목표를 재정의하였다. 통계의 측면에서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과 지표 산출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기획위원회와 국립통계청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국가개발계획의 각 영역과 SDGs 지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 전체를 다루기보다 자국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59개 특정 영역의 세부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에콰도르는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SDGs의 3대 차원(경제, 사회, 환경)을 연계하여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경제와 사회적 차원의 목표와 정책 연계성은 80%를 유지하는 반면, 환경 분야와의 연계성은 17%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재정적 제약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등 단기적 위기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향후 환경 분야에 대한 고려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적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Ⅱ-107〉 2024~2025 국가개발계획에서 SDGs가 차지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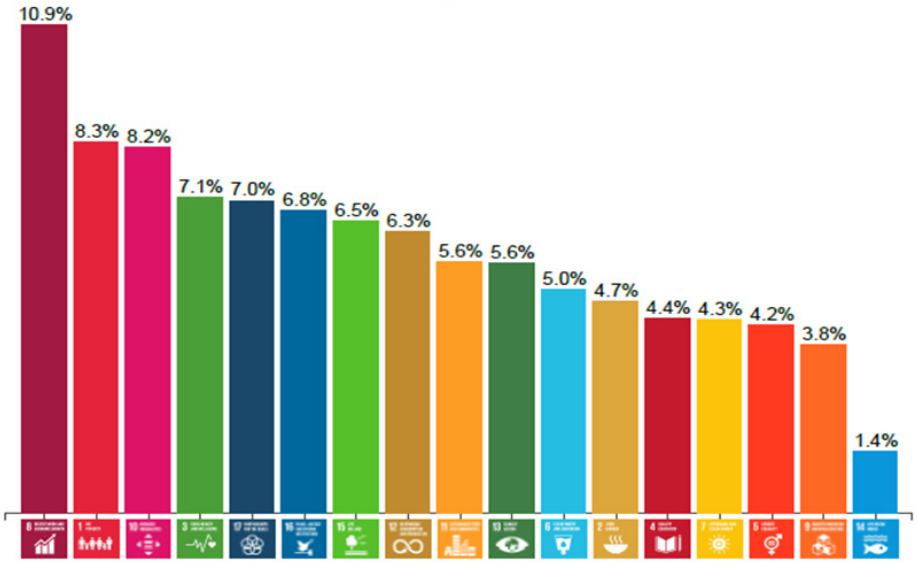
SDGs의 영역	SDGs 지표 수	국가개발계획 지표 수	국가개발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
경제 분야	41	17	41.46
사회 분야	74	30	40.54
범 분야	19	6	31.58
환경 분야	35	6	17.14
합계	169	59	-

출처: 국가기획부(2024), p. 35.

SDG Mapper를 통해 에콰도르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45]에서 보는 것처럼 SDG 8, 1, 10, 3, 17번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5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에콰도르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 감소 같은 사회 안정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고려하고 있다. 반면 환경과 해양 생태계 보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그림 Ⅱ-245] 에콰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1, 9, 11, 13, 16번이다. 이처럼 KOICA가 지원하는 목표 중 1번을 제외하고 다른 목표들은 에콰도르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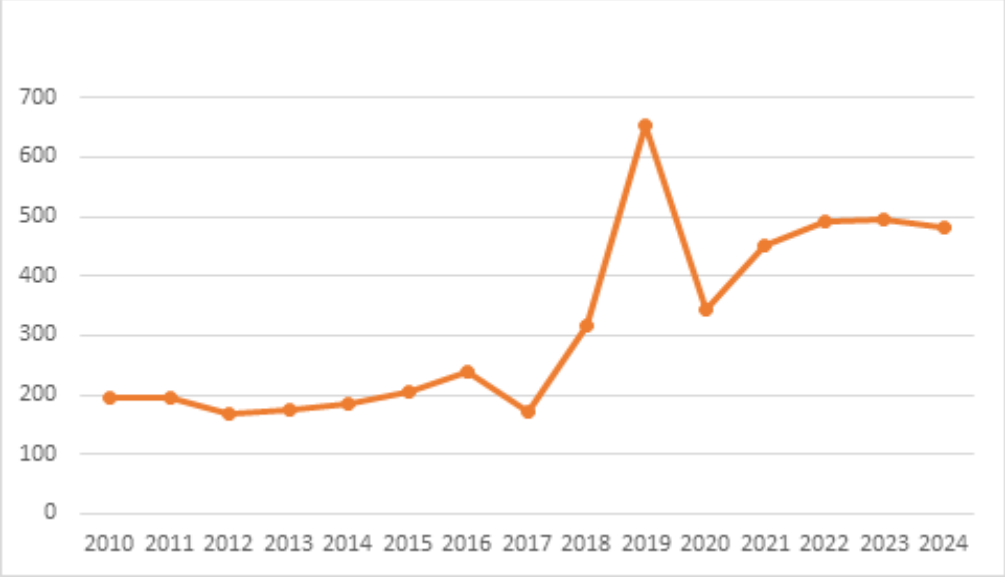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에콰도르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에콰도르에 대한 지원액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외 원조는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에콰도르 정부는 강력한 자원 민족주의 등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며,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에 대해 반 서방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 또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2019년은 역대 최고의 지원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유가 하락과 누적된 재정 적자 및 채무부담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한계에 이르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유류 보조금 폐지 등 긴축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과 원주민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 상황에 있었다. 이처럼 이 시기 공여국의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배경에는 IMF, 세계은행 등의 긴급 금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0~2024년에는 이전 시기의 지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도시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되고 지원 추이는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가 심화했으며, 특히 마약 카르텔에 의한 강력 범죄와 치안 위기로 인해 정부는 안보와 재난 관리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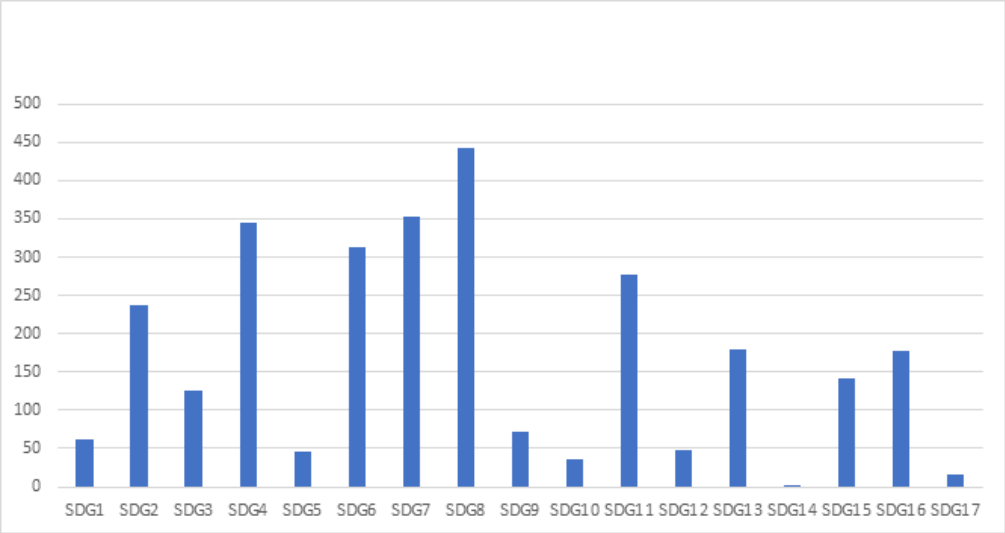
[그림 Ⅱ-246] 에콰도르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47]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SDG 목표는 8, 7, 4, 6, 11번 순이었다. 공여국의 지원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교육, 물과 위생, 도시 인프라 및 사회기반 시설 확충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47] 에콰도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같은 기간 동안 CP가 지원하는 SDG별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표 Ⅱ-108〉에서 보는 것처럼 SDG 1번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벨기에, 9, 11, 13번은 프랑스, 16번은 미국이었다. 총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와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SDG 목표별로 어떠한 정책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Ⅱ-108〉 에콰도르 SDG 1, 9, 11,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1 지원	SDG 9 지원	SDG 11 지원	SDG 13 지원	SDG 16 지원	합계
프랑스	11	31	216	148	1	408
미국	6	7	4	1	89	107
독일	1	1	28	29	42	101
스페인	11	1	10	-	21	44
일본	5	8	11	0	3	27
벨기에	13	-	-	-	6	21
기타	15	25	8	1	15	60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프랑스

에콰도르는 2014년까지 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을 통해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나, 유가 하락과 달러의 변동으로 경제는 불안정성을 보였으며 2016년 4월 발생한 지진으로 상황이 악화하였다(AFD n.d.).

프랑스 AFD는 2015년부터 에콰도르에서 활동해 왔으며 친환경과 연대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수자원, 위생, 에너지, 교육, 교통, 지진 복구 분야에서 역할 했으며, SDGs 목표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다(French Embassy in Ecuador n.d.; AFD n.d.).

SDG 1번과 10번 관련하여 에콰도르는 물 접근성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농촌개발 프로젝트와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하여 취약지역의 물과 위생 분야 등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SDG 11번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물, 위생,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고 빈곤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SDG 9번에서 산업 공정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가정용 에너지의 전기 전환, 송배전망의 최적화를 통한 전력 손실(Grid Loss)의 최소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 국가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다.

SDG 11번에서 프랑스는 에콰도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례로 과야킬(Guayaquil)시의 케이블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동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의 일자리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지진 피해 지역의 주택 재건, 특히 새우양식 등 어업, 관광산업, 농업 부문의 생산활동 복구를 지원하였다.

SDG 13번과 관련하여 정부의 탈탄소화 전략 및 기후변화적응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아마존 지역의 산림 파괴 방지와 갈라파고스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회복력 제고를 지원하였다. SDG 16번에서 공공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역량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업, 식량안보, 인권, 경제적 포용 등을 위해 주요한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였다. 예를 들면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유기농 및 공정무역 카카오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② 미국

미국의 에콰도르 지원은 경제적 번영, 민주적 통치, 지역 안보,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SDGs 목표별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2025). SDG 1번은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었는데 USAID를 통해 긴급 식량 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히, 여성 기업가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경제 재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구호를 넘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SDG 9번에서 미국은 에콰도르 정부가 자본시장 및 사회 기반 시설을 현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 국방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에콰도르 합동 사이버 방어 사령부에 사이버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안정적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SDG 11번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의 증진을 통해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특히 코로나19 동안 식수, 위생서비스와 개인 보호 장비의 지원을 통해 도시의 보건 회복력과 관련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재난 위험 관리 및 정보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지진과 기후 위기 등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공동체가 자생적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SDG 13번에서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 회복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SDG 16번에서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및 불법 거래 근절을 지원하였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에콰도르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09〉로 정리하였다.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9번과 16번은 이행 성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 장기적 환경 대응을 고려한다.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1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로 국제지원과 수요가 불일치하다. SDG 13번은 이행 성과가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 지원이 적은 분야로 선별적 관찰이 필요하다.

‘평화구축을 위한 난민지원 및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 KOICA는 성과 기반 선도적으로 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표 Ⅱ-109〉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계 보존	SDG 11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평화구축을 위한 난민지원 및 치안역량 강화	SDG 1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SDG 16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SDG 9번과 16번 관련하여 KOICA는 ‘국가품질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사업’,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 ‘디지털 및 신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한-에콰도르 산학협력 허브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혁신센터 등 인프라 구축, 제도와 체계 수립, 창업과 기업혁신 프로그램의 운영,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모델과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4차 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제도, 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지식 공유와 자문 등 기술협력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성과 확산 중심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개발협력 재원 확대의 제약 가능성을 감안하

여 본 분야의 목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선별적 사업 발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의 SDG 11번에서 KOICA는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의 수립,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시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 자원 순환형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이러한 기존 사업에서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한 인식 제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SDG 13번 관련하여 KOICA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과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데이터은행 설립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 연구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에콰도르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OICA는 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규모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전 자원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의 수행을 통해 현지 생물의 다양성 리스트 등 체계적 정보를 확보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화구축을 위한 난민지원 및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 1번에서 KOICA는 '침보라소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사업',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기초 공공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인구 비율의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다른 SDGs 목표와 비교할 때, SDG 1번은 다 분야에 대한 고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에콰도르가 대내외적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절대빈곤 퇴치 중심의 단편적 지원보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분야와 연계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술적 지원을 넘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토양 황폐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관개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영농기법을 보급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안데스 고산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건 분야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이 주민의 호흡기·심혈관계 등 만성질환 및 수인성 질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역학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유전자원 정보를 보건

의료 데이터와 연계하여 천연 의약품의 신소재 발굴과 같이 환경과 보건 분야를 융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SDG 16번은 기후와 환경 분야보다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목표이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논의가 확대되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개선, 경찰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향후 본 분야의 지원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고려할 수 있다.

5) 엘살바도르

(1) SDGs 이행 현황

엘살바도르 정부는 VNR를 2017년, 2022년, 2025년 3회 제출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장기간 저성장, 배타적 사회 시스템, 높은 송금 의존도, 환경적 취약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의 포괄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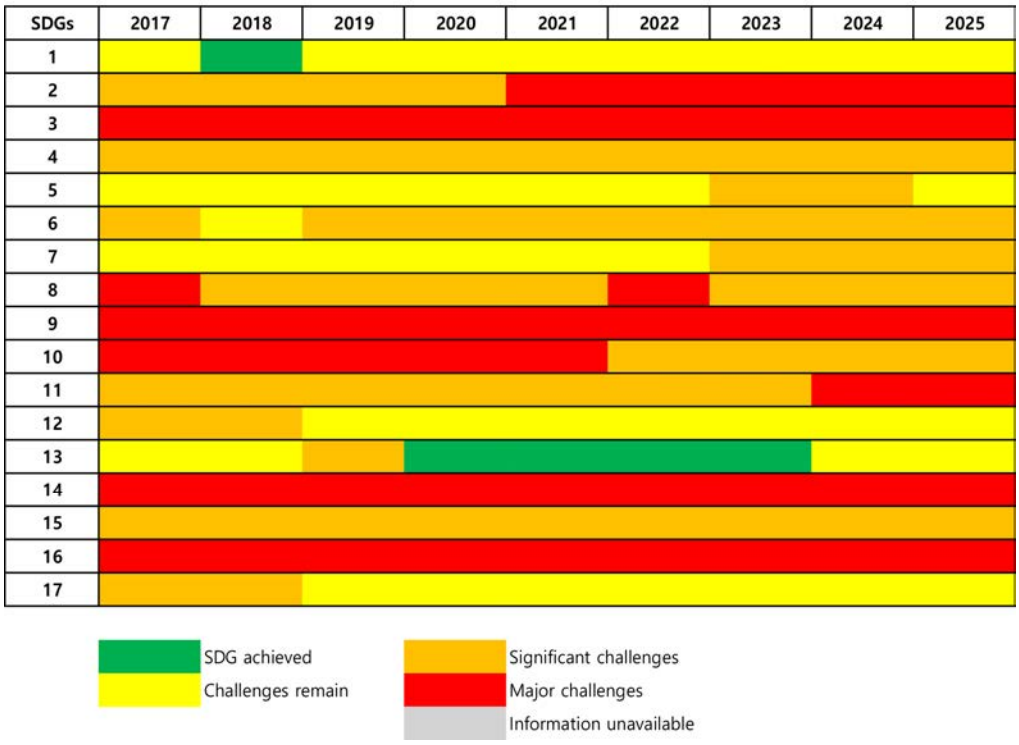
엘살바도르 VNR에서 SDGs 관련 다음과 같이 주요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El Salvador 2025, 15-17). SDG 1번과 관련하여 빈곤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2015년 40%였던 빈곤율은 2023년 30.3%로 감소하였다. 특히 '통합 문화(Cultura de Integración)'는 새로운 발전의 모델로 단순한 소득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지적, 정서적, 교육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관점을 공공정책에 통합하여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 SDG 2번의 식량안보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서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2016년 24.3%에 달했던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은 2023년 14.7%로 개선되었다. SDG 3번에서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인구 1,000명당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015년 233명에서 2023년 269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 공중보건 서비스의 보장 범위와 사회적 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SDG 4번의 교육 분야에서 고등교육의 보편적 접근 확대가 이루어지고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나의 새로운 학교(Mi Nueva Escuela)', '교육과의 연계(Enlaces con la Educación)'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기관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노트북과 태블릿을 보급하여 디지털 학습환경의 보편성 확대를 추구하였다.

SDG 6번의 기초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에 대한 서비스 비율은 86%에서 91%로 상승하였다. 또한 개선된 위생시설의 이용 인구 비율은 2015년 88.6%에서 2023년 89.6%로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이 개선되었다. SDG 7번의 에너지 접근성은 2015년 95.8%에서 2023년 98.5%로 증가했으며, 농촌지역 가구의 전기 보급률이 5.4% 상승하며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하였다. SDG 8번의 실업률은 2015년 7%에서 2023년 5.2%로 하락했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 비율도 30.6%에서 36.5%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층(NEET, 니트족)' 의 비율은 27.2%에서 22.6%로 낮아졌다. SDG 11번의 주거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도시 내 비공식 거주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39.6%에서 2023년 34.3%로 감소했으

며, 식수, 전기,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인구 비율도 67%에서 71.1%로 증가하여 전반적 정주 여건은 개선되었다. SDG 16번의 치안 및 사법 정책의 시행으로 범죄율이 급감하여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6.15건에 달했던 살인율은 2023년 1.9건으로 감소했으며 시민 안전이 강화되었다.

SDSN에서 발표하는 엘살바도르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을 보이는 목표는 SDG 1, 4, 12, 13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진전이 더딘 목표는 SDG 5, 10, 15번이며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상황이 악화한 분야는 SDG 2, 3, 11, 16번이었다. 특히, 엘살바도르 VNR에 따르면. 10만 명당 살인율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16번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범죄 억제의 성과와는 별개로 제도적 민주주의 및 사법 정의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DG 2번은 2021년부터 목표 달성이 어려운 빨간색으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엘살바도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Ⅱ-248] 엘살바도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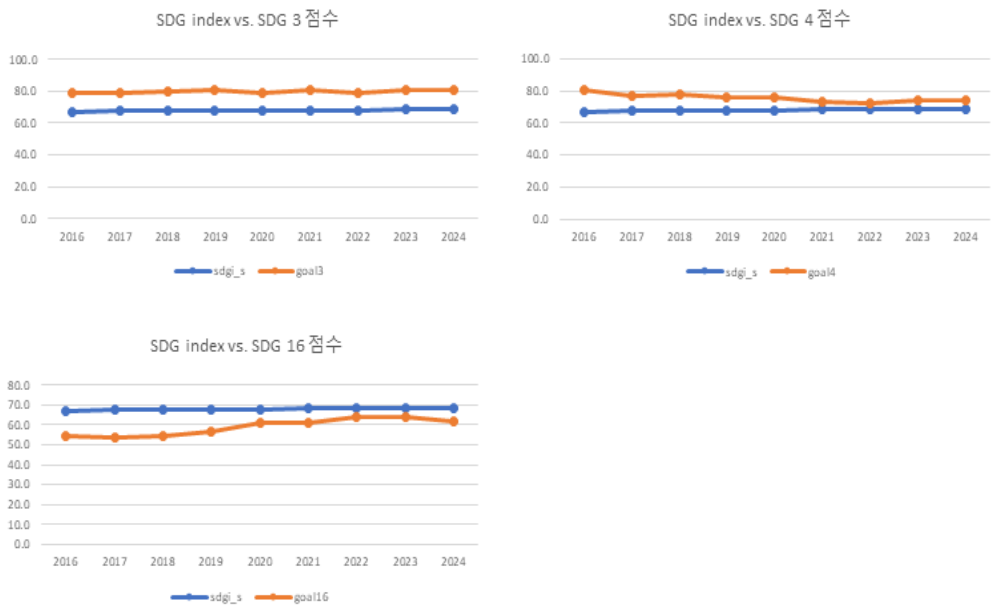
엘살바도르의 SDG 이행 점수는 68.44점으로 전체 167개국 중 8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행 점수는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SDSN 2025).

KOICA CP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 및 보건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혁신적·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지원 분야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과 '포용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엘살바도르 VNR에 의하면 CP에서 지원하는 목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El Salvador 2025). SDG 3.1.2번은 2015년 기준선이 97.7%였으나 2023년 98.1%였으며 목표로 고려하는 100%와 1.9%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SDG 4.4.1번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성인 비율은 2015년 기준선이 84.74%였으나, 2023년 88.23%로 소폭 증가하였다. SDG 16.6.2번에 대한 만족도 관련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엘살바도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49]에서 보는 것처럼 SDG 3번과 4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미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6년부터 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하고 있다. SDG 4번은 코로나19 동안 성과가 하락했다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SDG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성과가 개선되면서 SDG 이행 점수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그림 Ⅱ-249] 엘살바도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엘살바도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2023년 수립된 '국가종합개발전략(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Integral, ENDI)'은 SDGs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2023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표별 현황과 목표치 간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부통령실 산하 '국가개발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는 국가종합개발전략(ENDI)의 정책실행과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있다. 개발 재원의 동원에서 외교부, 재무부, 대통령실 상무 투자국 및 혁신국이 역할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조정은 인적 역량 강화, 생산구조 혁신, 식량, 물, 생물권 보호 보장,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혁신 등 ENDI의 우선 분야별 지정된 책임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SDGs의 영토화(Territorialization)'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110〉 엘살바도르의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거버넌스	관련 기구
실행과 모니터링	부통령실 산하 국가개발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개발재원 동원	외교부, 재무부, 대통령실 상무 투자국, 대통령실 혁신국
프로그램 운영-조정	ENDI의 각 핵심 분야별로 지정된 책임기관: 인적 역량 강화 분야 생산구조 혁신 분야 식량, 물 및 생물권 보호·보장 분야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혁신 분야
영토화	지방개발부와 시정사업국

출처: 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l El Salvador(2025), p. 27.

엘살바도르 VNR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El Salvador 2025). 국가개발위원회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한다. 또한 관련된 법체계를 현대화하고 공공정책 내 SDGs가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종합개발전략(ENDI)의 이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2024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통합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 문화 기반의 사회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치안 정책을 표준화하여 빈곤 감소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 외에도 공공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높이며 이를 통해 빈곤 감소를 추구한다.

한편, 교육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평등한 시간분배를 장려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식량주권을 위해 농가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관개 시스템을 확충하여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며 식수 및 위생서비스의 보편적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규제와 환경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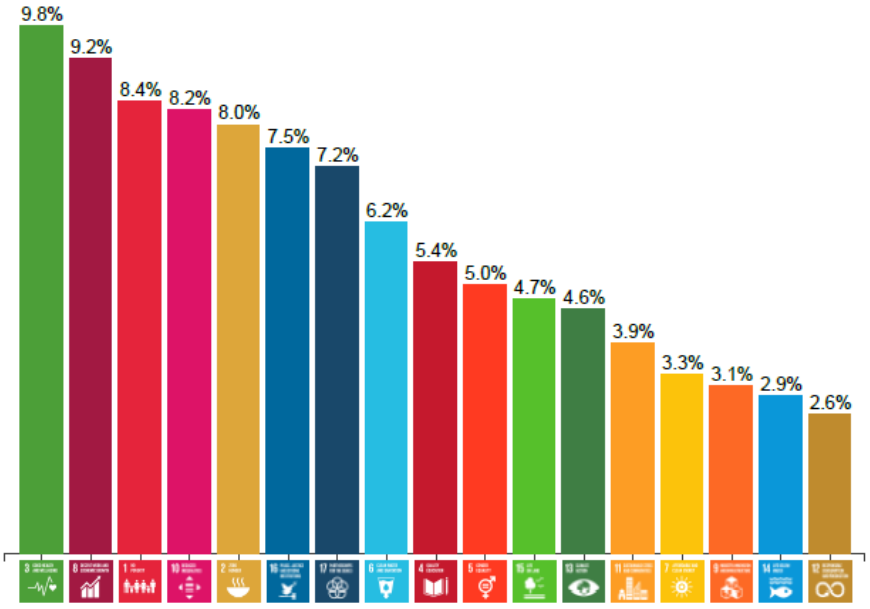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근 개선된 치안과 사회적 안정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한

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국가 경제의 자립도와 회복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민간 투자를 통해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다각화한다.

SDG Mapper를 통해 엘살바도르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엘살바도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50]에서 보는 것처럼 SDG 3, 8, 1, 10, 2번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5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 정부는 보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빈곤퇴치, 불평등 완화, 기아 종식 등 사회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안보와 거버넌스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3, 4, 16번이며 3번을 제외한 다른 목표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Ⅱ-250] 엘살바도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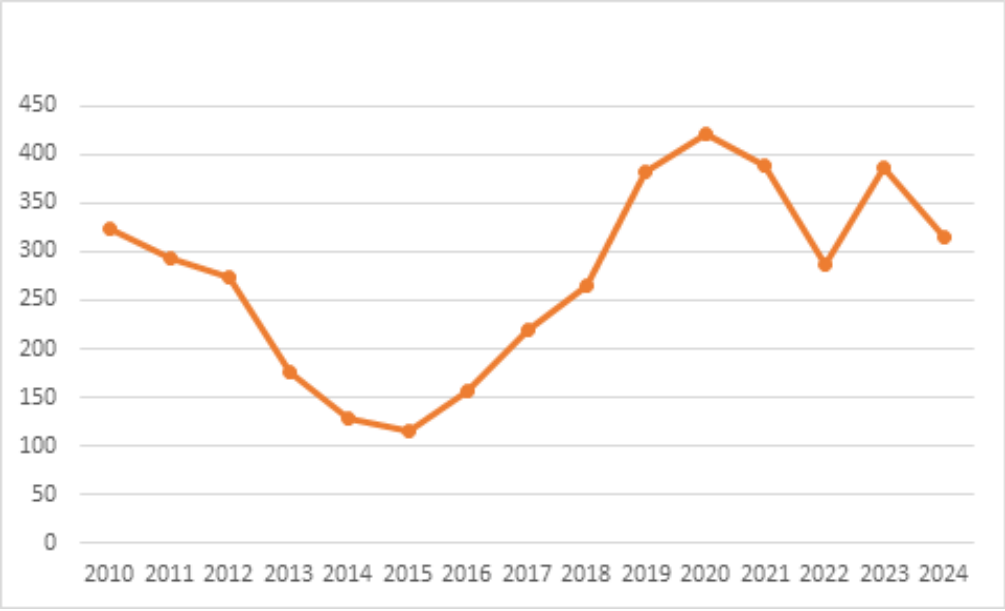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엘살바도르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5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 시기 정부 부채의 증가와 저성장이 지속되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지원은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부패 문제와 치안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Ⅱ-251] 엘살바도르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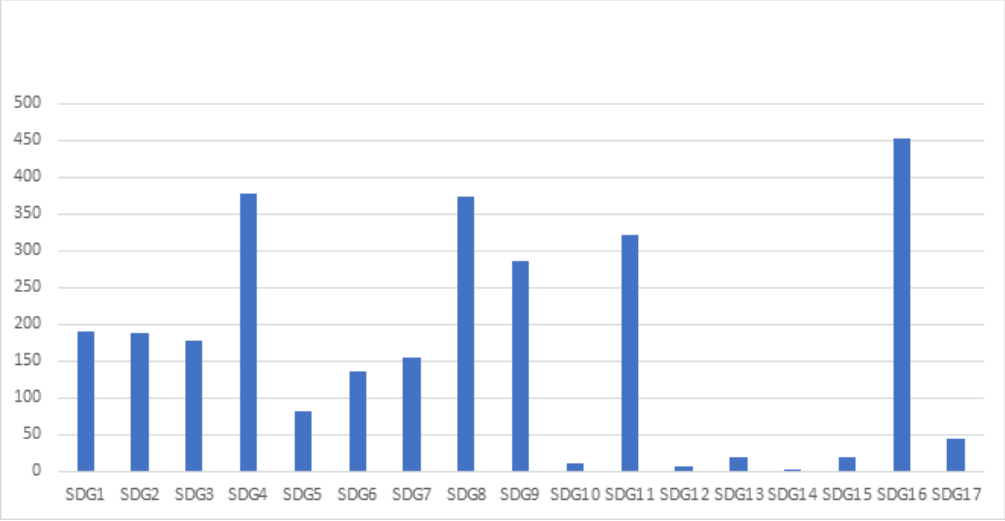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여국의 지원은 증가했는데,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치안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원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인다. 따라서 2021~2022년 엘살바도르는 부켈레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정치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야기되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경제 모델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었고, 범죄 소탕 작전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대두되어 미국 및 유럽연합(EU)와의 관계에서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3년 치안 개선으

로 인해 국가 안정성 회복,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공여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 추세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 4, 8, 1, 9번이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국가 제도 및 거버넌스,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빈곤퇴치,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52] 엘살바도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 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별 DAC 회원국의 ODF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표 Ⅱ-111〉에서 보는 것처럼 SDG 3번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스페인, 4, 16번은 미국이었다. 전체 지원액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이었으며 국가별 주요한 지원 활동은 다음과 같다. 특히, 공여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목표 중 4번과 16번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

〈표 Ⅱ-111〉 엘살바도르 SDG 3, 4,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미국	49	226	293	567
스페인	77	29	68	176
독일	4	36	23	63
일본	18	23	5	47
한국	21	10	14	45
프랑스	-	31	-	31
이탈리아	19	6	9	17
기타	10	17	41	62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의 엘살바도르 지원 정책은 중미 지역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경제적 안정과 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엘살바도르 국민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안전한 공동체 조성, 젠더 기반 폭력 예방 강화, 인권 증진, 생존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서비스 확대, 사법 접근성 제고 및 초국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SDGs 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ForeignAssistance.gov n.d.; US Department of State n.d.).

SDG 3번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지원하였다. HIV/AIDS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HIV 확산 방지 및 감염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농촌지역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기초 보건 서비스와 깨끗한 물, 위생시설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귀환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과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SDG 4번은 청소년의 조직범죄 가담을 방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와 인력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또한 학교를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출석률 제고와 기초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학금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교육을 통해 실질적 취업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교사 연수, 시설 개보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이주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SDG 16번은 엘살바도르의 치안과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분야이다. 이를 위해 조직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폭력에 노출된 지역사회 내 공공장소를 조성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관리의 부패 수사 및 공무원 대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사법 분야에서 공공 변호사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사법 정의 실현과 기소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사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법치주의 공고화를 추진하였다.

② 스페인

스페인의 엘살바도르 지원 정책은 '스페인-엘살바도르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MAP) 2023-2026'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청소년과 조직범죄 집단의 폭력 예방, 도시 거버넌스, 지역경제 개발, 재난 대응 및 위험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SDGs 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3).

SDG 3번과 SDG 5번을 연계하여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LGBTI) 등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실례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리에 기반한 양질의 성·생식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 전염성질환 서비스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뇨, 고혈압, 자궁경부암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며, 농촌 등 소외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사망률을 감소하며 아동·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와 성소수자 집단 등 소외계층이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센터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 활동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 지원을 넘어서 제도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성·생식 권리교육을 제공했으며 보건부, 국립보건소, 통계청, 아동청소년위원회,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보건 서비스 및 의료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SDG 4번과 관련하여 엘살바도르 국가 교사 연수 정책 및 디지털 어젠다와 연계하여 교육 분야

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무상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공평하고 질 높은 학습환경의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 및 장비 제공,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의 개편과 더불어 비정규·비형식 교육 분야에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동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래의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ICT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엘살바도르 기술직업훈련원과 협력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조기 임신으로 인한 여학생들의 교육 단절을 예방하며 지역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지원하였다.

SDG 16번에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사법 제도를 현대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조직범죄 집단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높은 여성 살해 비율 및 성폭력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12〉로 정리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이 지원하는 SDG 4번은 이행 성과가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로 KOICA는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선택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SDG 16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로 국제지원과 수요가 불일치하다.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 성과에 기반하여 선도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Ⅱ-112〉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SDG 16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SDG 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SDG 4번과 관련하여 KOICA는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이러닝 역량강화사업', 'ITCA 공학교육역량강화사업', '엘살바도르국립대학교 농과대학 교육역량강화 및 고급인재양성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 고급인재 양성,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였다. 향후 이 분야에서 KOICA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 중심의 선택적·보완적 개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구축한 이러닝 시스템과 ITCA 혁신기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 플랫폼 및 AI,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자문 등 고부가가치 지식 전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체계의 고도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및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ICT 중심 공학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

SDG 16번에서 KOICA는 단계별 '치안역량강화사업'과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했던 강력한 범죄 소탕 작전 이후 범죄율이 급감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치안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구축한 센터와 장비의 지원에서 AI·데이터 분석 체계, 제도·인적 역량 강화 등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자원의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초청연수사업 의 형태로 경찰의 교육훈련 과정을 고도화하거나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범죄 대응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인적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향후 SDG 16번은 독립된 개별 목표로 접근하기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 분야 이슈로 다른 목표들의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에서 SDG 3번과 관련하여 KOICA는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 강화사업’,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KOICA는 1차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를 위해 거점지역 보건소와의 이송연계 체계 구축 지원와 같이 통합 네트워크 확충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진단, 감염병 예측 및 방역, 만성질환 관리, AI 어시스턴트 활용 교육, 의약품 공급 및 주민 소통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사업으로 설립된 국립보건교육센터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 인근 중미 국가의 보건 인력 양성 허브로 확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살바도르 전문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미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CP 프로그램의 지원 목표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의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SDG 8번 분야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온 ‘경제재건을 위한 역동적 소상공 개발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디지털 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 국가소상공위원회(CONAMYPE)가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소상공위원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역량강화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6)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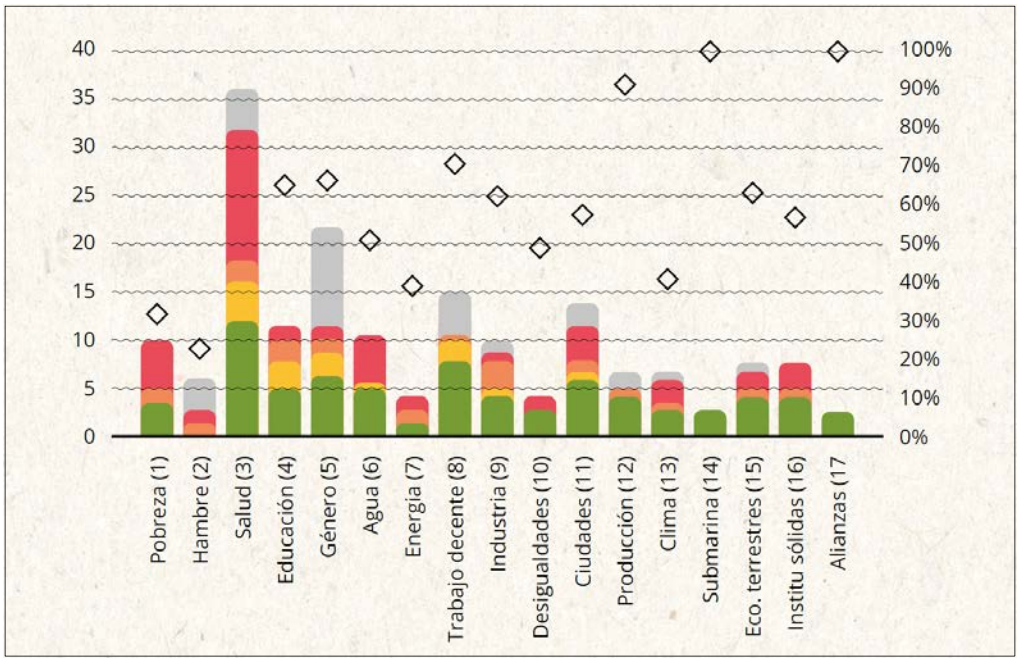
(1) SDGs 이행 현황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2018년, 2021년, 2024년까지 총 4회 VNR를 제출하였다. VNR 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서 우선하는 '식량안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0 아젠다의 달성을 위해 다차원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e Colombia 2024). VNR에 의하면, 관련된 178개의 지표 중 150개 지표는 2016년 기준선 이후의 유의미한 데이터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데이터의 가용성은 7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VNR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와 과제를 기술하고 있다. 즉, 콜롬비아의 SDGs 이행 수준은 중남미 18개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평균 이행률은 58%인데, 전체 지표 중 긍정적 진전을 보이는 지표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중간 정도 수준의 지연이 나타나는 목표는 47%, 심각한 지연이 나타나는 목표는 23%로 확인되며, 정체되거나 목표를 벗어나 이탈한 경우는 6%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SDG 목표별 이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목표는 SDG 12번으로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SDG 14번과 17번 역시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었다. 2030년 목표 대비 이행률이 50%에서 75% 사이이며, 중간 수준 혹은 지연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목표는 SDG 4, 5, 6, 8, 9, 11, 15, 16번이다. 특히, SDG 4번 목표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공식 등록률, 고등교육 보급률, 영유아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였다. SDG 5번은 점진적 개선이 관찰되고 있으며 SDG 6, 8, 9번은 중간 정도의 지연 상황에 있다. SDG 11번과 15번 관련 지표는 2030년 목표 대비 57% 이상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SDG 16번에서 무력 분쟁 피해 보상과 폭력 감소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Ⅱ-253] 2030 의제와 관련한 콜롬비아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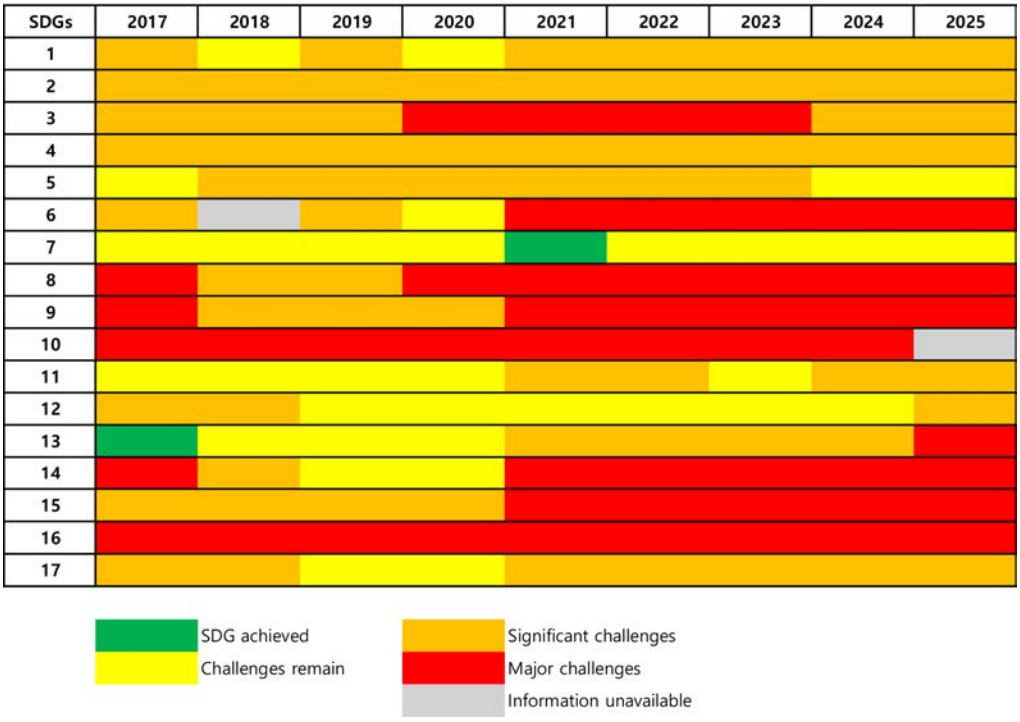
출처: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2024

반면에 SDG 1, 3, 7, 10, 13번은 기준선 대비 상당한 지연 또는 정체 상황을 보이며 이행률은 25%에서 50%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정책적 동력이 요구된다. 특히, 목표 달성률이 25% 미만으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목표는 2번이며,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SDG 1, 7, 13, 15, 16, 17번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SDSN에서 발표하는 콜롬비아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나타난 목표는 5번과 7번인데, 이는 콜롬비아 VNR에서 분석하는 목표별 이행 현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목표는 중간 혹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롬비아의 SDG 이행 점수는 70.5점이며 전체 167개국 중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행 점수의 추이는 완만하고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을 겪은 이후 현재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SDS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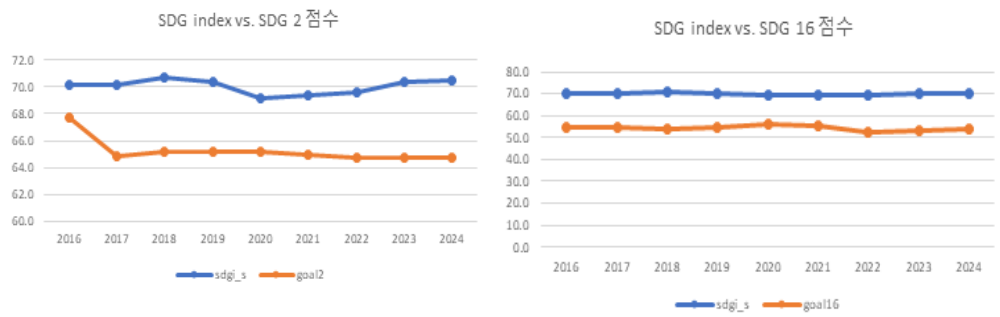
[그림 Ⅱ-254] 콜롬비아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 CP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평화 구축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중점 지원 분야는 '분쟁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와 '경제발전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평화구축 확대와 관련한 SDG 2.4.1번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면적 비율이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녹색 성장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 생산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선인 0.49%에서 2019년 0.3%로 소폭 감소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DG 16.3.3번은 지난 2년간 분쟁을 겪었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접근했던 인구 비율이며, 이 지표의 경우 통계가 부재하였다.

[그림 Ⅱ-255] 콜롬비아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SDSN에서 발표하는 콜롬비아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55]에서 보는 것처럼 SDG 2와 16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낮고 특히, SDG 2번의 경우 2017년 급락한 이후 SDG 이행 점수 평균 수치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며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콜롬비아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은 SDGs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퇴치'를 국가의 핵심적 가치이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30 의제와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SDGs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최적화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ECLAC n.d.). 또한 SDGs 지표의 생산을 위해 국가 통계 역량을 진단하고 SDGs 목표에 따른 핵심 지표가 국가의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재정의함으로써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SDGs의 영토화(Territorial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성과를 넘어 지방 차원에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이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식량안보를 단순한 영양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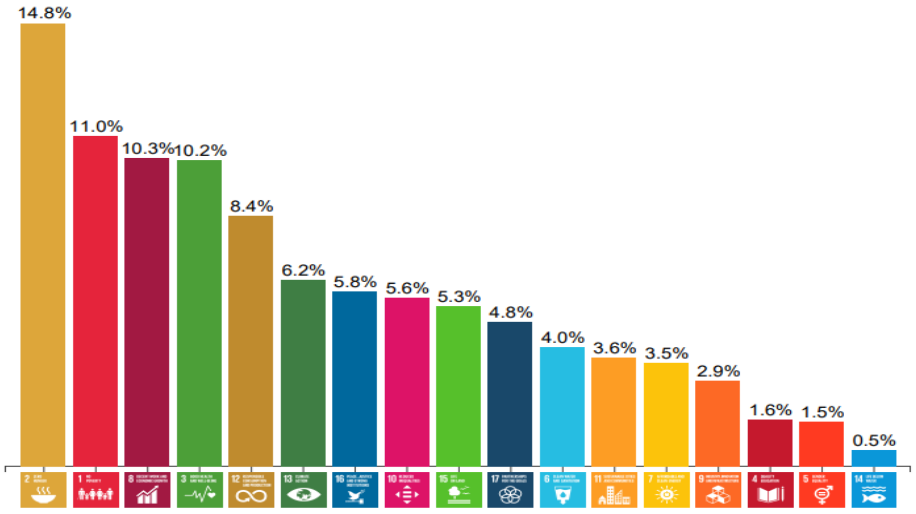
한다. 즉, 기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빈곤, 농식품 시스템의 거버넌스 취약성, 재원 조달의 한계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량 강화, 농촌지역 기초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거버넌스 재구축 등 사회·환경·경제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소규모 농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개선과 교육 기회의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 정착과 국가 기관의 신뢰 회복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로 역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정책을 지속하며 갈등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쟁 피해지역의 행정 투명성과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이행'을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부패 방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역 기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지역의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의 의미를 넘어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역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식량 불안정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협정의 이행과 농촌지역의 식량 체계 복원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SDG Mapper를 통해 콜롬비아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56]에서 보는 것처럼 SDG 2, 1, 8, 3, 12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5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콜롬비아 정부는 기아종식, 빈곤퇴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건강과 웰빙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는 2, 16번으로 특히, 2번은 콜롬비아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16번은 공여국의 지원이 집중된 분야로서 KOICA의 지원은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에 부합한다.

2026년 6월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현 정권은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성향 정부였으나 향후 우파 정권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치안, 고용의 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그림 Ⅱ-256] 콜롬비아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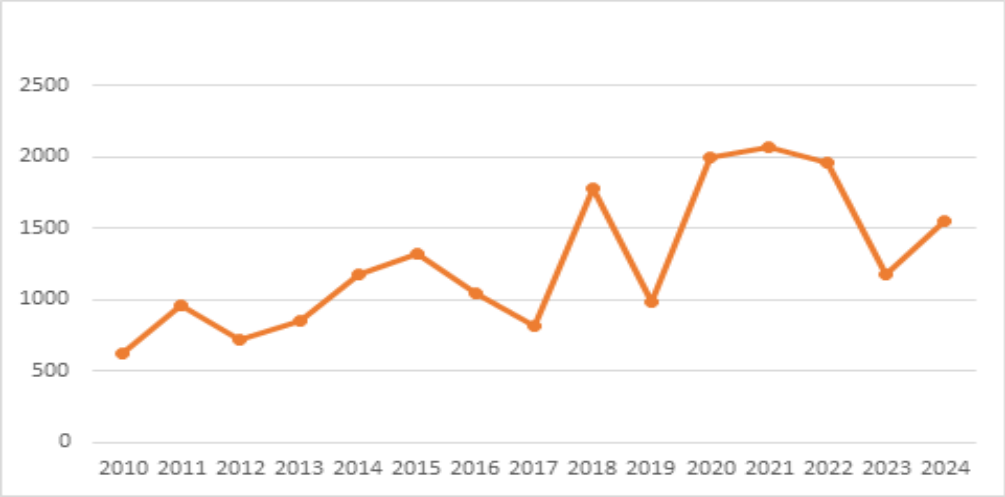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콜롬비아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5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콜롬비아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따라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이 시기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협상이 본격화되고 국제사회는 분쟁 종식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2016년을 기점으로 2017~2018년에 걸쳐 국제사회의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는 평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반군의 사회 복귀와 분쟁지역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며, 이 시기 대규모 난민이 콜롬비아로 유입되면서 식량과 보건 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2020년과 2022년 동안 코로나19 대응과 베네수엘라 난민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여국의 지원은 증가하였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반적 지원 규모는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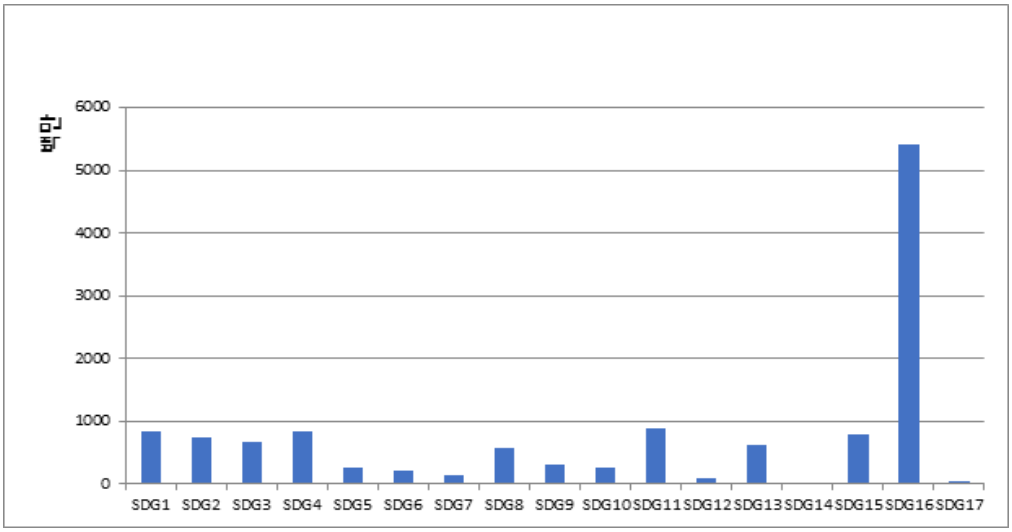
[그림 Ⅱ-257] 콜롬비아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SDG 목표는 16번이다. 이 외에도 11, 4, 15번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은 평화와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도시와 공동체, 양질의 교육, 육상생태계 보존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Ⅱ-258] 콜롬비아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전반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지원은 콜롬비아 VNR에서 우선하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은 평화와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평화구축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인프라 개선, 경제개발, 젠더, 교육 등 다분야를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KOICA CP 중점 목표와 연계된 DAC 회원국의 ODF 금액을 확인한 결과, 〈표 Ⅱ-113〉에서 보듯이 SDG 2번과 SDG 16번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이에 양국이 해당 SDG 목표별로 어떻게 지원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Ⅱ-113〉 콜롬비아 SDG 2,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미국	493	2,728	3,221
독일	44	1,217	1,261
프랑스	13	447	460
노르웨이	14	228	242
스웨덴	10	222	232
캐나다	71	131	202
스페인	14	121	135
영국	17	117	135
기타	75	191	265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은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72]를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을 집중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2016년 콜롬비아 정부가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지원은 '콜롬비아 평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23년 미국의 콜롬비아 지원 규모는 상위 중소득국 중 레바논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USAFacts n.d.).

미국의 지원은 USAID와 국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우선적 지원

72) 본 계획은 1999년 수립된 이래 콜롬비아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와 내부의 무장 갈등 종식 및 마약 범죄 근절을 핵심적 목표로 하였다.

분야는 긴급 대응, 기타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분쟁, 안보, 평화, 정부와 시민사회였다(ForeignAssistance.gov n.d.). SDG 2번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작물의 재배를 근절하고, 대체 작물의 개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농민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 지역에서 불법 작물 재배와 산림파괴를 막고 환경 친화적 농업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SDG 16번은 콜롬비아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미국은 분쟁 방지, 안보 확립 및 평화협정 이행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마약 생산 및 밀매의 단속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범죄 조직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 분야에서 법치주의 증진, 인권 보호,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행위 주체의 역량 및 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범죄 집단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폭력 사건의 발생률을 낮추는 등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미국 행정부의 USAID 폐쇄 조치와 더불어 2025년 10월 발표된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프로그램 축소 계획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미국의 콜롬비아 지원 규모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일보 2025).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특히 국내 실향민, 원주민 공동체, 아프로-콜롬비아계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평화협정 이행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약밀매 퇴치 및 사법공조 등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전통적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② 독일

독일의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평화구축 및 이주,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생물의 다양성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지원은 BMZ와 GIZ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BMZ n.d.; GIZ n.d.).

SDG 2번과 관련하여 독일은 농촌지역 소규모 농가의 생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수확량을 증대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빈곤감소 및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과 수자원 관리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및 천연자원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DG 16번과 관련하여 독일은 2008년부터 콜롬비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했으며 2016년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에는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 공공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물과 위생 시스템 분야에서 제도적 역량의 강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 차원의 재난 위험 예방 및 관리 체계의 강화를 통해 효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평등 및 시민사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인권 중심의 포용적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분쟁과 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토지 구역을 대상으로 지적 체계 및 토지 등록 방법론 관련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분쟁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공을 지원하며, 폭력 및 빈곤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실향민과 최근 급증한 베네수엘라 난민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지원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콜롬비아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14〉로 정리할 수 있다. '분쟁 피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 프로그램과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로서 KOICA는 선도적 개입을 통해 중장기적 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 SDG 16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로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국의 수요 간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자원 재배치 및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표 Ⅱ-114〉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분쟁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	SDG 2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 창출 검증 유형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역량 강화	SDG 16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분쟁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 및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SDG 2번은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으나, 기아 종식과 식량부족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평화구축과 지역개발의 시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분야이다. 향후 이 분야는 KOICA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영역이며 협력국 정부가 우선하는 식량안보 개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OICA가 추진하는 ‘분쟁 피해지역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의 소득증대 사업’, ‘뿌뚜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 사업’, 유엔여성기구(UN Women), UNFP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농촌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득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생산 작물의 국내외 시장개발, 농촌 여성 대상 디지털·금융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해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DG 16번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이행 성과의 부진이 구조적 차원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KOICA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타 공여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티 공동체 증진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제도개선, 인적 역량 강화,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중심으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미국의 USAID 폐쇄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의 축소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독일의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분쟁지역의 정부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정보 역량 강화 체계 구축 사업’, ‘반부패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IOM과의 협력을 통한 ‘분쟁 피해지역 평화 지속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역량강화사업’에서와 같이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기반 거버넌스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이며 OECD 회원국이다. 콜롬비아 정부의 ‘국제협력의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CI 2023~2026)’에서 콜롬비아는 신흥공여국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2023). 또한 콜롬비아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 역량 강화, 지식 공유 및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을 핵심 동력으로 평가한다(OECD 2025). 이처럼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그린 펀드나 혼합 금융 같은 혁신적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러한 콜롬비아의 역량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국은 콜롬비아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전환 및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법규나 제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정책의 실행력과 데이터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타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조선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시 폐기물 관리 등의 환경 분야 및 베네수엘라 난민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로서 기술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해 중남미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콜롬비아의 사업 모델을 확산하는 지원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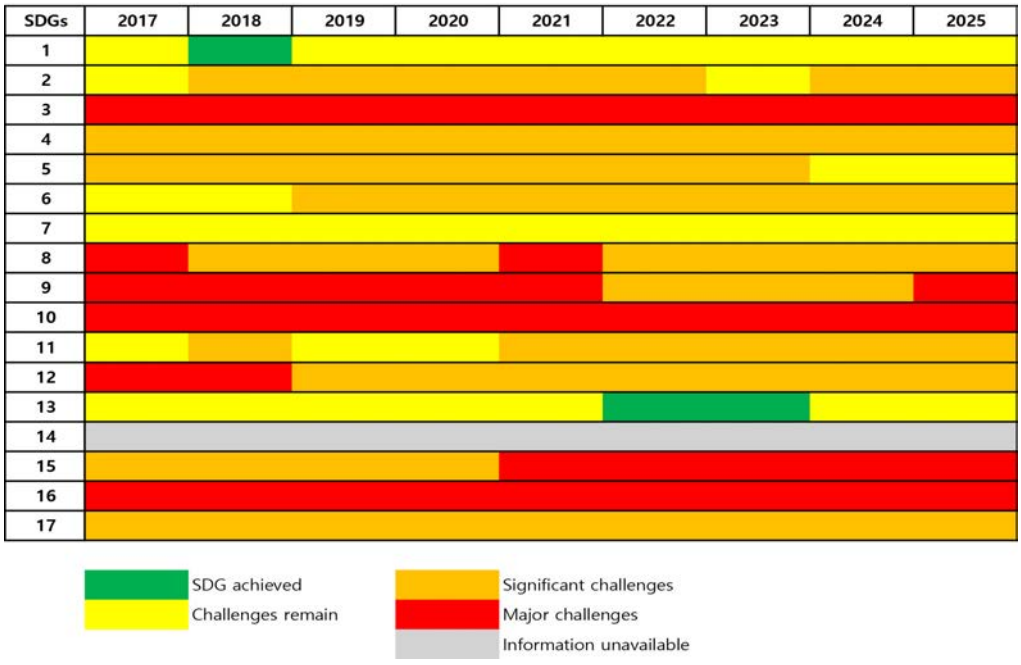
7) 파라과이

(1) SDGs 이행 현황

파라과이 정부는 VNR를 2018년과 2021년 2회 제출하였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에서 국가별 SDGs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국가 프로필과 VNR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 지표의 개선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UN n.d.;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raguay 2021). SDG 1, 6, 8, 13번에서 진전이 나타났으나 SDG 2, 4, 5, 10, 16번 목표와 관련하여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SDSN에서 발표하는 파라과이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5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시보드의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이 나타난 목표는 5, 7, 8번이다. 그러나 대부분 목표는 여전히 중간 수준 혹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SDG 3, 9, 10, 15, 16번의 경우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5년 파라과이 SDG 이행 점수는 68.13점으로 전체 167개국 중 9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행 점수의 상승 폭은 다소 제한적이나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SDSN 2025).

[그림 Ⅱ-259] 파라과이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 CP는 빈곤 감소, 불평등 완화 및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중점 지원 분야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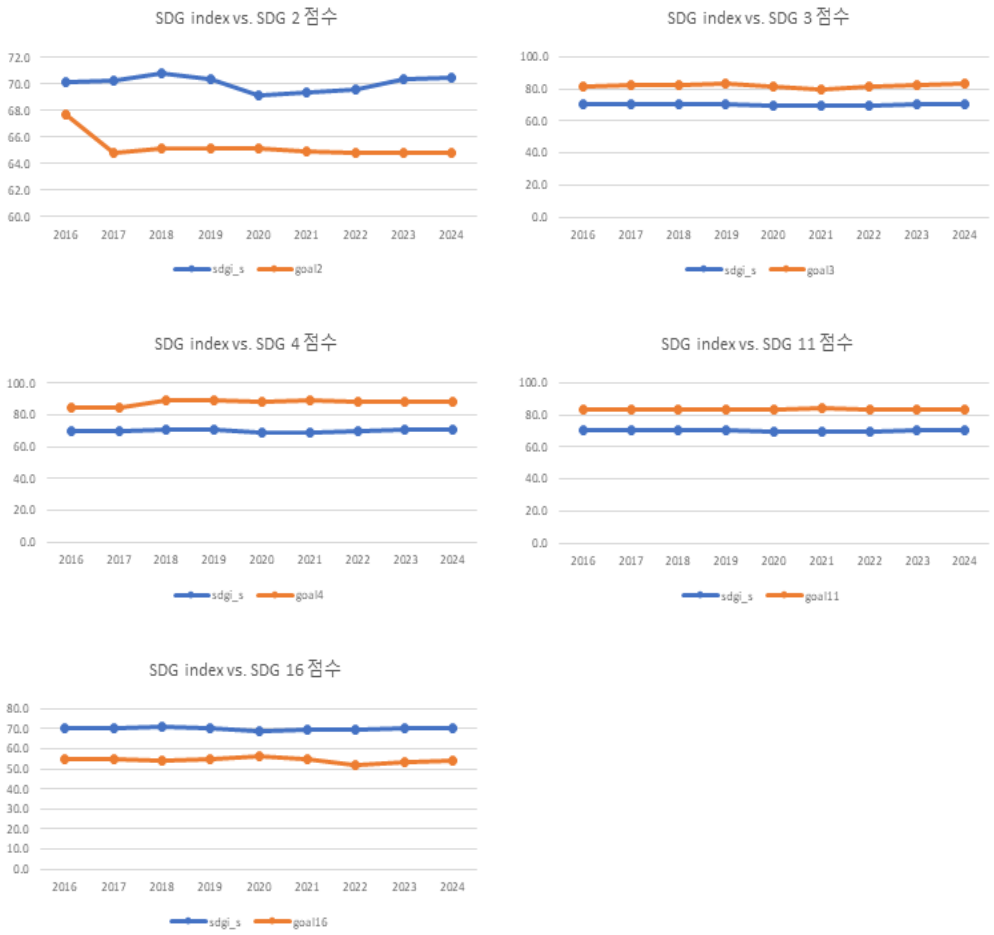
CP와 관련한 목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SDG 2번의 영양부족, 발육부진, 소모증 등 영양결핍과 관련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가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CP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SDG 2.3.1번과 2.3.2번 관련한 통계는 부재하였다.

SDGs 3번에서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 비전염성 질병의 사망률 개선, 숙련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출산 증가 등 아동의 생존권과 의료 접근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가 가중되면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SDG 3.1.2번은 2015년 95.2%에서 2018년 91%로 감소하면서 하락추세를 보였다. 특히, 파라과이는 지역 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열악한 지역인 서부와 농촌지역은 각각 77.2%와 83.7%로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SDG 3.2.1번은 2015년 16.4명에서 2018년 15.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은 악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SDG 3.3번의 주요 감염병 부문에서 신규 HIV 확진, 결핵, 말라리아 진단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SDG 3.4.1번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SDG 4.3.1번 청소년과 성인의 12개월간 공식 교육훈련 참여율은 2015년 23.5%에서 2020년 21.4%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0년 기준 도시는 23.6%, 농촌지역은 17.4%로 격차를 보였다. 청소년과 성인의 비정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2015년 26.3%에서 2020년 27%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이 지표에서도 2020년 도시지역은 31.4%, 농촌지역은 18.8%로 차이를 보인다. SDG 4.4.1번은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성년의 비율이나, 파라과이 통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한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비율을 대체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이 비율은 2015년 53%에서 2020년 81%로 증가하였다. 이 지표의 경우에도 2019년 농촌은 57.5%, 도시는 81%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미 있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DG 11.2.1번과 SDG 16.6.2번 지표는 통계가 부재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n.d.).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파라과이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60]에서 보듯이 SDG 3, 4, 11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반면 SDG 2번과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특히, SDG 2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SDG 16번은 코로나19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미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Ⅱ-260] 파라과이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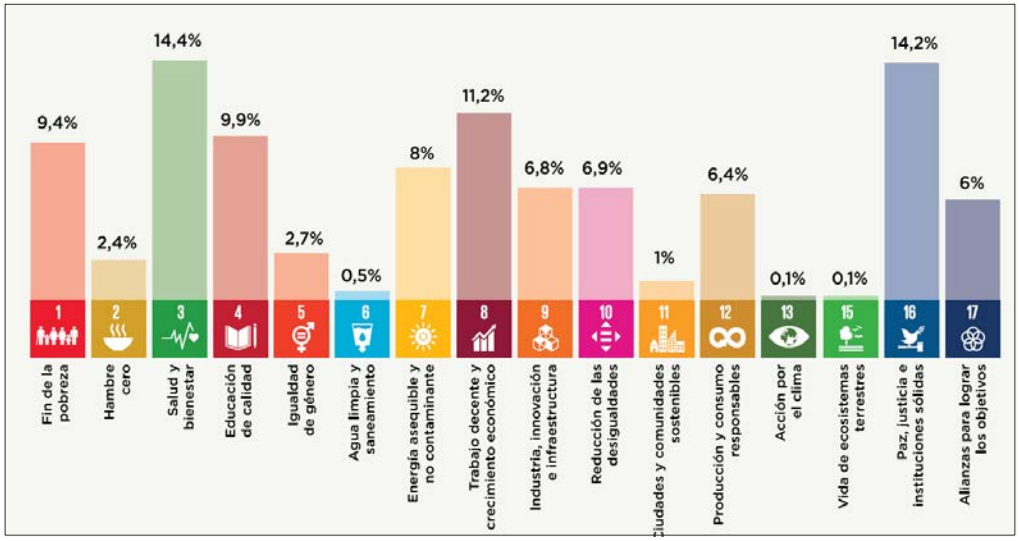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2) 파라과이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파과라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과 SDGs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관련 법령에 따라 1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SDGs 위원회(Comisión ODS Paraguay)'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투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S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협력적 조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raguay 2021). 특히, 재무부는 정부의 SDGs 달성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 일반예산과 SDGs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개별 프로그램이 SDGs 이행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화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Ⅱ-261] SDGs 목표에 따른 국가 일반예산 지원 현황 (2020)

(단위: %)



출처: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ragu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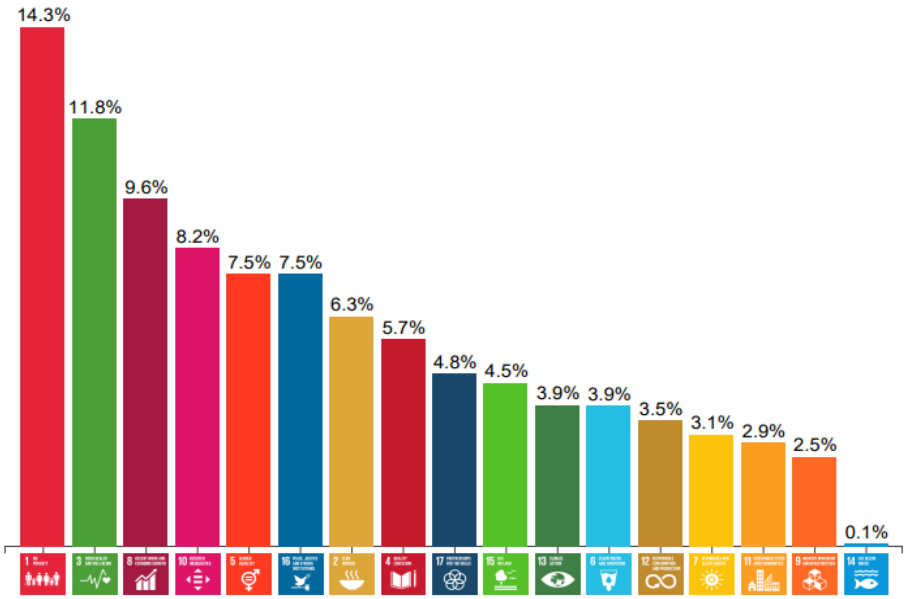
파라과이 정부는 2018년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가의 빈곤 감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형태의 빈곤 감소,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포용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혁신전략(Estrategia Nacional de Innovación)'과 '교육변혁을 위한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de la Transformación Educativa)'은 SDGs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보장제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미비한 교육인프

라, 성별 격차, 노동시장의 높은 비공식성 등 국가 차원의 과제가 대두되면서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강조되었다. 특히, 2차 VNR 수립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영토적 접근 방식(Territorialization)'을 채택하였다.

SDG Mapper를 통해 파라과이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파라과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62]에서 보는 것처럼 SDG 1, 3, 8, 10, 5, 16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6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262] 파라과이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이처럼 파라과이 정부는 빈곤퇴치, 보편적 의료보장, 공중보건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 사법 정의 실현 등 국가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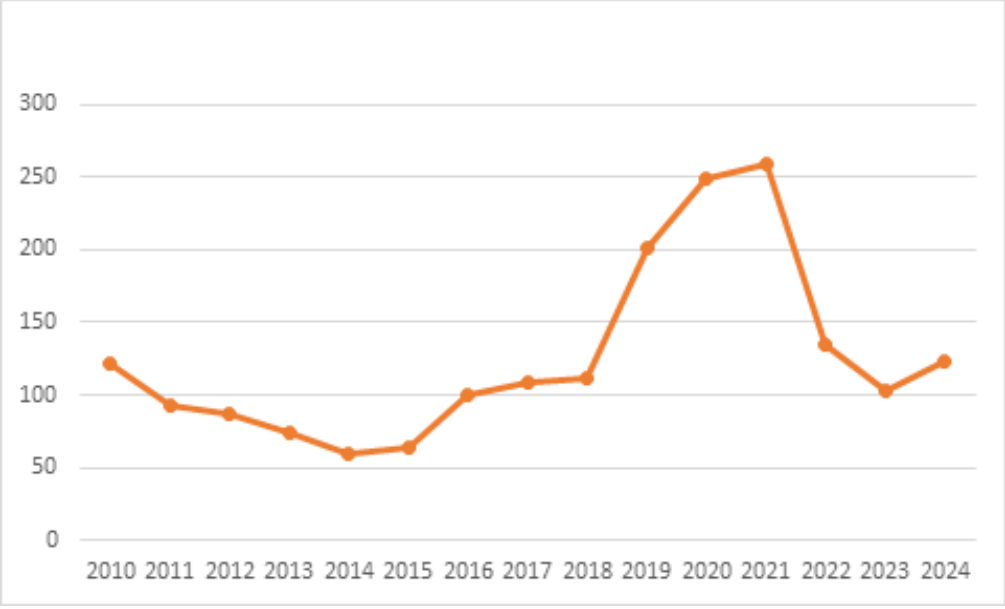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2, 3, 4, 11, 16번으로 특히, 3번과 16번은

파라과이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라과이 정부가 우선하는 분야 중 타 공여국의 지원이 집중된 목표는 SDG 8번과 16번이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파라과이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6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파라과이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은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Ⅱ-263] 파라과이 연도별 ODF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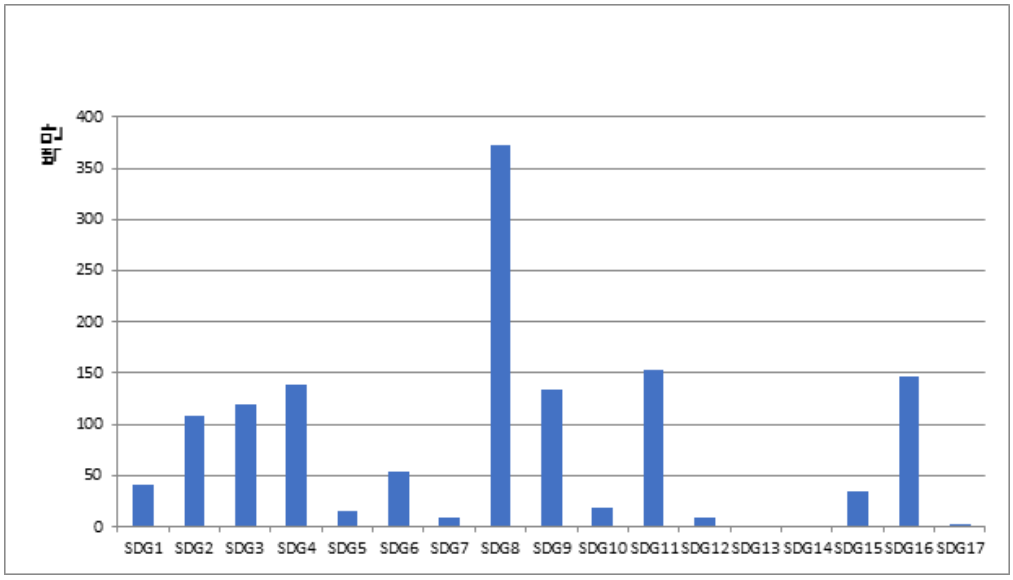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이 시기 파라과이는 농업 부문의 수출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공여국들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공여국의 지원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 시기 파라과이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사회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지원이 확대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국제사회의 대규모 긴급 지원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조정기로서 지원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지원 규모는 201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64]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SDG 목표는 8, 11, 16, 4, 9번이었다. 이처럼 공여국의 지원은 양질의 경제성장, 도시와 지역 공동체, 평화, 정의, 제도, 교육,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등 경제,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64] 파라과이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 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 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별 DAC 회원국의 ODF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표 Ⅱ-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2와 11번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3번과 4번 분야에는 한국, 16번에는 미국이었다. 전체 지원액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었고 국가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Ⅱ-115〉 파라과이 SDG 2, 3, 4, 11,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2 지원	SDG 3 지원	SDG 4 지원	SDG 11 지원	SDG 16 지원	합계
일본	45	22	25	107	2	200
미국	19	35	14	2	108	178
한국	24	41	29	25	5	124
스페인	11	16	24	17	7	75
독일	8	1	21	1	11	42
프랑스			12	2		13
기타	2	4	13	0	13	35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일본

일본의 파라과이 지원 목표는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기초사회 서비스 개선이며, 지원 분야는 경제와 사회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 육성,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 기술 교육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사회 분야에서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 장애인 자립 지원 및 포용적 개발, 1차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영양개선 지원을 추진하였다(JICA n.d.).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개발의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 증진과 농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초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의료 및 기초 교육 개선을 위해 병원과 학교 등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과 의료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였다(Embajada de Japón en la República de Paraguay n.d.).

SDG 2번과 관련하여 발전된 농업 기술과 개량 품종의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도로 및 수출 회랑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가공과 유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과 농림수산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SDG 3번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지역보건소의 시설 개선 및 필수 의약품의 제공을 통해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였다. SDG 4번에서 초등교육 기관의 시설 개선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기술 교육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SDG 11번과 관련하여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상하수도 시설과 효율적 도시 교통망 구축 및 재난 방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SDG 16번에서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법치와 치안 분야에서 사법 시스템과 경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② 미국

미국의 파라과이 지원은 파라과이 정부의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농촌의 빈곤 감소 및 파라과이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의 퇴치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주적 제도와 개혁, 법치주의 강화, 여성, 여아, 원주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통해 파라과이의 안정과 안보 증진을 지원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5).

미국이 파라과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 분야는 파라과이 정부의 투명성, 법치주의 등 제도적 취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ForeignAssistance.gov n.d.). 따라서 SDG 16번과 관련하여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반부패 법률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및 저널리즘 강화를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법치주의 분야에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범죄 및 국경 간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집행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사법제도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SDG 2번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과 경제적 기회의 제공을 위해 농업 분야의 무역 투명성을 높이고 농산품 수출입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며 식량안보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SDG 3번과 관련하여 보건 분야 공공기관의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역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및 HIV 등 질병 퇴치와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SDG 4번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행정 개선과 양질의 교육정책 이행을 지원하였다. SDG 11번과 관련하여 정책 조율 및 공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지역의 행정 기록 및 데이터 생산을 개선하여 효율적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역량을 제고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파라과이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16〉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4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분야로서 대규모 지원의 확대보다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선택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SDG 16번은 이행 성과가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은 분야로 제도개선·실행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1번은 이행 성과와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많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분야로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선택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은 이행 성과와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 성과를 기반으로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고용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2번은 이행 성과,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며 이에 장기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표 Ⅱ-116〉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SDG 4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SDG 11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SDG 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고용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SDG 2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4번에 대해 KOICA는 직접적 지원의 확대보다 기술협력과 성과 기반의 선택적, 보완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 '교원 양성 및 재교육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사업', '아순시온 국립대학 ICT 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ICT 경쟁력강화 사업' 등 기존 KOICA의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양하고 ICT 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법 전수 등 기술협력 형태를 통해 제도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분야에 대한 협력국 정부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의 성과가 실질적 고용과 행정 효율성의 제고로 연계될 수 있는 성과에 기반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SDG 16번은 KOICA의 독자적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제도개선·실행 역량 강화 등 협력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 등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파라과이 정부의 제도개선, 사법부와 경찰 공무원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부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및 유지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11번은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분야로 KOICA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실례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과 관련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관리 노하우 공유'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서 인력 양성 및 유지 관리 관련한 분야에 대해 기술협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타 공여국이 지원하는 중복사업을 피하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실제 파라과이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보다 기존 사업의 유지와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의 SDG 3번과 관련하여 파라과이는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와 기대 수명의 증가에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1차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KOICA는 '공중보건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 진단 역량강화사업' 등 한국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자보건 등 기초 보건 분야뿐 아니라 ICT를 활용한 노인 보건, 감염병 및 비

전염성 질환 대응 등 차별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본 분야에서 선도 공여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SDG 2번과 관련하여 KOICA는 대규모 신규 재원의 투입과 사업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 경쟁력강화 사업'에서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가치사슬과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과 노동 단위 생산량 증가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파라과이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서 위협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가 파라과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타 공여국의 사례처럼,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8) 페루

(1) SDG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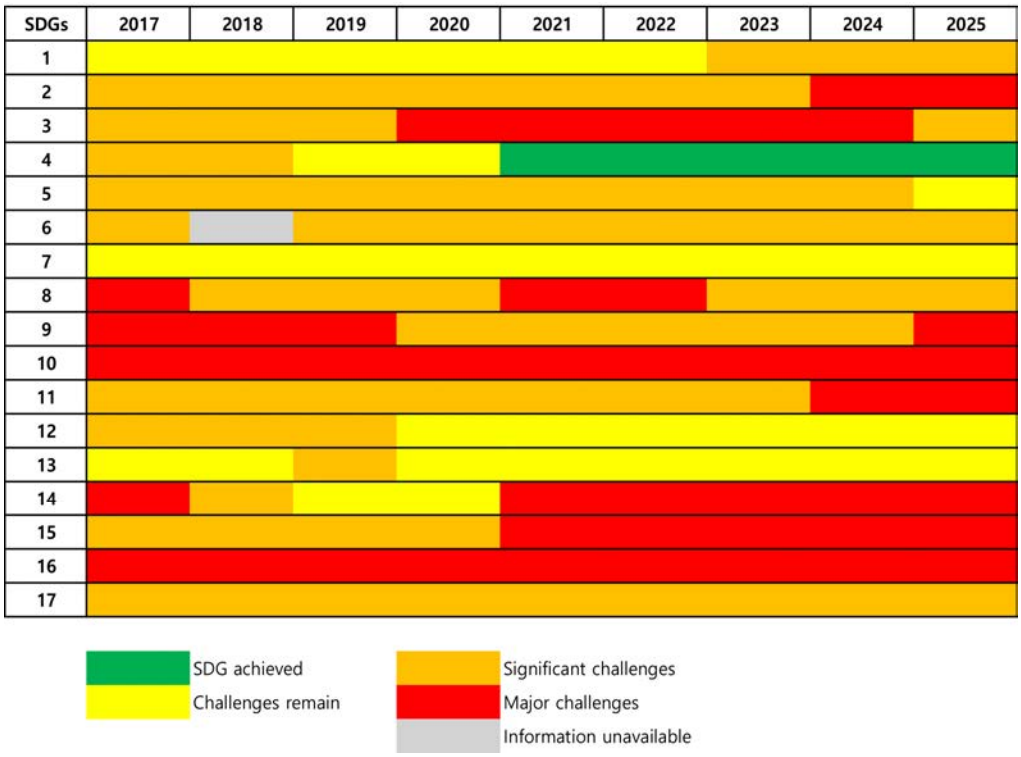
페루 정부는 VNR를 2017년, 2020년, 2024년까지 3회 제출하였다. 2020년 제출한 VNR 에 의하면, 페루는 국가통계정보연구소(INEI)를 통해 SDGs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27개의 지표를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entro Nacional de Planeamiento Estratégico 2024).

VNR의 분석 결과, 페루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사회 지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추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SDG 3, 5, 6번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 반면 SDG 8, 15, 16번은 코로나19 전후로 지표가 악화하는 부정적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 목표들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진전의 속도가 둔화한 SDG 1번 '빈곤퇴치'에 집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DSN에서 발표하는 페루의 SDG 대시보드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Ⅱ-2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깔이 변화하여 진전을 보이는 목표는 SDG 4, 5, 8, 12, 13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SDG 4번은 2020년 이후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나, SDG 1, 2, 9, 11, 14, 15번은 상황이 악화하였다. 또한 SDG 2, 9, 10, 11, 14, 15, 16번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 페루의 SDG 이행 점수는 72.67점으로 전체 167개국 중 6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수는 상승 폭이 크지 않았고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SDSN 2025).

[그림 Ⅱ-265] 페루 SDGs 목표별 달성 변화도 (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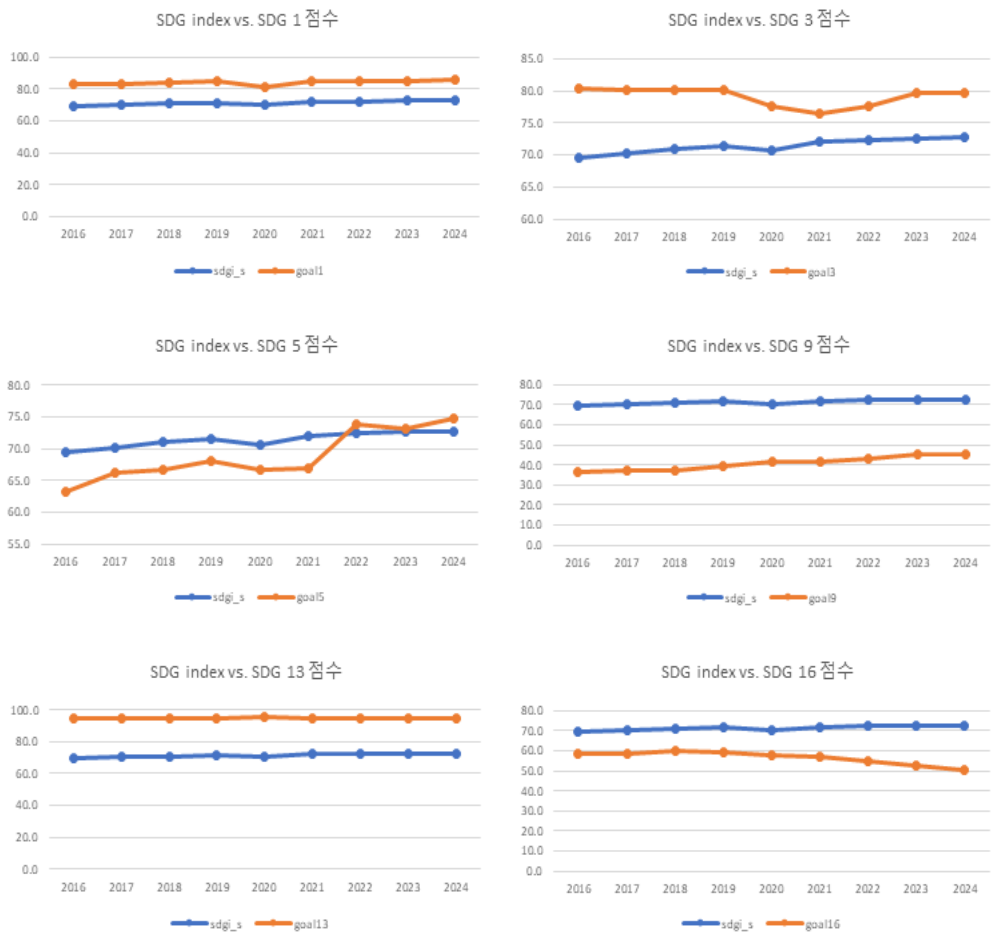


자료: Sachs et al. 2017~2025를 활용하여 재작성

KOICA CP의 목표는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강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지원 분야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권리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23).

SDG 1.4.1번의 기초 공공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은 2015년 74.9%에서 2022년 78.8%로 증가하였다. SDG 3.3.2, 3.3.3, 3.3.5번의 주요 감염병 진단과 관련한 지표 중 비감염 인구 10만 명당 HIV 사례 보고율은 2015년 25.8%에서 2022년 26.7%로 미미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SDG 5.2.1번은 2018년 38.1%에서 2023년 34.5%로 감소하였다. 또한 SDG 16.6.2번은 2015년 22.6%에서 2022년 14.3%로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SDG 9.b.1번과 SDG 13.3.1번은 관련 통계는 부재하였다.

[그림 Ⅱ-266] 페루 SDG 이행 점수와 SDGs 목표별 점수 비교



자료: SDSN 2025의 Data Explor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작성

한편, SDSN에서 발표하는 페루의 SDG 목표별 이행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Ⅱ-266]에서 보는 것과 같이 SDG 1, 3, 13번의 성과는 SDG 이행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만, SDG 3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과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SDG 5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SDG 이행 점수보다 미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성과가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SDG 9, 16번은 SDG 이행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SDG 16번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악화하였다.

(2) 페루 정부의 SDGs 이행 노력

페루 정부는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SDG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및 시민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체계를 기반으로 정부는 2019년 승인된 '2050년까지 페루비전(Visión del Perú al 2050)'과 2022년 승인된 '국가개발전략계획(Plan Estratégico de Desarrollo Nacional al 2050, PEDN)'을 SDGs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들은 국가의 재정과 예산 편성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 현재 국가의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38개 정책 중 상당수는 SDGs 4, 8, 10, 16번과 연계되어 있으며, SDG 11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지속가능인프라계획(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Sostenible para la Competividad, PNISC)'과 관련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국제기술협력은 SDG 2, 3, 8, 10번의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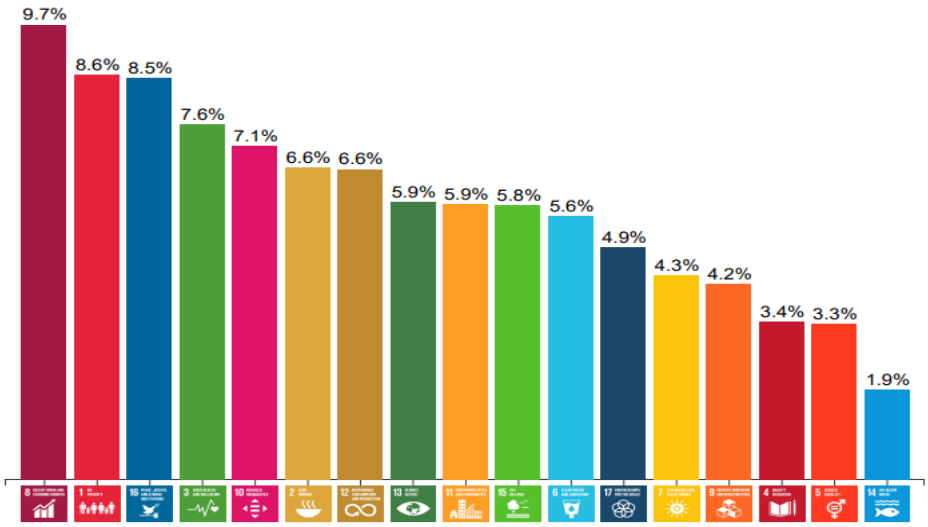
이처럼 장기 목표인 '페루비전'은 '인간개발'을 목표로 빈곤 극복, 차별철폐,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편적 교육과 의료보장, 지속가능한 자연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인권 존중,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법치주의와 굿거버넌스의 보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분권화된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개발전략에는 △ 양질의 경제 및 사회 기반 시설 제공, △ 인적 자본 강화, △ 기술 혁신,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 △ 국내 및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한 메커니즘 촉진, △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 생산적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환경 조성, △ 국가의 제도적 틀 강화, △ 경제 활동 운영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페루의 VNR에서 언급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보건 위기의 발발은 SDG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진전을 보였던 지표 상황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발생한 정치·사회적 갈등, 부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는 경제적 손실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식량안보, 물 공급, 전염병 발생, 빈곤과 불평등 같은 SDGs의 다양한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2030 의제의 진전과 관련하여 부정적 전망이 언급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 조정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을 개선하며 공공부문의 기술과 운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SDG Mapper를 통해 페루 VNR이 SDG의 어떠한 목표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페루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Ⅱ-267]에서 보는 것처럼 SDG 8, 1, 16, 3, 10, 2, 12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NR에서 7개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267] 페루 VNRs의 SDG Mapper 분석 결과



자료: KnowSDGs 2025의 SDG Mapper 분석 결과

페루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 일자리의 비중을 줄이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부패 방지와 사법 접근성 개선을 국가 발전의 필수적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페루 정부는 공중보건 시스템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 불평등 완화, 기아 종식 등의 사회적 포용 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도시 및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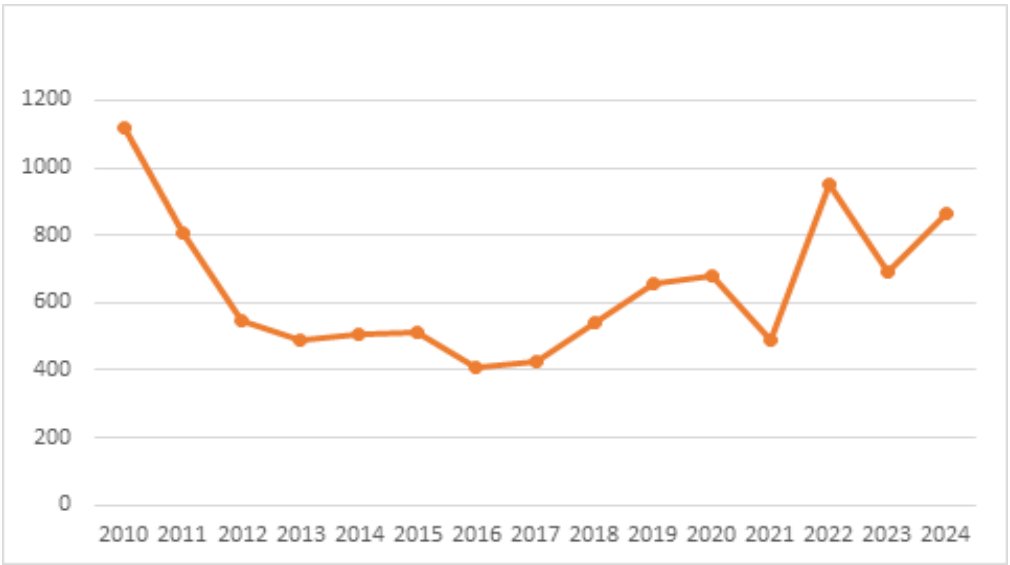
KOICA가 지원하는 CP 프로그램과 관련된 SDGs는 1, 3, 5, 9, 13, 16번이며 특히, 1, 3, 16번은 페루 정부에서 우선하는 정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페루 정부가 우선하는 분야 중 타 공여국의 지원이 집중된 분야는 SDG 1, 3, 16번이며 이는 KOICA의 지원과 부합하는 분야이다.

(3) 공여국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페루가 DAC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ODF 금액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Ⅱ-26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반적 지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변동성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여국의 지원은 장기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 페루는 원자재 붐에 따른 견고한 경제성장의 추세를 보이면서 상위중소득국(UMICs)으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2020년 지원 규모는 다시 증가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베네수엘라 난민의 유입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엘니뇨(El Niño)의 피해로 자연재해 복구 및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 사회적 불신으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코로나19로 인해 페루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승인과 집행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회복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주요 공여국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개발협력의 규모는 다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인해 전반적 지원 규모는 다시 줄어들었으나, 2024년 페루 정부의 농업·수산업 복구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지원은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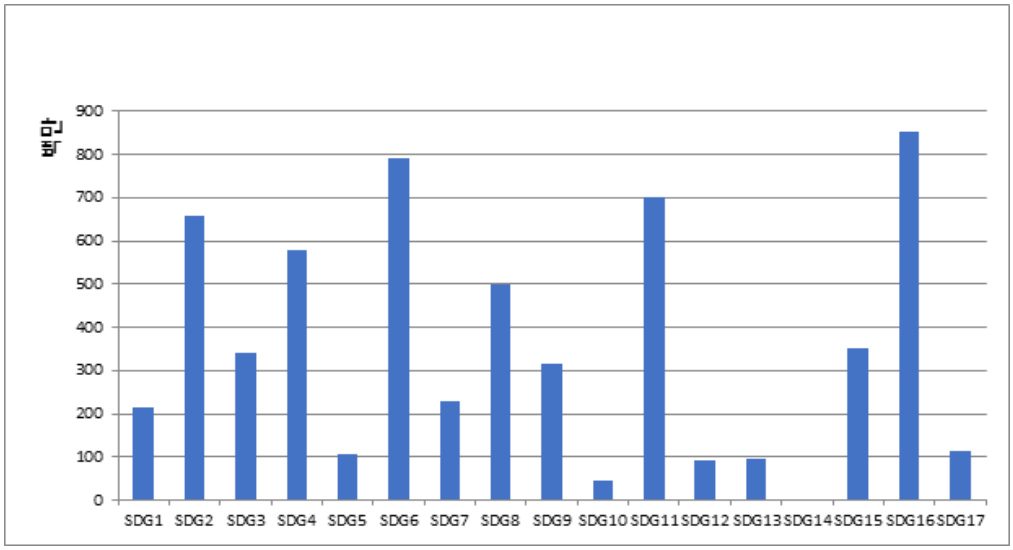
[그림 Ⅱ-268] 페루 연도별 ODF 금액



자료: OECD 2025 활용하여 재작성

2010년부터 2021년까지 DAC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ODF금액 중 SDG 목표와 맵핑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림 Ⅱ-269]에서 보듯이 SDG 16, 6, 11, 2번이었다. 이처럼 페루에 대한 지원은 평화, 정의, 제도, 깨끗한 물과 위생, 도시와 공동체, 기아 종식 등 거버넌스와 사회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69] 페루 SDG 목표별로 지원된 ODF 누적금액 (2010~2021)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동일 기간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별 DAC 회원국의 ODF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표 Ⅱ-117〉에서 보는 것처럼 SDG 1, 3, 16번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5번 분야는 스페인, 9번은 한국, 13번에는 독일이었다. 전체 지원액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으며 국가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Ⅱ-117〉 페루 SDG 1, 3, 5, 9, 13, 16번 지원 공여국별 ODF 금액 (2010~2021)

(단위 : 백만 달러)

	SDG 1 지원	SDG 3 지원	SDG 5 지원	SDG 9 지원	SDG 13 지원	SDG 16 지원	합계
미국	119	121	9	3	17	499	768
독일	35	9	6	24	34	150	257
스페인	18	76	68			55	219
한국	1	31		114	1	10	157
일본	10	15		105	10	8	148
캐나다	4	13	15	31	2	39	105
스위스	9	2		19	29	32	93
기타	20	73	8	20	3	59	179

자료: Burgess et al. 2023 활용하여 재작성

① 미국

미국의 대 페루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ForeignAssistance.gov n.d.). SDG 1번과 관련하여 커피와 퀴노아 등 소규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액 금융 등의 재정적 지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진과 생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이주민 및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사회보호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이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SDG 3번에서 비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생식 보건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말라리아, 결핵, HIV,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영양 상태의 개선을 통해 사망률 감소와 관련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SDG 5번과 관련하여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했으며 인신매매, 아동노동, 아프로 페루인과 성소수자(LGBT)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의 차별 방지 활동을 지원하였다.

SDG 9번에서 첨단 기술 기반 아마존 보존, 기후 위험 전략 강화, 극단적 기후에 대한 복원력 회복 및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시와 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사용 및 재활용과 관련한 효과적 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행위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SDG 13번에서 기후변화 완화, 아마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불법 수공예, 소규모 금광 채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관련한 기술을 개발·홍보하였다. SDG 16번과 관련하여 국가 전반의 치안 및 사법 부문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 국제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정부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정책 개혁 활동을 실행 하였다.

② 독일

독일의 페루에 대한 지원은 BMZ와 GIZ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BMZ n.d.; GIZ n.d.). 독일은 환경보호,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SDG 1번을 9번 및 13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분야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을 증진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마존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불법 벌채를 감소하며 소농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SDG 3번은 주요 공여국의 직접적 중점 지원 분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깨끗한 물과 위생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보건 분야에 기여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 전문가 파견,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자문 활동을 수행했으며 검사 키트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지원하였다.

SDG 5번은 주류화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실례로 농업, 산림, 거버넌스 관련 프로젝트에 여성의 참여와 혜택을 증진하고 여성의 토지 소유권 및 경제적 자원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SDG 13번의 기후변화 대응은 독일의 중점 지원 분야로서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산림파괴와 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메커니즘의 수립 및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산림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보호를 위해 취약성 분석 및 위험 관리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SDG 16번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분권화 과정을 지원하며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4) 소결 및 KOICA 향후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SDGs 목표별 이행 수준, 페루 정부의 이행 노력,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CP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 Ⅱ-118〉로 정리할 수 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9번은 이행 성과,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며 장기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SDG 16번은 이행 성과가 낮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많은 분야이며, 제도개선과 실행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1번은 이행 성과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로 성과 기반 선도적 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SDG 5번은 이행 성과가 높으나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로 선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SDG 13번 역시 이행 성과가 높고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공여국의 지원이 적은 분야로서 대규모 지원 확대를 지양하고 선별적 관찰의 유형이다.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 3번은 이행 성과와 정책적 관심이 높고 공여국 지원 규모가 적은 분야로서 성과 기반 선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표 Ⅱ-118〉 분석 결과

CP 프로그램	SDGs	SDGs 이행 수준	협력국 관심	공여국 지원 규모	유형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SDG 9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SDG 16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	SDG 1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SDG 5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SDG 13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SDG 3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현지 사무소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CP 프로그램별 향후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9번은 대규모 자원의

투입이나 직접적 지원의 확대보다 제한된 수준으로 관찰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기존의 ICT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SDG 16번은 이행 성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전역 세무 행정 개편 및 전자 세정 구현 사업',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 '이민청 이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등 KOICA가 추진해 오던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을 기반으로 제도개선, 역량 강화, 정책 실행력 제고를 중심으로 보완적 역할을 고려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 개선, 운영 및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의 ICT 기반 전자정부 사업 관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1번에서 KOICA는 전략적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공여국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쿠스코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 구축 사업'과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 복원력 증진 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건강·교육권과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한국의 지원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SDG 5번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영역으로 대규모 재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보다 선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페루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젠더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ICA는 기존 '평화판사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젠더폭력 대응력 개선사업' 등에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둘 수 있다. SDG 13번의 기후변화는 농업과 식량안보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기후 대응을 위한 직접적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취약계층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와 빈곤퇴치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KOICA는 기존에 도시·생태·인프라 기후회복력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지원 혹은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한 SDG 3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보건 개혁과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시설은 여전히 노후화되거나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 분야에서 KOICA는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선도 공여국으로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즉, '로레토주 원헬스기반 매개체 감염병 대응 역량 및 보건의료 체계 강화 사

업',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기반으로 ICT 기술 활용을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경험과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보건 역량 강화와 보건 정보 시스템 통합 등의 프로그램에서 기술 및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초보건 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 최근 새롭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페루는 상위중소득국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페루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의 페루 조선업 진출과 연계하여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국가의 산업 역량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페루 정부에서 관심을 보이는 통계 역량 관리 및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남미 지역 내 타 국가와 독일 등과 협력하여 삼각협력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2030년을 목표로 설정된 SDGs의 달성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이행 속도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SDGs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의 이행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 등 지속되는 복합적 위기는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역량을 약화시켰으며, 이행 수준의 간극은 점차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 CP를 통한 SDGs 지원 결과 및 유형별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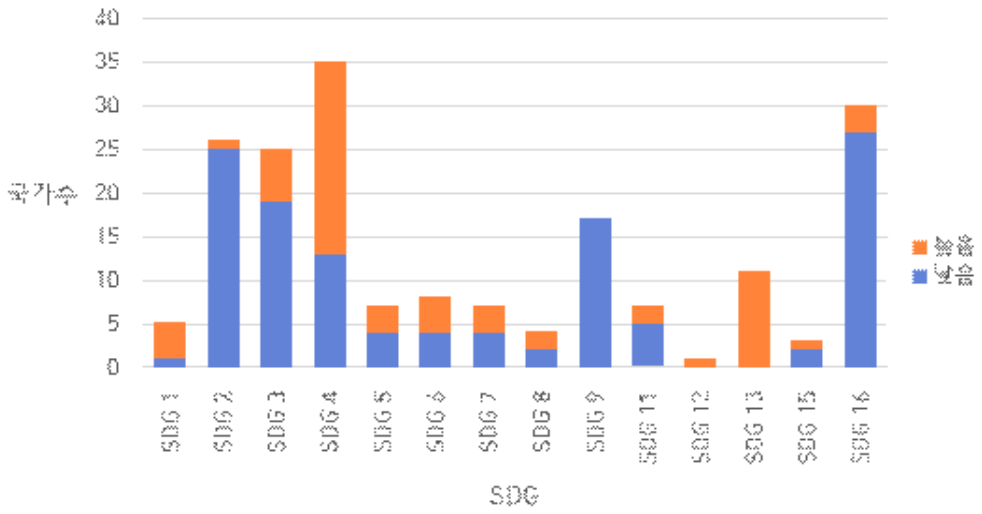
KOICA는 CP를 중심으로 주요 협력국 46개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해왔다. SDGs 이행 기간이 5년 남은 현 시점에서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협력국의 SDG 목표 달성 정도, SDG 목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타공여국 지원 규모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OICA CP는 SDG 4, 16, 2, 3, 9번을 주로 지원한 반면, SDG 10, 14, 17번은 전무하였다. 전통적으로 KOICA가 강점을 보여온 교육, 전자정부, 농업, 보건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 대응능력을 통해 보여준 보건 분야의 전문성, 전자정부를 통해 이룩한 행정효율성이라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라시아/중동 지역 모두 SDG 4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만 SDG 16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수원국 소득 수준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아시아의 경우 SDG4 외에도 2, 3, 9, 16번 등의 목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의 경우 SDG4 외에 2, 3, 9번 등 국가·사회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 및 산업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KOICA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역별 소득이 중소득 수준 이상을 상회하는 유라시아/중동과 중남미 지역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초적인 사업사회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 혁신 성장, 디지털 전환 및 기후 회복력 확보 등 고도화된 개발 영역에 집중하며, 유라시아/중동은 SDG 2, 4, 9, 13, 16번이었고, 중남미의 경우는 SDG 2, 3, 5, 13, 16번이었다.

〈표 Ⅲ-1〉 지역별로 CP가 지원하는 SDG의 비율

SDG	전체	아시아	아프리카	유라시아/중동	중남미
SDG 2	14%	16%	15%	10%	12%
SDG 3	13%	13%	17%	7%	15%
SDG 4	**19%**	**19%**	**24%**	**23%**	6%
SDG 5	4%	3%	3%	0	9%
SDG 9	9%	11%	8%	10%	6%
SDG 13	6%	3%	3%	13%	9%
SDG 16	16%	14%	15%	17%	**21%**
기타	19%	21%	18%	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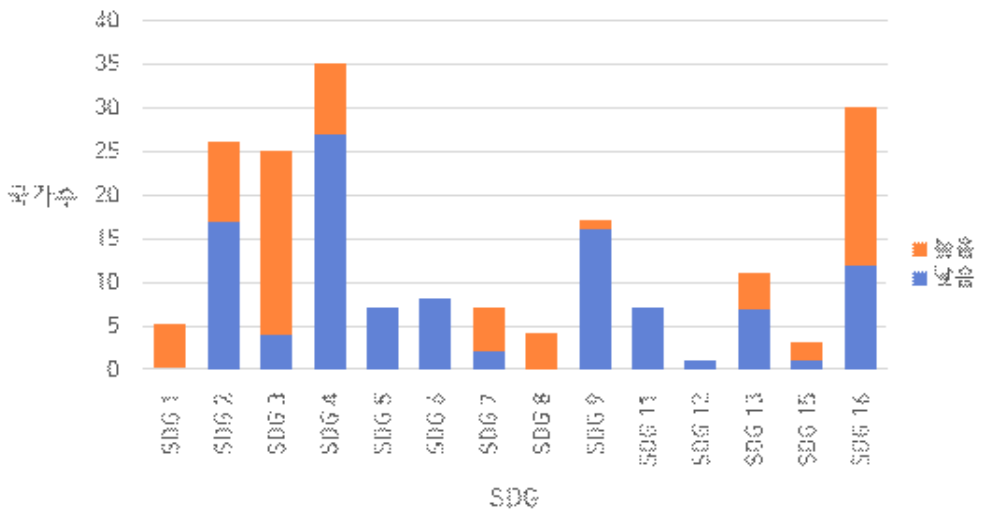
국가별 SDGs 달성 정도를 CP가 지원하는 SDG로만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KOICA의 CP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 SDG 4번의 경우는 목표 달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많았으나, SDG 16번의 경우는 달성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더 많았다. SDG 2, 3, 9번 또한 달성 정도가 높지 않은 국가 수가 더 많았다.

[그림 Ⅲ-1]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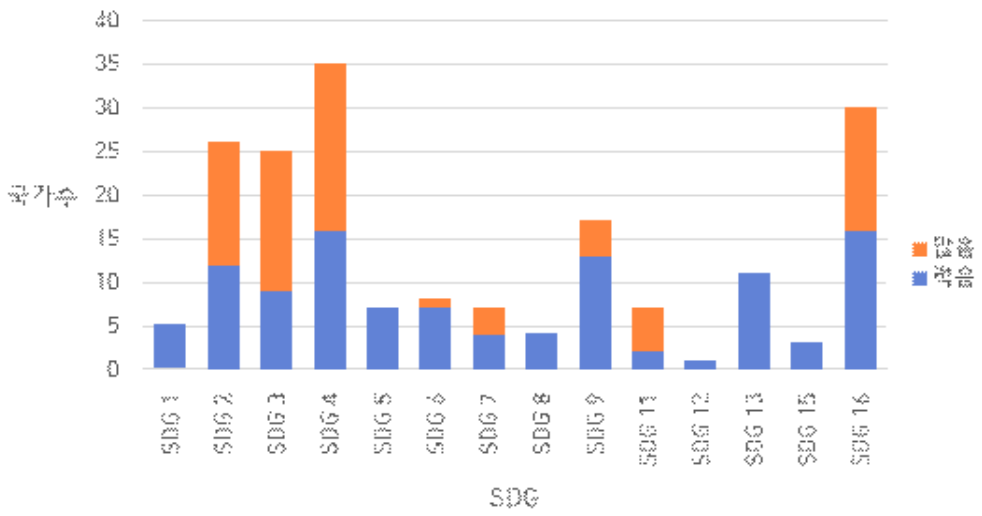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림 Ⅲ-2]와 같이 SDG 3번과 16번은 관심이 높은 국가 수가 관심이 적은 국가 수보다 많았으며, SDG 2, 4, 9번은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Ⅲ-2]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



마지막으로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타공여국의 지원규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이 SDG 2, 3, 4번은 타 공여국 지원을 많이 받는 협력국이 더 많았으며, SDG 9번과 16번 타공여국 지원을 많이 받는 협력국이 적었다. 즉, KOICA의 CP가 많이 지원하는 SDG 2, 3, 4번에 대해 타 공여국도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Ⅲ-3] CP가 지원하는 SDG 목표에 대한 공여국 지원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KOICA는 협력국의 목표 달성 수준은 낮지만 정책적 관심이 높고, 동시에 한국의 강점이 집중된 분야에서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타공여국과의 지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 시 타 기관과의 차별화 요소를 고민하고 협력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사무소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은 SDGs의 이행 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정도가 목표별·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국별 지원 전략을 유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 Index 대비 SDGs 목표의 성과 수준(높음·낮음), 협력국의 해당 SDGs 목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수준(높음·낮음), 해당 SDGs 목표에 대한 공여국의 ODF 지원 규모가 전체 분포에서 상위 5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향후 KOICA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행하여야 하는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3가지 기준을 조합한 총 8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에 대해서는 KOICA의 전략적 개입 방향을 아래 〈표 Ⅲ-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Ⅲ-2〉 각 유형별 KOICA의 전략적 지원방향

유형	SDGs 이행수준	협력국의 정책적 관심	공여국의 지원 규모	내용	KOICA의 전략적 지원방향
1	높음	높음	많음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기존 사업의 질적 고도화 및 KOICA의 차별성 강화
2	높음	높음	적음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전략적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선도적 지원
3	높음	낮음	많음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대규모 지원 확대보다는 기술협력 기반의 선택적·보완적 개입
4	높음	낮음	적음	선별적 관찰 유형	대규모 지원 확대보다는 소규모 사업·모니터링 중심으로 접근
5	낮음	높음	많음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제도개선·행정역량 강화 등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으로 개입
6	낮음	높음	적음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KOICA의 선도적 개입을 통한 중장기 성과 창출
7	낮음	낮음	많음	수요 재확인 유형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지원방식 전환 고려
8	낮음	낮음	적음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전략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분야로 제한적 수준의 관찰 및 환경 변화를 대비

해당 유형 구분에 따라, CP가 많이 지원하는 주요 SDG 5개 목표에 대한 유형 구분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Ⅲ-3〉과 같이 SDG 2번과 9번은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이 가장 많았

고, SDG 3번과 16번은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SDG 4번은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 당면한 상황이 달라 같은 SDG 목표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유형이 다르게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SDG 2번과 9번은 성과·수요·국제지원 모두 낮은 비우선 목표, SDG 3번과 16번은 달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높으나 성과가 부진한 목표, SDG 4번은 성과는 양호하나 협력국 정책 우선순위와의 정합성이 낮은 목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표 Ⅲ-3〉 CP 지원 SDGs별 유형 분포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선별적 관찰 유형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수요 재확인 유형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SDG 1		4				1		
SDG 2			1		6	3	7	9
SDG 3	1	3	1	1	14	3		2
SDG 4	5	1	9	7	1	1	4	7
SDG 5				3				4
SDG 6			1	3				4
SDG 7	2	1			1	1		2
SDG 8		2				2		
SDG 9						1	4	12
SDG 11			1	1			4	1
SDG 12				1				
SDG 13		4		7				
SDG 15		1				1		1
SDG 16	2			1	9	7	3	8

나아가 CP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보다 전략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사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업의 진행 현황, 협력국 정부의 참여 및 협조 수준, 수혜자 반응, 현장에서의 가시성 등 복합적인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과 가시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유망 프로그램'으로 선별하였다. 유망 프로그램은 향후 KOICA가 분산된 사업에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Ⅲ-4〉는 46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도출된 유망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이 연계된 SDGs 및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이 1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뒤를 이어 선별적 관찰 유형

13개,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 9개, 수요 재확인 유형 8개,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7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Ⅲ-4〉 CCP 국가별 유망 프로그램 및 유형

지역	국가	유망 프로그램	SDGs	유형
아시아	네팔	ICT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16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동티모르	아동 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4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라오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2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몽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16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미얀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2	수요 재확인 유형
	방글라데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베트남	책임있고 투명한 포용적 거버넌스 제도 구축	16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스리랑카	포용적 개발을 위한 민주적 제도 강화	16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인도	Make in India를 주도할 기술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4	선별적 관찰 유형
			8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인도네시아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4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16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캄보디아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향상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파키스탄	통합적 물 안보 증진	6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피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병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필리핀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아프리카	가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나이지리아	비석유 분야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4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르완다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4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
	모로코	모로코 탄소중립 달성지원 프로그램	7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13	선별적 관찰 유형
	모잠비크	기초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적자원 양성	4	수요 재확인 유형
	세네갈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창업지원	4	수요 재확인 유형
	알제리	행정서비스 현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16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에티오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우간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2	수요 재확인 유형
	이집트	디지털 혁신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창업 기회 창출	4	수요 재확인 유형
	카메룬	식수 위생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6	선별적 관찰 유형

지역	국가	유망 프로그램	SDGs	유형
	케냐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2	수요 재확인 유형
			6	선별적 관찰 유형
	코트디부아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4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탄자니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튀니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16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DR콩고	보편적 건강 달성을 위한 포괄적 보건 역량강화	3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중동·CIS	아제르바이잔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후회복력 향상	13	선별적 관찰 유형
	요르단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물 안보 증진	6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우즈베키스탄	기술기반 미래전문인력 육성 및 취창업 역량 강화	4	선별적 관찰 유형
			8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9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3	선별적 관찰 유형
			9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11	선별적 관찰 유형
			13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이라크	산업발전을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4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키르기스스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2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타지키스탄	지속가능한 미래 역량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4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
	팔레스타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강화	4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중남미	과테말라	취약그룹 회복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2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15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
	도미니카공화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및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3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
			5	선별적 관찰 유형
			8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볼리비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기본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5	선별적 관찰 유형
			8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에콰도르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계 보존	11	수요 재확인 유형
			13	선별적 관찰 유형
	엘살바도르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3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콜롬비아	분쟁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	2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
			16	수요 재확인 유형
	파라과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3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페루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	1	성과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
			5	선별적 관찰 유형
			13	선별적 관찰 유형

이에 각각의 유형별로 향후 접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질적성과 고도화 유형은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가 축적된 분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여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KOICA는 적극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질적 고도화와 현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성과 기반 선도적 확대 유형은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은 아직 제한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만큼, KOICA의 전략적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선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가시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합성 재검토 및 선택적 보완 유형은 현재의 개발성과는 양호하지만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와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되,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기술협력, 정책자문, 역량강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의 선택적이고 보완적인 개입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선별적 관찰 유형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이 모두 크지 않은 분야로, KOICA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제한적 규모의 협력사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국 내 정책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향후 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제도개선 및 실행역량 강화 유형은 정책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이행 수준이 부진한 분야로, 재원 확대보다는 제도 개선, 행정역량 강화, 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 시스템 수준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선도적 개입 및 성과창출 검증 유형은 협력국의 정책 수요는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로 KOICA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선도적 개입과 중장기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요 재확인 유형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협력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한 후 자원 재배치 또는 지원 방식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환경대응 유형은 현 시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나, 기후위기, 국제정세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한적 수준의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을 유지하며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적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4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한국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의 강점분야와 경험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4대 전략목표를 선정하였다.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청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적응·감축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청년 소득증대 기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촌) 지역사회 조성으로 구성된 각 전략목표는 하위에 4개의 중간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Ⅲ-5〉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체계

비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프로그램 4**
전략 목표	1.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2. 건강한 청년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3. 청년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적응·감축 / 에너지 접근성 개선	4. 청년 소득증대 기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촌) **지역사회 조성**
중간 목표 1	1.1 직업기술훈련 강화–고용 및 STEM 교육 강화	2.1 감염병 대응	3.1 재생에너지·인프라 접근성 확대	4.1 주민참여 협동 기반 농업생산성 향상
중간 목표 2	1.2 기술기반 취창업 생태계 조성	2.2 모자보건 성생식 등 기초보건 접근성 개선	3.2 폐기물 등 순환경제 구축	4.2 생산·저장·유통 가치사슬·인프라 구축
중간 목표 3	1.3 AI/디지털 접근성 개선	2.3 보건인력 양성	3.3 기후 적응/감축 역량 강화	4.3 농업 정책제도 개선
중간 목표 4	1.4 문화산업 혁신역량 강화	2.4 보건의료체계 개선	3.4 친환경적 공급망 접근성 개선	4.4 치안안전 역량 강화

SDG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SDG 4, 3, 13, 2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간 목표까지 확장을 하면 4대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1, 6, 7, 8, 9, 11, 12, 16, 17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10, 14, 15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각 KOICA 사무소들은 새로 수립된 4대 프로그램에 맞는 국가지원계획(CPD)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유망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4대 프로그램에 대입해본다면, 46개 유망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SDG에 대해 부여된 64개의 유형은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29개, 보건의료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12개, 기후 적응, 감축 및 에너지 접근 개선 프로그

램에 11개, 지속가능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프로그램 12개의 유형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이는 동일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세부 사업의 성격과 지원 방식, 그리고 협력국의 여건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지원 방향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각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형을 중심으로 향후 지원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장기적 환경 대응 유형은 단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술·디지털·교육 분야는 한국의 발전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집약된 영역이며, 동시에 SDG 4가 다른 목표들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선행 조건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의 지속적 개입은 직접적 성과를 넘어 협력국의 장기적 발전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촉진적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협력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접근방식의 차별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 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접근성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제고, 직업기술훈련 등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반면, 일정 수준의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에서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혁신 생태계 구축, 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보건의료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제도개선 및 실행 역량 강화 유형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구조적으로 이행 수준 부진이 지속되는 분야인 만큼, 재원 확대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개입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협력국의 보건의료 현실에 따라 지원의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초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1차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체계가 어느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만성 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경우는 제도개선, 수원국 행정 역량 강화 및 정책 실행력 제고 등 시스템 차원의 개입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후 적응, 감축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주요 유형은 선별적 관찰 유형으로, 현재 정책 환경과 국제 원조 지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영역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KOICA는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관찰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GCF, 세계 은행 등 다자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무상원조가 보완적 역학을 수행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취약하고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후 취약계층 보호, 기초적인 적응 역량 구축 등 생존과 직결된 기후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산업 전환 지원, 기후 관련 국제협약 이행역량 강화 등 보다 구조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프로그램에서는 선별적 관찰 유형과 수요 재확인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환경 변화를 관찰하며 개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 및 자원 재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은 빈곤감소와 사회안정의 기초 조건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인 만큼, 일률적인 자원 재배치보다는 협력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협력국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농촌 기초 인프라와 식량 생산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계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된 국가에서는 스마트 농업 도입, 농촌 경제의 다각화, 지속가능한 도농 연계발전 모델 구축 등 보다 고도화된 방향으로 지원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64개 SDGs 유형 중 40개가 SDGs 이행 수준이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ICA가 그간 협력국이 상대적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왔음을 시사한다. 물론 어떤 유형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단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 수준이 낮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 기반 논리, 수원국 정부의 의지와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오너십 기반 논리, 타 공여국과 협력하여 스케일업을 도모해야한다는 협력 논리, 그리고 공여국의 비교우위를 발휘해야한다는 효과성 논리 모두 각자의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 KOICA의 지원 역시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결국 수원국의 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KOICA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각 수원국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KOICA의 CP가 주로 지원한 수원국의 SDGs는 4, 16, 2, 3, 9번으로, 1차적으로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시에 SDGs가 인과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SDG 목표들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온 SDG 분야는 해당 목표의 개별적 달성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수원국

의 경제·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KOICA의 지원 규모가 전체 개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며, 일부 수원국의 해당 SDG 이행 수준 역시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보건, 교육, 제도, 거버넌스 등은 다른 발전 목표의 진전을 촉진하는 기초 조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KOICA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특정 SDG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수원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 사회 발전의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촉진적 개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SDGs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4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목표에 집중하더라도 파급 효과를 통해 여타 목표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한된 ODA 재원 내에서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SDGs 달성을 위한 시간은 촉박하지만, 수원국의 이행 환경을 면밀히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동 연구는 KOICA의 46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SDGs 이행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KOICA지원 방향성을 탐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SDG 점수 및 순위, VNR 기반 정책 우선순위, ODA 지원 통계 등 정량적 분석 결과와 각 해외사무소를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일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현황 이해를 시도하였다. 다만, 동 연구에는 몇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VNR은 협력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문서로 질적 수준과 상세도에 편차가 있다. 제출 시점 또한 상이하여 현재의 이행 현황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수 있다. 둘째, SDGs 점수는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목표별, 국가별로 측정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잇다. 셋째, AidData 자료는 최신 데이터 반영에 한계가 있어 최근의 SDG별 ODF 흐름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정성적으로 보완하고자 시도는 하였으나, 향후 개별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심층 사례 분석 등 후속 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SDGs 달성을 위한 시간은 촉박하지만, 개발협력의 방향을 근거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 연구가 KOICA의 협력국별 SDGs 지원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하나의 실증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공통 참고문헌]

Arab Development Portal. 2026. "Explore Country Data." Accessed May 1, 2026. https://data.unescwa.org/country/irq/sdgs/target-tracker; https://data.unescwa.org/country/jor/sdgs/target-tracker; https://data.unescwa.org/country/pse/sdgs/target-tracker.

Burgess, Bryan, Aaron Bengtson, and Ben Lautenslager. 2023. *Financ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ersion 1.0. Williamsburg, VA: AidData. Accessed May 1, 2026. https://www.aiddata.org/data/financing-the-2030-agenda-for-sustainable-development-version-1-0.

KnowSDGs. 2025. "SDG Mapper." Accessed May 1, 2026. https://know-sdgs.jrc.ec.europa.eu/sdgmapper/.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5.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2010~2024". Accessed April 8, 2026.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0%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1%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2%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3%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4%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5%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6%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7%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8%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19%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20%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21%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22%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23%20data.zip;
https://webfs-dcd.oecd.org/files/dotStat/DSD_CRS/CRS%202024%20data.zip.

Sachs, Jeffrey D., Guido Schmidt-Traub,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and Grayson Fuller. 2017.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achs, Jeffrey D., Guido Schmidt-Traub,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and Grayson Fuller.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achs, Jeffrey D., Guido Schmidt-Traub,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and Guido Woelm.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ransformation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achs, Jeffrey D., Guido Schmidt-Traub,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Christian Kroll,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Christian Kroll,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2023.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Implementing the SDG Stimulus.* Pari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2024.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The SDGs and the UN Summit of the Future*. Pari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2025.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Data Explorer.* Accessed May 1, 2026. https://dashboards.sdgindex.org/explorer/.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25. *SDG Gateway: National Analysis*. Accessed May 1, 2026. https://data.unescap.

org/national-analysi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ECA). 2025. *Africa SDG Tracker*. Accessed May 1, 2026. https://ecastats.uneca.org/data/africa-sdg-tracker/.

한국국제협력단. 2023. 2023년도 KOICA 국가지원계획(CP) 개정본 (국·영문). Accessed May 1, 2026. https://www.koica.go.kr/koica_kr/8131/.

[서론·결론]

African Union Commission, African Development Bank, UN Economic Commissions for Africa and UN Development Programme. 2025. *2025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Addis Ababa: ECA Printing and Publishing Unit.

Asadikia, Atie, Abbas Rajabifard, and Mohsen Kalantari. 2022. "Region-Income-Based Prioritis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Gradient Boosting Machine." Sustainability Science 17: 1939-1957.

Bennich, Therese, Åsa Persson, Raphaëlle Beaussart, Cameron Allen, and Shirin Malekpour. 2023. "Recurring Patterns of SDG Interlinkages and How They Can Advance the 2030 Agenda." One Earth 6: 1465-1476.

Brouwer, Jochem. 2024. Foreign Ai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ra: Analysing Donor Aid Allocation Strategies Based on Recipient Countries' Strides Towards SDG Achievement. Master's thesis, Erasmus University, Master of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Cling, Jean-Pierre, and Clément Delecourt. 2022. "Interlinkages betwe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Perspectives 25: 100412.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202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Final Five Years of the 2030 Agenda: Steering Transformations to Accelerate Progress* (LC/FDS.8/3). Santiago: United Nations Publicat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25.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5 - Engaging communities to close the evidence gap*. Bangk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Fahim, Md Muhtasim Munif, Md Jahid Hasan Imran, Luknath Debnath, Tonmoy Shil, Md Naim Molla, Ehsanul Bashar Pranto, Md Shafin Sanyan Saad, and Md Rezaul Karim. 2026. "Distributed Causality in the SDG Network: Evidence from Panel VAR and Conditional Independence Analysis." arXiv.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arxiv.org/abs/2601.20875.

Fronza, Valentina, Giulia Barbero Vignola, Stefan Borchardt, Silvia Valentini, Daniele Buscaglia, Marta Maroni, and Laura Marelli. 2023. Uncovering SDG Interlinkages: Interconnections at the Core of the 2030 Agenda.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uerrero, Omar A., Daniele Guariso, and Gonzalo Castañeda. 2023. "Aid Effectivenes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World Development 168: 106256.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3.106256.

Ingram, George, and Helena Hlavaty. 2021. Donor Engagement with Agenda 2030: How Government Agencies Encompas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2017. A Guide to SDG Interactions: From Science to Implementation.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9.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2019: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Paris: OECD Publishing.

Pradhan, Prajal, Luís Costa, Diego Rybski, Wolfgang Lucht, and Jürgen P. Kropp. 2017. "A Systematic Study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Interactions." Earth's Future 5 (11): 1169–1179.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Guillaume Iablonovski. 202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2030 and Mid-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Paris: SDSN;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doi.org/10.25546/111909.

United Nations (UN). 2025a.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Accessed May 1, 2026. https://hlpf.un.org/vnrs.

United Nations (UN). 2025b. "SDG Indicator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Accessed May 1, 2026.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United Nations (UN). 2025c.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5*.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23. Six Transitions: Investment Pathways to Deliver the SDGs. New York: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아]

1. 네팔

Abt. 2023. "Engaging Nepal's Private Health Sector to Improve Health Outcomes."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abtglobal.com/insights/impact-briefs/engaging-nepals-private-health-sector-to-improve-health-outcomes.

Equal Access International (EAI). n.d. "The Sajhedari Bikaas Project: Partnership for Local Development."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equalaccess.org/our-work/projects/sajhedari-bikkas-partnership-for-development/.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Nepal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nepal-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nepal-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Girls' Education Challenge (GEC). n.d. "Country Nepal." Accessed April 15, 2026. https://girlseducationchallenge.org/countries/country/nepal.

Government of Nepal. 2017. *National Re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pril 1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6513Nepal.pdf.

Government of Nepal. 2020a. *Nepal National Re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pril 1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6541VNR_2020_Nepal_Report.pdf.

Government of Nepal. 2020b. *The Fifteenth Plan: Fiscal Year 2019/20-2023/24*. Accessed April 15, 2026. http://elibrary.moest.gov.np:8080/bitstream/123456789/307/1/15.pdf.

Government of Nepal. 2024a. *Nepal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pril 1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4/VNR%202024%20Nepal%20Report_0.pdf.

Government of Nepal. 2024b. *The Sixteenth Plan: Fiscal Year 2024/25-2028/29*. Accessed April 15, 2026. http://elibrary.moest.gov.np/bitstream/123456789/308/1/16.pdf.

Policy Commons. n.d. "USAID Sajhedari: Support to Federalism in Nepal." Accessed April 15, 2026.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18357262/nepal-fact-sheet-sajhedari-support-to-federalism/19257734/.

Provincial and Local Governance Support Programme (PLGSP). n.d. "About PLGSP." Accessed April 15, 2026. https://plgsp.gov.np/.

Sastry, Deepti, and Daniel Stein. 2022. *Integrated Programme for Strengthening Security and Justice: Endline Evaluation*. Palladium and UK Aid. Accessed April 15, 2026. https://iati.fcdo.gov.uk/iati_documents/D0001524.pdf.

The Kathmandu Post. 2025. "UK-Backed CASA Programme Mobilises Rs830 Million for Nepal's Agribusiness." Accessed April 15, 2026. https://kathmandupost.com/money/2025/07/24/uk-backed-casa-programme-mobilises-rs830-million-for-nepal-s-agribusiness.

UKaid-NHSP3. 2021. "UKaid Support to Health Sector in Nepal."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nhssp.org.np/index.htm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n.d. "The Challenge."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unicef.org/nepal/nutrition.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17. *Final Performance Report*. Accessed April 15, 2026. https://www.another-option.com/s/EGRP-Project-Report_FINAL-Nov-2017-dfn4.pdf.

U.S. Embassy in Nepal. 2022. "USAID and Government of Nepal Improve Reading Skills for Primary School Children." Accessed April 15, 2026. https://np.usembassy.gov/usaid-and-government-of-nepal-improve-reading-skills-for-primary-school-children/.

U.S. Embassy in Nepal. 2024. "USAID's KISAN II Project Boosts Nepal's Farming Sector." Accessed April 15, 2026. https://np.usembassy.gov/usaids-kisan-ii-project-boosts-nepals-farming-sector/.

2. 동티모르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4. *Australia-Timor-Leste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5-2030.* Accessed March 8, 2026.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timor-leste-development-partnership-plan-2025-2030.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n.d. *Aid Investment Plan: Timor-Leste, 2015/16-2018/19.* Accessed March 8, 2026.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timor-leste-aid-investment-plan-2015-19.pdf.

Government of Timor-Leste. 2019.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shes to Reconciliation, Reconstr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March 8,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417TimorLeste_VNR_2019_FINAL.pdf.

Government of Timor-Leste. 2023. *The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ccessed March 8,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Timor%20Leste%20Report_0.pdf.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n.d. "Timor-Leste Compact." Accessed March 8, 2026. https://www.mcc.gov/where-we-work/program/timor-leste-compact/#program-projects.

National Cooperative Business Association CLUSA International (NCBA CLUSA). 2023. "NCBA CLUSA to Lead $7.5 Million USAID Cooperative Agreement in Timor-Leste,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Women and Youth." Accessed March 8, 2026. https://ncbaclusa.coop/blog/ncba-clusa-to-lead-7-5-million-usaid-cooperative-agreement-in-timor-leste-creating-a-better-future-for-women-and-youth/.

PDHJ Timor-Leste. 2024. "United States and Timor-Leste Partner Launch Key Anti-Corruption Initiatives." Accessed March 8, 2026. https://www.pdhj.tl/en/usaid-and-pdhj-sign-statement-of-cooperation-to-implement-key-anti-corruption-initiatives-in-timor-leste/.

Resonance. n.d. "Avansa Agrikultura: Supporting Economic Activ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imor-Leste." Accessed March 8, 2026. https://www.resonanceglobal.com/project-profiles/avansa-agrikultura.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Timor-Leste*. Accessed March 8, 2026. https://2021-2025.state.gov/wp-content/uploads/2022/07/ICS_EAP_Timor-Leste_Public.pdf.

3. 라오스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15. *Aid Investment Plan: Laos Program 2015-16 to 2019-20*.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laos-aid-investment-plan-2015-20.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4. *Australia-Laos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4-2029*.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laos-development-partnership-plan-2024-2029.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4.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JICA Country Analysis Paper (JCAP): Executive Summary*.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laos/__icsFiles/afieldfile/2024/09/24/jcap_la_en.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Maps of JICA Major Projects*.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libportal.jica.go.jp/library/Public/files/plan/in-operation/english/SoutheastAsia/024_Laos-e.pd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8.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9385Lao_Final_VNR_19_June_2018_web.pd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79472021_VNR_Report_Lao.pd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4.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4/VNR%202024%20Lao%20Report.pd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5. *10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26-2030*. Accessed October 8, 2025. https://rtm.org.la/wp-content/uploads/2025/11/10th_NSEDP_10112025_Eng.CLN_.pdf.

Thu, Nguyen Hong, Phi Vinh Tuong, Dong Van Chung, Hoang Thi Hong Minh, Nguyen Thi Hien, and Nguyen Tran Minh Tr. 2023.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rehensive Review.*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1462&seq=1.

4. 몽골

FundsforNGOs. n.d. "USAID Business Excellence for Sustainability and Transparency (BEST) Phase II Activity - Mongolia."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fundsforcompanies.fundsforngos.org/grant/usaid-business-excellence-for-sustainability-and-transparency-best-phase-ii-activity-mongolia/.

Global Agriculture & Food Security Program (GAFSP). n.d. "Livestock and Agricultural Marketing Project (LAMP)."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gafspfund.org/projects/livestock-and-agricultural-marketing-project-lamp.

Government of Mongolia. 2019. *Mongoli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2019*.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342MONGOLIA_VOLUNTARY_NATIONAL_REVIEW_REPORT_2019.pdf.

Government of Mongolia. 2023. *Mongoli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3*.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Mongolia%20Report.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3. *JICA Country Analysis Paper for Mongolia*.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mongolia/__icsFiles/afieldfile/2024/09/24/jcap_mn_en.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Mongolia*.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mn.emb-japan.go.jp/files/100096070.pdf.

New Recovery Policy Accelerator. 2024. "New Recovery Policy."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nrpa.gov.mn/en/new-recovery-policy.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Mongolia*.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2/05/ICS_EAP_Mongolia_Public-1.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n.d. *LEAD Mongolia Impact*

Report 2016-2018. Accessed December 7, 2025. https://www.worldlearning.org/wp-content/uploads/2018/12/World-Learning-LEAD-Mongolia-Project-Impact-Report-2016-2018-EN.pdf.

5. 미얀마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ess Report 2022*.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csostat.gov.mm/FileUpload/cso/FileDownload/SDGs%20Progress%20%20Report%202022.pdf.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Policy Paper: UK-Myanmar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myanmar-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myanmar-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7. "Signing of Japanese ODA Loan Agreements with Myanmar: Building Basic Infrastructure and Alleviating Regional Poverty."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2.jica.go.jp/yen_loan/pdf/en/6829/20170301_01.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8. *The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Legal, Judicial and Relevant Sectors in Myanmar: Joint Terminal Evaluation Report*.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openjicareport.jica.go.jp/pdf/1000041336.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n.d. "Myanmar."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myanmar/index.html.

Matsuda Consultants International. n.d.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Japan-Myanmar Aung S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www.matsucon.co.jp/en/projects/the-project-for-the-development-of-japan-myanmer-aung-san-vocational-training-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Japan's Assistance to Myanmar*.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mofa.go.jp/files/000077442.pdf.

Mohinga. 2018.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Yangon Specialist Hospital."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mohinga-production.catalpa.build/en/profiles/activity/Japan-1948/.

Myanmar Project Bank. n.d. “Yangon-Mandalay Railway Line Improvement Project.”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projectbank.gov.mm/en/profiles/activity/PB-ID-103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3. *Myanmar at a Crossroads: Past Trends of Human Well-Being and a Future Outlook*.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3-05/UNDP-RBAP-Myamar-at-Crossroads-Apr-2023.p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5. *Myanmar’s Enduring Polycrisis: Four Years into a Tumultuous Journey*. Accessed February 22, 2026.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5-01/undp_four_year_outlook-myanmar_enduring_polycrisis_jan2025-2.pdf.

6. 방글라데시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2. *Bangladesh: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1-2025—Sustain Growth, Build Resilience, and Foster Inclusion*.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734911/ban-cps-2021-2025.pdf.

Dascoh. 2022. “MaMoni Maternal and Newborn Care Strengthening Project (MaMoni-MNCSP).”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ascoh.org/project/mamoni-maternal-and-new-born-care-strengthening-project-mamoni-mncsp.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2016. *DFID Bangladesh Operational Plan 2011-2016*.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da2bd40f0b635051d05f1/Bangladesh.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and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1. *Bangladesh Program Completion Review (PCR): Strategic Partnership Arrangement (SPA) Phase 2 (DFAT-FCDO-BRAC)*.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bangladesh-program-completion-review-pcr-strategic-partnership-arrangement-spa-phase-2-dfat-fcdo-brac.pdf.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Bangladesh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July 2023).”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bangladesh-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bangladesh-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4a. "Better Health in Bangladesh (BHB) Programme (GB-1-203864)."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1-203864/summary.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4b. "Midwifery Education and Services in Bangladesh (GB-1-204079)."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1-204079/summary.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4c. "Reproductive Health and Family Planning Programme in Bangladesh (GB-1-203866)."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1-203866/summary.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4d. "Bangladesh Education and Youth Skills Programmes (GB-1-202123; GB-1-203870)."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1-202123/summary; https://devtracker.fcdo.gov.uk/projects/GB-1-203870.

Global Partnership for Results-Based Approaches (GPRBA). 2021. *Database of OBA Education Projects.*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gprb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wnloads/2021-07/Database-of-OBA-Education-Projects.pdf.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17. *Bangladesh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2017: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gedkp.gov.bd/wp-content/uploads/2021/02/Bangladesh-Voluntary-National-Review-VNR-2017.pdf.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a. *Accelerated Actions and Transformative Pathways: Bangladesh's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2020.*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6303VNR_2020_Bangladesh_Report.pdf.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0b. *Making Vision 2041 a Reality: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oldweb.lged.gov.bd/uploadeddocument/unitpublication/1/1049/vision%202021-2041.pdf.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5. *Bangladesh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5.*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gedkp.gov.bd/wp-content/uploads/2025/07/Bangladesh-Voluntary-National-Review-2025.pdf.

Huda, Tanvir M., Suman Kanti Chowdhury, Jatan Bhowmick, Sabrina Sharmin Priyanka, Mohammad Sohel Shomik, Qazi Sadeq-ur Rahman, Mizanur Rahman, Ishtiaq Mannan, and Shams El Arifeen. 2023. "Impact of Integrated Community-Facility Interventions Model on Neonatal Mortality in Rural Bangladesh—A Quasi-Experimental Study." *PLOS ONE* 18 (4): e027483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7483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5. *The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Bangladesh (2020-2022).*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he-development-and-humanitarian-response-to-the-covid-19-pandemic-in-bangladesh-2020-2022_c3e42f6f-en.html.

Schnatz, Julia, Alejandro Guerrero-Ruiz, and Kadambote Sachin. 2022.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e SDGs in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A Case Study of Bangladesh."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105. https://doi.org/10.1787/7c83ab20-en.

Social Impact. 2017. "Bangladesh Democracy & Governance M&E Support."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socialimpact.com/portfolio-items/bangladesh-democracy-governance-program-evaluations.

Social Impact. 2022. "Bangladesh Democracy and Governance Program Evaluations."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socialimpact.com/portfolio-items/bangladesh-democracy-governance-program-evaluations/.

Stop TB Partnership. 2025. "Social Marketing Company."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stoptb.org/partners/partner_profile2.asp?PID=142944.

United Nations (UN). 2021. *Bangladesh Project Report: Strategic Guidelines for Climate Financing.*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un.org/ldcportal/sites/www.un.org.ldcportal/files/files/documents/2021/Oct/bangladesh_project_report_-_strategic_guidelines_for_climate_financing.p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1.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 Bangladesh.*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hdr.undp.org/

system/files/documents/nhdr2021bangladesh.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19. *Statement of Objectives—USAID/Education Data: Innovation for Improving Early Grade Reading Activity (IIEGRA) Bangladesh.* Washington, DC: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3a. *Bangladesh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 2020-2027*.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2023-06/Bangladesh-CDCS-2020-2027-FINAL_1.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3b. *USAID's MaMoni Maternal and Newborn Care Strengthening Project (MaMoni MNCSP): Project Brief*.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collection/usaids-mamoni-maternal-and-newborn-care-strengthening-project.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5. *Bangladesh USAID Education Data: Come and Learn (Esho Shikhi), IIEGRA, READ*. DataLumos/ICPSR Project 238472.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ww.datalumos.org/datalumos/project/238472/version/V1/view.

Winrock International. 2022. "USAID and the Ministry of Primary and Mass Education Launch New Project to Improve Quality of Early Education."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winrock.org/usaid-and-the-ministry-of-primary-and-mass-education-launch-new-project-to-improve-quality-of-early-education.

World Bank. 2017. *Bangladesh—Health Sector Support Project (Project Appraisal Document, P160846)*.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509301501466454241/bangladesh-health-sector-support-project.

World Bank. 2023. *Bangladesh Development Update: Economic Resilience in a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 Accessed November 8, 2025.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cf07cf58f2c345063c972a47209b8c11-0310012023/original/Bangladesh-Development-Update-October-2023.pdf.

7. 베트남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19. *AFD and Vietnam*.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afd.fr/sites/default/files/2019-01-10-06-15/afd-and-vietnam.pdf.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2. *2021-2025 Strategy Vietnam*.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afd.fr/sites/default/files/2022-11-02-45-42/vietnam-strategy-2021-2025.pdf.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Vietnam."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afd.fr/en/countries-regions/viet-nam.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Maps of JICA Major Projects*.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libportal.jica.go.jp/library/Data/PlanInOperation-e/SoutheastAsia/027_Viet_Nam-e.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Vietnam Office. 2025. *Accompanying Vietnam's Development*.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vietnam/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3/10/general_05_01_en.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vn.emb-japan.go.jp/document/pdf/vietnam-1%EF%BC%88En%EF%BC%89.pd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8. *Vietnam's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9967VNR_of_Viet_Nam.pd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Viet%20Nam%20Report.pdf.

Thu, Nguyen Hong, Phi Vinh Tuong, Dong Van Chung, Hoang Thi Hong Minh, Nguyen Thi Hien, and Nguyen Tran Minh Tr. 2023.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rehensive Review.* Accessed August 21, 2025.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1462&seq=1.

8. 스리랑카

Global Communities. 2022. *Social Cohesion & Reconciliation Activity (SCORE) – Sri Lanka*.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globalcommunities-archive.org/wp-content/uploads/2022/07/GC-SriLanka-SCORE-Factsheet-July2022.pdf.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8.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Status of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9677FINAL_SriLankaVNR_Report_30Jun2018.pdf.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22. *Inclusive Transformation towards a Sustainably Developed Nation for All.*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2/VNR%202022%20Sri%20Lanka%20Report.pdf.

Improving Economies for Stronger Communities (IESC). n.d. "Market-Oriented Dairy Project (MOD)."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iesc.org/program/market-oriented-dairy/.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5. *2026-2030 Public Investment Programme.*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npd.treasury.gov.lk/files/PIP%202026-2030%20final_new.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 *Rolling Plan for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www.lk.emb-japan.go.jp/files/100521551.pdf.

U.S. Embassy in Sri Lanka. 2022a. "United States Provides 9,300 Metric Tons of Fertilizer to Paddy Farmers in Sri Lanka."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lk.usembassy.gov/united-states-provides-9300-metric-tons-of-fertilizer-to-paddy-farmers-in-sri-lanka/.

U.S. Embassy in Sri Lanka. 2022b. "United States Supports Free Online Mentoring Platform for Entrepreneurs." Accessed December 9, 2025. https://lk.usembassy.gov/united-states-supports-free-online-mentoring-platform-for-entrepreneurs/.

9. 인도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a.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bmz.de/en/countries/india.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b. *Climate and Development Partnership with India Factsheet*.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bmz.de/resource/blob/206806/factsheet-p-indien-en-03.pdf.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c. *Core Area Strategy: Conserving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ng Life on Earth (2024-2030)*.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bmz.de/resource/blob/231054/strategy-conserving-nature-and-natural-resources-protecting-life-on-earth.pdf.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0a. "Indo-German Programm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GVET): Cooperative Training Opportunities."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en/projects/indo-german-programm-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0b. "India: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with Innovative Technologies—Management of Organic Waste in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en/projects/management-organic-waste-india.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1. *Circular Economy Solutions Preventing Marine Litter in Ecosystems Factsheet*.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suppwmdashboard.in/uploads/content_manager/giz2021_Factsheet_Circular_Economy_Solutions_Preventing_Marine_Litter_in_Ecosystems_May_2022_%281%29.pdf.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2. *Mainstreaming Circularity Approaches for Healthy Soils in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22-en-india-healthy-soils.pdf.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a. "Indo-German Programm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I (IGVET II)."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en/projects/indo-german-programm-skill-development.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b. "Promoting Equal Access to Green Jobs."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en/projects/green-skills.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c. *Bridging the Gender Gap in Green Skills: Indo-German Green Skills Programme (IGGSP)*.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iz.de/de/downloads/giz2024-en-bridging-the-gender-gap-in%20green-skills.pdf.

Germanwatch. 2024. *Next Steps in Indo-German Co-operation for India's People-centred 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germanwatch.org/sites/default/files/germanwatch_e._v._next_steps_in_indo-german_co-coperation.pdf.

Government of India. 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sdghelpdesk.unescap.org/sites/default/files/2018-03/VNR%20-%20India_0.pdf.

Government of India. 2020. *Indi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0: Decade of Action—Taking SDGs from Global to Local*.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6281VNR_2020_India_Report.pdf.

Government of India. 2025. *Indi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5*.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niti.gov.in/sites/default/files/2025-08/india-voluntary-national-review.pdf.

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GSDP). n.d. "Indo-German 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Topics."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india-germany-gsdp.inf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9. *Operations and Activities in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jica.go.jp/india/english/office/others/c8h0vm00004cesxi-att/brochure_15.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0. *Operations and Activities in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india/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1/23/brochure_17.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india/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1/23/brochure_19.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OFA). 2018.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of India*.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mofa.go.jp/policy/oda/evaluation/FY2017/pdfs/india.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OFA). 2019. "Annual Report on Japan's ODA Evaluation 2019."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mofa.go.jp/policy/oda/evaluation/19_evaluation/05/05.html.

Virmani, Arvind. 2024. *Viksit Bharat: Unshackling Job Creators and Empowering Growth Drivers*. Accessed November 18, 2025. https://www.niti.gov.in/sites/default/files/2024-07/WP_Viksit_Bharat_2024-July-19.pdf.

10. 인도네시아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0.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donesia, 2020-2024—Emerging Stronger*.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adb.org/documents/indonesia-country-partnership-strategy-2020-2024.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1. *Indonesia Development Effectiveness Brief 2021*.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adb.org/publications/series/development-effectiveness-country-brief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15. *Aid Investment Plan Indonesia 2015/16 to 2018/19*.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indonesia-aid-investment-plan-2015-19.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0. *Indonesia COVID-19 Development Response Plan*.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covid-response-plan-indonesia.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4. *Australia-Indonesia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4-2028*.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indonesia-development-partnership-plan-2024-2028.pdf.

Government of Indonesia. 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5705Indonesia.pdf.

Government of Indonesia.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80320190708_Final_VNR_2019_Indonesia_Rev3.pdf.

Government of Indonesia. 2021. *Indonesia'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2021: Sustainable and Resilient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80892021_VNR_Report_Indonesia.pdf.

Government of Indonesia. 2025. *Indonesia VNR 2025 Voluntary National Review: Fosterin g Inclusive Growth—Advancing Sustainable and Resilience Indonesia*.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5/VNR%202025%20Indonesia%20Report_0.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8. *Review of Indonesia's Development and Japan's Cooperatio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openjicareport.jica.go.jp/pdf/12307831.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Indonesia Learns SDGs Implementation Framework from Japan's Prefectures."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indonesia/information/press/2025/1570565_59611.html.

Statistics Indonesia (BPS). 2024. "Official Poverty Statistics Release, March 2024."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bps.go.id/en/pressrelease/2024/07/01/2370/in-march-2024—the-poor-population-percentage-decreased-into-9-03-percent-.html.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Indonesia Country Brief*.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r2019.pdf.

World Bank. 2021. *Indonesia Economic Prospects 2021*.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indonesia/publication/indonesia-economic-prospect.

World Bank. 2022. *Indonesia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Update 2022.*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717421594076964759/pdf/Indonesia-Systematic-Country-Diagnostic-Update.pdf.

Yofa, Rangga Ditya. 2025. "National Medium-Term (RPJMN) 2025-2029 and Its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ning in Indonesia." Accessed November 30, 2025. https://ap.fftc.org.tw/article/3813.

11. 캄보디아

Abt. 2025. "Abt's Buyer-led, Market Systems Approach to Cambodian Horticulture."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abtglobal.com/projects/abts-buyer-led-market-systems-approach-to-cambodian-horticulture.

Dimagi. 2025. "USAID Cambodia Integrate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ctivity." Accessed April 10, 2026. https://dimagi.com/case-study/mhealth-rti/.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a. *Cambodia JICA Country Analysis Paper (JCAP): Executive Summary*.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cambodia/__icsFiles/afieldfile/2025/05/22/jcap_kh_en_202501.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b. *Maps of JICA Major Projects*. Accessed April 10, 2026. https://libportal.jica.go.jp/library/Data/PlanInOperation-e/SoutheastAsia/021_Cambodia-e.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mofa.go.jp/files/000477240.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4.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kh.emb-japan.go.jp/files/100976476.pdf.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9. *Cambodia's Voluntary National Review 2019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April 10,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603Cambodia_VNR_PublishingHLPF.pdf.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23a. *Cambodia's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3: Accelerating the Recovery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ccessed April 10, 2026. https://hlpf.un.org/

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Cambodia%20Report.pdf.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23b. *Pentagonal Strategy—Phase I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s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 Accessed April 10, 2026. http://cdc-crdb.gov.kh/en/strategy/documents/Pentagonal-Strategy-Phase-I__English__24.08.2023.pdf.

URC. 2025. "Cambodia."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urc-chs.com/cambodia/.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2. *All Children Reading Asia (ACR-Asia): USAID Systems Strengthening Review Case Study—Cambodia*. Accessed April 10, 2026. https://www.rti.org/sites/default/files/related-content-files/usaid_cambodia_case_study_v04.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n.d. *Grow Together Campaign in Cambodia: A Game-changer for Children's Healthy Growth*. Accessed April 10, 2026.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The-NOURISH-Project-in-Cambodia-Grow-together-campaign.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Cambodia. 2014.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4-2018*. Accessed April 10, 2026. http://cdc-crdb.gov.kh/en/donor-ngo/donor/2%20Country%20Development%20Cooperation%20Strategy%20of%20USAID%20for%20Cambodia%202014-2018.pdf.

U.S. Embassy in Cambodia. 2025. "U.S. Government Assistance to Education." Accessed April 10, 2026. https://kh.usembassy.gov/u-s-government-assistance-to-education/.

World Food Programme (WFP). 2020. *Endline Evaluation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McGovern-Dole Grant Food for Education Programme for WFP Cambodia*. Accessed April 10, 2026.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17006/download/.

12. 파키스탄

Energy and Security Group (ESG). n.d. "Pakistan Power Sector Improvement Activity (PISA)." Accessed March 11, 2026. https://energyandsecurity.com/our-expertise/where-we-work/pakistan/.

Government of Pakistan. 2019. *Pakistan's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untary National Review*. Accessed March 11, 2026. https://hlpf.

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3812019_06_15_VNR_2019_Pakistan_latest_version.pdf.

Government of Pakistan. 2022. *Pakistan's Voluntary National Review: Implementing Best Practices to Build Forward Better in the Decade of Action*. Accessed March 11,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2/VNR%202022%20Pakistan%20Report.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9. *JICA Project Brief Not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e Project for Water Supply, Sewerage and Drainage Master Plan of Faisalabad*. Accessed March 11, 2026. https://www.jica.go.jp/Resource/english/our_work/thematic_issues/water/c8h0vm0000ammjc9-att/study_05.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3. *Recent JICA Projects in Power Sector*. Accessed March 11, 2026.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akistan/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2/06/power.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Maps of JICA Major Projects—Pakistan*. Accessed March 11, 2026. https://libportal.jica.go.jp/fmi/xsl/library/Data/PlanInOperation-e/EastSouthAsia/063_Pakistan-e.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ccessed March 11, 2026. https://www.pk.emb-japan.go.jp/files/100706679.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4. *Rolling Plan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ccessed March 11, 2026. https://www.pk.emb-japan.go.jp/files/100816656.pdf.

Numark Associates. n.d. "Pakistan Power Sector Improvement Activity." Accessed March 11, 2026. https://numarkassoc.com/our-services/support-to-us-government-energy-assistance-programs/usaid-pakistan-power-sector-improvement-activity-psia.

PFAN. n.d. "The Pakistan Private Sector Energy Project." Accessed March 11, 2026. https://annual-report.pfan.net/ppse/.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Pakistan.* Accessed March 11, 2026. https://2021-2025.state.gov/wp-content/uploads/2024/06/Pakistan-ICS-Public.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5. *Construction Sustainability: USAID/Pakistan Did Not Ensure That Recipients Could Use, Operate, and Maintain the Selected Water Supply System and Schools as Intended*. Accessed March 11, 2026. https://oig.usaid.gov/sites/default/files/2025-03/Final%20Audit%20Report-Construction%20Sustainability%20USAIDPakistan%20Did%20Not%20Ensure%20That%20Recipients%20Could%20Use%20Operate%20and%20Maintain%20the%20Selected%20Water%20Supply%20System%20and%20Schools%20as%20Intended_0.pdf.

Uraan Pakistan. n.d. "Executive Summary." Accessed March 11, 2026. https://uraanpakistan.pk/executive-summary/.

13. 피지

AusConnect. 2025. "Teaching and Learning Officer, English Curriculum (Secondary)—Australia Fiji Education Program." Accessed April 13, 2026. https://ausconnect.dfat.gov.au/opportunities/teaching-and-learning-officer-english-curriculum-secondary-australia-fiji-education-fiji-program.

Australian Global Health Alliance. 2025. "Australia Steps Up to Support Fiji Response to HIV Outbreak." Accessed April 13, 2026. https://ausglobalhealth.org/australia-steps-up-to-support-fiji-response-to-hiv-outbreak/.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2025. "Australia Supports Fiji's Rural Electrification."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aiffp.gov.au/news/australia-supports-fijis-rural-electrificat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15. *Aid Investment Plan Fiji 2015/16-2018/19*.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fiji-aid-investment-plan-2015-19.pd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3. *Australia-Fiji Development Partnership Plan 2024-2028*.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fiji-development-partnership-plan-2024-2028.pd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ji. 2024. *Fiji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5-2029 and Vision 2050*.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finance.gov.fj/wp-content/uploads/2024/09/NPDF_final-9.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Maps of JICA Major Projects*. Accessed April 13, 2026. https://libportal.jica.go.jp/library/Public/files/plan/in-operation/english/Oceania/106_Fiji-e.pdf.

Ministry of Economy.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 Fiji's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April 13,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5011Fiji_VNR_2019_final.pdf.

Ministry of Finance, Strategic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and Statistics.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Strengthening Resilience to Meet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Other Global Issues*. Accessed April 13,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Fiji%20Report.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6. *Rolling Plan for the Republic of Fiji*.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fj.emb-japan.go.jp/eco_corporation/fiji/Rolling%20Plan%20for%20Fiji%202015.pdf.

Pacific News Service. 2026. "Fiji and Australia Launch Major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to Strengthen Flood Resilience." Accessed April 13, 2026. https://pina.com.fj/2026/03/23/fiji-and-australia-launch-major-climate-adaptation-initiative-to-strengthen-flood-resilience/.

Tetra Tech. 2022. *The Australian Government's Fiji Program Support Facility: Program Design Update—Australia's Support to Fiji's Health Sector*. Accessed April 13, 2026.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program-design-update-fiji-health-program.pdf.

14. 필리핀

Aytona, Maria Gemma, Maria Rosario Politico, Lorna McManus, Kenneth Ronquillo, Mollent Okech. 2022. "Determining Staffing Standards for Primary Care Services Using Workload Indicators of Staffing Needs in the Philippines." *Human Resources for Health* 19 (Suppl. 1): 129. https://doi.org/10.1186/s12960-021-00670-4.

Calderon, Jeremiah S., Kelly E. Perry, Sein Sein Thi, and Lisa L. Stevens. 2022. "Innovating Tuberculosis Prevention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the Philippines: Lessons from the TB Innovations and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Project." *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 29: 100609. https://doi.org/10.1016/

j.lanwpc.2022.100609.

CTI-CFF (Coral Triangle Initiative on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y). 2017. "Coral Triangle Initiative on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y (CTI-CFF)."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cinea.ec.europa.eu/publications/coral-triangle-initiative-coral-reefs-fisheries-and-food-security-cti-cff_en.

Department of Health (DOH). 2020. *Human Resources for Health Philippine Master Plan 2020-2040*.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rh2030program.org/wp-content/uploads/2020/08/x12.1_HRH2030PH_HRHMasterplan-Full.pdf.

Department of Health (DOH). 2023. *National Objectives for Health Philippines 2023-2028*. Manila: Department of Health.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thepafp.org/wp-content/uploads/2025/07/National-Objectives-for-Health-2023-2028.pdf.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6. *Voluntary National Review at the 2016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0765PH%20VoluntaryNationalReview_FINAL.pdf.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Philippine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23366Voluntary_National_Review_2019_Philippines.pdf.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2. *2022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Philippines—Rekindling Commitment and Using Innovation to Accelerate Recovery and Ensure Progress to Achieve the SDGs in 2030 and Our Ambisyon Natin 2040*.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2/06222022%20VNR%20of%20the%20Philippines.pdf.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25. *2025 Voluntary National Review Philippines—Driving Transformation for the 2030 Agenda through SDG Localization, Collaborative Partnerships, and Innovative Statistical Development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5/VNR%202025%20Philippines%20Report.pdf.

HRH2030. 2020. *Human Resources for Health in 2030 in the Philippines: Final Report*.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hrh2030program.org/wp-content/uploads/2021/01/USAIDs-HRH2030-Philippines-Final-Report.pdf.

Ingram, George, and Anthony F. Pipa. 2023. "The SDGs: A Second-Half Opportunity

for US Global Leadership."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sdgs-a-second-half-opportunity-for-us-global-leadership/.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1. *JICA's Cooperation in the Philippines: Project Overview and Thematic Area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hilippine/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1/31/brochure_2021_01.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2.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22 Annual Report*.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jica.go.jp/philippine/english/office/others/c8h0vm0000d3hsdw-att/report_2022.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3. *JICA Philippines Annual Report 2023: Building Tomorrow Together*.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hilippine/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1/31/report_2023.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4. *JICA Philippines Annual Report 2024: Empowering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hilippine/others/__icsFiles/afieldfile/2025/04/22/JICAPhilippinesAnnualReport2024.pd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25. *Maps of JICA Major Projects, Philippine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libportal.jica.go.jp/library/Data/PlanInOperation-e/SoutheastAsia/012_Philippines-e.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Evaluation of Japan's ODA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mofa.go.jp/policy/oda/evaluation/FY2019/pdfs/philippines.pdf.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 2023.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pdp.depdev.gov.ph/wp-content/uploads/2023/01/PDP-2023-2028.pdf.

Runde, Daniel F., Romina Bandura, and Alex Baumunk. 2019. *Philippines Country Case Study: Fostering Private Sector Growth and Countering China: The Role of the New DFC*.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91010_RundeBanduraBaumunk_USDFC_Philippines_v6.p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09/hdr2021-22pdf_1.pdf.

United Nations Philippines. 2025. *Annual Results Report and 2025 Prospects*.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philippines.un.org/en/download/183889/294465.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0. *Philippine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20-2024*.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87fcaeb1b10e3086960b284/t/5fea7f6daec37f14953c0933/1609203570752/Philippines_CDCS_2019-2024.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2. *Philippines High-Priority Country Plan, Global Water Strategy 2022-2027*.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www.globalwaters.org/files/sites/default/files/philippines_hpc_plan_508-external.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3. *USAID Partnership in the Philippines: Promoting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8995765/partners-in-the-philippines-development-working-toward-a-more-stable/9884820/.

World Bank. 2022. *Philippines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CCDR)*. Accessed October 25, 2025.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4ec3282919652f7545bc25c49c1811e4-0070012022/original/PHCCDR-FINAL-formatted.pdf.

[아프리카]

1. 가나

Adeyemi, Segun. 2025. “US Suspends Ghana from $190 Million MCC Energy Funding.” Business Insider Africa, December 10,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us-suspends-ghana-from-dollar190-million-mcc-energy-funding/84p19tz.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APRM). 2025. *Voluntary Reporting on SDGs and Agenda*

2063 for the 2025 HLPF: Peer-Learning Exercise between African Countries. Midrand, Johannesburg: APRM.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aprm.au.int/sites/default/files/files/2025-08/report-hlfp-vnr.pdf.

Ayisi-Quartey, Florence. 2025. "Ghana's Response to the Triple Crisis: Food, Fuel, and Finance." Presentation at the Inter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Strengthening Capacity for Evidence-Based Social Protection Policies, Lusaka, July 9, 202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sdgs.un.org/sites/default/files/2025-07/Ghana%E2%80%99s%20Triple%20Crisis%20Response%20%E2%80%93%20Florence%20Ayisi-Quartey.pdf.

Batoma, Ishmael. 2025. "This Is How Much Donald Trump's Closure of USAID Would Cost Ghana." *GhanaWeb*. February 7, 2025. https://www.ghanaweb.com/GhanaHomePage/NewsArchive/This-is-how-much-Donald-Trump-s-closure-of-USAID-would-cost-Ghana-1970540.

The Borgen Project. 2025. "SDG 4 in Ghana: Progress and Challenges in Education." The Borgen Project. May 29,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borgenproject.org/sdg-4-in-ghana/.

Cohrs, Lena. 2026. "ODA Allocations for 2026 Onwards Show the Grim Reality of Aid Cuts." Bond. March 24, 2026. Accessed March 25, 2026. https://www.bond.org.uk/news/2026/03/oda-allocations-for-2026-onwards-show-the-grim-reality-of-aid-cuts/.

Donkor, Isaac. 2025. "Mahama Could've Simply Continued 'Ghana Beyond Aid' Instead of 24-hour Economy — Ahiagbah." *Modern Ghana*, July 8, 2025. Accessed March 25, 2026. https://www.modernghana.com/news/1415058/mahama-couldve-simply-continued-ghana-beyond.html.

EcoMedia Africa. 2025. "What is Ghana's State of Adopting the SDGs?" EcoMedia Africa, January 13,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ecomedia.africa/what-is-ghanas-state-of-adopting-the-sdgs/.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Ghan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GOV.UK*. July 17, 2023. Accessed March 25,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ghan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ghan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6. "FCDO Multi-Yea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 Allocations 2026-2027 to 2028-2029: Equality Impact Assessment." *GOV.UK*. March 19, 2026. Accessed March 25,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cdo-official-development-assistance-programme-allocations-2026-2027-to-2028-2029-equality-impact-assessment/fcdo-multi-year-official-development-assistance-programme-allocations-2026-2027-to-2028-2029-equality-impact-assessment.

The High Street Journal. 2025. "Ghana's $1.55 Billion from USAID (2015-2024): But What Happens When the Funds Run Dry?" *The High Street Journal*. February 5,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thehighstreetjournal.com/ghanas-1-55-billion-from-usaid-2015-2024-but-what-happens-when-the-funds-run-dry/.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ICAI). 2020. *The Changing Nature of UK Aid in Ghana: A Country Portfolio Review*. London: ICAI.

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 (IFDC). n.d. "Feed the Future Ghana Agricultur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ifdc.org/projects/feed-the-future-ghana-agriculture-technology-transfer-projec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2.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a US$3 Billion Three-Year ECF with Ghana." IMF Press Release, December 12, 2022. Accessed March 25, 202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2/12/pr22427-imf-reaches-staff-level-agreement-on-a-3-billion-three-years-ecf-with-ghana.

Ministry of Finance (MoF). 2025.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for 2025-2028*. Accra: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MoFA). 2025. "Ghana Launches Ambitious 'Feed Ghana' Programme to Boost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Transformation."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MoFA) Media Centre. April 12,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mofa.gov.gh/site/index.php/media-centre/latest-news/item/670-ghana-launches-ambitious-feed-ghana-programme-to-boost-food-security-and-agricultural-transformation.

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 2024. "The Big Push—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me." *John Mahama Manifesto*.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manifesto.johnmahama.org/manifesto/infrastructur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cra: NDPC.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22. *Ghana's 2022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cra: NDPC.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24.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CPESDP) 2025-2029.* Accra: NDPC.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25a. *Ghana's 2025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ra: NDPC.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25b.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MTNDPF) 2026-2029.* Accra: NDPC.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2025c. *Report on Ghana's Participation in the 2025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Accra: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ndpc.gov.gh/media/2025_HLPF_Report_on_Ghanas_Participation.pd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DPC), and United Nations Ghana. 2023. *Technical Report: SDGs Transformation and Commitments.* Accra: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News Ghana. 2026. "Ghana Rejects $109 Million US Health Deal over Data Concerns." News Ghana. April 29, 2026. Accessed May 4, 2026. https://www.newsghana.com.gh/ghana-rejects-us109-million-us-health-deal-over-data-concerns/.

The Presidency, Republic of Ghana. 2025. "President Directs Urgent Action to Bridge USAID Funding Gap." February 11,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presidency.gov.gh/president-directs-urgent-action-to-bridge-usaid-funding-gap/.

U.S. Embassy in Ghana. 2023. "U.S. Commits Up to $60 Million to Strengthen Educational Accountability in Ghana." September 29, 2023.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gh.usembassy.gov/u-s-commits-up-to-60-million-to-strengthen-educational-accountability-in-ghan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3. *Integrated SDG Insights - Ghana.*

New York: UNDP.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data.undp.org/sites/g/files/zskgke476/files/2023-11/undp_-_sdg_gha.pdf.

United Nations Ghana. 2025.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2025: Uniting with Youth Against Corruption and UNODC's Support to Ghana." United Nations in Ghana. December 9, 2025.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ghana.un.org/en/306745-international-anti-corruption-day-2025-uniting-youth-against-corruption-and-unodc%E2%80%99s-support.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Ghana?" Accessed February 2,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ghana/.

2. 나이지리아

Federal Republic of Nigeria. 2017. *Nigeria Voluntary National Review*.

Plan International Nigeria. 2026. "About Us." Accessed March 3, 2026. https://planenigeria.com/about-us/.

Punch. 2025. "Calls for Probe Mount over $2.8bn USAID Spending in Ni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punchng.com/calls-for-probe-mount-over-2-8bn-usaid-spending-in-nigeria/.

Spring Nigeria. 2026. "Reports."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spring-nigeria.com/reports/.

The Office of the Senio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on SDGs (OSSAP-SDGs). 2020. *Nigeria: A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The Office of the Senio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on SDGs (OSSAP-SDGs). 2025. *Nigeria's Third Voluntary National Review*.

U.K. Parliament. 2026. "The UK's Development Partnership with Ni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9262/the-uks-development-partnership-with-nigeria/.

U.S. Department of State. 2025. "Delivering on President Trump's Commitment: America First Global Health Strategy and Bilateral Health MOUs.".

U.S. Embassy and Consulate in Nigeria. 2023. "USAID Supports 40 Organizations in Communities to Promote Nonviolent Conflict Resolution in Northeast Nigeria.".

USAFacts. 2026.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Ni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nigeria/.

3. 르완다

AHFIA. 2025. “USAID Withdrawal in Rwanda.” Accessed May 1, 2026. https://ahfia.africa/report/usaid-withdrawal-in-rwanda/.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2022.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to Invest up to $200 Million in African Hydropower alongside Norfund and Scatec.” June 23, 2022. Accessed May 1, 2026. https://www.bii.co.uk/en/news-insight/news/british-international-investment-to-invest-up-to-200-million-in-african-hydropower-alongside-norfund-and-scatec/.

Grants Bay. 2026. Accessed May 1, 2026. “USAID/Rwanda’s Modernizing Agriculture Grant: Boosting Productivity and Market Linkages.”.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2019. *2019 Rwand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Ministry of State in Rwanda. 2023. *2023 Rwanda Voluntary National Review*.

Rwanda Governance Board. 2026. “Home Grown Solutions.” Accessed May 1, 2026. https://www.rgb.rw/1/home-grown-solutions.

The Borgen Project. 2024. “USAID Programs in Rwanda.” Accessed May 1, 2026. https://borgenproject.org/usaid-programs-in-rwanda/.

Top Africa News. 2020a. “A Snapshot of USAID Programs That Support Disability Rights and Inclusion.” Accessed May 1, 2026. https://www.topafricanews.com/2020/10/29/a-snapshot-of-usaid-programs-that-support-disability-rights-and-inclusion/.

Top Africa News. 2020b. “USAID, Rwanda Gov’t Sign Commitment of 605 Billion Rwandan Francs to Rwanda’s Development.” Accessed May 1, 2026.
https://www.topafricanews.com/2020/07/02/usaid-rwanda-govt-sign-commitment-of-605-billion-rwandan-francs-to-rwandas-development/.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a. “UK Announces New Education Partnerships and Projects in Rwanda.” Accessed May 1, 20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nounces-new-education-partnerships-

and-projects-in-rwanda.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b. *UK-Rwand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July 2023. Accessed May 1,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rwand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rwand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n.d. "Rwanda." Development Tracker. Accessed May 1, 2026. https://devtracker.fcdo.gov.uk/countries/RW.

U.S. Department of State. 2022. "U.S. Relations with Rwanda.".

4. 모로코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2. *Stratégie Maroc 2022-2026*. Paris: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Morocco."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afd.fr/en/page-region-pays/morocco.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4. "Federal Government and Morocco Agree on Migration Cooperation." January 24, 2024.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24/01/marokko.html.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18. *Development Policy 2030*. BMZ Strategy Paper. Bonn: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0a. *BMZ 2030 Reform Strategy*. Bonn: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0b. *Putting the Marshall Plan with Africa into Action*. Bonn: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1. *The Marshall Plan with Africa: Review and Outlook*. Bonn: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5. *Bilateral Climate and Development Partnerships*. Bonn: BM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n.d.a. "Morocco."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giz.de/en/regions/africa/morocco.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n.d.b.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Morocco." Last modified March 2024.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giz.de/en/projects/support-implementation-agenda-2030-sustainable-development-morocco.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n.d.c. "Territoires durables – Resilient Livelihoods in Morocco."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giz.de/en/projects/territoires-durables-resilient-livelihoods-morocco.

Ministry of Investment, Convergence and Evaluation of Public Policies (MICEPP). 2024. "Morocco-France Signing Ceremony: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October 28, 2024.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micepp.gov.ma/en/le-ministere/actualites/morocco-france-signing-ceremony-multiple-cooperation-agreements.

Morocco-Germany Energy Partnership (PAREMA). 2024. "Alliance for Climate and Energy." June 28, 2024.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energypartnership.ma/news/alliance-for-climate-and-energy/.

The North Africa Post. 2024. "Morocco, France Sign 22 Deals in Several Key Sectors." October 28, 2024.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northafricapost.com/81345-morocco-france-sign-22-deals-in-several-key-sectors.html.

OCP Group. 2025. "OCP Group and AFD Group Formaliz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in Support of Morocco's Low-Carbon Transition an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Agriculture." May 12, 2025.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www.ocpgroup.ma/en/press-release/ocp-group-and-afd-group-formalize-their-strategic-partnership-support-moroccos-low.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6. "Fra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france_b991b2e4-en.html.

Royaume du Maroc. 2025. "Morocco Approves Schooling Reform Bill." April 3, 2025.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maroc.ma/en/news/morocco-approves-schooling-reform-bill.

Royaume du Maroc. Haut-Commissariat au Plan. 2016. *Rapport National Volontaire sur l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Rabat: Haut-Commissariat au Plan.

Royaume du Maroc. Haut-Commissariat au Plan. 2020. *Rapport National Volontaire*

sur la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au Maroc. Rabat: Haut-Commissariat au Plan.

Sakhraoui, K., R. Agadi, C. von Hirschhausen, and G. S. Ege. 2024. "Energy Policy in Morocco: Analysis of the National Energy Strategy's Impact on Sustainable Energy Supply and Transformation." *Next Research* 1 (2): 100072.

Taki, Mariam. 2023. "Sustainable Mobility with Renewable Energies in Morocco." *Changing Transport*, July 6, 2023. Accessed December 16, 2025. https://changing-transport.org/sustainable-mobility-with-renewable-energies-in-morocco/.

Zakzak, L., K. Subramani, M. Luomi, G. Fuller, F. Salem, and G. Lafortune. 2025. *The Arab SDG Index and Dashboards 2025: Building Resilience*. Dubai and Paris: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MBRS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5. 모잠비크

Government of Canada. 2021. "Canada Announces Support for Mozambique Due to Pandemic and to Mitigate Its Secondary Impacts." Accessed May 10, 2026.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canada-announces-support-mozambique-due-pandemic-and-mitigate-its-secondary.

Government of Canada. n.d. "Canada-Mozambique Relations." Accessed May 12, 2026. https://www.international.gc.ca/country-pays/mozambique/relations.aspx?lang=eng.

Republic of Mozambique. 2020.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orgen Project. 2025. "4 Impacts of USAID Programs in Mozambique." Accessed May 11, 2026. https://borgenproject.org/usaid-programs-in-mozambique/.

U.S. Department of State. 2018. *Integrated Country Strategy: Mozambique*. Accessed May 10, 2026. https://2021-2025.state.gov/wp-content/uploads/2022/06/ICS_AF_Mozambique_Public-1.pdf.

U.S. Embassy in Mozambique. 2021. "U.S. Government Provides $40.5 Million to Improve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Mozambique." Accessed May 10, 2026. https://mz.usembassy.gov/u-s-government-provides-40-5-million-to-

improve-family-planning-and-maternal-and-child-health-in-mozambique/.

U.S. Embassy in Mozambique. 2023. "U.S. Government Invests in Bilingual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Learning Outcomes in Mozambique." Accessed May 10, 2026. https://mz.usembassy.gov/u-s-government-invests-in-bilingual-education-program-to-improve-learning-outcomes-in-mozambique/.

6. 세네갈

Abt Global. 2020. "Public and Private Sectors Partner to Increase Access to Healthcare in Senegal." *Abt Global Impact Brief*. November 24, 2020.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abtglobal.com/insights/impact-briefs/public-and-private-sectors-partner-to-increase-access-to-healthcare-in.

Abt Global. 2021. "USAID and the Senegal GOTAP Team Support Local RMNCH Solutions." *Abt Global Impact Brief*, February 23, 2021.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abtglobal.com/insights/impact-briefs/usaid-and-the-senegal-gotap-team-support-local-rmnch-solutions.

Afrique XXI. 2026. "Senegal: Sovereignty Put to Test Without U.S. Aid." *Afrique XXI*. March 13,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afriquexxi.info/Senegal-Sovereignty-Put-to-Test-Without-U-S-Ai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4. *AFD et le Sénégal : une coopération de longue date*. Paris: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Senegal." Accessed April 14, 2026. https://www.afd.fr/en/countries-regions/senegal.

Centre d'Information des Nations Unies Dakar (CINU Dakar). 2025. "Le projet pilote d'e-justice dans la banlieue de Dakar progresse avec l'appui du Fonds ODD et des Nations Unies." *Nations Unies*. July 24, 2025.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un.org/fr/information-center-dakar/le-projet-pilote-d%E2%80%99e-justice-dans-la-banlieue-de-dakar-progresse-avec-l.

Diouf, Ousmane, and Lily Neyestani-Hailu. 2019. "Tracking the Full Range of Education Expenditure Towards SDG 4: Senegal's National Education Accounts." *World Education Blog*. March 1, 2019; last modified February 1, 2022.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orld-education-blog.org/2019/03/01/tracking-the-full-range-of-education-

expenditure-towards-sdg-4-senegals-national-education-accounts/.

Donor Tracker. 2025. "France Cuts ODA by US$820 Million in 2026 Budget." *Donor Tracker*. July 23, 2025. Accessed April 14, 2026. https://donortracker.org/policy_updates?policy=france-cuts-oda-by-us-820-million-in-2026-budget-2025.

Ekanem, Solomon. 2026. "U.S. Aid Returns to Africa as Senegal Signs Onto $12.6B Health Deal as 26th Nation." *Business Insider Africa*. March 17,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us-aid-returns-to-africa-as-senegal-signs-onto-dollar126b-health-deal-as-26th-nation/jgwr5pn.

Focus 2030. 2026. "2026 Finance Bill: A Fifth Cut in Fren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cus 2030*. February 3, 2026. Accessed April 14, 2026. https://focus2030.org/en/2026-finance-bill-a-fifth-cut-in-french-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Lawal, Shola. 2026. "Minerals-for-Aid: Are New U.S. Health Deals Exploiting African Countries?" *Al Jazeera*. April 1, 2026. Accessed April 14,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1/minerals-for-aid-are-new-us-health-deals-exploiting-african-countries.

Ministère de l'Économie, du Plan et de la Coopération, République du Sénégal (MEPC). 2025.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SND)*. Dakar: Ministère de l'Économie, du Plan et de la Coopération.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5. "Africa: A Priority for Fren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ance Diplomacy*. November 14, 2025. Accessed April 14, 2026. https://www.diplomatie.gouv.fr/en/the-ministry-in-action/contributing-to-sustainable-balanced-globalization/combating-global-social-inequality/africa-a-priority-for-french-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Miridzhanian, Anait. 2025. "Senegal Unveils Recovery Plan to Rely on Domestic Funding." *Reuters*. August 2, 2025.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senegal-unveils-recovery-plan-rely-domestic-funding-2025-08-01/.

Nations Unies Sénégal. 2026. "Lancement officiel du processus d'Examen National Volontaire (ENV/VNR) 2026 du Sénégal." *Nations Unies Sénégal*. March 12,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senegal.un.org/fr/311714-lancement-officiel-du-processus-d%E2%80%99examen-nationale-volontaire-envvnr-2026-du-s%C3%A9n%C3%A9gal.

Présidence du Sénégal. 2024. “The Launch of the National Transformation Agenda: Senegal 2050.” *The Presidency, Republic of Senegal*. October 14, 2024.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presidence.sn/en/actualites/the-launch-of-the-national-transformation-agenda-senegal-2050-1.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PMI). 2024.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Senegal Country Fact Sheet (Updated February 2024).*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cessed March 30, 2026. https://reliefweb.int/report/senegal/presidents-malaria-initiative-senegal-country-fact-sheet-updated-february-2024.

Puentes, Ana. 2025. “US Aid Cuts Severely Undermine Senegal’s Fight Against HIV.” *El País*. October 17, 2025. Accessed March 30, 2026. https://english.elpais.com/health/2025-10-17/us-aid-cuts-severely-undermine-senegals-fight-against-hiv.html.

Rahim, Faraan, Sofia DiFulvio, Julian T. Hertz, Banda Khalifa, and Ntuli A. Kapologwe. 2025. “Life After USAID: Africa’s Development, Education, and Health Care.” *Think Global Health,* March 14, 202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thinkglobalhealth.org/article/life-after-usaid-africas-development-education-and-health-care.

République du Sénégal. 2018. *Rapport de l’Examen National Volontaire (ENV) du Sénégal sur l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Dakar: Secrétariat Perman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République du Sénégal. 2022. *Deuxième Examen National Volontaire de la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au Sénégal.* Dakar: Ministère de l’Économie, de la Planification et de la Coopération (MEPC).

Results for Development (R4D). n.d. “Study on Quality Incentives Used in Senegal’s Results-Based Financing Program.” *R4D Projects*. Accessed March 30, 2026. https://r4d.org/projects/traction-study-quality-incentives-used-senegals-results-based-financing-program/.

U.S. Embassy in Senegal. 2026. “United States and Senegal Sign Landmark Bilateral Healt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26-2030).” March 14,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sn.usembassy.gov/united-states-and-senegal-sign-landmark-bilateral-health-memorandum-of-understanding-2026-2030/.

Ulysseus European University. 2024. *The Challenges of Food Resilience and Nutrition in Senegal: Country Report.* Ref. Ares(2024)4968217-09/07/2024. Seville: Ulysseus European University.

UNESCO. 2023. *All Children in Senegal Are Born to Learn: Spotlight Advocacy Brief.*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Paris: UNESCO.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22. "Senegal." In *Country Profiles on SDG Localization 2022: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Stepping Forward for Achieving the 2030 Agenda*. Barcelona: UCL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5. "Senegal: The Country Accelerates the Digitalization of Its Health Insurance System to Ensure Universal Coverage." *allAfrica.* December 9, 2025. Accessed March 30, 2026. https://allafrica.com/stories/202512090271.html.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Countries: Senegal." *USAFacts.* Accessed March 30,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senegal/.

World Bank. 2026a. "Senegal Launches AgriConnect Compact to Transform Its Agriculture Sector." *World Bank.* February 10,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6/02/10/senegal-launches-agriconnect-compact-to-transform-its-agriculture-sector.

World Bank. 2026b. "World Bank Group Approves $135 Million to Strengthen Senegal's Health System and Financial Protection for Vulnerable Populations." *World Bank.* March 18, 2026.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6/03/18/world-bank-group-approves-135-million-strengthen-senegal-health-system-financial-protection-for-vulnerable-population.

World Food Programme (WFP). 2024. *Senegal Country Strategic Plan (2025-2029).* Accessed March 30, 2026. https://www.wfp.org/operations/sn03-senegal-country-strategic-plan-2025-2029.

7. 알제리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6. "Country: Algeria." Accessed March 2, 2026. https://www.afd.fr/en/countries-regions/algeria.

Algerian Ministry of Justice. 2025. "Common and Technical Corps." Accessed March 2, 2026. https://www.mjustice.gov.dz/en/common-and-technical-corps/.

Batik International. 2025. "Supporting the Resilience and Rehabilitation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in North Africa." Accessed March 3, 2026. https://batik-international.org/project/karama.

BBC. 2022. "Algeria Takes 'French Is a Waste of Time' to Heart with a Shift towards English."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62368931.

Campus France. 2018. "Algerian-French Scholarships Program PROFAS B+."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campusfrance.org/en/algerian-french-scholarships-program-in-doctorat-phd-profas-b-the-call-for-application-2018-is-ope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3. "Improv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l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giz.de/en/projects/improvement-employability-graduates-vocational-training-institutions.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Energy for Development."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giz.de/en/expertise/infrastructure/energy-transition.

Élysée. 2022. *Déclaration d'Alger pour un Partenariat renouvelé entre la France et l'Algérie*.

Friedrich Ebert Stiftung. 2026. "Bienvenue à la FES Algérie." https://algeria.fes.de/.

Government of Algeria.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 2019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Prevention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HATPLC). 2023. *National Strategy for Transparency, Prevention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2023-2027.* Accessed March 3, 2026. https://hatplc.dz/pdf/RESUME_ANGLAIS.pdf.

Hydrogen Central. 2025. "Algeria and EU Launch Strategic Taqathy+ Initiative to Drive Renewable Energy Transformation and Green Hydrogen Development." Accessed March 3, 2026. https://fuelcellsworks.com/2025/04/15/energy-policy/algeria-and-eu-launch-strategic-taqathy-initiative-to-drive-renewable-energy-transformation-and-green-hydrogen-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2023. *Algeria Country Commercial Guide: Digital Economy*.

Konrad Adenauer Stiftung. 2026.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kas.de/en/european-and-international-affairs.

Mondes Arabes. 2023.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lgérienne de 2020.”

TSA Algérie. 2025. “Étudiants algériens en France: cinq chiffres clés à retenir.”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tsa-algerie.com/etudiants-algeriens-en-france-cinq-chiffres-cles-a-retenir/.

UNESCO. 2024. *SDG 4 Country Profile: Al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download.uis.unesco.org/SDG4/SDG4-Profile-Algeria.pd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19. *National Strategies for SDG Implementation: Algeria*. Accessed March 3, 2026. https://gold.uclg.org/sites/default/files/2022-07/algeria_2019.pdf.

8.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DRE)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2022. Ethiopi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2. Addis Ababa: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Accessed March 2,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2/VNR%202022%20Ethiopia%20Report.pdf.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Ethiopi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July 2023.” Accessed March 2,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ethiopi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ethiopi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2025. “Ethiopia’s Economic Reboot: Turning USAID Cuts into a Catalyst for Change.” March 6, 2025. https://www.ifa.gov.et/2025/03/06/ethiopias-economic-reboot-turning-usaid-cuts-into-a-catalyst-for-change/.

Sandefur, Justin, and Charles Kenny. 2025. “USAID Cuts: New Estimates at the Country Level.”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blog), March 26, 2025. Accessed March 2, 2026. https://www.cgdev.org/blog/usaid-cuts-new-estimates-country-level.

Sheidu, Precious. 2025. “US Aid Supports Poverty Reduction in Ethiopia.” *The Borgen Project*, September 25, 2025. Accessed March 2, 2026. https://borgenproject.org/poverty-reduction-in-ethiopia-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5.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Ethiopia (2025-2030).* DP/DCP/ETH/5. New York: UNDP. Accessed March 2, 2026. https://www.undp.org/ethiopia/publications/country-programme-document-ethiopia-2025-2030.

United Nations in Ethiopia. n.d. "Our W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Ethiopia." Accessed March 2, 2026. https://ethiopia.un.org/en/sdgs.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frican Affairs. 2023. "U.S. Relations with Ethiopia."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November 20, 2023. Accessed March 2, 2026. https://2021-2025.state.gov/u-s-relations-with-ethiopia/.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5. "Emergency Food Assistance in Ethiopia: Gaps in USAID's Award Administration, Monitoring, and Incident Reporting Hindered Its Ability to Detect Widespread Food Diversion." Accessed March 3, 2026. https://oig.usaid.gov/node/7477.

9. 우간다

Cohrs, Lena. 2025. "UK Aid 2024: Provisional Statistics Show Need for Reducing Asylum Costs Amidst Cuts to the Aid Budget." *ReliefWeb,* April 16,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reliefweb.int/report/world/uk-aid-2024-provisional-statistics-show-need-reducing-asylum-costs-amidst-cuts-aid-budget.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Ugand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London: FCDO.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ugand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ugand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n.d. "Programme Summary: GB-GOV-1-301440." *DevTracker,* FCDO.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GOV-1-301440/summary.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2025a. "Building Climate-Responsive Budgets: Uganda Advancing Its Climate Finance Readiness Through the Climate Change Budget Tagging Training." May 20,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gggi.org/building-climate-responsive-budgets-uganda-advancing-its-climate-finance-readiness-through-the-climate-change-budget-tagging-training/.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2025b. "Uganda Launches National Climate Finance Strategy to Accelerate Green Growth and Climate Resilience." September 11,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gggi.org/uganda-launches-national-climate-finance-strategy-to-accelerate-green-growth-and-climate-resilience/.

Mitchell, Ian, and Sam Hughes. 2025. "How the UK Should Focus Its Aid in 2026: Three Tests to Help Ministers on Commitments and Maximise Impac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July 15,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www.cgdev.org/blog/how-uk-should-focus-its-aid-2026-three-tests-help-ministers-deliver-commitments-and-maximise.

Namara, Lindsey. 2025. "Impact of USAID Funding Withdrawal on Local Communities in Uganda." *Joy for Children Uganda,* January 28,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joyforchildren.org/impact-of-usaid-funding-withdrawal-on-local-communities-in-uganda/.

Republic of Uganda. 2016. *Review of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ganda's Report o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Kampal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Republic of Uganda. 2020.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ampal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Republic of Uganda. 2024. *Third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ampal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U.S. Embassy in Uganda. 2024. "The U.S. Government's Feed the Future Initiative Launches a New Five-Year Global Food Security Strategy Uganda Country Plan." September 13, 2024.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ug.usembassy.gov/the-u-s-governments-feed-the-future-initiative-launches-a-new-five-year-global-food-security-strategy-uganda-country-plan/.

U.S. Embassy in Uganda. n.d. "The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ug.usembassy.gov/the-u-s-presidents-emergency-plan-for-aids-relief-pepfar/.

Uganda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oFPED). 2025.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Development Policy and Performance Portal. November 11,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development.finance.go.

ug/knowledge-centre-reports/sustainable-development-report-sdr-2025.

Uganda National NGO Forum. 2025. "The Impact of USAID's Funding Suspension on Uganda's Civil Society." February 14, 2025.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ngoforum.or.ug/2025/02/14/the-impact-of-usaids-funding-suspension-on-ugandas-civil-societ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d. *Strengthening SDG Localization in Uganda: Joint Programme Document.*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mptf.undp.org/sites/default/files/documents/2025-05/extracted_from_uganda_prodoc_140791.pdf.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Uganda?"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uganda/.

10. 이집트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2026. *Egypt: Background and U.S. Relations*.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2. "Strengthening Reform Initiativ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https://www.giz.de/en/projects/strengthening-reform-initiatives-public-administratio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Egypt.".

Government of Egypt. 2018. *Egypt Vision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Cairo: 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form.

Hawthorne, Amy. 2016. *Rethinking U.S. Economic Aid to Egypt*.

Ministry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1. *Egypt's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Ministry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5. "Minister of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scusses Expanding the Debt Swap for Development Program with Her German Counterpart." Accessed March 5, 2026. https://moic.gov.eg/news/2619.

Mohamed, Raghda Khaled. 2023. *The Dual Education System in Egypt: The System'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2026. "University Centers for Career Development."

Accessed March 5, 2026. https://careercenter.aucegypt.edu/university-centers-for-career-development.

The Borgen Project. 2024. "USAID Programs in Egypt." Accessed March 5, 2026. https://borgenproject.org/usaid-programs-in-egypt/.

U.S. Embassy in Egypt. 2026. "U.S.-Egypt Higher Education Initiative." Accessed March 5, 2026. https://eg.usembassy.gov/education/u-s-egypt-higher-education-initiative/.

11. 카메룬

Africa 24. 2025. "Cameroun : 80% soins de santé couverts par la CSU en 2024." *Africa 24*. September 24,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africa24tv.com/cameroun-80-soins-de-sante-couverts-par-la-csu-en-2024/.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a. "Cameroon."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afd.fr/en/countries-regions/cameroon.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b. *L'AFD et Le Cameroun*.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afd.fr/sites/default/files/2024-05-11-49-12/AFD%20bilan%20Cameroun.pdf.

Amara, Ludovic. 2025. "Accès à l'eau : le Cameroun se dote d'une politique nationale pour améliorer son taux de desserte limité à 29%." *Investir au Cameroun*. April 14,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investiraucameroun.com/gestion-publique/1404-21897-acces-a-l-eau-le-cameroun-se-dote-d-une-politique-nationale-pour-ameliorer-son-taux-de-desserte-limite-a-29.

Atabong, Amindeh Blaise, Robbie Corey-Boulet, and Jennifer Rigby. 2025. "Babies' Deaths in Cameroon Show How US Aid Cuts Curtail Malaria Fight." *U.S. News & World Report*. October 2,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5-10-02/babies-deaths-in-cameroon-show-how-us-aid-cuts-curtail-malaria-fight.

C2D Cameroon. n.d. "What Is C2D All About." *C2D Cameroon Website*.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c2d-cameroun.cm/index.php/en/cd2-cameroon/what-is-c2d-all-about.

CEMAC Eco Finance. n.d. "French Development Agency Invests over 721 Billion FCFA in Cameroon in 2023 on Development Projects." *CEMAC Eco Finance*. Accessed

April 17, 2026. https://cemac-eco.finance/french-development-agency-invests-over-721-billion-fcfa-in-cameroon-in-2023-on-development-projects/.

Cintia, A. 2025. "U.S. Funding Suspension Raises Concerns for HIV and Public Health Programs in Cameroon." *Le Bled Parle*. February 11,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lebledparle.com/en/u-s-funding-suspension-raises-concerns-for-hiv-and-public-health-programs-in-cameroon/.

Donor Tracker. 2025. "France Cuts ODA by US$820 Million in 2026 Budget." *Donor Tracker*. July 23,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donortracker.org/policy_updates?policy=france-cuts-oda-by-us-820-million-in-2026-budget-2025.

Focus 2030. 2026.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6 : De Nouvelles Coupes en Vue Pour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Focus 2030*. February 3, 2026. Accessed April 17, 2026. https://focus2030.org/projet-de-loi-de-finances-2026-de-nouvelles-coupes-en-vue-pour-laide-publique-au-developpement/.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2019. *GPPAC SDG Report Cameroon: Localising SDG 16*. The Hague: GPPAC. July 2019. Accessed April 17, 2026. https://gppac.net/files/2019-07/GPPAC%20SDG%20Report%20Cameroon_def_online.pdf.

Kinsai, Nformi Sonde. 2025. "Cameroon Govt Announces Contingency Measures Following US Suspension of HIV/AIDS, Tuberculosis & Malaria Funding Programmes." *The Post*. February 12,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thepostnpcameroon.com/cameroon-govt-announces-contingency-measures-following-us-suspension-of-hivaids-tuberculosis-malaria-funding-programmes/.

Malloum, Amina. 2026. "AFD Pledges CFA115bn to Five Priority Development Projects in Cameroon." *Business in Cameroon*. January 25, 2026.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businessincameroon.com/public-management/2501-15655-afd-pledges-cfa115bn-to-five-priority-development-projects-in-cameroon.

République du Cameroun. 2019. *Examen National Volontaire du Cameroun sur l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Yaoundé: Ministère de l'Économie, de la Planification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MINEPAT).

République du Cameroun. 2022. *Deuxième Examen National Volontaire du Cameroun sur l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Yaoundé: Ministère de l'Économie,

de la Planification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MINEPAT).

République du Cameroun. n.d. *Stratégie des Services Sociaux et de la Politique Nationale de Protection Sociale (PNPS) au Cameroun 2020-2030.* https://minepat.gov.cm/wp-content/uploads/2022/01/Strategie-Services-sociaux-et-PNPS-Francais.pdf.

RFP Cameroon. 2024. "Cameroun : Près de 7 Milliards de FCFA du C2D Pour Améliorer la Gouvernance Financière." *RFP Cameroon.* August 2, 2024. Accessed April 17, 2026. https://rfp.cm/cameroun-pres-de-7-milliards-de-fcfa-du-c2d-pour-ameliorer-la-gouvernance-financiere/.

Stepansky, Joseph. 2026. "US-Led Historic Foreign Aid Decline in 2025 Amid Trump Cuts: OECD." *Al Jazeera.* April 9, 2026.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9/us-led-historic-foreign-aid-decline-in-2025-amid-trump-cuts-oecd.

U.S. Department of State. 2026.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Cameroon." Foreign Assistance.gov. Accessed April 17,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cameroon.

UNCAC Coalition. 2024. *Civil Society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n Cameroon*. Vienna: UNCAC Coalition.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22.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Report of Activities on the Localis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in Cameroon.* Barcelona: UCLG.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4. *Cameroon – Assistance Overview*. Fact Sheet. Washington, DC: 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HA). October 2024. Accessed April 17, 2026. https://www.ecoi.net/en/file/local/2120291/USAID-BHA_Cameroon_Assistance_Overview-October_2024.pdf.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Cameroon?" Accessed April 17,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cameroon/.

Villagomez, Marcus. 2025. "USAID Programs in Cameroon." *The Borgen Project.* April 5, 2025. Accessed April 17, 2026. https://borgenproject.org/usaid-programs-in-cameroon/.

World Bank. 2025. Cameroon Poverty Assessment 2024. Washington, DC: World Bank.

12. 케냐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n.d. "Kenya."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May 12, 2025. https://www.bmz.de/en/countries/kenya.

German Embassy Nairobi. 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Kenya." *Federal Foreign Office*. Accessed March 4, 2026. https://nairobi.diplo.de/ke-en/germany-in-kenya/develop-cooperation-1677072.

Prakash, Mihir, Samantha Custer, Bryan Burgess, Divya Mathew, Mengfan Cheng, and Rodney Knight. 2020. *Investing in Kenya's People: Valuing the Benefits of the U.S.-Kenya Relationship*. Williamsburg, VA: AidData at William & Mary. Accessed March 4, 2026. https://www.aiddata.org/publications/investing-in-kenyas-people.

Sollay Kenyan Foundation. 2025. "The Impact of USAID Cuts on Kenya." June 19, 2025. Accessed March 4, 2026. https://www.sollaykenyanfoundation.org/the-impact-of-usaid-cuts-on-kenya/.

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2024. *Third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irobi: 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0a. *End-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Kenya Resilient Arid Lands Partnership for Integrated Development (Kenya RAP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0b.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Technical Brief.*

13. 코트디부아르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3.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2023 Activity Report.* Paris: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Côte d'Ivoire."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www.afd.fr/en/countries-regions/cote-divoire.

Bekelynck, Anne, Joseph Larmarange, Nelly Assoumou, Christine Danel, Mohamed Doumbia, Mariatou Koné, Alexis Kouadio, et al. 2019. "PEPFAR 3.0's HIV Testing Policy

in Côte d'Ivoire (2014 to 2018): Fragmentation, Acceleration and Disconnec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 22, no. 12 (December): e25424.

Better World Campaign. n.d. "The Impact of Foreign Aid Cuts."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betterworldcampaign.org/impact-of-foreign-assistance-cuts.

Côte d'Ivoire. Ministère de l'Hydraulique, de l'Assainissement et de la Salubrité. 2016. *Stratégie Nationale d'Assainissement Rural et d'Hygiène 2016-2030*. Abidjan: Ministère de l'Hydraulique, de l'Assainissement et de la Salubrité.

Côte d'Ivoire.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21.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PND) 2021-2025*. Abidjan: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Focus 2030. 2023. "CICID 2023: France's New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 2030 Analysis,* August 2, 2023. Accessed November 9, 2025. https://focus2030.org/en/cicid-2023-frances-new-strategy-for-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

In Côte d'Ivoire. n.d. "Côte d'Ivoire and France Sign 3 Agreements Worth Approximately 90 Billion CFA Francs." Accessed November 9, 2025. https://www.incotedivoire.net/economic/new/.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Côte d'Ivoire: Enhance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Completion Point Document and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IMF Country Report, no. 12/170.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2. *France's Global Health Strategy.* Paris: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n.d. "France and Côte d'Ivoire." Accessed March 10, 2026. https://www.diplomatie.gouv.fr/en/information-by-country/cote-d-ivoire/france-and-cote-d-ivoire.

Prabonnaud, Frédérique. 2025. "En Côte d'Ivoire, la fin de l'aide américaine." *Sidaction,* February 28, 2025.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sidaction.org/transversal/en-cote-divoire-la-fin-de-laide-americaine/.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19. Rapport National Volontaire de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Abidjan: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2022. Deuxième *Rapport National Volontaire de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Abidjan: Ministère du Plan et du Développement.

U.S. Department of State. 2018. "U.S. Relations With Côte d'Ivoire." Fact Sheet. *Bureau of African Affairs,* December 4, 2018.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2017-2021.state.gov/u-s-relations-with-cote-divoire/.

U.S. Department of State. 2022. "U.S. Relations With Côte d'Ivoire." Fact Sheet. *Bureau of African Affairs,* January 31, 2022.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2021-2025.state.gov/u-s-relations-with-cote-divoire/.

U.S. Department of State. 2023. *Integrated Country Strategy: Côte d'Ivoir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2025. "Advancing the America First Global Health Strategy Through a Landmark Bilateral Global Health MOU with Côte d'Ivoire." Press Statement, December 30, 2025.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5/12/advancing-the-america-first-global-health-strategy-through-a-landmark-bilateral-global-health-mou-with-cote-divoire.

U.S. Embassy in Côte d'Ivoire. 2025. "Implementing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Statement. January 27, 2025.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ci.usembassy.gov/fr/implementing-the-presidents-executive-order-on-reevaluating-and-realigning-united-states-foreign-aid/.

U.S. Embassy in Côte d'Ivoire. n.d. "PEPFAR FAQs."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ci.usembassy.gov/pepfar-faqs/.

UNAIDS. 2025. "UNAIDS Expresses Deep Concern over the Sudden Disruption of HIV Services in Côte d'Ivoire." Press Statement. July 24, 2025.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pressreleaseandstatementarchive/2025/july/20250724_cotedivoir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d. *SDG Insight Report: Côte d'Ivoire.*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sdgigeneralstorage.blob.core.windows.net/sdg-push/InsightReports/UNDP%20-%20SDG%20CIV.pdf.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Cote d'Ivoire?" Accessed

October 9, 2025.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cote-divoire/.

14. 콩고민주공화국

Adombila, Maxwell Akalaare, and Ange Adihe Kasongo. 2026. "US Struggling to De-Risk Congo's War-Zone Minerals Even after Pact, Sources Say." *Reuters.* March 2, 2026. Accessed March 12, 2026.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us-struggling-de-risk-congos-war-zone-minerals-even-after-pact-sources-say-2026-03-02/.

Adow, Mohamed. 2025. "The UK's Aid Cuts Are a Betrayal of Africa and of Its Own Values." *Context,* August 5, 2025. Thomson Reuters Foundation. Accessed April 16, 2026. https://www.context.news/socioeconomic-inclusion/opinion/the-uks-aid-cuts-are-a-betrayal-of-africa-and-of-its-own-values.

Bertelsmann Stiftung. 2026. *BTI 2026 Country Report: Congo, DR.*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Claps, Sadie. 2025. "USAI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Borgen Project Global Policy Briefs.* January 25, 2025.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borgenproject.org/usaid-in-the-democratic-republic-of-the-congo/.

Cohrs, Lena. 2025. "FCDO Annual Report 2025 Paints a Bleak Picture for the Communities Who Need the Most Help." *Bond News and Analysis.* July 22, 2025. Accessed April 16, 2026. https://www.bond.org.uk/news/2025/07/fcdo-annual-report-2025-paints-a-bleak-picture-for-the-communities-who-need-the-most-help/.

Cowen, Ryan. 2026. "How UK Aid Continues to Support Development in the DRC." *The Borgen Project,* April 17, 2026. Accessed April 27, 2026. https://borgenproject.org/development-in-the-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2020. *Examen National Volontaire : Mise en œuvre de l'Agenda 2030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Kinshasa: Ministère du Pla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2023. *Examen National Volontaire : Mise en œuvre de l'Agenda 2030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Kinshasa: Ministère du Plan.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FCDO. Accessed March 12,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democratic-republic-of-congo-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democratic-republic-of-congo-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6.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visional UK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pend 2025.* FCDO. Accessed April 16, 2026.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provisional-uk-official-development-assistance-spend-2025/statistics-on-international-development-provisional-uk-official-development-assistance-spend-2025.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n.d.a. "Congo Basin Forest Action Programme (CBFA) (Program ID: GB-GOV-1-301464)." *FCDO Development Tracker (DevTracker).* Accessed March 12, 2026.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GOV-1-301464/summary.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n.d.b. "Investments in Forests and Sustainable Land Use - Phase 2." *FCDO Development Tracker (DevTracker).* Accessed April 25, 2026.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GOV-1-301321/summary.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n.d.c. "Nutrition Action for Systemic Change (NASC) Program Summary (Program ID: GB-GOV-1-301372)." *FCDO Development Tracker (DevTracker).* Accessed March 12, 2026. https://devtracker.fcdo.gov.uk/programme/GB-GOV-1-301372/summary.

HarvestPlus. 2025.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dvances Nutrition with National Standards for Biofortified Crops." *HarvestPlus Policy Briefs.* April 18, 2025.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www.harvestplus.org/democratic-republic-of-congo-advances-nutrition-with-national-standards-for-biofortified-crops/.

IMA World Health. 2025. Strengthe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ccessed March 12, 2026. https://imaworldhealth.org/sites/default/files/2025-04/Strengthening%20Maternal%20and%20Child%20Health%20in%20the%20DRC.pdf.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ICAI). 2022. *The UK's Approaches to Peacebuilding.*

ICAI. Accessed March 12, 2026. https://icai.independent.gov.uk/html-version/the-uks-approaches-to-peacebuilding-3/.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2019.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9-2024 (Document EB 2019/127/R.21/Rev.1).* Rom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6. "Real GDP Growth: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MF DataMapper*.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COD.

Ipas DRC. 2026. "National Dialogu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the DRC: A Strategic Lever for Women's Bodily Autonomy." *Ipa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pril 10, 2026. Accessed April 25, 2026. https://ipasrdc.org/national-dialogue-on-sexual-and-reproductive-health-and-rights-in-the-drc-a-strategic-lever-for-womens-bodily-autonomy/.

Kato, Ronald Lwere. 2025. "DRC-US Mineral Pact Offers Optimism and Inherent Hurdles." *Business Africa.* December 18, 2025.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www.africanews.com/2025/12/18/drc-us-mineral-pact-offers-optimismand-inherent-hurdles-business-africa/.

Mukena, Jacques. 2025. "USAID Suspensions: Impact on Critical Sector Funding in the DRC."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w York University. March 26, 2025.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cic.nyu.edu/resources/usaid-suspensions-impact-on-critical-sector-funding-in-the-drc/.

Nutrition Action for Systemic Change (NASC). 2025. *Accounting FCDO's Progress Against Its Nutrition Pledges*. Accessed March 12, 2026. https://media.globalnutritionreport.org/documents/Accounting_FCDOs_Progress_Against_its_Nutrition_Pledges_2025.pdf.

Partnerships for Forests. n.d. Accessed March 12, 2026. https://partnershipsforforests.com/.

Physicians for Human Rights. 2025. *Abandoned in Crisis: The Impact of U.S. Global Health Funding Cu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Research Brief. July 2025.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phr.org/wp-content/uploads/2025/07/PHR-Research-Brief-Aid-Cuts-DRC-2025.pdf.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CS DRC).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2026.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Congo (Kinshasa)." *ForeignAssistance.gov.*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congo%20(kinshasa)/2024/obligations/0.

U.S. Embassy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26. "Joint Statement on the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in Kinshasa." *U.S. Embassy News & Events*. February 6, 2026.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cd.usembassy.gov/2026-critical-minerals-ministerial/.

UK Government. 2024.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Annual Report 2023 to 2024.* December 5, 2024. Accessed March 12,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flict-stability-and-security-fund-annual-report-2023-to-2024/conflict-stability-and-security-fund-annual-report-2023-to-2024.

UK Government. 2026. "UK Reaffirms Commitment to Peace, Protection and Development in the DRC." *GOV.UK News and Communications.* March 6, 2026. Accessed March 12, 20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reaffirms-commitment-to-peace-protection-and-development-in-the-drc.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2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Country Profiles on SDG Localization 2022: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Stepping Forward for Achieving the 2030 Agenda. Barcelona: UCL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5. *PDL-145T: Midterm Results and Impact.* Kinshasa: UNDP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www.undp.org/fr/drcongo/publications/pdl-145T-midterm-results-and-impact.

United Nations (UN). n.d.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DG) Model."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DG Partnerships Platform.* Accessed February 12, 2026. https://sdgs.un.org/partnerships/integrated-sustainable-development-goals-isdg-model.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2024.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DP/FPA/CPD/COD/6).

Wisniewski, Janna, David Hotchkiss, Lauren Blum, Jonathan Niles, Steven Dominguez Jr., Savannah Badt, Paul-Samson Lusamba-Dikassa, Eric Mafuta, Anicet Yemewni, and Marc Bosonkie. 2024. *Performance Evaluation of USAID's Integrated Health Program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Report TR-24-598-D4I).* Chapel Hill: Data for Impact, Carolina Population Cent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World Food Programme (WFP). 2024. *WFP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nual Country Report 2024.* WFP. Accessed March 12, 2026. https://ko.wfp.org/operations/annual-country-report?operation_id=CD02&year=2024#/32037.

15. 탄자니아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3. *UK-Tanzania Development Partnership Summary.* July 17, 2023. Accessed March 5,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anzani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uk-tanzania-development-partnership-summary-july-2023.

Mathew, Divya, Bryan Burgess, Samantha Custer, Rodney Knight, Kelsey Marshall, Lucas Katera, Jane Mpapalika, Constantine George Simba, and Cornel Jahari. 2024. *Investing in Tanzania's People: Valuing the U.S.-Tanzanian Partnership for Prosperity.* Williamsburg, VA: AidData at William & Mary. Accessed March 5, 2026. https://www.aiddata.org/publications/investing-in-tanzanias-people.

Physicians for Human Rights (PHR). 2025. *On the Brink of Catastrophe: U.S. Foreign Aid Disruption to HIV Services in Tanzania and Uganda.* September 2025. Accessed March 5, 2026. https://phr.org/our-work/resources/on-the-brink-of-catastrophe-u-s-foreign-aid-disruption-to-hiv-services-in-tanzania-and-uganda/.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3. *Tanzania's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Accessed March 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Tanzania%20Report_0.pdf.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2013. *The 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Tanzania Cooperation Framework.* June 21, 2013. Accessed

March 5,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ew-alliance-for-food-security-and-nutrition-tanzania-cooperation-framework.

Wang, Huihui, and N. Rosemberg. 2018.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Low-Income Countries: Tanzania's Efforts to Overcome Barriers to Equitable Health Service Access*. Washington, DC: World Bank. Accessed March 5, 2026.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64bb3e90-d983-5c3d-843b-de4e202cd3d2.

16. 튀니지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1. *North Africa Regional Strategy 2021-2025.*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Tunisia."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afd.fr/en/page-region-pays/tunisia.

Ben Youssef, Adel. 2024. *Accelerating the Progress of Tunisia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RF Policy Research Report No. 53. Cairo: Economic Research Foru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0. *Putting the Marshall Plan with Africa into Action.* Bonn/Berlin: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n.d. "Tunisia."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bmz.de/en/countries/tunisia.

Global Network of Regional Sustainable Energy Centers (GN-SEC). 2020. "New MOU Sign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Tunisian-German Green Hydrogen Alliance (Power-to-X)." December 15, 2020.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gn-sec.net/news/new-mou-signed-establishment-tunisian-german-green-hydrogen-alliance-power-x.

Réalités. 2026. "Plan de développement 2026-2030 : Kais Saied fixe les priorités." January 8, 2026. Accessed March 10, 2026. https://realites.com.tn/fr/plan-de-developpement-2026-2030-kais-saied-fixe-les-priorites/.

République Tunisienne. 2019. *Rapport National Volontaire sur la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en Tunisie*. Tunis: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de l'Investissement et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République Tunisienne. 2021. *Rapport National Volontaire sur la mise en œuvre des*

Objectifs de Développement Durable (ODD) en Tunisie. Tunis: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ppui à l'Investissement.

Sadroleslami, Sam. 2025. "The Tunisian 'Startup Ac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Abramundi, July 17, 2025. Accessed January 6, 2026. https://www.abramundi.org/post/the-tunisian-startup-act-an-entrepreneurial-revolution.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22. "Tunisia." *In Country Profiles on SDG Localization 2022: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Role in Achieving the 2030 Agenda.* Barcelona: UCLG.

[유라시아·중동]

1. 아제르바이잔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1. *BMZ 2030 Reform Strategy: New Thinking-New Direction*. Bon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bmz.de/resource/blob/29026/materialie520-reform-strategy.pdf.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Azerbaijan."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giz.de/en/.

Republic of Azerbaijan. 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the First Ste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Azerbaijan. 2019.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the Implementation of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Azerbaijan. 2021. Third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ublic of Azerbaijan. 2024. *The Fourth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Reuters. 2025. "Azerbaijan Suspends Cooperation with USAID, Foreign Minister Says." January 17, 2025.

USAFacts. 2025.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Azerbaijan?" Accessed

March 3,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azerbaijan/.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4. Azerbaijan Climate Country Profile. Accessed March 3, 2026. https://www.mhewc.org/wp-content/uploads/2025/09/Azerbaijan-Climate-Country-Profile-November-2024.pdf.

U.S. Department of State. 2021. Country Roadmap: Azerbaijan. Accessed March 3, 2026. https://2021-2025.state.gov/wp-content/uploads/2021/08/Azerbaijan_FY-2020-Country-Assistance-Fact-Sheet.pdf.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Azerbaija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2. 요르단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 "Jord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bmz.de/en/countries/jordan.

Devex. 2025. "Is Germany the Next Leader in ODA, and How Will It Spend Its Money?" March 10,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devex.com.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Jord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en/regions/asia/jordan.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17. *Jordan's 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National Voluntary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mman: Government of Jord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289Jordan.pdf.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a. Economic Modernisation Vision: Unleashing Potential to Build the Future. Amman: Government of Jord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jordanvision.jo/img/vision-en.pdf.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2b. Weaving Possibilities: Second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mman: Government of Jord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7271.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026. "Overview." Economic Modernisation Visio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jordanvision.jo/en/site/about.

Hickey, M. 2025. Setbacks & Opportunities in the Wake of USAID's Jordan Withdrawal. International Growth Centre Working Paper JOR-25033.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theigc.org/publications/setbacks-opportunities-wake-usaids-jordan-withdrawal.

Jordan Times. 2024. "Jordan, US Sign $845.1 Million Grant Agreement to Support Kingdom's Budget." December 9,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jordantimes.com/news/local/jordan-us-sign-8451-million-grant-agreement-support-kingdoms-budget-0.

Jordan Times. 2024. "Jordan Signs 214m Euros in Agreements with Germany for Development Projects." September 16,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jordantimes.com/news/local/jordan-signs-214m-euros-agreements-germany-development-projects.

MENAFN. 2026. "Government Announces Details of 2026-2029 Executive Programme." January 12, 2026.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menafn.com/1110588328/Government-Announces-Details-Of-20262029-Executive-Programme.

Reuters. 2025. "Jordan to Continue Receiving US Financial Support Despite Trump's Cuts to Foreign Aid." April 30,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timesofisrael.com/jordan-to-continue-receiving-us-financial-support-despite-trumps-cuts-to-foreign-aid/.

UNICEF Jordan. 2024.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BMZ/KfW)."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nicef.org/jordan/german-development-cooperation-bmzkfw.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2026. "Arab SDG Monitor: Jordan Country Profile." *Arab SDG Gateway.*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national.unescwa.org/country-profile-new/tab.aspx?country=jordan.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0. USAID/Jordan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20-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DCS-Jordan-2020-2025.pdf.

U.S. Department of State. 2022. "Joint Statement on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September 16, 2022.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2021-2025.state.gov/joint-statement-on-the-signing-of-the-bilateral-memorandum-of-understanding-on-strategic-partnership-between-the-united-states-and-the-hashemite-kingdom-of-jordan/.

USAFacts. 2025.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Jord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jordan/.

3. 우즈베키스탄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0. *Eurasia Regional Strategy 2020-2024.*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2023. AFD Group and Uzbekistan.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afd.fr/en/ressources/afd-group-and-uzbekista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5. "Uzbekist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bmz.de/en/countries/uzbekistan.

Development Strategy Center. 2025. "Uzbekistan-2030 Strategy." January 18, 2025.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strategy.uz/index.php?static=strategy_actions&lang=e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Uzbekistan."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regions/asia/uzbekistan.

KfW. 2022. "Improving Health through Digital Reforms: Digitalisation of the Uzbek Health Sector – KfW Signs Agreement for EUR 50.5 Million." August 19, 2022.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kfw.de/About-KfW/Newsroom/Latest-News/Pressemitteilungen-Details_723328.html.

SpecialEurasia. 2025. "Uzbekistan: Economic Growth in 2024 Amidst Challenges." January 21, 2025.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specialeurasia.com/2025/01/21/uzbekistan-economy-2024-tre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0.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nsdg.stat.uz/en/publications/25.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23.

UZ DAILY. 2024. "The Results Achieved by Uzbekistan on One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Studied." January 5, 2024.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uzdaily.uz/en/the-results-achieved-by-uzbekistan-on-one-of-the-un-sustainable-development-goals-were-studied/.

4. 우크라이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a. *Mobilising the Private Sector for Ukraine's Recovery.* Berli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b. "Ukrain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bmz.de/en/countries/ukraine.

CNN. 2025. "USAID's Extremely Uncertain Future Risks Global Aid Efforts, Especially in Ukraine." February 27,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5. *U.S.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Ukraine. IF12305.* Updated January 13,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2305.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4. "From the Ground Up: Demining Farmland and Improving Access to Fertilizer to Restore Ukraine's Agricultural Productio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csis.org/analysis/ground-demining-farmland-and-improving-access-fertilizer-restore-ukraines-agricultural.

Engineering News-Record (ENR). 2024. "USAID Awards Tetra Tech $439M Contract for Ukraine Energy Grid Resilience." May 17,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enr.com/articles/58656-usaid-awards-tetra-tech-439m-contract-for-ukraine-energy-grid-resilience.

GFA Consulting Group. 2024. "GFA Consulting Group Launches FELICITY II Project for Low-Carbon Urban Infrastructure in Ukrain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fa-group.org/news/index.html.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25. *Ukraine Assistance: U.S. Coordinated on a Broad Range of Aid to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Amidst Various Challenges.*

GAO-25-10753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3a.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in Ukraine II."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projektdaten/projects.action?request_locale=en_GB&pn=201922897.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3b. "Strengthening of Urban Resilience in the Areas of Supply Infrastructure and Housing in Ukrain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en/projects/strengthening-urban-resilience-areas-supply-infrastructure-and-housing-ukrain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a. "Project to Foster Ukraine's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en/projects/project-foster-ukraines-sustainable-economic-recovery.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b. "Ukrain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en/regions/europe/ukrain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Partnering in Business. 2025. "Ukrain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partnering-in-business.de/en/partnercountries/ukraine/.
Government of Ukraine. 2024. *Ukraine Plan 2024-2027.* Kyiv: Government of Ukraine.
Government of Ukraine and United Nations. 2025.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United Nations: A Partnership for Recovery and Development,* 2025-2029. Kyiv.
Ministry for Development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of Ukraine. 2025. *Ukraine Recovery Priorities 2025.* Kyiv: Government of Ukraine.
Ministry for Development of Economy,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2020. *Voluntary National Review: Ukraine*. Kyiv: Government of Ukrain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2023. "Ukraine Fights to Build More Resilient, Renewable Energy System in Midst of War."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nrel.gov/news/detail/features/2023/ukraine-fights-to-build-a-more-resilient-renewable-energy-system-in-the-midst-of-war.
NBC News. 2025. "State Department Terminates U.S. Support of Ukraine Energy Grid Restoration." February 28,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nbcnews.com/politics/state-department-terminates-us-support-ukraine-energy-grid-

restoration-rcna19425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4. "UNDP Launches New Project to Bolster Ukraine's Recove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Press release, August 19,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ndp.org/ukraine/press-releases/undp-launches-new-project-bolster-ukraines-recovery-and-sustainable-development-effort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2024. "UNECE and Partners Renew Commitment to Kharkiv Reconstruction at Ukraine Recovery Conference." June 11,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ukraine.un.org/en/271222-unece-and-partners-renew-commitment-kharkiv-reconstruction-ukraine-recovery-conferenc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4. "The United States Announces $60 Million to Bolster Agriculture Amid War-Time Threats in Ukraine." May 4,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said.gov/ukraine/press-releases/may-03-2024-united-states-announces-more-190-million-support-ukraines-energy-sector.

USAID Energy Security Project (ESP). 2024. "USAID Energy Security Project."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energysecurityua.org/.

USAID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2024. Direct Budget Support: Ukraine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4, Mandated Assessment. Washington, DC: USAID Office of Inspector General.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oig.usaid.gov/node/7086.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4. "USAID/Ukraine Energy Security." *ReliefWeb*.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reliefweb.int/report/ukraine/usaidukraine-energy-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2024. "Improving Food Security in Ukraine Through Demining." February 28,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2021-2025.state.gov/improving-food-security-in-ukraine-through-demining/.

Visit Ukraine. 2025. "What Does USAID Fund in Ukraine – Which Sectors Are under Threat?" January 30,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visitukraine.today/blog/5562/what-does-usaid-fund-in-ukraine-which-sectors-are-under-threat.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ropean Union, and United Nations. 2025. Ukraine: Fourth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4), February 2022–December 2024. Washington, DC: World Bank.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ukraine/brief/rapid-damage-and-needs-assessment-rdna.

5. 이라크

Blanchard, Christopher M., et al. 2023. *U.S. Foreign Assistance to the Middle East: Historical and Recent Trends and the FY2024 Request.* CRS Report R46344.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4. "Iraq."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bmz.de/en/countries/iraq.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 "Iraq."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worldwide/52758.html.

Iraqi Civil Society Solidarity Initiative. 2025. "USAID's Fall, Iraq's Call, Losses Appal." April 3, 2025.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iraqicivilsociety.org/archives/14213.

Republic of Iraq. 2019. *First National Voluntary Review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Triumph of National Will).*

Republic of Iraq. 2021. *The Second National Voluntary Review.*

Republic of Iraq. 2025. *Third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sponsible Investment… Reconstruction and Justic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2026. "Arab SDG Monitor: Iraq Country Profile." Arab SDG Gateway. Accessed April 1, 2026. https://national.unescwa.org/country-profile-new/tab.aspx?country=iraq.

U.S. Department of State. 2024. "U.S.-Iraq Higher Coordinating Committee Fact Sheet on U.S. Foreign Assistance to Iraq." April 15, 2024.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2021-2025.state.gov/u-s-iraq-higher-coordinating-committee-fact-sheet-on-u-s-foreign-assistance-to-iraq/.

USAFacts. 2025.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Iraq?"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iraq/.

World Food Programme (WFP). 2024. "USAID Funds WFP Assistance to Displaced Iraqis and Syrian Refugees in Northern Iraq."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wfp.org/news/usaid-funds-wfp-assistance-displaced-iraqis-and-syrian-refugees-northern-iraq.

6. 키르기스스탄

Asia-Pacific SDG Partnership. n.d. "Asia-Pacific SDG Partnership."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nescap.org/our-work/2030-agenda-sustainable-development/asia-pacific-sdg-partnership.

Bishkek. 2018.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8-2040.*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donors.kg/en/rs/strategy/5174-national-development-strategy-of-the-kyrgyz-republic-for-2018-2040.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20.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Kyrgyz Republic 2020.*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kyrgyzstan.un.org/en/53961-voluntary-national-review-implementation-sustainable-development-goals-kyrgyz-republic-2020.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25. *Voluntary National Review: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Kyrgyz Republic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kyrgyzstan.un.org/en/300587-voluntary-national-review-2025.

ForeignAssistance.gov. 2025.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Kyrgyz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kyrgyzstan/.

Jalolova, Sadokat. 2025. "Cuts to USAID Leave Central Asia Facing Development Challenges." *The Times of Central Asia*, May 21,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imesca.com/cuts-to-usaid-leave-central-asia-facing-development-challeng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a.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the Kyrgyz Republic.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2266.pd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2b. *Rolling Plan for Kyrgyz Republic*.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2267.p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5. "Safeguarding Kyrgyzstan's Mountain Ecosystems." April 24,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undp.org/kyrgyzstan/news/safeguarding-kyrgyzstans-mountain-ecosystems.
USAFacts. 2025.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Kyrgyz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kyrgyzstan/.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Kyrgyz Republic*.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2021-2025.state.gov/office-of-foreign-assistance/integrated-country-strategies/.
U.S. Department of State. 202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for Kyrgyz Republic*.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state.gov/reports/2025-investment-climate-statements/kyrgyz-republic/.
U.S. Embassy Bishkek. 2024a. "USAID/Kyrgyz Republic Announced Launch of $24 Million Green Solutions Activity."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kg.usembassy.gov/.
U.S. Embassy Bishkek. 2024b. "U.S. Government Supports New Partnerships in the Dairy Sector of the Kyrgyz Republic."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kg.usembassy.gov/.
외교부. 2025.『키르기즈 경제동향(2030 국가발전계획 수립)』.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mofa.go.kr/.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3.「키르기즈공화국 동향(주재국 대통령, 파리 실무 방문 결과)」.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kg.mofa.go.kr/kg-ko/brd/m_9145/view.do?seq=1347002.

7. 타지키스탄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2021. *BMZ 2030 Reform Strategy: New Thinking-New Direction.* Bon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bmz.de/resource/blob/29026/materialie520-reform-strategy.pdf.
Federal Foreign Office. 2025. "Germany and Tajikistan: Bilateral Relations." March 20,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auswaertiges-amt.de/en/

aussenpolitik/laenderinformationen/tadschikistan-node/tajikistan-228628.

FINCA. 2024. "Agriculture in Tajikistan: How FINCA Helps Resourceful Fruit Farmers Maximize Their Earning Potential." August 22,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finca.org/agriculture-in-tajikistan.

ForeignAssistance.gov. 2025.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tajikista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5.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giz.de/en/regions/asia/tajikista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16.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Period up to 2030*. Dushanb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eb.ttu.tj/uploads/strategiya_2030_en.pd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 Improving Living Standards through Mainstream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o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Tajikistan*. Dushanb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1/16021Tajikistan.pd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23. *Voluntary National Review: Green Development for Shared and Sustainable Prosperity.* Dushanb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vnrs/2023/VNR%202023%20Tajikistan%20Report.pdf.

Jalolova, Sadokat. 2025. "Cuts to USAID Leave Central Asia Facing Development Challenges." The Times of Central Asia, May 21,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imesca.com/cuts-to-usaid-leave-central-asia-facing-development-challenges/.

KfW. 2018. "KfW Supports World's Highest Hydropower Station in Tajikistan: Commissioned Following Renovation." September 13, 2018.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kfw.de/About-KfW/Newsroom/Latest-News/Pressemitteilungen-Details_488448.html.

KfW Development Bank. 2025. "Project Information: Hydropower in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Global/Asia/PI-Hydropower-Tajikist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18. "Brief Information about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ajikistan for the Period till 2030." March 1, 2018.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www.mfa.tj/en/main/view/2987/brief-information-about-the-national-development-strategy-of-tajikistan-for-the-period-till-2030.

USAFacts. 2025.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Tajikistan?"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tajikistan/.

USAID Power Central Asia. 2025. "Activity." November 26, 2025.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powercentralasia.org/en/activity/.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Tajikista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U.S. Embassy Dushanbe. 2017. "U.S. Government Launches New Feed the Future Program to Support Land Reform Efforts." February 8, 2017.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j.usembassy.gov/.

U.S. Embassy Dushanbe. 2022. "USAID Supporting 20,000 Vulnerable Households in Khatlon with Agriculture Inputs to Improve Food Security." June 3, 2022.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j.usembassy.gov/.

U.S. Embassy Dushanbe. 2023. "USAID Provides $13 Million to Address Food Insecurity in Tajikistan." February 18, 2023.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j.usembassy.gov/.

U.S. Embassy Dushanbe. 2024. "USAID Launches a New $18 Million Initiative to Boost Economic Growth in Tajikistan." April 18, 2024. Accessed February 15, 2026. https://tj.usembassy.gov/.

8. 팔레스타인

Bayoumi, Moustafa, Mari Luomi, Grayson Fuller, Aisha Al-Sarihi, Fadi Salem, and Seppe Verheyen. 2022. *Arab Region SDG Index and Dashboard Report 2022*. Dubai, Abu Dhabi, and New York: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Anwar Gargash Diplomatic Academy,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sdgtransformationcenter.org/reports/arab-

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2.

Donor Tracker. 2023. “Germany Suspends Funding to Palestine.”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donortracker.org/policy_updat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23. West Bank and Gaza Aid: USAID Generally Ensured Compliance with Anti-terrorism Policies and Addressed Instances of Noncompliance. GAO-24-1062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243.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1.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for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Train the Trainers, 2017-2021).* Eschbor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worldwide/63130.html.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3. *More Job Opportunities for Palestinian Youth (Fit for Jobs, 2015-2023).* Eschbor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worldwide/33363.html.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a. D*emand-Oriented Vocational Training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Eschbor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worldwide/95343.html.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2024b. *Support of th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System.* Eschbor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iz.de/en/projects/support-technical-and-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tvet-system.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Palestinian Government.* London. April 28, 2025.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and-palestinian-strategic-cooperation-memorandum-of-understanding/memorandum-of-understanding-on-strategic-cooperation-between-the-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and-the-palestinian-government.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2026. "DevTracker - Palestine Programmes."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devtracker.fcdo.gov.uk/countries/P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6. *UNRWA and UK Aid to the West Bank and Gaza Strip 2023 to 2026.* Research Briefing CBP-9900. London: UK Parliamen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00/.

J Street. 2025. *Dismantling USAID: Consequences for the West Bank and Gaza.* Issue Brief No. 33. Washington, DC: J Street.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jstreet.org/dismantling-usaid-consequences-for-the-west-bank-and-gaza/.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2021.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1-2023.* Ramallah: State of Palestine.

Palestinian Authority. 2024. *Build Palestine: Institutional and Economic—Key Building Blocks Towards an Independent Palestinian State.* September 2024.

Palestinian Authority, Prime Minister's Office. 2024. Draft of the First Phase of the N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Reform. Ramallah: Government Communication Center. October 22, 2024.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pmo.pna.ps/en/Article/5473/.

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CBS).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tatistical Report, 2020. *Ramallah: State of Palestine*.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pcbs.gov.ps/Downloads/book2518.pdf.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Guilherme Iablonovski. 202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2030 and Mid-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Pari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doi.org/10.25546/111909.

State of Palestine. 2018. *Palestinian National Voluntary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Ramallah: Prime Minister's Offic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25. Developments in the Economy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D/B/72/3. Geneva: United Nations.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www.un.org/unispal/document/

unctad-report-30sep25/.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4. *War on Gaza: Expected Socioeconomic Impact on the State of Palestine.*

United Nations (UN). 2023.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 work: State of Palestine 2023-2025. Jerusalem: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palestine.un.org/sites/default/files/2023-03/UNSDCF%202023-2025_Final.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17. *Governance and Civic Engagement Fact Sheet - West Bank and Gaza.*

USAID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2023. *West Bank and Gaza: USAID Did Not Document Its Justification for the Risk Mitigation Approach.* Report No. 8-294-23-003-P. Washington, DC: USAID Office of Inspector General.

World Bank. 2025. Impacts of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on the Palestinian Economy. *Economic Monitoring Report.* April. Washington, DC: World Bank. Accessed Februar y 16, 2026.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0f21311c2ebb0df4bf9b493a8034997c-0280012025/impacts-of-the-conflict-in-the-middle-east-on-the-palestinian-economy-april-2025.

Zakzak, Lama, Keertana Subramani, Mari Luomi, Grayson Fuller, Fadi Salem, and Guillaume Lafortune. 2023. *Arab Region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23.* Dubai and Paris: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sdgtransformationcenter.org/reports/arab-region-sdg-index-and-dashboards-report-2023.

Zakzak, Lama, Keertana Subramani, Mari Luomi, Grayson Fuller, Fadi Salem, and Guillaume Lafortune. 2025. *The Arab SDG Index and Dashboards 2025: Building Resilience*. Dubai and Paris: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sdgtransformationcenter.org/reports/arab-region-sdg-index-and-dashboards-report-2025.

Zakzak, Lama, Mari Luomi, Keertana Subramani, Grayson Fuller, Fadi Salem, and Guillaume Lafortune. 2024. *The Arab Region SDG Index and Dashboards 2023/2024: Towards Just Transitions in the Arab States.* Dubai and Paris: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805111.

Zakzak, Lama, Zeid Qiblawi, Mari Luomi, Keertana Subramani, Grayson Fuller, Fadi Salem, and Guillaume Lafortune. 2026. *Arab Region SDG Index and Dashboards 2026: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 Dubai and Paris: Mohammed bin Rashid School of Gover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Accessed February 16, 2026. https://dashboards.sdgindex.org/downloads/.

김태균, 문경연, 김민종, 김홍석, 정은주, 최문영, 한듬. 2026. 『202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팔레스타인 재건 및 개발협력 전략과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하경화. 2025. 『KOICA 팔레스타인 국가지원계획(CP) 평가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중남미]

1. 과테말라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n.d. “Sida’s Work in Guatemala.” Accessed March 20, 2026.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guatemala/.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1.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Guatemala 2021-2025*. Stockholm: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ccessed March 20, 2026.

United Nations (UN). n.d. “Goals: ODS16.” *National Statistical Monitoring,* Guatemala. Accessed March 20, 2026. https://pnd.gt/Home/goals?code=ODS16.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0. *Guatemal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20-202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ccessed March 20, 2026. https://coilink.org/20.500.12592/41trtkn.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Guatemala*.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March 20,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Guatemala/.

2. 도미니카공화국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Dominican Republic.” Accessed March 13,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dominican%20republic/current/obligations/.

Gobiern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025. *Meta 2036: Hacia una República Dominicana Plenamente Desarrollada*. Santo Domingo: Gobiern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d. “Dominican Republic.” *ILOSTAT*. Accessed March 13, 2026. https://ilostat.ilo.org/data/country-profiles/dom/.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5. *Marco de Asociación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República Dominicana-España 2025-2029*. Boletín Oficial del Estado, June 19, 2025.

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2025. *República Dominicana Informe Nacional Voluntario: Avances hacia el bienestar, la equidad y las alianzas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Santo Domingo: 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Montevideo Consensus Regional Monitoring Platform. n.d.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Regional Monitoring Platform*. Accessed March 13, 2026. https://consensomontevideo.cepal.org/en/indicadores/proportion-women-aged-15-49-years-who-make-their-own-informed-decisions-regardin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n.d. “Dominican Republic.” *UNICEF Data Explorer*. Accessed March 13, 2026.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DOM.PT_F_20-24_MRD_U18.&startPeriod=1970&endPeriod=2026.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Dominican Republic?” *USAFacts*. Accessed March 13, 2026.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dominican-republic/.

3. 볼리비아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21. *Informe Nacional Voluntario de Bolivia.* La Paz: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30Bolivias_VNR_Report.pdf.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Bolivia." Accessed October 27, 2025. https://foreignassistance.gov/cd/bolivi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d. "Bolivia." *ILOSTAT.* Accessed March 13, 2026. https://ilostat.ilo.org/data/country-profiles/bol/.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2. *Marco de Asociación País de Bolivia y España 2022-2025*.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y Medio Ambiente de Bolivia. 2026. *Proceso de formulación del Plan Gener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26-2035,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26-2030*. PowerPoint presentation. La Paz: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y Medio Ambiente de Bolivia.

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n.d. *Indicadores del Plan Sectorial de Desarrollo Integral de Salud 2021-2025*. La Paz: 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de Bolivia.

4. 에콰도르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n.d. "Ecuador." Accessed January 19, 2026. https://www.afd.fr/en/page-region-thematique/ecuador.

French Embassy in Ecuador. n.d. "La France en Équateur." *Ambassade de France en Équateur*. Accessed January 19, 2026. https://ec.ambafrance.org/.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024. *Examen Nacional Voluntario Ecuador.* Quito: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United Nations (UN). n.d. "National Statistical Monitoring SDG Country Profile Based on Official Data: Ecuador." *SDG Statistical Fact Sheet Country Profile*. Accessed January 15, 2026.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countryprofiles/ec.

U.S. Department of State. 2022. *Integrated Country Strategy 2021-2025: Ecuador.*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January 19, 2026.

U.S. Department of State. 2025. "U.S. Relations With Ecuador." *2021-2025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Accessed January 19, 2026. https://2021-2025.state.gov/u-s-relations-with-ecuador/.

5. 엘살바도르

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El Salvador. 2025. *Informe Nacional de la III Revisión Nacional Voluntaria del Proceso de Implementación de los Objetivos Estratégicos de Desarrollo.* San Salvador: Consejo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El Salvador.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El Salvador." Accessed March 22, 2026. https://foreignassistance.gov/cd/el%20salvador/.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2023. *Marco de Asociación País de El Salvador y España 2023-2026.* Madrid: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U.S. Department of State. n.d. "El Salvador." Accessed March 22, 2026. https://www.state.gov/countries-areas/el-salvador/.

6. 콜롬비아

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2023. *Estrategia Nacion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CI 2023-2026. Bogotá: 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n.d. "Colombia."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November 18, 2025. https://www.bmz.de/en/countries/colombia.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2024. *Reporte Nacional Voluntario 2024*. Bogotá: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n.d. "Colombia." Accessed November 18, 2025. https://www.giz.de/en/regions/latin-america-caribbean/colombia.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n.d. "Statistical

Profile: Colombia." *The 2030 Agenda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ccessed November 2, 2025. https://agenda2030lac.org/estadisticas/statistical-profile.html?country=col.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Colombia." Accessed October 27, 2025. https://foreignassistance.gov/cd/colombia/.

JoongAng Ilbo. 2025. "Trump: 'Colombia Encourages Drug Production to Destroy the United States… Aid Payments Suspended.'" *JoongAng Ilbo*, November 5, 2025.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98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5.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Colombia." OECD. Accessed March 1, 2026.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colombia_32c7d65f-en.html.

USAFacts. n.d. "How Much Foreign Aid Does the US Provide to Colombia?" *USAFact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usafacts.org/answers/how-much-foreign-aid-does-the-us-provide/countries/colombia/.

7. 파라과이

Embajada de Japón en la República de Paraguay. n.d. "Relaciones Bilaterales y Asistencia Económica." *Embajada de Japón en la República de Paraguay.* Accessed November 19, 2025. https://www.py.emb-japan.go.jp/relaciones-bilaterales-asistenciaeconomica.html.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Paraguay." Accessed October 27, 2025. https://foreignassistance.gov/cd/paraguay.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n.d.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ODS Paraguay Platform.* Accessed March 13, 2026. https://ods.ine.gov.py/.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n.d. "Principal Programs and Priority Areas." Accessed November 19, 2025. 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paraguay/activities/activity01.htm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raguay. 2021. *Segundo Informe Nacional Voluntario.* Asunción: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raguay.

United Nations (UN). n.d. "National Statistical Monitoring SDG Country Profile Based

on Official Data: Paraguay." *The 2030 Agenda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ccessed November 25, 2025. https://agenda2030lac.org/estadisticas/sdg-statistical-profile.html?country=pry.

U.S. Department of State. 2025. "Paraguay." *2021-2025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Accessed November 18, 2025. https://2021-2025.state.gov/countries-areas/paraguay/.

8. 페루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n.d. "Peru."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essed November 19, 2025. https://www.bmz.de/en/countries/peru.

Centro Nacional de Planeamiento Estratégico (CEPLAN). 2024. *Peru: Informe Nacional Voluntario sobre la implementación de la Agenda 2030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Lima: Centro Nacional de Planeamiento Estratégico.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n.d. "Peru." Accessed November 19, 2025. https://www.giz.de/en/regions/latin-america-caribbean/peru.

ForeignAssistance.gov. n.d. "U.S. Foreign Assistance by Country: Peru." Accessed October 27, 2025. https://foreignassistance.gov/cd/peru.

부록. SDGs 목표별 세부 지표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 빈곤퇴치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1.2	각 국가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 및 시행하는 지자체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중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2. 기아종식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2.2.4	인구집단별 최소 식이 다양성 충족률 (생후 6~23개월 아동과 15-49세 비임신 여성)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a)식물과 (b)동물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지역 및 초국경 품종의 비율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2.a.2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3. 건강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모성사망비를 출생아 십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사망비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천 명당 최소 25명 이하로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
		3.4.2	자살률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하여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및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범위
		3.8.2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예산의 40%를 초과하는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인구 비율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 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3.b.2	기초보건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액
		3.b.3	보건상품 접근 지수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을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4. 양질의 교육 보장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4.4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4.6.1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율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4.7.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12.8.1/13.3.1과 동일)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 유형별)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4.b.1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5. 성평등달성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정책의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촉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5.1	(a)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 (b)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5.5.2	여성 관리자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사용(특히 ICT) 강화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개도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을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두 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2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8.9.2	관광산업 종사자 수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들과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9.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9.1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a) 국제분류와 (b) 국가분류에 의거한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의 비율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함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백만 명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모바일네트워크 사용 인구 비율(기술별)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0.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10.4.2	재정정책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10.a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 지원, 직접투자 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ODA, FDI, 기타 재원 등)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1.5.3	재난으로 인한 중요 사회기반 시설 손상 및 기초서비스 중단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인당)을 감소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a) 인구다양성, (b) 토지균형개발, (c) 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 및 시행하는 지자체 비율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11.c.1	도시 기반시설 또는 도시 기반시설 사업 지원을 위한 총 공적개발원조 및 기타공적자금(부문별)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4.7.1/13.3.1과 동일)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12.c.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하여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13. 기후변화 대응			
13.1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 및 시행하는 지자체 비율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처에 제출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4.7.1/12.8.1과 동일)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동원 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처에 제출한 국가의 수
14. 해양생태계 보존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구역의 비율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15. 육상생태계 보호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14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국가회계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현 미국달러화 기준)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을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17. 글로벌 파트너십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수출(재화, 서비스 및 본원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지원하는 총 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공적개발원조(ODA) 금액(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번호	세부목표	세부지표 번호	세부목표별 지표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추는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 "지표누리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ccessed 13 August, 2026. 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

연구교육 2026-02-238

협력국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국가를 중심으로

발 행 2026년 7월
발 행 인 장원삼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교육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69-651-4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6-02-238

978-89-6469-651-4 93320

협력국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국가를 중심으로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s://www.koic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